

용역보고서 2023-84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672-12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김혜수·정찬우·김세진·이선희·주보혜·황남희·김경래·이혜정·최경덕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Ⅰ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찬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경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경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3. 5. 12.)한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요약	1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1
제2절 조사방법과 자료처리	33
제3절 표본설계	50
제4절 응답자 일반특성	69
제2장 노인실태조사 연혁 및 조사 내용	79
제1절 노인실태조사 연혁 및 주요 변화	81
제2절 2023년 조사표 설계의 기본방향 및 구성	84
제3장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137
제1절 건강상태	139
제2절 건강행태	160
제4장 노인의 기능상태와 돌봄	185
제1절 신체 및 인지 기능	187
제2절 돌봄 실태	219
제5장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245
제1절 사회적 관계망의 규모와 특성	247
제2절 노인의 가구 유형별 특성	259
제3절 배우자와의 관계	274
제4절 자녀와의 관계	278
제5절 손자녀와의 관계	287
제6절 친인척 및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	291



제6장 노인의 지원 교환 실태 299

제1절 배우자와의 지원 교환 실태	301
제2절 동거 자녀와의 지원 교환 실태	308
제3절 비동거 자녀와의 지원 교환 실태	317
제4절 노인의 부모와의 지원 교환 실태	329
제5절 손자녀 돌봄 실태	339
제6절 주요 지출 항목의 지출 주체	343
제7절 노년기 부양에 대한 태도	351

제7장 노인의 경제상태 357

제1절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359
제2절 자산과 부채	379
제3절 가구지출과 개인지출	387
제4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96

제8장 노인의 경제활동 399

제1절 경제활동 참여실태	401
제2절 최장기 종사 직종	429
제3절 향후 경제활동 의사	437
제4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및 욕구	446

제9장 노인의 사회활동 457

제1절 여가활동	459
제2절 사회참여활동	473
제3절 여가문화시설 이용	505
제4절 정보화 현황	530



제10장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545
제1절 주거 및 지역환경	547
제2절 안전 실태	607
제3절 연령 규범 및 연령 차별	616
제4절 웰다잉(well-dying) 인식 및 죽음 관련 준비	621
제5절 삶의 만족도	640
제6절 노인정책에 대한 인식과 사회 신뢰수준	650
제11장 결론	669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671
제2절 건강과 기능상태	673
제3절 가족 및 사회적 관계	681
제4절 경제상태	686
제5절 경제 및 사회활동	688
제6절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692
참고문헌	699
부록	701
[부록 I]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결과	701
[부록 II] 주요 조사항목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703
[부록 III] 시·도별 분석표	711
[부록 IV]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표	828
[부록 V]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표: K-MMSE~2	864
[부록 VI]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구	868
[부록 VII] 자문위원 명단	887



요약

I. 조사 개요

□ 노인실태조사 실시 근거

-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조사로 2007년 법제화 이후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수행되었으며, 2023년 노인실태조사는 여섯 번째 조사로 실시함.

□ 조사의 목적

- 노인의 건강, 가족 및 사회관계, 경제 및 사회활동, 경제상태, 그리고 주거환경을 포함한 생활 현황 전반에 대한 실태와 욕구를 조사함.
- 시계열적 자료 축적을 통해 노인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새롭게 노인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초고령 노인 등과 같은 하위 인구 집단의 특성과 다양한 노년기 이슈를 파악함.
- 노년의 삶의 질 개선과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 및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조사 설계 및 실시

-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는 기존에 실시된 노인실태조사와의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시계열 유지를 위한 조사 항목을 구성하되,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노인의 생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을 신규로 개발하고, 시의성이나 활용도가 낮은 문항은 통합 또는 삭제함.
- 국가통계승인 및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의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에 대해 통계청 통계변경 승인 완료(승인번호 제117071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결과 통지서 제2023-078호)
- 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하여 조사원 교육을 받은 면접조사원 176명

이 TAPI(Tablet-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일대일 직접 면접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23년 9월 4일~11월 12일임.

- 설계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977개 조사구, 7,605가구, 10,178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일부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556가구의 10,078명(대리응답 123명 포함)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함.

□ 응답자의 일반특성

- 남자 노인은 43.9%, 여자 노인 56.1%이며, 연령군별 분포는 65~69세 34.5%, 70~74세 23.6%, 75~79세 17.3%, 80~84세 14.0%, 85~89세 8.2%, 90세 이상 2.5%로 평균 연령은 74.1세임.
-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가 31.2%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졸업 28.2%, 중학교 졸업 21.2%, 무학 12.3%, 전문대학 졸업 이상 7.0%임.
- 가구형태를 보면, 부부가구가 55.2%로 가장 많고, 독거가구 32.8%, 자녀동거 가구 10.3%, 기타 가구 1.7%이며, 평균 가구원 수는 1.8명임.
- 지역별로는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은 73.9%,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은 26.1%로 나타남.
- 시·도별 응답자 비율을 보면, 경기도 22.0%, 서울특별시 17.8%, 경상남도 6.8%, 경상북도 6.6%, 인천 5.1%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음.

II. 주요 연구결과

1.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가. 건강상태

□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노인이 43.2%(매우 건강+건강)이었으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노인이 22.1%(전혀 건강하지 않음+건강하지 않은 편임)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음.

○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2.7%, 건강한 편이다 40.5%, 보통이다 34.7%,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9.5%, 전혀 건강하지 않다 2.6%임.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앓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노인의 86.1%이며,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음.

○ 만성질환 1개 22.1%, 만성질환 2개 28.1%, 만성질환 3개 이상 35.9%임.

－ 연령군별 만성질환 유병률은 65~69세 78.6%, 70~74세 87.2%, 75~79세 90.5%, 80~84세 92.8%, 85~89세 92.0%, 90세 이상 92.3%로 7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1개 이상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 비율이 90%를 초과함.

○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률을 보면, 고혈압이 5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지혈증 28.9%, 당뇨병 27.7%, 골관절염 또는 류마티즘 관절염 16.2%, 골다공증 11.1%, 요통 또는 좌골신경통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GDS)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측정한 결과 전체의 11.3%가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자 노인의 9.7%, 여자 노인의 12.5%가 우울증상이 있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우울증상이 있는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65~69세 노인 중 우울증상이 있는 비율은 6.7%이지만,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20%를 초과함.

- 현재 3개월 이상 의사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노인의 83.8%임.
 - 의사처방약 1~2종류를 복용하는 노인은 52.5%, 3~4종류를 복용하고 있는 노인은 26.0%, 5종류 이상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은 5.3%이며, 노인이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의 종류는 평균 2.0 종류임.
- 지난 1개월 동안 병원, 의원, 보건(지·진료)소, 한의원, 치과 등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68.8%이며, 평균 방문 횟수는 1.5회임.
 - 지난 1년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0.2%이며,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5.2%임.
 - －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에 입원한 횟수는 평균 1.3회, 입원 일수는 평균 17.3일로 나타남.

나. 건강행태

- 흡연, 음주, 운동 실천을 중심으로 노인의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함.
 - 노인 중 현재 흡연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9.4%, 과거에는 흡연을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28.1%, 평생 흡연한 적이 없다는 62.5%임.
 - 지난 1년간 음주 실태를 보면, 응답 노인의 62.7%가 최근 1년간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37.3%는 술을 마셨다고 응답함. 음주한 노인 중 적정 음주(1주일에 7잔 이하) 비율은 29.5%이고, 과음주(1주일에 7잔 초과) 비율은 7.8%임.
 - 평소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52.8%이며, 권장 수준(1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경우는 38.3%, 권장 수준에 미달하는 비율은 14.5%임.
- 노인의 영양관리 상태는 65.0%는 양호한 수준이고, 25.4%는 영양관리 주의가 요구되는 수준이며, 9.6%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영양관리 개선이 요구되는 비율은 여자 노인이 10.4%로 남자 노인 8.5%보다 높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영양상태가 양호한 비율이 낮아지고,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난 2년간 77.7%의 노인이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지난 2년간 치매검진을 받은 노인은 전체 노인의 35.9%임.
- 지난 1년간 병원(치과 제외) 진료가 필요했지만,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는 노인은 1.8%,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한 노인은 3.4%로 나타남.
- 병원 미치료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거동이 불편해서(동행할 가족이 없어서) 26.4%, 진단받거나 치료받는 것이 두려워서 11.7%, 교통이 불편해서 9.6%, 병원 예약이 힘들거나 진료받기 위한 대기 기간이 길어서 8.6% 등임.
- 치과 미치료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62.4%, 진단받거나 치료받는 것이 두려워서 15.2%, 거동이 불편해서(동행할 가족이 없어서) 7.6%, 시간이 없어서 4.9% 등으로 나타남.

2. 노인의 기능상태와 돌봄

가. 신체 및 인지기능

- 노인의 44.4%는 시력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8.3%는 청력 보조기를, 25.0%는 저작 기능(씹기)을 위한 보조기(의치), 그리고 11.0%는 이동이나 보행을 위한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음.
- 노인의 4.6%가 노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노쇠(노쇠 전 단계) 32.2%, 비노쇠(건강) 63.2%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노쇠 상태를 보면, 남자 노인(2.8%)보다는 여자 노인(5.9%)이 노쇠인 비율이 높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쇠 단계인 비율이 증가하여 90세 이상 노인의 14.4%가 노쇠 상태였으며, 비노쇠 단계에 있는 90세 이상 노인은 21.4%에 불과함.

- 7개의 ADL 항목과 10개의 IADL 항목에 기초하여 파악한 기능상태를 살펴보면, 노인의 81.4%는 기능 제한이 전혀 없지만, 9.8%는 IADL만 제한을 경험하고 있으며, 8.7%는 ADL의 제한까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체적 자립도는 감소하여 85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일상생활수행능력까지 제한 있는 비율이 20%를 초과하며, 90세 이상 노인의 44.3%는 ADL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K-MMSE~2 표준형을 활용하여 인지기능을 측정한 결과, 노인의 24.6%가 인지저하자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65~69세의 인지저하 비율은 22.7%이지만, 8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인지저하자 비율이 30% 안팎을 차지함.

나. 돌봄 실태

- 신체적 기능 저하자(IADL 또는 IADL 항목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서 부분 도움이나 완전도움 필요자) 중 47.2%가 돌봄을 받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돌봄을 받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돌봄제공자는 동거가족 49.6%, 비동거가족 46.5%, 장기요양보험서비스 30.7%, 친구·이웃·지인 20.0% 등임.
- 신체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유형별 도움을 받는 비율을 보면, 가사 지원(청소, 빨래 등)이 88.3%, 식사 준비 도움이 84.5%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목욕이나 세안 등의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도움을 받는 비율은 58.6%에 불과함.
- 돌봄제공자는 배우자, 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족 등에 의해 보호를 받는 노인의 도움 충분성에 대한 응답으로 충분하다(매우 충분+충분)는 49.4%, 보통 32.2%, 부족하다(부족+매우 부족)는 18.3%임.

- 신체적 기능 제약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도움이 필요 없어서 55.3%,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20.8%,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12.7%, 비용이 부담돼서 6.3%,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이 싫어서 3.1%, 도움받는 방법을 알 수 없어서 1.8%로 나타남.
-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률은 4.5%이며, 가장 최근에 받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은 4등급인 노인이 3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등급 22.5%, 없음(기각, 각하 등) 15.2%, 5등급 13.4%, 등급외 4.9%, 2등급 3.5% 등의 순서임.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방문요양 이용률이 73.7%로 가장 높으며, 방문목욕 24.3%, 방문간호 8.7%, 주야간보호 30.3%, 단기보호 1.8%, 복지용구 13.9%를 차지함.
- 남자 노인은 여자 노인에 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의 이용률이 높으며, 여자 노인은 남자 노인보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이용률이 높은 편임.
- 8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방문요양 이용률이 70%를 상회하고, 9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방문목욕 이용률(36.6%)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65~69세 연령대에서는 주야간보호 이용률(40.8%)이 상대적으로 높음.
- 독거가구의 방문요양 이용률이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구에서는 주야간보호 이용률이 40.3%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높은 수준임.

3.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가. 사회적 관계망 규모와 특성

- 노인의 대부분인 94.0%는 자녀가 있고 평균 자녀 수는 2.7명이며, 손자녀가 있는 노인은 85.5%로 평균 손자녀 수는 4.4명임.
- 형제자매가 있는 노인은 77.7%로 평균 형제자매 수는 2.8명이며, 친한 친구·이웃·지인이 있는 노인은 89.4%이며 평균 3.7명으로 나타남.

- 떨어져 사는 자녀가 있는 노인 중 88.6%는 필요시 연락 가능한 자녀가 있고 그 규모는 약 2.6명으로 응답함. 약 10% 내외의 노인은 자녀와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정서적 지원 92.0%, 도구적 지원 85.2%, 경제적 지원 63.0% 순으로 나타남.

○ 관계망의 규모는 정서적 지원 2.5명, 도구적 지원 2.1명, 경제적 지원 1.8명 순으로 나타나, 제공 가능한 도움의 유형과 사회적 관계망의 강도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함.

나. 노인의 가구 유형별 특성

□ 전체 조사대상 노인의 가구 유형별 분포는 부부가구 55.2%, 독거가구 32.8%, 자녀 동거가구 10.3%, 기타 가구 1.7% 순으로 상당수의 노인이 노인 단독가구로 생활하고 있음.

□ (단독가구) 현재의 거주 형태를 택한 이유로는 자녀의 결혼과 같은 가족 구성원 변화가 24.3%로 주된 이유를 차지함. 다음으로 ‘개인 또는 부부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기 싫어서’가 각각 21.4%이며,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13.6%, ‘건강해서’ 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즉, 단독가구 선택에서 노인 개인 차원의 욕구 및 특성(경제적 능력, 건강상태, 개인/부부생활 향유 욕구, 익숙한 지역 선호)에 기인한 응답이 65.9%에 달하며, 자녀의 사회적 상황(결혼, 직업, 학업 등)에 기반한 이유는 약 1/3을 차지

○ 단독가구의 어려움으로는 42.3%가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 이외 주된 어려움으로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음 25.2%, 경제적 불안감 11.5%, 일상생활 문제 처리하기 어려움 10.6% 등을 지적

- (자녀동거가구) 자녀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해서’와 같은 규범적 요인에 의한 동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기혼 35.3%, 미혼 44.0%).
- 단, 기혼자녀 동거가구는 노인 단독가구의 외로움(17.0%), 본인 또는 배우자를 수발(16.7%), 노인의 경제적 능력 부족(14.5%) 등과 같은 노인의 개인적 필요에 따른 응답이 높은 반면, 미혼자녀 동거가구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14.8%), 자녀에게 도움 제공(9.3%) 등과 같은 자녀의 상황적 요인에 의한 동거 선택 비율이 상대적 우위를 차지함.

다. 주요한 사회적 관계망과의 관계 및 교류(왕래/연락)

- (배우자) 유배우 노인의 17.5%가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하였으며, 12.1%는 배우자와의 생활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갈등의 원인으로는 배우자의 성격 및 사고방식 차이 51.8%, 배우자의 생활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26.8%, 본인 또는 배우자의 수발 문제 7.1%, 경제적 문제 6.7% 등의 순으로, 배우자의 성격 및 사고방식, 생활방식, 가사분담 방식과 관련한 갈등이 대다수(82.1%)를 차지
- (자녀) 자녀와 갈등을 경험하는 노인은 3.1%이며, 주된 갈등의 원인은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 또는 생활상의 지원과 관련한 문제가 44.5%, 노인의 수발 및 경제적 지원 문제가 33.2%로 노인-자녀 간 의존 및 생활방식 차이가 대다수임.
- 떨어져 사는 자녀 중 접촉이 가장 많은 자녀와의 교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은 22.7%이고, 연락하는 비율은 64.9%로 나타남.
- (손자녀) 떨어져 사는 손자녀와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하며, 월 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은 46.8% 수준으로 자녀와 비교 시 낮은 수준임.
- (형제자매 및 친인척) 노인의 56.8%는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 월 1회 미만으로 왕래하고 있으며, 21.9%는 지난 1년간 왕래가 없었다고 응답함.

○ 연락 빈도는 월 1회 미만(40.3%), 월 1회(17.3%) 등의 순으로 왕래 빈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친구·이웃·지인) 노인의 59.7%는 친구·이웃·지인과 주 1회 이상 만남을 유지

○ 연락 빈도에 있어서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락한다는 비율이 64.5%로 타 관계망과 비교하여 가장 활발한 수준임.

4. 노인의 지원 교환 실태

□ 노인의 주요한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지원 교환 및 가정 내 지출의 지불 방식 등을 파악함으로써, 노인이 가정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의 변화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함.

□ 우선 배우자가 있는 노인 중 88.9%는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84.6%는 배우자에게 같은 형태의 지원을 제공

○ 도구적 지원은 75.5%의 노인이 배우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69.1%는 이를 제공함. 돌봄 지원은 58.1%가 배우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55.1%가 배우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양상을 보임.

－ 노인과 배우자 간에 정서적, 도구적, 돌봄 지원을 통한 상호 지원 경향이 명확하며, 특히 정서적 지원이 가장 활발함.

□ 함께 사는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91.0%이며, 제공하는 비율은 81.5%로 나타남.

○ 가사지원과 같은 도구적 지원은 75.8%가 받고 69.3%가 제공하며, 돌봄 지원은 63.2%가 받고, 34.0%가 제공함.

○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수혜율은 현금 지원 77.0%, 현물지원 71.2%로 나타난 반면, 제공률은 각각 35.2%, 37.1%로 제시됨.

－ 동거 자녀와의 교류에 있어서도 정서적, 도구적 지원이 빈번히 이루어지며, 돌봄 지원 및 경제적 지원은 주로 자녀가 노인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

□ 떨어져 사는 자녀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은 82.7%에 달하며, 제공은 65.5%로 비동거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대 및 상호작용이 존재함.

○ 도구적 지원은 35.1%가 자녀로부터 받고 16.9%가 제공하며, 돌봄 지원을 받는 비율은 33.9%, 제공하는 비율은 12.4%로 나타남.

○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유사한 비율로 현금 및 현물 지원을 받고 있으며 (68.2%, 68.3%), 제공률은 현금 지원이 26.9%, 현물 지원이 36.3%로 나타남.

－ 동거 자녀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지원 수준이 낮고, 특히 물리적 장소에서 직접적 활동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구적 지원이나 돌봄 지원에서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짐.

□ 노인이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44.1%, 제공 비율은 66.5%임.

○ 도구적 지원은 15.4%가 받고 43.7%가 제공하며, 돌봄 지원은 8.5%가 받고 33.9%가 제공함.

－ 대체로 노인이 그들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 교환이 진행됨.

○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 노인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일부 받고 있으며(16.9%, 18.0%), 제공률은 현금 지원이 48.9%, 현물 지원이 49.8%로 비슷한 규모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노인은 전체의 5.2%이며, 평균적으로 2.6명의 손자녀를 돌본 것으로 응답함.

○ 지난 1년간 손자녀 돌봄 경험이 있는 노인 중 지난 일주일간 돌봄 경험이 있는 비율은 24.8%이며, 이들 중 대다수(79.4%)는 비동거 손자녀에 대한 돌봄을 제공

－ 지난 일주일간 평균 4.1일, 하루 평균 약 3.9시간을 손자녀 돌봄에 할애함.

□ 노인의 주요 지출항목인 생활비, 의료비, 간병돌봄비를 중심으로 분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생활비는 거의 모든 노인이 지출 경험이 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한다는 응답이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의료비는 전체의 95.3%가 의료비 지출 경험이 있고, 65.6%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불하며, 다음으로 본인(배우자)이 부담하되 자녀가 일부 보조한다는 응답이 19.3% 등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를 통한 지출이 주를 차지
- 간병돌봄비는 전체의 22.0%가 지출 경험이 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한다는 응답이 11.2%, 본인(배우자)이 부담하되 자녀가 일부 보조한다는 응답이 6.0% 등으로 나타남.
- 노년기 부양 가치관을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선호와 노후 생활비 마련 방안을 중심으로 파악함.
 - 노부모 부양과 관련한 노인의 태도를 살펴본 결과, 노인의 25.1%는 자녀와 동거해야 한다고 응답함.
 - 동거 시 선호하는 자녀로는 형편이 되는 자녀 42.3%, 마음이 맞는 자녀 24.9%, 장남 19.0%, 장녀 6.0% 등의 순으로 나타나 노인-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함.
 -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45.0%는 본인 스스로, 25.1%는 본인과 사회보장제도, 23.5%는 사회보장제도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노인들이 스스로 노후의 자립성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5. 노인의 경제상태

- 노인가구의 연 총소득은 3,468.6만 원이고,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29.3%이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적이전소득 25.9%, 사업소득 24.5%, 사적이전소득 8.0% 등의 순임.
- 금액으로는 근로소득 1,015.9만 원, 공적이전소득 897.1만 원, 사업소득 849.8만 원, 사적이전소득 279.1만 원, 재산소득 231.2만 원, 사적연금소득 169.6만 원임.

- 노인 개인소득의 경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소득원은 사적이전소득으로 78.8%이며, 다음이 기초연금 72.0%, 공적연금 44.4%이며, 이외에도 근로소득 28.2%, 사업소득 23.1%, 재산소득 13.8% 등임.
- 노인의 연간 개인소득은 2,163.7만 원이고,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연 개인소득의 2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금액으로는 공적이전소득 578.3만 원, 사업소득 562.8만 원, 근로소득 504.3만 원, 사적이전소득 199.8만 원, 재산소득 170.9만 원 등의 순임.
- 개인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7%임.
- 노인가구의 자산을 살펴보면 전체의 97.0%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그 규모는 3억 1,817.3만 원 수준임.
- 금융자산은 75.1%가 보유하고 있으며 규모는 4,912.3만 원, 기타자산은 38.1% 수준이며 규모는 834.6만 원임.
- 자산을 보유한 노인 기준으로 평균 자산규모는 부동산 자산 3억 2,789.5만 원, 금융자산 6,542.2만 원, 기타 자산 2,190.4만 원임.
- 노인가구의 20.4%가 부채를 갖고 있고 평균 부채 규모는 1,135.7만 원이며, 부채를 보유한 노인들의 평균 부채 규모는 5,583.2만 원임.
- 가구 소비지출액은 월평균 162.3만 원이며,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과 남자 노인, 유배우 노인, 취업 노인에게서 소비지출액이 더 많음.
- 또한, 가구소득별로 중위소득 150% 이상 노인의 경우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221.7만 원인 반면, 중위소득 50% 미만의 경우는 119.0만 원에 불과함.
- 노인가구가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으로는 식비가 4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주거관련비 25.7%, 보건의료비 8.3% 등임.
- 노인의 6.5%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임.

6. 노인의 경제활동

가. 현재의 경제활동 참여실태

-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은 39.0%이며, 응답자의 47.1%는 과거 일을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으며, 13.9%는 평생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종사 직종을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3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0.3%임.
 - 그 외 서비스종사자 14.4%, 판매종사자 12.5%, 기능원 및 관련 직종 7.0%, 관리자 5.6% 등임.
- 현재 일하고 있는 노인 중 일의 내용을 범주화하여 살펴보면, 농림축산어업이 24.5%로 가장 많고, 경비·수위·시설관리 관련 업무 18.1%, 운송·건설 관련 16.2%, 가사·조리·음식 14.3%, 공공·환경 관련 업무 5.9% 등의 순임.
-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가 37.3%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임시근로자 22.2%, 상용근로자 17.2%, 무급가족종사자 8.3%, 일용근로자 7.9% 등의 순임.
- 현재 임금근로 노인의 근무환경 인식을 살펴보면, 타 연령대와의 의사소통 및 협력의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은 10.1%, 노인 차별적 분위기를 인지하는 노인은 8.3%, 건강에 위대한 작업환경이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12.2%, 건강에 위대한 업무내용이라고 느끼는 노인은 10.7%로 파악되었음.
- 이에 반해 63.0~70.3%의 노인은 근무환경 인식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됨.
- 노인의 주당 근무일수는 주 5일이 42.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주 6일 25.7%, 주 3일 17.6%, 주 7일 6.7%, 주 4일 5.7% 등의 순임.

- 주당 근무시간은 40~50시간 미만 근무한다는 노인이 29.3%로 가장 많았으며, 10시간 미만 근무 28.1%, 50시간 이상 13.9%, 30~40시간 미만 11.3% 등임.
- 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평균 192.4만 원으로 250만 원 이상이 3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만 원 미만 25.6%, 200~250만 원 미만 14.5%, 150~200만 원 미만 10.7%, 50~100만 원 미만 8.3%, 100~150만 원 미만 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직업에 종사한 기간은 30년 이상 28.0%, 5년 미만 23.9%, 10~20년 미만 18.1%, 5~10년 미만 15.9%, 20~30년 미만 14.1%임.
- 현재 일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7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용돈 마련 6.9%, 건강 유지 6.2%, 능력(경력) 발휘 3.6%, 시간 보내기 3.1% 등임.
-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67.1%(만족 60.1%, 매우 만족 7.0%)는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28.6%,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4.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1%임.
- 불만족 사유와 관련하여 낮은 급여 수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47.2%), 다음으로 건강상태와 맞지 않음 19.3%, 일의 내용에 대한 불만족 16.5%, 불안정한 일자리 11.6%로 나타남.

나. 최장기 종사 직종

- 노인이 가장 오래 일했던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 20.5%이며, 다음으로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6.9%, 서비스종사자 15.3%, 판매종사자 13.0%, 기능원 및 관련 직종 종사자 11.1%, 관리자 8.3% 등으로 나타남.
- 최장기 직업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38.9%, 자영업자가 29.6%, 임시근로자 9.4%, 무급가족종사자 9.2%, 일용근로자 6.6%, 고용주 6.3%임.

- 최장기 직종에서의 종사 기간은 20~30년 미만 25.0%, 30~40년 미만 22.9%, 10~20년 미만 22.8%, 40년 이상 16.2%, 5~10년 미만 9.1%, 5년 미만 4.0%로 나타남.
- 최장기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가 35.6%로 가장 높으며, 정년 퇴직이 25.5%,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휴업으로 인한 퇴직 13.5%, 가사문제 8.9%, 근로조건이나 환경 8.5% 등임.
- 최장기 직종 퇴직 후 다른 일자리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0.6%임.

다. 향후 경제활동 의사

- 노인의 58.1%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41.9%는 일을 하고 싶어함.
- 앞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6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강유지 13.4%, 용돈 필요 9.2%임.
- 향후 일을 계속하고 싶은 노인(현재 경제활동 참여자 포함)이 희망하는 주당 근무 시간은 5일이 61.0%로 가장 높으며, 3일이 20.8%, 4일 7.5%, 6일 7.4% 등의 순임.
- 주당 희망 근로시간은 40~50시간 미만이 28.5%로 가장 높으며, 10시간 미만 23.6%, 30~40시간 미만이 19.1%, 20~30시간 미만 13.1%, 10~20시간 미만 12.1%, 50시간 이상 3.7%임.
- 향후 희망하는 월평균 근로소득은 평균 188.2만 원으로 50만 원 미만이 12.0%, 50~100만 원 미만 14.6%, 100~150만 원 미만 12.9%, 150~200만 원 미만 10.5%, 200~250만 원 미만 17.3%, 250만 원 이상 32.7%로 나타남.
-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노인 중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23.8%였으며, 주된 구직활동 방법은 취업센터 의뢰 61.4%, 개인 인맥 의뢰 27.9%임.

-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정식 사업명칭: 노인사회활동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6.7%, 참여한 적이 있는 노인은 4.1%, 사업에 신청했으나 참여하지 못한 노인은 5.5%, 아예 신청한 적이 없는 노인은 83.8%임.
- 현재 참여 노인의 85.6%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형 사업단 3.3%, 취·창업형 사업단 5.9%, 사회서비스형 5.2%임.
- 전체 노인의 22.5%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나머지 77.5%는 참여할 의향이 없음.
- 참여하고 싶은 사업유형으로는 공익활동이 5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회서비스형 25.4%, 취·창업형 10.9%, 시장형 사업단 7.6%임.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1+2순위)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가 3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36.4%, 자격요건이 안될 것 같아서 24.8%,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24.7% 등임.

7. 노인의 사회활동

- 노인의 95.3%는 기존의 기기(텔레비전, 라디오 등)를 활용하여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를 하며, 1일 평균 3.9시간 사용
- 최근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TV·유튜브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는 43.7%의 노인들이 하고 있으며, 이들은 1일 평균 1.3시간 사용
- 노인의 81.3%는 TV·유튜브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를 제외한 여가활동에 참여
- 여가활동 내용 중 휴식활동의 비율이 96.5%로 가장 높으며, 사회 및 기타활동 43.2%, 취미오락활동 39.1% 등의 순임.
- 세부 항목별로는 산책 55.9%, 기타 휴식활동(목욕, 사우나, 낮잠 등) 32.1%, 가족 및 친지방문과 같은 그 외 사회활동(가족 및 친지방문, 친구만남 등) 26.6%, 종교활동 10.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24.2%,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21.3%, 시간이 없어서 18.3%, 건강이 좋지 않아서 14.2% 순으로 나타남.

□ 교육 및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3.3%이며, 참여 노인은 월평균 5.3회, 7.4시간을 교육 및 학습활동에 참여

- 교육 및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교육 내용은 스포츠 교육으로 37.4%가 참여하며, 다음으로 건강 및 노화 이해 교육 30.5%, 문화예술 교육 26.8%, 정보화 교육 11.7%, 노인복지정책 교육 8.5%, 경제교육 7.0% 등의 순임.

- 이들은 시·군·구·읍·면·동(29.8%), 노인복지관(28.1%), 경로당(21.0%), 평생교육센터(14.2%), 민간문화교육기관(9.8%), 종교기관(5.0%) 등의 기관을 통해 교육 및 학습활동에 참여하며 26.7%는 온라인 강의 등 매체 활용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2.5%로, 월평균 2.2회, 4.6시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 이들의 자원봉사활동 영역은 사회복지 영역이 56.2%로 가장 많으며, 환경보호 17.5%, 교통질서 13.2%, 문화체육 9.0%, 교육활동 2.2%, 보건의료 1.9% 등의 순임.

- 자원봉사활동의 숙련도 수준을 살펴보면, 단순노력봉사의 비율이 88.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취미(교육)등으로 습득한 지식/기술 활용(준전문자원봉사) 8.1%, 직업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 활용(전문자원봉사) 3.0% 순임.

- 자원봉사활동 참여 노인들은 지자체 및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비율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기관 26.8%, 복지기관 11.0%, 경로당 10.6%, 민간 및 비영리단체 9.3%의 순이며, 연계 기관 없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비율도 12.5%로 나타남.

□ 노인의 사회단체활동은 친목(단체)활동이 54.2%로 가장 높으며, 동호회 6.6%, 정치사회단체 1.3% 순임.

○ 사회단체활동 중 동호회와 친목단체는 월 1회 참여율이 41.3%와 41.1%로 가장 높으며, 정치사회단체는 월 1회 미만 참여율이 61.1%로 가장 높음.

□ 노인의 60.2%는 종교가 없으며, 종교가 있는 노인 중 16.9%는 종교활동을 하지 않음.

○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주 1회 활동 비율이 32.0%로 가장 높으며, 주 1회 이상의 적극적 종교활동 비율은 41.9%임.

□ 향후 노후생활에서 희망하는 활동(매우 그렇다~그렇다)으로는 친목활동의 비율이 46.2%로 가장 높으며, 여행 및 관광활동 44.6%, 취미활동 38.6%, 종교활동 28.6%, 자원봉사활동 12.6%, 동호회 활동 12.3%, 교육 및 학습활동 10.6%, 정치사회활동 4.7% 순임.

□ 노인의 26.5%가 경로당(1주 평균 2.9회), 9.6%가 노인복지관(1주 평균 1.5회), 3.5%가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1주 평균 1.2회), 1.7%가 노인교실(1주 평균 1.5회), 7.0%가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1주 평균 1.4회), 3.5%가 민간 여가문화시설(1주 평균 1.5회)을 이용

○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경로당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 23.1%, 노인복지관 22.8%,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16.6%, 노인교실 14.5%,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 11.1%의 순으로 나타남.

○ 여가문화시설 이용자의 주된 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경로당은 친목도모(66.2%)와 식사서비스 이용(19.2%)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노인복지관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36.8%)과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18.5%),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30.0%),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21.1%), 친목도모(16.4%), 노인교실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37.9%), 친목도모(26.1%),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은 취미여가 프

그램 이용(31.3%),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23.3%),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32.0%),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25.0%), 친목도모(24.6%) 등의 비율이 높음.

- 대부분의 여가문화시설은 프로그램 이용이 주된 이용 목적인 반면, 경로당은 타 여가문화시설에 비해 친목도모를 위한 이용의 비율이 매우 높아 여타의 여가문화시설들과 상이한 특성을 보임.

□ 노인의 정보화 기기 보유 및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보유 76.6%, 사용 68.1%)을 활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컴퓨터(보유 20.6%, 사용 13.1%), 스마트 워치(보유 2.1%, 사용 1.9%)임.

○ 사용 시간도 기기별로 차이를 보이며, 스마트폰의 사용 일수가 가장 많지만,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 워치의 1일 평균 사용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스마트폰: 주당 평균 5.9일, 1일 평균 1.3시간 / 컴퓨터: 주당 평균 3.0일, 1일 평균 1.3시간 / 스마트 워치: 주당 평균 5.7일, 1일 평균 2.7시간).

○ 정보화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 중 주거지 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노인은 46.2%이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 활용은 스마트 기기의 기능에 따라 상이함.

- 가장 낮은 수준인 메시지 받기(83.6%)는 사용이 가능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메시지 보내기(74.7%), 사진·동영상 촬영(52.7%), 정보검색 및 조회(51.1%), 동영상 보기(44.2%), 영상통화(44.2%), 음악 듣기(26.7%), 금융거래(20.2%), 키오스크 활용 주문 및 접수(17.9%), 게임(15.0%), 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13.4%), 전자상거래(12.0%), SNS 이용(8.6%) 순임.

○ 노인의 67.2%는 정보화 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노년기 디지털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노인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개발(29.5%)과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27.4%), 스마트 기기 이용료 지원(21.9%)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8.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가. 주거 및 지역 환경

□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 노인의 44.8%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38.6%는 단독주택, 16.1%는 연립 또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주택 점유형태를 보면, 자가 80.3%, 전세 9.0%, 보증금이 있는 월세 7.1%, 무상 3.2%, 보증금이 없는 월세 0.5%로 나타남.

□ 거주 주택의 편리성

- 노인주택의 9.4%는 생활하기에 불편한 구조이며, 62.1%는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 배려 설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비율은 28.5%로 나타남.
-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춘 비율이 8.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노인의 70.7%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6.4%, 만족 64.3%)하고 있으며,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3.4%, 전혀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0.2%로 나타남.
- 불만족 이유
 -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주택의 구조나 설비가 생활에 불편한 '편리성' 관련이 45.2%이며, 다음으로 주택의 온도, 습도, 밝기나 위생상태 등이 생활에 적절하지 않은 이유(주택의 안락성·쾌적성)가 25.4%로 조사되었음.
 - 그다음 불만족 요소로는 주택 내부 규모가 좁거나 필요 이상으로 큰 문제(주택의 규모 적정성) 8.5%, 주택의 내·외부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주택의

정숙성) 7.3%, 주택 내 안전사고나 외부 재난, 재해 위험(주택의 안전성) 7.1%, 주택의 임차료, 주거관리비 등 비용부담 문제(주택의 경제성) 6.2% 순으로 조사됨.

나. 희망 주거형태와 교통수단 활용

□ 건강이 유지되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희망 거주형태

○ ‘현재 집에서 계속 산다’의 비중이 87.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한다’ 8.1%, ‘식사,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전용주택으로 이사한다’ 4.7%로 나타남.

– 2020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비율은 3.4%포인트 증가, 식사 등 편의시설 제공되는 노인전용주택에 들어간다는 비율은 0.2%포인트 감소함.

– 건강이 유지되는 조건에서는 현재 집에서 익숙한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욕구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 건강이 악화되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희망 거주형태

○ 응답자의 48.9%는 건강이 악화되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고, 2.5%는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집에서 동거를 희망하며, 동거 대신 자녀 또는 형제자매 집 근처로 이사를 희망하는 비율은 4.3%로 나타남.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비율은 27.7%, 노인전용주택으로 이사를 희망하는 비율은 16.5%로 조사됨.

□ 외출 및 교통수단

○ 노인이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택시의 대중교통 68.1%, 자가용 28.2%이며,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하는 비율은 모두 0.6%로 매우 낮았음.

- 노인이 평소 외출할 때 경험하는 불편사항에서는 43.4%가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버스 이용 15.4%, 계단이나 경사로 이용 17.4%, 교통수단 부족 9.1%, 이동 불편한 도로 상태 3.7%, 노인을 배려하지 않는 교통편의시설 4.9%, 인도가 없어 보행 시 위험 1.9%,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 4.1% 등으로 나타남.

□ 노인의 운전 실태

- 노인의 26.2%는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운전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 비율은 19.7%, 평생 한적 없는 비율은 54.0%로 나타남.
 - －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비율은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47.8%로 여자 9.4%에 비해 월등히 높고, 연령군별로는 65~6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48.4%).
 - － 운전을 하는 노인 비율은 2017년 18.8%, 2020년 21.9%, 2023년 26.2%로 조사되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다. 연령 규범 및 연령 차별

□ 노인이 생각하는 노년기 시작 기준 연령

- 평균 71.6세이며, 69세 이하 20.9%, 70~74세 44.6%, 75~79세 21.4%, 80세 이상 13.0%로 나타남.
 - － 2020년 결과보다 노년기 시작 기준 연령 인식이 평균 1.1세 높아짐. 노인 시작 연령이 75~79세라고 응답한 비율은 6.5%포인트 증가하였고, 80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6.5%포인트 증가한 반면, 69세 이하로 응답한 비율은 5%포인트 감소함.

□ 노인 차별 경험 및 사회적 존중감에 대한 인식

- 노인 차별 경험은 상업시설 이용 시 14.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대중교통 이용 12.6%, 가정 8.6%, 의료시설 이용 8.2%로 조사됨. 직장(5.3%)과 공공기관 이용(4.5%)에서는 차별 경험이 비교적 적음.
 - － 노인의 차별경험은 제시된 모든 상황에서 2020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라. 웰다잉에 대한 실천 및 인식

□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과 희망하는 장사방식

- 연명치료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은 84.1%로 나타나며 특히 매우 반대하는 의견이 46.1%로 높게 나타남.
- 희망하는 장사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 38.0%, ‘화장 후 자연장’ 23.1%, ‘화장 후 산분장’ 13.1%, ‘매장’은 6.1% 순으로 조사됨.
 - 2020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화장 후 납골당을 선호하는 비율이 4.7%포인트 증가하였고, 자연장을 선호하는 비율도 2.5%포인트 증가한 반면, 매장을 선호하는 비율은 2020년 5.5%포인트 감소하여 인식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음 준비 실태

- 노인이 생각하는 생애 말기 좋은 죽음이란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이 85.8%,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는 죽음이 85.4%로 나타나며,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 84.7%로 나타남. 시설이 아닌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53.9%)은 조사 항목 중 중요성을 비교적 낮게 인식하였음.
- 죽음 준비 실태
 - 죽음 준비 중에서 수의 또는 영정사진 준비, 장지선택, 상조회 가입으로 대표되는 장사의식 준비를 한 비율은 67.2%이며, 그 외의 유서작성, 죽음준비 교육 수강, 상속 처리 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기기증 서약 등의 좋은 죽음을 위한 스스로의 주변 정리(자기 결정권 발휘)는 34.9%로 나타남.
 - 즉, 현 노인은 웰다잉을 위한 준비에서 본인의 장례와 관련된 준비의 비중이 높으며, 죽음을 준비하며 삶을 정리하는 다양한 행위의 수행도는 그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재산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51.4%가 자녀에게 균등 배분이라고 응답했고, 부양을 더 많이 한 자녀에게 전부 또는 더 많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8.8%,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전부 또는 더 많이 주기를 원하는 경우는 8.4%, 장남에게 전부 또는 더 많이 주기를 원하

는 경우는 6.5%로 조사됨.

-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자신(배우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4.2%, 전체 또는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 0.6%로 나타남.
- 2020년 결과와 비교하면,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6.8%포인트 증가하였고, 장남에게 전부/더많이 주겠다는 응답은 6.8%포인트 감소하였음.

마. 삶의 만족도

□ 노인의 40.3%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8.7%만이 삶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삶의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43.1%, 경제상태는 31.4%, 사회·여가·문화활동은 32.1%, 배우자 관계는 66.9%, 자녀관계는 69.4%, 사회적 관계는 45.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삶의 영역 중 가족이나 배우자 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경제상태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남.
- 삶의 영역별로 불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경제상태로 불만족 응답(불만족+매우 불만족) 비율이 19.8%로 높으며, 다음으로 건강상태와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19.2%와 19.1%로 높게 나타남.

바. 노인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욕구

□ 노인정책에 대한 인지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도가 44.6%로 가장 높았고, 치매 조기검진 사업(38.9%), 노인맞춤돌봄서비스(35.5%), 주택연금(33.3%), 치매안심센터(31.1%)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음. 이어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은 23.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2.4%,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16.0%, 노인보호전문기관 14.6%로 조사됨.

- 대체로 돌봄이나 노인장기요양 관련 사업이 인지도가 높았고, 노년기 인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치매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비교적 높게 조사된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연금(33.3%)에 비해 농지연금의 인지도는 12.9%로 낮게 나타남.

○ 성년후견제도의 인지도가 10.3%로 조사항목 중 가장 낮게 조사됨. 아직 성년 후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노인복지정책 중 향후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정책에 대한 인식

○ 향후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정책(1순위)에 대해서는 빈곤 완화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고, 22.1%가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16.6%가 노인 돌봄(요양) 서비스, 7.6%는 치매 관련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함. 이어서 노인 고용/일자리 지원은 4.7%, 노후 사회·여가문화 활동 지원 2.3%, 노인 특화된 다양한 주거지원 2.1%, 거주주택 보수 및 개조 서비스 0.9%로 순으로 조사됨.

- 위의 1순위 응답 결과만을 살펴보면 정책 확대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이 빈곤 완화, 보건의료, 돌봄(요양)서비스에 82.3%가 집중됨.

○ 1순위 응답과 2순위를 함께 고려하면 치매 관련 서비스, 노인 고용/일자리 지원, 사회·여가문화, 노인 특화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가 나타남.

- 1+2순위 응답을 보면, 우선순위가 높은 빈곤, 의료, 돌봄 지원 외에도 치매 관련 서비스(22.3%), 노인고용/일자리 지원(15.0%), 노인 사회·여가문화 활동 지원(7.8%), 노인 특화된 다양한 주거지원(6.3%)에 대한 정책 욕구가 확인됨.

Ⅲ. 결론

-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년 세대의 이질성의 가속화, 그리고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보편화와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함.
-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노년기 진입은 노인의 교육수준, 건강 및 경제상태의 전반적인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결혼상태(이혼, 별거 등), 가구 형태(1인 가구 증가) 등과 같은 가족 구조 및 사회적 관계의 질적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 단독가구(1인 가구, 노인 부부)에 속한 노인 비율이 거의 90%에 도달하였으며,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직계가족의 규모가 감소하고, 가족 간 교류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이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 돌봄, 기능적 돌봄의 역할이 약화되는 동시에 공적이전소득, 친척·이웃·친구·지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함.
- 노년 세대의 이질성이 가속화되어 연령대별, 거주지역별 정책 욕구가 상이하며, 노인의 건강상태나 소득수준이 개선되고 있으나, 노인 특성별 건강, 돌봄 자원, 소득 등에서 노년 세대 내 격차도 발생하고 있음.

주요 용어 노인, 실태조사, 특성 변화, 건강상태, 기능상태, 소득 및 지출, 경제활동, 사회활동, 생활환경, 노후 가치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사방법과 자료처리

제3절 표본설계

제4절 응답자 일반특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조사로 2007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3년마다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①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②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③ 노인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④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⑤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⑥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계열적 자료 축적을 통해 노인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새롭게 노인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등을 포함하여 노년층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새로운 욕구를 파악하여 노인의 삶의 질 제고와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 및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실태조사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정책개발뿐만 아니라 학문적 지평을 넓히기 위한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시계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경제 변화를 반영한 조사표 수정·보완, 양질의 데이터 생산을 위한 조사원 교육, 조사 모니터링, 데이터 사후 검증 등을 개선 및 강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실태조사의 높은 활용도로 이어진다. 2008년 노인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 이후 2020년까지 5차에 걸쳐 노인실태조사 자료가 생산 및 축적되면서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연구와 정책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1년 공표)의 통계청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MDI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s)을 통한 다운로드 건수는 915건이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통한 다운로드 건수는 852건에 이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8년 507만 명, 2011년 570만 명, 2014년 652만 명, 2017년 736만 명, 2020년 85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행정안전부, 2023a)¹⁾ 2023년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노인인구는 950만 명으로(행정안전부, 2023b) 노인실태조사가 시작된 2008년에 비해 거의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08년 10.2%에서 2020년 16.4%, 그리고 2023년의 노인인구 비율은 18.5%에 이르고 있으며,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20년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인구 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전기 노인 수가 급증하는 동시에 85세 이상 후기 노인의 수도 증가하면서 노년 세대의 다양성과 다극화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약 40%가 65세 이상 노년 세대에 진입하면서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베이비붐 세대인 노년층과 선배 노년 세대의 특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인인구 대비 8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도 2010년 6.7%에 불과하였지만, 2022년에는 10.2%로 증가하였으며, 2040년에는 1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23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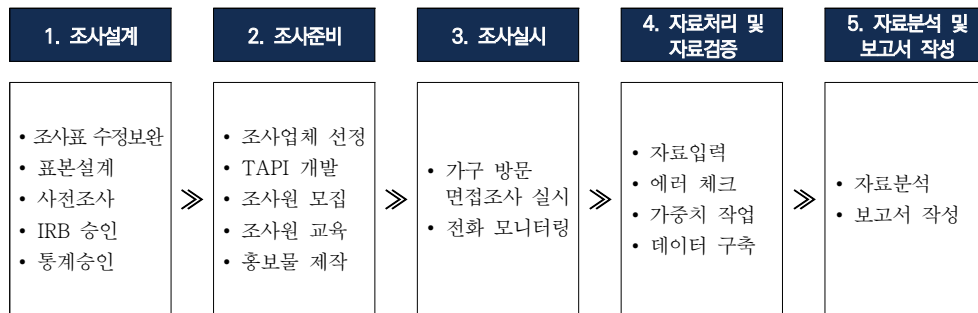
2023년 노인실태조사는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동시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에 도달하기 직전에 실시되었다. 즉,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직전의 마지막 노인실태조사가 되면서 한국의 고령사회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실태조사 자료와 결과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고령사회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학술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1) 연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에 의한 집계 값임.

제2절 조사방법과 자료처리

2023년 노인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1단계는 조사설계 단계로 조사표 수정보완, 표본설계, 사전조사, IRB 승인, 통계승인 등이 이루어졌으며, 2단계에서는 조사를 위한 외부 전문 조사업체 선정, TAPI 시스템 개발, 조사원 모집과 교육, 홍보물 제작 등의 사전 준비작업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전국의 65세 노인 10,000명을 목표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단계에서는 자료입력과 에러 체크, 조사 모니터링, 데이터 구축 등의 검증 작업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료 수집과 자료 검증이 완료된 후 자료 분석과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림 1-1]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진행 과정



1. 조사설계

가. 조사표 수정보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의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조사 문항을 가능한 유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되, 노인의 특성이나 사회환경의 변화, 노인과 관련한 정책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수정 또는 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2023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조사표 전체 및 영역별 수정보완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두 번째로는 노인실태조사 영역별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2023.5.23.~5.30., 2023.6.21.~6.28.)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다. 건강과 보건 의료 6명, 돌봄 8명, 여가 및 사회활동 8명, 경제활동 4명, 가족 및 사회관계 7명, 생활

환경 5명, 노후생활 7명, 경제상태 7명 등 총 34명(중복 제외)의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셋째, 노인복지현장 전문가 FGI(2023.6.22.)를 통해 2023년 노인실태조사 조사표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 및 개선 사항을 검토하였다. 노인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중간관리자 4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노인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문항에 대한 의견(수정, 추가, 삭제 등), 데이터 활용 상의 불편 사항, 전반적인 개선사항 등에 관해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개인정보이용을 허락한 132명을 대상으로 2023.6.1.~6.6.간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32명이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과 복지, 소득보장 등과 관련한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담당 부서와의 대면 및 서면의 방식으로 조사표 수정 및 보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학계 전문가, 현장 실무자, 데이터 이용자, 그리고 주무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조사표 1차(안)을 완성하였으며,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조사표를 확정하였다.

[그림 1-2]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표 수정 보완 작업

연구진	학계 전문가	노인복지현장 전문가	노인실태조사 데이터 이용자	보건복지부
연구진 회의	- 서면 자문 34명, 56건의 의견 수렴	- FGI 실시 - 노인복지 관련 기관 중간관리자 4명	2020년 데이터 이용자 32명	- 대면 회의 - 서면 의견
•'23.5.~'23.7.	•'23.5.23.~5.30. •'23.6.21.~6.28.	•'23.6.22.	•'23.6.1.~6.6.	•'23.5.~'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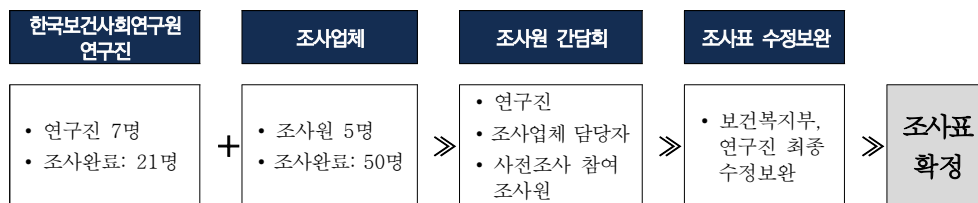
주: 조사표 수정보완 작업에 참여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명단은 [부록 VII]을 참고.

나. 사전조사

수정보완된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표의 난이도, 조사응답자의 수용도, 응답 및 조사의 수월성, 조사환경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연구진과 조사업체의 조사원이 각각 실시하였다. 연구진 사전조사는 2023년 8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65세 이상 노인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업체의 사전

조사는 숙련된 조사원 5명이 참여하였으며, 2023년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65세 이상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과 조사원과의 간담회(2023.7.11.)를 실시하여 응답자의 조사 참여도, 조사원의 조사부담 수준, 조사 수행의 애로사항 등 조사환경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있어서 조사항목별 보기 순서 조정, 조사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용어 수정이나 간결성 확보, 조사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지침서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연구진의 조사표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사표를 확정하였다.

[그림 1-3]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사전조사 현황



다. 표본설계

2023년 노인실태조사의 표본설계는 조사업체인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외부 전문가와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확정하였으며, 표본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장의 제3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 조사계획서, 조사표 등 관련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해 IRB를 신청하였으며,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IRB 승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서 제 2023-078호, 2023년 7월 28일)을 받았다.

마. 통계승인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 조사로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승인번호 제117071호)을 받아 진행되며, 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 통계작성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통계청에 조사표, 조사지침서, 표본설계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2023년 8월 7일에 통계작성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2023년 8월 18일 변경 승인을 받았다.

2. 조사준비

가. 조사업체 선정

2011년, 2014년, 2017년에 실시된 노인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조사팀에서 조사를 전담하였다. 그러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의 영향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사회조사팀에서의 조사가 어려워져 외부 조사업체를 통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도 2020년도 마찬가지로 외부 조사업체에 조사를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업체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근거하여 2020년 6월 5일~6월 16일 기간 동안 입찰공고 후 제안서 평가 절차를 거쳐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선정되었다.

나. TAPI 개발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는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TAPI(Tablet-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TAPI 방식은 조사 진행 이전에 로직을 시스템적으로 미리 설정하여 오기입이나 미입력 방지, 입력값 범위 설정 등을 통해 응답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조사와 동시에 데이터가 바로 입력되어 자료 입력 기간을 단축하고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동의를 위한 전자서명 기능을 탑재하고, 파일 저장과 일괄 출력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표를 바탕으로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TAPI 프로그램 1차(안)을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진의 점검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TAPI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다.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조사원 교육은 2023년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권역별 총 6개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강원 지역은 조사원 수가 적어 서울로 이동하여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권역별 조사원 교육 참여현황을 보면, 서울/경기/인천 56명, 부산/울산/경남 31명, 대구/경북 22명, 광주/전북/전남 27명, 강원 5명, 제주 5명이 참석하였으며,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의 경우 선발된 30명 중 8명이 참석하지 않아 2023년 9월 6일 동일한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으로 추가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1-1〉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권역별 조사원 교육 현황

교육 일시	실사 권역	교육 장소	투입 조사원 수	참석 조사원 수
8월 17일(목) 10시~18시	수도권 및 강원 (서울/인천/경기/강원)	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	61	61
8월 18일(금) 10시~18시	충청권 (대전/세종/충남/충북)	한국갤럽 대전지사	30	22
8월 21일(월) 10시~18시	경북권 (대구/경북)	한국갤럽 대구지사	22	22
8월 22일(화) 10시~18시	경남권 (부산/울산/경남)	한국갤럽 부산지사	31	31
8월 23일(수) 10시~18시	전라권 (광주/전북/전남)	한국갤럽 광주지사	27	27
8월 24일(목) 10시~18시	제주	제주벤처마루 세미나실	5	5
9월 6일(수) 10시~18시	충청권(추가 교육)	한국갤럽 대전지사	—	8
계			176	176

본 조사에 투입되는 모든 조사원의 교육 참석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의 이해를 높이고 전국 표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에게 조사지침서를 배포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조사개요, 실사 절차, TAPI 활용 등에 관한 사항과 조사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오전 시간에는 노인인구 변화와 노인실태조사 소개, 윤리강령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인지기능 영역의 조사원 교육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권역별 대학병원 또는 재활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또는 대학의 작업치료학과 교수를 추천받아 K-MMSE 소개 및 검사 방법/채점 기준에 대한 교육(대한작업치료학회 제공 별도 교육 자료 사용)을 실시하였다. 오후 시간에는 TAPI 활용법과 실습, 그리고 조사표 각 영역별 조사 문항과 유의사항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표 1-2〉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교육 내용

구분	시간	세부 교육 내용	소요시간
조사 개요 및 K-MMSE	09:30~10:00	등록 및 접수	
	10:00~1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노인실태조사 소개	10분
	10:10~10:20	• 윤리강령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보안서약서 작성	10분
	10:20~10:50	• 조사 개요 및 실사 절차 및 유의사항(조사구 요도 활용 안내)	30분
	10:50~11:00	휴식	10분
	11:00~12:00	• K-MMSE 교육 : 인지기능 조사내용, 질문방식 및 채점방식 설명	60분
	12:00~13:10	점심시간	70분
본 교육	13:10~13:20	• TAPI 및 실사관리 시스템 활용법 • 주요 발생 오류 확인 사항 • TAPI 활용 프로세스 소개 및 기능 교육	10분
	13:20~13:40	• 표지(10분) • A. 가구 일반사항(10분)	20분
	13:40~14:20	• B. 건강상태와 건강행태(20분) • C. 기능상태와 돌봄(20분)	40분
	14:20~14:30	휴식	10분
	14:30~15:40	• D. 사회활동(20분) • E. 경제활동(20분) • F. 가족 및 사회관계(20분) • G. 가족 간 도움의 교환(10분)	70분
	15:40~15:50	휴식	10분
	15:50~16:50	• H. 생활환경과 노후생활(30분) • I. 인지기능(10분) • J. 경제상태(20분)	60분
	16:50~17:00	휴식	10분
	17:00~17:20	TAPI 실습 진행	20분
	17:20~17:50	면접원 롤플레이팅(실습) 질의응답	30분
	17:50~18:00	마무리	10분

3. 조사 실시

가. 조사대상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총 176명의 조사원에 의해 2023년 9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의 진행은 조사원이 사전에 표본추출된 조사구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 내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면접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아래 그림 참조). 동일 가구 내 2명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노인을 1명씩 분리 면접하도록 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구원 일반사항과 같이 가구 내 동일한 응답 사항은 응답자 1명의 조사내용을 TAPI 시스템상 자동으로 옮겨 넣거나 조사종료 후 조사원이 종이 조사표에 이기하도록 하여 응답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림 1-4] 조사 진행도



본 조사는 가구 내 거주하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본인을 대면하여 본인이 직접 조사에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표에 제시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리응답을 허용하였다. 대리응답으로 조사를 진행한 경우, 노인의 주관적 판단에 관한 질문(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향후 경제활동 참여 의향 등)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항에 대한 문항만을 응답받도록 하였다.

<표 1-3> 대리응답 적용 대상 및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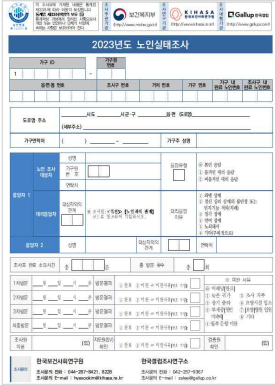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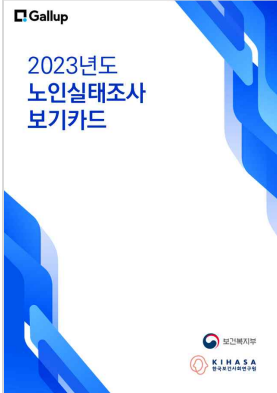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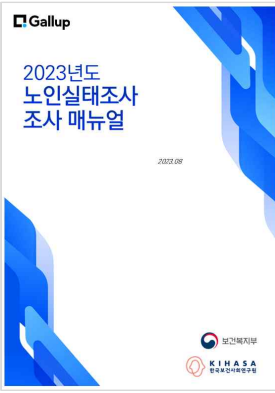
구분	내용
대리응답 적용 대상	- 와병 상태 - 정신 심리 상태의 불안정 또는 인지기능 저하(치매) - 청각 문제, 언어 문제 - 노쇠 - 기타
대리응답자 선정 기준	- 노인 조사대상자의 생활과 건강상태 등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 - 대리응답자의 선정은 노인 조사대상자와의 동거 여부와 무관하며, 가족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친구, 이웃 등도 선정 가능

한편, 전체 조사항목 중 「가구 일반사항과 경제상태」 영역에 대해서는 해당 가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구원(적격 가구원이 없을 시 비동거인)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는 대리응답으로 보지 않았다. 즉, 본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항목 중 가구 일반사항과 경제상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문항에 동거가구원 또는 비동거인이 대신 응답한 경우만을 대리응답으로 간주하였다. 가구 일반사항과 경제상태 영역을 타인이 응답하는 경우에는 조사표 표지 내 ‘응답자 2’에 해당 응답자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여 모든 조사항목에 노인이 직접 응답한 경우와 구분하고, 검증 단계에서 해당 영역 응답값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참고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조사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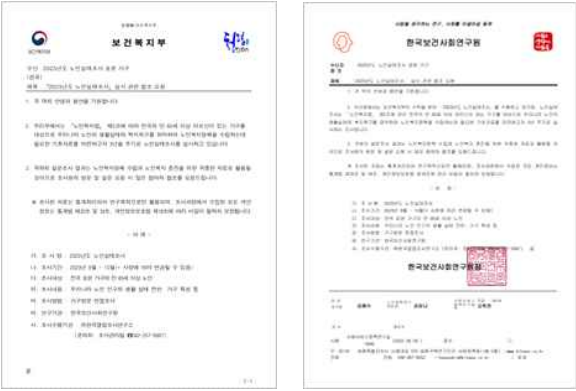
본 조사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면접조사(TAPI) 방식을 택하였으므로, 모든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휴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2020년도 조사와 달리 조사항목 중 인지기능 항목을 별도의 종이 검사지(K-MMSE~2)를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검사지를 조사 대상 규모에 맞추어 구매한 후 각 조사원에게 할당된 표본 수만큼 배부하였다. 또한, 원활한 조사의 진행을 위한 조사 도구로써 종이 설문지, 보기카드, 조사원 지침서를 함께 배포하였다. 종이 설문지는 응답자가 TAPI 방식을 거부하거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TAPI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배부하였다. 보기카드는 설문 문항 중 보기 내용이 많은 문항을 큰 글씨로 별도 제작한 자료로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부하였다. 조사원 지침서는 조사원들의 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개요와 개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 지침을 별도 자료로 정리하여 배포하였다.

[그림 1-5] 조사 준비물: 조사 도구

태블릿 PC	인지기능 검사지	종이 설문지
		
보기카드		조사원 지침서
		

다음으로 조사 협조 요청 과정에서 응답자의 거부감을 낮추고 응답자가 본 조사를 정부에서 진행하는 신뢰도 있는 조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조사원에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협조 공문, 조사 안내 팸플릿, 조사원증을 배부하여 조사 시 소지 및 패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조사 안내 팸플릿에는 조사개요, 자주하는 질문, 코로나-19 안전 수칙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노인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조사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응답률의 확보를 위해 2만 원권 상품권을 조사 답례품으로 지급하였다.

[그림 1-6] 조사 준비물: 홍보 및 답례품

협조 공문	조사 안내 팸플릿
	
조사원증	응답자 답례품
	

다. 조사진행 절차

현장 조사는 아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9단계에 따라 진행하였다. 1단계는 담당 확인 및 조사계획 수립 단계로, 조사원은 자신이 배정받은 조사구를 확인하고 해당 조사구의 조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단계는 가구 접촉 단계로, 조사원은 TAPI 시스템에 제시된 본표본가구 명부를 확인하여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한다. 조사원은 가구 접촉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해당 가구가 부재중일 경우 4차(1~3차 방문, 최종방문)까지 접촉 결과와 조사 미완 시 미완 사유를 작성한다. 모든 본표본 가구에 대해 접촉하였으나 조사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TAPI 시스템에 제시된 예비표본가구 명부를 확인하여 가구 접촉을 진행한다. 또한, 조사원은 가구 접촉 시 조사원증을 패용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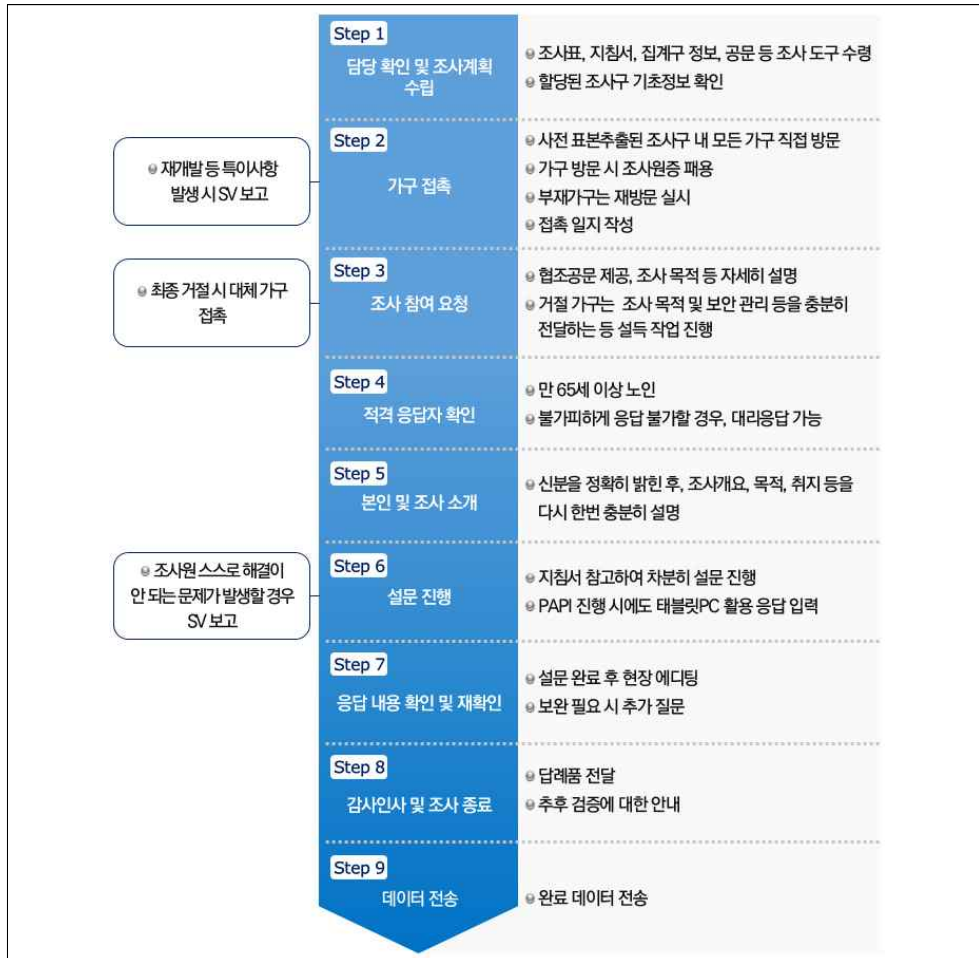
3단계는 조사 참여 요청 단계로, 가구 방문에 성공한 후 조사의 목적과 내용, 조사 참여 시 제공되는 답례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조사원은 이때 지참한 공문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여 본 조사가 공신력 있는 조사이며,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및 3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한다. 4단계는 적격 응답자 확인 단계로, 조사 참여 요청과 동시에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수와 현재 재택 여부를 확인한다. 가구 내 적격응답자가 있으나 방문 당시 부재중이거나 조사 참여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가능한 일정에 다시 방문한다. 또한, 노인이 재택 중이지만 외병 상태이거나 인지기능 저하, 치매, 청각이나 언어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직접 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응답을 진행한다.

5단계는 본인 및 조사 소개 단계로, 조사원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혀 조사대상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한다. 6단계는 설문 진행 단계로, 조사원은 조사대상자의 동의 및 서명을 받은 후 차분히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은 기본적으로 TAPI 방식으로 진행하되, 기술적인 문제나 응답자의 거부 등이 있을 경우 지참한 종이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을 진행한다.

7단계는 응답 내용 확인 및 재확인 단계로,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이 완료되면 일관적이지 않다고 판단된 응답을 응답자에게 재확인하여 보완한다. 또한, 종이 설문지로 조사한 경우에는 응답에 누락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8단계는 감사 인사 및 조사 종료 단계로, 응답 내용에 대한 재확인이 완료되면 감사 인사와 함께 조사대상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고 답례품 인수증을 수령한다. 또한, 추후 응답 내용의 확인을 위해 전화 검증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응답 가구에 안내한 후 조사를 종료한다.

마지막 9단계는 데이터 전송 단계로, 조사항목 중 별도의 종이 검사지(K-MMSE~2)를 활용한 인지기능 항목의 조사 결과를 TAPI 시스템에 입력한 후 데이터를 전송한다. 종이 조사표로 조사를 진행한 경우 조사원은 조사가 종료된 후에 TAPI 시스템에 모든 응답값을 입력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림 1-7] 현장 조사 진행 절차



라. 조사 수행 전달체계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조사 수행 전달체계는 아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 수행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조사업체의 사업수행 책임부서(연구팀)에 조사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보고 및 협의 요청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 수행 전달체계는 사업수행 책임부서(연구팀), 실사연구실, 5개 권역별 실사 관리팀(본사 및 4개 지역 사무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본 조사의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실사 권역 내 조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을 해당 권역 실사관리자(슈퍼바이저)에게 보고한다. 각 권역의 실장 및 슈퍼바이저는 본사 실사연구실로 내용을 전달하고, 실사연구실의 총책임자는 5개 권역 내 발생한 특이사항을 연구팀으로 전달한다. 연구팀은 취합된 조사 관련 사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보고하여 협의한 후 해당 사항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문의 사항 등 특이사항에 대한 대응 및 해결은 하위 체계에서 적절히 조치가 가능할 경우 직접 진행하되, 어려울 경우 상위 체계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하위 체계에서 직접 대응 및 해결한 경우에는 특이사항과 조치 결과를 상위 체계(연구팀)에 보고하도록 하여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한 통합적인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침 전달은 보고체계의 역으로 진행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 체계를 생략하고 하위 체계에 직접 내용을 전달하였다. 예를 들어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 연구팀에서 해당 조사원에게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연구팀 차원에서 먼저 해결하고 사후 보고체계 내 구성원 모두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앞선 보고 과정을 통해 특이사항에 대한 보고 및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지침 전달체계를 통해 모든 조사원에게 해당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1-8] 조사 수행 전달체계도



4. 자료처리 및 검증

본 조사는 설문지의 내용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웹 서버에 담아 태블릿 PC를 활용해 조사하는 방식인 TAPI(Tablet-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이 활용되었다. 본 조사의 자료처리는 프로세스별로 살펴볼 때 총 네 단계에 걸친 데이터 에디팅 등 검증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현장 자료 검증으로 조사원이 현장에서 조사완료 후 현장 내 검증하여 회수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의미하며, 조사지침서를 토대로 조사원들에 의해 실시되는 조사원 기반 현장 검증을 의미한다. 본 조사의 조사원칙은 TAPI 조사 방식으로 별도의 조사원 현장 검증이 직접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으나, 실사 진행의 원활성을 위해 조사 진행 중에 수시로 조사원의 현장 검증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래밍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오류지만 현장에서 조사원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하는 것이 주된 검증 내용이다. 예를 들면 응답자가 보청기를 착용한 것을 조사원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가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평소 1회당 60분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 등 조사원이 재확인을 통해 응답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입력 검증으로 본래 종이 조사표를 활용한 조사방법을 활용했을 때는 별도의 입력원에 의해 처리되고 검증되는 과정이었으나, 조사방법이 TAPI 방식일 경우 조사원이 조사 진행 시 현장 검증과 함께 통계 패키지의 내검 프로그램을 활용해 오류 확인을 확인하였다. 설문지 설계 이후 설문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설문 문항의 지시문, 응답 base 설정, 문항별 로직 또는 응답의 범위(range) 등을 설정하여 원활한 입력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조사원의 현장 검증과 실사 관리자의 사후 데이터 리뷰로만으로는 조사원의 부정행위, 거짓 응답, 불성실 응답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응답자와 직접 접촉하여 조사 참여 사실 및 일부 응답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사후 전화검증을 실시하였다. 전화 검증은 조사 시작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인 2023년 9월 18일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조사업체에서 별도의 체계로 동시에 진행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9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조사업체로부터 매주 조사 데이터를 전달받아 전화검증 대상자 중 일부를 무작위 선정하여 전화 검증을 진행

하였다. 무작위 선정된 전화검증 대상자는 총 1,216명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조사 사 후 검증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실제 조사 참여 여부, 조사 장소, 조사답례품 수령 여 부, 응답의 난이도, 본인 응답 여부를 질문하였다. 또한, 응답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 해 조사대상자에게 가구 내 가구원 수를 질문하여 응답값과 대조하였으며, 가구원 수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주택 유형을 추가로 질문·대조하여 응답 오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화 검증 과정에서 조사원의 조사 부정 의심 사례나 응답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 조사원이나 조사대상자에게 진위를 확인한 후 조사원 지침 재안내, 응답 오류 정 정 등의 조치를 통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사후 전화검증에는 전문 검증원 24명을 투입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3,923명(38.9%)에 연락하여 사후 검증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설문 응답 여 부, 가구 내 진행 여부, 주소지 확인, 주택유형, 성별, 연령, 가구원 수, 답례품 수령 여 부 등을 확인하였다. 응답 내용과 검증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조사원과 응답자를 통 해 오류 발생 경위 및 참값을 재확인하였으며, 데이터 변동사항을 일지 형태로 작성하 여 기록하였다.

[그림 1-9] 사후 전화검증 일지

2023년 노인실태조사_전화검증일지																						
민생안락제? 라는 한국갤럽의 OOO입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관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출제하신 책 있으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기억 부탁드립니다. (혹은, 잠시 시간을 내주세요. 피드백자료) (장문 후 감사인사)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번호	응답		검증 내용		기록 내용		에러 판단 및 조치 내용															
Q1	설문 응답 여부		선생님께서는 2023년 노인실태조사 설문에 직접 응답해 주셨습니까? /가구원 대의 설문 가능. 다른 가구원이 대신 응답한 경우 대리응답 여부 확인		1. 예(대리응답 포함) 2. 아니요		2. 아니요 응답 시 에러 / 검증 종료 * 조사원/유지/콜센터/조사원 및 복지 사각지대 포함															
Q2	가구 전역		조사원이 선생님 역으로 방문 후 조사를 진행했나요? /조사원소가 가구 내 전역 확인. 유가족이 가구 내 진행 거부했을 경우, 외부에서 진행 가능 혹은 가구 내에서 진행해도 되는지 조사원이 반드시 질문하여야 함		1. 예 2. 아니요		2. 아니요 응답 시 에러 / 검증 종료 * 가구 방문 설비 유무 여부 혹은 조사원에서 진행할 경우도 에러에 포함															
Q3-1	주소지 확인		선생님께서는 조사 참여 당시 거주하고 계셨던 주소지는 OOO시 OOO구 OOO동이었습니까?		1. 일치(Q4로 이동) 2. 불일치(Q3-2로 이동)		2. 불일치 응답 시 에러															
Q3-2	(다음 진행) 조사 당시 주소지 확인		그렇다면 조사 참여 당시 거주하고 계셨던 주소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만 기입																	
Q4	주택유형		선생님 역의 주택유형은 OOOOO이었습니까?		1. 일치 2. 불일치		2. 불일치 응답 시 에러 / 주택유형 재확인															
Q5	응답자 성별		(핵심자료 확인)		1. 일치 2. 불일치		2. 불일치 응답 시 에러															
Q6	응답년도(연월) 확인		선생님의 응답년도는 OOOOO이었습니까?		1. 일치 2. 불일치		2. 불일치 응답 시 응답년도 재확인															
Q7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수 확인		노인실태조사 참여 당시 선생님 본인을 포함하여 실제로 함께 살고 있던 '가구원'은 모두 인원이 맞으십니까?		1. 일치 2. 불일치		2. 불일치 응답 시 에러 / 가구원 수 재확인															
Q8	답례품 수령 여부		설문에 모두 응답한 후 조사원으로부터 답례품(상품권 2만원권)을 받으셨습니까?		1. 예 2. 아니요		2. 아니요 응답 시 조사원 확인/재교육															
(검증기준) 지역별/조사일별 10K 30% 이상																						
(검증결과) 1.성공 2.결함(별도 이상/재도입/그런 사항 없음) 3.전환은 받았으나 응답자/부제 4.내용(음전음/회의음 등) 5.비수신(전화번호/전화기 꺼져있음) 6.거절(응답중단) 7.기타(보통-조사원 확인 후 결정)																						
8.에러(거짓응답 등으로 신뢰도 낮은 데이터 판단 제외)																						
(에러기준) Q1-Q8 중 하나라도 에러가 나온 경우																						
순번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검증일
1	문경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문경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	문경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4	문경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5	문경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6	문경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7	문경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8	문경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9	문경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0	문경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네 번째는 연구진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연구진 검증에서는 최종 입력된 데이 터를 토대로 검증이 이루어졌다. 연구진 검증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갈래에서 검증을 실

시하였다. 첫째로는 조사 기본 정보와 관련된 검증이 진행되고 둘째로는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 기본 정보와 관련된 검증으로는 응답자 성명, 조사 대상자 여부, 조사구 번호, 주소 및 읍면동 번호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이다.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검증으로는 기본적으로 TAPI에 설정되어 있는 로직 외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① 오류값 및 무응답 검증 ② 문항별 이상치 검증 ③ 비표본오차에 의한 오류 데이터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검증은 방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SPSS)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연구진이 구축한 에디팅 가이드에 따라 프로그래밍을 하여 오류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재확인이 필요한 데이터의 아이디별로 재확인(recheck) 과정을 거쳐 오류 데이터를 바로 잡았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검증이 완료된 최종 자료를 교차분석하여 조사항목별로 사례 수와 백분율이 포함된 통계표를 산출하였다. 교차분석 시 기본적으로 고려한 응답자의 특성은 총 10개 항목(지역,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 교육수준, 현 취업상태, 연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기능상태)이다. 먼저, 지역은 주소상 ‘동’ 지역에 해당하는 동부와 ‘읍’ 또는 ‘면’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부로 구분하였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 이상의 6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020년도 조사까지는 연령 최고 집단의 연령기준을 85세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나, 2023년도 조사에서는 초고령 노인의 증가 경향을 반영하여 90세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혼인상태에 따라 ‘유배우’는 ‘배우자 있음’으로, ‘미혼’, ‘사별’, ‘이혼’, ‘별거’는 ‘배우자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가구형태는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 가구로 구분하였다.²⁾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중퇴나 퇴학의 경우에는 이전 학력으로 분류되었다. 현 취업상태는 가구 일반사항의 취업 여부(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했는지 여부) 문항을 기준으로 ‘취업중’과 ‘미취업’으로 구분하였다. 연가구소득은 2022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2) 노인의 가구형태 코드를 기존 37개 코드에서 19개 코드로 재구조화함. 노인독거가구는 코드 01, 노인부부가구는 코드 02, 03, 자녀동거가구는 코드 11~20, 기타 가구는 코드 31~41에 해당함.

본 조사에서 조사된 노인의 가구소득을 오분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각 분위별 소득구간은 제1오분위 1,031만 원 미만, 제2오분위 1,031만 원 이상 1,818만 원 이하, 제3오분위 1,818만 원 이상 3,298만 원 미만, 제4오분위 3,298만 원 이상 5,385만 원 미만, 제5오분위 5,385만 원 이상이었다.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 비율은 상대적 빈곤율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³⁾ 50% 미만과 그 이상(5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에 1개라도 부분도움 이상의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를 ‘기능제한 있음’으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기능제한 없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위 10개 특성과 개별 조사항목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사항목별로 추가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분석 시에는 조사구별 조사 완료율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가중치를 반영하여 자료를 분석함에 따라 통계표에 제시된 사례 수나 백분율의 합이 정확히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가중치 적용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분석 결과의 신뢰도와 해석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승수 적용결과 반올림에 의해 백분율이 100.0을 약간 넘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도 ‘계’에서는 100.0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사항목별 분석에 있어 해당 문항과 관련이 없는 ‘비해당’과 ‘무응답’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분석 시 대리응답자 응답의 포함 여부는 조사 문항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였고, 개별 표의 하단에 주석으로 분석 대상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또한, 2023년도 조사항목 중 2020년도 조사 결과값이 있는 항목은 해당 표의 하단에 조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2023년과 2020년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내용에 대한 시·도 통계는 부록에 제시하여 정책입안자나 지역별 특성의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음(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제3절 표본설계

1. 모집단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조사 기준시점 대한민국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본 조사의 조사 모집단은 전체 조사구 중 섬 조사구, 집단시설 조사구(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일반조사구(아파트/보통 조사구)의 모든 가구 및 가구 내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외 체류자, 군인, 수형자 등 가구 미 거주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층화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활용한 모집단 층화 변수와 현황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1차 층화는 17개 시·도, 2차 층화는 동부와 읍·면부, 3차 층화는 일반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를 층화변수로 고려하였다. 2차 층화 시 특별·광역시·세종시의 읍·면 지역은 동부로 통합분류⁴⁾하고 9개 도 지역은 동부와 읍·면부로 층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특별·광역시·세종시의 경우 16개 층(지역(8) × 조사구 특성(2))으로, 도 지역의 경우 36개 층(지역(9) × 지역 특성(2) × 조사구 특성(2))으로 나뉘어 총 52개 층으로 구분되었다.

<표 1-4> 모집단 층화 변수 및 현황

구분	특별·광역시·자치시		도 지역				층수
1차 층화: 시·도	특별·광역시·세종시: 8개		도 지역: 9개				17개
2차 층화: 동부, 읍·면부	동부		동부	읍·면부			26개
3차 층화: 조사구 특성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52개
층수	16개		36개				-

4) 특별·광역시의 읍·면 지역은 규모가 작고, 동 지역과 사회·경제적 환경 등에 있어 유사 생활권으로 판단되어 동부로 통합분류하였고, 세종시는 동부와 읍·면부의 규모가 유사하나 세종시 규모가 작아 편의상 통합분류하였음. 표본추출 단계에서 동부와 읍·면부로 정렬 후 실행하므로 특별·광역시·세종시의 읍·면 지역도 모집단의 비율만큼 반영됨.

<표 1-5> 시·도별 모집단 가구 및 인구 현황

(단위: 가구, 명, %)

구분	가구 현황			인구 현황		
	가구 수(A)	만 65세 이상 노인 거주 가구 수(B)	비율 (B/A*100)	인구 수(A)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B)	비율 (B/A*100)
전국	21,347,713	6,187,995	29.0	49,989,438	8,314,193	16.6
서울	4,037,203	1,123,047	27.8	9,257,937	1,534,075	16.6
부산	1,427,305	477,538	33.5	3,219,917	638,688	19.8
대구	999,367	294,813	29.5	2,319,727	396,679	17.1
인천	1,174,245	307,542	26.2	2,865,331	407,383	14.2
광주	614,731	152,750	24.8	1,425,767	204,336	14.3
대전	638,470	155,923	24.4	1,424,193	209,613	14.7
울산	449,754	108,833	24.2	1,087,266	144,224	13.3
세종	144,936	25,676	17.7	356,236	34,588	9.7
경기	5,270,918	1,327,097	25.2	13,245,361	1,785,579	13.5
강원	672,383	233,492	34.7	1,461,820	312,098	21.3
충북	693,566	210,599	30.4	1,555,144	282,438	18.2
충남	910,918	289,862	31.8	2,075,179	392,472	18.9
전북	769,926	273,873	35.6	1,709,516	366,830	21.5
전남	752,782	293,122	38.9	1,656,522	388,252	23.4
경북	1,152,150	412,177	35.8	2,510,018	553,376	22.0
경남	1,371,334	426,196	31.1	3,175,403	561,433	17.7
제주	267,725	75,455	28.2	644,101	102,129	15.9

2021년 기준으로 등록 기반 가구 부문 표본추출틀에 집계된 전체 시·도별 조사구는 388,604개이며, 이 중 노인이 거주하는 조사구는 381,923개로 전체 조사구의 98.3%로 나타났다.

<표 1-6> 시·도별 조사구 및 노인 거주 조사구 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조사구 수(A)	노인 거주 조사구 수(B)	비율 (B/A*100)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전국	388,604	381,923	98.3	136,596	173,449	49,253	22,625
서울	72,334	70,917	98.0	40,230	30,687	—	—
부산	26,543	26,212	98.8	10,951	15,261	—	—
대구	17,166	17,035	99.2	7,071	9,964	—	—
인천	20,868	20,603	98.7	9,300	11,303	—	—
광주	10,596	10,459	98.7	3,527	6,932	—	—
대전	10,891	10,692	98.2	4,828	5,864	—	—
울산	8,313	8,187	98.5	3,174	5,013	—	—
세종	2,665	2,508	94.1	564	1,944	—	—
경기	93,870	92,310	98.3	30,037	46,043	9,836	6,394
강원	12,941	12,696	98.1	2,813	4,397	3,967	1,519
충북	12,837	12,603	98.2	2,736	4,230	3,629	2,008
충남	16,967	16,441	96.9	2,714	4,470	6,153	3,104
전북	14,366	14,216	99.0	3,661	6,014	3,785	756
전남	14,683	14,410	98.1	2,081	3,830	6,453	2,046
경북	22,135	21,701	98.0	4,596	6,166	7,940	2,999
경남	26,053	25,666	98.5	5,979	9,915	6,105	3,667
제주	5,376	5,267	98.0	2,334	1,416	1,385	132

표본설계 시 표본추출틀은 현시점에서 가장 최신 모집단 자료인 통계청의 2021년 기준 등록 기반 가구 부문 표본추출틀(인구총조사)의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 제외한 일반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를 사용하였다.

2021년 기준 등록 기반 가구 부문 표본추출틀(인구총조사)에 제시된 시·도별 가구 및 인구 현황을 보면, 전국의 전체 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는 29.0%이며, 전체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6.6%로 집계되었다. 노인

거주 가구 및 노인인구 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집중되어 있지만, 해당 시·도별 전체 가구 대비 노인 가구 비율을 보면, 전라남도가 38.9%로 가장 높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7.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명시적 층화변수로 활용하지는 않지만 노인실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잠재적 층화변수로 활용하여 표본추출 단계에서 모집단의 비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정 변수에 대해 정렬 후 계통추출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변수에 대해 비례배분 효과를 줄 수 있어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과거 조사와 일관성을 위해 2021년 기준 등록 기반 가구 부문 표본추출틀(인구총조사) 조사구 자료에 존재하는 만 65세 이상 인구 수, 노인 1인 가구 비율 변수를 잠재적 층화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1-7> 잠재적 층화변수(분류지표)

구분	내용
1차	만 65세 이상 인구 수
2차	노인 1인 가구 비율

3. 표본크기 결정

표본크기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는 생산할 주요 통계의 허용 목표 오차 크기, 통계생산 단위의 수준, 가용 예산, 조사 일정 등이 있다.

목표 허용 오차를 95% 신뢰수준에서 $\pm 1.0\%$ 로 설정할 경우, 다음 공식에 의해 9,593명이 표본크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p 는 모집단 비율(0.5 가정), d 는 목표 허용오차, N 은 모집단 크기를 나타낸다.

$$n = n_0 / (1 + n_0 / N), n_0 = \frac{z_{\alpha/2}^2 p(1-p)}{d^2}$$

예산 규모와 조사 일정, 과거 노인실태조사의 표본크기, 허용오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표본 규모는 과거와 동일한 10,000명으로 하며, 시·도별로 할당된 표본 인원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노인 거주 가구 수는 시·도별 가구당 노인인구 수(가구당 평균 1.34명)를 고려하여 7,454가구로 결정하였다. 가구당 노인 수는 2021년 기준 등

록기반 가구부문 표본추출틀(인구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8,314,913명)와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6,187,995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노인 거주 가구당 평균 1.34명의 노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1-8> 표본크기 특성

구분	내용
표본크기	10,000명(7,454가구)
표본오차	비율 추정 시 95% 신뢰수준 $\pm 0.98\%p$ (설계효과 1.6~2.0 적용 시 $\pm 1.44\%p \sim \pm 1.61\%p$)

4. 표본배분

1차 층화변수인 시·도별 표본배분은 2020년도 조사와의 일관성을 고려하면서 시·도별로 안정적인 표본크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별 노인인구 수에 따라 제곱근 비례배분하여 1차 표본배분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시·도별 안정적인 통계 생산을 위해 17개 시·도 중 노인인구 규모가 극단적으로 작은 세종시의 표본크기를 200명으로 할당한 후 지역별로 0~3명을 조정하여 최종 표본배분 방안을 확정하였다. 시·도별 표본 가구 수는 시·도별 가구당 평균 노인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시·도별 표본배분에서 모집단 비율을 직접 반영하지 않고 제곱근 비례 후 일부 조정하였으므로 가중치 단계에서 모집단 비율을 반영하여 통계생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표 1-9>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단위: 명, 가구)

구분	모집단			표본배분(노인인구 수)		표본배분 가구 수 (노인 거주 가구 수 환산=D/C)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A)	만 65세 이상 노인 거주 가구 수(B)	가구당 평균 노인인구 수 (C=A/B)	제공근 비례배분	시·도별 조정(D)	
전국	8,314,193	6,187,995	1.34	10,000	10,000	7,454
서울	1,534,075	1,123,047	1.37	1,138	1,135	831
부산	638,688	477,538	1.34	735	733	548
대구	396,679	294,813	1.35	579	577	429
인천	407,383	307,542	1.32	587	585	442
광주	204,336	152,750	1.34	416	414	309
대전	209,613	155,923	1.34	421	420	312
울산	144,224	108,833	1.33	349	349	263
세종	34,588	25,676	1.35	171	200	148
경기	1,785,579	1,327,097	1.35	1,228	1,225	910
강원	312,098	233,492	1.34	514	512	383
충북	282,438	210,599	1.34	489	487	363
충남	392,472	289,862	1.35	576	574	424
전북	366,830	273,873	1.34	557	555	414
전남	388,252	293,122	1.32	573	571	431
경북	553,376	412,177	1.34	684	682	508
경남	561,433	426,196	1.32	689	687	522
제주	102,129	75,455	1.35	294	294	217

2차 층화변수인 시·도 내 동부·읍·면부의 표본 가구 수 배분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10> 시·도별, 동부·읍·면부별 표본배분 결과: 가구

(단위: 가구)

구분	만 65세 이상 노인 거주 모집단 가구 수			표본배분 결과(가구)		
	전체	동부	읍·면부	전체	동부	읍·면부
전국	6,187,995	4,663,826	1,524,169	7,454	5,454	2,000
서울	1,123,047	1,123,047	—	831	831	—
부산	477,538	477,538	—	548	548	—
대구	294,813	294,813	—	429	429	—
인천	307,542	307,542	—	442	442	—
광주	152,750	152,750	—	309	309	—
대전	155,923	155,923	—	312	312	—
울산	108,833	108,833	—	263	263	—
세종	25,676	25,676	—	148	148	—
경기	1,327,097	1,045,302	281,795	910	717	193
강원	233,492	119,249	114,243	383	196	187
충북	210,599	99,702	110,897	363	172	191
충남	289,862	85,968	203,894	424	126	298
전북	273,873	151,104	122,769	414	228	186
전남	293,122	88,235	204,887	431	130	301
경북	412,177	159,180	252,997	508	196	312
경남	426,196	221,236	204,960	522	271	251
제주	75,455	47,728	27,727	217	137	80

3차 층화변수인 시·도 및 동부/읍·면부 내 조사구 특성(아파트·일반)의 표본 가구 수 배분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11> 시·도, 동부·읍·면부, 조사구 특성(아파트·일반)별 표본배분 결과: 가구
(단위: 가구)

구분		만 65세 이상 노인 거주 모집단 가구 수			표본배분 결과(가구)		
		아파트	일반	합계	아파트	일반	합계
전국		2,757,420	3,430,575	6,187,995	3,222	4,232	7,454
서울	동부	530,024	593,023	1,123,047	392	439	831
부산		255,195	222,343	477,538	293	255	548
대구		158,128	136,685	294,813	230	199	429
인천		159,461	148,081	307,542	229	213	442
광주		99,629	53,121	152,750	202	107	309
대전		88,158	67,765	155,923	176	136	312
울산		53,161	55,672	108,833	128	135	263
세종		15,163	10,513	25,676	87	61	148
경기	동부	634,596	410,706	1,045,302	435	282	717
	읍·면부	86,351	195,444	281,795	59	134	193
강원	동부	65,140	54,109	119,249	107	89	196
	읍·면부	16,286	97,957	114,243	27	160	187
충북	동부	55,225	44,477	99,702	95	77	172
	읍·면부	19,199	91,698	110,897	33	158	191
충남	동부	48,190	37,778	85,968	71	55	126
	읍·면부	31,126	172,768	203,894	45	253	298
전북	동부	88,529	62,575	151,104	134	94	228
	읍·면부	9,284	113,485	122,769	14	172	186
전남	동부	46,690	41,545	88,235	69	61	130
	읍·면부	19,091	185,796	204,887	28	273	301
경북	동부	77,138	82,042	159,180	95	101	196
	읍·면부	30,489	222,508	252,997	38	274	312
경남	동부	117,349	103,887	221,236	144	127	271
	읍·면부	39,095	165,865	204,960	48	203	251
제주	동부	13,806	33,922	47,728	40	97	137
	읍·면부	917	26,810	27,727	3	77	80

한편, 2021년 기준 등록기반 가구부문 표본추출틀(인구총조사)을 분석해 보면, 조사구당 평균 만 65세 이상 노인 거주 가구는 동부 15.0가구, 읍·면부 21.2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구당 표본 조사 가구 수는 동부 7가구, 읍·면부 10가구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통계의 정도(precision)와 조사비용, 표본 대체 등 현장조사 업무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동 지역의 경우 노인 수가 적음도 동시에 고려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배분된 가구수를 조사구로 환산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12> 세부 층별 모집단 현황 및 표본배분 결과: 조사구

(단위: 개)

구분	만 65세 이상 노인 거주 조사구 현황(모집단)					표본배분 결과				
	전체	동부		읍·면부		전체	동부		읍·면부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전국	381,923	173,449	136,596	22,625	49,253	977	419	359	32	167
서울	70,917	30,687	40,230	—	—	119	56	63	—	—
부산	26,212	15,261	10,951	—	—	78	42	36	—	—
대구	17,035	9,964	7,071	—	—	61	33	28	—	—
인천	20,603	11,303	9,300	—	—	63	33	30	—	—
광주	10,459	6,932	3,527	—	—	44	29	15	—	—
대전	10,692	5,864	4,828	—	—	44	25	19	—	—
울산	8,187	5,013	3,174	—	—	37	18	19	—	—
세종	2,508	1,944	564	—	—	21	12	9	—	—
경기	92,310	46,043	30,037	6,394	9,836	121	62	40	6	13
강원	12,696	4,397	2,813	1,519	3,967	47	15	13	3	16
충북	12,603	4,230	2,736	2,008	3,629	44	14	11	3	16
충남	16,441	4,470	2,714	3,104	6,153	48	10	8	5	25
전북	14,216	6,014	3,661	756	3,785	50	19	13	2	16
전남	14,410	3,830	2,081	2,046	6,453	49	10	9	3	27
경북	21,701	6,166	4,596	2,999	7,940	59	14	14	4	27
경남	25,666	9,915	5,979	3,667	6,105	64	21	18	5	20
제주	5,267	1,416	2,334	132	1,385	28	6	14	1	7

5. 표본조사구 및 표본가구, 표본가구원 추출

본 조사에서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 2차 추출단위는 가구, 3차 추출단위는 가구 내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표본추출 전 층화변수인 시/도, 동부/읍·면부, 조사구 특성(아파트, 일반)과 잠재적 층화변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노인 1인 가구 비율로 정렬하였다.

1차 추출단위인 조사구는 조사구 내의 노인 거주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을 적용하여 추출하였다. 2차 추출단위인 가구는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의 가구 명부를 통계청으로부터 수령한 후에 동부 7가구, 읍·면부 10가구를 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추출단위인 가구 내 만 65세 이상 가구원은 현장조사 단계에서 조사원이 가구 내 만 65세 이상 가구원을 전수조사하였다. 표본추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13> 추출 단위별 표본추출 방법

추출 단위	내용
1차 추출 단위(psu): 조사구	조사구 내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
2차 추출 단위(ssu): 가구	본조사구 내의 가구명부를 확인한 후에 동부는 7가구, 읍·면부는 10가구를 계통추출법으로 선정
3차 추출 단위(tsu): 가구원	가구 내 만 65세 이상 적격 가구원 전수 조사

6. 최종 자료 수집 결과

가. 조사구 및 표본 대체 현황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 유고(재개발, 아파트 관리소 강력 거절 등) 시 표본대체를 위해 층 내 유사한 특성(층화 분류지표 기준)의 조사구로 대체하며, 이를 위해 2배수의 예비 조사구를 운영하였다. 실사 단계에서 추출된 가구 내 적격 가구원이 부재하거나, 적격 가구원의 장기 부재, 강력한 조사거절, 조사 불가능 등의 경우에는 해당 조사구 내에서 예비표본 가구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표본 조사구 및 가구 대체 시에는 조사원

의 임의적 대체가 불가능하며, 대체 사유가 발생 시 실사 관리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본표본 조사구 977개 중 예비표본 조사구로 대체된 조사구는 총 21개(보통조사구 6개, 아파트조사구 15개)이며, 조사구 특성 및 대체 사유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14> 표본조사구 대체 현황

구분	본조사구 번호	시·도	시·군·구	조사구 유형	대체 사유
1	1110056****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통조사구	거절 많음
2	2405058****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통조사구	주택 개조한 작은 공장이 많아 조사 불능 재개발
3	3106055****	경기도	광명시	보통조사구	
4	320103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통조사구	
5	3433011****	충청남도	부여군	보통조사구	
6	3505051****	전라북도	남원시	보통조사구	상가밀집지역
7	1116070****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파트조사구	거주지 아님(상가건물)
8	112205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파트조사구	관리사무소 거절
9	210505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파트조사구	관리사무소 거절
10	2107057****	부산광역시	남구	아파트조사구	관리사무소 거절
11	2107057****	부산광역시	남구	아파트조사구	관리사무소 거절
12	211006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파트조사구	아파트 주민 단체 거절
13	2111068****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파트조사구	재개발
14	2401058****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조사구	관리사무소 거절
15	2401058****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조사구	관리사무소 거절
16	2401058****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조사구	관리사무소 거절
17	2602057****	울산광역시	남구	아파트조사구	관리사무소 거절
18	2602057****	울산광역시	남구	아파트조사구	관리사무소 거절
19	3104157****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조사구	재개발
20	3436011****	충청남도	홍성군	아파트조사구	관리사무소 거절
21	3502072****	전라북도	군산시	아파트조사구	관리사무소 거절

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총 11,633가구를 방문하였으며, 이 중 4,028가구는 늦은 귀가, 장기 출타, 부재중(원인 미파악), 일부 문항 미완, 조사 거부, 요양시설 입소, (요양)병원 입원, 노인 가구원 없음, 기타 등의 사유로 표본을 대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체 조사 성공 가구 수는 7,605가구이며, 조사 불성실, 조사 대상의 부적합 등의 사례를 제외하여 최종 7,556가구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1-15> 지역별 표본대체 현황

(단위: 가구)

구분	전체 방문 가구 수	전체 성공 가구 수 ¹⁾	표본 대체 가구 수									
			전체	낮은 귀가	장기 출타	부재중 (원인 미파악)	일부 문항 미완	조사 거부	요양 시설 입소	(요양) 병원 입원	노인 가구원 없음	기타 ²⁾
전국	11,633	7,605	4,028	133	189	1,179	3	1,706	63	97	537	121
서울	1,255	881	374	22	16	114	1	179	1	4	34	3
부산	947	550	397	9	18	115	0	186	11	11	40	7
대구	794	437	357	4	16	94	0	174	2	8	56	3
인천	655	464	191	18	2	65	0	77	0	3	20	6
광주	509	315	194	10	14	17	0	118	1	2	27	5
대전	575	314	261	18	16	74	0	99	2	3	43	6
울산	423	261	162	5	10	39	0	59	3	4	35	7
세종	198	151	47	1	2	17	1	22	0	0	4	0
경기	1,331	932	399	4	2	191	0	148	3	2	47	2
강원	641	396	245	2	7	83	0	92	5	5	37	14
충북	547	370	177	3	2	75	0	60	0	2	35	0
충남	553	426	127	1	9	44	0	51	0	3	10	9
전북	547	414	133	1	2	35	0	52	0	4	27	12
전남	687	440	247	13	28	36	0	118	13	14	9	16
경북	818	508	310	10	21	72	1	120	12	14	53	7
경남	755	526	229	3	12	68	0	97	4	7	27	11
제주	398	220	178	9	12	40	0	54	6	11	33	13

주: 1) 전체 성공 가구 수는 노인가구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10,178명 기준(조사 불성실, 조사 대상의 부적합 등의 사례를 제외한 10,078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

2) 기타에는 상가, 빈집, 폐가 등이 포함됨.

나. 가구 및 개인 표집 현황

본 조사의 유효표본 가구 수는 7,556가구로 목표 표본크기(7,454가구)의 101.4%이다. 유효표본 가구는 행정단위(동부, 읍·면부)별로 동부 5,571가구(73.7%), 읍·면부 1,985가구(26.3%)이며, 조사구 특성(아파트, 일반)별로는 아파트 3,343가구(44.2%), 일반 4,213가구(55.8%)이다.

<표 1-16> 시·도별 표집 현황: 가구

(단위: 가구, %)

구분	동부						읍·면부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목표 할당	조사 완료	완료율 (%)	목표 할당	조사 완료	완료율 (%)	목표 할당	조사 완료	완료율 (%)	목표 할당	조사 완료	완료율 (%)
전국	2,927	3,022	103.2	2,528	2,549	100.8	295	321	108.8	1,704	1,664	97.7
서울	392	427	108.9	439	449	102.3	-	-	-	-	-	-
부산	293	294	100.3	255	254	99.6	-	-	-	-	-	-
대구	230	237	103.0	199	198	99.5	-	-	-	-	-	-
인천	229	247	107.9	213	210	98.6	-	-	-	-	-	-
광주	202	204	101.0	107	110	102.8	-	-	-	-	-	-
대전	176	180	102.3	136	129	94.9	-	-	-	-	-	-
울산	128	126	98.4	135	133	98.5	-	-	-	-	-	-
세종	87	86	98.9	61	64	104.9	-	-	-	-	-	-
경기	435	452	103.9	282	291	103.2	59	62	105.1	134	124	92.5
강원	107	110	102.8	89	92	103.4	27	27	100.0	160	163	101.9
충북	95	101	106.3	77	77	100.0	33	29	87.9	158	160	101.3
충남	71	69	97.2	55	56	101.8	45	53	117.8	253	247	97.6
전북	134	132	98.5	94	100	106.4	14	19	135.7	172	162	94.2
전남	69	71	102.9	61	64	104.9	28	31	110.7	273	270	98.9
경북	95	98	103.2	101	99	98.0	38	40	105.3	274	271	98.9
경남	144	146	101.4	127	126	99.2	48	50	104.2	203	197	97.0
제주	40	42	105.0	97	97	100.0	3	10	333.3	77	70	90.9

본 조사의 유효표본 응답자 수는⁵⁾ 10,078명으로 목표 표본크기(10,000명)의 100.8%이다. 성별로는 남자 3,872명(38.4%), 여자 6,206명(61.6%)이며, 연령대별로는 65~69세 3,249명(32.2%), 70~74세 2,482명(24.6%), 75~79세 1,950명(19.3%), 80~84세 1,544명(15.3%), 85~89세 668명(6.6%), 90세 이상 185명(1.8%)이다.⁶⁾

5) 노인가구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응답자는 10,178명이지만, 조사 불성실, 조사 대상의 부적합 등의 사례를 제외한 10,078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함.

6) <표 1-17>은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표 1-21>과 차이가 있음.

<표 1-17> 시·도별 표집 현황: 개인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자						여자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세 이상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세 이상
전국	10,078	1,180	1,041	775	585	233	58	2,069	1,441	1,175	959	435	127
서울	1,167	165	156	76	43	12	6	326	201	92	58	26	6
부산	723	86	83	67	30	13	4	159	110	78	60	29	4
대구	606	93	66	51	24	7	—	187	82	55	31	6	4
인천	609	100	55	37	34	11	1	170	77	54	39	27	4
광주	443	43	32	47	31	10	2	67	77	71	34	23	6
대전	403	38	42	39	27	11	5	69	60	45	44	17	6
울산	342	49	37	25	19	10	2	67	50	37	35	8	3
세종	198	9	18	9	12	14	1	22	22	26	41	19	5
경기	1,252	188	158	94	53	13	5	318	201	114	63	34	11
강원	511	35	39	36	34	16	6	74	70	78	89	29	5
충북	480	31	42	40	43	10	7	70	60	71	71	28	7
충남	550	49	40	36	43	29	5	71	68	79	66	50	14
전북	548	44	56	53	33	19	1	80	84	76	68	25	9
전남	570	52	40	42	48	24	7	70	54	82	97	38	16
경북	694	97	66	45	43	6	2	154	94	91	63	20	13
경남	687	73	81	52	43	18	2	125	91	88	76	28	10
제주	295	28	30	26	25	10	2	40	40	38	24	28	4

7. 가중치 조정 및 추정

가. 가중치 산출

가중치는 조사된 개체와 모집단의 개체 간의 관계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표본의 특성을 모집단의 특성과 유사하도록 보정해준다. 이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한 모수추정을 통해 모평균이나 모비율 등에 대한 비편향 추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적용의 3단계를 거쳐 산출한다. 설계가중값은 표본설계로부터 직접 구해지며, 조사구 내 가구 수를 크기 척도로 사용하여 확률비례추출방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에 의해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 내에서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다. 가중치 산출 시 활용한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1) 설계가중치

- 표본 조사구에 대한 추출률의 역수와 표본 조사구에서 가구조사 착수율의 역수를 곱하여 산정

$$w_{1hij} = \frac{\sum_{h=1}^{N_h} M_{hi}}{n_h \cdot M_{hi}} \times \frac{M_{hi}^*}{m_{hi}}$$

- n_h : h 층에 할당된 표본 조사구수
- N_h : h 층의 모집단 조사구 수
- M_{hi} : h 층의 i 조사구 내의 명부상 가구 수
- M_{hi}^* : h 층의 i 조사구 내의 실제 가구 수
- m_{hi} : h 층 내의 i 조사구 내의 표본 가구 수
- 일반적으로 모집단 가구 수와 모집단 적격 가구 수가 유사하다고 가정 ($M_{hi} \cong M_{hi}^*$)

2) 무응답 조정 계수

- 해당 지역 내 세부 층에서 조사 가구에 대한 설계가중치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며, 무응답 조정은 표본 조사구 단위로 진행함.

$$w_{2hi} = \frac{m_{hi}}{r_{hi}}$$

- m_{hi} : h 층 내의 i 조사구 내의 표본가구 수
(원칙적으로 동부 7가구, 읍·면부 10가구)
- r_{hi} : h 층 내의 i 조사구 내 실제 응답한 가구 수

3) 표본 가구 내 가구원 응답률 반영

- 표본 가구 내에서 적격 가구원을 전수 조사하지만 조사 불능 및 조사 불응의 사유로 전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가구마다 가구원 추출률이 상이하므로 이를 보정하였음.

$$w_{3hij} = \frac{e_{hij}}{e_{hij}^{(r)}}$$

- e_{hij} : h 층 내의 i 조사구 j 가구 내의 적격 가구원 수
- $e_{hij}^{(r)}$: h 층 내의 i 조사구, j 가구의 실제 응답 가구원 수

4) 사후 층화 보정

- 모집단과 표본의 구조가 유사하도록 2023년 추계인구(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사후 층(시/도(17), 성별(2), 연령대별(5))별 구성비를 보정하였음.

5) 최종 가중치

- 최종가중치 (w_{hij}) = 설계가중치 × 무응답 조정 계수 × 표본 가구 내 가구원 응답률 역수 × 사후층화 보정 계수

나. 모수 추정식

본 조사의 표본설계는 여러 가지 추출법을 혼합하여 설계된 복합표본설계 기법이므로 이에 적합한 모수추정식을 적용하였다.

□ 첨자 정의

- $h = 1, 2, \dots, H$, 층을 나타내는 첨자
- $i = 1, 2, \dots, n_h$, h 층 내 집락을 나타내는 첨자

○ $j = 1, 2, \dots, m_{hi}$, h 층 내 i 집락 내 조사 단위를 나타내는 첨자

○ w_{hij} : h 층, i 집락, j 조사 단위의 가중값

○ y_{hij} : h 층, i 집락, j 조사 단위의 응답값

□ 모평균(모비율) 추정량

$$\hat{Y} = \frac{\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w_{..}}, \quad w_{..}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 모비율 추정일 경우, y_{hij} 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짐

□ 모평균(모비율)에 대한 분산 추정식

$$\hat{V}(\hat{Y})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2$$

$$\text{○ } f_h = \frac{n_h}{N_h}$$

$$\text{○ }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hat{Y}) \right] / w_{..}$$

$$\text{○ } \bar{e}_{h\cdot} = (\sum_{i=1}^{n_h} e_{hi\cdot}) / n_h$$

□ 모평균(모비율)에 대한 표준오차 산출

$$\widehat{SE}(\hat{Y}) = \sqrt{\hat{V}(\hat{Y})}$$

□ 모평균(모비율)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추정

$$\widehat{RSE}(\hat{Y}) = \frac{\sqrt{\hat{V}(\hat{Y})}}{\hat{Y}} \times 100(\%)$$

모수추정에서 추정치, 표준오차와 상대표준오차의 계산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과를 얻도록 SAS PROC SURVEYMEANS를 사용하였다.

```
proc surveymeans data= 노인실태조사 데이터 total = 모집단 정보 데이터
mean stderr cv;
    var 분석변수;
    cluster 집락변수;
    strata 층화변수;
    weight 가중치변수;

run ;
```

8. 상대표준오차

통계청(2023b)의 2023년 자체통계품질진단 매뉴얼에 따르면 주요항목의 상대표준오차는 조사 규모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대표준오차 값이 30% 미만이면 신뢰할 수 있는 추정값으로 사용할 수 있고(신뢰도 높으며, 데이터 이용에 문제없는 수준), 30% 이상 60% 미만 수준에서는 주의와 함께 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만성질환 총 수와 유배우자 비율, 주관적 건강 상태 및 인지저하자 비율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는 각각 1.50%, 1.16%, 0.53%, 3.79%로 매우 안정적이다. 읍·면부 지역의 인지저하자 비율에 대한 추정의 상대표준오차는 6.5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 역시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 1-18> 주요 조사항목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분석 결과: 지역 규모 기준

구분	추정 항목	추정값	표준오차(s.e.)	상대표준오차(rse)
전체	만성질환 개수	2.2개	0.033	1.50%
	유배우자 비율	60.0%	0.007	1.16%
	주관적 건강상태	3.2점	0.017	0.53%
	인지저하자 비율	24.6%	0.009	3.79%
동부	만성질환 개수	2.1개	0.039	1.82%
	유배우자 비율	60.6%	0.008	1.36%
	주관적 건강상태	3.3점	0.019	0.59%
	인지저하자 비율	23.2%	0.011	4.63%
읍·면부	만성질환 개수	2.3개	0.061	2.67%
	유배우자 비율	58.3%	0.013	2.20%
	주관적 건강상태	3.1점	0.036	1.18%
	인지저하자 비율	28.7%	0.019	6.58%

17개 시·도별 상대표준오차 분석 결과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표본 수가 적은 세종의 경우 상대표준오차가 9.62%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특성별 기준으로 볼 때 안정적이며, 그 외 시·도의 경우에도 7% 이하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전체 추정값 비율의 자체가 낮은 수준(응답 사례가 적은 경우)의 항목일 경우에는 유의해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주요 조사항목별 및 응답자의 일반특성별 상대표준오차는 [부록 II]에 제시하였다.

<표 1-19> 주요 조사항목 추정에 대한 시·도별 상대표준오차 분석 결과: 지역별 유배우자 비율

구분	추정값	표준오차(s.e.)	상대표준오차(rse)
전체	60.0%	0.007	1.16%
서울	62.1%	0.017	2.78%
부산	56.5%	0.019	3.39%
대구	59.5%	0.030	4.97%
인천	61.2%	0.028	4.61%
광주	64.2%	0.033	5.10%
대전	55.5%	0.035	6.30%
울산	56.0%	0.033	5.82%
세종	62.7%	0.060	9.62%
경기	61.8%	0.019	3.01%
강원	62.3%	0.029	4.69%
충북	57.3%	0.029	5.07%
충남	55.7%	0.026	4.68%
전북	61.0%	0.029	4.69%
전남	56.0%	0.029	5.11%
경북	55.7%	0.033	5.94%
경남	61.9%	0.021	3.47%
제주	64.5%	0.040	6.16%

제4절 응답자 일반특성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응답자 수는 총 10,078명으로 이 중 본인응답이 98.8%, 대리응답이 1.2%였다. 대리응답의 이유는 ‘노쇠해서’가 33.4%로 가장 많았고, ‘정신 심리 상태의 불안정 또는 인지기능 저하(치매)’ 29.8%, ‘와병 상태’ 18.4%, ‘청각 문제’ 12.9%, ‘언어 문제’ 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리응답자의 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가 45.0%로 가장 많았으며, 장남(22.1%), 장남의 배우자(15.6%), 장녀(7.1%) 등의 순이었다. 대리응답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조사항목 중 가구 일반사항과 경제상태 영역의 문항에 타인(응답자 2)이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16.6%였으며, 조사 대상인 노인과 응답자 2의 관계는 배우자가 96.4%였다.

〈표 1-20〉 노인의 응답유형 및 대리응답

(단위: %, 명)

응답유형	비율	(명)	대리응답 이유	비율	(명)	대리응답자의 노인과의 관계	비율	(명)
본인응답	98.8	(9,955)	와병 상태	18.4	(23)	배우자	45.0	(55)
대리응답	1.2	(123)	정신 심리 상태의 불안정 또는 인지기능 저하(치매)	29.8	(37)	장남	22.1	(27)
			청각 문제	12.9	(16)	장남의 배우자	15.6	(19)
			언어 문제	5.5	(7)	차남 이상	2.3	(3)
			노쇠해서	33.4	(41)	장녀	7.1	(9)
			기타	0.0	(0)	장녀의 배우자	0.7	(1)
						차녀 이상	4.3	(5)
						기타 ¹⁾	2.9	(4)
계	100.0	(10,078)	계	100.0	(123)	계	100.0	(123)

주: 1) 기타에는 형제·자매, 친구 및 이웃,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음.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응답자의 일반특성을 2020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로 동부 거주 노인은 73.9%, 읍·면부 거주 노인은 26.1%로 2020년에 비해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1.9%포인트 낮았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 지역 거주 노인의 비율이 22.0%로 가장 높았고, 서울(17.8%), 부산(7.6%), 경남(6.8%) 등의 순을 보였다. 2020년과 비교할 때, 경기 지역(1.3%포인트 증가)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비율 차이는 0.5%포인트 이내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성별의 경우 2020년과 유사하게 여자 노인(56.1%)이 남자 노인(43.9%)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군별 비율은 65~69세(34.5%), 70~74세(23.6%), 75~79

세(17.3%), 80~84세(14.0%), 85~89세(8.2%), 90세 이상(2.5%) 순으로 높았고 평균 연령은 74.1세였다. 2020년과 비교할 때 고령일수록 전체 응답자 대비 비율이 낮은 경향은 유사하였으나, 세부 연령군별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75~79세 5.4%포인트 감소, 85~89세 3.2%포인트 증가 등).

다음으로, 노인의 가족 또는 가구 특성의 경우 2020년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 유배우 노인의 비율은 60.0%로 2020년에 비해 7.1%포인트 감소하였다. 가구형태의 경우 부부가구가 55.2%로 가장 많고, 독거가구(32.8%), 자녀동거가구(10.3%), 기타 가구(1.7%) 순이었다. 2020년에는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독거가구, 기타 가구의 순이었으나, 독거가구의 비율이 13.0%포인트 증가하고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이 9.8%포인트 감소하였다. 가구원 수의 경우, 2인 가구(59.5%), 1인 가구(32.8%), 3인 가구(5.8%), 4인 가구(1.2%) 등의 순이었으며, 2020년과 비교할 때 독거가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그 외 집단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평균 가구원 수도 2020년 2.0명에서 2023년 1.8명으로 0.2명 낮았다.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 본인이 73.6%로 가장 많았고, 가구주의 배우자(24.7%),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1.5%), 기타(0.2%)의 순이었다. 2020년에 비해 가구주 본인의 비율은 증가하고 가구주의 배우자와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 비율은 감소하였다.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가 31.2%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졸업(28.2%), 중학교 졸업(21.2%), 무학(12.3%), 전문대학 졸업 이상(7.0%) 순이었다. 2020년에는 초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으나, 2023년도 조사에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의 비율이 감소하고, 무학,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 중인 노인이 전체 응답자의 39.0%로, 2020년에 비해 3.7%포인트 높았다. 소득수준은 5개 분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분위별 기준은 제1오분위 1,031만 원 미만, 제2오분위 1,031~1,818만 원, 제3오분위 1,818~3,298만 원, 제4오분위 3,298~5,385만 원, 제5오분위 5,385만 원 이상이었다. 2020년에 비해 제1오분위의 소득 상한액은 약 85만 원, 제5오분위의 소득 하한액은 약 1,060만 원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 비율이 50% 미만인 비율은 37.5%, 150% 이상인 비율은 18.1%였는데, 2020년에 비해 50% 미만 비율은 2.1%포인트 낮고 150% 이상 비율은 7.5%포인트 높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전체 응답자의 18.6%로, 2020년에 비해 6.4%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1-21〉 응답자 일반특성(2020년도와 비교표)

(단위: %, 명)

특성	2023년		2020년	
	비율	(명)	비율	(명)
전체 ¹⁾	100.0	(10,078)	100.0	(10,097)
지역				
동부	73.9	(7,450)	75.8	(7,651)
읍·면부	26.1	(2,628)	24.2	(2,446)
시·도				
서울	17.8	(1,795)	18.0	(1,820)
부산	7.6	(769)	7.8	(784)
대구	4.7	(472)	4.8	(486)
인천	5.1	(511)	4.8	(487)
광주	2.5	(249)	2.5	(255)
대전	2.5	(256)	2.5	(256)
울산	1.8	(180)	1.7	(168)
세종	0.4	(43)	0.4	(39)
경기	22.0	(2,220)	20.7	(2,090)
강원	3.7	(377)	3.8	(380)
충북	3.4	(344)	3.4	(346)
충남	4.7	(472)	4.8	(487)
전북	4.3	(438)	4.6	(468)
전남	4.7	(475)	5.1	(520)
경북	6.6	(663)	6.9	(694)
경남	6.8	(690)	6.9	(692)
제주	1.2	(124)	1.2	(126)
성				
남자	43.9	(4,429)	43.0	(4,346)
여자	56.1	(5,649)	57.0	(5,751)
연령				
65~69세	34.5	(3,473)	33.1	(3,344)
70~74세	23.6	(2,377)	23.2	(2,342)
75~79세	17.3	(1,743)	22.7	(2,292)
80~84세	14.0	(1,407)	14.6	(1,475)
85~89세	8.2	(825)	5.0	(500)
90세 이상	2.5	(253)	1.4	(144)
(평균)	74.1	(10,078)	73.8	(10,09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0.0	(6,047)	67.1	(6,779)
배우자 없음	40.0	(4,031)	32.9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32.8	(3,306)	19.8	(1,998)
노인부부	55.2	(5,562)	58.4	(5,898)
자녀동거	10.3	(1,035)	20.1	(2,026)
기타	1.7	(174)	1.7	(174)

72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특성	2023년		2020년	
	비율	(명)	비율	(명)
가구원 수				
1명	32.8	(3,306)	19.8	(1,998)
2명	59.5	(5,997)	66.0	(6,664)
3명	5.8	(588)	9.2	(930)
4명	1.2	(125)	3.0	(306)
5명	0.4	(45)	1.6	(159)
6명 이상	0.2	(16)	0.4	(39)
(평균)	1.8	(10,078)	2.0	(10,097)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73.6	(7,413)	65.8	(6,641)
가구주의 배우자	24.7	(2,489)	28.6	(2,888)
가구주/가구주 배우자의 부모	1.5	(152)	5.5	(555)
기타	0.2 ²⁾	(24)	0.1	(13)
교육수준				
무학	12.3	(1,240)	10.6	(1,073)
초등학교	28.2	(2,846)	31.7	(3,198)
중학교	21.2	(2,139)	23.3	(2,356)
고등학교	31.2	(3,145)	28.4	(2,870)
전문대학 이상	7.0	(707)	5.9	(599)
현 취업상태				
취업중	39.0	(3,931)	35.3	(3,564)
미취업	61.0	(6,147)	64.7	(6,533)
연가구소득 ³⁾				
제1오분위	20.0	(2,014)	20.0	(2,019)
제2오분위	20.0	(2,014)	20.0	(2,020)
제3오분위	20.0	(2,014)	20.0	(2,017)
제4오분위	20.0	(2,020)	20.0	(2,024)
제5오분위	20.0	(2,017)	2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7.5	(3,776)	39.6	(3,999)
50%이상~100%미만	27.8	(2,801)	33.5	(3,382)
100%이상~150%미만	16.6	(1,673)	16.3	(1,647)
150%이상	18.1	(1,828)	10.6	(1,068)
기능상태				
제한 있음	18.6	(1,873)	12.2	(1,233)
제한 없음	81.4	(8,205)	87.8	(8,864)

주: 1) 2023년도는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078명, 2020년도는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097명의 자료를 분석함

2) 가구주의 자녀, 형제·자매, 기타혈연, 비혈연 동거인 등이 포함됨.

3) 2023년도 조사의 가구소득 오분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음: 제1오분위= 1,031만 원 미만, 제2오분위= 1,031만 원 이상 1,818만 원 이하, 제3오분위= 1,818만 원 이상 3,298만 원 미만, 제4오분위= 3,298만 원 이상 5,385만 원 미만, 제5오분위= 5,385만 원 이상.

지역, 성, 연령군에 따라 응답자의 일반특성을 분석하였다. 지역 간 차이가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령군에 있어서는 동부가 읍·면부에 비해 65~74세 전기노인의 비율이 높고(동부 59.5%, 읍·면부 53.8%), 75세 이상 후기노인의 비율이 낮은(동부 40.5%, 읍·면부 46.2%) 특성을 보였다.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독거가구와 자녀동거가구의 비율 간 차이가 있었는데, 동부 거주 노인이 읍·면부에 비해 자녀동거 비율이 높고(동부 11.3%, 읍·면부 7.3%), 독거가구 비율은 낮았다(동부 31.9%, 읍·면부 35.3%).

교육수준의 경우,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비율은 읍·면부에서 높고, 중학교 졸업 이상인 비율은 동부에서 높았다. 교육수준 집단별 지역 간 비율 차이는 고등학교 졸업(14.2%포인트), 무학(12.6%포인트), 초등학교 졸업(10.4%포인트), 중학교 졸업(4.6%포인트), 전문대학 졸업 이상(4.1%포인트) 순이었다. 취업상태는 응답자의 일반특성 중 지역 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으로 현재 취업 중인 노인의 비율은 동부가 33.7%, 읍·면부가 53.9%로 20.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동부는 제1~3오분위 비율이 20% 미만이고, 제4, 5오분위 비율이 20% 이상이었던 반면 읍·면부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즉, 전체 응답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동부에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노인이 많고 읍·면부에는 저소득 노인이 많은 특성이 있었다. 중위소득 대비 비율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읍·면부 거주 노인의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50~100% 집단의 비율은 각각 40.7%, 30.9%로 동부보다 4.4%포인트, 4.2%포인트 높았고, 100~150%, 150% 이상 집단의 비율은 3.8%포인트, 4.8%포인트 낮았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일반특성의 경우 지역과 기능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연령군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전기노인 비율이 높고(남자 63.2%, 여자 54.0%), 후기노인 비율이 낮았다(남자 36.8%, 여자 46.0%). 배우자 유무와 가구형태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현저히 나타났는데, 남자 노인의 유배우 비율은 77.7%, 여자 노인은 46.1%로 31.6%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유사한 맥락으로, 남자 노인의 가구형태는 부부가구가 71.1%로 가장 많고, 독거가구(19.6%), 자녀동거가구(7.2%) 등의 순인 반면, 여자 노인은 독거가구가 가장 많고(43.2%), 부부가구(42.8%), 자녀동거가구(12.7%) 등의 순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교육수준 차이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은 여자 노인에게서 높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은 남자 노인에게서 높았다. 성별 간 교육수준의 차이는

고등학교 졸업인 집단에서 가장 컸고(15.9%포인트), 초등학교 졸업(14.1%포인트), 무학(13.0%포인트), 전문대학 졸업 이상(8.2%포인트), 중학교 졸업(3.0%포인트) 순이었다. 취업상태의 경우 남자 노인은 48.2%, 여자 노인은 31.8%가 현재 취업 중으로 성별 간 16.4%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가구소득과 중위소득 대비 비율 모두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저소득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고소득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연령군별 일반특성을 살펴보면, 지역에 있어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부에 비해 읍·면부 거주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고령으로 갈수록 남자 노인의 비율이 낮고 여자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 유무와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유배우 비율과 부부가구 비율이 낮고, 독거가구와 자녀동거가구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저학력 비율이 높고 고학력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었으며, 연령군 간 무학과 고졸 비율의 차이가 특히 두드러졌다. 65~69세 집단의 무학 비율은 2.1%로, 85~89세(37.6%), 90세 이상(43.9%)과 큰 차이를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 비율 역시 65~69세 52.2%, 85~89세 5.9%, 90세 이상 11.6%로 격차가 컸다. 취업상태의 경우 고령으로 갈수록 취업 중인 비율이 낮았고,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고령으로 갈수록 제1오분위 비율과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기능상태는 연령군에 따른 특성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이었다. 65~69세의 기능상태 제한 비율은 7.5%였으나 70~74세 12.5%, 75~79세 18.4%, 80~84세 30.4%, 85~89세 46.7%, 90세 이상 71.5%로 고령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1-22〉 지역·성별·연령군별 일반특성 분포

(단위: %, 명)

특성	지역		성		연령군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 이상
지역										
동부	—	—	74.9	73.1	76.0	75.6	74.2	69.7	68.5	68.7
읍·면부	—	—	25.1	26.9	24.0	24.4	25.8	30.3	31.5	31.3
성										
남자	44.6	42.2	—	—	48.4	46.9	44.2	39.1	29.1	28.3
여자	55.4	57.8	—	—	51.6	53.1	55.8	60.9	70.9	71.7
연령										
65~69세	35.4	31.7	38.0	31.7	—	—	—	—	—	—
70~74세	24.1	22.1	25.2	22.3	—	—	—	—	—	—
75~79세	17.4	17.1	17.4	17.2	—	—	—	—	—	—
80~84세	13.2	16.2	12.4	15.2	—	—	—	—	—	—
85~89세	7.6	9.9	5.4	10.4	—	—	—	—	—	—
90세 이상	2.3	3.0	1.6	3.2	—	—	—	—	—	—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0.6	58.3	77.7	46.1	69.7	67.6	58.5	50.4	29.7	18.1
배우자 없음	39.4	41.7	22.3	53.9	30.3	32.4	41.5	49.6	70.3	81.9
가구형태										
노인독거	31.9	35.3	19.6	43.2	25.9	28.4	35.4	38.7	52.4	54.4
노인부부	55.3	55.0	71.1	42.8	62.6	63.3	54.8	46.9	27.5	17.0
자녀동거	11.3	7.3	7.2	12.7	8.6	7.1	8.7	13.5	18.9	28.2
기타	1.5	2.4	2.2	1.4	2.9	1.2	1.0	1.0	1.2	0.5
교육수준										
무학	9.0	21.6	5.0	18.0	2.1	5.5	12.7	27.8	37.6	43.9
초등학교	25.5	35.9	20.3	34.4	12.8	29.0	39.0	40.8	44.9	35.6
중학교	22.4	17.8	22.9	19.9	22.0	28.0	23.7	15.4	7.7	6.2
고등학교	34.9	20.7	40.1	24.2	52.2	31.5	19.2	12.0	5.9	11.6
전문대학 이상	8.1	4.0	11.6	3.4	10.9	6.0	5.3	3.9	3.9	2.7
현 취업상태										
취업중	33.7	53.9	48.2	31.8	59.4	38.9	29.0	21.9	14.1	5.9
미취업	66.3	46.1	51.8	68.2	40.6	61.1	71.0	78.1	85.9	94.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9.5	21.3	12.0	26.2	10.6	18.4	21.7	30.9	35.0	42.0
제2오분위	19.0	22.7	17.4	22.0	10.0	20.5	27.7	29.0	27.4	25.8
제3오분위	19.3	22.0	21.4	18.9	19.4	22.9	22.0	18.6	14.1	13.5
제4오분위	20.8	17.8	23.5	17.3	26.4	21.1	16.0	12.9	13.3	12.5
제5오분위	21.4	16.2	25.7	15.6	33.6	17.3	12.7	8.6	10.2	6.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6.3	40.7	30.0	43.3	19.9	36.2	46.3	56.4	56.0	64.8
50%이상~100%미만	26.7	30.9	28.4	27.3	25.8	31.6	29.6	26.8	25.0	22.0
100%이상~150%미만	17.6	13.8	18.5	15.1	22.8	16.3	14.1	10.1	10.3	9.1
150%이상	19.4	14.6	23.1	14.3	31.6	16.0	10.1	6.6	8.7	4.0
기능상태										
제한 있음	18.7	18.4	17.2	19.7	7.5	12.5	18.4	30.4	46.7	71.5
제한 없음	81.3	81.6	82.8	80.3	92.5	87.5	81.6	69.6	53.3	2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450)	(2,628)	(4,429)	(5,649)	(3,473)	(2,377)	(1,743)	(1,407)	(825)	(253)

주: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배우자 유무와 교육수준에 따라 응답자의 일반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 유무에 따른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은 남자가 56.9%, 무배우 노인은 여자가 75.6%로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군의 경우, 유배우 노인 중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비율이 각각 66.6%, 33.5%로 전기노인이 더 많고, 무배우 노인은 동 비율이 45.2%, 54.8%로 후기노인이 더 많았다.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유배우 노인의 경우 부부가구가 92.0%였고 자녀동거가구와 기타 가구가 각각 6.7%, 1.2%였는데, 무배우 노인은 독거가구가 82.0%였고, 자녀동거가구(15.6%)와 기타 가구(2.5%) 비율이 유배우 노인에 비해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교육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37.6%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졸업(24.1%), 중학교 졸업(23.1%) 등의 순을 보였다. 이와 달리, 무배우 노인은 초등학교 졸업(34.4%), 고등학교 졸업(21.6%), 무학(21.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유배우 노인에 비해 저학력자 비율이 높았다. 취업상태에 있어서는 유배우 노인의 43.0%, 무배우 노인의 33.1%가 현재 취업 중으로 유배우 노인의 취업 비율이 더 높았다. 소득수준의 경우에는 무배우 노인이 유배우 노인에 비해 제1오분위와 제2오분위 비율과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무배우 노인의 제1오분위 비율은 33.8%로 유배우 노인에 비해 3.1배 가량 높았고,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비율도 43.7%로 유배우 노인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기능상태에 있어서는 무배우 노인(24.5%)이 유배우 노인(14.7%)보다 기능상태에 제한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일반특성을 살펴보면, 지역에 있어서는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부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 있었다. 무학과 전문대학 졸업 이상 집단을 비교하면, 무학 노인 중 동부 거주자는 54.3%, 읍·면부 거주자는 45.7%였는데, 전문대졸 이상 노인의 동 비율은 85.0%, 15.0%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학 졸업 이상 집단은 남자 노인의 비율이 높고,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집단은 여자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에 있어서는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는데, 무학은 80대(56.6%), 초등학교 졸업은 70대(48.1%), 중학교 졸업은 65~74세(66.8%)의 비율이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학 졸업 이상은 65~69세가 각각 57.7%, 53.3%를 차지하였다. 배우자 유무와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고학력일수록 유배우 비율이 높고 독거가구 비율이 낮은 특성

이 확인되었다. 취업상태는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서 취업 중인 노인의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43.3%), 중학교 졸업(37.6%), 초등학교 졸업(32.9%), 무학(25.1%)의 순으로 낮았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제1오분위 비율과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었다. 전문대졸 이상 집단의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비율은 14.7%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무학 집단의 동 비율은 61.5%로 약 4.2배 높았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1-23〉 배우자 유무·교육수준별 일반특성 분포

(단위: %, 명)

특성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지역							
동부	74.7	72.8	54.3	66.9	78.2	82.7	85.0
읍·면부	25.3	27.2	45.7	33.1	21.8	17.3	15.0
성							
남자	56.9	24.4	18.0	31.7	47.3	56.5	72.8
여자	43.1	75.6	82.0	68.3	52.7	43.5	27.2
연령							
65~69세	40.0	26.1	6.0	15.6	35.7	57.7	53.3
70~74세	26.6	19.1	10.6	24.2	31.1	23.8	20.2
75~79세	16.9	18.0	17.9	23.9	19.3	10.7	13.2
80~84세	11.7	17.3	31.6	20.2	10.2	5.4	7.8
85~89세	4.1	14.4	25.0	13.0	3.0	1.5	4.5
90세 이상	0.8	5.1	9.0	3.2	0.7	0.9	1.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	—	30.2	51.3	65.4	72.4	76.1
배우자 없음	—	—	69.8	48.7	34.6	27.6	23.9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82.0	56.4	38.8	29.2	23.1	21.3
노인부부	92.0	0.0	28.7	47.5	61.4	66.3	64.5
자녀동거	6.7	15.6	14.1	11.9	7.9	8.5	12.1
기타	1.2	2.5	0.8	1.7	1.5	2.1	2.2
교육수준							
무학	6.2	21.5	—	—	—	—	—
초등학교	24.1	34.4	—	—	—	—	—
중학교	23.1	18.4	—	—	—	—	—
고등학교	37.6	21.6	—	—	—	—	—
전문대학 이상	8.9	4.2	—	—	—	—	—
현 취업상태							
취업중	43.0	33.1	25.1	32.9	37.6	50.0	43.3
미취업	57.0	66.9	74.9	67.1	62.4	50.0	56.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8	33.8	39.5	25.7	17.5	11.6	7.6
제2오분위	18.5	22.2	30.8	27.6	20.2	11.6	7.1
제3오분위	22.2	16.7	16.1	22.3	23.5	18.1	15.2
제4오분위	23.2	15.3	9.0	14.8	21.9	26.7	25.1
제5오분위	25.3	12.1	4.6	9.5	17.0	32.1	45.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3.3	43.7	61.5	49.5	36.2	23.1	14.7
50%이상~100%미만	29.2	25.7	28.4	29.7	32.2	24.1	21.7
100%이상~150%미만	17.7	14.9	7.0	13.3	16.4	22.8	19.8
150%이상	19.8	15.7	3.1	7.5	15.2	30.0	43.8
기능상태							
제한 있음	14.7	24.5	41.4	22.5	14.5	10.7	10.4
제한 없음	85.3	75.5	58.6	77.5	85.5	89.3	8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047)	(4,031)	(1,240)	(2,846)	(2,139)	(3,145)	(707)

주: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2장

노인실태조사 연혁 및 조사 내용

제1절 노인실태조사 연혁 및 주요 변화

제2절 2023년 조사표 설계의 기본방향 및 구성

제2장 노인실태조사 연혁 및 조사 내용

제1절 노인실태조사 연혁 및 주요 변화

1. 노인실태조사 연혁

노인실태조사는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매 3년마다 실시되기 시작했다. 노인실태조사가 법정조사로 추진되기 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과제로 1994년 ‘노인생활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되었으며, 1998년에는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그리고 2004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가 진행되었다. 노인실태조사가 법정 조사로 추진되기 전에는 비정기적인 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규모도 1994년에는 2,058명, 1998년 2,535명, 2004년 3,278명으로 2천 명에서 3천 명에 불과하여 시·도 통계 산출은 불가능하고 전국 단위의 통계 자료로만 활용 가능하였다.

〈표 2-1〉 노인생활실태조사 개요: 1994년, 1998년, 2004년

구분	1994년 ¹⁾	1998년 ²⁾	2004년 ³⁾
조사명칭	노인생활실태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조사기간	1994.4.4.~5.5. (32일)	1998.4.13.~5.31. (49일)	2004.6.28.~9.10. (75일)
조사대상	만 60세 이상 2,058명	65세 이상 2,535명	65세 이상 3,278명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조사성격	횡단조사 전국통계	횡단조사 전국통계	횡단조사 전국통계
설문지 종류	노인조사표	가구조사표, 노인조사표	가구조사표, 노인조사표
통계승인	통계공표 승인번호 331-03	통계공표 승인번호 09807	통계승인번호 33105

자료: 1) 이가옥, 서미경, 고경환, 박종돈(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2) 정경희 외(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3) 정경희 외(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노인실태조사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2008년에는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노인실태조사」로 통일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조사에서는 노인실태조사를 종단조사로 설계하면서 조사 대상을 만 60세 이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2011년은 2008년의 2차 조사로서의 종단조사(2008년 기준 만 60세, 2011년 기준 63세 이상자)와 2011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횡단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2011년 조사부터는 가구 조사표와 노인 조사표로 구성된 2종의 설문지를 노인조사표 1종으로 통합하여 조사의 간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였다. 2014년 조사부터 조사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종단조사가 아닌 횡단조사로 표본설계와 조사 내용을 재규정하였다. 이후 실시된 2017년, 2020년, 그리고 2023년 노인실태조사의 기본 틀은 2014년 조사를 기반으로 미시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⁷⁾

〈표 2-2〉 노인실태조사 개요(2008~2023년)

구분	2008년 ¹⁾	2011년 ²⁾	2014년 ³⁾	2017년 ⁴⁾	2020년 ⁵⁾	2023년
조사명칭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기간	2008.8.11.~ 1.10. (5개월)	2011.8.30.~ 11.29. (3개월)	2014.6.11.~ 9.4. (3개월)	2017.6.8.~ 8.28. (3개월)	2020.9.14.~ 11.20. (3개월)	2023.9.5.~ 11.12. (3개월)
조사대상	만 60세 이상	2008년 기준 만 60세 이상 (2011년 기준 만 63세 이상)	2014년 기준 만 65세 이상	2017년 기준 만 65세 이상	2020년 기준 만 65세 이상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
조사규모	15,146명	11,542명	10,451명	10,299명	10,097명	10,078명
수행기관	계명대 산학협력단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조사수행	한국리서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닐슨컴퍼니코리아(유)	(주)한국갤럽조사 연구소
조사성격	종단조사	종단조사 + 횡단조사	횡단조사	횡단조사	횡단조사	횡단조사
공표범위	전국 및 시·도통계	전국 및 시·도통계	전국 및 시·도통계	전국 및 시·도통계	전국 및 시·도통계	전국 및 시·도통계
설문지 종류	가구조사표 동거자녀조사표 노인조사표	노인조사표	노인조사표	노인조사표	노인조사표	노인조사표
통계승인	통계승인번호 117071	통계승인번호 117071 변경승인	통계승인번호 117071 변경승인	통계승인번호 117071 변경승인	통계승인번호 117071 변경승인	통계승인번호 117071 변경승인

자료: 1) 박명화 외(2008).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 정경희 외(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3) 정경희 외(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4)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5) 이윤경 외(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7) 이윤경 외(2020). p. 67의 내용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함.

2. 노인실태조사 영역 구성

노인실태조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조사내용과 영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구성된다. 노인실태조사가 6차에 걸쳐 실시되면서 조사표 영역 구성이 간소화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인 노인의 조사 피로도와 조사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분화된 영역을 유사 영역끼리 통합하고, 조사 문항을 축소하는 작업과 함께 인구, 사회, 경제, 문화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한 신규 문항 개발도 병행하였다.

2023년 조사 영역은 2020년의 구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으며, 가구 일반사항을 포함하여 10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표 기준으로 가구 일반사항,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기능상태와 돌봄, 사회활동, 경제활동,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가족 간 도움의 교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인지기능, 경제상태 순으로 구성되며, 마지막으로 조사원 확인 사항이 포함된다. 영역별 구체적인 항목 구성의 방향과 세부 항목은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표 2-3〉 노인실태조사 설문지 변화 내용 개요(2008~2023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1. 가구조사표 A. 가구원 일반사항	I. 가구 일반사항	A. 가구 일반사항	A. 가구 일반사항	A. 가구 일반사항	A. 가구 일반사항		
B. 주거형태	II. 가구 경제상태	N. 가구 경제상태	N. 경제상태	J. 경제상태	J. 경제상태		
C. 소득							
D. 가계지출							
E. 자산과 부채							
2. 노인 개인조사표 A. 자녀유무와 동거유형	III. 노인 개인특성 A. 가구형태 및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H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 형태	G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 형태	F. 가족 및 사회관계	F. 가족 및 사회관계		
B.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C. 따로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D. 손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B.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과의 관계	I.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	H.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				
E.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							
F. 배우자와의 관계 및 지원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G. 형제자매 및 친인척, 친구·이웃과의 관계 및 지원	C.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J.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I.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G. 가족 간 도움의 교환	G. 가족 간 도움의 교환
L. 건강상태	D. 건강상태	B. 건강상태	B. 건강상태	B.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B.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M. 건강행태	E. 건강행태	C. 건강행태	C. 건강행태		
N. 의료서비스 이용	—	—	—	—	—
O.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돌봄	F.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간병돌봄	D. 기능상태와 간병돌봄	D. 기능상태와 간병돌봄	C. 기능상태와 요양	C. 기능상태와 돌봄
Q. 신체기능	G. 신체기능	—	—		
H. 소득	I. 경제상태	G. 경제상태	—	—	—
I. 생활비와 용돈					
J. 자산과 부채					
K. 경제활동	H. 경제활동	F. 경제활동	F. 경제활동	E. 경제활동	E. 경제활동
R. 여가 및 사회참여	J. 여가 및 사회활동	E.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E.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D. 여가 및 사회활동	D. 사회활동
S. 노인복지서비스	K. 노인복지 서비스	—	L. 정책적 이슈에 대한 노인의 인식	H.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H.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T. 노후생활과 삶의 질	L. 노후생활과 삶의 질	L. 노후생활과 삶의 질	K. 노후생활과 삶의 질		
U. 생활환경	M. 생활환경	K. 생활환경	J. 생활환경		
P. 인지기능	N. 인지기능	M. 인지기능	M. 인지기능	I. 인지기능	I. 인지기능

제2절 2023년 조사표 설계의 기본방향 및 구성

1. 기본방향

2023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노인 특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사표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조사표 설계의 구체적인 방향으로서는 첫째,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노인실태조사 영역과 항목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3년 주기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둘째, 노인 세대로 새롭게 진입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85세 또는 90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이후 변화된 노인의 특성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상황, 그리고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셋

째, 학계 및 노인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노년기 기능상태와 관련하여 건강과 장애의 중단 단계에 있는 노쇠(frailty)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신규로 개발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나 고립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보완하여 추가하였다. 또한 노인이 거주하는 주거환경에 관한 객관적인 문항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 개보수나 주거 관련 용품 설치 및 개조 필요성을 추가하였으며, 낙상 및 손자녀 돌봄에 관한 문항을 보완하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였다. 넷째, 활용도가 높지 않거나 2020년 조사에서의 유효 응답률이 낮은 문항은 삭제 또는 통합하여 응답자 및 조사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의자나 침대에서 앉았다가 일어서기, 기능상태에서 개인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은 시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활동, 노인의 사회적 존중 정도 등은 2023년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었다. 다섯째, 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욕구를 파악하는 문항을 영역별로 신규 개발하였다. 보건의료적 욕구, 돌봄 욕구, 디지털 적응 욕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미참여 사유,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의 문항이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국제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의 중고령 또는 노인 조사항목을 검토하여 일자리의 질, 사회적 연결망, 시민참여(투표), 사회자본(타인/정부 등에 대한 신뢰도) 등의 문항을 신규로 포함하였다.

2. 영역별 조사내용 구성

이 절에서는 2008년 법정조사 이후 6번째 진행된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조사내용 변화를 2008년부터 정리하였다. 2008년 조사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조사표에 포함되었던 항목을 비교표에 포함하였으며, 2023년 조사내용을 기준으로 조사 문항 변화를 검토하였다.

가. 가구 일반사항

가구 일반사항은 노인이 속한 가구의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0년 조사 문항과 배열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수정사항으로는 노인 조사 대상자 확인의 보기 문항 개수를 2020년 4개(비대상자, 조사 대상자 및 본인 응답, 조사 대상자이지만 조사 미완, 조사 대상자이면서 대리 응답)에서 2023년 3개(비대상자, 조사 완료, 조사 미완)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가구 내 2명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1명

이라도 조사 완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 미완 사유(장기출타, 부재, 조사 거부, 요양 시설 입소, 요양병원 입소 등)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2023년에도 가구소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가구 균등화 작업을 위해 전년도인 2022년 가구원 수를 파악하였다.

〈표 2-4〉 가구 일반사항(A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3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각)가구원 이름	○	○	○	○	○	○ ⁶⁾
가구주와의 관계	○	○	○	○	○	(선택지 수정)
성별	○	○	○	○	○	○
연령	△ ¹⁾	○	○	○	○	○
비동거 이유	○	×	×	×	×	×
혼인상태	○	○	○	○	○	○
교육수준						
이수 여부	○	×	×	×	×	×
학력	○	○	○	○	○	○
교육연수(노인만)	△ ²⁾	○	○	○	○	○
취업 여부	○	○	○	○	○	○
응답 노인과의 관계	×	○	○	○	○	○ ⁶⁾ (선택지 수정)
노인 조사대상자 확인	○	○	○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대리응답 이유	×	×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⁷⁾
배우자 노인조사 실시 여부	×	×	○ ⁵⁾	○ ⁵⁾	○ ⁵⁾	△ ⁸⁾
조사원 확인사항(가구원 형태) ¹⁾	×	○	×	×	○	○
현재와 2022년 가구원 수 비교						
증감 여부	×	×	○	○	○	○
2022년 가구원 수	×	×	○	○	○	○
가구원 수	△ ¹⁾	○	○	○	○	○
노인가구원 수	△ ¹⁾	△ ¹⁾	○	○	○	○
조사완료 노인 수	△ ¹⁾	○ ⁴⁾	○	○	○	○
노인가구 형태	△ ¹⁾	○	○	○	○	○ ⁶⁾ (선택지 수정)
응답 노인의 동거자녀 수						
성별, 혼인상태별	△ ^{1) 3)}	△ ¹⁾	○	○	○	○
가구원 중 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 3개월 이상 입소노인 수	×	×	×	○	×	×

주: 1) 직접적인 기입항목은 없지만, 조사표상에서 산출 가능함.

2) 만 60세 이상 응답자 중 초등학교 중퇴자에 한해 교육연수를 질문하였음.

3) 자녀유무 및 동거유형(A영역)에서 생존해 있는 자녀 여부, 자녀 수, 자녀성별, 자녀와의 동거유형에 대하여 별도로 질문하고 있음.

4) 종단조사 특성으로 인해 2008년도 조사완료노인수도 조사하였음.

5) 『가구 일반사항(A)』 영역에 있지는 않지만 배우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내용을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배우자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6) 각 코드(가구주와의 관계/노인과의 관계/노인 가구형태) 간소화

7) 『가구 일반사항(A)』 영역에서 『표지』 영역(조사원 확인사항)으로 문항 이동

8) 문항 효율성을 위해 기존 배우자 실시 여부 문항을 삭제하였으나, 조사표상에서 산출 가능함.

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본 영역은 65세부터 100세 이상의 노년기의 각기 다른 건강 특성과 보건의료적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하였다.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는 노인의 건강 수명 연장과 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가 되며, 노인의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생활환경 구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2023년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관련 문항은 2020년 문항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학문적 또는 정책적 필요성이나 수요가 높은 문항(수면의 질, 지난해 몸무게, 식생활, 정책적 욕구)을 추가하였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국제 비교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항으로 2008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신체적 건강상태와 정신적 건강상태를 분리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신규문항 추가에 대한 부담감과 문항 추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세분화하지 않고 기존 문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노년기 수면의 질과 관련하여 지난 3개월 동안 잠을 잘 주무셨는지에 관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수면과 관련해서는 수면 시간도 동시에 측정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지만, 수면시간 응답의 부정확성이나 조사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면의 질적인 문항만 추가하였다.

의료적 건강과 관련해서는 2020년 조사문항을 거의 유지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유무, 치료 여부, 하루 복용하는 약의 종류, 외래 이용 여부 및 횟수, 병원 입원 여부 및 횟수/일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만성질환 항목이 2020년 32개(기타 포함)에서 33개(기타 포함)로 1개 증가하였다. 이는 노쇠(Frailty) 수준을 산출하기 위해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을 분리하면서 2023년 만성질환 여부를 묻는 질환 종류가 1개 증가되었다.

노인의 키와 몸무게는 노인의 급격한 건강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변수로서 BMI 측정과 노쇠 측정 등에 사용된다. 2023년에는 노쇠 측정을 위해 1년 전 몸무게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1년 전 몸무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최근 1년 사이 벨트나 옷이 헐렁할 정도로 체중이 감소했는지 여부로 대체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노년기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우울과 자살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의 우울증상을 파악하기 위해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GDS-K, 15개 항목)를 2008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다. 노년기 자살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는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으나, 2023년에는 ‘60세 이후’가 아닌 ‘지난 1년간 자살 생각 여부’로 변경하여 자살 실태에 관한 실효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노년기 건강행태는 흡연, 음주, 운동(여부, 일수, 시간), 영양관리 문항으로 구성된다. 2020년에는 흡연 여부(예, 아니요)로 질문하였으나, 2023년은 보기 문항을 세분화하여 ‘① 현재 흡연, ② 과거 흡연 및 현재 비흡연, ③ 평생 비흡연’으로 수정하였다. 음주 빈도, 음주량, 주당 운동 여부와 횟수, 1회 운동 시 운동시간 항목은 2020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영양상태(영양관리 필요 수준)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과 동일하게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NSI)가 개발한 ‘Determine Your Nutrition Health’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식사 서비스 관련 노인 체감도 파악과 노인 식생활 관련 정책 자료 활용을 위해 2020년과 동일한 문항으로 경로식당 또는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 빈도(미이용 포함)를 질문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의 식생활 변화를 반영하여 집에서 조리한 음식 이외의 배달음식(포장음식)이나 외식 빈도를 묻는 문항을 신규로 개발하여 조사표에 추가하였다.

노인의 의료 미충족 욕구와 의료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병의원과 치과 진료의 미충족 여부, 미진료 시 그 이유에 대한 항목을 2020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예방적 건강행태에서는 지난 2년간 건강검진과 치매검진 여부를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항목을 새롭게 개발하여 1순위와 2순위까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2-5〉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B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3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평소의 건강상태	○	○ (선택지 수정)	○	○	○	○
동년배 대비 건강상태	○	○ (선택지 수정)	○	×	×	×
의사로부터의 장애판정 유무 및 내용	○	×	×	× ⁶⁾	×	×
만성질환 ¹⁾						
- 유무	○	○	○	△ (의사 진단)	△ (의사 진단)	△ (의사 진단)
- 이환 연수	○	×	×	×	×	×
- 의사진단 여부	○	○	○	○ ⁷⁾	○	○
- 치료 여부	△ (처방약 복용)	×	○	○	○	○
- 의사 진단 만성질환 총 수(조사원 확인사항)	△ ²⁾	○	○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의사 처방약 수 ('알' 기준)	△ (종류, 기간 제외)	△ (종류)	○	○	○	○
우울증상 척도(15개 문항)	○	○	○	○	○	○
현재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	○	×	×	×	×	×
치료기관 유형(빈도기준)	○	×	×	×	×	×
통증						
- 평소 느끼는 통증부위(복수응답)	○	×	×	×	×	×
-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	○	×	×	×	×	×
건강을 위한 약/건강식품						
- 복용 유무	○	×	×	×	×	×
- 복용의약품 유형 및 종류 수 (처방약, 비처방약, 한방처방약, 건강보조/기능성 식품)	○	×	×	△	× ¹³⁾	×
지난 1주일 동안 모든 일에 대한 힘듦 정도(주관적)	○	×	×	×	×	×
지난 1주일 동안 모든 일에 대한 수행 가능성 정도(주관적)	○	×	×	×	×	×
신체활동(일주일 기준)						
- 가벼운 신체활동의 수행정도 (경도)	○	×	×	×	×	×
- 가벼운 신체활동의 1회당 수행시간	○	×	×	×	×	×
- 중등도 신체활동의 수행정도 (중강도)	○	×	×	×	×	×
- 중등도 신체활동의 1회당 수행시간	○	×	×	×	×	×
- 고도 신체활동의 수행정도 (고강도)	○	×	×	×	×	×
- 고도 신체활동의 1회당 수행시간	○	×	×	×	×	×
흡연						
- 현재까지의 총 흡연량	○	×	×	×	×	×
- 현재 흡연 여부	○	○	○	○	○	○ (선택지 수정)
- 1일 흡연량	○	○	×	×	×	×
- 흡연 기간	○	×	×	×	×	×
음주						
- 음주 빈도(지난 1년간)	○	○	○	○	○	○
- 1회 음주량	○	○ (선택지 확대)	○ (선택지 수정)	○	○	○
운동						
- 평소 운동 수행 여부	×	○	○	○	○	○
- 일주일간 운동 횟수	×	△ ⁵⁾	○	○	○	○
- 운동시, 1회당 운동 시간	×	○	○	○	○	○
- 주로 하는 운동의 종류	×	○	○	○	×	×
- 주로 운동하는 장소	×	○	×	○	×	×
신체 측정(몸무게, 키)	○ ³⁾	○ ³⁾	○	○	○	○
- 1년 전 몸무게	×	×	×	×	×	○
- 미측정 이유(복수응답)	○	×	×	×	×	×
영양관리 상태 관련 문항(지난 1개월) ⁸⁾	○	△	○	○ ⁹⁾	○	○
의료기관 이용(지난 1개월간)						
- 이용 여부 및 횟수 ¹⁰⁾	×	△	○	○	○	○
방문간호,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지난 1년간)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외)						
- 이용 여부 및 횟수	×	○	×	×	×	×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관련 교육 프로그램(지난 1년간)						
- 참여 여부	×	○	×	×	×	×
- 참여 기관	×	○	×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병원 입원(지난 1년간)						
- 입원 여부	○ ⁴⁾	×	○	○	○	○
- 입원 횟수 및 일수 ¹¹⁾	△	×	△	○	○	○
건강검진(지난 2년간)						
- 수진 여부	○	○	○	○	○	○
- 미수진 이유	○	○	×	×	×	×
치매검진(지난 2년간)						
- 수진 여부	×	×	×	○	○	○
병의원 미치료 경험(지난 1년간) 및 미치료 이유 ^{12) 14)}	×	×	△	○	○	○ (선택지 수정)
치과 미치료 경험(지난 1년간) 및 미치료 이유 ¹²⁾	×	×	△	○	○	○ (선택지 수정)
수면						
- 1일 평균 수면 시간(지난 일주일간)	△ ²⁾	○	×	×	×	×
- 밤 수면 시간	○	×	×	×	×	×
- 낮 수면시간	○	×	×	×	×	×
- 수면제 복용 여부	○	×	×	×	×	×
- 숙면 빈도	○	×	×	×	×	×
- 수면의 질	×	×	×	×	×	○
독감 예방접종 유무	○	×	×	×	×	×
의료서비스 만족도(지난 1년간)	○	×	×	×	×	×
외식빈도	×	×	×	×	×	○
식사지원서비스 이용 ^{15) 16)}						
- 경로식당(지난 1년간)	○	○	○	○	○	○
- 식사(밀반찬)배달 서비스	○	○	○	○	○	○
민간보험 가입 여부	×	×	×	○	×	×
자살 ¹⁷⁾						
- 자살 생각 경험 여부	×	○	○	○	○	○
-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된 이유	×	○	○ (선택지 수정)	○	○	○ (선택지 수정)
- 자살 시·도 경험 여부 및 횟수	×	○	○	○	×	×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항(2순위)	×	×	×	×	×	○

주: 1) 연도별 만성질환종류 변경 및 수정함.

2) 직접적인 기입항목은 없지만, 조사표 상에서 산출가능함.

3) 신체기능(2008년: 『Q』 영역, 2011년: 『F』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4) 노인전문병원, 요양시설 포함. 『의료서비스 이용(N)』 영역에 있음.

5) 1개월간 운동횟수로 질문함.

6) 2017년도에는 관련문항을 수정하여 『기능상태와 간병돌봄(D)』 영역으로 이동하여 질문함.

7) 본인인지 만성질환 유무 삭제, 의사진단 만성질환 유무만 질문함.

8) 문항수 및 기간 조정(2008년: 10개, 6개월, 2011년: 7개, 6개월, 2014년, 2017년: 10개, 1개월)하였음.

9) 과일, 채소, 유제품 섭취 여부 개별질문함.

10) 기간을 조정(2011년: 2주, 2014년, 2017년: 1개월).

11) 연도별 기준 상이함(2008년, 2014년 입원 횟수로 질문하였으나, 2017년 입원 일수 추가). 2020년에는 요양 병원과 그 외 병의원으로 구분하여 파악함.

12) 2014년 미치료 경험 유무에서 2017년 미치료 이유로 질문내용 추가함.

13) 건강식품을 제외한 3개월 이상 복용한 의사 비처방약 문항 삭제

14) 2020년 병의원 미치료 경험 유무에서 2023년 신체적 질환 관련 병·의원 미치료 경험 유무로 수정하여 질문함.

15) 2014년 『생활환경(K)』 영역의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본 영역으로 이동함.

16) 2020년 경로식당(복지관 식당),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정부, 복지관 등에서 배달) 이용 여부 및 빈도를 물었으나, 2023년에는 경로식당(복지관, 마을회관 등),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지자체, 복지관 등에서 배달)로 수정하여 조사함.

17) 2020년 『생활환경과 노후생활(H)』 영역의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본 영역으로 이동하였고, 2023년 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질문함.

다. 기능상태와 돌봄

본 영역은 노인의 기능상태 및 돌봄서비스의 욕구와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영역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상태를 파악하고, 돌봄 욕구와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조사표의 구성과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부 문항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노인의 시·청력 및 씹기 능력과 일상생활 불편함과 관련한 문항은 2020년과 유사하지만, 문항 순서와 응답 기준에는 변화가 있었다. 2020년의 경우, 보조기 사용 여부와 보조기 착용 후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질문하였다면, 2023년에는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먼저 질문하고, 보조기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즉, 보조기 사용 여부는 2020년과 2023년 동일하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의 응답 기준은 2020년 ‘보조기 미착용’, 2023년 ‘보조기 착용’으로 변경되었다.

노년기 노쇠 수준 측정과 관련해서도 측정 문항의 대체가 이루어졌다. 2020년까지 유지되었던 의자나 침대에 앉았다 일어나기 5회 반복 문항은 삭제하였으며, 노쇠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던 6문항⁸⁾의 활용도가 낮아 Morley et al.(2012)의 FRAIL(Fatigue, Resistance, Ambulation, Illness, Loss of weight) 척도를 Jung et al.(2016)이 한국형 척도로 개발한 K-FRAIL 척도를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였다. 해당 척도는 5개 문항으로 0~5점의 범위를 가지며, 0점은 건강(건강함), 1~2점은 노쇠 전단계, 3~5점은 노쇠로 해석된다.

8) 이윤환 외(2002)의 PF 척도(Physical Functioning Scale)를 일부 수정하여 조사에 활용했었음.

* (2020년 조사 문항) 귀하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1) 운동장 한 바퀴(400m) 정도 뛰기	1) 전혀 어렵지 않다 2) 약간 어렵다 3) 매우 어렵다 4) 전혀 할 수 없다 5) 모르겠다
2) 운동장 한 바퀴(400m) 정도 걷기	
3)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4)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기	
5)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쳐서 닿기	
6) 쌀 1말(8kg) 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표 2-6〉 노쇠 척도(K-FRAIL) 구성

질문 문항	보기 문항 및 채점
지난 한 달 동안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보기문항) 1=항상 그렇다, 2=거의 대부분 그렇다, 3=종종 그렇다, 4=가끔씩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 (채점) 1, 2로 답변 1점, 이외에는 0점
도움 없이 혼자서 쉬지 않고 10개의 계단을 오르는 데 힘이 듭니까?	예=1점, 아니요=0점
도움 없이 300미터를 혼자서 이동하는 데 힘이 듭니까?	예=1점, 아니요=0점
의사에게 다음의 11개 질병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고혈압, 당뇨, 암, 만성 폐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협심증, 천식, 관절염, 뇌경색, 신장질환)	0~4개=0점, 5~11개=1점
현재와 1년 전의 체중은 몇 kg이었습니까? (체중을 모를시) 최근 1년 사이 벨트나 옷이 헐렁할 정도로 체중이 줄었습니까?	1년간 5% 이상 감소=1점, 5% 미만 감소=0점

자료: Jung et al.(2016). The Korean version of the FRAIL scale: clinical feasibility and validity of assessing the frailty status of Korean elderly. Supplementary Figure 1의 내용을 재구성함.

노인의 신체적 기능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척도를 활용하였다.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옷 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 놓은 음식 먹기(식사능력), 누웠다 일어나 밖으로 나가기(보행능력),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하기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완전 자립, 부분 도움 및 완전 도움 정도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 준비하기, 빨래하기, 제시한 양의 약 챙겨 먹기, 금전 관리, 근거리 외출하기, 물건 구매 결정·돈 지불·거스름돈 받기,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전 자립, 부분 도움 및 완전 도움 정도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1개 이상의 부분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누구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움 여부, 도움 제공 주체, 가족, 친척 및 이웃 등의 도움 내용별 빈도와 주 도움 행위자에 대한 항목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질문하였다. 도움 행위자를 파악하는 데는 동거가족과 비동거가족을 구분하여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도움 내용 또한 청소·빨래·시장보기, 외출동행, 목욕 등 신체 기능유지 지원으로 구분하여 도움 빈도와 주 도움 행위자를 파악하였다. 도움 제공 주체에 있어 2020년에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가사간병 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를 제시하였으나, 2023년에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그 외 공적 돌봄서비스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개인 간병이나 가사 도움의 1주

평균 시간은 2017년, 2020년 모두 유효 응답이 낮아 2023년 조사에서는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과 친척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받은 도움의 충분성, 그리고 신체적 기능저하로 부분도움이 필요하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 노인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등급 신청 여부, 신청 결과(인정 여부 및 등급 종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재가서비스 5종 및 복지용구)에 대해 조사하고, 고령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판정 여부, 장애유형, 그리고 장애정도 문항을 2020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돌봄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 저하 노인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을 개발하여 1순위와 2순위까지 조사하였다.

〈표 2-7〉 노인의 기능상태와 돌봄(C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3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시력/청력/씹기/이동						
- 보조기 사용 여부	○	○	○	○	○	○ ¹⁴⁾
- 시력, 청력, 씹기 수준(보조기 사용자는 보조기 착용)	○	○	×	×	×	×
- 일상생활 불편함(보조기 사용자는 보조기 착용)	△ ¹⁾	×	○	○	○	○ ¹⁴⁾
물건 쥐기						
- 어려움 여부	○	×	×	×	×	×
- 사용하기 어려운 손	○	×	×	×	×	×
- 오른손잡이/왼손잡이	○	×	×	×	×	×
- 악력측정(응답자 욕구, 자세 포함)	○	×	×	×	×	×
- 악력 미측정 이유(복수응답)	○	×	×	×	×	×
걷기						
- 어려움 여부	○	×	×	×	×	×
- 걷기 측정(응답자 욕구 포함)	○	×	×	×	×	×
- 걷기 미측정 이유(중복응답)	○	×	×	×	×	×
근력상태(앉았다 일어나기 5회 반복수행)	×	○	○ (선택지 수정)	○	○	×
항목별 활동 어려움						
- 운동장 한 바퀴(400m) 정도 뛰기	○	○	○	○	○	×
- 운동장 한 바퀴(400m) 정도 걷기	×	○	○	○	○	×
-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	○	○	○	○	×
- 몸을 구부리거나, 쭉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	○	○	○	○	×
-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어서 닿기	○	○	○	○	○	×
- 쌀 1말(8kg) 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	○	○	○	○	×
한달 동안 피곤 정도	×	×	×	×	×	○
10계단 오르는데 어려움 유무	×	×	×	×	×	○

94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300m 이동하는데 어려움 유무	×	×	×	×	×	○
낙상(지난 1년간) ¹⁵⁾						
- 경험 유무 및 횟수	○	○				
- 낙상 횟수	○	×	○	○	○	○
- 낙상 후 병원치료 유무	×	○	○	○	○	○
- 낙상 이유	○	○ (선택지 수정)	○	○	○ (선택지 수정)	○
- 낙상 장소(중복 응답)	○	○ (선택지 수정)	×	×	×	○
- 낙상으로 인한 후유증 경험 여부 및 증상	×	○	×	×	×	×
- 낙상에 대한 두려움 정도	○	○	○	×	×	×
일상생활 수행능력(지난 일주일간)						
- 옷 입기	○	○	○	○	○	○
-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	○	○	○	○	○
- 목욕 또는 샤워하기(욕조 드나들기, 때밀기, 샤워)	○	○	○	○	○	○
- 차려 놓은 음식 먹기	○	○	○	○	○	○
- 누웠던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	○	○	○	○	○
-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	○	○	○	○	○
- 대소변 조절하기	○	○	○	○	○	○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지난 일주일 간)						
- 몸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톱·발톱 깎기)	○	○	○	○	○	○
- 집안일(실내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안 정리정돈 등)	○	○	○	○	○	○
- 식사준비(음식 재료 준비, 요리, 상 차리기)	○	○	○	○	○	○
- 빨래(손이나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	○	○	○	○	○
- 제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	○	○	○	○	○
- 금전 관리(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	○	○	○	○	○	○
- 근거리 외출하기(가까운 거리 걸어서)	○	○	○	○	○	○
- 물건 구매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	○	○	○	○	○
- 전화 걸고 받기	○	○	○	○	○	○
- 교통수단 이용하기(대중교통, 개인 차)	○	○	○	○	○	○
일상생활 돌봄 도움						
- 도움 받음 여부	○	○	○	○	○	○
- 도움을 받게 된 기간	○	×	×	×	×	×
- 도움 받은 주체 ⁷⁾	○ ²⁾	○ ³⁾	○	○	○	○ (선택지 수정)
• 가족원(동거, 비동거)	○	○	○	○ ⁸⁾	○	○
• 친척, 이웃·친구·지인	○	○	○	○	○	○
• 개인 간병인 또는 가사 도우미(파출부)	○	○	○	○	○	○
• 장기요양보험서비스(요양보호사 등)	×	○	○	○	○	○
• 노인돌봄서비스(가사간병서비스 등 각종 공공돌봄서비스)	×	○	○	○	○	△ ¹⁶⁾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	×	×	×	○ ¹⁶⁾
• 그외 공적 돌봄서비스(가사·간병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노케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	×	×	×	×	○ ¹⁶⁾
- 가족, 친척, 이웃 등의 도움의 내용별 빈도와 주 도움 행위자	×	○ ⁹⁾	○ ⁹⁾	○ ¹⁰⁾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 청소, 빨래, 시장보기 도움빈도와 주 도움 행위자	×	×	×	○	○	○
• 외출동행 도움빈도와 주 도움 행위자	×	×	×	○	○	○
• 식사준비(음식준비) 도움빈도와 주 도움 행위자	×	×	×	○	○	○
• 목욕 등 신체기능 유지지원 도움빈도와 주 도움 행위자	×	×	×	○	○	○
- 개인간병이나 가사도움의 1주 평균 시간	×	×	×	○	○	×
- 가족과 친척, 장기요양서비스 도움 충분성	×	×	×	○	○	○
- 도움을 가장 많이 준 가족원의 도움정도(일주일) ¹⁾	× ⁴⁾	○	○	×	×	×
-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이유	×	×	○	○ (선택지 수정)	○	○
노인장기요양보험 ⁵⁾						
- 인지 여부	○	○	×	×	×	×
-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	×	×	×	×
- 현재 서비스 이용 여부 ¹²⁾	○	×	×	○	○	○
- 서비스 만족도	○	○	×	×	×	×
- 등급신청경험 여부	×	○	○ (선택지 수정)	○	○	○
- (등급신청 시) 가장 최근에 받은 등급	×	○	○ (선택지 수정)	○	○	○ (선택지 수정)
- (등급미신청 시) 신청하지 않은 이유	×	×	○	○ (선택지 수정)	○	×
일상생활 수행관련 노인복지서비스 ^{5) 6)}						
- 인지 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 요양시설	○	△	×	×	×	×
• 노인전문병원(노인치매병원 등)	○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 주간(야간)보호서비스	○	△	×	×	×	×
• 단기보호서비스	○	△	×	×	×	×
• 방문요양서비스	○	△	×	×	×	×
• 방문간호서비스	○	△	×	×	×	×
• 방문목욕서비스	○	△	×	×	×	×
• 장기요양 보장구 구매 및 대여	×	△	×	×	×	×
장애판정 여부 및 유형 ¹³⁾						
- 장애판정 여부	○	○	×	○	○	○
- 장애유형 및 정도	○	×	×	○	○	○
노인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	×	×	×	×	○

주: 1) '보조기 사용자는 보조기 착용 후' 문구 생략, 시력과 청력의 경우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질문,

씻기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음식을 삼키지 못하거나 사래가 든 경험 질문

2)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과 그다음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만 해당함.

3) 가족원, 외부서비스, 가족원/외부서비스, 기타, 이웃, 가사도우미 중 택일함.

4) 가족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질문은 있음.

5) 『노인복지서비스(2008년: S영역, 2011년: K영역)』에 있음.

6) 2011년의 경우,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만 복수응답형태로 질문함.

7) 연도별 기준 상이함(2008년: 1·2순위, 2011년: 선택지 중 택일, 2014년, 2017년: 복수응답).

8) 동거, 비동거 구분함.

노인의 인지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2008년과 2011년에는 MMSE-KC,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치매 관리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치매조기검진, 치매유병률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는 MMSE-DS⁹⁾를 사용하여 노인의 인지기능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MMSE 활용의 유료화에 따라 2023년 조사에서는 ㈜인사이트¹⁰⁾를 통해 K-MMSE~2(표준형, Blue Form)를 조사 대상자 명수대로 구입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표 2-8〉 노인의 인지기능 측정도구 비교(2008~2023년)

구분	K-MMSE	MMSE-KC	MMSE-DS	K-MMSE~2 표준형
조사년도	—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시간지남력	년/월/일/요일/계절	년/월/일/요일/계절	년/월/일/요일/계절	년/월/일/요일/계절
장소지남력	여기는 어디입니까? (나라/도/무엇을 하는 곳/장소명/층)	여기는 어디입니까? (도/시/면/장소명/층)	여기는 어디입니까? (도/시/구/장소명/층)	여기는 어디입니까? (나라/시·도/시·군·구/ 현재 장소명읍면동(도로명))
기억등록	비행기, 연필, 소나무	나무, 자동차, 모자	나무, 자동차, 모자	비행기, 연필, 소나무
주의집중 및 계산	Serial 7	삼천리강산 거꾸로 (채점기준 표준화)	Serial 7	Serial 7
기억회상	비행기, 연필, 소나무	나무, 자동차, 모자	나무, 자동차, 모자	비행기, 연필, 소나무
이름대기	시계, 볼펜	열쇠, 도장	시계, 연필	눈, 귀
명령실행	종이를 뒤집고 반으로 접은 다음 저에게 주세요	오른손으로 받아서 반으로 접은 다음 무릎 위에 놓으세요	오른손으로 받아서 반으로 접은 다음 무릎 위에 놓으세요	—
따라말하기	백문이 불여일견	간장공장공장장	간장공장공장장	백문이 불여일견
구성능력 (K-MMSE~2: 그리기)	오각형 겹쳐 그리기	오각형 겹쳐 그리기	오각형 겹쳐 그리기	오각형 겹쳐 그리기
읽기, 쓰기	눈을 감으세요 원하는 한 문장 쓰기	이해 판단으로 대체	이해 판단으로 대체	눈을 감으세요 오늘 날씨를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이해 판단	없음	옷은 왜 빨아서 입나? 길에서 남의 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	옷을 왜 빨아서 입나? 티끌 모아 태산	동그라미를 가리키고, 네모를 가리킨 다음, 세모를 가리키세요
점수해석	정상기준으로 분석	정상기준으로 분석	정상기준으로 분석	정상기준으로 분석

자료: 이윤경 외(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p. 88의 표를 보완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9) MMSE-DS는 한글판 MMSE 간의 문항 및 시행방법의 차이가 발생하여 동일한 피험자라도 적용되는 도구에 따라 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며(주진형 외, 2002, 서은현, 2012에서 재인용), 검사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단일화된 치매 선별 검사 도구의 개발과 표준화된 시행지침의 마련이 요구되어 왔음(서은현, 2012). 이에 K-MMSE와 MMSE-KC의 세부항목을 이용하여 MMSE-DS를 개발함(Kim et al., 2010, 서은현, 2012에서 재인용).

10) 한국저작권은 학지사에 있으며, ㈜인사이트에서 업무 대행

2023년에 사용한 K-MMSE~2는 MMSE와 동등성을 유지하면서 검사 실시방법의 표준화를 개선하고 비영어권에서도 문화적 차이 없이 활용가능하도록 문항을 수정개발한 버전이다(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23). K-MMSE~2는 기억등록, 시간 지남력, 장소 지남력, 기억회상, 주의집중 및 계산, 언어, 그리기 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27문항, 3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표 2-9〉 노인의 인지기능(I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3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주관적인 기억력 상태	○	×	×	×	×	×
기억력 및 집중력 체크 문항						
- 연도	○	○	○	○	○	○
- 계절	○	○	○	○	○	○
- '일'	○	○	○	○	○	○
- 요일	○	○	○	○	○	○
- '월'	○	○	○	○	○	○
- 나라	×	×	×	×	×	○
- 도/특별시/광역시	○	○	○	○	○	○
- 시/군/구	○	○	○	○	○	○
- 동/읍/면	○	○	○	○	○	○
- 건물 층수	○	○	○	○	○	○
- 장소 이름	○	○	○	○	○	○
- 3가지 물건 이름 기억	○	○	○	○	○	○
- 단어 거꾸로 말하기(삼천리강산)	○	○	×	×	×	×
- 뱀셈(100에서 순차적으로 7 빼기)	×	×	○	○	○	○
- 3가지 물건 이름 재질문	○	○	○	○	○	○
- 사물 이름 맞히기 ¹⁾	○	○	○	○	○	○
- 듣고 따라하기	○	○	○	○	○	○
-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	○	○	○	○	○	×
- 읽고 행동하기	×	×	×	×	×	○
- 쓰기	×	×	×	×	×	○
- 겹쳐진 오각형 그리기	○	○	○	○	○	○
- 이유 말하기(웃은 왜 빨아서 입습니까?)	○	○	○	○	○	×
- 속담 뜻 말하기(티끌 모아 태산)	×	×	○	○	○	×
- 상황별 적절한 행동 말하기(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 쉽게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	○	○	×	×	×	×

주: 1) 2008년과 2011년: 열쇠, 도장, 2014년과 2017년: 시계, 연필, 2023년: 눈, 귀

라.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의 삶을 이루는 근간이다. 따라서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영역은 노인의 주요한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구조적, 기능적 차원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시계열적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기조하에 조사가 이루어진다. 2020년 조사에서는 그간의 응답 경향 및 가족구조 변화 경향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망 유형별로 분절되어 있던 영역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영역으로 통합한 바 있다. 2023년도 조사표 구성에서도 사회적 관계망 변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영역 구성은 2020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영역은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유형별로 존재 유무 및 규모, 접촉 빈도 등을 바탕으로 관계의 양적 측면을 가늠하고, 갈등 유무 및 그 원인, 가구형태별 형성 이유 및 어려움 등을 통해 관계의 질적 측면을 파악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동거 및 노후생활비 마련 측면에서 노후생활 가치관을 파악하는 문항을 배치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과 노후생활 가치관 간 상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같은 구성은 2008년 법정조사 실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20년도 조사결과 및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다음의 측면에서 조사표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첫째,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차원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관련 문항(연락 가능한 자녀의 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신설하였다. 관계망 유형별로 존재 유무 및 접촉빈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관계자원이 다각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문항을 포함하였다.

둘째, 응답 활용도 및 조사 부담 완화 측면에서 일부 문항을 삭제하였다. 그간 조사에서는 비동거 자녀를 중심으로는 전체 규모와 접촉 빈도, 다빈도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 빈도를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노인의 자녀 수가 감소하고 있고 비동거 자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접촉 빈도와 다빈도 비동거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접촉 빈도의 응답 경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다빈도 비동거 자녀에 대한 문항만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자녀와의 동거 가치관을 파악하는 문항의 경우, 기존에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 당위성을 파악하고 필요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녀인지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노부모 부양 당위성 문항을 삭제하였다. 다

만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누구인지를 묻는 문항에 기존 문항을 선택지(자녀와 함께 살지 않아도 됨)로 추가함으로써 기존 조사와의 연계 및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 및 문항의 논리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문항 구성을 재편하였다. 기존 조사에서는 관계망의 규모와 왕래 및 연락빈도를 파악하는 문항이 관계망 유형별로 떨어져 있었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되도록 관련 문항들을 가까이 배치함으로써, 조사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이외 일부 문항들은 이전년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응답의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유효 응답수가 적은 경우 선택지를 삭제(자녀와의 갈등 이유)하거나 수정(배우자의 건강상태, 관계망 유형별 왕래/연락 빈도)하였다. 나머지 문항들의 경우, 2020년도의 조사항목의 시계열성을 고려하여 유지하였다.

〈표 2-10〉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F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3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비동거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 자녀 여부	○ ¹⁾	○	○ (선택지 수정)	○	○	○
- 자녀 수	△ ²⁾	○	○	○	○	○
- 자녀 성별	△ ²⁾	○	○	○	○	○
- 자녀 배우자 유무	△ ²⁾	○	○	○	○	○
연락 가능한 자녀 수	×	×	×	×	×	○
비동거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전체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지난 1년간)	○	○	○	○	○ ¹⁸⁾ (연락수단 추가)	×
조사원 확인사항(비동거자녀/총자녀)						
- 성별/배우자 유무별 자녀 수/연락 가능한 자녀 수	△ ²⁾	○	△ ²⁾	○	○	○
비동거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중 가장 많이 접촉한 자녀 ³⁾						
- 대상(노인과의 관계)	○	○	○	○	○	○
- 해당자녀 거주지까지의 이동시간	○	○ (선택지 수정)	○	○	○	×
- 해당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지난 1년간)	○	○	○	○	○ (연락수단 추가)	○
지난 1년간 자녀와의 갈등						
- 갈등 경험 여부	×	×	○	○	○	○
- 갈등의 가장 심각한 원인	×	×	○	○	○ ¹⁹⁾ (선택지 수정)	○ ²⁰⁾ (선택지 수정)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비동거손자녀						
- 존재 여부	○	○	○	○	○	○
- 손자녀 수	○	○	○	○	○	○
- 손자녀 전체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지난 1년간)	○	○	○	○	○ (연락수단 추가)	○
조사원 확인사항 (동거손자녀/비동거손자녀/총손자녀 수)	△ ²⁾	○	△ ²⁾	○	○	○
배우자						
- 배우자의 건강상태	○ ⁴⁾	○	○	○	○	○ ²¹⁾ (선택지 수정)
- 배우자와 함께 산 기간('년')	○ ⁴⁾	×	×	×	×	×
-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은 기간('년')	○ ⁴⁾	×	×	×	×	×
-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동반외출 빈도	×	○	○	○	×	×
- 배우자에 대한 생각(대화, 신뢰)	×	×	○	×	×	×
- 갈등 경험 여부	×	×	○	×	○	○
- 갈등의 가장 큰 원인	×	×	○	×	○	○
가구형태						
- 노인 단독가구 시작 시점	○ ⁵⁾	○	○	○	×	×
- 노인 단독가구 형성 이유	×	○	○ (선택지 수정)	○	○	○
- 노인 단독가구의 생활상 가장 힘든 점	×	×	○	△ ¹⁷⁾ (선택지 수정)	○	○
- 기혼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	○	×	×	×	×	×
-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장 큰 이유 (기혼자녀 동거가구)	○ ¹⁾	○	○ (선택지 수정)	○	○	○
-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장 큰 이유 (미혼자녀 동거가구)	×	×	×	×	○	○
- 기혼자녀와의 경제생활/일상생활 부담방식 (기혼자녀 동거가구)	×	×	○	○	○	○ ²⁴⁾
- 미혼자녀와의 경제생활/일상생활 부담방식 (미혼자녀 동거가구)	×	×	×	×	○	
선호하는 노후생활						
- 자녀와 노부모 동거에 대한 생각	○ ⁶⁾	○ ¹³⁾	○	○	○	×
-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자녀에 대한 생각	○ ⁶⁾	○ ¹³⁾ (선택지 수정)	○	○	○	○ ²²⁾ (선택지 수정)
- 선호하는 향후의 거주형태	×	○	×	×	×	×
- 선호하는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 ⁶⁾	○ ¹³⁾	○	○	○	○
부모 및 배우자 부모						
- 생존 여부	○ ⁷⁾	○	○	×	×	×
- 생년	○ ⁷⁾	○ ¹⁴⁾	×	×	×	×
- 건강상태	○ ⁷⁾	○ (선택지 수정)	○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 비동거 여부	○ ⁷⁾	×	×	×	×	×
- 비동거 (배우자)부모와의 왕래빈도(지난 1년간)	○ ⁷⁾	○	×	×	×	×
- 비동거 (배우자)부모와의 연락빈도(지난 1년간)	○ ⁷⁾	△ ¹⁵⁾	×	×	×	×
- (배우자)부모와의 관계만족도	○ ⁷⁾	×	×	×	×	×
형제·자매						
- 생존 여부	△ ⁸⁾	○	○	○	○	○
- 살아있는 형제·자매 수	△ ⁹⁾	○	○	○	○	○
- 비동거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지난 1년간)	○	○	○	○	○ (연락수단 추가)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고민상담(정서적 도움)교환	○	×	×	×	×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청소·식사준비·세탁(도구적 도움) 교환	○	×	×	×	×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간병·돌봄·병원 동행 도움 교환	○	×	×	×	×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경제적 도움①(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경제적 도움②(비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경제적 도움③(현물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작년 한 해 경제적 도움을 받은/준 금액 ¹⁰⁾	○	×	×	×	×	×
- 가깝게 지내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수	△ ¹¹⁾	○	○	○	○	× ²³⁾
친구·이웃·지인						
-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지난 1년간)	△ ¹²⁾	△ ¹²⁾	○	○	○ (연락수단 추가)	○
-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지인의 수	△ ¹²⁾	△ ¹²⁾	○	○	○	× ²³⁾
- 친구·이웃과의 고민상담(정서적 도움) 교환	○	×	×	×	×	×
- 친구·이웃과의 청소·식사준비·세탁(도구적 도움) 교환	○	×	×	×	×	×
- 친구·이웃과의 간병·돌봄·병원 동행 도움 교환	○	×	×	×	×	×
- 친구·이웃과의 경제적 도움①(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	×
- 친구·이웃과의 경제적 도움②(비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	×
- 친구·이웃과의 경제적 도움③(현물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	×
- 친구·이웃과의 작년 한 해 경제적 도움을 받은/준 금액 ¹⁰⁾	○	×	×	×	×	×
-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관계만족도	○	×	×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동거가족 외 사람이 찾아오는 빈도(지난 1개월)	×	×	○	×	×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	×	×	×	×	○ ²³⁾

- 주: 1)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B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2) 직접 기입하는 항목은 없지만, 조사표상에서 산출 가능함.
 3) 2008년의 경우, 연락과 왕래를 구분하여 접촉을 많이 한 사람을 구분하였고, 2011년과 2014년은 통합하여 구분
 4) 『배우자와의 관계 및 지원(F)』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5) 『자녀유무 및 동거유형(A)』 영역에서 노인 단독가구로 살게 된 ‘기간’으로 질문하였음.
 6) 2008 『노후생활과 삶의 질(T)』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7) 『부모님과의 관계 및 지원(E)』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8) 비동거 형제자매만 질문함.
 9) 비동거 형제자매만 질문. 성별 포함
 10) 현물은 시가로 환산하였음.
 11) 형제자매는 제외함.
 12) 지인 제외함.
 13) 2011 『노후생활과 삶의 질(L)』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14) 연령으로 질문함.
 15) 동거가구 포함하여 질문함.
 16) 배우자와의 부양의 교환은 부양의 교환에 관한 『영역』으로 이동배치하였음. 또한 조사부담으로 인하여 배우자에 대한 생각(대화, 신뢰)과 갈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 대한 조사내용을 삭제하였음.
 17) 2014년에는 ‘없음’이라는 선택지가 없었으나, 없다는 응답이 일정수준 이상 나타나, 2017년 조사 시는 선택지에 포함하였음.
 18) 연락수단에 ‘카카오톡’ 추가함.
 19) 선택지에 손자녀 양육방식 이견, 노인의 이성교제, 결혼 문제를 추가함.
 20)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 선택지 삭제함.
 21) ‘그저 그렇다’ → ‘보통이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 ‘전혀 건강하지 않다’로 수정
 22)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은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여부’ 문항 삭제 후, 선택지 항목으로 추가
 23) ‘가깝게 지내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수, 친구·이웃·지인 수 문항을 사회적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대체함.
 24) 일상생활 분담 방식에 대해 자녀의 기혼/미혼 여부 상관없이 통합하여 함께 사는 자녀에 대해 질문함.

마. 가족 간 도움의 교환

자립적 노년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노년기 사회적 역할 축소 및 노화과정에 따른 변화로 노인 및 가족 간 도움의 교환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노인이 가족과 어떠한 도움을 주고받는지, 도움의 내용 및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본 영역의 주된 목적이다. 『가족 간 도움의 교환』 영역은 2017년까지 가족 간 부양 교환 측면에서 조사되었다. 노인이 가족 내에서 갖는 지위 및 역할 역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2020년 이후 부양의 차원이 아닌 상호성에 기반한 도움 측면에서 이를 파악하는 것으로 영역명을 변경한 바 있다. 2023년도에도 영역명은 2020년도 조사의 기초를 바탕으로 유지하였다.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기능 및 역할 변화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본 영역에서는 앞서 살펴본 주요 사회적 관계망(부모, 자녀, 배우자)을 중심으로 도움 교환 여부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도구적, 신체적,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성에 기반하여 어떠한 도움을 주고 받는지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된다. 나아가 노년기 주요 지출항목에 대한 지불 방식에 대한 파악과 손자녀 돌봄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2023년도 조사 역시 이전년도와의 시계열성을 유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되, 이전년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응답 편의성 및 변화하는 사회상을 고려하는 선에서 조사표를 수정하였다.

첫째, 도움 항목 중 경제적 도움에 대한 정기성 여부 구분을 없애고 유형(현금, 현물)에 따른 도움 여부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기존 조사에서 경제적 도움 중 현금 지원의 경우 정기성 여부(정기적, 비정기적)에 따라 각각 도움 정도를 응답받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응답 결과 간 차이가 크지 않고 응답자의 응답 부담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이를 간소화하였다. 나아가 경제적 도움의 경우, 기존 4점 척도(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여부(예/아니요)만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다른 도움 항목들과 비교하여 경제적 도움의 경우, 세부 응답값의 분화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응답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이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둘째, 손자녀 돌봄 비율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돌봄 현황에 대한 문항을 신설하였다. 정기적으로 돌보는 10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2020년 9.9%로 이전년도 조사 대비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황혼 육아 등에 대한 논의가 재조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문항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돌보는 손자녀 여부 및 지난 1주일 기준 평균적인 돌봄 시간을 파악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표 2-11〉 노인의 가족 간(자녀·부모) 도움의 교환(G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11~2023년)

조사내용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동거자녀/비동거자녀/본인(배우자)부모, 배우자 ¹⁾					
- 존재 여부(조사원 확인사항)	○	○	○	○	○
- 고민 상담(정서적 도움) 상호도움 여부	○	○	○	○	○
- 청소·식사준비·세탁(도구적 도움) 상호도움 여부	○	○	○	○	○
- 간병·돌봄·병원동행 상호도움 여부	○	○	○	○	○
- 경제적 도움①(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 ⁴⁾
- 경제적 도움②(비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
- 경제적 도움③(현물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
- 주요 지출항목에 대한 비용지불 방식 ²⁾	×	×	○	○	○
손자녀					
- 지난 1년간 직접 돌봄 10세 미만의 손자녀 유무 및 수	×	○	○	○	○
- 지난 1주일 기준 정기적으로 돌봄 10세 미만 손자녀 동거 여부, 돌봄 일수, 돌봄 시간 ³⁾	×	×	×	×	○

주: 1) 2014년까지는 동거자녀, 비동거자녀, 본인(배우자) 부모와의 부양 교환 실태에 대해 조사되었으며, 기존(『손자녀, 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형태(H)』 영역)에서 조사된 '배우자와의 자원교환실태 항목을 설문지의 논리성 강화를 위해 본 영역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함.

2) 주요 지출항목에 대한 비용지불 방식(생활비, 의료비, 경조사비)에 대한 문항에 대해 2017년 신규로 추가함.

3) 2023년 조사는 10세 미만의 손자녀 돌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지난 1주일 기준 손자녀 동거 여부, 돌봄 일수, 돌봄 시간에 대해 질문함.

4) 2020년까지 경제적 도움을 정기적 현금 지원과 비정기적 현금지원으로 나누어서 확인하였으나, 2023년 조사부터 정기적/비정기적 현금 지원을 통합하여 질문함.

바. 경제상태

경제상태는 노인과 노인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영역으로,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정책적 관심이 큰 영역이다. 경제상태 영역의 조사표 설계는 조사자료의 시계열적인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진은 제도의 변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소득 관련 영역에서 조사표에 반영할 만한 큰 변화는 없었다. 노인 경제상태 조사 항목은 기본적으로 노인 본인의 소비지출, 가구 및 노인 단위의 수입수준, 가구의 소비지출, 가구자산과 부채 등 네 개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된다. 또한 경제상태 문항 구조와 내용은 가능한 2020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노인 경제상태의 조사 항목 변화를 살펴보면, 2017년에 큰 변화 이후 거의 동일한 구조와 문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노인의 경제수준은 노인이 속한 가구 단위의 경제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가구 내에서 가구원이 경제수준을 동일하게 누리지는 않는다. 따라

서 ‘누구의 경제상태를 파악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소득의 파악의 단위가 중요하다. 가구소득은 노인과 그 외 가구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체계를 2017년과 2020년에 이어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2017년 조사표 마련 당시 노인이나 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의 출현 비중이 높아지면서 조사대상 노인과 배우자의 경제상태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은 불필요해졌고,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 조사항목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2017년 조사부터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은 조사항목에서 삭제하고, 대신 가구소득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인 본인과 그 외 가구원으로 구분하여 소득의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가구소득은 노인 본인과 그 외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조사표 설계과정에서 문헌조사와 자문회의, 정부 정책 입안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료의 활용도가 낮은 항목과 추가적으로 실태 파악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선별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상태의 경우 시계열 유지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2020년의 조사 문항을 유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자료 활용도를 고려하여 개인 단위의 수급 여부를 파악하는 문항을 가구 단위의 수급 여부로 변경하였다. 가구 단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특례로 노인 개인의 의료급여 수급권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사례가 매우 적어서 활용도가 낮을뿐 아니라 조사의 복잡성만 높이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 특례는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보유자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2020년 결과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4.6%이며 의료급여만 적용 받는 수급자 비율은 2.4%이다.

〈표 2-12〉 노인의 경제상태(J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3년)

조사내용		2008	2011	2014	2017년	2020년	2023년
가구 (N) ^{a)}	주관적 생활수준	○ ¹⁾²⁾	○ ²⁾ (선택지 수렴)	○	×	×	×
	작년 한 해 월평균 소비지출액(전체)	△ ³⁾	○	○	○	○	○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작년 한 해)						
	- 식비	○	×	×	×	×	×
	- 교육비	○	×	×	×	×	×
	- 차량유지비	○	×	×	×	×	×
	- 주거비	○	×	×	○	○	○
	- 보건의료비	○	×	×	×	×	×
	- 교양문화오락비	○	×	×	×	×	×

조사내용			2008	2011	2014	2017년	2020년	2023년
가구 (N) ^{a)}	소비지출	- 내구재	○	×	×	×	×	×
		- 통신비	○	×	×	×	×	×
		- 피복비	○	×	×	×	×	×
		- 대중교통비	○	×	×	×	×	×
		- 기타	○	×	×	×	×	×
	비소비 지출	- 경조사비	○	×	×	×	×	×
		- 현금 및 각종 기부금	○	×	×	×	×	×
		- 이자상환액	○	×	×	×	×	×
		- 비동거가족에 대한 생활보조금	○	×	×	×	×	×
		- 기타	○	×	×	×	×	×
	지출되는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추가)	○	○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월평균 생활비 규모		○	×	×	×	×	×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월평균 생활비 규모		○	×	×	×	×	×
	(작년 한 해)근로소득 유무 및 금액		△ ⁴⁾	○	○	○	○	○
	(작년 한 해)사업소득 유무 및 금액		(통합질문)	○	○	○	○	○
	(작년 한 해)재산소득 유무 및 금액		○ ⁵⁾	○	○	○	○	○
	(작년 한 해)사적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공적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		○	○	○	○ ¹⁶⁾ (세분화)	○ ²²⁾ (통합)	○ ²²⁾ (통합)
	(작년 한 해)기타소득 유무 및 금액		○	○	○	○ ¹⁷⁾ (세분화)	○	○
	(작년 한 해)총소득		△ ³⁾	○	○	○	○	○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소유하고 있는 집 여부		×	○	×	×	×	×
	주택 시기(소유, 전세, 보증금, 월세)		○	○	×	×	×	×
	주택 종류		○	○ ⁶⁾ (선택지 수정)	○ ⁶⁾ (선택지 수정)	○ ⁶⁾	○ ⁶⁾	○ ⁶⁾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여부 및 월평균 급여액		○	△ ⁷⁾	△ ⁷⁾	△ ⁷⁾	△ ⁷⁾	△ ⁷⁾
	부동산자산 유무 및 금액		○	×	○	○	○	○
	금융자산 유무 및 금액		○	×	○	○	○	○
	기타자산 유무 및 금액		×	×	○	○	○	○
	부채 유무 및 금액		○	×	○	○	○	○
노인 (본인) (G) ^{a)}	가구 생활비 및 용돈 주 부담 주체		○ ⁸⁾	○	×	×	×	×
	생활비 또는 용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자녀		○	×	×	×	×	×
	생활비 외에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용돈 금액(월)		○	×	×	×	×	×
	용돈 중 가장 많이 지출하는 영역		○	×	×	×	×	×
	(작년 한 해)근로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사업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재산소득 유무 및 금액		○ ⁵⁾	○	○	○	○	○
	(작년 한 해)개인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퇴직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주택연금/농지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사적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공적연금 유무 및 금액		○ ⁹⁾	○	○	○	○	○
	(작년 한 해)기초노령연금 유무 및 금액		×	○	○	○ ¹⁸⁾	○ ¹⁸⁾	○ ¹⁸⁾

조사내용		2008	2011	2014	2017년	2020년	2023년
노인 (본인) (G) ^{a)}	(작년 한 해)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유무 및 금액	△ ⁷⁾	○	○	× ¹⁹⁾	× ¹⁹⁾	× ¹⁹⁾
	(작년 한 해)기타 공적급여 유무 및 금액	○ ¹¹⁾	○	○	○	○	○
	(작년 한 해)기타 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총 수입액	△ ¹²⁾	○	○	○	○	○
	경제적 지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 ¹³⁾	○	○	○	○	○ ¹⁸⁾
	등록장애인 여부	×	○	×	× ²¹⁾	× ²¹⁾	× ²¹⁾
	부동산자산 유무 및 금액	○	○	○	×	×	×
	금융자산 유무 및 금액	○	○	○	×	×	×
	기타자산 유무 및 금액	×	×	○	×	×	×
	부채 유무 및 금액	○	○	○	×	×	×
	부채를 지게 된 이유(노인 본인+배우자)	△ ²⁰⁾	○ (선택지 수렴)	×	×	×	×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의료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 ¹⁵⁾	○ ¹⁴⁾	○	○	○	○
	- 의료비 주 부담주체	○ ¹⁵⁾	×	×	×	×	×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간병돌봄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	×	×	○	○	○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문화여가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	×	○	○	○	○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경조사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	×	○	○	○	○
	생계유지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 여부	○	×	×	×	×	×
배우자 (G)	(작년 한 해)근로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사업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재산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개인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퇴직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주택연금/농지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사적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공적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기초노령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기타 공적급여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기타 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총 수입액	×	○	○	×	×	×
	부동산자산 유무 및 금액	×	○	○	×	×	×
	금융자산 유무 및 금액	×	○	○	×	×	×
	기타자산 유무 및 금액	×	×	○	×	×	×
	부채 유무 및 금액	×	○	○	×	×	×
노인+ 배우자 (G)	총 수입액	×	○	○	×	×	×

조사내용		2008	2011	2014	2017년	2020년	2023년
노인 (본인) 이외 가구원 (N)	(작년 한 해)근로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사업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재산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개인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퇴직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주택연금/농지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사적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공적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기초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기타 공적급여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기타 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
	(작년 한 해)총 수입액	×	×	×	○	○	○

주: a) 2017년에는 개인과 가구 단위의 경제상태 파악이 별도의 영역으로 나뉘어 조사하던 것을 통합하였으므로, 구성하였으므로, 구성의 변화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2014년의 영역명칭을 제시하였음.

- 1) 2011년/2014년과 다르게 '어르신 택의 경제 형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함.
- 2) 개인의 경제상태 관련영역에서 질문함.
- 3) 직접적인 기입항목은 없지만, 조사표 상에서 산출 가능함.
- 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을 분리할 수 없음.
- 5)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구분하여 질문함.
- 6) 조사표 맨 뒤의 '조사원 확인 사항'에 항목이 있음.
- 7) 2008년에는 가구를 기준으로 물어본 반면에 2011년, 2014년에는 노인과 배우자 각각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액 여부 및 연 급여를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경제적 지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그 외로 구분하여 다시 질문하고 있음. 2017년, 2020년은 가구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액 여부 및 연 급여에 대해 물어보고, 노인 본인에 한해 경제적 지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그 외로 구분하여 파악함. 2023년은 가구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 여부를 질문하는 것으로 수정함.
- 8) 가구생활비가 아닌 노인 본인을 위한 생활비/용돈만 해당함.
- 9)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분리하여 질문함.
- 10) 2008년 조사에서는 해당영역에 경로연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복지서비스(S영역)에서 인지 여부, 현재 수령여부, 급여액, 생활의 도움정도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음.
- 11) 세부항목별(보훈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교통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로 질문함.
- 12) 기타소득을 제외하면 산출 가능함.
- 13) 가구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여부만 파악 가능함.
- 14) 작년 한 해 월평균 보건의료비로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로 질문, 『건강상태(D)』 영역에 해당문항 있으며, 지출유무를 별도로 체크하지는 않음.
- 15) 『의료서비스 이용(N)』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연지출액으로 질문함.
- 1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제외하고,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타공적급여로 세분화하여 파악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가구 기준에서 일괄 파악함.
- 17)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농지연금, 기타소득으로 세분화하여 파악함.
- 18) 제도변경으로 기초연금으로 명칭 변경함.
- 1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개인단위에서는 질문하지 않음.
- 20)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음.
- 21) 2017년, 2020년, 2023년에는 관련 문항을 수정하여 『기능 상태와 돌봄(C)』 영역으로 이동하여 질문함.
- 22)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통합하여 질문함.

사. 경제활동

인구 고령화와 건강한 노인의 증가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노인은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노후소득 단절과 노인빈곤의 위험이 높아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노인 경제활동 조사 항목은 기본적으로 현재 경제활동, 최장기 종사 직업, 향후 근로희망,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네 개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된다. 경제활동 조사표는 조사 결과의 시계열 비교분석 활용을 염두에 두고 경제활동 영역의 문항 구조와 내용을 가급적 2020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2020년 조사에서 응답 문항 간소화와 제도 변경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2023년에는 주관적 측면의 노동환경을 평가하는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맞춘 문항 추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문항에서 활용도가 낮은 문항을 삭제하여 조사항목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노인 경제활동의 조사항목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 경제활동 영역, 최장기 종사직업 영역, 향후 근로희망 영역,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영역은 2008년 이후 2023년 조사까지 거의 동일한 구조와 문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단, 현재 경제활동에서 ‘근무하는 기관 유형’ 문항은 정책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하에 삭제하였다. 근무기관의 유형은 개인사업체가 31.6%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사업체 아님(농림어업) 21.3%, 민간회사 20.8%, 공공기관 20.4% 등으로 직업 종류, 일의 내용, 정부 지원 일자리 여부 등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다. 참고로 강은나 외(2022)에서도 근무하는 기관 유형 문항은 삭제를 제안한 바 있다.

반면 현재 경제활동의 노동환경 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를 신규 문항으로 추가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는데, 이들의 노동환경이 고령자가 근로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노동환경은 근로세대 간의 의사소통·협력 정도, 노인차별 분위기, 신체건강에 위해한 작업환경, 신체건강에 위해한 업무내용 등 네 개의 세부 문항으로 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까지는

‘향후 참여 의향’과 ‘참여 의향이 있는 경우 희망하는 사업유형’만을 질문하였으나, 제도 개선을 위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참여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2020년 결과에 의하면,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7.6%였다.

한편 2023년에는 이와 같은 문항 삭제 및 신규 추가 이외에도 기존 문항의 미세한 조정이 있었다. 향후 근로 희망에서 희망근로시간은 2020년에 주당 몇 시간인지만 질문하였으나, 주당 일수까지 함께 응답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는 현재 경제활동을 ‘평균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으로 질문하는 방식과 일치시킨 것이며, 강은나 외(2022)에서도 개선 제안된 내용이다.

현재 경제상태에서 일의 내용 선택지를 노인의 다수가 참여하는 일의 내용으로 일부 조정하고 표현을 보다 명료화하였다. ‘전문직’과 ‘현장 관리’, ‘문화 예술’을 삭제하고 ‘부동산임대’와 ‘숙박업’, ‘도·소매업’, ‘판매·판촉’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농림어업’을 ‘농림축산어업’으로 명료화하였다.

〈표 2-13〉 노인의 경제활동(E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3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현재 경제활동						
- 경제활동 상태	○	○ (선택지 수정)	○	○	○	○
- 직업 종류(통계청 중분류)	○	○	○	○	○	○
- 일의 내용	×	×	○	○	○	○ (선택지 수정)
- 종사상 지위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⁶⁾ (선택지 수정)	○ ⁶⁾ (선택지 수정)	○
- 정부지원 일자리 여부	×	×	○	○	○	○
- 노동환경의 질	×	×	×	×	×	○
- 근무하는 기관 유형	×	×	○	○	○	×
- 향후 1년간 지속가능 여부	×	×	○	×	×	×
- 평균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	△ (근무일수 제외)	○	○	○	○
- 종사 기간	○	○	○	○	○	○
- 근로소득(월평균)	○	×	×	○	○	○
- 경제활동 이유	○	○ (선택지 수정)	○	○	○ ⁹⁾ (선택지 수정)	○
- 직업에 대한 만족도	○	○	○	○	○	○
- 직업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	×	×	○	○	○	○
- 현재 일에 대한 지속의향	○	○	×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 현 직업의 최장기 종사 직업 여부	○	○	○	○	○	○
현재까지 취업경험 여부	○	○ ²⁾	× ²⁾	×	×	×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	○	×	×	×	×
최장기 종사 직업						
- 직업종류(통계청 중분류)	○	○	○	○	○	○
- 종사상 지위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⁶⁾ (선택지 수정)	○ ⁶⁾ (선택지 수정)	○
- 정부지원 일자리 여부	×	×	○	○	× ¹⁰⁾	×
- 종사 기간(연도/개월)	○ ³⁾	○	○	○	○	○
- 근로소득	○	×	×	×	×	
- 그만둔 이유	○	○	○ (선택지 수정)	○	○	○ (선택지 수정)
- 최장기 일자리 퇴직 후 다른 근로 활동 참여 여부	×	×	○	○	○	○
최근 그만둔 직업						
- 직업종류(통계청 중분류)	○	×	○	×	×	×
일의 내용	×	×	○	×	×	×
- 종사상 지위	○	×	○ (선택지 수정)	×	×	×
-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	×	○	×	×	×
- 종사기간(연도/개월)	○ ³⁾	×	○	×	×	×
- 근로소득	○	×	×	×	×	×
- 그만둔 이유	○	×	○ (선택지 수정)	×	×	×
향후 근로 희망						
향후 근로 희망 유무 및 특성	○	○	○	○	○	○
근로 희망 이유	○	○ (선택지 수정)	○	○	○	○
하고 싶은 일의 종류(통계청 중분류)	○	×	×	×	×	×
- 희망근로시간	△ ⁴⁾	○	○	○	○	○ ¹³⁾
- 희망근로소득	○	○	○	○	○	○
- 구직 시 우선 조건(2순위)	○	○	×	×	×	×
- 구직노력(2순위)	×	○	○ (선택지 수정)	○	○ ¹¹⁾	○ ¹¹⁾
노인일자리사업 ⁵⁾						
- 인지 여부	○	○	×	×	×	×
- 참여 경험	○	○ (선택지 수정)	○	○	○	○ (선택지 수정)
- 참여기간/참여빈도	×	○	×	×	×	×
- 참여 유형	×	○	○	○ ⁷⁾	○ ⁷⁾	○ ⁷⁾ (선택지 수정)
- 참여 만족도	○	○	×	×	×	×
-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	○	○ (선택지 수정)	×	×	×	×
- 향후 참여 의향	×	○	○	○ ⁸⁾	○ ⁸⁾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 향후 희망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	○	×	○	○ ¹²⁾	○ ¹²⁾ (선택지 수정)
-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	×	×	×	×	×	○

주: 1) 향후 근로 희망에 관한 문항에서 파악할 수 있음.

2) 현재 경제활동 상태문항에서 파악가능함.

3) 일한 시점에서 그만둔 시점까지 질문한 문항에서 계산가능함. 단, '개월'은 불가함.

4) 시간에 따른 근무형태에 대한 질문으로 간접적으로만 파악가능함.

5) 『노인복지서비스(2008년: S영역, 2011년: K영역)』에 있음.

6) 2017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추가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제외하고 '기타' 역시 제외함. 또한 2020년은 '고용주'를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자영업자'를 '단독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수정하여 질문함.

7) 2017년부터 참여했던 사업유형에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유형으로 질문의 성격 변경함. 2020년부터 제도 변경에 맞춰 선택문항을 수정하고, '공익활동'인 경우 보다 세분화하여 유형을 질문하도록 변경함.

8) 2017년부터 응답자 범위를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함.

9) 2020년 선택지 문항에서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는 '사회적으로 기여하기 위해'로 변경함.

10) 2020년은 삭제함. 현재 경제활동 및 최장기 종사직업 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가능함.

11) 2020년부터 1순위 질문으로 변경함.

12) 2020년부터 제도 변경에 맞춰 선택문항을 수정함.

13) 2023년은 희망 근로 일수 및 시간(주당)으로 질문함.

아. 사회활동

법적 정년연령인 60세를 지나, 연금수급 가능 연령인 65세에 진입하게 되면서 노년기의 생활시간은 '근로' 중심의 활동에서 '여가' 활용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의 '여가'시간의 활용과 관련된 현황을 계속적으로 조사하여 왔으며, 시계열 유지를 통해 노인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경향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2023년 조사에서도 시계열 비교를 우선으로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조사표 구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조사내용을 일부 수정·변경하였다. 첫째, 조사표 내용의 명확화이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만큼 조사 문항뿐만 아니라 선택지의 내용도 그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영역명 조정, 각 활동 명칭의 수정 등을 진행하였다. 둘째, 응답 내용의 구체성 확보이다. 조사 내용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20년에 비하여 시간단위 응답을 '분'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응답자의 응답 효율성 확보이다. 이에 기존 문항 중 통합이 가능한 것들을 통합하고, 선택지 내에서의 통합이 가능한 문항은 선택지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넷째, 사회적 변화에 대한 고려이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정보화에 따른

노인의 전자기기 활용도 증가와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를 고려하여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정보화 관련 문항을 상당부분 추가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보화 수준은 더욱 급격히 변화되었고, 이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본방향에 따른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확한 조사내용 구성을 위해 영역명을 조정하였다. 2020년 본 영역의 영역명은 ‘여가 및 사회활동’이었다. 사전적 의미의 ‘여가(餘暇)’란 휴식을 겸한 다양한 취미활동이 포함되는 경제 활동 이외의 시간으로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3)을 의미한다. 즉, 근로 시간 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것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외에 운동, 휴식, 수면시간 등이 포함된 광의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본 영역에서는 이러한 여가시간에 노인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여가’보다는 협의의 의미로 ‘사회활동’으로 한정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영역명을 ‘사회활동’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문항 내용 및 선택지를 명확화하였다. ‘교육’으로 한정하였던 내용을 ‘교육 및 학습활동’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교육 영역 및 교육 참여 기관도 공식적인 정책용어로 명확화하여 수정하였다. ‘자원봉사’의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 내용과 여가문화시설의 명칭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명칭으로 수정하였다. 셋째, 해당 기간을 명확히 하였다. 2020년 조사에서는 조사문항 내에 별도의 시점이나 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문항들이 있었으며, 2023년 조사에서는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를 명시하여 조사대상기간을 명확히 하였다.

두 번째 기본방향에 따른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답내용의 구체성 확보를 위해 교육 및 학습활동·자원봉사 등의 참여시간을 2020년 ‘시간’ 단위의 응답에서 ‘시, 분’ 단위로 변경하였다.

세 번째 기본방향에 따른 응답자의 응답 효율성 확보를 위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 중 타 문항과 결합이 가능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문항은 삭제하거나 통합하였다. 예를 들어, 여행경험의 경우 여가문화활동 리스트 내에 여행 코드가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향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은 향후 희망 활동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생활정보이용의 불편도 정보화기기 발달에 따른 어려움으로 통합하였다. 통합 과정에서 통합된 문항의 세부 하위문항에도 이를 적용하여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둘째, 문항 간 통합뿐만 아니라 선택지 조정을 통해서도 문항을 조정하였

다. 예를 들어, 별도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던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참여 여부를 삭제하고, 참여 횟수 문항에 ‘참여하지 않음’을 보기문항으로 추가하여 문항 수를 낮추고자 하였다.

네 번째 기본방향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빠른 정보화를 고려하여 전통적 TV 시청 외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TV 및 유튜브 시청, 라디오 청취 현황을 파악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스마트 기기 보유 현황에서는 인터넷이 안되는 휴대폰을 삭제하고, 스마트 위치를 추가하였다. 둘째, 정보화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년기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수요 파악 문항을 추가하였다.

〈표 2-14〉 노인의 사회활동(D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3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여가·문화 활동(취미활동, 여행, 영화 관람, TV 시청 등)						
- 여가·문화 활동 여부(지난 1년간)		△ ²⁾	○	○ ⁶⁾	○ ⁶⁾	○ ¹⁵⁾
- 주로 하는 여가·문화 활동 3순위	△ ¹⁾ (통합질문)	△	○	○ ⁶⁾	○ ⁶⁾	○ ⁶⁾ (선택지 수정)
- 주된 여가·문화 활동 빈도	×	○	×	×	×	×
- 주된 여가·문화 활동을 주로 함께하는 사람	×	○	×	×	×	×
- 주된 여가·문화 활동 장소	×	○	×	×	×	×
- 여가문화활동 미참여 이유	×	×	×	×	○	○ ¹⁵⁾
- TV 시청 여부(지난 1개월간) 및 평균 시청시간	×	○	×	○ ⁷⁾	○ ⁷⁾	○ ¹⁶⁾
- (스마트기기 활용) TV 및 유튜브 시청 및 평균 시청시간	×	×	×	×	×	○
- 향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	×	○	×	○ ⁶⁾ ○ ⁸⁾	○ ⁸⁾	△ ¹⁷⁾
여행						
- 여행 경험 여부(지난 1년간)	×	○	○	○	○	×
- 여행 횟수(지난 1년간, 국내/해외)	×	○	○	○	×	×
- 여행 계획에 있어 중요한 기준	×	○	×	×	×	×
- 주된 여행 방법(희망)	×	○	×	×	×	×
평생학습 ¹¹⁾						
- 참여 여부	○	○	○	○ ⁹⁾ (질문수정)	○ ⁹⁾ (질문수정)	○ ⁹⁾ (질문수정)
- 향후 참여 희망 여부	○	○	×	×	×	△ ¹⁷⁾
- 참여 교육 종류	×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¹⁸⁾ (선택지 수정)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 향후 희망하는 교육 종류	○	○ (선택지 수정)	×	×	×	×
- 교육 장소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 ¹⁸⁾ (선택지 수정)
- 향후 희망하는 교육 실시 기관	×	○	×	×	×	×
- 참여 횟수	×	○	○	○	○ ¹³⁾ (질문수정)	○ ¹³⁾
- 향후 참여 희망 횟수	×	○	×	×	×	×
- 교육 미참여(원하지 않는) 이유	○	○ (선택지 수정)	×	×	×	×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¹²⁾						
- 참여 여부	○ ³⁾	○	○	○	○	○ (통합)
- 참여 빈도	○	○ (선택지 수정)	○	○	○	○ (통합)
- 참여 경로(친목단체 제외)	×	○	×	×	×	×
- 향후 참여 의향	×	○	×	×	×	×
항목별 활동(지난 1개월간)						
- 기부	×	×	○	×	×	×
- 잘 모르는 타인 돕기(금전적 대가 없이)	×	×	○	×	×	×
- 자원봉사활동	×	×	○	×	×	×
자원봉사활동						
- 전 생애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	○	○ (선택지 수정)	○	○	○ (선택지 수정)	○
-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분야	×	○	○ (선택지 수정)	○	○	○ (선택지 수정)
-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종류	×	×	○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시작 시점	×	○	×	×	×	×
-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빈도	×	○	○	○	○ ¹³⁾ (문항수정)	○ ¹³⁾
- 자원봉사활동 하는 주된 이유	×	○	×	×	×	×
-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	○	×	×	×	×
- 자원봉사활동 불만족 이유	×	○	×	×	×	×
- 향후 자원봉사활동 희망 여부	○	○	×	×	×	×
- 향후 자원봉사활동 희망 분야	○	○ (선택지 수정)	×	×	×	×
- 향후 자원봉사활동 희망 종류	×	○	×	×	×	×
-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	○	×	×	×	×
- 자원봉사활동에 가장 필요한 지원	○	○ (선택지 수정)	×	×	×	×
-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연계기관	×	○	○ (선택지 수정)	○	○	○ (선택지 수정)
컴퓨터·인터넷 이용						
- 이용 경험	○	×	×	○ ¹⁰⁾	×	×

116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 이용 능력 수준	×	○	○	○ ¹⁰⁾	×	×
- 이용 영역	○	×	×	○ ¹⁰⁾	×	×
- 인터넷 접근성	×	×	×	×	×	○
핸드폰→전자기기(피쳐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스마트워치) ¹⁹⁾						
- 보유 여부	×	○	○	○ ¹⁰⁾	○	○
- 사용 여부	×	×	×	×	○	○
- 사용시간	×	×	×	×	○	○
- 기능 및 서비스 활용 능력	×	×	○	○ ¹⁰⁾	○ (문항수정)	○ (문항수정)
일상생활 정보습득의 어려움	×	×	×	×	○	○
일상생활 정보화기기 이용의 어려움	×	×	×	×	○	○ (통합)
노년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	×	×	×	×	○
종교						
- 종교의 종류	○	○ ⁴⁾ (선택지 수정)	○	○	○	○
- 종교활동 참여 빈도(지난 1년간)	×	×	×	○	○ (선택지 수정)	○
삶에 있어 종교의 중요성	×	○ ⁴⁾	×	×	×	×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	×	×	×	×	○	×
향후 여러 활동들에 대한 희망 정도 ²⁰⁾						
- 소득활동	×	×	○	×	×	×
- 자원봉사활동	×	×	○	○	○	○
- 학습활동	×	×	○	○	○	○
- 취미·여가활동	×	×	○	○	○	○
- 종교활동	×	×	○	○	○	○
- 정치사회 단체활동	×	×	○	○	○	○
- 친목단체활동(동창회, 계모임 등)	×	×	○	○	○	○
- 동호회 활동	×	×	×	×	×	○
- 여행 및 관광 활동	×	×	×	×	×	○
경로당/노인복지관 ¹¹⁾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노인교실/ 공공여가문화시설/ 민간문화시설 ¹⁴⁾						
- 인지 여부	○	×	×	×	×	×
- 이용 여부	○	○	○	○	○	○
- 이용 빈도(일주일 기준)	×	○	○	○	○	○
- 이용 이유	×	○	○	○ (선택지 수정)	○	○ ²¹⁾
- 이용 만족도	×	○	○	○	×	×
- 이용 불만족 이유	×	○	○	○ (선택지 수정)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 이용 만족 이유	×	○	×	×	×	×
- 이용하지 않는 이유	×	○	×	○	×	×
- 향후 이용 의향	○	○	○	○	○	○

- 주: 1) 현재부터 1년 전까지 가장 즐거웠던 여가 및 사회활동의 우선순위 2가지 질문함.
 2)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제외함.
 3) 친목단체,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스포츠레저단체, 시민단체/사회단체, 이익단체 및 정치단체, 봉사단체, 학습단체로 개별 구분하여 질문함.
 4) 『노후생활과 삶의 질(L)』 영역에 있음.
 5) 『노인복지서비스(2008년: S영역, 2011년: K영역)』에 있음.
 6)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여행 제외 / 2순위까지 질문함.
 7) TV시청, 라디오청취 포함
 8)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여행 포함. / 2순위까지 질문함.
 9)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포함
 10) 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 PC, 인터넷 TV 등 전자기기 활용을 통합하여 각 가능별 사용능력으로 질문함.
 11) 연도별 기준 상이함(2008년: 전생애, 2011년: 현재, 2014년, 2017년: 지난 1년).
 12) 연도별 기준 상이함(2008년, 2011년: 현재, 2014년, 2017년: 지난 1년).
 13) 월참여횟수 6개 보기 → 월참여횟수 개방형 응답, 회당 참여시간 추가
 14)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노인교실/ 공공여가문화시설/민간문화시설 추가
 15) 2023년 조사는 TV·유튜브 시청 및 라디오 청취를 제외한 여가활동으로 질문함.
 16) 2023년 하루 시간, 분 단위 조사로 변경함.
 17) 2023년 앞으로 희망하시는 활동 문항에 여가문화활동을 통합하여 질문함.
 18) 2023년 1·2순위 조사로 변경함.
 19) 2023년 전자기기 항목을 수정하여 질문함. 인터넷이 안되는 휴대폰(피쳐폰)을 스마트폰으로 수정하였고 스마트폰 위치 추가하여 질문함.
 20) 2023년 활동 항목을 세분화 및 추가하여 질문함(여행 및 관광 활동, 동호회 활동 등).
 21) 2023년 주된 이유 1가지 질문으로 변경함.

자.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노인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는 본 영역은 노인집단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개인적, 환경적 요소와 사회현상과 정책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행동반경이 축소되는 생애주기적 특성상 노년기 삶의 질의 중요한 부분인 주거·생활환경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2023년 조사에서는 건강, 학력, 생활양식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조사대상으로 포함되므로, 변화된 노인의 생활상과 다양한 욕구를 더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먼저 주거실태 문항에서는 거주유형과 주택만족도 문항을 유지하고, 거주주택 불만족 이유 문항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선택지를 주제별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전 세대보다 도시거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인구에 편입된 변화를 반영하여 ‘주택의 정숙성’을 독립적 선택지로 제시함으로써 최근 공동주택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주목받는 층간소음이나 외부 소음 관련 불편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주택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공간부족 문제도 있지만, 중대형 주택에서 자녀세대 분가 후 공간활용이나 자금사정으로 ‘주택 다운사이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규모적정성’을 선택지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위한 주거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 설비/용품의 설치 및 개조 여부 문항을 신설하였다. 노년기 신체적, 인지적 기능제한을 고려한 화장실, 주택 내부, 입구의 설비/용품과 화재, 가스 안전장치, 응급안전알림 기기 등의 설치 여부와 필요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주거공간의 접근성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원 확인사항의 ‘주거위치’ 문항에서 기존 선택지 ‘지상’을 ‘지상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승강기 설치 여부 문항을 신설하였다.

주요기관(시설)까지 도보이동거리 문항은 앞선 조사에서 확인된 도농 간 격차를 고려하여 선택지를 수정하였다. 인프라 이용을 위해 이동거리가 긴 농어촌 현실을 반영하여 ‘도보 1시간 이상’을 추가하였고, 응답 편의를 위해 선택지에 도보소요시간과 함께 노인의 느린보행속도의 국제기준(0.8m/s)을 참고하여 1분 기준 약 50m를 적용한 절대거리를 제시하였다.

노인의 희망 주거형태문항은 건강 유지 시와 악화 시 응답을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고, 건강 악화 시 희망거주형태에서 장기요양보험급여 적용 시설(노인요양시설)과 급여적용 대상이 아닌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등의 노인전용주택을 구분하여 각각의 선택지로 제시함으로써 노인의 다양한 욕구가 파악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욕구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독립적 일상 생활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여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항목을 질문하고, 유료이용 의향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외출시 교통수단, 운전, 안전에 관한 질문은 2020년 조사문항을 대부분 유지하여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에서는 고령자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된 배경을 반영하여 ‘운전자 교통사고’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 태풍과 같은 극단적 이상 기후현상의 출현빈도가 증가한 점을 반영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인명, 재산피해 경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학대 경험 유무/행위자에서는 기존 문항을 대부분 유지하되, 방임과 유기 문항을 통합하여 제시하고, 스스로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거부하는 ‘자기방임’을 신설하였다. 또한 노인학대를 경험했을 때 대응한 방법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노후생활 전반에 관한 질문에서는 2020년 조사에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 일부 문항(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 정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삭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항을 유지하였고, 선호하는 재산처리방식, 연명치료에 대한 생각, 선호하는 장사방식 등은 일부 의미명확화를 위해 문항, 선택지 또는 예시를 수정하였다. 또한 2020년 조사에서 신설한 생애말기 좋은 죽음을 위한 요소에 대한 문항을 유지하되,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 및 서비스 인지 여부에서는 2020년 조사부터 포함된 치매 관련 제도 및 수행기관 문항을 유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을 추가하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도입된 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노년기 다양한 차원의 정치참여가 확산되는 현상을 반영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 방법으로서의 투표참여 여부를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가족, 이웃, 언론, 기업,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문항을 신설하였다. 사회신뢰도 문항은 사회신뢰수준의 대표적 지표로 활용되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WVS)의 다양한 공동체, 집단 또는 조직에 대한 신뢰수준을 참고하였으므로 일부 국제비교가 가능하다.

〈표 2-15〉 노인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H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3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주거(주택) 실태						
- 거주유형(자가, 전세, 월세, 무상)	○ ¹⁾	○ ¹⁾	○ (선택지 수정)	○	○	○
- 무상거주 이유	×	×	×	○	×	×
- 거주 주택 만족도	×	×	×	○	○	○
- 거주 주택 불만족 이유	×	×	×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설비/용품 설치·개조 여부(미설치 시) 설치·개조 필요성						
- 화장실이나 욕실 안전손잡이나 안전바	×	×	×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 열고 닫기 쉬운 화장실 또는 욕실 문 손잡이 (레버형, 막대형)	×	×	×	×	×	○
- 문턱, 주택 내 계단 등 단차(높이차이)제거	×	×	×	×	×	○
- 미끄럼방지 매트, 패드 또는 낙상방지 기능성 바닥재 설치	×	×	×	×	×	○
- 휠체어 통행 가능한 넓은 출입문과 복도 (1.2m 이상)	×	×	×	×	×	○
- 화재·가스 안전감지장치	×	×	×	×	×	○
- 가스안전차단기 또는 가스타이머	×	×	×	×	×	○
- 응급호출기 또는 시스피커(응급알람기능 탑재)	×	×	×	×	×	○
주거환경 전반						
- 현 거주지 거주기간	○	×	×	×	×	×
- 주택 종류(조사원 확인사항)	○	○	○	○	○	○
- 주거 위치(조사원 확인사항)	×	○	○	○	○	○ (선택지 수정)
- 승강기 설치 여부(조사원 확인사항)	×	×	×	×	×	○
- 주거 편리성(조사원 확인사항)	×	○	○	○	○	○ (선택지 수정)
- 주거생활환경 중 가장 불편한 공간	× ¹⁾	○	○ (선택지 수정)	×	×	×
-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생활하기 편리성 정도	○	×	×	×	×	×
거주 지역 환경						
- 거주 지역 환경 만족도	×	×	×	○	○ (문항 세분화)	○ (문항 수정)
- 거주환경 불만족 이유	×	×	×	○	×	×
- 거주지역 불편사항	×	×	○	×	×	×
주요기관(시설)까지의 도보이동 거리						
-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	×	○	○	○	○ (선택지 수정)
- 병·의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	×	×	○	○ (선택지 수정)	○	○ (선택지 수정)
- 읍·면·동 사무소	×	×	○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	×	×	○	○	○	○ (선택지 수정)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	×	○	○	○	○ (선택지 수정)
- 버스·지하철역	×	×	○	○	○	○ (선택지 수정)
- 공원	×	×	×	×	○	○ (선택지 수정)
희망 주거형태						
- 선호 거주방식(건강 유지 시)	×	×	×	○	○ (선택지 수정)	○ (문항, 선택지 수정)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 선호 거주방식(거동 불편 시)	×	×	×	○	○ (선택지 수정)	○ (문항, 선택지 수정)
- (시설입소 희망자) 서비스 종류별 이용의향 (건강상태별)	×	×	×	○	○ (문항 수정)	×
- (시설입소 희망자) 주요공간 전유·공유 (건강상태별)	×	×	×	○	×	×
- (시설입소 희망자) 지불의향 생활비 수준 (건강상태별)	×	×	×	○	×	×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서비스별 필요도 ¹⁰⁾						
- 주거환경개선	×	×	×	×	○	○
- 일상생활지원	×	×	×	×	○	○
- 안전지원	×	×	×	×	○	○
- 방문형 의료서비스	×	×	×	×	○	○
-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	×	×	×	×	○	○
-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	×	×	×	×	○	○
주거시설이용시 유료서비스 이용희망 정도 ¹¹⁾						
- 식사서비스	×	×	×	×	○	△ ¹¹⁾
- 청소 및 빨래서비스	×	×	×	×	○	△ ¹¹⁾
- 운동, 문화, 여가서비스	×	×	×	×	○	×
- 의료서비스	×	×	×	×	○	△ ¹¹⁾
- 돌봄서비스	×	×	×	×	○	△ ¹¹⁾
- 병원원 동행/외출 지원	×	×	×	×	○	△ ¹¹⁾
외출						
- 외출 시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⁴⁾	○ (선택지 수정)	○
운전						
- 현재 운전 여부	○	○ (통합문항)	○ (통합문항)	○	○	○
- 과거 운전 경험	○ (통합문항)	○	○	○	○	○
- 운전을 그만둔 연령	×	○	○	○	○	○
- 운전 시 어려움 정도(현재)	×	○	○	○	○	○
- 운전 시 장애요소	×	○	×	○	○	○
비영업용 차량 소유 여부	×	○	○ (선택지 수정)	×	×	×
- 차량가격	×	○	○	×	×	×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지난 1년간)	○	○	○	○	○	○
- 안전사고 경험(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	○	○	○	○	○	○
- 범죄피해 경험(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건 구매, 보이스피싱)	×	○	○	○	○	○ (선택지 수정)
- 교통사고 경험 여부(보행자 교통사고, 운전자 교통사고)	○	○ (선택지 수정)	×	×	○	○ ¹²⁾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	×	×	×	×	○
노인학대 경험 유무/행위자 ¹³⁾						
- 신체적 학대	○	○	○	○	○	○
- 성적 학대	×	×	×	○	○	○
- 정서적 학대	○	○	○	○	○	○
- 경제적 학대	○	○	○	○	○	○
- 방임	○	○	○	○	○	○ ¹⁴⁾
- 유기	○	○	○	○	○	
- 자기방임	×	×	×	×	×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 여부	×	×	○	×	×	×
노인학대 대응방법	×	○	×	○	×	○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 (구간 측정)	○	○	○	○	○
연령규범						
- 노인이 재혼하는 것에 대한 생각	×	×	○	○	×	×
- 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한 생각	×	×	○	○	×	×
- 노인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생각	×	×	○	○	×	×
- 노인이 젊어 보이려고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한 생각	×	×	○	○	×	×
노인차별						
- 차별 경험 여부	×	×	○	○	○ (문항 구성 변경)	○ (문항 수정)
- 빈번한 차별 경험 내용	×	×	○	○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영향 정도	×	×	×	×	○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	×	×	×	×	○	×
죽음에 대한 준비						
- 수의	×	×	○	○	○ (문항 수정)	○
- 묘지(납골당 포함)	×	×	○	○	○ (문항 수정)	○
- 상조회 가입	×	×	○	○	○ (문항 수정)	○
- 유서 작성	×	×	○	○	○	○
- 죽음준비 교육 수강	×	×	○	○	○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	×	×	○	○
- 장기 등 기증서약	×	×	×	×	○	○
- 가족과 상속처리 장례의향 논의	×	×	×	×	○	○
장례						
- 선호하는 장례방식	○	○	○ (통합문항, 선택지 수정)	○	○ (선택지 수정)	○ (문항, 선택지 수정)
- 화장 시 유골처리방법	○	×				
연명치료에 대한 생각	×	×	○	○	○	○ (문항수정)
선호하는 재산처리방식	○	○	○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선택지 수정)
생애 말기 좋은 죽음을 위한 요소	×	×	×	×	○	○ (선택지 수정)
삶의 만족도						
- 건강상태	○ ¹⁾	○	○	○	○	○
- 경제상태	○ ²⁾	○	○	○	○	○
- 배우자와의 관계(유배우자만)	○ ³⁾	○	○	○	○	○
- 자녀와의 관계(생존 자녀가 있는 경우만)	○ ⁴⁾	○	○	○	○	○
- 사회·여가·문화활동	○ ⁵⁾	△ ⁵⁾	○	○	○	○
-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 ⁶⁾	×	○	○	○	○
- 삶전반	×	×	×	×	○	○
정부 운영 제도 및 실시기관, 서비스 인지 여부	×	×	×	×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¹⁵⁾					○	○
- 치매조기검진사업 ¹⁵⁾					○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¹⁵⁾					○	○
- 치매전담요양기관 운영					○	×
- 치매안심센터					○	○
- 노인보호전문기관					○	○
- 성년후견제도 ¹⁵⁾					○	○
- 주택연금	×	○	×	×	○	○
- 농지연금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
향후 확대 필요한 노인복지정책(2순위) ¹⁶⁾	×	×	×	×	○	○ (문항, 선택지 수정)
주택연금/농지연금						
- 인지 여부	×	○	×	×	○	○
- 활용 의사 여부	×	○	×	×	×	×
- 활용 의사가 없는 이유	×	○	×	×	×	×
투표참여 여부	×	×	×	×	×	○
사회영역별 신뢰도	×	×	×	×	×	○
부모-자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	○ (선택지 수정)	×	×	×	×
무임승차 제도						
- 현행제도 동의정도	×	×	×	○	×	×
- (중립 및 반대 의견) 대상연령 상향조정 동의정도	×	×	×	○	×	×
- (중립 및 반대 의견) 운임 일부부담 동의정도	×	×	×	○	×	×
지금 가장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사항	○	○ ⁴⁾	×	×	×	×
노인복지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것 2가지	○ ³⁾⁶⁾	○ ⁴⁾	×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 현재 가장 필요한 서비스 2가지	×	○ ⁴⁾	×	×	×	×
- 현재 가장 필요한 노인용품 2가지	×	○ ⁴⁾	×	×	×	×
새로운 노인복지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복수응답)	○ ³⁾	×	×	×	×	×
지속적인 간병·돌봄이 필요할 경우 대처방법	○	×	×	×	×	×
현재 가구형태에 대한 만족도	○	×	×	×	×	×
현재 가구형태에서 가장 어려운 점	○	×	×	×	×	×
노후생활 준비 여부(준비 중 포함)	○	×	×	×	×	×
노후생활비 마련 여부 또는 마련 계획(복수응답)	○	×	×	×	×	×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영역	○	×	×	×	×	×
본인 삶에 대한 생각(25가지 척도)	○	×	×	×	×	×
출로 된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	○	×	×	×	×	×
성생활 ⁹⁾						
- (배우자/이성친구)성생활 질문에 대한 답변 의향	○	×	×	×	×	×
- (배우자/이성친구)성생활 중요성	○	×	×	×	×	×
- (배우자/이성친구)성관계 빈도	○	×	×	×	×	×
- (배우자/이성친구)성관계 만족도	○	○ ⁸⁾	×	×	×	×
- (배우자/이성친구)성관계 불만족 이유	○	×	×	×	×	×
- 성생활 상담서비스 필요도	×	○	×	×	×	×
노년의 성						
- 성생활 중요성	○ ²⁾	×	×	○	×	×
- 성교육·성상담 참여 경험	×	×	×	○	×	×
- 성교육·성상담 필요도	×	○ ²⁾⁵⁾	×	○	×	×
부엌·화장실 유형, 세면·목욕시설 운수 여부	○	×	×	×	×	×
화장실·욕실에 미끄럼 방지 장치 여부	○	×	×	×	×	×
범죄로부터의 거주지역 안전성 정도	○	×	×	×	×	×

주: 1) 『건강상태(L)』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2) 『자산과 부채(J)』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3) 『배우자와의 관계 및 지원(F)』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4)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B)』 영역과 『따로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C)』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만족도 측정함.

5) 2008년: 『여가 및 사회활동(R)』 영역에 해당문항이 있음.

2011년: 『여가 및 사회활동(J)』 영역에서는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함.

6)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과의 관계 및 지원(G)』 영역에서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측정

7) 2008년: 행위자를 ‘함께 사는 가족’, ‘따로 사는 가족’, ‘가족이외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복수응답형태 질문
2011년, 2014년: ‘노인과의 관계’로 질문함.

8) 배우자/이성친구에 대한 제한 없이 질문함.

9) 2017년도에는 관련문항을 수정하여 『정책적 이슈에 대한 노인의 인식(L)』 영역으로 이동하여 질문함.

10) 2023년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서비스별 필요 문항을 기존 2020년도 5점 척도에서 필요 여부(이분형)로 변경함.

11) 2023년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서비스별 필요 문항과 통합하여 해당 문항의 항목에 대한 이용 의향(이분형)을 묻는 것으로 변경함.

12) 2023년 운전자 교통사고를 추가하여 질문함.

13) 2023년 행위자 선택지를 간소화하여 조사함.

14) 2023년 신체적 방임과 경제적 방임을 통합하여 질문함.

- 15) 2023년 제도 현황 반영하여 명칭 수정
16) 2023년 1·2순위 조사로 변경함.

3.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영역 및 조사내용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영역과 조사항목은 앞서 제시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아래 표와 같이 확정하였다.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는 2020년의 조사 영역과 조사항목을 가능한 유지하도록 하였지만, 노인의 특성 및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영역별 세부 항목의 수정이나 삭제, 그리고 신규 문항의 추가 등의 변경도 일부 이루어졌다. 조사표 구성은 응답 편의성 및 조사원의 조사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보고서 구성은 노인의 생활 영역과 영역 간 관련성을 고려하여 조사표 구성과는 다르게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 단위와 시·도 단위 통계 산출을 목표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본문에서는 전국 단위의 결과를 보고하고, 부록에서 시·도 단위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16〉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설문 내용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A. 가구 일반 사항	A1.	(각)가구원 이름	제1장 제4절 응답자 일반특성
	A2.	가구주와의 관계	
	A3.	성별	
	A4.	연령	
	A4-1.	출생년월	
	A5.	혼인상태	
	A6.	교육수준	
	A6-1.	－ 교육수준	
	A6-2.	－ 교육연수(노인만)	
	A7.	취업 여부	
	A8.	응답 노인과의 관계	
	A9.	노인 조사 대상자 확인	
	표지	대리응답 이유	
	A10.	현재와 2022년 가구원 수 비교	
	A10-1	－ 2022년 가구원 수	
	A10-2	－ 가구원 수 변동	
	확인	가구원 수(조사원 확인사항)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확인	노인가구원 수(조사원 확인사항)	
	확인	조사완료노인 수(조사원 확인사항)	
	확인	노인가구 형태(조사원 확인사항)	
	확인	응답 노인의 동거자녀 수(조사원 확인사항) - 성별, 혼인상태별	
B.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B1.	평소의 건강상태	제3장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B2.	수면의 질	
	B3.	만성질환(연도별 만성질환종류 변경 및 수정)	
	B3-1.	- 의사진단 여부	
	B3-2.	- 치료 여부	
	확인	의사 진단 만성질환 총 수(조사원 확인사항)	
	B4.	일일 복용의약품(처방약) 유형 및 종류 수(3개월 이상)	
	B5.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지난 1개월간)	
	B6.	병원입원(요양병원/그외 병원) 경험 여부 및 횟수(지난 1년간)	
	B7.	신체 측정(몸무게, 키, 1년 전 몸무게)	
	B8.	우울증상 척도(15개 문항)	
	B9.	자살 생각 경험 여부(지난 1년간)	
	B9-1.	자살 생각 이유	
	B10.	흡연: 현재 흡연 여부	
	B11.	음주: 지난 1년간 음주 빈도	
	B11-1.	- 1회 음주량	
	B12.	운동: 평소 운동 수행 여부	
	B12-1.	- 일주일간 운동 횟수	
	B12-2.	- 운동 시, 1회당 운동 시간	
	B13.	영양관리 상태 관련 문항(지난 1개월) (10개 항목)	
	B14.	외식빈도	
	B15.	정부·복지관 제공 경로식당·식사배달서비스 이용(지난 1년간)	
	B16.	병의원, 치과 미치료 경험(지난 1년간)	
	B16-1.	병의원, 치과 미치료 이유(지난 1년간)	
	B17.	건강검진(신체/치매)(지난 2년간)	
	B18.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항(2순위)	
C. 기능상태와 돌봄	C1.	일상생활의 불편함	제4장 노인의 기능상태와 돌봄
		1) 시력	
		2) 청력	
		3) 씹기	
		4) 이동	
	C2.	보조기 사용 여부	
		1) 시력	
		2) 청력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C. 기능상태와 돌봄		3) 씹기	
		4) 이동	
	C3.	피곤함 유무(지난 1개월간)	
	C4.	10계단 오르기 힘들 유무	
	C5.	300M 이동 힘들 유무	
	C6.	낙상(지난 1년간)경험 유무 및 횟수	
	C6-1.	- 병원치료 유무	
	C6-2.	- 낙상 이유	
	C6-3.	- 낙상 장소	
	C7.	일상생활 수행능력(지난 일주일간) (7개 항목)	
		1) 옷 입기	
		2)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3) 목욕 또는 샤워하기(욕조 드나들기, 때밀기, 샤워)	
		4) 차려 놓은 음식 먹기	
		5)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6)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C8.	7) 대소변 조절하기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지난 일주일간) (10개 항목)	
		1) 몸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톱·발톱 깎기)	
		2) 집안일(실내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안정리정돈 등)	
		3) 식사준비(음식 재료 준비, 요리, 상차리기)	
		4) 빨래(손이나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5)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6) 금전 관리(용돈, 통장관리, 재산 관리)	
		7) 근거리 외출하기(가까운 거리 걸어서)	
		8) 물건 구매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9) 전화 걸고 받기	
		10) 교통수단 이용하기(대중교통, 개인 차)	
	C9.	일상생활 수행 도움 받은 여부	
	C9-1.	- 도움 받은 주체	
		· 동거 가족	
		· 비동거 가족	
		· 친척, 이웃·친구·지인	
		· 개인 간병인 또는 가사 도우미	
		· 장기요양보험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그 외 공적 돌봄서비스(가사·간병 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노케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C. 기능상태와 돌봄	C9-2.	가족,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받은 도움의 빈도, 행위자 1) 청소, 빨래, 시장보기 - 도움빈도 - 주 도움 행위자	
		2) 외출동행 - 도움빈도 - 주 도움 행위자	
		3) 식사준비(음식준비) - 도움빈도 - 주 도움 행위자	
		4) 목욕 등 신체기능 유지지원 - 도움빈도 - 주 도움 행위자	
	C9-3.	가족, 친척,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한 도움의 충분도	
	C9-4.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이유	
	C10.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경험 여부	
	C10-1.	- (등급신청 시) 가장 최근에 받은 등급	
	C10-2.	현재 이용하는 장기요양서비스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6) 단기보호 7) 복지용구	
		C11.	
		장애판정 여부	
		C11-1.	
		장애유형과 등급 1) 장애유형 2) 장애등급	
		C12.	
		노인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2순위)	
D. 사회활동	D1.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여부, 시간(지난 1년간)	제9장 노인의 사회활동
	D2.	스마트기기 활용 TV, 유튜브 시청 및 라디오 청취 여부, 시간(지난 1년간)	
	D3.	여가활동 여부(TV·유튜브 시청, 라디오 청취, 여행 제외)	
	D3-1.	주로 하는 여가활동(2순위)	
	D3-2.	여가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지난 1년간)	
	D4.	교육 및 학습활동 참여 여부(지난 1년간)	
	D4-1.	- 참여 교육 종류(2순위)	
	D4-2.	- 교육 장소(2순위)	
	D4-3.	- 참여 빈도(월간 참여 횟수, 회당 시간)	
	D5.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참여 빈도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D. 사회활동	D6.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지난 1년간)	
	D6-1.	-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분야	
	D6-2.	-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종류	
	D6-3.	- 자원봉사 참여 횟수 및 회당 시간	
	D6-4.	-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연계기관	
	D7.	종교	
	D7-1.	종교활동 참여 빈도	
	D8.	향후 여러 활동들에 대한 희망 정도	
		1) 취미 활동	
		2) 여행 및 관광 활동	
		3) 자원봉사 활동	
		4) 교육 및 학습 활동	
		5) 종교 활동	
		6) 친목 활동	
		7) 동호회 활동	
		8) 정치사회 활동	
	D9.	여가문화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노인교실,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 이용 현황	
	D9-1.	- 이용 여부(지난 1년간)	
	D9-2.	- 이용 빈도(주당)	
	D9-3.	- 이용 이유	
	D9-4.	- 향후 이용 의향	
	D10.	인터넷 접근성	
	D11.	스마트 기기 보유 및 사용 여부, 사용시간 (스마트폰, 컴퓨터, 스마트워치)	
	D11-1.	- 보유 여부	
	D11-2.	- 사용 여부	
	D11-3.	- 사용시간	
	D12.	전자기기 이용 가능 여부	
		1) 메시지 받기	
		2) 메시지 보내기	
		3) 영상통화	
		4) 정보 검색 및 조회(뉴스, 날씨 등)	
		5) 사진, 동영상 촬영	
		6) 음악 듣기(MP3, 라디오 등)	
		7) 게임	
		8) 동영상 보기(영화, TV프로그램, 유튜브 등)	
		9)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10)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 예매·예약, 음식주문 등)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11) 금융거래(인터넷 뱅킹, 주식 등)	
		12) 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	
		13) 식당, 병원 등에서 기계(키오스크)를 활용한 주문 및 접수	
	D13.	정보화기기 발달에 따른 어려움	
	D14.	노년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E. 경제활동	E1.	현재 경제활동 상태	제8장 노인의 경제활동
	E1-1.	- 직업 종류(통계청 중분류)	
	E1-2.	- 일의 내용	
	E1-3.	- 종사상 지위	
	E1-3-1.	-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E1-3-2.	- 노동환경의 질	
	E1-4.	- 평균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E1-5.	- 월평균 소득	
	E1-6.	- 종사 기간	
	E1-7.	- 경제활동 이유	
	E1-8.	- 직업에 대한 만족도	
	E1-8-1.	- 직업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	
	E1-9.	- 현 직업의 최장기 종사 직업 여부	
	E2.	최장기 일자리 직업종류(통계청 중분류)	
	E2-1.	- 종사상 지위	
	E2-2.	- 종사 기간(년/개월)	
	E2-3.	- 그만둔 이유	
	E2-4.	- 최장기 일자리 퇴직 후 다른 근로활동 참여 여부	
	E3.	향후 근로 희망	
	E3-1.	- 근로 희망 이유	
	E3-2.	- 희망근로시간	
	E3-3.	- 희망근로소득	
	E3-4.	- 구직노력	
	E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경험 여부	
	E4-1.	- 참여 유형	
	E4-1-1.	- 공익활동 참여 유형	
	E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향후 참여 의향	
	E5-1.	- 향후 참여 희망 유형	
	E5-2.	-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2순위)	
F. 가족 및 사회적 관계	F1.	비동거자녀	제5장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F1-1.	- 비동거자녀 존재 여부 및 수	
	F1-2.	- 비동거자녀(성별, 혼인상태별) 수	
	F1-3.	- 연락가능한 비동거자녀 수	
	F2.	비동거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중 가장 많이 접촉한 자녀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F. 가족 및 사회적 관계	F2-1.	- 비동거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중 가장 많이 접촉한 자녀와의 관계	
	F2-2.	- (지난 1년간) 비동거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전체와의 왕래빈도	
	F2-3.	- (지난 1년간) 비동거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전체와의 연락빈도	
	F3.	지난 1년간 자녀와의 갈등 경험 여부	
	F3-1.	- 갈등의 가장 심각한 원인	
	F4.	비동거손자녀 존재 여부 및 수	
	F4-1.	- (지난 1년간) 손자녀 전체와의 왕래빈도	
	F4-2.	- (지난 1년간) 손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F5.	형제·자매	
	F5-1.	형제·자매 생존 여부 및 형제·자매수	
	F5-2.	- (지난 1년간) 비동거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왕래빈도	
	F5-3.	- (지난 1년간) 비동거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연락빈도	
	F6.	친구·이웃·지인	
	F6-1.	-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지인의 수	
	F6-2.	- (지난 1년간)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빈도	
	F6-3.	- (지난 1년간) 친구·이웃·지인과의 연락빈도	
	F7.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 낙심하고 우울할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2)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3)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F8.	배우자의 건강상태	
	F9.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F9-1.	- 배우자와의 갈등 원인	
	F10.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장 큰 이유(기혼자녀 동거가구)	
	F11.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장 큰 이유(미혼자녀 동거가구)	
	F12.	자녀와의 일상생활 분담 방식(자녀 동거가구)	
	F13.	노인 단독가구 형성 이유	
	F14.	노인 단독가구의 생활상 가장 힘든 점	
	F15.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자녀에 대한 생각	
	F16.	선호하는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G. 가족 간 도움의 교환	G1.	동거자녀	제6장 노인의 지원 교환 실태
	G2.	비동거자녀	
	G3.	본인(배우자)부모	
	G4.	배우자	
	확인	존재 여부	
		1) 고민 상담(정서적 도움) 상호도움 여부	
		2) 청소·식사준비·세탁(도구적 도움) 상호도움 여부	
		3) 간병·돌봄·병원동행 상호도움 여부	
		4) 경제적 도움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G. 가족 간 도움의 교환		①(정기적/비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②(현물지원) 상호도움 여부	
	G5.	비용지불부담 인식 1) 생활비 2) 의료비 3) 간병돌봄비	
		G6. (지난 1년간) 정기적으로 돌본 10세 미만의 손자녀 유무 및 수	
		(지난 1주일간) 정기적으로 돌본 10세 미만의 손자녀	
	G6-1.	- 손자녀와의 동거 여부	
		- 돌봄 일수	
		- 돌봄 시간	
H.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H1.	주거소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무상 등)	제10장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H2.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	
	H2-1.	-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불만족 이유	
	H3-1.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설비/용품 설치·개조 여부 - (미설치 시) 설치·개조 필요성 1) 화장실이나 욕실 안전손잡이나 안전바 2) 열고 닫기 쉬운 화장실 또는 욕실 문 손잡이(레버형, 막대형) 3) 문턱, 주택 내 계단 등 단차(높이차이)제거 4) 미끄럼방지 매트, 패드 또는 낙상방지 기능성 바닥재 설치 5) 휠체어 통행 가능한 넓은 출입문과 복도(1.2m 이상) 6) 화재·가스 안전감지장치 7) 가스안전차단기 또는 가스타이머 8) 응급호출기 또는 AIS피커(응급알람기능 탑재)	
		H3-2.	
		H4.	
		H5.	
		H6.	
		H7.	
		H8.	
		H9.	
		H10.	
		H11.	
		H12.	
		H13.	
		H14.	
		H15.	
		H16.	
		H17.	
		H18.	
		H19.	
		H20.	
		H21.	
		H22.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H.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7) 치안 및 범죄 등에 대한 방법 상태	제10장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8) 이웃과의 교류기회	
		9) 지역사회 환경 전반	
	H6.	독립적인 일상생활수행이 가능할 때 선호하는 거주방식	
	H7.	독립적인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울 때 선호하는 거주방식	
	H8-1.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서비스 필요 여부	
		- 유료 이용 의향	
	H8-2.	1)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2) 일상생활 지원(가사, 간병, 목욕, 요양, 식사 지원 등)	
		3) 안전 지원(정기적 안부 확인,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연계 지원 등)	
		4)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건강서비스	
		5)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	
		6) 상담 서비스(각종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H9.	외출 시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	
	H10.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H11.	현재 운전	
	H11-1.	- 운전 시 어려움 정도	
	H11-2.	- 운전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H11-3.	- 운전을 그만둔 연령	
	H12.	1년간 범죄 또는 사고 경험	
		1) 재산범죄	
		2) 폭력 및 강력범죄	
		3) 노인 대상 사기성 물건 구매	
		4) 보이스 피싱(사기전화, 문자, 앱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	
		5) 보행자 교통사고	
		6) 운전자 교통사고	
		7) 안전사고(화재, 가스노출, 누수 등)	
		8)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H13-1.	노인학대 경험 여부	
		-노인학대 행위자	
	H13-2.	1) 신체적 학대	
		2) 성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방임(신체적/경제적)	
		6) 자기방임	
	H13-3.	학대 대응 방법	
	H14.	노인연령기준	
	H15.	삶의 만족도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H.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1) 건강상태	제10장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2) 경제상태	
		3) 배우자와의 관계(유배우자만)	
		4) 자녀와의 관계(생존 자녀가 있는 경우만)	
		5) 사회·여가·문화활동	
		6) 사회적 관계	
		7) 삶 전반	
	H16.	무시(차별)경험	
		1) 대중교통 이용 시	
		2) 상업시설 이용(식당, 커피숍, 마트, 백화점 등) 시	
		3) 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기관 이용 시	
		4) 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 시	
		5) 직장	
	H17.	6) 가정(주요 의사결정이나 정보전달 등)	
		선호하는 재산처리방식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	
	H18.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	
	H19.	선호하는 장사 방식	
	H20.	죽음에 대한 준비	
		1) 죽음 준비교육 수강	
		2) 가족과 상속처리·장례의향 논의	
		3) 장례 상담 및 상조회 가입	
		4) 유서 작성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6) 장기 등 기증 서약	
		7) 장지(자연장지, 봉안당, 묘지 등)	
	H21.	8) 수의 또는 영정사진	
		좋은 죽음에 대한 생각	
		1) 임종 전후 스스로 준비	
		2)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는 임종	
		3) 임종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하는 것	
		4)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H22.	5)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	
		정부 운영 및 실시기관, 서비스 인지 여부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 노인장기요양보험	
		3)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4) 치매조기검진사업	
		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6) 치매안심센터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H.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7)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제10장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8)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 및 대응기관)	
		9) 성년후견제도	
		10) 주택연금	
		11) 농지연금	
	H23.	노인복지정책 중 향후 우선적으로 확대될 정책(2순위)	
	H24.	투표참여 여부	
	H25.	사회영역별 신뢰도	
		1) 가족	
		2) 이웃	
		3) 언론	
		4) 기업	
		5) 정부	
I. 인지기능	I1.	기억등록(비행기, 연필, 소나무)	제4장 노인의 기능상태와 돌봄
		시간지남력(년, 월, 일, 요일, 계절)	
		장소지남력(나라, 시·도, 시·군·구, 현재 장소명, 읍·면·동(도로명))	
		기억회상(비행기, 연필, 소나무)	
		주의집중(100에서 순차적으로 7 빼기)	
		이름대기(눈, 귀)	
		따라말하기(백문이 붙여일견)	
		이해(동그라미를 가리키고, 네모를 가리킨 다음, 세모를 가리키세요)	
		읽기(눈을 감으세요)	
		쓰기(오늘 날씨를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그리기(오각형)	
J. 경제상태	J1.	주요 항목별 지출액	제7장 노인의 경제상태
		1)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보건의료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2)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간병돌봄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3)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문화여가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4)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경조사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J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J3-1. J3-2.	본인/그외가구원/가구 소득	
		1) (작년 한 해)근로소득 유무 및 금액	
		2) (작년 한 해)사업소득 유무 및 금액	
		3) (작년 한 해)재산소득 유무 및 금액	
		4) (작년 한 해)개인연금 유무 및 금액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J. 경제상태		5) (작년 한 해)퇴직연금 유무 및 금액	제7장 노인의 경제상태
		6) (작년 한 해)주택연금/농지연금 유무 및 금액	
		7) (작년 한 해)사적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	
		8) (작년 한 해)공적연금 유무 및 금액	
		9) (작년 한 해)기초연금 유무 및 금액	
		10) (작년 한 해)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유무 및 금액	
		11) (작년 한 해)기타 공적급여 유무 및 금액	
		12) (작년 한 해)기타 소득 유무 및 금액	
		13) (작년 한 해)총 수입액	
	J4.	작년 한 해 월평균 소비지출액(전체)	
	J4-1.	- 월평균 주거비 지출액	
	J5.	지출되는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J6.	1) 부동산자산 유무 및 금액	
		2) 금융자산 유무 및 금액	
		3) 기타자산 유무 및 금액	
		4) 부채 유무 및 금액	
조사원 확인 사항	1.	주택의 종류	제10장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2.	주거위치(지하 또는 반지하, 지상 1층, 지상 2층 이상, 옥탑)	
	3.	승강기 설치 유무	
	4.	사용하고 있는 방의 개수	
	5.	주택의 편리성	
	6.	응답방식	-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제1절 건강상태

제2절 건강행태

제3장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본 장에서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상태 영역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 상태, 만성질환 실태, 우울증상, 자살 생각, 약물 복용 및 의료 이용률 등을 파악하고, 건강행태 영역에서는 흡연 및 음주실태, 운동실천, 영양관리 상태, 건강검진 여부, 병원 및 치과 미치료 여부와 그 이유, 보건의료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표본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결과로 유효응답 사례 수가 적은 항목이나 세부 인구집단(90세 이상, 기타 가구, 전문대학 졸업 이상 등)의 분석 결과 등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1절 건강상태

1. 주관적 건강상태 및 수면

노인 자신이 평소 생각하는 건강상태에 대해 질문하였다.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2.7%, 건강한 편이다 40.5%, 보통이다 34.7%,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9.5%, 전혀 건강하지 않다 2.6%로 나타났다.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매우 건강하다+건강한 편이다) 노인이 43.2%이며,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전혀 건강하지 않다+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노인은 22.1%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45.1%)이 읍·면부 노인(38.0%)보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49.7%)이 여자 노인(38.1%)보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49.4%)이 배우자

자 없는 노인(34.0%)보다 평소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 형태별 주관적 건강상태 응답을 살펴보면,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매우 건강+건강) 인식하는 비율은 부부가구 48.6%, 기타 가구 46.3%, 자녀동거가구 43.2%, 독거가구 34.2%로, 독거가구보다 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에 속한 노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35.5%)보다 현재 취업 중인 노인(55.1%)이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좋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좋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군은 29.6%만이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인 군에서는 61.5%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48.0%)이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21.1%)에 비해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3-1〉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특성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건강하지 않다	계 (명)
전체 ¹⁾	2.7	40.5	34.7	19.5	2.6	100.0 (9,955)
지역						
동부	2.7	42.4	34.8	18.2	1.9	100.0 (7,359)
읍·면부	2.7	35.3	34.2	23.1	4.7	100.0 (2,596)
성						
남자	3.5	46.2	32.3	15.7	2.2	100.0 (4,384)
여자	2.0	36.1	36.5	22.4	3.0	100.0 (5,571)
연령						
65~69세	4.7	53.5	30.9	10.1	0.7	100.0 (3,465)
70~74세	2.9	43.4	34.2	17.7	1.8	100.0 (2,362)
75~79세	1.2	34.5	39.6	22.0	2.7	100.0 (1,729)
80~84세	0.8	25.4	39.1	30.3	4.3	100.0 (1,379)
85~89세	0.2	21.4	34.4	35.6	8.3	100.0 (781)
90세 이상	1.1	17.5	32.2	39.5	9.6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5	45.9	33.6	15.3	1.8	100.0 (5,987)
배우자 없음	1.5	32.5	36.3	25.7	4.0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1.6	32.6	36.2	25.6	4.0	100.0 (3,281)
노인부부	3.3	45.3	34.3	15.3	1.8	100.0 (5,509)
자녀동거	3.0	40.2	31.5	22.6	2.8	100.0 (993)
기타	3.7	42.6	35.0	17.1	1.6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0.3	17.5	34.3	38.9	9.1	100.0 (1,184)
초등학교	0.9	29.6	40.4	26.0	3.1	100.0 (2,810)
중학교	2.3	41.8	35.9	18.4	1.6	100.0 (2,127)
고등학교	4.4	54.6	30.2	9.7	1.0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7.5	56.4	28.0	7.6	0.5	100.0 (701)
현취업상태						
취업중	4.4	50.7	32.6	11.4	0.9	100.0 (3,926)
미취업	1.6	33.9	36.0	24.7	3.8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2	25.2	37.1	30.0	5.5	100.0 (1,989)
제2오분위	0.9	30.1	38.7	26.4	3.9	100.0 (1,983)
제3오분위	2.3	41.9	35.0	18.8	2.0	100.0 (1,981)
제4오분위	3.7	49.4	32.0	13.9	1.1	100.0 (2,007)
제5오분위	4.3	56.0	30.5	8.4	0.7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6	28.0	38.1	27.6	4.8	100.0 (3,722)
50%이상~100%미만	2.7	41.8	33.0	20.3	2.2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3.2	48.4	34.6	12.6	1.1	100.0 (1,657)
150%이상	4.4	57.1	30.2	7.9	0.4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0.5	20.6	30.8	38.8	9.3	100.0 (1,759)
제한 없음	3.2	44.8	35.5	15.3	1.2	100.0 (8,196)
2020년도	4.5	44.8	30.8	17.6	2.3	100.0 (9,93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지난 3개월 동안 잠을 잘 주무셨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노인은 3.3%, 그렇다 47.0%, 보통이다 33.9%, 그렇지 않다 14.9%, 전혀 그렇지 않다 1.0%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평소 수면상태가 양호한(매우 그렇다+그렇다) 노인은 50.3%, 그렇지 못한(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노인은 15.9%인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부 거주 노인(52.4%)이 동부 거주 노인(49.5%)보다 최근 3개월간의 수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56.1%)이 여자 노인(45.6%)보다 수면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수면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았으며, 반대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수면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54.6%)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43.7%)보다 평소 수면 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형태에 따른 수면 상태를 보면, 기타 가구 59.9%, 부부가구 54.4%, 자녀동거가구 47.9%, 독거가구 43.4%로 분석되었으며, 독거가구에 속한 노인이 다른 가구형태에 속한 노인에 비해 수면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특성을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최근 3개월간의 수면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상태와 관련하여 취업 노인(59.0%)이 미취업 노인(44.5%)에 비해 수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제1오분위(35.8%)와 제2오분위(44.1%)에 속한 노인의 수면 상태가 다른 소득계층에 속한 노인에 비해 양호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위소득 50% 미만에 속한 노인의 경우, 지난 3개월 동안 잠을 잘 잤다(매우 그렇다+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중위소득 150% 이상 집단에 속한 노인(57.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53.8%)이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33.5%)에 비해 지난 3개월 동안 수면의 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수면 상태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1) 2)}	3.3	47.0	33.9	14.9	1.0	100.0 (9,955)
지역						
동부	2.9	46.6	35.5	14.2	0.8	100.0 (7,359)
읍·면부	4.4	48.0	29.5	16.7	1.5	100.0 (2,596)
성						
남자	4.6	51.5	31.6	11.7	0.7	100.0 (4,384)
여자	2.2	43.4	35.7	17.4	1.3	100.0 (5,571)
연령						
65~69세	4.6	54.0	30.2	10.6	0.6	100.0 (3,465)
70~74세	3.6	47.5	34.4	13.8	0.7	100.0 (2,362)
75~79세	2.1	43.8	36.8	16.2	1.0	100.0 (1,729)
80~84세	1.7	40.5	36.6	19.5	1.8	100.0 (1,379)
85~89세	2.6	36.5	38.1	20.6	2.2	100.0 (781)
90세 이상	0.0	33.8	32.4	32.2	1.6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9	50.7	32.6	12.2	0.6	100.0 (5,987)
배우자 없음	2.3	41.4	35.8	18.9	1.6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2.4	41.0	35.5	19.4	1.6	100.0 (3,281)
노인부부	3.8	50.6	32.8	12.2	0.6	100.0 (5,509)
자녀동거	3.3	44.6	35.0	16.1	1.0	100.0 (993)
기타	4.1	55.8	31.2	8.1	0.9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1.9	31.9	36.3	26.8	3.1	100.0 (1,184)
초등학교	2.1	43.3	35.7	18.0	0.9	100.0 (2,810)
중학교	2.2	47.5	36.2	13.6	0.5	100.0 (2,127)
고등학교	4.8	54.0	31.1	9.5	0.7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7.1	54.0	28.3	10.1	0.5	100.0 (701)
현취업상태						
취업중	4.6	54.4	29.0	11.3	0.8	100.0 (3,926)
미취업	2.4	42.1	37.1	17.2	1.2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9	33.9	40.4	21.8	1.9	100.0 (1,989)
제2오분위	2.0	42.1	36.0	18.4	1.5	100.0 (1,983)
제3오분위	3.1	52.7	31.7	11.8	0.7	100.0 (1,981)
제4오분위	4.1	54.4	29.4	11.6	0.5	100.0 (2,007)
제5오분위	5.2	51.6	32.2	10.6	0.4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0	38.3	38.6	19.4	1.7	100.0 (3,722)
50%이상~100%미만	3.3	51.2	31.5	13.2	0.8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4.1	53.7	29.2	12.4	0.6	100.0 (1,657)
150%이상	5.1	52.0	32.3	10.3	0.3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1.2	32.3	39.2	24.5	2.7	100.0 (1,759)
제한 없음	3.7	50.1	32.8	12.8	0.6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2023년 신규 문항임.

2. 만성질환

노인의 객관적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만성질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앓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체 노인의 86.1%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만성질환 1개를 지니고 있는 노인은 22.1%, 만성질환 2개는 28.0%, 만성질환이 3개 이상인 노인은 35.9%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앓고 있는 복합이환자는 63.9%였으며, 노인이 앓고 있는 평균 만성질환 수는 2.2개로 나타났다.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비율을 보면, 동부 노인(85.8%)과 읍·면부 노인(86.8%)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성별로는 여자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87.2%)이 남자 노인(8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하였으며, 65~69세 노인의 평균 만성질환 개수는 1.7개인 반면 90세 이상 노인의 경우 평균 3.0개로 조사되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88.5%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 84.5%보다 높았고,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88.7%로 다른 가구형태에 속한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복합이환자는 독거가구가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동거가구는 63.7%, 부부가구는 60.9%, 기타 가구 54.0%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평균 만성질환 개수를 보면, 무학인 노인은 평균 2.9개인 반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평균 1.6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 노인(81.1%)보다 미취업 노인(89.4%)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 제1오분위와 제2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각각 89.0%와 91.0%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제3오분위 87.0%, 제4오분위 83.5%, 제5오분위 80.1%로 나타났다.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복합만성질환 유병률 역시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군이 89.8%로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인 노인의 80.0%보다 높았다.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95.5%, 평균 만성질환 개수 3.1개)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84.0%, 평균 만성질환 개수 1.9개)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평균 만성질환 개수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만성질환(의사진단 기준) 개수

(단위: %, 명, 개)

특성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계 (명)	평균(개) ²⁾
전체 ¹⁾	13.9	22.1	28.0	35.9	100.0 (10,078)	2.2
지역						
동부	14.2	23.0	28.1	34.7	100.0 (7,450)	2.1
읍·면부	13.2	19.6	27.7	39.5	100.0 (2,628)	2.3
성						
남자	15.4	25.7	28.9	30.0	100.0 (4,429)	2.0
여자	12.8	19.3	27.3	40.6	100.0 (5,649)	2.3
연령						
65~69세	21.4	25.8	28.8	23.9	100.0 (3,473)	1.7
70~74세	12.8	22.6	29.4	35.2	100.0 (2,377)	2.2
75~79세	9.5	19.5	27.1	43.9	100.0 (1,743)	2.5
80~84세	7.2	18.6	28.2	46.0	100.0 (1,407)	2.6
85~89세	8.0	18.5	24.6	48.9	100.0 (825)	2.7
90세 이상	7.7	17.1	19.6	55.6	100.0 (253)	3.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5.6	24.2	29.7	30.6	100.0 (6,047)	2.0
배우자 없음	11.4	19.0	25.5	44.0	100.0 (4,031)	2.4
가구형태						
노인독거	11.3	19.0	25.0	44.7	100.0 (3,306)	2.4
노인부부	15.3	23.7	29.7	31.2	100.0 (5,562)	2.0
자녀동거	14.4	21.9	27.8	35.9	100.0 (1,035)	2.2
기타	14.8	31.2	31.3	22.7	100.0 (174)	1.8
교육수준						
무학	5.7	15.2	24.0	55.1	100.0 (1,240)	2.9
초등학교	9.2	20.2	26.2	44.4	100.0 (2,846)	2.5
중학교	12.3	20.1	29.9	37.7	100.0 (2,139)	2.2
고등학교	19.8	26.8	30.4	23.0	100.0 (3,145)	1.7
전문대학 이상	26.0	27.8	25.8	20.4	100.0 (707)	1.6
현취업상태						
취업중	18.9	26.0	28.5	26.5	100.0 (3,931)	1.8
미취업	10.7	19.7	27.7	42.0	100.0 (6,147)	2.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1.0	18.7	25.4	44.9	100.0 (2,014)	2.5
제2오분위	9.1	19.6	28.1	43.3	100.0 (2,014)	2.5
제3오분위	13.0	23.8	26.3	36.9	100.0 (2,014)	2.2
제4오분위	16.5	23.4	30.0	30.1	100.0 (2,020)	1.9
제5오분위	19.9	25.2	30.3	24.6	100.0 (2,017)	1.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0.2	19.4	27.2	43.2	100.0 (3,776)	2.5
50%이상~100%미만	12.3	22.6	28.9	36.2	100.0 (2,801)	2.2
100%이상~150%미만	18.3	24.5	26.1	31.1	100.0 (1,673)	1.9
150%이상	20.1	25.0	29.9	25.1	100.0 (1,828)	1.8
기능상태						
제한 있음	4.5	14.1	21.9	59.5	100.0 (1,873)	3.1
제한 없음	16.0	24.0	29.4	30.6	100.0 (8,205)	1.9
2020년도	16.0	29.2	27.1	27.8	100.0 (10,097)	1.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전체 응답자(만성질환이 없는 응답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률을 살펴보면, 고혈압이 5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지혈증 28.9%, 당뇨병 27.7%, 골관절염 또는 류마티즘 관절염 16.2%, 골다공증 11.1%, 요통 또는 좌골신경통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률을 보면, 남자 노인은 고혈압 60.4%, 당뇨병 28.8%, 고지혈증 24.7%, 전립선비대증 11.7%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여자 노인은 고혈압 58.8%, 고지혈증 32.3%, 당뇨병 26.8%, 골관절염 또는 류마티즘 관절염 22.4%, 골다공증 18.3%, 요통 또는 좌골신경통 1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 종류별 치료율을 살펴보면,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골관절염 또는 류마티즘 관절염의 치료율은 모두 90% 이상의 치료율을 보이고, 골다공증 치료율은 87.9%, 요통 또는 좌골신경통은 76.6%로 조사되었다. 만성질환 중 요실금(51.3%), 백내장(69.4%), 노인성 난청(46.5%)의 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성별 및 만성질환별 유병률(의사진단 기준) 및 현재 치료율

(단위: %)

특성	전체 ¹⁾		남자		여자		2020년도 유병률
	유병률	치료율	유병률	치료율	유병률	치료율	
고혈압	59.5	99.1	60.4	99.0	58.8	99.2	56.8
뇌졸중(중풍, 뇌경색)	3.4	96.0	4.2	94.7	2.7	97.6	4.3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28.9	98.0	24.7	98.4	32.3	97.7	17.1
협심증	3.3	96.5	3.6	97.5	3.1	95.7	4.4
심근경색증	3.1	96.3	4.1	97.1	2.3	95.3	
기타 심장질환	4.4	96.7	4.1	96.5	4.5	96.8	4.5
당뇨병	27.7	98.3	28.8	98.0	26.8	98.6	24.2
갑상선 질환	4.2	94.2	1.1	90.6	6.7	94.6	3.3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 관절염	16.2	90.6	8.2	91.9	22.4	90.2	16.5
골다공증	11.1	87.9	2.0	88.8	18.3	87.8	8.5
요통, 좌골신경통	10.0	76.6	6.6	79.8	12.6	75.3	10.0
골절, 탈골 및 사고 후유증	1.9	83.3	1.5	87.6	2.3	81.2	1.5
만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1.2	96.8	1.8	96.2	0.7	97.8	1.5
천식	2.3	86.0	2.8	86.5	1.9	85.5	2.0
폐결핵, 결핵	0.5	96.3	0.6	95.7	0.5	96.9	0.1
우울증	1.5	88.1	0.9	82.6	2.0	90.0	1.5
치매	1.8	96.9	1.4	98.6	2.1	96.0	2.1
파킨슨병	0.7	96.8	0.7	97.2	0.7	96.5	0.6
불면증	3.7	72.4	2.5	77.2	4.6	70.4	2.0
백내장	6.2	69.4	6.5	71.9	6.0	67.3	5.3
녹내장	1.3	84.3	1.1	78.8	1.5	87.7	1.1
만성중이염	0.5	74.1	0.6	82.1	0.4	64.5	0.7
노인성 난청	3.1	46.5	3.5	52.4	2.8	40.7	2.5
피부병	1.1	82.1	1.5	85.1	0.9	77.9	0.9
암(악성신생물)	1.9	83.3	2.5	80.5	1.4	87.4	1.8
위·십이지장궤양	4.3	91.6	4.3	92.9	4.2	90.7	5.0
간염	0.7	96.7	1.2	95.4	0.3	100.0	0.4
간경변증	0.3	100.0	0.4	100.0	0.2	100.0	0.3
만성신장질환	1.0	93.5	1.1	91.8	0.9	95.2	1.1
전립선비대증	5.2	95.6	11.7	95.6	0.0	0.0	4.1
요실금	3.6	51.3	0.3	92.0	6.1	49.9	3.9
빈혈	1.0	73.5	0.4	83.6	1.5	71.2	1.8
기타	1.6	97.2	1.7	100.0	1.6	95.0	1.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3. 우울증상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를 사용하여 노인의 우울증상을 측정하였다. 단축형 노인우울척도는 0~15점의 범위를 가지며, 8~15점을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분류한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전체 노인의 11.3%가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15개 문항의 평균 점수는 3.1점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 중 우울증상이 있는 비율은 11.8%, 읍·면부 노인은 9.7%로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이 더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은 9.7%, 여자 노인 중 우울증상이 있는 비율은 12.5%로 여자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우울증상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69세 연령군의 우울증상은 6.7%인 반면 85~89세 연령군의 우울증상 비율은 20.8%, 90세 이상의 경우 3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이 8.0%, 무배우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이 16.3%였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16.1%, 자녀동거가구 15.0%, 부부 및 기타 가구에 속한 노인의 7.8%가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별 우울증상이 있는 비율을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증상이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무학인 경우 21.0%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초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13.8%, 중학교 졸업자 10.5%, 고등학교 졸업자 6.9%, 전문대학 이상은 6.3%의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 노인 중 우울증상이 있는 노인은 5.0%인 반면 미취업 노인은 15.4%로 취업 노인에 비해 미취업 노인의 우울증상이 세 배 가량 높은 경향을 보인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증상이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 중 우울증상이 있는 비율은 17.7%인 반면 제5오분위에 속한 노인은 5.7%로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증상이 있는 노인 비율이 높았으며,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군(16.5%)은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인 군(5.8%)보다 우울증상 비율이 높았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이 29.2%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 7.4%에 비하여 네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3-5〉 우울증상

(단위: %, 명, 점)

특성	정상	우울증상 ²⁾	계	(명)	평균
전체 ¹⁾	88.7	11.3	100.0	(9,955)	3.1
지역					
동부	88.2	11.8	100.0	(7,359)	3.2
읍·면부	90.3	9.7	100.0	(2,596)	3.0
성					
남자	90.3	9.7	100.0	(4,384)	2.9
여자	87.5	12.5	100.0	(5,571)	3.3
연령					
65~69세	93.3	6.7	100.0	(3,465)	2.4
70~74세	90.3	9.7	100.0	(2,362)	2.9
75~79세	87.9	12.1	100.0	(1,729)	3.3
80~84세	84.1	15.9	100.0	(1,379)	3.9
85~89세	79.2	20.8	100.0	(781)	4.4
90세 이상	69.6	30.4	100.0	(239)	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2.0	8.0	100.0	(5,987)	2.7
배우자 없음	83.7	16.3	100.0	(3,968)	3.8
가구형태					
노인독거	83.9	16.1	100.0	(3,281)	3.8
노인부부	92.2	7.8	100.0	(5,509)	2.7
자녀동거	85.0	15.0	100.0	(993)	3.5
기타	92.2	7.8	100.0	(172)	2.6
교육수준					
무학	79.0	21.0	100.0	(1,184)	4.5
초등학교	86.2	13.8	100.0	(2,810)	3.5
중학교	89.5	10.5	100.0	(2,127)	3.1
고등학교	93.1	6.9	100.0	(3,132)	2.5
전문대학 이상	93.7	6.3	100.0	(701)	2.1
현취업상태					
취업중	95.0	5.0	100.0	(3,926)	2.2
미취업	84.6	15.4	100.0	(6,029)	3.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2.3	17.7	100.0	(1,989)	4.1
제2오분위	84.4	15.6	100.0	(1,983)	3.7
제3오분위	90.0	10.0	100.0	(1,981)	2.9
제4오분위	92.5	7.5	100.0	(2,007)	2.6
제5오분위	94.3	5.7	100.0	(1,995)	2.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3.5	16.5	100.0	(3,722)	3.9
50%이상~100%미만	90.0	10.0	100.0	(2,759)	3.0
100%이상~150%미만	92.4	7.6	100.0	(1,657)	2.5
150%이상	94.2	5.8	100.0	(1,817)	2.3
기능상태					
제한 있음	70.8	29.2	100.0	(1,759)	5.5
제한 없음	92.6	7.4	100.0	(8,196)	2.6
2020년도	86.5	13.5	100.0	(9,930)	3.5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GDS)를 사용하였으며, 0~15점 중에서 8~15점을 우울증상으로 분류함.

4. 자살 생각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1.0%는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노인은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남자보다는 여자 노인의 자살생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생각률도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며,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자살생각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90세 이상 노인(3.9%), 1인 가구에 속한 노인(2.0%), 교육수준이 무학인 노인(2.3%),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는 노인(2.9%)의 자살생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에서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이 47.8%로 가장 높았으며, 외로움 23.3%, 경제적 어려움 9.3%, 배우자·가족·지인의 사망 6.2%,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 5.9%, 돌봄 부담 4.5% 등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에서는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은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과 외로움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은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이 62.9%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별에 따른 자살 생각 이유로 남자 노인은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과 외로움이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하였으나, 여자 노인의 경우 남자 노인과는 다르게 배우자·가족·지인과의 갈등이나 돌봄부담이 자살 생각 이유 중의 하나로 집계되었다. 연령군별 자살 생각 이유를 보면, 돌봄부담으로 인한 자살생각은 7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85세 이상 연령대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이나 외로움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54.5%) 다음으로 외로움(13.4%)과 돌봄 부담(13.4%)이었으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44.6%), 외로움(28.0%) 등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 이외로 독거가구는 외로움, 부부가구는 외로움과 돌봄부담, 자녀동거가구는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기능상태의 제한이 없는 경우 외로움,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가족·지인의 사망 등으로 나타났다.

〈표 3-6〉 지난 1년간 자살 생각 이유

(단위: %, 명)

특성	자살 생각률 ¹⁾	자살 생각 이유 ^{2) 3)}								계 (명)
		신체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사망(배우자 가족, 지인)	갈등(배우자, 가족, 지인)	돌봄 부담	기타	
전체	1.0	47.8	5.9	9.3	23.3	6.2	2.5	4.5	0.4	100.0 (104)
지역										
동부	0.9	38.6	4.7	9.4	29.5	7.3	4.1	5.8	0.7	100.0 (65)
읍·면부	1.5	62.9	7.9	9.1	13.3	4.5	0.0	2.4	0.0	100.0 (39)
성										
남자	0.9	55.8	2.8	9.5	27.2	4.8	0.0	0.0	0.0	100.0 (38)
여자	1.2	43.2	7.7	9.2	21.2	7.1	4.0	7.1	0.6	100.0 (66)
연령										
65~69세	0.7	45.1	12.4	12.7	24.7	5.1	0.0	0.0	0.0	100.0 (23)
70~74세	0.9	37.3	5.1	18.0	28.0	4.7	0.0	4.8	2.1	100.0 (20)
75~79세	1.5	40.5	2.3	5.1	18.4	9.7	9.9	14.0	0.0	100.0 (26)
80~84세	1.0	57.4	12.0	12.7	12.9	5.0	0.0	0.0	0.0	100.0 (14)
85~89세	1.4	75.8	0.0	0.0	14.1	10.1	0.0	0.0	0.0	100.0 (11)
90세 이상	3.9	50.1	0.0	0.0	49.9	0.0	0.0	0.0	0.0	100.0 (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6	54.5	8.2	10.6	13.4	0.0	0.0	13.4	0.0	100.0 (33)
배우자 없음	1.8	44.6	4.8	8.7	28.0	9.2	3.7	0.4	0.6	100.0 (71)
가구형태										
노인독거	2.0	46.7	5.2	7.8	28.3	7.6	4.0	0.4	0.0	100.0 (65)
노인부부	0.5	47.6	9.7	11.3	15.8	0.0	0.0	15.7	0.0	100.0 (28)
자녀동거	0.6	44.9	0.0	17.4	21.9	15.7	0.0	0.0	0.0	100.0 (6)
기타	2.5	69.7	0.0	7.6	0.0	12.6	0.0	0.0	10.1	100.0 (4)
교육수준										
무학	2.3	55.6	9.5	1.2	29.9	0.0	1.3	2.5	0.0	100.0 (28)
초등학교	1.0	54.2	3.7	12.1	18.9	11.1	0.0	0.0	0.0	100.0 (28)
중학교	1.5	36.1	6.0	14.8	25.0	3.0	6.9	7.0	1.3	100.0 (33)
고등학교	0.3	55.4	0.0	10.1	7.2	11.5	0.0	15.8	0.0	100.0 (11)
전문대학 이상	0.6	25.4	10.7	0.0	38.0	26.0	0.0	0.0	0.0	100.0 (4)
현 취업상태										
취업중	0.5	43.5	2.2	7.1	18.1	16.5	8.7	4.0	0.0	100.0 (21)
미취업	1.4	48.9	6.9	9.9	24.7	3.6	0.9	4.6	0.5	100.0 (8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6	42.7	8.1	13.6	26.7	5.6	2.5	0.8	0.0	100.0 (31)
제2오분위	1.6	41.5	2.8	8.4	32.7	2.9	5.7	4.7	1.3	100.0 (33)
제3오분위	1.1	48.4	9.9	11.1	15.3	5.4	0.0	10.0	0.0	100.0 (22)
제4오분위	0.7	63.7	4.1	2.2	13.7	11.3	0.0	5.0	0.0	100.0 (15)
제5오분위	0.2	75.7	0.0	0.0	0.0	24.3	0.0	0.0	0.0	100.0 (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4	44.6	5.7	13.4	26.4	4.2	1.5	3.5	0.8	100.0 (52)
50%이상~100%미만	1.5	48.3	8.0	5.7	21.9	4.2	4.6	7.2	0.0	100.0 (40)
100%이상~150%미만	0.5	52.6	0.0	5.3	22.8	19.3	0.0	0.0	0.0	100.0 (8)
150%이상	0.2	73.1	0.0	0.0	0.0	26.9	0.0	0.0	0.0	100.0 (4)
기능상태										
제한 있음	2.9	68.1	5.6	5.0	16.1	2.1	0.0	3.0	0.0	100.0 (51)
제한 없음	0.6	28.3	6.2	13.4	30.3	10.2	4.9	5.9	0.8	100.0 (5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4명을 대상으로 함.

3)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5. 의료 이용

가. 약복용

현재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노인은 83.8%이며, 응답 노인의 16.2%는 의사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처방약 1~2종류를 복용하는 노인은 52.5%, 3~4종류를 복용하고 있는 노인은 26.0%, 5종류 이상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은 5.3%이며, 전체 노인이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의 종류는 평균 2.0 종류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의사처방약 복용률이 83.5%, 읍·면부 노인의 의사처방약 복용률이 84.6%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의 의사처방약 복용률이 더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사처방약 복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65~69세 연령군의 처방약 복용률은 75.3%, 70~74세는 84.7%, 75~79세 89.7%, 그리고 8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복용하는 의사처방약이 1종류 이상이 있는 노인이 90% 내외를 차지하였다. 5종류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는 경우를 보면, 65~69세 연령군은 2.2%인데 반해 80세 이상 연령군은 8%대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처방약 복용률이 높았으며, 가구형태별 분포를 보면 독거가구의 처방약 복용률이 86.7%로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구 82.7%, 부부가구 82.3%, 기타 가구 81.0%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사 처방약 복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취업상태별 의사처방약 복용률은 취업 노인이 78.4%, 미취업 노인이 87.2%로 취업노인보다 미취업 노인의 의사 처방약 복용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가구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1오분위의 처방약 복용률은 87.5%, 제2오분위 88.8% 등이며, 제5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처방약 복용률은 77.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위소득 대비 비율별로 보면,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이 낮아질수록 의사처방약 복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군의 처방약 복용률이 88.1%로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 노인의 76.7%보다 높았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의사처방약 복용률이 93.6%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의사처방약 복용률 81.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표 3-7〉 하루에 복용하고 있는 의사처방약 개수

(단위: %, 명, 종류)

특성	없음	1~2종류	3~4종류	5종류 이상	계 (명)	평균(종류) ²⁾
전체 ¹⁾	16.2	52.5	26.0	5.3	100.0 (10,078)	2.0
지역						
동부	16.5	53.1	25.4	5.0	100.0 (7,450)	2.0
읍·면부	15.4	50.9	27.8	5.9	100.0 (2,628)	2.1
성						
남자	17.5	55.6	22.5	4.4	100.0 (4,429)	1.9
여자	15.2	50.1	28.8	5.9	100.0 (5,649)	2.1
연령						
65~69세	24.7	55.6	17.5	2.2	100.0 (3,473)	1.5
70~74세	15.2	55.1	24.9	4.7	100.0 (2,377)	2.0
75~79세	10.4	49.1	33.5	7.1	100.0 (1,743)	2.3
80~84세	9.3	50.7	31.3	8.7	100.0 (1,407)	2.4
85~89세	9.1	46.8	35.2	8.9	100.0 (825)	2.4
90세 이상	10.3	38.3	43.3	8.1	100.0 (253)	2.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8.1	54.7	22.7	4.5	100.0 (6,047)	1.9
배우자 없음	13.4	49.2	31.0	6.4	100.0 (4,031)	2.2
가구형태						
노인독거	13.3	49.0	31.7	6.0	100.0 (3,306)	2.2
노인부부	17.6	54.5	23.2	4.6	100.0 (5,562)	1.9
자녀동거	17.4	51.8	24.1	6.8	100.0 (1,035)	2.0
기타	19.0	60.2	18.3	2.5	100.0 (174)	1.6
교육수준						
무학	7.4	43.7	37.6	11.4	100.0 (1,240)	2.6
초등학교	10.8	49.8	32.5	6.9	100.0 (2,846)	2.3
중학교	14.9	52.6	27.3	5.2	100.0 (2,139)	2.0
고등학교	22.6	58.7	16.7	2.0	100.0 (3,145)	1.6
전문대학 이상	28.9	51.4	17.3	2.5	100.0 (707)	1.5
현취업상태						
취업중	21.6	55.8	19.8	2.8	100.0 (3,931)	1.7
미취업	12.8	50.4	30.0	6.8	100.0 (6,147)	2.2
연가소득						
제1오분위	12.5	47.0	32.7	7.8	100.0 (2,014)	2.3
제2오분위	11.2	51.6	30.7	6.5	100.0 (2,014)	2.2
제3오분위	15.0	51.3	28.0	5.8	100.0 (2,014)	2.0
제4오분위	19.2	56.2	21.2	3.4	100.0 (2,020)	1.8
제5오분위	23.1	56.4	17.7	2.9	100.0 (2,017)	1.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1.9	49.8	31.3	7.0	100.0 (3,776)	2.3
50%이상~100%미만	14.6	53.7	25.9	5.8	100.0 (2,801)	2.0
100%이상~150%미만	20.7	52.5	23.4	3.3	100.0 (1,673)	1.8
150%이상	23.3	56.4	17.7	2.6	100.0 (1,828)	1.6
기능상태						
제한 있음	6.4	42.0	38.7	12.9	100.0 (1,873)	2.7
제한 없음	18.4	54.9	23.1	3.5	100.0 (8,205)	1.8
2020년도	17.8	56.4	21.4	4.3	100.0 (10,097)	1.8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전체 응답자(복용하는 의사처방약이 없는 응답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나. 보건의료기관 이용

지난 1개월 동안 병원, 의원, 보건(지·진료)소, 한의원, 치과 등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보면, 전체 노인의 68.8%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방문 횟수는 1.5회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 노인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67.5%, 읍·면부 노인이 72.2%로 읍·면부 거주 노인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약간 높았으며, 보건의료기관 평균 이용 횟수도 동부가 1.4회, 읍·면부 1.8회로 읍·면부 노인의 보건의료기관 이용 횟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66.5%, 여자 노인 70.6%로 남자 노인에 비해 여자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평균 방문 횟수는 여자 노인 1.6회, 남자 노인 1.3회이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66.4%,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72.6%로 무배우 노인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72.5%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가구에 속한 노인이 60.2%로 가장 낮았다. 보건의료기관 평균 이용 횟수를 살펴보면 독거가구에 속한 노인이 1.8회, 부부가구 1.4회, 자녀동거가구 1.4회, 기타 가구가 1.2회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보건의료기관 월평균 이용 횟수는 무학이 1.9회, 초등학교 졸업 1.8회 등이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1.2회로 분석되었다. 취업상태별로 보면 취업노인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65.6%로 미취업 노인 70.9%보다 낮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제2오분위(71.6%)와 제3오분위(72.2%)에 속한 노인과 중위소득 50~100% 미만(72.1%)과 중위소득 50% 미만(70.4%) 계층에 속한 노인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기관 평균 이용 횟수는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77.1%,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은 66.8%로 나타났다.

〈표 3-8〉 지난 1개월간 보건의료기관 이용 횟수

(단위: %, 명, 회)

특성	없음	있음					계 (명)	평균 ²⁾
		소계	1회	2~3회	4~5회	6회 이상		
전체 ¹⁾	31.2	68.8	34.8	25.0	5.5	3.5	100.0 (10,078)	1.5
지역								
동부	32.4	67.5	35.2	24.5	4.7	3.1	100.0 (7,450)	1.4
읍·면부	27.7	72.2	33.5	26.2	8.0	4.5	100.0 (2,628)	1.8
성								
남자	33.4	66.5	37.6	22.0	4.4	2.5	100.0 (4,429)	1.3
여자	29.4	70.6	32.6	27.3	6.4	4.3	100.0 (5,649)	1.6
연령								
65~69세	38.0	62.1	36.2	20.2	3.9	1.8	100.0 (3,473)	1.2
70~74세	29.7	70.2	35.8	25.5	5.5	3.4	100.0 (2,377)	1.5
75~79세	29.0	70.9	34.4	27.0	5.5	4.0	100.0 (1,743)	1.6
80~84세	23.5	76.4	32.6	30.4	8.2	5.2	100.0 (1,407)	1.9
85~89세	27.2	72.9	30.9	28.1	7.1	6.8	100.0 (825)	1.9
90세 이상	22.9	77.1	32.5	30.6	8.9	5.1	100.0 (253)	1.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3.6	66.4	35.3	23.6	4.8	2.7	100.0 (6,047)	1.4
배우자 없음	27.5	72.6	34.0	27.1	6.7	4.8	100.0 (4,031)	1.7
가구형태								
노인독거	27.5	72.5	34.0	26.8	6.8	4.9	100.0 (3,306)	1.8
노인부부	33.1	66.9	35.5	23.7	4.9	2.8	100.0 (5,562)	1.4
자녀동거	31.0	68.9	33.1	27.9	4.9	3.0	100.0 (1,035)	1.4
기타	39.9	60.2	37.3	14.4	5.3	3.2	100.0 (174)	1.2
교육수준								
무학	22.8	77.3	31.9	31.9	8.2	5.3	100.0 (1,240)	1.9
초등학교	25.7	74.4	33.6	28.1	7.6	5.1	100.0 (2,846)	1.8
중학교	29.5	70.5	36.2	26.6	4.6	3.1	100.0 (2,139)	1.5
고등학교	38.4	61.6	35.9	20.3	3.4	2.0	100.0 (3,145)	1.2
전문대학 이상	41.0	59.0	35.2	16.3	5.1	2.4	100.0 (707)	1.2
현직업상태								
취업중	34.5	65.6	37.1	21.8	4.4	2.3	100.0 (3,931)	1.3
미취업	29.1	70.9	33.3	27.0	6.3	4.3	100.0 (6,147)	1.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0.8	69.2	30.9	26.1	7.4	4.8	100.0 (2,014)	1.7
제2오분위	28.4	71.6	34.1	27.2	6.6	3.7	100.0 (2,014)	1.6
제3오분위	27.8	72.2	38.7	25.9	4.2	3.4	100.0 (2,014)	1.5
제4오분위	30.4	69.6	36.5	24.8	5.1	3.2	100.0 (2,020)	1.4
제5오분위	38.6	61.4	33.7	20.9	4.4	2.4	100.0 (2,017)	1.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9.6	70.4	32.8	26.3	6.9	4.4	100.0 (3,776)	1.7
50%이상~100%미만	28.0	72.1	37.8	25.8	4.8	3.7	100.0 (2,801)	1.6
100%이상~150%미만	33.6	66.4	34.3	24.7	5.1	2.3	100.0 (1,673)	1.3
150%이상	37.3	62.8	34.7	21.2	4.4	2.5	100.0 (1,828)	1.2
기능상태								
제한 있음	22.9	77.1	30.6	30.5	9.1	6.9	100.0 (1,873)	2.0
제한 없음	33.1	66.8	35.7	23.7	4.7	2.7	100.0 (8,205)	1.4
2020년도	29.4	70.6	38.0	23.6	5.0	4.0	100.0 (10,097)	1.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전체 응답자(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없는 응답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다. 병의원 입원

1) 요양병원

지난 1년간 아프거나 다쳐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0.2%이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노인의 평균 입원 횟수는 1.2회, 평균 입원 일수는 36.0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과 읍·면부 거주 노인 모두 평균 입원 횟수는 1.2회로 동일했으나, 읍·면부 거주 노인의 평균 입원 일수(41.0일)가 동부 거주 노인(32.7일)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노인보다 남자 노인의 평균 입원 횟수와 입원 일수가 길었으며, 연령대에서는 80~84세 연령대에서 평균 입원 일수가 64.8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90세 이상 연령대에서 평균 입원 일수가 60.0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평균 입원 일수가 2.0일 길었으며, 부부가구에 속한 노인의 평균 입원 일수가 37.1일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요양병원 입원 현황을 보면, 무학인 노인의 평균 입원 횟수가 1.5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입원 일수도 98.8일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취업 중에 있는 노인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0.1%, 미취업 노인은 0.3%로 미취업 노인의 요양병원 입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평균 입원 일수는 취업 중인 노인(55.0일)이 미취업 노인(30.2일)보다 길었다. 소득수준별 요양병원 입원율은 제1오분위와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노인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입원 횟수는 제2오분위와 제3오분위에 속한 노인이 1.4회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평균 입원 일수는 제3오분위에 속한 노인이 85.6일로 긴 것을 볼 수 있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0.1%,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0.5%였으며, 평균 입원 횟수와 입원 일수도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지난 1년간 요양병원 입원 현황

(단위: %, 명, 회, 일)

특성	없음	있음 ^{2) 3)}		계 (명)
		평균 횟수	평균 일수	
전체 ¹⁾	99.8	1.2	36.0	100.0 (10,078)
지역				
동부	99.8	1.2	32.7	100.0 (7,450)
읍·면부	99.7	1.2	41.0	100.0 (2,628)
성				
남자	99.8	1.3	37.0	100.0 (4,429)
여자	99.8	1.1	34.9	100.0 (5,649)
연령				
65~69세	99.9	1.0	37.6	100.0 (3,473)
70~74세	99.6	1.0	17.3	100.0 (2,377)
75~79세	99.8	1.4	57.5	100.0 (1,743)
80~84세	99.7	1.5	64.8	100.0 (1,407)
85~89세	99.9	1.0	21.6	100.0 (825)
90세 이상	99.5	2.0	60.0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9.8	1.2	36.8	100.0 (6,047)
배우자 없음	99.8	1.2	34.8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99.7	1.2	34.8	100.0 (3,306)
노인부부	99.8	1.2	37.1	100.0 (5,562)
자녀동거	100.0	1.0	30.0	100.0 (1,035)
기타	100.0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99.8	1.5	98.8	100.0 (1,240)
초등학교	99.7	1.3	28.0	100.0 (2,846)
중학교	99.7	1.0	33.0	100.0 (2,139)
고등학교	99.9	1.3	23.5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99.8	1.0	30.0	100.0 (707)
현취업상태				
취업중	99.9	1.2	55.0	100.0 (3,931)
미취업	99.7	1.2	30.2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9.5	1.1	26.1	100.0 (2,014)
제2오분위	99.8	1.4	31.1	100.0 (2,014)
제3오분위	99.9	1.4	85.6	100.0 (2,014)
제4오분위	100.0	1.0	30.0	100.0 (2,020)
제5오분위	99.9	1.0	30.0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9.6	1.1	27.1	100.0 (3,776)
50%이상~100%미만	99.8	1.4	60.5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100.0	1.0	30.0	100.0 (1,673)
150%이상	99.9	1.0	30.0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99.5	1.3	41.1	100.0 (1,873)
제한 없음	99.9	1.1	31.9	100.0 (8,205)
2020년도	99.6	—	—	10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지난 1년간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1명을 대상으로 함.

3)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병원(요양병원 제외)

지난 1년간 아프거나 다쳐서 요양병원 이외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5.2%이며,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경우 평균 입원 횟수는 1.3회, 평균 입원 일수는 17.3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4.6%)에 비해 읍·면부 거주 노인(7.2%)의 병원 입원율이 높았으며, 평균 입원 횟수와 입원 일수는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른 병원 입원율과 입원 횟수 및 입원 일수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남자보다는 여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1.0일 긴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대별 입원율은 65~69세 연령대가 3.6%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 입원 횟수와 입원 일수는 75~79세 연령대에서 높았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입원율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높았으며, 평균 입원 일수도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18.6일로 긴 것을 볼 수 있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독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병원 입원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나 입원 일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부부가구에 속한 노인의 병원 입원율(4.8%)과 평균 입원일수(14.5일)이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낮았다.

교육수준별 병원 입원 현황을 보면, 무학인 노인의 입원율이 8.6%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입원 횟수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1.5회, 평균 입원 일수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전문대학 졸업 이상자가 각각 19.3일과 19.4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취업 중에 있는 노인의 병원 입원율은 4.0%, 미취업 노인은 6.0%로 미취업 노인의 병원 입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평균 입원 일수도 취업 중 노인보다 미취업 노인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병원 입원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며, 가구소득이 제3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평균 입원 횟수와 입원 일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병원 입원율은 4.0%이지만,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10.9%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입원 횟수와 입원 일수 모두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지난 1년간 그 외 병원(요양병원 제외) 입원 현황

(단위: %, 명, 회)

특성	없음	있음	입원한 적 있음 ^{2) 3)}		계(명)
			평균 횟수	평균 일수	
전체 ¹⁾	94.8	5.2	1.3	17.3	100.0 (10,078)
지역					
동부	95.4	4.6	1.3	17.2	100.0 (7,450)
읍·면부	92.8	7.2	1.4	17.5	100.0 (2,628)
성					
남자	94.9	5.1	1.4	16.7	100.0 (4,429)
여자	94.6	5.4	1.3	17.7	100.0 (5,649)
연령					
65~69세	96.4	3.6	1.3	18.4	100.0 (3,473)
70~74세	94.7	5.3	1.3	16.8	100.0 (2,377)
75~79세	94.6	5.4	1.5	20.3	100.0 (1,743)
80~84세	92.4	7.6	1.2	15.1	100.0 (1,407)
85~89세	93.4	6.6	1.2	14.8	100.0 (825)
90세 이상	92.0	8.0	1.5	17.3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5.2	4.8	1.3	16.2	100.0 (6,047)
배우자 없음	94.1	5.9	1.3	18.6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94.1	5.9	1.3	18.8	100.0 (3,306)
노인부부	95.2	4.8	1.3	14.5	100.0 (5,562)
자녀동거	94.7	5.3	1.3	21.8	100.0 (1,035)
기타	95.1	4.9	1.4	42.0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91.4	8.6	1.3	17.9	100.0 (1,240)
초등학교	93.8	6.2	1.3	19.3	100.0 (2,846)
중학교	94.5	5.5	1.2	14.8	100.0 (2,139)
고등학교	96.9	3.1	1.5	15.5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95.4	4.6	1.3	19.4	100.0 (707)
현재취업상태					
취업중	96.0	4.0	1.3	15.7	100.0 (3,931)
미취업	94.0	6.0	1.3	18.0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3.2	6.8	1.3	18.7	100.0 (2,014)
제2오분위	94.1	5.9	1.3	15.3	100.0 (2,014)
제3오분위	95.2	4.8	1.5	20.2	100.0 (2,014)
제4오분위	95.3	4.7	1.3	14.9	100.0 (2,020)
제5오분위	95.9	4.1	1.2	17.1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3.8	6.2	1.3	17.2	100.0 (3,776)
50%이상~100%미만	95.1	4.9	1.4	19.0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94.9	5.1	1.2	18.5	100.0 (1,673)
150%이상	96.1	3.9	1.2	13.0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89.1	10.9	1.5	18.9	100.0 (1,873)
제한 없음	96.0	4.0	1.2	16.3	100.0 (8,205)
2020년도	92.9	7.1	—	—	10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지난 1년간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529명을 대상으로 함.

3)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제2절 건강행태

1. 흡연 실태

65세 이상 노인 중 현재 흡연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9.4%, 과거에는 흡연을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28.1%, 평생 흡연한 적이 없다는 62.5%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하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흡연율이 다소 높았으며, 남자 노인의 흡연율은 19.9%, 여자 노인의 흡연율은 1.1%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흡연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65~69세 흡연율은 13.6%인 반면 90세 이상은 0.2%에 불과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해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기타 가구에 속한 노인의 흡연율이 1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부가구에 속한 노인의 흡연율이 11.2%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현재 취업 중에 있는 노인의 흡연율(14.4%)이 그렇지 않은 노인(6.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흡연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흡연율은 4.5%인데 반해 제5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흡연율은 14.2%로 큰 차이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에 속한 노인의 흡연율은 6.0%였으며,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에 속한 노인의 흡연율은 15.2%로 나타났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흡연율은 9.8%,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의 흡연율은 7.6%로 집계되었다.

〈표 3-11〉 흡연상태

(단위: %, 명)

특성	현재 흡연	과거에는 흡연, 지금은 비흡연	비흡연	계 (명)
전체 ¹⁾	9.4	28.1	62.5	100.0 (10,078)
지역				
동부	9.0	29.0	61.9	100.0 (7,450)
읍·면부	10.3	25.5	64.2	100.0 (2,628)
성				
남자	19.9	61.4	18.7	100.0 (4,429)
여자	1.1	2.0	96.9	100.0 (5,649)
연령				
65~69세	13.6	27.8	58.6	100.0 (3,473)
70~74세	10.4	29.9	59.8	100.0 (2,377)
75~79세	7.6	29.3	63.1	100.0 (1,743)
80~84세	4.3	28.8	66.9	100.0 (1,407)
85~89세	4.0	21.5	74.5	100.0 (825)
90세 이상	0.2	24.6	75.2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1.2	36.3	52.5	100.0 (6,047)
배우자 없음	6.6	15.9	77.5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6.9	16.7	76.4	100.0 (3,306)
노인부부	11.2	36.0	52.8	100.0 (5,562)
자녀동거	6.6	20.8	72.6	100.0 (1,035)
기타	14.0	34.9	51.0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3.4	13.6	83.1	100.0 (1,240)
초등학교	6.0	20.9	73.0	100.0 (2,846)
중학교	11.5	29.8	58.7	100.0 (2,139)
고등학교	12.5	35.3	52.1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12.7	45.3	42.0	100.0 (707)
현취업상태				
취업중	14.4	32.6	53.0	100.0 (3,931)
미취업	6.1	25.3	68.6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5	16.5	79.0	100.0 (2,014)
제2오분위	7.2	25.2	67.6	100.0 (2,014)
제3오분위	8.5	31.4	60.1	100.0 (2,014)
제4오분위	12.5	32.0	55.5	100.0 (2,020)
제5오분위	14.2	35.4	50.4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0	22.7	71.3	100.0 (3,776)
50%이상~100%미만	9.3	29.4	61.4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10.8	30.8	58.3	100.0 (1,673)
150%이상	15.2	34.9	50.0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7.6	30.5	61.8	100.0 (1,873)
제한 없음	9.8	27.5	62.7	100.0 (8,205)
2020년도	11.9	—	88.1	10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음주실태

지난 1년간 음주실태를 보면, 응답 노인의 62.7%가 최근 1년간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37.3%는 술을 마셨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노인 중 적정 음주(1주일에 7잔 이하) 노인은 29.5%이고, 과음주 노인(1주일에 7잔 초과)은 7.8%로 조사되었다.¹¹⁾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음주율이 37.6%, 읍·면부 노인이 36.4%로 거주지역별 노인의 음주율은 유사한 수준임을 볼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음주율이 59.3%로 여자 노인의 음주율 20.0%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남자 노인의 과음주 비율은 16.0%로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군별로는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음주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과음주율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음주율이 43.8%로 무배우 노인의 27.4%에 비해 높고, 과음주율도 유배우 노인은 9.7%로 유배우 노인 4.9%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 가구에 속한 노인의 음주율이 43.9%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동거가구와 독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음주율은 각각 28.6%, 28.7%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음주율도 높아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무학인 노인의 음주율은 17.9%로 가장 낮았으며, 전문대학 이상인 노인의 음주율이 51.5%로 가장 높았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의 음주율이 50.8%로 미취업 노인의 28.6%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음주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제5오분위의 음주율이 54.6%인 반면 제1오분위의 음주율은 22.2%로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음주율은 39.5%로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음주율(27.2%)보다 높았다.

11) 적정 음주는 1주일에 7잔 이하, 과음주는 1주일에 7잔 초과를 말함(김종성, 2012).

〈표 3-12〉 음주 정도

(단위: %, 명, 잔)

특성	비음주	음주 정도 ²⁾			계 (명)	평균
		소계	적정 음주	과음주		
전체 ¹⁾	62.7	37.3	29.5	7.8	100.0 (10,078)	2.3
지역						
동부	62.4	37.6	30.2	7.4	100.0 (7,450)	2.2
읍·면부	63.6	36.4	27.3	9.1	100.0 (2,628)	2.6
성						
남자	40.7	59.3	43.3	16.0	100.0 (4,429)	4.6
여자	80.0	20.0	18.6	1.4	100.0 (5,649)	0.6
연령						
65~69세	48.9	51.1	39.5	11.5	100.0 (3,473)	3.5
70~74세	60.1	39.9	32.1	7.7	100.0 (2,377)	2.3
75~79세	70.0	30.0	23.1	6.9	100.0 (1,743)	1.8
80~84세	75.7	24.3	20.2	4.2	100.0 (1,407)	1.5
85~89세	82.6	17.4	15.3	2.1	100.0 (825)	0.6
90세 이상	90.1	9.9	8.0	1.8	100.0 (253)	0.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6.2	43.8	34.1	9.7	100.0 (6,047)	2.8
배우자 없음	72.6	27.4	22.5	4.9	100.0 (4,031)	1.6
가구형태						
노인독거	71.3	28.7	23.7	5.0	100.0 (3,306)	1.7
노인부부	56.1	43.9	34.2	9.7	100.0 (5,562)	2.8
자녀동거	71.4	28.6	22.4	6.2	100.0 (1,035)	1.7
기타	59.9	40.1	29.3	10.8	100.0 (174)	2.7
교육수준						
무학	82.1	17.9	14.8	3.1	100.0 (1,240)	1.2
초등학교	74.5	25.5	20.2	5.2	100.0 (2,846)	1.6
중학교	60.2	39.8	31.2	8.6	100.0 (2,139)	2.6
고등학교	49.4	50.6	40.3	10.3	100.0 (3,145)	3.0
전문대학 이상	48.5	51.5	38.9	12.5	100.0 (707)	3.7
현취업상태						
취업중	49.2	50.8	39.0	11.8	100.0 (3,931)	3.5
미취업	71.4	28.6	23.3	5.2	100.0 (6,147)	1.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7.8	22.2	18.2	4.0	100.0 (2,014)	1.2
제2오분위	71.6	28.4	23.3	5.1	100.0 (2,014)	1.5
제3오분위	63.1	36.9	29.0	7.9	100.0 (2,014)	2.4
제4오분위	55.8	44.2	35.8	8.4	100.0 (2,020)	2.6
제5오분위	45.4	54.6	40.9	13.6	100.0 (2,017)	3.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4.2	25.8	20.9	4.9	100.0 (3,776)	1.5
50%이상~100%미만	64.3	35.7	28.6	7.1	100.0 (2,801)	2.2
100%이상~150%미만	54.1	45.9	36.5	9.4	100.0 (1,673)	2.7
150%이상	44.6	55.4	42.0	13.4	100.0 (1,828)	4.1
기능상태						
제한 있음	72.8	27.2	22.2	5.1	100.0 (1,873)	1.6
제한 없음	60.5	39.5	31.1	8.4	100.0 (8,205)	2.5
2020년도	61.4	38.6	32.2	6.3	100.0 (10,097)	1.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적정음주는 일주일에 7잔 이하의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 과음주는 일주일에 7잔을 초과하여 섭취한 경우임.

3. 운동 실천

평소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 노인의 52.8%는 평소에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7.2%는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장수준(1주일에 150분 이상)¹²⁾에 미치는 운동을 하는 노인은 38.3%이며, 14.5%는 권장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운동 실천율이 56.4%로 읍·면부 노인의 42.4%보다 높았고, 운동 실천율 권장 수준도 동부 노인이 41.4%로 읍·면부 노인 29.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운동 실천율은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운동 실천율 권장수준은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운동 실천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85세를 전후로 운동 실천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운동 실천율(55.1%)이 무배우 노인의 운동 실천율(49.3%)보다 높고, 권장수준 운동 실천율은 유배우 노인이 41.3%, 무배우 노인이 33.8%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형태별 운동 실천율은 부부가구가 55.3%, 자녀동거가구 50.7%, 독거가구 49.4%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운동 실천율도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며, 무학인 노인의 운동 실천율은 36.5%인데 반해 전문대학 이상 노인의 운동 실천율은 67.6%로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의 운동 실천율이 48.0%로 미취업 노인의 55.8%보다 낮았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아질수록 운동 실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위소득별로는 50% 미만에 속한 노인의 운동 실천율이 50.3%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운동 실천율이 55.6%로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운동 실천율 40.5%보다 높게 나타났다.

12) 운동실천 권장수준은 일주일에 총 15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함(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3).

〈표 3-13〉 운동 실천

(단위: %, 명)

특성	비실천	운동 실천 정도 ²⁾			계 (명)
		소계	권장수준 미달	권장수준	
전체 ¹⁾	47.2	52.8	14.5	38.3	100.0 (10,078)
지역					
동부	43.6	56.4	15.0	41.4	100.0 (7,450)
읍·면부	57.6	42.4	12.9	29.5	100.0 (2,628)
성					
남자	46.6	53.4	12.5	40.9	100.0 (4,429)
여자	47.7	52.3	16.0	36.3	100.0 (5,649)
연령					
65~69세	44.8	55.2	14.2	41.0	100.0 (3,473)
70~74세	44.3	55.7	14.2	41.6	100.0 (2,377)
75~79세	43.9	56.1	14.5	41.6	100.0 (1,743)
80~84세	50.0	50.0	14.5	35.5	100.0 (1,407)
85~89세	61.7	38.3	14.7	23.6	100.0 (825)
90세 이상	68.8	31.2	19.3	11.9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4.9	55.1	13.8	41.3	100.0 (6,047)
배우자 없음	50.7	49.3	15.5	33.8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50.6	49.4	15.3	34.1	100.0 (3,306)
노인부부	44.7	55.3	13.8	41.5	100.0 (5,562)
자녀동거	49.3	50.7	15.1	35.5	100.0 (1,035)
기타	53.0	47.0	14.5	32.5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63.5	36.5	13.4	23.1	100.0 (1,240)
초등학교	51.7	48.3	16.7	31.6	100.0 (2,846)
중학교	44.8	55.2	14.0	41.2	100.0 (2,139)
고등학교	41.8	58.2	14.5	43.8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32.4	67.6	8.6	59.0	100.0 (707)
현재취업상태					
취업중	52.0	48.0	14.5	33.6	100.0 (3,931)
미취업	44.2	55.8	14.4	41.4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0	47.0	15.7	31.3	100.0 (2,014)
제2오분위	47.3	52.7	14.7	38.0	100.0 (2,014)
제3오분위	45.2	54.8	15.5	39.3	100.0 (2,014)
제4오분위	43.9	56.1	13.9	42.2	100.0 (2,020)
제5오분위	46.8	53.2	12.5	40.8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9.7	50.3	15.8	34.5	100.0 (3,776)
50%이상~100%미만	45.5	54.5	14.4	40.1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46.5	53.5	13.6	39.9	100.0 (1,673)
150%이상	45.4	54.6	12.5	42.2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59.5	40.5	17.1	23.4	100.0 (1,873)
제한 없음	44.4	55.6	13.9	41.7	100.0 (8,205)
2020년도	46.3	53.7	16.1	37.6	10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운동실천율=권장수준 미달+권장수준, 권장수준은 1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한 경우임.

4. 비만 정도

노인의 비만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체질량지수(BMI)를 분석하였다. 비만지수(체질량지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발한 ‘한국인 비만지수 참조표준’에 근거하여 신장(키)과 체중(몸무게)을 활용하여 $BMI = \text{체중} / (\text{신장}^2)$ 값을 산출하였으며, 체질량지수(BMI) 18.5 미만은 저체중, BMI 18.5 이상~25 미만은 정상, BMI 25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응답한 노인의 비만 정도는 전체 노인의 2.3%가 저체중이며, 71.6%는 정상, 26.1%는 비만 단계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1.9%)보다 읍·면부 노인(3.3%)이 저체중인 비율이 높았으며,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의 비만 지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저체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90세 이상 연령군의 저체중 비율이 9.9%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저체중 비율은 2.8%로 유배우 노인의 저체중 비율 1.9%보다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저체중 비율이 3.5%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타 가구에 속한 노인의 비만 비율이 28.6%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인 노인의 저체중 비율이 3.5%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학 졸업 이상 노인의 저체중 비율은 각각 1.7%로 낮은 수준을 차지하였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보다 미취업 노인의 저체중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제1오분위와 제2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저체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제3오분위부터 제5오분위에 속한 노인은 비만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50% 미만에 속한 노인의 저체중 비율이 3.0%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정상 범위인 비율도 72.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저체중 비율이 4.0%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 1.9%보다 높았으며,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27.2%는 비만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비만도 및 몸무게

(단위: %, 명, BMI, kg)

특성	비만지수(BMI) ²⁾			계 (명)	몸무게 평균
	저체중(BMI<18.5)	정상(18.5≤BMI<25)	비만(BMI≥25)		
전체 ¹⁾	2.3	71.6	26.1	100.0 (10,077)	62.1
지역					
동부	1.9	71.6	26.4	100.0 (7,450)	62.5
읍·면부	3.3	71.5	25.2	100.0 (2,627)	60.9
성					
남자	1.9	71.2	26.9	100.0 (4,428)	68.3
여자	2.6	71.9	25.5	100.0 (5,649)	57.3
연령					
65~69세	1.3	69.6	29.1	100.0 (3,472)	64.4
70~74세	1.4	71.0	27.6	100.0 (2,377)	62.9
75~79세	2.4	70.9	26.7	100.0 (1,743)	61.8
80~84세	3.3	74.4	22.3	100.0 (1,407)	60.0
85~89세	4.9	76.4	18.7	100.0 (825)	57.2
90세 이상	9.9	77.4	12.7	100.0 (253)	54.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9	71.3	26.8	100.0 (6,046)	64.0
배우자 없음	2.8	72.1	25.1	100.0 (4,031)	59.2
가구형태					
노인독거	2.6	72.4	25.0	100.0 (3,306)	59.5
노인부부	1.8	71.2	27.0	100.0 (5,562)	64.1
자녀동거	3.5	71.8	24.7	100.0 (1,035)	59.7
기타	2.9	68.5	28.6	100.0 (174)	63.6
교육수준					
무학	3.5	73.0	23.5	100.0 (1,240)	56.4
초등학교	2.8	70.3	26.9	100.0 (2,845)	60.1
중학교	2.0	71.7	26.3	100.0 (2,139)	63.0
고등학교	1.7	71.8	26.5	100.0 (3,145)	64.6
전문대학 이상	1.7	73.1	25.1	100.0 (707)	66.6
현취업상태					
취업중	1.5	71.9	26.6	100.0 (3,931)	63.9
미취업	2.8	71.4	25.8	100.0 (6,147)	61.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0	73.0	24.0	100.0 (2,014)	59.1
제2오분위	2.5	71.8	25.7	100.0 (2,014)	60.7
제3오분위	2.2	70.9	26.9	100.0 (2,013)	62.3
제4오분위	1.4	71.6	27.0	100.0 (2,020)	63.7
제5오분위	2.3	70.7	27.0	100.0 (2,017)	64.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0	72.4	24.6	100.0 (3,776)	60.2
50%이상~100%미만	1.7	70.7	27.6	100.0 (2,800)	62.2
100%이상~150%미만	1.7	72.1	26.2	100.0 (1,673)	63.3
150%이상	2.3	70.9	26.8	100.0 (1,828)	64.9
기능상태					
제한 있음	4.0	74.8	21.2	100.0 (1,872)	60.0
제한 없음	1.9	70.9	27.2	100.0 (8,205)	62.6
2020년도	2.6	72.4	25.0	100.0 (10,092)	61.4

주: 1) 전체 응답자 10,078명 중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한 10,0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비만지수(BMI)=체중/(신장²), 실측이 아닌 경우가 있어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5. 영양관리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NSI)가 개발한 ‘Determine Your Nutrition Health’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노인의 영양관리상태를 조사하였다. 영양선별도구(NSI)의 10개 항목¹³⁾에 문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점 21점을 기준으로 0~2점은 양호, 3~5점은 영양관리 주의, 6점 이상은 영양관리 개선으로 구분하였다.

노인 영양관리상태는 전체 노인의 65.0%는 양호한 수준이고, 25.4%는 영양관리 주의가 요구되며, 나머지 9.6%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영양상태가 양호한 비율이 읍·면부 거주 노인에 비해 높았으며, 영양관리 개선이 요구되는 비율은 동부 노인 9.4%, 읍·면부 노인은 9.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영양관리 개선이 요구되는 비율은 여자 노인이 10.4%로 남자 노인 8.5%보다 높으며,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영양상태가 양호한 비율이 낮아지고,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14.9%가 영양관리 개선이 요구되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6.0%가 영양관리 개선이 요구되었다.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가 영양관리 개선 요구 비율이 15.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동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영양관리 개선 요구 비율이 11.5%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무학인 노인의 20.8%가 영양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노인(6.2%)보다 미취업 노인(11.7%)의 영양관리 개선 요구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영양상태가 양호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가구에 속한 노인의 경우, 영양상태가 양호한 비율이 60.0%로 가장 낮은 반면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상태인 비율은 1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27.5%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하며,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5.5%가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영양선별 도구에 포함되어 있는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질병(건강) 때문에 먹는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바꾸고 있다. (2) 하루에 채 두 끼를 못 먹는다. (3) 과일, 채소 또는 유제품(우유 등)을 거의 먹지 않는다(각각 응답). (4) 거의 매일 3잔 이상의 술을 마신다. (5) 치아가 좋지 않거나 입안이 헐어서 음식 먹기가 힘들다. (6) 돈이 부족해 필요한 음식을 구입 못할 때도 있다. (7) 거의 매번 혼자서 식사한다. (8) 하루에 세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약(처방 및 비처방)을 복용한다. (9) 지난 6개월 사이 일부러 체중을 조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5kg 이상 줄거나 늘었다. (10) 장보고, 음식 만들고, 식사하는 것이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다.

〈표 3-15〉 영양관리 상태

(단위: %, 명, 점)

특성	양호	영양관리주의	영양관리개선	계 (명)	평균 ²⁾
전체 ¹⁾	65.0	25.4	9.6	100.0 (10,078)	2.3
지역					
동부	66.0	24.5	9.4	100.0 (7,450)	2.3
읍·면부	62.1	28.0	9.9	100.0 (2,628)	2.3
성					
남자	67.5	24.0	8.5	100.0 (4,429)	2.2
여자	63.0	26.6	10.4	100.0 (5,649)	2.4
연령					
65~69세	74.0	20.3	5.7	100.0 (3,473)	1.8
70~74세	67.1	25.5	7.3	100.0 (2,377)	2.1
75~79세	60.4	28.6	11.0	100.0 (1,743)	2.5
80~84세	56.2	30.7	13.1	100.0 (1,407)	2.8
85~89세	52.6	27.3	20.1	100.0 (825)	3.2
90세 이상	42.6	37.8	19.6	100.0 (253)	3.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1.3	22.7	6.0	100.0 (6,047)	1.9
배우자 없음	55.6	29.6	14.9	100.0 (4,031)	2.9
가구형태					
노인독거	54.4	30.3	15.3	100.0 (3,306)	3.0
노인부부	71.2	23.0	5.8	100.0 (5,562)	1.9
자녀동거	64.1	24.4	11.5	100.0 (1,035)	2.4
기타	73.2	17.6	9.2	100.0 (174)	1.9
교육수준					
무학	44.4	34.8	20.8	100.0 (1,240)	3.5
초등학교	59.4	28.5	12.1	100.0 (2,846)	2.6
중학교	66.1	25.9	8.0	100.0 (2,139)	2.2
고등학교	75.1	19.9	4.9	100.0 (3,145)	1.7
전문대학 이상	75.5	19.5	5.0	100.0 (707)	1.7
현취업상태					
취업중	69.9	23.9	6.2	100.0 (3,931)	2.0
미취업	61.9	26.4	11.7	100.0 (6,147)	2.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7.3	27.6	15.2	100.0 (2,014)	2.9
제2오분위	59.9	27.7	12.5	100.0 (2,014)	2.6
제3오분위	65.4	27.1	7.5	100.0 (2,014)	2.1
제4오분위	71.3	23.3	5.4	100.0 (2,020)	1.9
제5오분위	71.1	21.5	7.4	100.0 (2,017)	1.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0.0	27.2	12.9	100.0 (3,776)	2.7
50%이상~100%미만	65.1	26.5	8.3	100.0 (2,801)	2.2
100%이상~150%미만	71.5	22.4	6.0	100.0 (1,673)	1.9
150%이상	69.3	22.8	7.9	100.0 (1,828)	2.1
기능상태					
제한 있음	32.7	39.8	27.5	100.0 (1,873)	4.3
제한 없음	72.4	22.2	5.5	100.0 (8,205)	1.8
2020년도	72.2	19.0	8.8	100.0 (10,097)	1.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영양선별 도구의 10개 항목에 문항별 가중치를 부여한 총점 21점 기준으로 0~2점은 양호, 3~5점은 영양관리 주의, 6점 이상은 영양관리 개선으로 구분함.

6. 외부 식사 이용 경험

가. 배달음식 또는 외식 이용

지난 1년간 집에서 조리한 음식 이외에 배달 음식이나 포장 음식을 이용하거나 외식을 한 경험을 질문하였다. 배달이나 포장 음식 또는 외식을 한 적이 있는 비율은 67.1%, 없음은 32.9%였다. 배달이나 포장 음식 또는 외식을 빈도를 보면, 월 1회 미만 이 18.8%로 가장 높았으며, 월 2~3회 18.3%, 월 1회 14.2%, 주 1회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이나 포장음식 또는 외식을 한 적이 없는 노인은 동부 거주 노인보다는 읍·면부 노인 비율이 높으며, 남자보다는 여자 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배달이나 포장음식 또는 외식을 한 적이 없는 노인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배달이나 포장음식 또는 외식을 한 적이 없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가구형태에서는 독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배달이나 포장음식 또는 외식을 한 적이 없는 비율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달이나 포장음식 또는 외식을 한 적이 없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배달이나 포장음식 또는 외식을 한 적이 없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36.5%)이 제한이 없는 노인(32.1%)에 비해 배달이나 포장음식 또는 외식을 한 적이 없는 비율이 높았다.

나. 경로식당 이용률

지난 1년간 경로식당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 노인의 9.3%이었으며, 주 4회 이상 이용하는 노인이 2.2%, 주 2~3회는 3.2%, 주 1회 1.1%, 월 2~3회 1.1%, 월 1회 0.8%, 3개월에 1~2회는 0.6%, 1년에 1~2회는 0.3%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1회 이상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의 6.5%가 주 1회 이상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5.2%)보다 읍·면부 노인(9.9%)의 경로식당 이용률이 높고, 남자 노인보다는 여자 노인의 경로식당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로식당 이용률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주 1회 이상 경로식당 이용 노인은 65~69세에 2.1%에 불과하였으나, 8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경로식당 이용률이 4.0%, 무배우 노인의 경로식당 이용률은 10.1%로 무배우 노인의 경로식당 이용률이 더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의 경로식당 이용률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동거가구 7.3%, 기타 가구 5.7%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경로식당 이용률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며, 주 1회 이상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비율은 무학인 노인이 15.2%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학 이상인 노인은 1.8%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의 경로식당 이용률이 7.0%로 취업 노인 5.7%보다 높았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로식당 이용률은 높아져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10.7%,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가구에 속한 노인의 9.2%가 주 1회 이상 경로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능상태별 주 1회 이상 경로식당 이용률을 보면,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10.6%)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5.6%)보다 경로식당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 이용률

지난 1년간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 노인의 3.3%에 불과하였으며, 주 4회 이상 이용하는 노인이 0.2%, 주 2~3회는 0.7%, 주 1회 0.9%, 월 2~3회 0.4%, 월 1회 0.5%, 3개월에 1~2회는 0.3%, 1년에 1~2회는 0.3%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식사(밀반찬) 배달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는 노인은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보다는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자 노인보다는 여자 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식사(밀반찬) 배달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배우자가 없고, 독거가구에 속한 노인이 식사(밀반찬) 배달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의 식사(밀반찬) 배달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현재 취업중에 있는 노인보다는 미취업 상태인 노인의 식사(밀반찬) 배달서비스 이용률이 높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식사(밀반찬) 배달서비스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식사(밀반찬) 배달서비스 이용률은 10.5%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이용률 1.6%보다 월등히 높았다.

〈표 3-16〉 배달음식 또는 외식 빈도

(단위: %, 명)

특성	없음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전체 ^{1) 2)}	32.9	2.0	5.4	8.3	18.3	14.2	18.8	100.0 (10,078)
지역								
동부	30.8	2.4	5.6	9.7	19.7	14.5	17.2	100.0 (7,450)
읍·면부	38.9	0.8	4.7	4.4	14.4	13.3	23.4	100.0 (2,628)
성								
남자	29.0	3.4	6.7	8.8	20.2	14.8	17.2	100.0 (4,429)
여자	36.0	1.0	4.4	7.9	16.9	13.7	20.1	100.0 (5,649)
연령								
65~69세	23.6	3.7	7.3	10.3	20.7	16.4	18.1	100.0 (3,473)
70~74세	32.0	1.1	4.0	7.3	21.0	15.6	19.0	100.0 (2,377)
75~79세	35.6	1.8	4.8	7.7	17.7	12.9	19.5	100.0 (1,743)
80~84세	41.7	0.6	4.6	6.5	14.7	12.2	19.8	100.0 (1,407)
85~89세	50.9	0.9	4.3	6.9	9.3	8.0	19.6	100.0 (825)
90세 이상	42.3	0.9	4.7	10.3	15.5	10.7	15.6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8.4	1.8	5.2	8.6	20.1	16.3	19.7	100.0 (6,047)
배우자 없음	39.7	2.4	5.7	7.9	15.7	11.0	17.5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41.3	2.6	6.0	7.7	14.9	10.6	17.0	100.0 (3,306)
노인부부	28.8	1.7	5.1	8.5	19.9	16.1	19.9	100.0 (5,562)
자녀동거	28.8	2.1	5.6	9.3	20.8	15.3	18.0	100.0 (1,035)
기타	29.6	0.4	3.9	9.6	17.1	14.8	24.7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42.7	0.9	5.7	3.5	10.8	12.0	24.3	100.0 (1,240)
초등학교	42.4	1.0	4.0	7.3	14.9	11.2	19.2	100.0 (2,846)
중학교	30.8	1.6	4.0	8.7	22.2	15.1	17.5	100.0 (2,139)
고등학교	24.1	3.2	6.5	10.4	21.5	16.6	17.6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22.9	3.7	9.9	10.6	19.5	16.4	17.1	100.0 (707)
현취업상태								
취업중	27.9	3.9	6.7	8.1	18.3	15.2	20.0	100.0 (3,931)
미취업	36.1	0.8	4.6	8.5	18.4	13.6	18.1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3.0	0.7	3.8	6.4	13.0	11.7	21.3	100.0 (2,014)
제2오분위	40.0	1.0	4.8	5.4	15.5	12.6	20.6	100.0 (2,014)
제3오분위	31.8	1.4	4.9	8.9	19.6	14.4	19.0	100.0 (2,014)
제4오분위	26.4	2.6	6.9	10.1	20.2	14.4	19.5	100.0 (2,020)
제5오분위	23.4	4.4	6.7	10.8	23.4	17.7	13.7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0.1	0.7	4.1	6.3	15.1	12.5	21.1	100.0 (3,776)
50%이상~100%미만	33.4	1.2	5.4	8.3	17.6	14.2	20.0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26.8	3.4	6.2	10.2	21.4	14.3	17.6	100.0 (1,673)
150%이상	22.8	4.7	7.4	11.0	23.3	17.5	13.4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36.5	2.2	5.2	9.1	16.9	13.1	17.0	100.0 (1,873)
제한 없음	32.1	2.0	5.4	8.2	18.7	14.4	19.2	100.0 (8,20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2023년 신규 문항임.

〈표 3-17〉 경로식당 이용 정도

(단위: %, 명)

특성	없음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3개월 1~2회	1년에 1~2회	계 (명)
전체 ¹⁾	90.7	2.2	3.2	1.1	1.1	0.8	0.6	0.3	100.0 (10,078)
지역									
동부	92.5	1.9	2.3	1.0	0.7	0.8	0.5	0.2	100.0 (7,450)
읍·면부	85.6	2.9	5.7	1.3	2.1	1.0	0.9	0.5	100.0 (2,628)
성									
남자	93.8	1.0	2.0	0.7	0.9	0.7	0.7	0.1	100.0 (4,429)
여자	88.3	3.1	4.2	1.4	1.2	0.9	0.5	0.4	100.0 (5,649)
연령									
65~69세	95.7	0.4	1.2	0.5	0.9	0.5	0.7	0.1	100.0 (3,473)
70~74세	92.5	1.3	2.6	0.7	1.0	1.1	0.6	0.2	100.0 (2,377)
75~79세	88.0	3.4	4.6	1.2	1.2	0.8	0.6	0.2	100.0 (1,743)
80~84세	85.1	4.3	5.7	1.4	1.1	1.1	0.8	0.3	100.0 (1,407)
85~89세	82.7	4.7	5.2	3.6	1.8	0.8	0.3	0.8	100.0 (825)
90세 이상	82.7	6.2	7.1	1.3	0.6	1.0	0.0	1.0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3.3	1.1	2.2	0.7	0.7	0.9	0.8	0.2	100.0 (6,047)
배우자 없음	86.8	3.7	4.7	1.7	1.6	0.7	0.4	0.4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86.8	3.6	4.7	1.7	1.8	0.6	0.4	0.4	100.0 (3,306)
노인부부	93.0	1.2	2.3	0.8	0.8	1.0	0.8	0.2	100.0 (5,562)
자녀동거	91.1	2.8	3.4	1.1	0.4	0.7	0.3	0.3	100.0 (1,035)
기타	93.1	2.0	3.0	0.7	0.5	0.8	0.0	0.0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81.1	5.0	8.0	2.2	2.5	0.8	0.1	0.3	100.0 (1,240)
초등학교	86.5	3.3	4.8	1.7	1.4	1.1	0.6	0.6	100.0 (2,846)
중학교	93.6	1.6	2.3	0.6	0.9	0.7	0.3	0.0	100.0 (2,139)
고등학교	95.3	0.7	1.0	0.7	0.5	0.8	0.8	0.1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95.7	0.9	0.7	0.2	0.0	0.4	2.1	0.0	100.0 (707)
현취업상태									
취업중	91.4	1.6	3.5	0.6	1.0	0.7	0.9	0.3	100.0 (3,931)
미취업	90.3	2.6	3.0	1.4	1.1	0.9	0.4	0.2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5.3	3.6	5.1	2.0	1.4	1.1	0.9	0.6	100.0 (2,014)
제2오분위	88.4	3.4	4.5	1.6	0.9	0.7	0.5	0.2	100.0 (2,014)
제3오분위	91.2	1.9	3.4	1.0	1.3	0.8	0.2	0.2	100.0 (2,014)
제4오분위	94.2	1.2	2.0	0.4	0.9	0.9	0.3	0.0	100.0 (2,020)
제5오분위	94.6	0.8	1.1	0.5	0.8	0.6	1.2	0.3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7.6	3.0	4.5	1.7	1.1	1.0	0.7	0.4	100.0 (3,776)
50%이상~100%미만	90.6	2.7	3.6	0.7	1.3	0.7	0.3	0.1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93.3	1.3	1.9	1.1	1.0	0.9	0.5	0.1	100.0 (1,673)
150%이상	95.1	0.6	1.1	0.4	0.8	0.7	1.0	0.3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84.4	3.5	4.3	2.8	1.5	2.3	0.8	0.4	100.0 (1,873)
제한 없음	92.2	1.9	3.0	0.7	1.0	0.5	0.6	0.2	100.0 (8,20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3-18〉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 이용 정도

(단위: %, 명)

특성	없음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3개월 1~2회	1년에 1~2회	계 (명)
전체 ¹⁾	96.7	0.2	0.7	0.9	0.4	0.5	0.3	0.3	100.0 (10,078)
지역									
동부	96.2	0.3	0.8	1.0	0.4	0.6	0.4	0.3	100.0 (7,450)
읍·면부	98.2	0.1	0.5	0.4	0.3	0.2	0.1	0.1	100.0 (2,628)
성									
남자	97.2	0.2	0.7	0.6	0.2	0.5	0.3	0.3	100.0 (4,429)
여자	96.4	0.2	0.7	1.0	0.5	0.6	0.3	0.3	100.0 (5,649)
연령									
65~69세	98.8	0.0	0.2	0.3	0.1	0.2	0.2	0.0	100.0 (3,473)
70~74세	97.1	0.1	0.6	0.6	0.2	0.8	0.2	0.4	100.0 (2,377)
75~79세	95.8	0.4	0.9	1.6	0.3	0.3	0.2	0.6	100.0 (1,743)
80~84세	95.8	0.2	1.0	0.8	0.6	0.8	0.6	0.3	100.0 (1,407)
85~89세	93.2	0.5	0.9	1.8	1.6	1.4	0.3	0.4	100.0 (825)
90세 이상	88.4	1.7	4.1	3.3	0.9	0.5	1.0	0.0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8.3	0.1	0.5	0.2	0.0	0.4	0.2	0.3	100.0 (6,047)
배우자 없음	94.3	0.4	1.0	1.8	0.9	0.8	0.5	0.3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93.5	0.5	1.1	2.0	1.0	0.9	0.5	0.4	100.0 (3,306)
노인부부	98.2	0.0	0.6	0.2	0.1	0.4	0.2	0.3	100.0 (5,562)
자녀동거	98.6	0.1	0.4	0.5	0.1	0.2	0.1	0.0	100.0 (1,035)
기타	97.9	0.6	0.0	1.1	0.0	0.2	0.0	0.3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94.9	0.3	1.0	1.4	0.9	0.7	0.3	0.4	100.0 (1,240)
초등학교	94.9	0.4	1.2	1.3	0.7	0.5	0.4	0.5	100.0 (2,846)
중학교	97.2	0.1	0.5	0.9	0.2	0.5	0.4	0.2	100.0 (2,139)
고등학교	98.2	0.1	0.4	0.3	0.1	0.6	0.2	0.1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99.4	0.0	0.2	0.2	0.0	0.0	0.1	0.1	100.0 (707)
현취업상태									
취업중	98.8	0.0	0.1	0.2	0.1	0.3	0.2	0.2	100.0 (3,931)
미취업	95.4	0.3	1.1	1.2	0.5	0.7	0.4	0.3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6.2	0.2	0.9	1.1	0.4	0.4	0.2	0.5	100.0 (2,014)
제2오분위	94.9	0.7	1.7	1.1	0.4	0.4	0.4	0.5	100.0 (2,014)
제3오분위	96.6	0.0	0.4	1.6	0.4	0.7	0.1	0.2	100.0 (2,014)
제4오분위	97.3	0.1	0.4	0.4	0.6	0.5	0.6	0.2	100.0 (2,020)
제5오분위	98.7	0.0	0.1	0.1	0.1	0.6	0.2	0.1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6.2	0.4	1.2	0.8	0.3	0.4	0.2	0.5	100.0 (3,776)
50%이상~100%미만	96.5	0.2	0.4	1.2	0.2	0.8	0.4	0.2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97.0	0.1	0.4	0.8	0.7	0.3	0.4	0.2	100.0 (1,673)
150%이상	98.0	0.0	0.3	0.4	0.4	0.5	0.3	0.1	100.0 (1,828)
가능상태									
제한 있음	89.5	0.9	1.8	2.6	1.4	2.1	1.1	0.6	100.0 (1,873)
제한 없음	98.4	0.1	0.4	0.5	0.1	0.2	0.1	0.2	100.0 (8,20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7. 건강검진 및 병원·치과 미치료

가. 건강검진

지난 건강검진 및 치매검진 여부를 질문하였다. 먼저 건강검진 수진율을 살펴보면, 지난 2년간 77.7%의 노인이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지역별 및 성별에 따른 건강검진 수진율의 차이는 크지 않아 동부 노인의 건강검진 수진율이 77.3%로 읍·면 부 노인은 78.7%이었으며, 남자 노인의 건강검진 수진율이 78.0%로 여자 노인은 77.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검진 수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65~69세 노인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82.4%로 가장 높으며 8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건강검진 수진율이 60%대로 감소하였다. 유배우 노인의 건강검진 수진율(81.0%)이 무배우 노인의 건강검진 수진율(72.6%)보다 높았으며, 가구형태에서는 독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건강검진 수진율이 71.9%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검진 수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취업한 노인(82.2%)이 취업하지 않은 노인(74.8%)보다 건강검진 수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검진 수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제1오분위의 건강검진 수진율이 67.7%로 가장 낮고, 제5오분위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85.5%로 가장 높았다. 마찬가지로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건강검진 수진율이 높아지며,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79.9%)이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68.0%)보다 건강검진 수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2년간 치매검진율은 35.9%로 일반 건강검진 수진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거주 지역별로는 노인의 치매검진율은 큰 차이는 없었으나 성별로는 여자 노인의 치매검진율이 39.7%, 남자 노인의 치매검진율이 31.1%로 여자 노인의 치매검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군별 치매검진율은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검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가구형태에서는 자녀동거가구의 치매검진율이 41.4%로 가장 높고 기타 가구가 24.7%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 치매검진율은 무학인 노인이 43.2%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인 노인의 치매 검진율이 29.5%로 가장 낮았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노인 30.2%보다 미취업 노인의 치매검진율이 39.5%로 높은 편이다. 가구소득별로는 제4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치매검진율이 32.1%로 가장 낮았으며, 중위소득

100~150% 미만에 속한 노인의 치매검진율이 32.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 여부에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치매검진율이 42.8%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치매검진율 34.3%보다 높았다.

나. 병원 및 치과 미치료 현황

지난 1년간 병원(치과 제외)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는지, 병원 미치료율에 대해 질문하였다. 노인의 1.8%가 지난 1년간 병원 미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의 병원 미치료율이 3.2%로 동부 노인 1.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에 따른 병원 미치료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병원 미치료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병원 미치료율이 2.9%로 유배우 노인의 미치료율 1.0%보다 높았으며, 가구형태별로는 기타 가구에 속한 노인의 병원 미치료율이 4.1%로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구의 미치료율이 0.5%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병원 미치료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취업중인 노인(1.2%)보다 미취업 노인(2.1%)의 병원 미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간 가구소득이나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병원 미치료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며,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병원 미치료율이 4.4%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병원 미치료율 1.2%보다 높았다.

지난 1년간 치과 미치료율은 3.4%로 병원 미치료율 1.8%와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및 성별에 따른 치과 미치료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연령대별로는 90세 이상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이 5.9%로 가장 높았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이 4.9%로 유배우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 2.3%보다 높은 편이다.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이 5.4%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치과 미치료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 노인의 미치료율이 각각 4.8%와 4.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이 4.1%로 취업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 2.2%보다 높았다. 연간 가구소득이나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치과 미치료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며,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은 7.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3-19〉 건강검진 수진율 및 병원·치과 미치료율

(단위: %, 명)

특성	수진율 ¹⁾		(명)	미치료율 ²⁾		(명)
	건강검진	치매검진		병원 진료	치과 진료	
전체	77.7	35.9	(10,078)	1.8	3.4	(9,955)
지역						
동부	77.3	36.2	(7,450)	1.3	3.3	(7,359)
읍·면부	78.7	35.1	(2,628)	3.2	3.5	(2,596)
성						
남자	78.0	31.1	(4,429)	1.6	3.3	(4,384)
여자	77.4	39.7	(5,649)	1.9	3.4	(5,571)
연령						
65~69세	82.4	25.1	(3,473)	1.1	2.1	(3,465)
70~74세	79.3	36.4	(2,377)	1.5	3.9	(2,362)
75~79세	76.6	42.6	(1,743)	2.3	4.1	(1,729)
80~84세	74.6	44.0	(1,407)	1.5	3.7	(1,379)
85~89세	64.8	48.0	(825)	3.1	4.2	(781)
90세 이상	63.9	48.9	(253)	6.6	5.9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1.0	34.3	(6,047)	1.0	2.3	(5,987)
배우자 없음	72.6	38.3	(4,031)	2.9	4.9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71.9	37.6	(3,306)	3.2	5.4	(3,281)
노인부부	80.5	34.2	(5,562)	1.1	2.5	(5,509)
자녀동거	80.3	41.4	(1,035)	0.5	1.8	(993)
기타	80.1	24.7	(174)	4.1	1.7	(172)
교육수준						
무학	69.4	43.2	(1,240)	3.9	4.8	(1,184)
초등학교	75.9	40.5	(2,846)	2.5	4.9	(2,810)
중학교	79.5	36.3	(2,139)	1.3	3.3	(2,127)
고등학교	79.7	29.5	(3,145)	0.8	1.9	(3,132)
전문대학 이상	84.7	31.8	(707)	0.8	1.4	(701)
현취업상태						
취업중	82.2	30.2	(3,931)	1.2	2.2	(3,926)
미취업	74.8	39.5	(6,147)	2.1	4.1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7.7	37.9	(2,014)	3.3	4.9	(1,989)
제2오분위	73.1	39.4	(2,014)	2.6	4.6	(1,983)
제3오분위	80.2	36.6	(2,014)	0.9	2.6	(1,981)
제4오분위	81.8	32.1	(2,020)	1.2	2.4	(2,007)
제5오분위	85.5	33.5	(2,017)	0.7	2.3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1.1	38.9	(3,776)	2.6	4.4	(3,722)
50%이상~100%미만	79.9	35.8	(2,801)	1.7	3.1	(2,759)
100%이상~150%미만	80.3	32.0	(1,673)	1.2	3.1	(1,657)
150%이상	85.4	33.5	(1,828)	0.7	2.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68.0	42.8	(1,873)	4.4	7.5	(1,759)
제한 없음	79.9	34.3	(8,205)	1.2	2.5	(8,196)
2020년도	77.7	42.7	(10,097)	2.5	3.7	(9,930)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다. 병의원 및 치과 미치료 이유

지난 1년간 진료가 필요했지만,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75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질문하였다. 미치료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거동이 불편해서(동행할 가족이 없어서) 26.4%, 진단받거나 치료받는 것이 두려워서 11.7%, 교통이 불편해서 9.6%, 병원예약이 힘들거나 진료받기 위한 대기 기간이 길어서 8.6% 등으로 나타났다.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보다 경제적인 이유, 의료정보의 부족,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두려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읍·면부 노인은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교통의 불편함, 거동 불편(동행할 가족이 없음),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두려움, 시간이 없어서의 이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은 여자 노인보다 경제적인 어려움, 교통의 불편함,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두려움의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70~74세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거동 불편의 이유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교통이 불편해서, 진단이나 치료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요인이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경제적인 이유, 거동 불편이 주된 이유였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인 노인은 거동 불편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47.5%로 가장 많았으며, 미취업 노인은 경제적인 어려움(35.7%)과 거동 불편(30.3%)이 주된 이유로 조사되었다. 중위소득별 병의원 미치료 이유를 살펴보면,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계층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36.5%, 거동불편 31.7%,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두려움 11.6% 등으로 응답하였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거동 불편(44.6%)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인 이유가 30.2%를 차지하였다.

〈표 3-20〉 미치료 이유: 병의원

(단위: %, 명)

특성	경제적 어려움	교통 불편	거동 불편	의료정보 부족	병원예약 진료대기	치료과정 두려움	시간이 없어서	기타	계 (명)
전체 ^{1) 2)} 지역	32.3	9.6	26.4	4.7	8.6	11.7	6.1	0.7	100.0 (175)
동부	37.9	8.3	19.3	7.2	7.7	15.7	4.0	0.0	100.0 (92)
읍·면부	26.1	11.1	34.3	1.9	9.7	7.1	8.5	1.4	100.0 (83)
성									
남자	37.8	10.9	11.2	2.2	12.4	16.5	7.4	1.6	100.0 (72)
여자	28.5	8.7	36.9	6.4	6.0	8.3	5.2	0.0	100.0 (103)
연령									
65~69세	35.1	1.7	17.2	3.4	12.7	10.4	19.5	0.0	100.0 (39)
70~74세	46.1	9.0	8.5	7.7	6.9	14.5	7.3	0.0	100.0 (36)
75~79세	31.8	15.0	28.6	1.8	11.2	7.8	1.3	2.5	100.0 (39)
80~84세	23.0	17.2	38.8	0.0	12.7	7.3	0.0	1.0	100.0 (21)
85~89세	31.7	10.5	31.0	0.0	0.0	26.8	0.0	0.0	100.0 (25)
90세 이상	8.2	5.2	60.6	21.4	4.6	0.0	0.0	0.0	100.0 (1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8.3	12.4	21.3	4.6	4.2	23.8	3.5	1.9	100.0 (62)
배우자 없음	34.5	8.0	29.2	4.7	11.1	5.0	7.5	0.0	100.0 (113)
가구형태									
노인독거	33.4	8.0	31.0	5.0	10.7	5.4	6.4	0.0	100.0 (105)
노인부부	26.3	13.3	20.8	4.9	4.5	25.5	2.6	2.0	100.0 (58)
자녀동거	23.4	13.8	29.2	0.0	25.1	0.0	8.5	0.0	100.0 (5)
기타	71.3	0.0	0.0	0.0	0.0	0.0	28.7	0.0	100.0 (7)
교육수준									
무학	24.7	7.6	47.5	7.3	8.5	1.1	1.1	2.1	100.0 (46)
초등학교	34.8	17.2	23.4	3.2	6.5	8.2	6.7	0.0	100.0 (70)
중학교	40.6	4.5	7.9	9.4	5.3	27.8	4.5	0.0	100.0 (27)
고등학교	28.4	0.0	17.7	0.0	17.5	25.7	10.0	0.8	100.0 (26)
전문대학 이상	41.4	0.0	18.6	0.0	11.7	0.0	28.3	0.0	100.0 (6)
현취업상태									
취업중	23.4	10.0	16.0	2.5	7.4	20.6	19.9	0.0	100.0 (48)
미취업	35.7	9.4	30.3	5.5	9.1	8.3	0.9	0.9	100.0 (12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9.9	8.1	33.9	0.0	7.0	11.1	0.0	0.0	100.0 (67)
제2오분위	34.0	14.7	22.9	9.1	3.9	8.7	4.8	1.9	100.0 (52)
제3오분위	14.3	16.3	18.6	8.4	25.8	14.4	2.2	0.0	100.0 (18)
제4오분위	24.5	3.2	26.3	5.0	7.5	13.1	19.7	0.8	100.0 (25)
제5오분위	27.3	0.0	13.9	5.0	13.3	19.0	21.5	0.0	100.0 (1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6.5	10.3	31.7	1.4	6.4	11.6	1.1	1.0	100.0 (97)
50%이상~100%미만	26.7	13.1	17.0	13.5	5.9	14.2	9.2	0.4	100.0 (46)
100%이상~150%미만	26.6	4.0	26.3	0.0	29.5	13.6	0.0	0.0	100.0 (20)
150%이상	29.0	0.0	19.1	5.6	3.5	0.0	42.8	0.0	100.0 (13)
기능상태									
제한 있음	30.2	11.8	44.6	2.0	3.0	7.1	0.0	1.3	100.0 (78)
제한 없음	34.0	7.8	11.7	6.8	13.1	15.3	11.0	0.2	100.0 (97)
2020년도 ³⁾	41.8	5.4	12.6	1.1	4.1	4.8	3.1	27.0 ³⁾	100.0 (247)

주: 1) 본인응답자 9,955명 중 병의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2020년 조사의 경우, '증상이 가벼움(27.0%)' 항목이 별도 보기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증상이 가벼움' 보기문항을 삭제함.

지난 1년간 치과 치료가 필요했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노인 35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적 이유가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두려움 15.2%, 거동 불편(동행할 가족이 없음) 7.6%, 시간이 없어서 4.9%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치과 미치료 이유를 살펴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경제적 이유, 병원 예약이 힘들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부 노인은 동부 노인에 비해 거동이 불편해서,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은 여자 노인에 비해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거동 불편의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한 비율이 높아졌으며, 75~84세 연령군에 속한 노인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거동 불편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구형태에서는 부부가구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59.8%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별 치과 미치료 이유를 보면, 무학인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거동불편,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두려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학 이상 졸업 군은 경제적인 이유와 치료 과정의 두려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별 치과 미치료 이유로는 미취업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68.2%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제2오분위에 속한 노인은 경제적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한 비율이 79.8%를 차지하였으며, 중위소득별 치과 미치료 이유를 살펴보면,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68.3%로 가장 컸으며, 150% 이상인 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51.2%)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24.3%)가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 외에 거동 불편, 진단이나 치료과정의 두려움을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3-21〉 미치료 이유: 치과

(단위: %, 명)

특성	경제적 어려움	교통 불편	거동 불편	의료 정보 부족	병원예약 진료대기 어려움	치료과정 두려움	시간이 없어서	기타	계 (명)
전체 ¹⁾²⁾	62.4	2.1	7.6	2.8	4.7	15.2	4.9	0.3	100.0 (335)
지역									
동부	63.5	2.2	6.5	3.2	6.4	15.6	2.5	0.2	100.0 (244)
읍·면부	59.5	2.1	10.4	1.8	0.0	14.1	11.5	0.6	100.0 (91)
성									
남자	60.7	2.6	6.3	0.0	5.1	20.5	4.7	0.0	100.0 (143)
여자	63.7	1.8	8.5	4.8	4.4	11.3	5.0	0.5	100.0 (192)
연령									
65~69세	48.8	3.2	3.1	1.3	11.5	16.4	15.7	0.0	100.0 (73)
70~74세	62.4	0.2	3.6	4.6	5.8	19.1	4.3	0.0	100.0 (92)
75~79세	79.6	3.2	5.5	0.0	0.7	9.5	0.8	0.5	100.0 (71)
80~84세	76.8	2.5	5.7	0.0	0.0	13.1	0.8	1.1	100.0 (52)
85~89세	51.5	0.8	19.6	0.2	4.3	23.7	0.0	0.0	100.0 (33)
90세 이상	19.7	5.8	45.5	29.0	0.0	0.0	0.0	0.0	100.0 (1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9.9	1.0	0.9	2.8	2.6	24.2	8.6	0.0	100.0 (140)
배우자 없음	64.3	3.0	12.4	2.8	6.2	8.7	2.2	0.5	100.0 (195)
가구형태									
노인독거	61.9	2.6	13.5	3.0	6.7	9.5	2.4	0.3	100.0 (179)
노인부부	59.8	0.9	0.9	2.9	2.7	24.4	8.4	0.0	100.0 (135)
자녀동거	86.2	7.1	0.0	0.0	0.0	4.7	0.0	2.0	100.0 (18)
기타	76.3	0.0	0.0	0.0	0.0	0.0	23.7	0.0	100.0 (3)
교육수준									
무학	58.9	2.9	15.0	7.4	0.9	12.6	0.8	1.6	100.0 (57)
초등학교	75.7	2.7	10.6	0.7	2.2	6.6	1.6	0.0	100.0 (139)
중학교	58.1	0.0	0.0	6.0	5.4	27.1	3.3	0.0	100.0 (69)
고등학교	38.3	3.1	3.5	0.0	9.8	26.2	19.1	0.0	100.0 (61)
전문대학 이상	75.6	0.0	0.0	0.0	24.4	0.0	0.0	0.0	100.0 (10)
현취업상태									
취업중	46.2	2.5	1.8	1.4	10.9	21.2	15.9	0.0	100.0 (87)
미취업	68.2	2.0	9.6	3.3	2.5	13.1	1.0	0.4	100.0 (2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1.7	2.1	18.4	1.3	4.3	11.7	0.0	0.6	100.0 (98)
제2오분위	79.8	2.0	5.0	4.5	1.1	5.9	1.7	0.0	100.0 (91)
제3오분위	60.8	0.4	4.6	0.0	7.1	25.7	1.4	0.0	100.0 (51)
제4오분위	41.6	5.5	0.0	8.0	10.6	23.1	10.4	0.8	100.0 (49)
제5오분위	53.9	1.0	1.0	0.0	3.6	20.9	19.6	0.0	100.0 (4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8.3	2.0	12.2	1.2	3.2	12.1	0.7	0.3	100.0 (163)
50%이상~100%미만	62.3	1.1	5.8	6.6	2.1	20.8	1.3	0.0	100.0 (85)
100%이상~150%미만	52.0	5.9	0.0	3.4	11.0	16.3	10.8	0.7	100.0 (52)
150%이상	51.2	0.0	1.3	0.0	8.6	14.7	24.3	0.0	100.0 (36)
기능상태									
제한 있음	57.6	2.8	17.3	0.1	5.0	16.5	0.0	0.7	100.0 (132)
제한 없음	65.6	1.7	1.2	4.5	4.4	14.4	8.1	0.0	100.0 (203)
2020년도 ³⁾	57.5	1.8	3.3	0.6	3.1	10.8	3.5	19.4 ³⁾	100.0 (363)

주: 1) 본인응답자 9,955명 중 치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3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2020년 조사의 경우, '증상이 가벼움(19.4%)' 항목이 별도 보기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증상이 가벼움' 보기문항을 삭제함.

8.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항

노년기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를 질문하였다. 먼저 1순위로 응답한 결과를 보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건강검진 주기, 건강검진 항목 등 강화)가 34.3%, 노인성 질환이나 고비용 수술 등에 드는 의료비 지원 26.2%,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24.4%,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7.6%,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6.3%,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1.2%로 나타났다. 지역별, 성별, 연령군별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항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9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10.8%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가구소득 제5오분위, 그리고 중위소득 150% 이상인 집단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노년기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성 질환이나 고비용 수술 등에 드는 의료비 지원 54.5%,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건강검진 주기, 건강검진 항목 등 강화)이 50.3%,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47.2%,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23.7%,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19.5%,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4.3% 등으로 나타났다.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은 읍·면부 거주 노인에 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건강증진 교육 및 상담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은 동부 거주 노인에 비해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대한 요구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8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 노인은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55.1%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건강증진 교육 및 상담 강화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2〉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항(1순위)

(단위: %, 명)

특성	정기적 건강검진 지원	건강증진 교육 및 상담 강화	의료비 지원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	기타	계 (명)
전체 ¹⁾²⁾	34.3	24.4	26.2	7.6	6.3	1.2	0.0	100.0 (9,955)
지역								
동부	35.3	25.1	25.8	6.2	6.4	1.2	0.0	100.0 (7,359)
읍·면부	31.3	22.5	27.3	11.7	6.0	1.1	0.1	100.0 (2,596)
성								
남자	34.5	24.5	25.9	7.2	6.2	1.5	0.0	100.0 (4,384)
여자	34.1	24.3	26.4	7.9	6.4	0.9	0.0	100.0 (5,571)
연령								
65~69세	33.6	23.8	26.7	8.1	6.5	1.2	0.0	100.0 (3,465)
70~74세	33.1	23.6	27.3	7.8	6.3	1.8	0.0	100.0 (2,362)
75~79세	35.6	25.6	25.9	7.1	5.0	0.9	0.0	100.0 (1,729)
80~84세	36.4	25.7	23.5	7.0	6.6	0.7	0.1	100.0 (1,379)
85~89세	36.2	24.2	25.2	6.5	6.6	1.2	0.0	100.0 (781)
90세 이상	28.2	24.0	28.6	8.4	10.8	0.0	0.0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4.6	23.9	25.8	8.0	6.2	1.4	0.0	100.0 (5,987)
배우자 없음	33.8	25.1	26.8	6.9	6.4	0.9	0.0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33.4	25.7	26.5	7.2	6.3	0.9	0.0	100.0 (3,281)
노인부부	34.0	24.2	26.1	8.1	6.2	1.4	0.0	100.0 (5,509)
자녀동거	38.0	21.4	25.2	6.5	7.5	1.3	0.1	100.0 (993)
기타	37.5	23.0	29.0	5.0	4.8	0.7	0.0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32.0	23.1	29.0	9.3	6.3	0.4	0.0	100.0 (1,184)
초등학교	33.8	25.3	25.9	7.7	6.3	0.9	0.1	100.0 (2,810)
중학교	34.2	24.8	26.8	7.2	5.2	1.7	0.0	100.0 (2,127)
고등학교	34.7	23.8	25.7	7.3	7.1	1.4	0.0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38.4	24.3	22.8	6.8	6.5	1.2	0.0	100.0 (701)
현직업상태								
취업중	32.6	23.2	28.0	8.4	6.5	1.3	0.0	100.0 (3,926)
미취업	35.4	25.1	25.0	7.1	6.2	1.1	0.0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3.0	25.3	25.4	8.2	6.2	1.9	0.0	100.0 (1,989)
제2오분위	34.8	23.5	28.1	7.8	4.7	1.1	0.0	100.0 (1,983)
제3오분위	33.1	25.8	25.3	8.4	6.4	0.9	0.0	100.0 (1,981)
제4오분위	33.8	23.1	26.9	7.4	7.5	1.2	0.0	100.0 (2,007)
제5오분위	36.7	24.1	25.3	6.2	6.8	0.8	0.0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4.3	24.5	26.1	8.0	5.7	1.5	0.0	100.0 (3,722)
50%이상~100%미만	33.4	24.2	27.1	8.1	6.3	0.9	0.1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32.9	24.4	26.4	8.4	6.3	1.6	0.0	100.0 (1,657)
150%이상	36.9	24.5	24.8	5.4	7.7	0.7	0.0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34.6	25.1	25.4	7.4	6.3	1.1	0.0	100.0 (1,759)
제한 없음	32.8	20.9	29.8	8.3	6.6	1.6	0.0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2023년 신규 문항임.

〈표 3-23〉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항(1+2순위)

(단위: %, 명)

특성	정기적 건강검진 지원	건강증진 교육 및 상담 강화	의료비 지원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	기타
전체 ^{1) 2)}	50.3	47.2	54.5	23.7	19.5	4.3	0.1
지역							
동부	51.4	48.1	54.7	21.0	20.1	4.2	0.0
읍·면부	47.2	44.7	54.0	31.2	17.8	4.4	0.1
성							
남자	50.5	47.6	53.7	23.6	18.9	5.2	0.1
여자	50.1	46.9	55.2	23.7	19.9	3.5	0.0
연령							
65~69세	50.8	46.8	53.9	23.4	19.3	5.2	0.0
70~74세	50.9	45.7	54.1	23.6	19.9	5.0	0.0
75~79세	49.7	49.2	56.1	22.4	18.0	3.9	0.0
80~84세	51.4	47.3	53.3	24.5	20.0	2.9	0.3
85~89세	47.5	48.8	56.7	23.4	20.7	2.1	0.0
90세 이상	43.6	47.2	55.6	32.1	20.7	0.9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0.3	46.8	54.2	23.9	19.2	4.9	0.1
배우자 없음	50.2	47.8	54.9	23.3	19.8	3.3	0.0
가구형태							
노인독거	49.7	48.5	54.7	23.3	19.9	3.2	0.0
노인부부	49.8	47.2	54.1	24.3	19.0	4.9	0.1
자녀동거	54.2	42.1	55.3	21.5	21.4	4.4	0.1
기타	54.5	50.2	58.4	20.6	13.5	2.9	0.0
교육수준							
무학	46.7	50.4	56.5	26.0	18.7	1.2	0.0
초등학교	49.0	47.6	54.7	25.7	19.4	3.0	0.1
중학교	50.3	46.3	55.4	22.9	19.5	5.2	0.2
고등학교	51.7	46.2	53.4	22.4	20.1	5.6	0.0
전문대학 이상	55.1	47.6	52.6	19.5	18.2	6.2	0.0
현직업상태							
취업중	49.0	45.5	55.2	26.0	18.5	5.0	0.1
미취업	51.1	48.3	54.1	22.1	20.1	3.8	0.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9.1	48.0	50.3	25.9	20.9	5.6	0.0
제2오분위	51.2	47.6	57.1	24.7	16.5	2.7	0.1
제3오분위	49.6	48.4	54.9	22.6	19.8	3.8	0.2
제4오분위	49.3	46.4	55.3	23.7	20.0	4.7	0.0
제5오분위	52.2	45.7	55.0	21.5	20.2	4.6	0.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0.6	47.8	53.2	25.0	18.9	4.3	0.0
50%이상~100%미만	49.8	46.7	56.1	23.6	19.4	3.5	0.2
100%이상~150%미만	47.7	48.6	55.3	23.2	18.9	5.6	0.0
150%이상	52.7	45.6	54.2	21.3	21.3	4.2	0.0
기능상태							
제한 있음	46.4	44.4	56.3	25.4	22.8	3.9	0.0
제한 없음	51.1	47.8	54.1	23.3	18.7	4.4	0.1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2023년 신규 문항임.



제4장

노인의 기능상태와 돌봄

제1절 신체 및 인지 기능

제2절 돌봄 실태

제4장 노인의 기능상태와 돌봄

본 장에서는 노인의 기능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감각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의 신체적 기능상태를 측정하고, 낙상 관련 경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기능상태에 따른 돌봄 현황과 각 자원을 분석하기 위해 노인의 기능상태에 따라 어떤 도움이 제공되고 있는지, 도움 빈도와 도움 주체 등과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돌봄서비스의 개선사항을 분석하였다. 본 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표본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결과로 유효응답 사례 수가 적은 항목이나 세부 인구집단(90세 이상, 기타 가구, 전문대학 졸업 이상 등)의 분석 결과 등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1절 신체 및 인지 기능

1. 시력, 청력, 씹기, 그리고 이동 능력

시력으로 인해 느끼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대해 질문한 결과, 노인의 58.4%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38.7%는 불편한 편이다, 2.9%는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전체 노인의 41.6%는 시력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으로 인한 불편함은 읍·면부 거주 노인보다 동부 거주 노인, 그리고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이 높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무배우 노인, 독거가구, 저학력 노인, 미취업 노인, 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중위소득이 낮은 노인,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시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노인 중 시력 보조기(안경, 렌즈, 돋보기 등)를 사용하는 비율은 44.0%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 48.4%, 읍·면부 32.8%,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시력 보조기 사용률이 45.9%로 여자 노인의 사용률은 43.1%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시력

보조기 사용률을 살펴보면, 65~69세 노인의 사용률은 41.8%로 타 연령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90세 이상 노인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시력 보조기 사용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 형태에서는 자녀동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이 45.8%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 시력 보조기 사용률은 무학인 군이 37.0%로 가장 낮았으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군은 48.7%로 가장 높았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보다 미취업 노인의 시력 보조기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시력 보조기 사용률을 살펴보면, 제2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이 41.7%로 가장 낮았으며,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인 군에서 시력 보조기 사용률(49.3%)이 가장 높았다. 기능 상태에 대해서는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51.6%)의 시력 보조기 사용률이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42.7%)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1〉 시력 불편 및 보조기 사용 여부

(단위: %, 명)

특성	(보조기 미착용 시) 일상생활 불편함 ¹⁾²⁾				보조기 사용 여부 ³⁾	
	불편하지 않다	불편한 편이다	매우 불편하다	계 (명)	사용률	계 (명)
전체	58.4	38.7	2.9	100.0 (9,955)	44.4	100.0 (10,078)
지역						
동부	57.1	39.9	3.0	100.0 (7,359)	48.4	100.0 (7,450)
읍·면부	62.0	35.2	2.8	100.0 (2,596)	32.8	100.0 (2,628)
성						
남자	60.6	36.5	2.8	100.0 (4,384)	45.9	100.0 (4,429)
여자	56.7	40.3	3.0	100.0 (5,571)	43.1	100.0 (5,649)
연령						
65~69세	67.2	31.0	1.8	100.0 (3,465)	41.8	100.0 (3,473)
70~74세	58.0	39.5	2.5	100.0 (2,362)	46.5	100.0 (2,377)
75~79세	55.0	42.6	2.4	100.0 (1,729)	46.5	100.0 (1,743)
80~84세	50.8	45.0	4.2	100.0 (1,379)	44.6	100.0 (1,407)
85~89세	49.0	44.2	6.8	100.0 (781)	43.7	100.0 (825)
90세 이상	34.5	56.8	8.7	100.0 (239)	44.8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1.5	36.3	2.2	100.0 (5,987)	44.6	100.0 (6,047)
배우자 없음	53.8	42.2	4.0	100.0 (3,968)	43.9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53.8	42.8	3.5	100.0 (3,281)	43.7	100.0 (3,306)
노인부부	60.7	37.1	2.2	100.0 (5,509)	44.6	100.0 (5,562)
자녀동거	59.0	35.7	5.3	100.0 (993)	45.8	100.0 (1,035)
기타	70.5	26.9	2.5	100.0 (172)	42.5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46.9	47.6	5.5	100.0 (1,184)	37.0	100.0 (1,240)
초등학교	57.2	39.2	3.6	100.0 (2,810)	41.0	100.0 (2,846)
중학교	56.1	41.6	2.3	100.0 (2,127)	46.9	100.0 (2,139)
고등학교	63.8	34.1	2.1	100.0 (3,132)	47.6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65.6	32.8	1.6	100.0 (701)	48.7	100.0 (707)
현취업상태						
취업중	65.9	32.3	1.8	100.0 (3,926)	41.5	100.0 (3,931)
미취업	53.5	42.8	3.7	100.0 (6,029)	46.2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0.3	45.5	4.2	100.0 (1,989)	44.1	100.0 (2,014)
제2오분위	52.5	43.9	3.6	100.0 (1,983)	41.7	100.0 (2,014)
제3오분위	59.5	38.4	2.0	100.0 (1,981)	43.7	100.0 (2,014)
제4오분위	62.4	35.1	2.5	100.0 (2,007)	44.2	100.0 (2,020)
제5오분위	67.2	30.4	2.4	100.0 (1,995)	48.1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0.7	45.5	3.8	100.0 (3,722)	44.3	100.0 (3,776)
50%이상~100%미만	60.5	37.0	2.5	100.0 (2,759)	40.9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61.9	35.3	2.8	100.0 (1,657)	44.8	100.0 (1,673)
150%이상	67.8	30.2	2.1	100.0 (1,817)	49.3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39.9	53.1	7.1	100.0 (1,759)	51.6	100.0 (1,873)
제한 없음	62.4	35.6	2.1	100.0 (8,196)	42.7	100.0 (8,205)
2020년도	-	-	-	-	54.0	100.0 (10,097)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선택지 변경으로 2020년과 직접적인 비교 어려움.

3)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청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노인 중 78.0%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19.3%는 불편한 편이다, 2.7%는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그리고 성별에 따른 청력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청력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배우자가 없거나 독거가구인 경우, 청력으로 인한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청력저하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지만, 고등학교 졸업 노인의 청력으로 인한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1.0%로 가장 낮았다. 경제상태와 관련해서는 미취업 노인,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가구소득에서 제1오분위에 속하는 경우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낮은 가구)에서 청력 저하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청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40.7%, 매우 불편하다 8.1%로 응답하였다.

청력 보조기 사용하고 있는 노인은 8.3%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 그리고 성별에 따른 청력 보조기 사용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청력 보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무배우 노인의 청력 보조기 사용률이 10.2%로 유배우 노인 7.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의 청력 보조기 사용률이 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가구에 속한 노인의 청력 보조기 사용률이 7.1%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청력 보조기 사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며, 가구소득과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 비율이 낮을수록 청력 보조기 사용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노인의 청력 보조기 사용률은 6.4%인 반면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16.5%로 약 2배 이상 청력 보조기 사용률이 높다.

〈표 4-2〉 청력 불편 및 보조기 사용 여부

(단위: %, 명)

특성	(보조기 미착용 시) 일상생활 불편함 ¹⁾²⁾				보조기 사용 여부 ³⁾	
	불편하지 않다	불편한 편이다	매우 불편하다	계 (명)	사용률	계 (명)
전체	78.0	19.3	2.7	100.0 (9,955)	8.3	100.0 (10,078)
지역						
동부	77.9	19.3	2.7	100.0 (7,359)	8.7	100.0 (7,450)
읍·면부	78.2	19.2	2.5	100.0 (2,596)	7.2	100.0 (2,628)
성						
남자	78.9	18.3	2.8	100.0 (4,384)	8.4	100.0 (4,429)
여자	77.3	20.1	2.6	100.0 (5,571)	8.2	100.0 (5,649)
연령						
65~69세	92.2	7.2	0.5	100.0 (3,465)	3.3	100.0 (3,473)
70~74세	83.4	15.4	1.2	100.0 (2,362)	6.6	100.0 (2,377)
75~79세	74.7	22.7	2.6	100.0 (1,729)	9.3	100.0 (1,743)
80~84세	61.4	34.1	4.6	100.0 (1,379)	13.0	100.0 (1,407)
85~89세	48.9	42.9	8.2	100.0 (781)	18.6	100.0 (825)
90세 이상	33.6	45.3	21.2	100.0 (239)	26.2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2.0	15.7	2.3	100.0 (5,987)	7.0	100.0 (6,047)
배우자 없음	72.0	24.7	3.3	100.0 (3,968)	10.2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73.2	23.8	3.0	100.0 (3,281)	9.3	100.0 (3,306)
노인부부	81.7	16.0	2.3	100.0 (5,509)	7.1	100.0 (5,562)
자녀동거	71.6	24.3	4.1	100.0 (993)	11.5	100.0 (1,035)
기타	87.2	11.3	1.4	100.0 (172)	7.8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55.1	39.7	5.3	100.0 (1,184)	13.6	100.0 (1,240)
초등학교	72.5	23.7	3.9	100.0 (2,810)	10.1	100.0 (2,846)
중학교	79.1	18.8	2.0	100.0 (2,127)	7.8	100.0 (2,139)
고등학교	89.0	9.6	1.4	100.0 (3,132)	5.7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86.3	12.0	1.6	100.0 (701)	4.6	100.0 (707)
현취업상태						
취업중	87.8	10.9	1.3	100.0 (3,926)	4.8	100.0 (3,931)
미취업	71.6	24.8	3.6	100.0 (6,029)	10.5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9.0	26.9	4.1	100.0 (1,989)	10.5	100.0 (2,014)
제2오분위	71.8	24.0	4.1	100.0 (1,983)	9.4	100.0 (2,014)
제3오분위	78.8	19.0	2.2	100.0 (1,981)	9.3	100.0 (2,014)
제4오분위	83.0	15.1	1.9	100.0 (2,007)	6.6	100.0 (2,020)
제5오분위	87.3	11.5	1.2	100.0 (1,995)	5.7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0.0	26.0	4.0	100.0 (3,722)	10.3	100.0 (3,776)
50%이상~100%미만	78.9	18.4	2.7	100.0 (2,759)	8.7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83.5	14.9	1.6	100.0 (1,657)	5.7	100.0 (1,673)
150%이상	88.0	11.1	0.9	100.0 (1,817)	5.8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51.2	40.7	8.1	100.0 (1,759)	16.5	100.0 (1,873)
제한 없음	83.8	14.7	1.5	100.0 (8,196)	6.4	100.0 (8,205)
2020년도	-	-	-	-	11.2	100.0 (10,097)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선택지 변경으로 2020년과 직접적인 비교 어려움.

3)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썩는 능력(저작 능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함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 노인 중 68.5%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29.0%는 불편한 편이다, 2.5%는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30.3%)에 비해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35.0%)이 썩는 데 불편함(불편한 편+매우 불편)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노인에 비해 여자 노인의 불편함이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연령대가 높을수록, 무배우 노인인 경우, 독거가구인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미취업 노인,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 속할수록 썩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59.8%가 썩는 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은 25.5%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썩는 능력과 관련한 보조기(틀니 등, 임플란트 제외) 사용률은 25.0%로 조사되었다.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 고연령 노인 군에서 썩는 능력을 보조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보조기 사용률은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은 30.0%로 유배우 노인(21.7%)에 비해 높았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와 자녀동거가구가 각각 28.8%, 30.1%로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보조기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와 관련해서 미취업인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이 28.6%로 취업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보다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이 35.0%로 다른 집단에 비해 썩는 능력 보조기 사용률이 높았으며, 중위소득별 집단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은 46.3%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 20.1%보다 높았다.

〈표 4-3〉 씹기 불편 및 보조기 사용 여부

(단위: %, 명)

특성	(보조기 미착용 시) 일상생활 불편함 ¹⁾²⁾				보조기 사용 여부 ³⁾	
	불편하지 않다	불편한 편이다	매우 불편하다	계 (명)	사용률	계 (명)
전체	68.5	29.0	2.5	100.0 (9,955)	25.0	100.0 (10,078)
지역						
동부	69.7	28.0	2.3	100.0 (7,359)	23.3	100.0 (7,450)
읍·면부	65.0	31.7	3.3	100.0 (2,596)	29.9	100.0 (2,628)
성						
남자	71.4	26.5	2.1	100.0 (4,384)	22.9	100.0 (4,429)
여자	66.2	30.9	2.9	100.0 (5,571)	26.6	100.0 (5,649)
연령						
65~69세	83.8	15.5	0.7	100.0 (3,465)	11.2	100.0 (3,473)
70~74세	72.3	26.0	1.7	100.0 (2,362)	21.4	100.0 (2,377)
75~79세	63.6	34.5	1.9	100.0 (1,729)	28.6	100.0 (1,743)
80~84세	49.9	45.4	4.8	100.0 (1,379)	41.2	100.0 (1,407)
85~89세	44.1	47.3	8.6	100.0 (781)	50.2	100.0 (825)
90세 이상	30.1	59.5	10.4	100.0 (239)	50.9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3.9	24.2	1.8	100.0 (5,987)	21.7	100.0 (6,047)
배우자 없음	60.2	36.1	3.6	100.0 (3,968)	30.0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60.5	36.4	3.1	100.0 (3,281)	28.8	100.0 (3,306)
노인부부	73.2	25.0	1.8	100.0 (5,509)	22.2	100.0 (5,562)
자녀동거	67.2	27.8	5.0	100.0 (993)	30.1	100.0 (1,035)
기타	77.5	21.2	1.3	100.0 (172)	13.2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43.0	49.5	7.5	100.0 (1,184)	49.6	100.0 (1,240)
초등학교	61.0	35.9	3.0	100.0 (2,810)	30.1	100.0 (2,846)
중학교	67.6	30.8	1.6	100.0 (2,127)	22.4	100.0 (2,139)
고등학교	81.3	17.3	1.4	100.0 (3,132)	15.0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86.5	13.2	0.3	100.0 (701)	13.7	100.0 (707)
현취업상태						
취업중	77.6	21.2	1.2	100.0 (3,926)	19.4	100.0 (3,931)
미취업	62.5	34.1	3.4	100.0 (6,029)	28.6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5.4	39.7	4.9	100.0 (1,989)	35.0	100.0 (2,014)
제2오분위	57.9	38.2	3.8	100.0 (1,983)	32.1	100.0 (2,014)
제3오분위	70.2	28.4	1.4	100.0 (1,981)	24.5	100.0 (2,014)
제4오분위	75.0	23.8	1.2	100.0 (2,007)	18.9	100.0 (2,020)
제5오분위	83.6	14.9	1.5	100.0 (1,995)	14.5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7.1	38.6	4.3	100.0 (3,722)	33.8	100.0 (3,776)
50%이상~100%미만	68.5	29.6	1.8	100.0 (2,759)	24.9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77.7	21.2	1.2	100.0 (1,657)	17.3	100.0 (1,673)
150%이상	83.3	15.4	1.3	100.0 (1,817)	14.0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40.2	52.7	7.1	100.0 (1,759)	46.3	100.0 (1,873)
제한 없음	74.5	23.9	1.6	100.0 (8,196)	20.1	100.0 (8,205)
2020년도	—	—	—	—	36.9	100.0 (10,097)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선택지 변경으로 2020년과 직접적인 비교 어려움.

3)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일상생활에서 집안이나 집 밖을 이동하는데 있어 불편함 정도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며, 전체 노인의 83.7%가 이동에 있어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14.0%는 불편한 편이다, 2.3%는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15.2%)에 비해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19.2%)이 이동의 불편함(불편+매우 불편)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이 이동의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동의 불편함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65~69세의 경우 6.1%만이 이동의 불편함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반면 90세 이상의 경우 60.4%가 이동의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무배우 노인, 독거가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동의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미취업 노인,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 속할수록 이동의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48.8%가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은 9.2%만이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동과 관련한 보조기(지팡이, 워커, 휠체어 등) 사용률은 11.0%로 조사되었다.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 고연령 노인 집단에서 이동을 위한 보조기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세 이상 연령군에서 보조기 사용률은 45.9%를 차지하였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은 17.0%로 유배우 노인(7.0%)에 비해 높았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와 자녀동거가구가 각각 15.9%, 17.3%로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보조기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와 관련해서 미취업인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이 14.8%로 취업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5.1%)보다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이 18.5%로 다른 집단에 비해 이동을 위한 보조기 사용률이 높았으며, 중위소득별 집단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은 36.9%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 5.1%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4〉 이동 불편 및 보조기 사용 여부

(단위: %, 명)

특성	(보조기 미착용 시) 일상생활 불편함 ¹⁾²⁾				보조기 사용 여부 ³⁾	
	불편하지 않다	불편한 편이다	매우 불편하다	계 (명)	사용률	계 (명)
전체 ⁴⁾	83.7	14.0	2.3	100.0 (9,955)	11.0	100.0 (10,078)
지역						
동부	84.8	13.2	2.0	100.0 (7,359)	9.5	100.0 (7,450)
읍·면부	80.7	15.9	3.3	100.0 (2,596)	15.2	100.0 (2,628)
성						
남자	88.9	9.5	1.5	100.0 (4,384)	7.2	100.0 (4,429)
여자	79.7	17.4	2.9	100.0 (5,571)	14.0	100.0 (5,649)
연령						
65~69세	93.9	5.3	0.8	100.0 (3,465)	3.5	100.0 (3,473)
70~74세	87.6	11.1	1.2	100.0 (2,362)	6.3	100.0 (2,377)
75~79세	83.5	14.4	2.1	100.0 (1,729)	10.1	100.0 (1,743)
80~84세	73.7	22.4	3.9	100.0 (1,379)	19.0	100.0 (1,407)
85~89세	58.9	34.0	7.2	100.0 (781)	33.3	100.0 (825)
90세 이상	39.6	49.0	11.4	100.0 (239)	45.9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9.0	9.5	1.5	100.0 (5,987)	7.0	100.0 (6,047)
배우자 없음	75.8	20.7	3.5	100.0 (3,968)	17.0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76.3	20.4	3.3	100.0 (3,281)	15.9	100.0 (3,306)
노인부부	89.0	9.6	1.4	100.0 (5,509)	7.0	100.0 (5,562)
자녀동거	78.2	17.6	4.2	100.0 (993)	17.3	100.0 (1,035)
기타	88.3	8.5	3.2	100.0 (172)	8.9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61.4	30.8	7.8	100.0 (1,184)	31.1	100.0 (1,240)
초등학교	79.5	18.1	2.4	100.0 (2,810)	13.7	100.0 (2,846)
중학교	85.4	13.1	1.4	100.0 (2,127)	7.0	100.0 (2,139)
고등학교	92.9	6.1	1.0	100.0 (3,132)	4.5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92.6	6.4	1.0	100.0 (701)	5.8	100.0 (707)
현취업상태						
취업중	92.9	6.6	0.5	100.0 (3,926)	5.1	100.0 (3,931)
미취업	77.8	18.7	3.5	100.0 (6,029)	14.8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2.3	22.8	4.9	100.0 (1,989)	18.5	100.0 (2,014)
제2오분위	78.8	18.3	2.9	100.0 (1,983)	13.7	100.0 (2,014)
제3오분위	85.4	13.0	1.5	100.0 (1,981)	10.1	100.0 (2,014)
제4오분위	88.6	9.8	1.6	100.0 (2,007)	6.8	100.0 (2,020)
제5오분위	93.5	5.9	0.7	100.0 (1,995)	5.7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5.6	20.4	3.9	100.0 (3,722)	16.2	100.0 (3,776)
50%이상~100%미만	84.5	13.7	1.9	100.0 (2,759)	9.9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89.7	8.7	1.6	100.0 (1,657)	7.5	100.0 (1,673)
150%이상	93.8	5.8	0.3	100.0 (1,817)	5.2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51.2	38.2	10.6	100.0 (1,759)	36.9	100.0 (1,873)
제한 없음	90.7	8.7	0.5	100.0 (8,196)	5.1	100.0 (8,205)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선택지 변경으로 2020년과 직접적인 비교 어려움.

3)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4) 2023년 신규 문항임.

2. 피곤함 및 이동 능력

지난 한 달 동안 피곤하다고 느낀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노인의 1.1%는 항상 그렇다, 7.7%는 거의 대부분 그렇다, 36.8%는 종종 그렇다, 48.5% 가끔씩 그렇다, 5.9%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일상적 피곤 정도를 ‘항상 그렇다+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응답한 노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피곤함(항상 그렇다+거의 대부분 그렇다)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으며, 남자 노인에 비해 여자 노인의 피곤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피곤함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기타 가구(11.2%)와 독거가구(10.4%)에 속한 노인의 피곤함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교육수준에서는 무학인 노인의 16.0%, 초등학교 졸업 노인의 9.0%가 일상적으로 피곤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취업 중인 노인의 7.8%, 취업하지 않은 상태인 노인의 9.5%가 일상적인 피곤함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연간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피곤함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12.2% 그리고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에 속한 노인의 10.4%가 피곤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17.7%가 일상적으로 피곤하다고 응답한 반면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은 6.9%가 피곤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지난 한 달 동안 피곤 정도

(단위: %, 명)

특성	항상 그렇다	거의 대부분 그렇다	종종 그렇다	가끔씩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²⁾	1.1	7.7	36.8	48.5	5.9	100.0 (9,955)
지역						
동부	0.9	7.5	38.3	47.8	5.6	100.0 (7,359)
읍·면부	1.7	8.4	32.5	50.6	6.9	100.0 (2,596)
성						
남자	0.6	6.7	35.7	49.8	7.2	100.0 (4,384)
여자	1.4	8.5	37.7	47.5	4.9	100.0 (5,571)
연령						
65~69세	0.8	6.3	34.9	51.6	6.4	100.0 (3,465)
70~74세	0.8	6.7	36.4	49.7	6.4	100.0 (2,362)
75~79세	1.1	7.7	35.4	49.8	5.9	100.0 (1,729)
80~84세	1.4	10.7	39.9	43.9	4.1	100.0 (1,379)
85~89세	1.9	10.6	41.5	40.6	5.5	100.0 (781)
90세 이상	2.5	11.6	44.6	34.9	6.5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9	6.7	36.1	50.0	6.3	100.0 (5,987)
배우자 없음	1.4	9.2	37.9	46.2	5.4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1.3	9.1	37.2	46.8	5.6	100.0 (3,281)
노인부부	0.8	6.7	36.2	50.1	6.2	100.0 (5,509)
자녀동거	1.7	8.2	40.4	43.4	6.2	100.0 (993)
기타	1.7	9.5	26.5	59.1	3.2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2.6	13.4	38.0	41.3	4.7	100.0 (1,184)
초등학교	1.3	7.7	39.0	47.7	4.3	100.0 (2,810)
중학교	0.7	7.3	38.8	47.9	5.2	100.0 (2,127)
고등학교	0.7	6.7	34.7	51.3	6.6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0.8	3.5	28.9	53.1	13.7	100.0 (701)
현취업상태						
취업중	1.1	6.7	36.6	50.1	5.6	100.0 (3,926)
미취업	1.1	8.4	36.9	47.4	6.2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8	10.4	39.9	43.6	4.2	100.0 (1,989)
제2오분위	1.3	8.0	39.1	46.2	5.4	100.0 (1,983)
제3오분위	0.7	7.2	34.7	51.3	6.1	100.0 (1,981)
제4오분위	0.7	7.2	33.2	51.2	7.7	100.0 (2,007)
제5오분위	0.9	5.6	37.1	50.1	6.2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6	8.8	39.6	45.1	4.9	100.0 (3,722)
50%이상~100%미만	0.7	8.4	33.9	50.7	6.3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0.8	6.3	35.4	50.9	6.7	100.0 (1,657)
150%이상	0.9	5.7	36.7	49.9	6.7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3.0	14.7	43.5	35.5	3.3	100.0 (1,759)
제한 없음	0.7	6.2	35.4	51.3	6.5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2023년 신규 문항임.

노인의 운동능력을 10계단 오르기와 300미터 이동하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쉬지 않고 10개 계단을 오르는 데 힘이 드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노인의 28.7%가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읍·면부 거주 노인이 10개 계단 오르는 데 어려움이 더 컸으며, 남자 노인보다는 여자 노인이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65~69세 노인의 경우 13.0%에 불과하였으나 85~89세 노인의 56.8%, 90세 이상 노인의 70.2%가 계단 오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계단을 오르는 데 어려움이 더 많았으며, 독거가구와 자녀동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계단 오르는 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인 노인의 55.5%, 초등학교 졸업 노인의 37.6%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계단 오르는데 어려움이 노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61.4%, 그리고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21.2%가 혼자 10개 계단을 오르는 데 힘이 든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300미터를 혼자서 이동하는 데 힘이 드는지를 질문하였으며 노인의 20.7%가 300미터를 혼자서 이동하는 데 힘이 든다고 응답하였다.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읍·면부 거주 노인이 300미터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더 컸으며, 남자 노인보다는 여자 노인이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65~69세 노인의 경우 6.9%에 불과하였으나 85~89세 노인의 48.3%, 90세 이상 노인의 67.3%가 300미터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300미터 이동의 어려움이 더 많았으며, 독거가구와 자녀동거가구에 속한 노인이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이동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인 노인의 48.2%, 초등학교 졸업 노인의 27.1%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300미터 이동의 어려움이 노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55.5%, 그리고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12.7%가 혼자 300미터를 이동하는 데 힘이 든다고 응답하였다.

〈표 4-6〉 운동능력: 계단 10개 오르기, 300미터 이동

(단위: %, 명)

특성	혼자서 계단 10개 오르기		혼자서 300미터 이동		계 (명)
	힘듦	힘들지 않음	힘듦	힘들지 않음	
전체 ¹⁾²⁾	28.7	71.3	20.7	79.3	100.0 (10,078)
지역					
동부	26.7	73.3	19.3	80.7	100.0 (7,450)
읍·면부	34.4	65.6	24.5	75.5	100.0 (2,628)
성					
남자	21.0	79.0	14.0	86.0	100.0 (4,429)
여자	34.7	65.3	25.9	74.1	100.0 (5,649)
연령					
65~69세	13.0	87.0	6.9	93.1	100.0 (3,473)
70~74세	22.2	77.8	13.9	86.1	100.0 (2,377)
75~79세	34.6	65.4	24.2	75.8	100.0 (1,743)
80~84세	47.1	52.9	37.0	63.0	100.0 (1,407)
85~89세	56.8	43.2	48.3	51.7	100.0 (825)
90세 이상	70.2	29.8	67.3	32.7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4	77.6	14.4	85.6	100.0 (6,047)
배우자 없음	38.2	61.8	30.0	70.0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36.7	63.3	28.2	71.8	100.0 (3,306)
노인부부	22.7	77.3	14.5	85.5	100.0 (5,562)
자녀동거	37.4	62.6	30.7	69.3	100.0 (1,035)
기타	17.5	82.5	14.6	85.4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55.5	44.5	48.2	51.8	100.0 (1,240)
초등학교	37.6	62.4	27.1	72.9	100.0 (2,846)
중학교	24.1	75.9	15.9	84.1	100.0 (2,139)
고등학교	15.5	84.5	9.6	90.4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18.4	81.6	10.3	89.7	100.0 (707)
현취업상태					
취업중	17.5	82.5	11.0	89.0	100.0 (3,931)
미취업	35.8	64.2	26.9	73.1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1.3	58.7	33.3	66.7	100.0 (2,014)
제2오분위	37.0	63.0	26.7	73.3	100.0 (2,014)
제3오분위	27.1	72.9	19.3	80.7	100.0 (2,014)
제4오분위	21.4	78.6	14.4	85.6	100.0 (2,020)
제5오분위	16.7	83.3	9.8	90.2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8.8	61.2	29.5	70.5	100.0 (3,776)
50%이상~100%미만	28.3	71.7	21.0	79.0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21.9	78.1	14.4	85.6	100.0 (1,673)
150%이상	14.6	85.4	7.7	92.3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61.4	38.6	55.5	44.5	100.0 (1,873)
제한 없음	21.2	78.8	12.7	87.3	100.0 (8,20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2023년 신규 문항임.

노인의 노쇠 수준은 한국형 FRAIL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한국형 FRAIL 척도는 Morley et al.(2012)이 개발한 FRAIL 척도를 Jung et al.(2016)이 임상적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한국형 FRAIL 척도¹⁴⁾를 활용하였다. 노인의 4.6%가 노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노쇠 32.2%, 비노쇠(건강) 63.2%로 나타났다.

노쇠 단계인 노인의 특성을 보면,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읍·면부 거주 노인의 비율이 높으며, 남자 노인(2.8%)보다는 여자 노인(5.9%)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쇠 단계인 비율이 증가하여 90세 이상 노인의 14.4%가 노쇠 상태였으며, 비노쇠 단계에 있는 90세 이상 노인은 21.4%에 불과하였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 자녀동거가구와 독거가구, 무학인 노인 집단에서 노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학인 노인의 14.1%는 노쇠 단계인 반면 전문대학 이상인 노인의 경우 1.9%만이 노쇠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취업 중에 있는 노인(1.9%)보다는 취업하지 않은 노인(6.3%)의 노쇠인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노쇠 단계에 있는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1오분위에 있는 노인의 8.8%가 노쇠 상태에 있으며,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의 7.0%가 노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15.9%가 노쇠, 54.9%는 전노쇠, 그리고 29.2%가 비노쇠 단계였으며,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 노쇠 2.0%, 전노쇠 27.1%, 그리고 비노쇠는 71.0%였다.

14) K-FRAIL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며, 0점은 건강(비노쇠, robust), 1~2점(전노쇠, prefrail), 3~5점은 노쇠(frail)로 구분함.

- ① Fatigue(피로): 지난 한 달 동안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② Resistance(저항): 도움이 없어 혼자서 쉬지 않고 10개의 계단을 오르는 데 힘이 듭니까?
- ③ Ambulation(이동): 도움이 없이 300미터를 혼자서 이동하는 데 힘이 듭니까?
- ④ Illness(질병): 의사에게 다음 질병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고혈압, 당뇨, 암, 만성 폐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협심증, 천식, 관절염, 뇌경색, 신장질환)
- ⑤ Loss of weight(체중감소): 현재와 1년 전의 체중은 몇 kg이었습니까?

〈표 4-7〉 노쇠 수준

(단위: %, 명)

특성	노쇠	전노쇠	비노쇠(건강)	계(명)
전체 ¹⁾²⁾	4.6	32.2	63.2	100.0 (10,078)
지역				
동부	4.1	30.9	65.1	100.0 (7,450)
읍·면부	6.0	36.1	57.9	100.0 (2,628)
성				
남자	2.8	25.8	71.4	100.0 (4,429)
여자	5.9	37.3	56.7	100.0 (5,649)
연령				
65~69세	1.4	19.3	79.3	100.0 (3,473)
70~74세	2.9	27.2	69.8	100.0 (2,377)
75~79세	5.3	38.0	56.7	100.0 (1,743)
80~84세	9.3	46.7	44.1	100.0 (1,407)
85~89세	10.2	54.4	35.5	100.0 (825)
90세 이상	14.4	64.2	21.4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8	27.4	69.8	100.0 (6,047)
배우자 없음	7.2	39.6	53.2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7.1	38.3	54.6	100.0 (3,306)
노인부부	2.8	27.6	69.6	100.0 (5,562)
자녀동거	6.2	39.2	54.7	100.0 (1,035)
기타	4.0	23.6	72.4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14.1	49.7	36.2	100.0 (1,240)
초등학교	5.6	40.5	53.9	100.0 (2,846)
중학교	2.8	30.3	66.9	100.0 (2,139)
고등학교	1.7	21.5	76.8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1.9	21.8	76.3	100.0 (707)
현취업상태				
취업중	1.9	23.9	74.3	100.0 (3,931)
미취업	6.3	37.6	56.1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8	40.7	50.5	100.0 (2,014)
제2오분위	5.8	39.6	54.7	100.0 (2,014)
제3오분위	3.8	32.1	64.1	100.0 (2,014)
제4오분위	3.0	26.4	70.6	100.0 (2,020)
제5오분위	1.4	22.5	76.0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0	39.6	53.4	100.0 (3,776)
50%이상~100%미만	4.7	33.0	62.3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2.4	26.7	70.9	100.0 (1,673)
150%이상	1.3	21.0	77.7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15.9	54.9	29.2	100.0 (1,873)
제한 없음	2.0	27.1	71.0	100.0 (8,20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2023년 신규 문항임.

3. 낙상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한 비율은 5.6%이며, 평균 낙상 횟수는 1.9회, 낙상 후 병원 치료율은 58.5%로 나타났다. 지역별 낙상률을 보면, 읍·면부가 6.3%, 동부는 5.3%로 읍·면부 거주 노인의 낙상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노인(7.1%)이 남자 노인(3.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낙상률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90세 이상에서의 지난 1년간 낙상률은 11.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무배우의 경우 7.4%, 유배우는 4.3%로 나타나며, 가구형태에서는 부부가구보다는 독거가구, 자녀 동거가구에서 낙상률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낙상률은 높으며, 미취업 상태일 경우 취업상태에 비해 낙상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낙상률은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며,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12.9%가 낙상을 경험한 반면,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 3.9%의 낙상 경험률을 보였다.

1년간 경험한 낙상 횟수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지며 특히 80~84세 2.3회, 90세 이상에서는 2.5회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형태에서는 기타 가구에 속한 노인의 낙상 횟수가 4.7회로 가장 높았다. 가구소득이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낙상률과 낙상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는 낙상 횟수는 평균 2.4회로 기능 제한이 없는 1.6회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낙상 후 병원치료율은 동부 거주 노인(57.1%)보다 읍·면부 거주 노인(61.9%)의 치료율이 높았으며, 80~84세 연령대의 병원 치료율은 44.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가구형태에서는 부부가구의 치료율이 60.2%로 가장 높은 반면 기타 가구에 속한 노인의 치료율은 31.2%로 가장 낮았다. 가구소득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으나 연간 가구소득이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 집단(57.5%)과 중위소득 대비 50~100% 미만인 저소득층(55.1%)의 낙상 후 병원 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낙상 경험

(단위: %, 회)

특성	낙상률 ¹⁾	낙상 횟수 및 치료 ²⁾³⁾	
		1년간 낙상 횟수	낙상 후 병원 치료율
전체	5.6	1.9	58.5
지역			
동부	5.3	1.8	57.1
읍·면부	6.3	2.1	61.9
성			
남자	3.6	2.0	65.3
여자	7.1	1.9	55.8
연령			
65~69세	3.3	1.6	62.8
70~74세	5.2	1.7	67.8
75~79세	6.0	2.0	65.2
80~84세	8.2	2.3	44.9
85~89세	8.9	2.1	51.9
90세 이상	11.1	2.5	48.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3	2.0	59.4
배우자 없음	7.4	1.9	57.8
가구형태			
노인독거	6.8	1.8	58.9
노인부부	4.4	2.0	60.2
자녀동거	8.6	1.9	53.8
기타	2.0	4.7	31.2
교육수준			
무학	10.1	2.2	53.4
초등학교	6.9	1.9	53.1
중학교	4.6	2.0	63.6
고등학교	3.9	1.6	66.9
전문대학 이상	2.8	1.9	67.1
현취업상태			
취업중	3.6	1.7	63.6
미취업	6.8	2.0	56.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7	2.3	57.5
제2오분위	7.3	1.9	60.5
제3오분위	5.9	1.8	56.0
제4오분위	4.3	1.8	58.5
제5오분위	3.7	1.7	60.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8	2.1	59.0
50%이상~100%미만	6.3	2.0	55.1
100%이상~150%미만	4.6	1.6	62.3
150%이상	2.9	1.4	61.8
기능상태			
제한 있음	12.9	2.4	61.4
제한 없음	3.9	1.6	56.3
2020년도	7.2	1.6	72.5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0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2) 지난 1년간 낙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낙상의 가장 큰 이유는 바닥이 미끄러워서가 28.1%이며, 다음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20.2%, 다리를 접질려서(발을 헛디뎌서) 19.9%, 도로나 문턱에 걸려서 15.4%,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 6.7%, 갑자기 어지러워서 4.8%, 도로의 경사가 급해서 4.0%, 조명이 어두워서 0.8%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지역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70~74세 연령군의 경우 바닥이 미끄러워서 낙상을 한 비율이 35.5%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9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주로 바닥이 미끄럽거나(32.3%) 도로나 문턱에 걸려(35.2%) 낙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경우, 바닥이 미끄러워서(23.4%), 다리에 힘이 풀려서(22.3%), 도로나 문턱에 걸려서(19.3%)가 주된 원인으로 응답되었다.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바닥이 미끄러워서, 다리에 힘이 풀려 낙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은 바닥이 미끄러워서, 다리를 접질려서 낙상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낙상이 발생한 장소는 인도/도로/공원이 4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자택의 화장실/욕실 18.9%, 자택 거실 17.9%, 자택 방안 13.0%, 계단 9.1%, 자택 부엌 4.8%, 상업시설 4.1% 등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집 안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한 비율이 54.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집 안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65세부터 84세까지 연령군에서는 인도/도로/공원에서의 낙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8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집 안에서의 낙상률이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한 노인 중 자녀동거가 구인 경우 31.1%가 자택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인도/도로/공원에서 낙상을 경험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주된 낙상 장소는 인도/도로/공원 이외에 자택의 화장실/욕실, 자택 거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9〉 낙상 이유

(단위: %, 명)

특성	바닥이 미끄러워서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	도로나 문턱에 걸려	도로의 경사가 급해서	조명이 어두워서	다리를 접질려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기타	계 (명)
전체 ¹⁾²⁾	28.1	6.7	15.4	4.0	0.8	19.9	4.8	20.2	0.0	100.0 (561)
지역										
동부	28.1	6.3	16.4	4.2	1.0	19.1	4.8	20.1	0.0	100.0 (394)
읍·면부	28.4	7.7	12.9	3.4	0.4	21.7	4.8	20.6	0.0	100.0 (167)
성										
남자	32.6	6.9	10.9	5.3	0.4	23.2	3.9	16.7	0.0	100.0 (159)
여자	26.4	6.7	17.2	3.4	1.0	18.6	5.2	21.6	0.0	100.0 (402)
연령										
65~69세	28.9	10.9	13.8	2.3	2.2	23.6	6.7	11.4	0.0	100.0 (115)
70~74세	35.5	4.6	11.8	5.9	0.5	18.1	5.0	18.7	0.0	100.0 (125)
75~79세	23.9	6.5	17.4	3.5	0.7	23.5	3.7	20.9	0.0	100.0 (104)
80~84세	21.1	5.6	16.8	4.5	0.0	21.3	3.5	27.2	0.0	100.0 (116)
85~89세	30.1	5.7	11.2	1.9	1.0	16.2	6.1	27.8	0.0	100.0 (73)
90세 이상	32.3	7.6	35.2	6.8	0.0	3.2	2.5	12.3	0.0	100.0 (2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1.8	6.1	13.7	4.0	0.6	22.8	4.2	16.8	0.0	100.0 (263)
배우자 없음	24.9	7.3	16.9	3.9	1.0	17.4	5.4	23.3	0.0	100.0 (298)
가구형태										
노인독거	23.4	7.2	19.3	3.6	1.0	16.9	6.4	22.3	0.0	100.0 (224)
노인부부	31.3	6.6	14.7	4.3	0.5	22.8	3.4	16.5	0.0	100.0 (245)
자녀동거	32.6	6.0	8.2	3.0	1.4	18.6	5.1	25.1	0.0	100.0 (89)
기타	0.0	10.1	0.0	25.9	0.0	38.1	0.0	25.9	0.0	100.0 (3)
교육수준										
무학	25.5	5.8	16.9	5.2	0.6	18.9	6.1	20.9	0.0	100.0 (125)
초등학교	30.0	5.2	15.5	2.9	0.3	20.9	2.4	22.9	0.0	100.0 (196)
중학교	28.7	3.6	13.3	2.6	2.2	21.8	4.3	23.7	0.0	100.0 (98)
고등학교	27.9	12.5	15.6	6.1	0.9	17.9	5.8	13.3	0.0	100.0 (122)
전문대학 이상	25.5	8.4	13.6	0.0	0.0	19.6	16.8	16.0	0.0	100.0 (20)
현취업상태										
취업중	32.6	7.7	11.0	4.0	0.4	25.2	4.6	14.6	0.0	100.0 (140)
미취업	26.7	6.4	16.9	3.9	1.0	18.1	4.9	22.1	0.0	100.0 (42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2.1	5.8	20.5	5.9	0.5	11.6	2.9	30.6	0.0	100.0 (135)
제2오분위	29.0	4.9	17.1	2.5	0.0	19.3	3.7	23.5	0.0	100.0 (147)
제3오분위	38.0	7.7	12.5	2.5	0.9	26.3	3.9	8.1	0.0	100.0 (118)
제4오분위	19.0	7.0	16.5	5.8	1.4	21.6	8.3	20.3	0.0	100.0 (87)
제5오분위	32.6	10.2	5.8	3.3	2.1	24.1	8.0	13.9	0.0	100.0 (7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7.1	4.7	18.4	4.8	0.3	14.7	2.1	27.8	0.0	100.0 (256)
50%이상~100%미만	28.6	7.9	15.5	2.5	1.3	23.8	7.0	13.4	0.0	100.0 (176)
100%이상~150%미만	31.6	7.8	6.7	3.7	2.0	26.3	4.7	17.2	0.0	100.0 (76)
150%이상	26.5	11.2	13.0	4.9	0.0	22.8	10.9	10.6	0.0	100.0 (53)
기능상태										
제한 있음	26.1	5.3	16.5	3.1	0.7	15.6	6.6	26.1	0.0	100.0 (241)
제한 없음	29.7	7.8	14.6	4.6	0.9	23.2	3.5	15.8	0.0	100.0 (320)
2020년도	30.1	8.1	13.7	3.2	1.8	18.6	4.4	18.8	1.3	100.0 (731)

주: 1) 지난 1년간 낙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표 4-10〉 낙상 경험 장소(중복응답)

(단위: %)

특성	자택 화장실/욕실	자택 방 안	자택 부엌	자택 거실	계단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인도. 공원 등	대중 교통	의료 시설	상업 시설	기타
전체 ¹⁾²⁾³⁾	18.9	13.0	4.8	17.9	9.1	1.7	43.2	2.3	1.2	4.1	5.1
지역											
동부	19.8	12.2	5.3	16.8	8.9	2.3	46.2	2.1	0.7	5.7	2.1
읍·면부	16.7	14.9	3.6	20.4	9.6	0.3	36.3	2.7	2.3	0.5	12.2
성											
남자	20.7	8.5	3.8	18.5	7.7	3.0	48.0	2.2	0.7	4.7	3.0
여자	18.2	14.8	5.2	17.6	9.7	1.2	41.4	2.3	1.4	3.9	5.9
연령											
65~69세	12.3	9.7	2.1	17.1	11.5	6.1	43.9	4.3	0.0	4.6	2.0
70~74세	15.3	9.0	2.8	11.4	8.9	1.7	48.9	1.1	1.8	6.2	5.0
75~79세	21.4	9.9	7.4	17.7	6.9	0.5	43.9	3.0	0.6	6.3	7.4
80~84세	17.8	14.4	7.4	20.9	8.6	0.0	45.2	2.8	0.0	3.2	6.3
85~89세	26.2	27.2	4.7	21.8	11.2	0.0	30.7	0.0	2.6	0.0	3.8
90세 이상	38.1	13.7	5.2	27.5	5.2	0.0	37.7	0.0	6.8	0.0	7.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9	10.6	4.7	19.4	8.7	1.7	46.3	2.6	0.5	6.3	4.1
배우자 없음	20.6	15.2	5.0	16.5	9.5	1.7	40.6	2.0	1.8	2.2	6.0
가구형태											
노인독거	18.5	13.5	4.5	15.3	10.1	2.3	42.1	1.8	0.6	2.6	7.4
노인부부	15.1	10.6	4.2	20.8	8.5	1.8	48.0	2.8	0.6	5.9	4.4
자녀동거	31.1	17.6	7.7	16.5	8.9	0.0	31.1	2.2	4.3	3.3	1.4
기타	0.0	38.1	0.0	10.1	0.0	0.0	89.9	0.0	0.0	0.0	0.0
교육수준											
무학	24.4	19.6	6.4	22.2	8.8	0.0	31.9	0.0	3.6	1.9	10.5
초등학교	22.5	12.7	6.7	18.4	7.7	0.5	44.0	1.7	0.4	3.5	4.3
중학교	15.3	8.6	6.0	17.7	15.0	4.3	42.3	4.0	1.1	8.6	3.0
고등학교	11.6	10.8	0.1	12.5	8.1	3.7	50.5	4.4	0.3	4.5	2.5
전문대학 이상	11.9	9.7	0.0	19.2	2.6	0.0	67.2	0.0	0.0	0.0	5.6
현취업상태											
취업중	13.0	8.6	4.6	11.7	13.2	1.9	39.9	4.9	0.0	4.8	9.5
미취업	20.9	14.5	4.9	19.9	7.8	1.7	44.4	1.4	1.6	3.9	3.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3.1	14.1	7.5	16.0	10.7	3.0	40.9	1.4	2.0	1.6	7.5
제2오분위	20.5	16.7	4.1	22.0	4.9	1.4	42.6	1.5	0.4	2.3	5.0
제3오분위	19.2	11.7	2.4	17.9	8.5	1.6	46.7	0.4	1.2	8.7	4.5
제4오분위	10.6	11.2	4.0	16.3	7.6	0.0	50.2	6.9	2.2	5.1	3.2
제5오분위	17.5	7.9	6.4	14.9	17.4	2.3	35.1	2.9	0.0	4.0	4.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1.7	14.9	5.6	19.8	7.3	3.1	41.9	1.6	1.1	2.3	5.9
50%이상~100%미만	19.0	12.0	3.5	18.9	6.6	0.0	48.8	1.5	2.2	6.8	4.7
100%이상~150%미만	11.9	11.6	7.0	12.6	20.9	0.0	42.5	3.9	0.0	2.5	3.6
150%이상	15.2	9.4	2.6	13.0	9.4	3.2	32.5	5.6	0.0	6.6	4.6
기능상태											
제한 있음	15.3	9.8	3.6	15.0	10.0	1.1	44.1	3.6	0.3	4.3	5.6
제한 없음	23.7	17.3	6.5	21.6	8.0	2.6	42.1	0.5	2.4	3.9	4.4

주: 1) 지난 1년간 낙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2023년 신규 문항임.

4.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옷 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 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 노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 항목별 수행 정도를 완전 자립(1), 부분 도움(2), 완전 도움(3)의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항목별 완전자립 비율을 보면, 옷 입기 97.5%, 세수·양치질·머리감기 97.5%, 목욕 또는 샤워하기 94.6%, 차려 놓은 음식 먹기 94.1%,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97.7%,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98.4%, 대소변 조절하기 98.7%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수행능력 7개 항목의 완전자립률이 90% 중·후반대로 대부분 높게 나타났으며, 완전자립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대소변 조절하기 98.7%, 완전자립률이 가장 낮은 항목은 차려놓은 음식 먹기 94.1%이다. 반면, 목욕 또는 샤워하기는 완전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0.9%로 다른 항목에 비해 완전도움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1〉 일상생활수행능력 세부 항목별 분포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¹⁾	2020년 완전자립률
옷 입기 (옷 꺼내기, 단추·지퍼, 벨트 채우기)	97.5	2.1	0.4	100.0(10,078)	97.0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97.5	2.1	0.4	100.0(10,078)	96.9
목욕 또는 샤워하기 (욕조 드나들기, 때밀기, 샤워)	94.6	4.5	0.9	100.0(10,078)	95.0
차려 놓은 음식 먹기	94.1	5.4	0.5	100.0(10,078)	97.8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97.7	2.0	0.3	100.0(10,078)	97.4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98.4	1.3	0.3	100.0(10,078)	97.8
대소변 조절하기	98.7	1.0	0.2	100.0(10,078)	98.1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측정하는 7개 항목을 기준으로 도움이 필요한 항목의 수를 살펴보면,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립이 가능한 비율이 91.3%이며, 1개 도움 필요는 4.3%, 2개 도움 필요는 1.7%, 3개 0.7%, 4개 0.6%, 5개 0.5%, 6개 0.2%, 7개 모두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0.8%로 나타났다.

지역별 완전자립 노인 비율은 큰 차이가 없으며, 성별로는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완전자립률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낮아져 도움이 필요한 노인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완전자립률은 65~69세 97.6%, 70~74세 95.6%, 75~79세 91.6%로 80세 미만의 경우 90% 이상의 자립률을 보이는 반면, 80세 이후부터 기능 저하가 나타나 80~84세의 완전자립률이 84.6%, 85~89세 73.7%, 90세 이상은 55.7%로 감소하였다. 또한, 90세 이상 집단의 경우 7개 항목 모두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7.8%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무배우 노인이 유배우 노인보다 완전자립률이 낮았으며, 가구형태별로는 기타 가구에 속한 노인의 완전자립률이 94.9%로 다른 가구형태와 비교했을 때 높았으며, 자녀동거가구의 완전자립률은 83.5%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인 노인의 완전자립률이 77.9%로 가장 낮았으며 7개 항목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2.3%로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이 타 집단에 비해 매우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중인 경우 완전자립률이 98.2%로 대부분이 자립적인 생활을 수행하는 반면 미취업의 경우 86.8%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제한이 있는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며,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와 중위소득 50% 미만에 속한 노인 중 완전자립률은 각각 87.2%, 87.7%로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완전자립률이 100.0%였으며,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완전자립률은 52.9%에 불과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도움이 필요한 비율도 4.4%로 분석되었다.

〈표 4-12〉 일상생활수행능력

(단위: %, 명)

특성	완전 자립	1개 도움	2개 도움	3개 도움	4개 도움	5개 도움	6개 도움	7개 도움	계 (명)
전체 ¹⁾	91.3	4.3	1.7	0.7	0.6	0.5	0.2	0.8	100.0 (10,078)
지역									
동부	91.0	4.3	1.9	0.7	0.5	0.5	0.2	0.9	100.0 (7,450)
읍·면부	91.8	4.2	1.2	0.8	0.6	0.4	0.3	0.7	100.0 (2,628)
성									
남자	92.5	4.1	1.1	0.6	0.4	0.4	0.1	0.7	100.0 (4,429)
여자	90.3	4.5	2.1	0.8	0.7	0.5	0.3	0.9	100.0 (5,649)
연령									
65~69세	97.6	1.6	0.2	0.3	0.1	0.1	0.0	0.2	100.0 (3,473)
70~74세	95.6	2.3	0.7	0.4	0.2	0.2	0.3	0.4	100.0 (2,377)
75~79세	91.6	5.1	1.1	0.7	0.5	0.2	0.2	0.6	100.0 (1,743)
80~84세	84.6	7.8	3.3	1.1	1.1	0.5	0.2	1.5	100.0 (1,407)
85~89세	73.7	10.2	6.6	2.2	2.6	1.7	1.1	2.1	100.0 (825)
90세 이상	55.7	16.0	10.5	2.7	0.8	6.1	0.5	7.8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3.8	3.0	1.1	0.5	0.4	0.3	0.2	0.8	100.0 (6,047)
배우자 없음	87.4	6.3	2.5	1.0	0.9	0.7	0.3	0.9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89.1	5.9	1.9	1.0	0.7	0.4	0.3	0.6	100.0 (3,306)
노인부부	93.8	3.0	1.1	0.5	0.3	0.3	0.2	0.7	100.0 (5,562)
자녀동거	83.5	6.5	4.3	0.8	1.1	1.3	0.4	2.2	100.0 (1,035)
기타	94.9	1.6	1.0	0.0	2.0	0.6	0.0	0.0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77.9	8.7	5.5	1.8	2.1	1.1	0.6	2.3	100.0 (1,240)
초등학교	88.5	5.5	2.3	0.9	0.5	0.6	0.4	1.2	100.0 (2,846)
중학교	93.8	3.6	0.8	0.7	0.4	0.3	0.1	0.4	100.0 (2,139)
고등학교	96.0	2.6	0.5	0.2	0.1	0.3	0.1	0.2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96.8	1.7	0.6	0.0	0.3	0.0	0.0	0.5	100.0 (707)
현취업상태									
취업중	98.2	1.6	0.1	0.0	0.0	0.0	0.0	0.0	100.0 (3,931)
미취업	86.8	6.0	2.7	1.1	0.9	0.7	0.4	1.4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7.2	6.3	2.0	0.8	0.9	1.0	0.5	1.3	100.0 (2,014)
제2오분위	88.5	5.4	2.5	1.3	0.5	0.6	0.3	0.8	100.0 (2,014)
제3오분위	92.0	3.4	1.8	0.8	0.6	0.2	0.1	1.1	100.0 (2,014)
제4오분위	93.2	3.6	1.0	0.6	0.4	0.4	0.2	0.5	100.0 (2,020)
제5오분위	95.4	2.7	1.0	0.0	0.3	0.1	0.0	0.4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7.7	5.9	2.3	1.1	0.9	0.7	0.4	1.1	100.0 (3,776)
50%이상~100%미만	92.0	3.8	1.7	0.6	0.4	0.3	0.2	0.8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92.7	3.5	1.3	0.6	0.4	0.5	0.1	0.8	100.0 (1,673)
150%이상	96.1	2.6	0.7	0.2	0.2	0.0	0.0	0.2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52.9	23.1	9.0	3.8	3.0	2.4	1.2	4.4	100.0 (1,873)
제한 없음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8,205)
2020년도	94.4	1.6	1.0	0.5	0.3	0.4	0.3	1.4	10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마찬가지로 노인이 자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파악하는 문항은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먹기, 금전 관리, 근거리 외출하기, 물건 구매 결정·돈 지불·거스름돈 받기,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10개 항목 항목으로 구성된다.

항목별 완전자립 비율을 살펴보면, 몸단장 96.8%, 집안일 91.3%, 식사준비 86.6%, 빨래 90.8%,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먹기 96.8%, 금전 관리 92.9%, 근거리 외출하기 93.7%, 물건 구매 결정·돈 지불·거스름돈 받기 95.0%, 전화 걸고 받기 96.4%, 교통수단 이용하기 90.3%로 나타났다.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관한 항목 중 식사준비를 제외한 항목의 완전 자립 비율이 90%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교통수단 이동하기 등 신체적 체력을 요구하는 항목이 타 항목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2017년도 결과와 비교하여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교통수단 이용하기 수행능력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분포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¹⁾	2020년 완전자립률
		적은 부분도움	많은 부분도움			
몸단장 (빗질, 화장, 면도, 손톱·발톱 깎기)	96.8	2.9		0.3	100.0(10,078)	96.6
집안일 (실내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단정리정돈 등)	91.3	6.9		1.8	100.0(10,078)	93.1
식사준비 (음식재료준비, 요리, 상차리기)	86.6	10.9		2.4	100.0(10,078)	92.1
빨래 (손이나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90.8	6.9		2.3	100.0(10,078)	93.2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96.8	2.6		0.5	100.0(10,078)	96.5
금전 관리 (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	92.9	5.7		1.4	100.0(10,078)	93.6
근거리 외출하기 (가까운 거리 걸어서)	93.7	4.8		1.5	100.0(10,078)	94.6
물건 구매 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95.0	3.3	1.0	0.7	100.0(10,078)	95.4
전화 걸고 받기	96.4	2.5	0.7	0.5	100.0(10,078)	96.0
교통수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개인 차)	90.3	5.9	2.3	1.5	100.0(10,078)	92.1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0개 항목 중 도움(부분도움, 완전 도움)이 필요한 항목 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노인 중 81.4%가 10개 항목 모두에 대한 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0년의 88.0%보다는 낮아진 수치이다. 1~2개 항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은 8.4%, 3~4개 4.5%, 5~6개 2.1%, 7~8개 1.5%, 9~10개 2.1%로 나타났다.

지역별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립률이 낮게 나타났다. 즉, 65~69세의 자립률은 92.5%이지만, 80~84세는 69.6%, 85~89세 53.3%, 90세 이상은 28.5%로 80세 이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9~10개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85~89세 8.5%, 90세 이상 16.4%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완전 자립률이 75.5%로 유배우 노인(85.3%)보다 전반적인 기능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형태에서는 부부가구(85.5%)와 기타 가구(82.8%)에 비해 독거가구(77.9%), 자녀동거가구(70.3%)의 완전 자립률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9~10개 항목의 수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5.9%로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인 노인의 완전 자립률이 58.6%로 다른 교육수준 집단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현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의 완전 자립률이 75.0%로 취업 노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연가구소득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인 제1오분위의 완전 자립률 74.7%로 가장 낮았으며, 중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집단이 7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있어 1~2개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45.2%, 3~4개 항목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24.1%, 5~6개는 11.5%, 7~8개는 8.0%, 9~10개는 11.3%로 나타났다.

〈표 4-14〉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단위: %, 명)

특성	완전 자립	1~2개 도움	3~4개 도움	5~6개 도움	7~8개 도움	9~10개 도움	계 (명)
전체 ¹⁾	81.4	8.4	4.5	2.1	1.5	2.1	100.0 (10,078)
지역							
동부	81.3	8.5	4.5	2.2	1.5	2.0	100.0 (7,450)
읍·면부	81.6	8.1	4.4	2.0	1.5	2.4	100.0 (2,628)
성							
남자	82.8	8.8	4.1	1.8	0.9	1.7	100.0 (4,429)
여자	80.3	8.1	4.8	2.4	2.0	2.4	100.0 (5,649)
연령							
65~69세	92.5	4.8	1.7	0.5	0.2	0.3	100.0 (3,473)
70~74세	87.5	6.8	3.0	1.1	0.5	1.1	100.0 (2,377)
75~79세	81.6	10.1	3.9	2.0	1.2	1.2	100.0 (1,743)
80~84세	69.6	12.9	7.5	4.6	2.3	3.1	100.0 (1,407)
85~89세	53.3	15.6	12.1	5.0	5.5	8.5	100.0 (825)
90세 이상	28.5	12.3	18.2	12.0	12.5	16.4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5.3	7.0	3.6	1.5	0.9	1.6	100.0 (6,047)
배우자 없음	75.5	10.4	5.8	3.1	2.3	2.8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77.9	10.4	5.4	2.6	1.8	1.9	100.0 (3,306)
노인부부	85.5	7.0	3.6	1.5	0.9	1.5	100.0 (5,562)
자녀동거	70.3	8.7	6.9	4.3	3.9	5.9	100.0 (1,035)
기타	82.8	13.0	0.9	1.4	0.5	1.4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58.6	17.4	7.4	5.1	4.5	7.0	100.0 (1,240)
초등학교	77.5	9.7	5.8	3.0	1.7	2.3	100.0 (2,846)
중학교	85.5	7.1	3.5	1.7	1.1	1.2	100.0 (2,139)
고등학교	89.3	5.3	3.2	0.9	0.5	0.8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89.6	5.1	2.8	0.6	0.6	1.3	100.0 (707)
현취업상태							
취업중	91.5	5.8	2.2	0.2	0.3	0.0	100.0 (3,931)
미취업	75.0	10.1	5.9	3.4	2.3	3.4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4.7	10.7	6.2	3.1	2.2	3.1	100.0 (2,014)
제2오분위	76.6	11.8	5.5	1.8	1.5	2.8	100.0 (2,014)
제3오분위	82.7	7.6	3.7	2.1	1.7	2.2	100.0 (2,014)
제4오분위	83.9	7.1	4.3	2.1	1.2	1.4	100.0 (2,020)
제5오분위	89.1	4.9	2.7	1.5	0.9	1.0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5.1	11.2	6.0	3.0	1.8	3.0	100.0 (3,776)
50%이상~100%미만	82.3	7.9	4.2	1.6	1.8	2.2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84.7	7.3	3.5	1.5	1.4	1.6	100.0 (1,673)
150%이상	90.1	4.5	2.7	1.7	0.4	0.5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0.0	45.2	24.1	11.5	8.0	11.3	100.0 (1,873)
제한 없음	100.0	0.0	0.0	0.0	0.0	0.0	100.0 (8,205)
2020년도	88.0	4.3	2.5	1.4	1.2	2.7	10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제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노인 중 81.4%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립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만 제한이 있는 노인은 9.8%이며,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제한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 비율은 8.7%로 분석되었다.

일반특성별로 신체기능 자립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에 따른 노인의 기능상태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여자 노인보다 남자 노인이 신체기능의 자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일상생활 수행의 자립도는 낮아지며, 특히 85~89세 이상 노인에서 기능 제한이 없는 비율이 53.3%로 급격하게 저하되고, 90세 이상의 경우 28.5%만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5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일상생활수행능력까지 제한 있는 비율이 20%를 초과하며, 90세 이상 노인의 44.3%는 ADL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이 신체기능 자립률이 낮았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와 자녀동거가구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신체기능 자립률을 보였다. 가구형태에서 독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10.9%, 자녀동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16.5%가 ADL 수행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신체 기능에 제한이 없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무학인 집단은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만 제한이 있는 비율이 19.3%, 일상생활수행능력까지 제한이 있는 비율은 22.1%로 타 교육수준 집단과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취업상태별로 보면, 취업중인 노인의 신체기능 자립률이 91.5%로 미취업 중인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신체기능의 자립률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가구소득이 제1오분위인 집단, 그리고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집단의 신체기능 자립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5〉 기능상태 제한 현황

(단위: %, 명)

특성	기능제한 없음	IADL만 제한	ADL도 제한	계 (명)
전체 ¹⁾	81.4	9.8	8.7	100.0 (10,078)
지역				
동부	81.3	9.7	9.0	100.0 (7,450)
읍·면부	81.6	10.2	8.2	100.0 (2,628)
성				
남자	82.8	9.7	7.5	100.0 (4,429)
여자	80.3	9.9	9.7	100.0 (5,649)
연령				
65~69세	92.5	5.1	2.4	100.0 (3,473)
70~74세	87.5	8.1	4.4	100.0 (2,377)
75~79세	81.6	10.0	8.4	100.0 (1,743)
80~84세	69.6	15.0	15.4	100.0 (1,407)
85~89세	53.3	20.4	26.3	100.0 (825)
90세 이상	28.5	27.2	44.3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5.3	8.5	6.2	100.0 (6,047)
배우자 없음	75.5	11.9	12.6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77.9	11.3	10.9	100.0 (3,306)
노인부부	85.5	8.3	6.2	100.0 (5,562)
자녀동거	70.3	13.2	16.5	100.0 (1,035)
기타	82.8	12.1	5.1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58.6	19.3	22.1	100.0 (1,240)
초등학교	77.5	11.0	11.5	100.0 (2,846)
중학교	85.5	8.3	6.2	100.0 (2,139)
고등학교	89.3	6.7	4.0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89.6	7.2	3.2	100.0 (707)
현취업상태				
취업중	91.5	6.7	1.8	100.0 (3,931)
미취업	75.0	11.8	13.2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4.7	12.5	12.8	100.0 (2,014)
제2오분위	76.6	11.9	11.5	100.0 (2,014)
제3오분위	82.7	9.3	8.0	100.0 (2,014)
제4오분위	83.9	9.3	6.8	100.0 (2,020)
제5오분위	89.1	6.2	4.6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5.1	12.6	12.3	100.0 (3,776)
50%이상~100%미만	82.3	9.8	8.0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84.7	8.1	7.3	100.0 (1,673)
150%이상	90.1	5.9	3.9	100.0 (1,828)
2020년도	87.8	6.6	5.6	10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5. 인지기능

인지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 2판(Korean-Mini-Mental State Examination, 2nd Edition: K-MMSE~2) 표준형을 사용하였다. K-MMSE~2 표준형은 0~30점의 범위를 가지며,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보정된 변환 점수(T 점수)를 기준으로 일정 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치매가 의심되는 ‘인지저하자’로 판정하게 된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노인의 K-MMSE~2 원점수 평균은 24.6점이며, 연령과 교육수준을 반영한 T점수 평균은 42.7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인지저하자는 전체 노인의 24.6%로 2020년 25.3%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에서는 읍·면부 노인의 인지저하자 비율은 28.7%로 동부 노인(23.2%)보다 높았으며, 여자 노인(26.4%)이 남자 노인(22.3%)보다 인지저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 인지저하자 비율을 보면, 90세 이상 노인의 32.4%가 인지저하자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80~84세 29.5%, 85~89세 25.1%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독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인지저하율이 2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동거가구 24.4%, 부부가구 23.2%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무학인 노인 중 인지저하자는 31.3%에 이르며, 초등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자는 각각 24.6%, 24.7%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에서는 미취업 노인의 26.7%, 취업 중인 노인의 21.4%가 인지 저하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가구소득 수준에서는 제2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28.6%가 인지 저하자로 구분되며, 제5오분위는 21.0%로 가장 낮았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인지저하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기능상태별로는 신체적 기능 제한 있는 노인의 인지저하자의 비율은 35.8%로 제한이 없는 노인의 인지저하자 비율(22.2%)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16〉 K-MMSE~2 진단검사 결과

(단위: 점, %, 명)

특성	평균 점수 ²⁾	변환 점수 평균 ³⁾	인지 저하자	응답자 수
전체 ¹⁾	24.6	42.7	24.6	(9,955)
지역				
동부	25.2	43.4	23.2	(7,359)
읍·면부	23.0	40.7	28.7	(2,596)
성				
남자	25.5	43.6	22.3	(4,384)
여자	23.9	42.0	26.4	(5,571)
연령				
65~69세	26.3	43.6	22.7	(3,465)
70~74세	25.4	43.1	23.6	(2,362)
75~79세	24.2	42.4	24.6	(1,729)
80~84세	22.6	41.5	29.5	(1,379)
85~89세	21.1	42.1	25.1	(781)
90세 이상	19.3	36.5	32.4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5.3	43.5	22.8	(5,987)
배우자 없음	23.5	41.5	27.4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23.6	41.3	27.7	(3,281)
노인부부	25.3	43.3	23.2	(5,509)
자녀동거	24.3	43.5	24.4	(993)
기타	26.1	46.0	12.4	(172)
교육수준				
무학	19.2	40.1	31.3	(1,184)
초등학교	23.9	42.4	24.6	(2,810)
중학교	25.5	44.3	22.0	(2,127)
고등학교(전문대학 포함)	26.1	42.6	24.7	(3,132)
대학교(4년제) 이상	27.5	44.7	19.3	(701)
현취업상태				
취업중	25.6	44.5	21.4	(3,926)
미취업	24.0	41.5	26.7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3.3	41.6	25.9	(1,989)
제2오분위	23.5	40.7	28.6	(1,983)
제3오분위	24.8	42.8	25.0	(1,981)
제4오분위	25.4	43.6	22.6	(2,007)
제5오분위	26.1	44.7	21.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3.4	41.2	26.9	(3,722)
50%이상~100%미만	24.7	42.7	25.6	(2,759)
100%이상~150%미만	25.6	44.0	22.0	(1,657)
150%이상	26.2	44.6	20.9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25.2	43.9	35.8	(1,759)
제한 없음	21.9	37.3	22.2	(8,196)
2020년도 ⁴⁾	24.5	—	25.3	(9,887)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응답자의 연령과 교육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원점수를 의미함.

3) 응답자의 연령과 교육수준을 보정하여 변환된 T점수를 의미함.

4) 2020년(MMSE-DS)과 2023년(K-MMSE~2)의 인지기능 측정도구가 달라 직접 비교에 주의가 필요함.

6. 장애등급

전체 응답자의 4.0%가 장애판정을 받았으며, 장애 판정을 받은 노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1~3등급)를 가진 노인은 22.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6등급)를 가진 노인은 77.9%로 나타났다.

일반 특성별 장애 판정률을 보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이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비해 장애 판정을 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애 판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 장애 판정을 받은 비율은 65~69세 노인의 3.0%였지만, 85~89세 6.7%, 90세 이상 5.7%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기타 가구에 속한 노인의 장애 판정률은 5.3%, 독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4.9%가 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무학인 노인의 장애 판정률이 7.6%로 가장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장애 판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노인의 장애 판정률은 2.3%, 미취업 노인의 장애 판정률은 5.1%로 취업중인 노인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장애판정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며,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장애 판정률이 10.7%로 제한이 없는 경우(2.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 현황을 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장애 판정률은 읍·면부 거주 노인에 비해 낮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노인 비율은 동부 거주 노인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남자 노인의 경우 여자 노인에 비해 장애 정도가 심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27.6%)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15.4%)에 비해 장애 정도가 심한 비율이 높으며,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경우 장애 판정을 받은 10.7%의 노인 중 29.3%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표 4-17〉 장애 판정률 및 장애정도

(단위: %, 명)

특성	장애 판정률	장애 정도 ²⁾³⁾		
		심한 장애인(1~3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계 (명)
전체 ¹⁾	4.0	22.1	77.9	100.0 (407)
지역				
동부	3.6	24.4	75.6	100.0 (267)
읍·면부	5.3	17.6	82.4	100.0 (140)
성				
남자	5.0	25.6	74.4	100.0 (223)
여자	3.3	17.8	82.2	100.0 (184)
연령				
65~69세	3.0	27.6	72.4	100.0 (105)
70~74세	3.5	27.5	72.5	100.0 (84)
75~79세	4.7	24.0	76.0	100.0 (82)
80~84세	4.7	16.5	83.5	100.0 (67)
85~89세	6.7	10.2	89.8	100.0 (55)
90세 이상	5.7	11.1	88.9	100.0 (1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7	27.6	72.4	100.0 (223)
배우자 없음	4.6	15.4	84.6	100.0 (184)
가구형태				
노인독거	4.9	13.3	86.7	100.0 (161)
노인부부	3.6	28.0	72.0	100.0 (203)
자녀동거	3.3	24.3	75.7	100.0 (34)
기타	5.3	35.0	65.0	100.0 (9)
교육수준				
무학	7.6	22.0	78.0	100.0 (95)
초등학교	4.6	18.9	81.1	100.0 (130)
중학교	3.9	23.9	76.1	100.0 (83)
고등학교	2.5	20.9	79.1	100.0 (80)
전문대학 이상	2.7	40.7	59.3	100.0 (19)
현취업상태				
취업중	2.3	13.7	86.3	100.0 (92)
미취업	5.1	24.5	75.5	100.0 (31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	19.6	80.4	100.0 (106)
제2오분위	5.1	20.9	79.1	100.0 (102)
제3오분위	5.0	23.8	76.2	100.0 (101)
제4오분위	2.8	23.3	76.7	100.0 (57)
제5오분위	2.0	25.5	74.5	100.0 (4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0	22.3	77.7	100.0 (190)
50%이상~100%미만	4.7	19.4	80.6	100.0 (131)
100%이상~150%미만	3.4	24.3	75.7	100.0 (56)
150%이상	1.6	28.1	71.9	100.0 (30)
기능상태				
제한 있음	10.7	29.3	70.7	100.0 (200)
제한 없음	2.5	15.1	84.9	100.0 (208)
2020년도	4.6	23.2	76.8	100.0 (464)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장애판정을 받았다고 응답한 4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3)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응답한 407명의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체장애가 5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청각장애(19.7%), 시각장애(10.1%), 뇌병변장애(5.2%), 신장장애(2.9%), 심장장애(2.0%), 뇌전증장애(1.5%), 언어장애(0.9%), 호흡기장애(0.9%), 정신장애(0.6%), 지적장애(0.1%), 안면장애(0.1%), 장루·요루장애(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8〉 장애판정 노인의 주 장애 유형

(단위: %)

주 장애 유형 ¹⁾²⁾	비율	주 장애 유형	비율
전체	100.0	정신장애	0.6
장애유형		신장장애	2.9
지체장애	55.9	심장장애	2.0
뇌병변장애	5.2	호흡기장애	0.9
시각장애	10.1	간장애	0.2
청각장애	19.7	안면장애	0.1
언어장애	0.9	장루·요루장애	0.0
지적장애	0.1	뇌전증장애	1.5
자폐성장애	0.0		

주: 1) 장애판정을 받았다고 응답한 4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제2절 돌봄 실태

1. 보호 실태

노인의 돌봄 수급 현황과 돌봄제공자에 대한 문항은 전체 응답자 중 ADL과 IADL의 총 17개 항목 중 1개 이상 부분 또는 완전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질문했다. 전체 응답자 중 ADL과 IADL의 총 17개 항목 중 1개 이상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8.6%이며, 이들 중 가족, 친인척, 간병인 등 돌봄을 받고 있는 비율은 47.2%로 나타났다. 돌봄제공자의 특성으로 동거 가족원(49.6%)과 비동거 가족원(46.5%) 비율이 높았으며, 장기요양보험서비스 30.7%, 친척·이웃·친구·지인 20.0%, 개인간병인·가사도우미 1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7%, 그 외 공적 돌봄서비스 4.5%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특성별 돌봄 수급률과 돌봄제공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동부 지역 돌봄수급률이 45.3%로 읍·면부 노인이 52.8%에 비해 낮았으며,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률(36.9%)이 동부 노인(28.2%)에 비해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의 돌봄 수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 노인의 경우 동거 가족원의 돌봄 수급률이 67.6%로 매우 높은 반면, 여자 노인은 40.7%로 낮게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85세 이상에서 돌봄 수급률이 60% 내외로 증가하였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과 개인간병인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 중 유배우 노인의 38.9%가 돌봄을 받고 있으며, 무배우 노인은 54.7%가 돌봄을 받고 있다. 또한, 배우자 있는 노인의 경우 주로 가족원에 의해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무배우 노인의 경우 비동거 가족원(53.0%)이나 장기요양보험서비스(37.7%)의 도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자녀동거가구의 돌봄 수급률이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에서는 동거 가족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독거가구는 비동거 가구원(63.1%)과 장기요양보험서비스(40.1%)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돌봄수급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며, 이는 노인의 성별, 연령, 가구형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9〉 돌봄 수급 여부 및 돌봄 제공자(중복응답)

(단위: %, 명)

특성	돌봄 수급률 ¹⁾	돌봄제공 ²⁾³⁾								(명)
		가족원			친척,이웃· 친구·지인	개인간병인, 가사도우미	장기요양 보험서비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그 외 공적 돌봄서비스	
		소계	동거	비동거						
전체	47.2	81.4	49.6	46.5	20.0	11.0	30.7	4.7	4.5	(885)
지역										
동부	45.3	83.4	50.7	48.0	19.2	11.0	28.2	4.7	5.4	(630)
읍·면부	52.8	76.4	46.8	42.7	22.0	10.8	36.9	4.9	2.2	(255)
성										
남자	38.2	87.6	67.6	35.0	13.9	9.0	20.0	4.9	3.4	(291)
여자	53.4	78.4	40.7	52.1	23.0	11.9	36.0	4.6	5.0	(593)
연령										
65~69세	25.4	76.1	58.4	26.2	16.6	5.2	19.2	3.3	2.6	(66)
70~74세	36.2	84.5	70.9	31.0	16.4	8.5	17.3	2.9	3.3	(108)
75~79세	43.5	84.3	58.6	41.3	17.0	6.9	18.0	3.1	1.8	(140)
80~84세	48.9	83.9	45.6	53.5	22.5	11.8	31.9	6.7	3.8	(209)
85~89세	66.7	75.8	39.9	48.5	22.1	10.9	39.8	4.0	7.7	(257)
90세 이상	58.2	86.6	41.8	63.2	20.0	20.8	44.0	7.5	3.9	(10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8.9	95.2	86.5	36.4	10.0	8.3	19.7	3.1	1.2	(345)
배우자 없음	54.7	72.6	26.0	53.0	26.4	12.6	37.7	5.8	6.6	(540)
가구형태										
노인독거	53.3	63.1	0.0	63.1	28.3	14.4	40.1	7.3	9.1	(390)
노인부부	38.1	94.6	85.3	39.3	10.2	8.7	20.5	3.5	1.3	(306)
자녀동거	57.0	97.8	93.7	24.2	16.4	8.2	28.9	1.6	0.0	(175)
기타	45.6	100.0	96.7	21.7	49.4	0.0	13.6	0.0	0.0	(14)
교육수준										
무학	57.4	73.3	34.9	48.5	22.6	12.7	40.5	7.0	5.9	(295)
초등학교	50.9	83.9	51.9	49.2	21.9	10.0	26.6	3.9	5.0	(326)
중학교	41.7	86.4	57.6	48.1	16.5	10.0	23.4	3.1	2.8	(129)
고등학교	33.0	88.7	67.1	35.9	14.5	11.3	27.5	4.2	2.0	(111)
전문대학 이상	32.6	87.0	74.6	25.3	6.6	5.0	20.7	0.0	0.0	(24)
현취업상태										
취업중	22.9	80.8	51.8	41.2	24.9	1.3	1.6	7.0	3.7	(77)
미취업	52.5	81.5	49.4	47.0	19.5	11.9	33.5	4.5	4.5	(80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4	66.1	19.4	54.6	22.3	14.4	40.6	6.8	6.8	(272)
제2오분위	45.7	80.4	41.0	52.1	19.9	8.3	34.9	6.0	5.0	(216)
제3오분위	50.9	91.8	69.0	45.9	14.7	9.1	22.2	3.6	4.3	(177)
제4오분위	41.4	91.5	77.6	30.3	22.0	7.5	21.8	1.3	2.0	(134)
제5오분위	39.3	95.4	82.7	33.5	20.7	16.0	19.9	2.7	0.0	(8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9.1	74.5	37.7	50.3	20.1	11.8	35.9	6.0	4.8	(461)
50%이상~100%미만	52.8	87.0	59.5	42.5	15.2	6.7	26.5	3.6	4.0	(262)
100%이상~150%미만	40.6	93.7	72.3	39.4	25.8	11.1	23.5	1.9	6.9	(104)
150%이상	31.8	90.0	58.3	47.2	30.4	22.9	21.2	4.9	0.0	(57)
2020년도	55.0	87.4	74.5	39.3	15.3	4.2	19.1	10.7		(678)

주: 1) 전체응답자 중 1개 이상의 ADL/IADL에서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이 필요한 1,873명을 대상으로 함.

2) ADL/IADL 중 1개이상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이 필요한 1,873명 중 돌봄을 받고 있는 885명을 대상으로 함.

3)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돌봄 빈도 및 돌봄제공자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의한 청소·빨래·시장보기 등 가사활동 도움 빈도를 살펴보면, 도움을 받지 않음이 11.7%, 주 4회 이상 29.1%, 주 2~3회 23.8%, 주 1회 19.8%, 월 2~3회 10.7%, 월 1회 4.9%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이 읍·면부 거주 노인보다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이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남자 노인은 주 4회 이상을 도움을 받는 비율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 형태에서는 부부가구에서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이 14.0%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가구가 2.6%로 가장 낮았다. 독거가구는 주 1회(25.3%)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는 주 4회 이상 도움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인 경우 도움을 받는 비율이 90.3%로 취업 중인 노인보다 높았다.

청소·빨래·시장보기 등의 도움 제공은 주로 배우자(29.3%)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딸(18.4%),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15.3%), 장남의 배우자(10.1%), 장남(6.7%) 등의 순으로 제공되고 있다. 동부 거주 노인의 경우 읍·면부 거주 노인보다 딸에 의한 가사 지원 비율이 높았으며, 읍·면부 거주 노인은 동부 거주 노인에 비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자 노인은 여자 노인보다 배우자에 의한 가사 지원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여자 노인은 딸에 의한 도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배우자에 의한 가사 돌봄 비율은 감소하고, 장남의 배우자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에 의한 가사 돌봄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독거가구의 경우 딸(27.1%)과 사회복지관련 종사자(26.5%)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에 의한 도움 제공이 68.0%에 달했으며, 자녀동거가구는 딸(24.9%)과 장남 배우자(23.3%)에 의한 도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의한 가사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딸과 사회복지 종사자에 의한 가사지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취업상태에서도 취업 중인 경우 배우자에 의한 가사지원이 높았으며, 이에 비해 미취업인 경우 배우자에 의한 가사지원이 다소 낮아지며, 장남, 장남의 배우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에 의한 가사지원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가족, 친척, 이웃 등 비공식 돌봄: 청소·빨래·시장보기 도움 빈도

(단위: %, 명)

특성	도움받지않음	주 4회 이상	주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계 (명)
전체 ¹⁾²⁾	11.7	29.1	23.8	19.8	10.7	4.9	100.0 (764)
지역							
동부	9.8	28.3	25.6	20.5	11.1	4.8	100.0 (544)
읍·면부	16.3	31.1	19.2	18.2	9.8	5.3	100.0 (219)
성							
남자	13.5	35.9	21.4	18.6	6.9	3.6	100.0 (271)
여자	10.6	25.4	25.1	20.5	12.7	5.6	100.0 (493)
연령							
65~69세	26.8	29.6	14.1	22.1	7.4	0.0	100.0 (57)
70~74세	13.7	38.1	23.9	9.3	8.6	6.3	100.0 (99)
75~79세	17.5	25.4	19.5	23.6	9.8	4.2	100.0 (120)
80~84세	7.7	23.6	27.2	23.9	10.8	6.7	100.0 (183)
85~89세	11.3	29.6	21.8	19.6	11.8	5.8	100.0 (211)
90세 이상	1.3	33.5	32.7	17.4	13.2	1.9	100.0 (9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3.8	36.0	23.1	18.0	4.8	4.2	100.0 (330)
배우자 없음	10.0	23.8	24.3	21.3	15.1	5.4	100.0 (434)
가구형태							
노인독거	12.7	14.3	20.2	25.3	20.2	7.2	100.0 (287)
노인부부	14.0	34.0	23.2	18.4	5.5	4.8	100.0 (291)
자녀동거	6.6	43.3	32.1	14.7	1.9	1.4	100.0 (172)
기타	2.6	55.7	5.8	0.0	32.1	3.9	100.0 (14)
교육수준							
무학	12.0	29.5	23.4	20.8	8.2	6.0	100.0 (232)
초등학교	9.1	25.3	23.1	22.5	14.1	5.8	100.0 (292)
중학교	19.3	29.0	22.6	13.3	12.1	3.8	100.0 (115)
고등학교	9.0	35.7	29.4	17.4	7.4	1.1	100.0 (102)
전문대학 이상	14.4	44.7	16.0	19.2	0.0	5.7	100.0 (22)
현취업상태							
취업중	29.8	15.9	13.7	16.6	14.0	10.0	100.0 (73)
미취업	9.7	30.5	24.9	20.2	10.3	4.4	100.0 (69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4	27.7	21.6	19.4	14.2	4.7	100.0 (204)
제2오분위	11.6	26.1	18.4	22.3	12.3	9.3	100.0 (182)
제3오분위	15.4	27.5	22.1	22.4	9.4	3.3	100.0 (163)
제4오분위	6.8	30.9	37.5	12.0	9.5	3.3	100.0 (131)
제5오분위	10.5	39.4	22.7	22.9	2.8	1.8	100.0 (8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3.4	28.2	22.6	19.4	10.9	5.5	100.0 (373)
50%이상~100%미만	9.3	29.3	25.0	19.5	12.1	4.8	100.0 (235)
100%이상~150%미만	10.5	30.2	22.0	23.8	8.8	4.8	100.0 (101)
150%이상	12.3	32.2	29.7	17.1	6.7	1.9	100.0 (55)
2020년도	8.1	51.5	18.8	15.4	2.8 ³⁾	3.3	100.0 (603)

주: 1) 돌봄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885명 중 가족, 친척,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764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2020년 '격주 1회'인 응답값으로 2023년 '월 2~3회'와는 응답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는 불가능함.

〈표 4-21〉 비공식 돌봄: 청소·빨래·시장보기 도움제공자

(단위: %, 명)

특성	도움 받지 않음	배우자	장남	장남 배우자	차남 이하	차남 이하 배우자	딸	딸 배우자	친척	비혈연 동거인	친구 및 이웃	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	기타	계 (명)
전체 ¹⁾²⁾	11.7	29.3	6.7	10.1	2.5	0.8	18.4	0.0	1.7	0.2	3.5	15.3	0.0	100.0 (764)
지역														
동부	9.8	29.3	7.3	10.9	1.9	0.8	19.7	0.0	2.1	0.3	3.5	14.5	0.0	100.0 (544)
읍·면부	16.3	29.1	5.2	8.0	4.0	0.7	15.1	0.0	0.7	0.0	3.6	17.2	0.0	100.0 (219)
성														
남자	13.5	56.5	0.4	5.8	0.5	0.2	10.0	0.0	1.6	0.5	2.0	9.1	0.0	100.0 (271)
여자	10.6	14.3	10.2	12.4	3.6	1.1	23.0	0.0	1.7	0.0	4.4	18.7	0.0	100.0 (493)
연령														
65~69세	26.8	52.6	0.0	0.0	3.2	0.0	4.8	0.0	5.4	0.0	3.2	4.0	0.0	100.0 (57)
70~74세	13.7	58.6	3.7	0.0	0.5	0.0	12.7	0.0	1.2	0.9	2.8	5.8	0.0	100.0 (99)
75~79세	17.5	42.0	3.2	2.6	1.9	0.4	23.9	0.0	1.6	0.0	0.4	6.6	0.0	100.0 (120)
80~84세	7.7	25.8	9.2	10.3	1.8	0.3	25.5	0.0	0.7	0.2	4.2	14.3	0.0	100.0 (183)
85~89세	11.3	13.6	10.2	11.6	4.2	1.0	16.4	0.0	1.9	0.0	6.0	23.8	0.0	100.0 (211)
90세 이상	1.3	9.6	5.8	32.4	2.5	2.8	16.0	0.0	1.6	0.0	1.7	26.2	0.0	100.0 (9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3.8	67.7	1.3	1.1	0.5	0.2	7.2	0.0	0.4	0.0	0.1	7.6	0.0	100.0 (330)
배우자 없음	10.0	0.0	10.8	16.9	4.0	1.2	26.8	0.0	2.7	0.3	6.1	21.1	0.0	100.0 (434)
가구형태														
노인독거	12.7	0.6	7.9	11.5	2.8	0.3	27.1	0.0	1.3	0.3	9.0	26.5	0.0	100.0 (287)
노인부부	14.0	68.0	1.0	1.2	0.5	0.2	6.3	0.0	0.4	0.0	0.2	8.1	0.0	100.0 (291)
자녀동거	6.6	11.5	15.1	23.3	5.4	2.6	24.9	0.0	0.2	0.0	0.4	10.0	0.0	100.0 (172)
기타	2.6	29.6	0.0	0.0	0.0	0.0	9.6	0.0	55.0	3.3	0.0	0.0	0.0	100.0 (14)
교육수준														
무학	12.0	11.9	6.8	17.2	3.5	1.5	19.5	0.0	0.8	0.2	5.0	21.5	0.0	100.0 (232)
초등학교	9.1	28.9	8.5	9.9	1.7	0.8	20.0	0.0	2.4	0.3	4.2	14.0	0.0	100.0 (292)
중학교	19.3	44.1	1.3	1.7	1.7	0.0	16.2	0.0	3.5	0.0	0.4	11.8	0.0	100.0 (115)
고등학교	9.0	45.6	8.4	4.8	3.7	0.0	15.7	0.0	0.0	0.0	1.4	11.5	0.0	100.0 (102)
전문대학 이상	14.4	64.3	2.1	4.0	0.0	0.0	7.7	0.0	0.0	0.0	4.6	2.8	0.0	100.0 (22)
현취업상태														
취업중	29.8	39.9	2.3	2.3	0.8	0.0	17.9	0.0	0.5	0.0	4.2	2.3	0.0	100.0 (73)
미취업	9.7	28.1	7.2	10.9	2.7	0.9	18.4	0.0	1.8	0.2	3.5	16.7	0.0	100.0 (69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4	15.9	6.4	13.8	3.8	0.6	19.8	0.0	1.4	0.5	3.8	21.7	0.0	100.0 (204)
제2오분위	11.6	29.4	6.5	6.3	0.6	0.0	22.0	0.0	0.3	0.2	2.1	20.9	0.0	100.0 (182)
제3오분위	15.4	44.6	5.9	8.9	2.0	0.4	8.6	0.0	2.0	0.0	1.5	10.7	0.0	100.0 (163)
제4오분위	6.8	32.5	8.3	5.4	4.5	1.8	19.0	0.0	4.7	0.0	9.9	7.3	0.0	100.0 (131)
제5오분위	10.5	26.7	7.2	18.5	1.0	2.2	25.0	0.0	0.0	0.0	0.0	8.9	0.0	100.0 (8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3.4	27.3	6.0	10.7	2.1	0.3	17.7	0.0	1.1	0.4	3.6	17.4	0.0	100.0 (373)
50%이상	9.3	34.9	5.8	9.3	1.9	1.3	18.4	0.0	2.4	0.0	1.7	15.1	0.0	100.0 (235)
~100%미만														
100%이상	10.5	29.0	11.2	9.6	6.1	1.8	15.1	0.0	3.0	0.0	3.5	10.1	0.0	100.0 (101)
~150%미만														
150%이상	12.3	19.4	7.4	9.4	0.8	0.0	28.9	0.0	0.0	0.0	10.7	11.0	0.0	100.0 (55)

주: 1) 돌봄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885명 중 가족, 친척,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764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가족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의한 외출 동행에 대해 일반특성별로 살펴보면, 도움 받지 않음 20.6%, 주 4회 이상 7.5%, 주 2~3회 12.4%, 주 1회 17.4%, 월 2~3회 22.5%, 월 1회 19.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이 읍·면부 거주 노인보다 외출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이 외출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출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았으며, 도움 빈도에서는 75세 미만 연령대에서 주 4회 이상 외출 도움을 받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기타 가구와 노인부부 가구에서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이 각각 43.9%, 24.3%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녀동거가구가 9.8%로 가장 낮았다. 독거가구는 월 1회(26.2%)와 월 2~3회(23.2%) 외출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노인부부 가구와 자녀동거가구는 월 2~3회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으면서 취업 중인 노인의 49.0%는 외출 동행 도움을 받지 않았으며, 미취업인 경우 외출 도움을 받는 비율이 82.4%로 취업 중인 노인보다 높았다. 그 외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에 따른 특정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외출에 있어 도움 제공은 주로 배우자(21.4%)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다음은 딸(14.3%),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12.9%), 장남(11.6%) 등의 순으로 제공되고 있다. 동부 거주 노인의 경우 읍·면부 거주 노인보다 딸에 의한 외출 동행 비율이 높았으며, 읍·면부 거주 노인은 동부 거주 노인보다 친구 및 이웃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자 노인은 여자 노인보다 배우자의 외출 도움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여자 노인은 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아들에 의한 도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배우자에 의한 외출 동행 비율은 감소하고, 장남, 장남의 배우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에 의한 외출 동행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독거가구의 경우 딸(19.5%), 사회복지관련 종사자(18.1%), 친구 및 이웃(15.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에 의한 도움 제공이 49.5%를 차지했으며, 자녀동거가구는 장남(25.6%)과 딸(19.6%)과의 외출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의한 외출 동행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딸과 사회복지 종사자에 의한 외출 동행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미취업인 경우, 장남, 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에 의한 외출 동행 비율이 취업 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서는 특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표 4-22〉 비공식 돌봄: 외출동행 도움 빈도

(단위: %, 명)

특성	도움받지 않음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계 (명)
전체 ¹⁾²⁾	20.6	7.5	12.4	17.4	22.5	19.6	100.0 (764)
지역							
동부	22.9	7.5	12.7	20.2	20.6	16.1	100.0 (544)
읍·면부	14.7	7.4	11.8	10.4	27.3	28.3	100.0 (219)
성							
남자	29.8	11.0	11.1	14.9	16.6	16.5	100.0 (271)
여자	15.5	5.5	13.2	18.7	25.8	21.3	100.0 (493)
연령							
65~69세	34.4	13.5	12.5	19.6	9.7	10.3	100.0 (57)
70~74세	25.6	17.2	9.6	16.0	13.3	18.4	100.0 (99)
75~79세	27.8	7.6	11.7	17.1	22.5	13.1	100.0 (120)
80~84세	18.6	5.1	9.9	19.8	23.8	22.8	100.0 (183)
85~89세	18.9	5.7	12.5	18.6	22.6	21.8	100.0 (211)
90세 이상	5.3	2.1	21.1	10.4	37.6	23.6	100.0 (9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3.7	13.8	12.4	17.0	19.4	13.8	100.0 (330)
배우자 없음	18.2	2.7	12.5	17.7	24.9	24.0	100.0 (434)
가구형태							
노인독거	22.2	2.8	8.2	17.4	23.2	26.2	100.0 (287)
노인부부	24.3	11.3	13.4	16.3	20.3	14.5	100.0 (291)
자녀동거	9.8	8.8	19.0	19.4	26.6	16.5	100.0 (172)
기타	43.9	9.2	0.0	14.5	4.4	27.9	100.0 (14)
교육수준							
무학	12.4	4.2	10.7	17.2	27.3	28.1	100.0 (232)
초등학교	25.0	5.4	14.9	15.7	22.8	16.3	100.0 (292)
중학교	23.6	7.8	11.8	17.4	16.5	22.9	100.0 (115)
고등학교	24.1	13.7	12.2	22.0	19.8	8.3	100.0 (102)
전문대학 이상	16.4	39.8	2.1	20.4	13.2	8.2	100.0 (22)
현취업상태							
취업중	49.0	0.7	4.7	7.2	21.3	17.0	100.0 (73)
미취업	17.6	8.2	13.3	18.4	22.7	19.9	100.0 (69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7	7.9	9.8	17.4	22.5	26.8	100.0 (204)
제2오분위	27.4	9.0	6.7	11.4	22.4	23.2	100.0 (182)
제3오분위	23.5	6.1	10.7	22.5	23.3	13.9	100.0 (163)
제4오분위	19.2	7.7	19.1	18.9	21.5	13.5	100.0 (131)
제5오분위	14.2	5.6	24.5	18.0	23.1	14.7	100.0 (8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1.1	9.0	9.3	16.1	22.4	22.1	100.0 (373)
50%이상~100%미만	21.8	7.0	10.6	17.2	25.2	18.2	100.0 (235)
100%이상~150%미만	20.6	4.7	21.0	25.6	12.8	15.3	100.0 (101)
150%이상	11.9	4.7	25.7	11.7	29.8	16.2	100.0 (55)
2020년도	16.7	18.8	8.8	18.9	13.8 ³⁾	23.1	100.0 (603)

주: 1) 돌봄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885명 중 가족, 친척,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764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2020년 '격주 1회'인 응답값으로 2023년 '월 2~3회'와는 응답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는 불가능함.

〈표 4-23〉 비공식 돌봄: 외출동행 도움제공자

(단위: %, 명)

특성	도움 받지 않음	배우자	장남	장남 배우자	차남 이하	차남 이하 배우자	딸	딸 배우자	친인척	비혈연 동거인	친구 및 이웃	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	기타	계 (명)
전체 ¹⁾²⁾	20.6	21.4	11.6	6.7	4.2	0.4	14.3	0.5	1.1	0.0	6.3	12.9	0.1	100.0 (764)
지역														
동부	22.9	21.5	11.3	6.6	3.1	0.6	16.0	0.5	0.6	0.0	4.8	12.1	0.0	100.0 (544)
읍·면부	14.7	21.0	12.2	6.8	6.9	0.0	10.1	0.8	2.4	0.0	10.0	14.9	0.2	100.0 (219)
성														
남자	29.8	36.2	7.8	4.2	1.6	0.2	7.2	0.0	0.6	0.0	4.5	7.9	0.0	100.0 (271)
여자	15.5	13.3	13.7	8.0	5.6	0.5	18.2	0.8	1.4	0.0	7.3	15.6	0.1	100.0 (493)
연령														
65~69세	34.4	42.6	4.2	0.0	1.7	0.0	2.2	0.0	1.6	0.0	4.4	9.0	0.0	100.0 (57)
70~74세	25.6	44.0	6.4	1.4	1.3	0.0	7.3	0.0	1.2	0.0	4.8	8.0	0.0	100.0 (99)
75~79세	27.8	34.4	5.3	1.4	2.6	0.4	15.4	0.0	1.9	0.0	1.9	8.9	0.0	100.0 (120)
80~84세	18.6	15.6	14.7	3.7	4.6	0.3	20.3	0.3	0.5	0.0	6.4	14.7	0.2	100.0 (183)
85~89세	18.9	10.2	12.3	9.8	6.8	0.8	17.6	0.0	0.7	0.0	10.3	12.7	0.0	100.0 (211)
90세 이상	5.3	4.5	21.9	21.7	4.5	0.4	8.5	3.8	1.8	0.0	5.4	22.2	0.0	100.0 (9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3.7	49.5	6.8	0.7	2.4	0.3	6.6	0.0	0.6	0.0	0.4	8.9	0.0	100.0 (330)
배우자 없음	18.2	0.0	15.2	11.2	5.6	0.5	20.1	1.0	1.5	0.0	10.7	15.9	0.1	100.0 (434)
가구형태														
노인독거	22.2	0.6	9.7	7.3	4.5	0.6	19.5	0.2	1.7	0.0	15.4	18.1	0.2	100.0 (287)
노인부부	24.3	49.5	5.6	0.8	2.0	0.4	6.4	0.0	0.6	0.0	0.4	9.9	0.0	100.0 (291)
자녀동거	9.8	8.3	25.6	16.0	7.9	0.2	19.6	2.1	0.2	0.0	1.3	8.9	0.0	100.0 (172)
기타	43.9	23.8	0.0	0.0	0.0	0.0	5.7	0.0	10.8	0.0	0.0	15.8	0.0	100.0 (14)
교육수준														
무학	12.4	7.2	13.4	11.3	6.3	0.5	19.0	1.5	1.4	0.0	8.8	17.9	0.2	100.0 (232)
초등학교	25.0	19.3	12.3	6.4	4.3	0.4	13.0	0.2	1.1	0.0	8.4	9.7	0.0	100.0 (292)
중학교	23.6	34.9	4.9	1.1	0.0	0.8	14.5	0.0	1.6	0.0	1.2	17.5	0.0	100.0 (115)
고등학교	24.1	35.3	13.3	4.7	5.0	0.0	8.9	0.0	0.0	0.0	0.6	7.9	0.0	100.0 (102)
전문대학 이상	16.4	64.0	9.6	0.0	0.0	0.0	5.4	0.0	0.0	0.0	4.6	0.0	0.0	100.0 (22)
현취업상태														
취업중	49.0	20.9	6.2	1.4	5.6	0.0	5.3	0.0	1.4	0.0	10.2	0.0	0.0	100.0 (73)
미취업	17.6	21.5	12.1	7.2	4.1	0.5	15.2	0.6	1.1	0.0	5.8	14.2	0.1	100.0 (69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7	13.3	10.9	8.3	6.1	1.0	15.4	0.3	1.3	0.0	10.4	17.2	0.2	100.0 (204)
제2오분위	27.4	20.8	8.5	4.9	1.8	0.3	16.0	0.9	0.6	0.0	4.3	14.5	0.0	100.0 (182)
제3오분위	23.5	34.5	10.3	4.8	2.5	0.4	7.4	0.0	2.2	0.0	5.0	9.5	0.0	100.0 (163)
제4오분위	19.2	22.0	15.2	2.7	6.8	0.0	14.4	1.4	0.9	0.0	8.3	9.1	0.0	100.0 (131)
제5오분위	14.2	16.1	16.8	16.4	4.4	0.0	21.1	0.0	0.0	0.0	0.0	11.1	0.0	100.0 (8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1.1	20.8	10.4	6.3	4.1	0.7	12.8	0.6	0.9	0.0	7.9	14.2	0.1	100.0 (373)
50%이상 ~100%미만	21.8	27.5	10.7	6.0	3.3	0.3	13.6	0.8	1.3	0.0	2.8	11.9	0.0	100.0 (235)
100%이상 ~150%미만	20.6	14.0	15.0	9.2	7.0	0.0	14.0	0.0	2.2	0.0	8.1	9.8	0.0	100.0 (101)
150%이상	11.9	12.6	17.2	7.2	3.5	0.0	27.5	0.0	0.0	0.0	6.9	13.1	0.0	100.0 (55)

주: 1) 돌봄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885명 중 가족, 친척,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764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식사준비에서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도움 빈도를 살펴보면,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15.5%였으며, 주 4회 이상 43.9%, 주 2~3회 15.4%, 주 1회 12.0%, 월 2~3회 8.2%, 월 1회 5.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이 읍·면부 거주 노인보다 식사준비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식사준비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군별 특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배우자가 없거나 독거가구의 식사준비 도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독거가구를 제외한 가구의 경우 주 4회 이상 식사준비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5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으면서 취업 중인 노인의 36.6%는 식사준비 도움을 받지 않았으며, 미취업인 경우 식사준비 도움을 받는 비율이 86.7%로 취업 중인 노인보다 높았다. 연간 가구소득이 제2오분위와 제3오분위에 속한 경우, 식사준비를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식사준비 도움 주체를 살펴보면, 배우자(27.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딸(16.9%),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15.2%), 장남의 배우자(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부 거주 노인의 경우 읍·면부 거주 노인과 비교하여 딸에 의한 식사준비 비율이 높았으며, 읍·면부 거주 노인은 동부 거주 노인보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자 노인은 여자 노인보다 배우자에 의한 식사준비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여자 노인은 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장남의 배우자에 의한 도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배우자에 의한 식사준비 비율은 감소하고, 장남의 배우자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에 의한 식사준비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형태에 따른 식사준비 도움 제공자를 보면, 독거가구의 경우 딸(21.4%)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24.8%)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에 의한 도움 제공이 64.4%를 차지했으며, 자녀독거가구는 장남의 배우자(25.6%)와 딸(26.8%)의 식사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의한 식사준비 지원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장남의 배우자와 사회복지 종사자에 의한 식사준비 도움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미취업인 경우, 배우자, 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에 의한 식사준비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수준에서는 특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표 4-24〉 비공식 돌봄: 식사준비 도움 빈도

(단위: %, 명)

특성	도움받지않음	주 4회 이상	주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계 (명)
전체 ¹⁾²⁾	15.5	43.9	15.4	12.0	8.2	5.1	100.0 (764)
지역							
동부	12.5	43.6	16.2	12.6	9.7	5.5	100.0 (544)
읍·면부	23.1	44.6	13.6	10.4	4.3	3.9	100.0 (219)
성							
남자	12.5	62.6	6.7	11.0	4.7	2.6	100.0 (271)
여자	17.2	33.6	20.3	12.5	10.1	6.4	100.0 (493)
연령							
65~69세	28.2	40.3	5.5	19.0	3.9	3.1	100.0 (57)
70~74세	17.2	60.9	6.2	7.5	5.5	2.6	100.0 (99)
75~79세	23.5	34.7	16.7	10.6	8.4	6.0	100.0 (120)
80~84세	11.4	41.2	15.6	13.7	11.3	6.7	100.0 (183)
85~89세	15.2	43.1	19.9	10.0	8.6	3.2	100.0 (211)
90세 이상	4.6	46.7	19.4	15.0	5.9	8.5	100.0 (9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4.0	59.6	9.3	10.0	3.8	3.3	100.0 (330)
배우자 없음	16.7	31.9	20.1	13.5	11.5	6.4	100.0 (434)
가구형태							
노인독거	21.4	18.3	19.5	16.6	14.9	9.3	100.0 (287)
노인부부	14.6	59.1	8.8	9.6	4.3	3.6	100.0 (291)
자녀동거	8.1	59.5	20.9	6.8	3.9	0.8	100.0 (172)
기타	6.4	59.1	2.4	28.8	3.3	0.0	100.0 (14)
교육수준							
무학	17.9	42.4	15.3	11.8	8.1	4.5	100.0 (232)
초등학교	14.9	40.2	17.8	11.9	8.7	6.5	100.0 (292)
중학교	20.1	45.6	12.3	7.0	10.8	4.3	100.0 (115)
고등학교	7.2	50.9	15.3	16.8	5.5	4.2	100.0 (102)
전문대학 이상	13.4	66.8	2.6	17.2	0.0	0.0	100.0 (22)
현취업상태							
취업중	36.6	32.7	5.6	10.3	7.4	7.4	100.0 (73)
미취업	13.3	45.0	16.5	12.1	8.2	4.8	100.0 (69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5	32.8	16.7	17.0	8.3	9.6	100.0 (204)
제2오분위	19.3	37.4	18.1	9.5	9.5	6.1	100.0 (182)
제3오분위	20.0	48.5	9.9	10.7	8.2	2.7	100.0 (163)
제4오분위	8.2	56.6	14.8	11.8	7.1	1.5	100.0 (131)
제5오분위	10.0	55.9	18.7	7.5	6.2	1.8	100.0 (8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6.5	38.2	17.3	13.8	7.4	6.8	100.0 (373)
50%이상~100%미만	15.5	50.6	10.9	10.5	8.6	3.8	100.0 (235)
100%이상~150%미만	15.9	46.6	16.6	10.0	8.2	2.6	100.0 (101)
150%이상	8.5	48.9	20.0	8.8	11.0	2.8	100.0 (55)
2020년도	9.8	64.8	13.8	7.6	2.5 ³⁾	1.3	100.0 (603)

주: 1) 돌봄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885명 중 가족, 친척,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764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2020년 '격주 1회'인 응답값으로 2023년 '월 2~3회'와는 응답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는 불가능함.

〈표 4-25〉 비공식 돌봄: 식사준비 도움제공자

(단위: %, 명)

특성	도움 받지 않음	배우자	장남	장남 배우자	차남 이하	차남 이하 배우자	딸	딸 배우자	친인척	비혈연 동거인	친구 및 이웃	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	기타	계 (명)
전체 ¹⁾²⁾	15.5	27.6	4.9	10.7	2.1	0.9	16.9	0.0	1.6	0.1	4.2	15.2	0.1	100.0 (764)
지역														
동부	12.5	27.9	5.1	11.6	1.6	0.8	19.2	0.0	2.1	0.1	4.5	14.6	0.0	100.0 (544)
읍·면부	23.1	26.9	4.5	8.5	3.4	1.3	11.3	0.0	0.3	0.0	3.6	16.8	0.4	100.0 (219)
성														
남자	12.5	56.7	0.3	5.4	0.3	0.2	10.6	0.0	1.8	0.2	3.3	8.5	0.2	100.0 (271)
여자	17.2	11.6	7.4	13.6	3.1	1.3	20.4	0.0	1.5	0.0	4.8	18.9	0.1	100.0 (493)
연령														
65~69세	28.2	46.4	1.0	1.1	3.6	0.0	7.7	0.0	3.8	0.0	6.7	1.5	0.0	100.0 (57)
70~74세	17.2	57.6	1.9	0.0	2.0	0.0	8.3	0.0	1.2	0.0	2.6	9.1	0.0	100.0 (99)
75~79세	23.5	40.1	2.3	1.9	1.8	0.4	21.5	0.0	0.6	0.0	1.3	6.5	0.0	100.0 (120)
80~84세	11.4	23.5	7.7	9.5	1.5	0.0	25.1	0.0	0.5	0.2	5.4	14.6	0.5	100.0 (183)
85~89세	15.2	12.5	7.3	13.1	2.8	1.0	15.0	0.0	2.6	0.0	6.9	23.6	0.0	100.0 (211)
90세 이상	4.6	10.3	3.0	35.9	1.6	4.8	13.9	0.0	2.1	0.0	0.0	23.7	0.0	100.0 (9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4.0	63.9	0.5	0.7	1.5	0.2	8.6	0.0	0.8	0.0	0.4	9.2	0.2	100.0 (330)
배우자 없음	16.7	0.0	8.2	18.3	2.6	1.5	23.2	0.0	2.2	0.1	7.2	19.8	0.1	100.0 (434)
가구형태														
노인독거	21.4	0.6	5.5	12.4	1.5	0.7	21.4	0.0	0.7	0.0	10.8	24.8	0.2	100.0 (287)
노인부부	14.6	64.4	0.3	0.8	1.3	0.2	7.1	0.0	0.4	0.0	0.5	10.2	0.2	100.0 (291)
자녀동거	8.1	10.3	12.1	25.6	4.8	2.6	26.8	0.0	0.9	0.0	0.0	8.9	0.0	100.0 (172)
기타	6.4	29.6	0.0	0.0	0.0	0.0	5.7	0.0	55.0	3.3	0.0	0.0	0.0	100.0 (14)
교육수준														
무학	17.9	10.6	6.0	17.8	2.5	1.8	20.8	0.0	0.6	0.2	2.6	18.9	0.2	100.0 (232)
초등학교	14.9	28.3	5.6	10.4	1.6	1.1	13.9	0.0	2.5	0.0	5.8	16.0	0.0	100.0 (292)
중학교	20.1	41.1	1.0	1.1	2.6	0.0	15.6	0.0	2.9	0.0	3.4	11.7	0.4	100.0 (115)
고등학교	7.2	43.0	5.3	8.5	2.9	0.0	17.3	0.0	0.0	0.0	4.3	11.5	0.0	100.0 (102)
전문대학 이상	13.4	55.4	2.1	0.5	0.0	0.0	21.1	0.0	0.0	0.0	4.6	2.8	0.0	100.0 (22)
현취업상태														
취업중	36.6	35.7	1.0	2.1	0.4	0.0	13.7	0.0	0.0	0.0	9.0	1.5	0.0	100.0 (73)
미취업	13.3	26.8	5.3	11.6	2.3	1.0	17.2	0.0	1.8	0.1	3.7	16.7	0.1	100.0 (69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5	14.9	5.6	13.9	3.7	0.8	20.3	0.0	0.8	0.0	3.1	21.2	0.2	100.0 (204)
제2오분위	19.3	29.6	5.9	7.6	0.0	0.7	13.5	0.0	1.4	0.2	2.2	19.5	0.0	100.0 (182)
제3오분위	20.0	42.9	2.5	7.5	1.4	0.1	10.1	0.0	1.3	0.0	3.8	10.2	0.3	100.0 (163)
제4오분위	8.2	26.6	5.3	7.3	3.9	1.8	19.6	0.0	4.7	0.0	11.1	11.6	0.0	100.0 (131)
제5오분위	10.0	26.1	5.1	21.2	1.8	2.2	25.0	0.0	0.0	0.0	1.6	7.0	0.0	100.0 (8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6.5	27.1	5.4	10.5	2.0	0.5	15.0	0.0	1.2	0.1	3.3	18.2	0.1	100.0 (373)
50%이상 ~100%미만	15.5	31.9	4.1	9.8	1.2	1.6	18.7	0.0	2.4	0.0	1.4	13.2	0.2	100.0 (235)
100%이상 ~150%미만	15.9	25.0	5.7	11.4	4.5	1.8	15.4	0.0	2.1	0.0	9.9	8.3	0.0	100.0 (101)
150%이상	8.5	17.4	3.3	15.0	2.7	0.0	24.6	0.0	0.0	0.0	11.9	16.6	0.0	100.0 (55)

주: 1) 돌봄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885명 중 가족, 친척,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764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신체기능유지를 위해 가족 등으로부터 목욕이나 세안 등의 도움 여부와 빈도를 살펴본 결과,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41.4%였으며, 주 4회 이상 5.2%, 주 2~3회 11.4%, 주 1회 23.2%, 월 2~3회 12.8%, 월 1회 6.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이 읍·면부 거주 노인보다 신체유지를 위한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이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신체유지를 위한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았으며, 80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60% 이상이 신체기능유지를 위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신체기능 유지 도움 빈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가구형태에서는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에서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각각 44.0%, 43.6%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타 가구가 25.9%로 가장 낮았다.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인 노인의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도움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취업 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으면서 취업 중인 노인의 80.4%는 신체유지를 위한 도움을 받지 않았으며, 가구소득 제1오분위와 제4오분위에 속한 노인이 신체유지를 도움을 받는 비율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도움 제공은 주로 배우자(13.8%), 딸(15.2%),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14.1%) 등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부 거주 노인의 경우 읍·면부 거주 노인에 비해 딸이나 배우자에 의한 신체기능 유지 도움 비율이 높았으며, 읍·면부 거주 노인은 동부 거주 노인과 비교하여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자 노인은 여자 노인과 비교하여 배우자에 의한 신체기능 도움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여자 노인은 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장남의 배우자에 의한 도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배우자에 의한 신체기능 도움 비율은 감소하고, 딸, 장남의 배우자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에 의한 신체기능 도움 비율이 증가하였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독거가구의 경우 딸(23.2%)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16.9%)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에 의한 도움 제공이 32.5%를 차지했으며, 자녀 동거가구는 딸(20.0%)과 장남의 배우자(81.4%)의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도움 제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의한 신체기능 유지 도움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딸과 사회복지 종사자에 의한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도움 제공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취업인 경우, 배우자, 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에 의한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도움을 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비공식 돌봄: 신체기능유지지원 도움 빈도

(단위: %, 명)

특성	도움받지않음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계 (명)
전체 ¹⁾²⁾	41.4	5.2	11.4	23.2	12.8	6.0	100.0 (764)
지역							
동부	39.0	5.4	11.3	25.5	13.2	5.5	100.0 (544)
읍·면부	47.3	4.6	11.5	17.5	11.9	7.3	100.0 (219)
성							
남자	52.8	6.7	8.2	19.9	9.5	3.0	100.0 (271)
여자	35.2	4.3	13.1	25.0	14.7	7.7	100.0 (493)
연령							
65~69세	64.2	5.3	5.1	7.1	8.2	10.0	100.0 (57)
70~74세	50.2	10.3	7.9	17.8	8.7	5.0	100.0 (99)
75~79세	53.4	7.2	10.0	19.0	7.3	3.1	100.0 (120)
80~84세	39.6	3.7	10.6	24.8	16.6	4.7	100.0 (183)
85~89세	33.1	3.5	12.6	27.5	16.8	6.5	100.0 (211)
90세 이상	25.0	3.7	19.2	31.2	10.8	10.1	100.0 (9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2.8	8.1	11.8	22.0	10.6	4.7	100.0 (330)
배우자 없음	40.3	2.9	11.0	24.1	14.5	7.1	100.0 (434)
가구형태							
1인가구	44.0	2.1	8.9	23.8	14.6	6.6	100.0 (287)
노인부부	43.6	8.3	11.1	22.5	9.7	4.8	100.0 (291)
자녀동거	34.7	5.4	16.1	23.6	16.2	4.0	100.0 (172)
기타	25.9	0.0	9.2	20.3	0.0	44.6	100.0 (14)
교육수준							
무학	36.4	3.7	10.8	26.1	16.3	6.7	100.0 (232)
초등학교	38.6	4.5	12.6	25.0	13.5	5.8	100.0 (292)
중학교	51.2	4.4	10.4	17.1	8.0	8.9	100.0 (115)
고등학교	49.4	9.0	12.3	21.0	6.1	2.2	100.0 (102)
전문대학 이상	42.4	15.3	2.0	11.7	24.2	4.3	100.0 (22)
현취업상태							
취업중	80.4	0.0	1.1	5.2	9.0	4.3	100.0 (73)
미취업	37.3	5.7	12.5	25.1	13.2	6.2	100.0 (69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8.3	4.8	11.7	28.5	8.7	8.0	100.0 (204)
제2오분위	43.6	6.0	10.6	18.6	13.3	7.9	100.0 (182)
제3오분위	42.2	5.4	12.2	23.7	14.4	2.1	100.0 (163)
제4오분위	39.0	4.6	7.0	21.9	21.8	5.7	100.0 (131)
제5오분위	46.3	4.6	17.5	21.4	4.8	5.4	100.0 (8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0.9	6.1	11.9	24.3	10.4	6.5	100.0 (373)
50%이상~100%미만	39.1	4.5	10.3	20.8	19.8	5.6	100.0 (235)
100%이상~150%미만	44.9	4.7	9.5	23.1	10.8	7.0	100.0 (101)
150%이상	48.6	2.5	15.6	26.2	3.8	3.2	100.0 (55)
2020년도	32.9	18.1	13.3	21.7	6.5 ³⁾	7.5	100.0 (603)

주: 1) 돌봄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885명 중 가족, 친척,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764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2020년 '격주 1회'인 응답값으로 2023년 '월 2~3회'와는 응답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는 불가능함.

〈표 4-27〉 비공식 돌봄: 신체기능유지지원 도움제공자

(단위: %, 명)

특성	도움 받지 않음	배우자	장남	장남 배우자	차남 이하	차남 이하 배우자	딸	딸 배우자	친인척	비혈연 동거인	친구 및 이웃	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	기타	계 (명)
전체 ¹⁾²⁾	41.4	13.8	4.6	5.9	0.8	0.3	15.2	0.1	1.1	0.0	2.3	14.1	0.3	100.0 (764)
지역														
동부	39.0	14.8	4.9	6.3	0.6	0.2	16.3	0.0	1.4	0.0	3.0	13.2	0.2	100.0 (544)
읍·면·부	47.3	11.2	4.0	5.2	1.3	0.7	12.3	0.4	0.3	0.0	0.6	16.3	0.5	100.0 (219)
성														
남자	52.8	24.7	9.0	0.7	0.5	0.0	1.7	0.3	0.8	0.0	0.7	8.8	0.0	100.0 (271)
여자	35.2	7.8	2.2	8.8	0.9	0.5	22.6	0.0	1.3	0.0	3.2	17.0	0.5	100.0 (493)
연령														
65~69세	64.2	14.5	3.5	0.0	0.0	0.0	3.1	0.0	3.8	0.0	4.5	6.3	0.0	100.0 (57)
70~74세	50.2	28.8	3.5	0.0	0.0	0.0	4.2	0.0	1.2	0.0	1.8	9.5	0.7	100.0 (99)
75~79세	53.4	21.1	4.0	0.5	2.1	0.4	11.6	0.0	0.6	0.0	0.0	6.2	0.0	100.0 (120)
80~84세	39.6	13.6	3.4	5.4	1.5	0.0	18.9	0.5	0.2	0.0	1.3	15.3	0.2	100.0 (183)
85~89세	33.1	7.9	4.9	7.8	0.3	0.4	20.6	0.0	1.9	0.0	5.2	17.4	0.6	100.0 (211)
90세 이상	25.0	1.6	9.2	19.6	0.0	1.5	19.2	0.0	0.0	0.0	0.0	23.9	0.0	100.0 (9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2.8	31.9	5.0	0.4	0.6	0.0	5.8	0.0	0.4	0.0	1.0	12.2	0.0	100.0 (330)
배우자 없음	40.3	0.0	4.4	10.2	0.9	0.6	22.3	0.2	1.7	0.0	3.3	15.5	0.6	100.0 (434)
가구형태														
노인독거	44.0	0.3	4.1	4.3	1.4	0.3	23.2	0.3	0.2	0.0	4.7	16.9	0.4	100.0 (287)
노인부부	43.6	32.5	4.0	0.4	0.3	0.0	5.1	0.0	0.4	0.0	0.9	12.6	0.0	100.0 (291)
자녀동거	34.7	5.3	5.8	18.4	0.5	1.1	20.0	0.0	0.2	0.0	0.9	12.3	0.8	100.0 (172)
기타	25.9	5.8	14.5	0.0	0.0	0.0	0.0	0.0	44.6	0.0	0.0	9.2	0.0	100.0 (14)
교육수준														
무학	36.4	5.4	4.5	8.1	2.3	0.7	19.8	0.4	0.0	0.0	1.4	19.8	1.0	100.0 (232)
초등학교	38.6	13.2	4.3	8.0	0.2	0.4	19.1	0.0	1.7	0.0	4.1	10.4	0.0	100.0 (292)
중학교	51.2	22.2	1.6	0.2	0.0	0.0	6.0	0.0	2.9	0.0	1.1	14.8	0.0	100.0 (115)
고등학교	49.4	21.8	6.6	2.9	0.0	0.0	6.2	0.0	0.0	0.0	0.0	13.1	0.0	100.0 (102)
전문대학 이상	42.4	27.8	16.5	0.5	0.0	0.0	4.3	0.0	0.0	0.0	4.6	3.9	0.0	100.0 (22)
현취업상태														
취업중	80.4	6.1	0.8	0.0	1.1	0.0	10.4	1.2	0.0	0.0	0.0	0.0	0.0	100.0 (73)
미취업	37.3	14.6	5.0	6.6	0.7	0.4	15.7	0.0	1.2	0.0	2.5	15.6	0.4	100.0 (69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8.3	5.7	4.8	6.9	0.8	0.6	23.0	0.0	0.0	0.0	0.7	18.8	0.5	100.0 (204)
제2오분위	43.6	16.9	3.6	2.0	0.0	0.0	16.0	0.0	0.0	0.0	0.9	17.0	0.0	100.0 (182)
제3오분위	42.2	24.7	3.2	6.8	2.2	0.0	2.3	0.0	1.2	0.0	3.4	14.1	0.0	100.0 (163)
제4오분위	39.0	13.5	6.2	5.7	0.0	0.8	15.7	0.7	4.7	0.0	5.0	7.7	1.0	100.0 (131)
제5오분위	46.3	6.0	6.9	10.8	1.0	0.6	18.4	0.0	0.5	0.0	3.2	6.3	0.0	100.0 (8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0.9	13.4	3.4	5.8	0.6	0.3	17.3	0.0	0.0	0.0	1.5	16.5	0.3	100.0 (373)
50%이상 ~100%미만	39.1	19.1	5.1	6.1	1.1	0.4	10.1	0.0	2.2	0.0	1.2	15.1	0.6	100.0 (235)
100%이상 ~150%미만	44.9	8.6	7.4	5.9	1.3	0.5	15.2	0.0	2.8	0.0	7.6	5.8	0.0	100.0 (101)
150%이상	48.6	3.3	5.9	6.1	0.0	0.0	22.1	1.7	0.8	0.0	2.7	8.9	0.0	100.0 (55)

주: 1) 돌봄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885명 중 가족, 친척,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764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가족, 친인척, 간병인,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노인에게 현재 받고 있는 도움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매우 충분하다 3.8%, 충분하다 45.6%, 보통이다 32.2%, 부족하다 16.8%, 매우 부족하다 1.5%로 나타났다. 도움이 충분하다(매우 충분+충분)는 49.4%, 보통은 32.2%, 부족하다(부족+매우 부족)는 18.3%이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17.0%)보다 읍·면부 노인(21.7%)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자 노인(53.1%)보다 여자 노인(47.5%)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연령군별로는 65~69세 노인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2.4%로 가장 높고, 75~79세 노인이 12.6%로 가장 낮았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11.9%)보다 무배우 노인(22.3%)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기타 가구(31.7%)와 독거가구(26.8%)에 속한 노인이 부족하다(부족+매우 부족)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도움이 부족하다(부족+매우 부족)는 응답이 6.5%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인 노인과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노인 집단에서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27.9%와 25.3%로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인 노인의 경우 받고 있는 도움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7.4%로 가장 낮았다. 취업 여부에 따른 돌봄 충분성의 차이는 크지는 않아 취업 노인의 19.8%, 미취업 노인의 18.2%가 도움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제5오분위를 제외한 집단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돌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중위소득 50% 미만인 집단에서 도움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8〉 돌봄 충분성

(단위: %, 명)

특성	매우 충분	충분	보통	부족	매우 부족	계 (명)
전체 ¹⁾²⁾	3.8	45.6	32.2	16.8	1.5	100.0 (797)
지역						
동부	3.6	46.2	33.2	15.5	1.5	100.0 (566)
읍·면부	4.4	44.0	30.0	20.2	1.5	100.0 (231)
성						
남자	5.8	47.3	29.2	14.7	3.0	100.0 (261)
여자	2.8	44.7	33.7	17.9	0.8	100.0 (536)
연령						
65~69세	10.9	33.6	33.2	11.6	10.8	100.0 (62)
70~74세	8.0	49.5	27.9	13.6	1.1	100.0 (96)
75~79세	4.8	47.5	35.1	11.5	1.1	100.0 (129)
80~84세	2.3	40.7	34.9	21.2	0.8	100.0 (190)
85~89세	2.4	46.2	30.9	19.9	0.7	100.0 (230)
90세 이상	0.0	55.6	30.0	14.4	0.0	100.0 (9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0	50.0	31.0	10.9	1.0	100.0 (302)
배우자 없음	1.9	42.8	33.0	20.5	1.8	100.0 (496)
가구형태						
노인독거	2.1	35.0	36.1	25.0	1.8	100.0 (374)
노인부부	6.9	53.0	27.8	11.1	1.2	100.0 (267)
자녀동거	2.9	57.6	33.0	6.5	0.0	100.0 (143)
기타	0.0	65.4	2.8	14.3	17.4	100.0 (12)
교육수준						
무학	2.6	36.3	33.3	25.9	2.0	100.0 (259)
초등학교	3.0	49.3	32.3	15.0	0.4	100.0 (293)
중학교	4.4	52.2	30.0	10.7	2.7	100.0 (121)
고등학교	8.1	53.9	30.6	7.4	0.0	100.0 (103)
전문대학 이상	6.4	29.8	38.5	13.5	11.8	100.0 (21)
현취업상태						
취업중	10.3	42.5	27.4	17.5	2.3	100.0 (77)
미취업	3.1	45.9	32.8	16.8	1.4	100.0 (72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6	35.9	33.2	26.7	1.6	100.0 (255)
제2오분위	2.4	41.1	36.9	17.8	1.9	100.0 (194)
제3오분위	4.6	50.4	30.7	13.6	0.7	100.0 (154)
제4오분위	6.6	61.9	26.0	3.0	2.6	100.0 (124)
제5오분위	5.7	53.6	30.5	10.2	0.0	100.0 (7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7	40.1	34.2	21.1	1.9	100.0 (422)
50%이상~100%미만	4.8	47.9	32.6	14.3	0.5	100.0 (232)
100%이상~150%미만	5.9	56.1	27.8	7.9	2.3	100.0 (94)
150%이상	5.0	60.9	22.6	9.5	2.0	100.0 (50)
2020년도	5.2	35.8	35.1	22.5	1.3	100.0 (556)

주: 1) 동거 가족원, 비동거 가족원, 친척·이웃·친구·지인, 개인 간병인 혹은 가사도우미,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주체로부터 돌봄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885명 중 본인응답자 797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ADL과 IADL에 제한이 있으나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 없어서라고 응답한 노인이 55.3%이며,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20.8%,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12.7%, 비용이 부담돼서 6.3%,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이 싫어서가 3.1%, 도움받는 방법을 알 수 없어서가 1.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56.9%)이 읍·면부 노인(50.0%)보다 도움이 필요 없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노인보다 남자 노인이 도움이 필요 없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도움이 필요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5~69세 노인은 도움이 필요 없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5.0%로 90세 이상 노인 37.3%보다 약 2배 높은 수치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도움이 필요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유배우 노인이 64.6%로 무배우 노인이 44.0%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 가에서 도움이 필요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2.6%로 가장 높으며, 독거가구는 45.7%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움이 필요 없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경우 도움이 필요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67.5%로 고등학교 졸업(75.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72.3%)이 미취업 노인(49.2%)보다 도움이 필요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제5오분위, 그리고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대비 100~150% 미만인 집단에서 도움이 필요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0.3%, 69.5%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소득 제1오분위와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집단에서 도움이 필요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1.7%, 47.9%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29〉 신체기능 제약이 있지만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도움이 필요없어서	가족에게 부담주고싶지 않아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비용이 부담돼서	방법을 알 수 없어서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게 싫어서	계(명)
전체 ¹⁾²⁾	55.3	20.8	12.7	6.3	1.8	3.1	100.0 (988)
지역							
동부	56.9	20.4	13.0	5.1	1.3	3.2	100.0 (760)
읍·면부	50.0	21.8	11.7	10.4	3.5	2.5	100.0 (228)
성							
남자	66.0	15.4	9.6	4.6	1.4	3.0	100.0 (471)
여자	45.5	25.6	15.5	7.9	2.2	3.1	100.0 (517)
연령							
65~69세	75.0	10.2	9.0	2.5	1.7	1.7	100.0 (195)
70~74세	63.9	19.7	7.2	5.6	1.3	2.3	100.0 (189)
75~79세	51.2	24.8	12.9	7.6	1.2	2.4	100.0 (181)
80~84세	46.3	23.7	17.1	5.6	3.7	3.6	100.0 (218)
85~89세	44.2	27.3	13.3	10.1	1.8	3.4	100.0 (128)
90세 이상	37.3	21.6	22.3	10.8	0.0	8.1	100.0 (7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4.6	17.2	8.2	5.8	2.2	2.0	100.0 (541)
배우자 없음	44.0	25.1	18.1	7.0	1.4	4.4	100.0 (446)
가구형태							
노인독거	45.7	27.7	17.1	4.8	1.5	3.2	100.0 (341)
노인부부	62.6	17.8	8.8	6.2	2.4	2.2	100.0 (498)
자녀동거	53.1	14.6	13.5	11.6	0.7	6.5	100.0 (132)
기타	49.3	16.1	34.6	0.0	0.0	0.0	100.0 (16)
교육수준							
무학	41.8	24.2	20.8	8.1	3.6	1.5	100.0 (219)
초등학교	44.5	25.2	13.8	10.2	1.9	4.3	100.0 (314)
중학교	61.6	20.8	8.2	3.3	1.4	4.8	100.0 (181)
고등학교	75.7	14.0	5.7	2.6	0.8	1.1	100.0 (225)
전문대학 이상	67.5	7.9	17.9	2.2	0.0	4.5	100.0 (50)
현취업상태							
취업중	72.3	15.3	7.7	2.4	0.9	1.3	100.0 (258)
미취업	49.2	22.7	14.5	7.7	2.2	3.7	100.0 (7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1.7	29.8	16.2	6.8	3.8	1.7	100.0 (237)
제2오분위	51.6	23.0	13.6	7.1	1.2	3.5	100.0 (256)
제3오분위	54.9	20.4	11.8	6.8	3.1	2.8	100.0 (171)
제4오분위	67.0	15.0	10.4	5.2	0.4	1.9	100.0 (190)
제5오분위	70.3	8.9	9.2	5.0	0.0	6.7	100.0 (13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7.9	25.7	13.9	7.4	2.6	2.5	100.0 (479)
50%이상~100%미만	54.6	21.4	14.2	5.4	1.5	2.9	100.0 (234)
100%이상~150%미만	69.5	9.4	8.4	6.3	1.5	4.8	100.0 (152)
150%이상	67.7	14.1	10.4	4.1	0.0	3.7	100.0 (123)
2020년도	45.1	30.7	10.3	7.1	2.6	4.2	100.0 (520)

주: 1) ADL/IADL에서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 1개 이상 받은 응답자 1,873명 중 돌봄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988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2023년 노인실태조사 응답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률은 4.5%이며, 가장 최근에 받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은 4등급인 노인이 3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등급 22.5%, 없음(기각, 각하 등) 15.2%, 5등급 13.4%, 등급외 4.9%, 2등급 3.5%, 인지지원등급 2.9%, 1등급 1.0%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4.2%)보다 읍·면부 노인(5.3%)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률이 높았으며,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했으나 기각이나 각하로 인해 인정등급이 없는 비율은 동부 노인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3.1%)보다 여자 노인(5.6%)의 등급 신청률이 높았으며, 신청했으나 인정등급이 없는 남자 노인은 25.1%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65~69세 노인의 장기요양등급 신청률은 1.0%이지만 85~89세 16.8%, 90세 이상 24.1%로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2.4%)보다 무배우 노인(7.6%)의 등급 신청률이 약 3배 높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인 노인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률이 7.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 동거가구 6.9%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인 군에서 등급 신청률이 14.3%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취업 상태별로는 취업 노인(0.5%)보다 미취업 노인(7.1%)의 등급 신청률이 높았으며, 취업 중인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했으나 기각이나 각하로 인해 인정등급이 없는 비율은 42.0%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장기요양 인정등급 신청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연간 가구소득이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8.3%, 제2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7.0%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적이 있으며,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노인의 7.3%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1.1%)보다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19.2%)의 등급 신청률이 높았다.

〈표 4-30〉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 신청 및 등급판정 결과

(단위: %, 명)

특성	신청률 ¹⁾	최근에 받은 등급 ²⁾³⁾								계 (명)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원 등급	등급외	없음 ⁴⁾	
전체	4.5	1.0	3.5	22.5	36.5	13.4	2.9	4.9	15.2	100.0 (453)
지역										
동부	4.2	1.5	3.6	22.0	34.1	12.3	3.4	4.9	18.3	100.0 (314)
읍·면부	5.3	0.0	3.2	23.9	41.9	16.0	1.9	4.8	8.3	100.0 (139)
성										
남자	3.1	1.4	2.0	21.0	27.5	15.7	2.5	4.8	25.1	100.0 (138)
여자	5.6	0.9	4.2	23.2	40.4	12.4	3.1	4.9	10.9	100.0 (315)
연령										
65~69세	1.0	0.0	0.0	35.0	18.5	14.7	7.1	3.3	21.4	100.0 (36)
70~74세	2.1	1.6	2.7	13.2	31.5	11.0	1.6	9.9	28.5	100.0 (50)
75~79세	3.1	0.0	2.6	16.4	40.3	12.3	0.0	8.9	19.5	100.0 (55)
80~84세	8.0	1.0	6.9	19.9	37.8	11.2	2.1	7.4	13.6	100.0 (113)
85~89세	16.8	2.0	3.2	26.8	41.4	12.3	2.6	1.1	10.6	100.0 (138)
90세 이상	24.1	0.0	1.3	23.8	34.0	22.2	6.5	2.1	10.1	100.0 (6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4	2.8	4.1	21.3	31.8	8.9	3.6	8.1	19.5	100.0 (147)
배우자 없음	7.6	0.2	3.2	23.1	38.7	15.6	2.6	3.4	13.1	100.0 (306)
가구형태										
노인독거	7.3	0.3	3.4	24.2	39.2	13.5	1.7	3.7	14.0	100.0 (240)
노인부부	2.4	3.0	4.1	20.8	32.6	9.7	2.6	8.1	19.0	100.0 (134)
자녀동거	6.9	0.0	3.0	19.9	36.5	18.2	5.5	3.5	13.5	100.0 (72)
기타	4.0	0.0	0.0	24.4	18.2	31.1	26.4	0.0	0.0	100.0 (7)
교육수준										
무학	14.3	0.5	5.6	26.4	37.8	16.9	1.0	2.6	9.3	100.0 (178)
초등학교	5.1	1.3	2.1	21.4	38.4	9.4	3.9	6.6	16.9	100.0 (145)
중학교	3.1	0.0	1.6	20.2	31.0	15.2	2.0	8.5	21.6	100.0 (67)
고등학교	1.6	1.7	3.5	15.7	35.6	9.4	9.2	4.5	20.4	100.0 (50)
전문대학 이상	1.8	8.7	0.0	20.7	28.9	17.9	0.0	0.0	23.8	100.0 (13)
현취업상태										
취업중	0.5	0.0	0.0	7.3	16.5	5.2	14.0	15.1	42.0	100.0 (18)
미취업	7.1	1.1	3.6	23.2	37.3	13.8	2.5	4.5	14.1	100.0 (43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3	0.9	3.0	25.7	40.6	8.4	3.6	3.0	14.7	100.0 (166)
제2오분위	7.0	0.8	2.1	22.0	34.6	12.9	2.4	6.5	18.7	100.0 (141)
제3오분위	3.3	3.1	9.2	11.1	38.9	18.1	3.0	7.2	9.5	100.0 (67)
제4오분위	2.3	0.0	2.7	32.0	20.9	26.7	0.0	3.3	14.4	100.0 (46)
제5오분위	1.6	0.0	1.6	18.8	40.1	13.4	5.6	5.3	15.2	100.0 (3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3	1.0	2.4	24.6	39.5	7.4	3.0	5.0	17.2	100.0 (276)
50%이상~100%미만	3.9	1.9	6.5	17.7	34.1	25.5	2.3	1.7	10.3	100.0 (110)
100%이상~150%미만	2.8	0.0	4.2	14.9	25.6	22.6	5.4	14.1	13.2	100.0 (47)
150%이상	1.1	0.0	0.0	38.6	33.8	8.3	0.0	0.0	19.3	100.0 (20)
기능상태										
제한 있음	19.2	1.3	4.4	25.4	40.1	14.7	2.5	3.0	8.6	100.0 (360)
제한 없음	1.1	0.0	0.1	11.3	22.2	8.6	4.5	12.3	41.1	100.0 (93)
2020년도	4.3	0.6	5.4	18.8	21.3	9.2	6.8	37.7	0.1	100.0 (431)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장기요양등급신청 경험자 453명을 대상으로 함.

3)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기각, 각하 등을 의미함.

장기요양 인정등급(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노인의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별 이용률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서비스를 보면, 방문요양이 73.7%로 가장 많으며, 방문목욕 24.3%, 방문간호 8.7%, 주야간보호 30.3%, 단기보호 1.8%, 복지용구 13.9%로 나타났다.

지역별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읍·면부 노인은 동부 노인에 비해 방문목욕, 복지용구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은 여자 노인에 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의 이용률이 높으며, 여자 노인은 남자 노인보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방문요양 이용률이 70%를 상회하고, 9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방문목욕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65~69세 연령대에서는 주야간보호 이용률(40.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방문요양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의 방문요양 이용률이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구에서는 주야간보호 이용률이 40.3%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교육수준에서 무학인 노인의 경우, 방문요양 이용률이 7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방문목욕 33.1%, 주야간보호 30.8% 등의 이용률을 보였다. 취업하지 않은 노인의 경우, 방문요양 이용률은 74.4%, 주야간보호 이용률은 30.8%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서는 특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 있는 노인이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률(중복 응답)

(단위: %, 명)

특성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전체 ¹⁾²⁾	73.7	24.3	8.7	30.3	1.8	13.9
지역						
동부	74.4	21.7	9.7	33.1	2.0	13.1
읍·면부	72.2	29.7	6.9	24.8	1.2	15.7
성						
남자	57.6	24.2	4.4	35.7	4.7	22.6
여자	79.5	24.4	10.3	28.4	0.7	10.8
연령						
65~69세	54.6	24.8	5.4	40.8	4.3	29.3
70~74세	72.5	26.3	8.9	24.2	4.9	12.0
75~79세	66.4	6.1	5.2	31.4	4.6	14.0
80~84세	70.9	20.6	8.7	31.1	2.2	10.6
85~89세	80.9	27.0	6.8	26.7	0.0	11.8
90세 이상	77.4	36.6	17.4	34.9	0.0	17.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6.2	27.7	8.4	26.6	1.4	17.0
배우자 없음	76.8	23.0	8.9	31.9	1.9	12.7
가구형태						
노인독거	78.9	23.3	9.4	30.1	2.3	12.2
노인부부	65.6	27.8	9.1	26.2	1.6	18.5
자녀동거	73.4	21.7	6.9	40.3	0.7	13.8
기타	42.6	26.8	0.0	8.6	0.0	0.0
교육수준						
무학	73.8	33.1	13.1	30.8	0.4	13.2
초등학교	79.5	18.1	6.2	31.8	1.2	13.4
중학교	58.5	16.2	6.6	25.9	0.0	14.4
고등학교	78.5	20.0	3.1	36.2	12.0	9.3
전문대학 이상	59.8	8.9	0.0	4.7	0.0	47.9
현취업상태						
취업중	40.2	0.0	0.0	8.4	0.0	8.7
미취업	74.4	24.9	8.9	30.8	1.8	14.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8.9	26.4	10.1	34.5	1.1	13.4
제2오분위	69.8	20.1	7.9	28.0	1.7	9.0
제3오분위	71.0	35.1	11.6	29.6	2.1	18.9
제4오분위	79.1	17.5	2.5	31.9	4.1	18.5
제5오분위	60.3	17.9	7.9	17.2	1.6	19.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5.2	24.1	7.0	32.4	1.5	12.2
50%이상~100%미만	71.2	29.1	15.1	30.5	1.2	17.2
100%이상~150%미만	71.7	10.4	2.5	21.3	4.5	8.6
150%이상	72.8	28.7	7.5	21.3	2.6	28.9
기능상태						
제한 있음	76.5	26.3	8.8	30.0	2.0	14.4
제한 없음	53.4	9.7	8.4	33.1	0.0	10.3
2020년도	62.5	32.6	16.6	25.9	4.9	21.2

주: 1) 장기요양인정등급(1등급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362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돌봄서비스 개선 사항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상태가 저하된 노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1순위로 응답한 결과를 보면, ‘건강증진이나 기능 회복을 위한 기능 회복훈련 및 재활서비스’ 37.0%,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25.7%, ‘노인을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 이용 시간의 확대’ 24.0%, ‘주말이나 야간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 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일반특성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개선사항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능회복 및 재활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노년기 돌봄을 위해 필요한 돌봄 관련 서비스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건강증진이나 기능 회복을 위한 기능회복훈련 및 재활서비스’ 52.8%, ‘노인을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 이용 시간의 확대’ 50.6%,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50.0%, ‘주말이나 야간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 22.2%, ‘퇴원 후 집에서 간호 또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단기 서비스’ 14.2%,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6.0%, ‘IoT 기기를 활용한 안전확인 및 응급서비스 지원’ 4.0%로 조사되었다. 읍·면부 노인은 동부 노인에 비해 ‘서비스 이용시간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동부 거주 노인은 ‘주말이나 야간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에 대한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퇴원 후 단기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기능회복훈련이나 재활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으며,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와 ‘서비스 이용 시간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비율은 차지하였다.

〈표 4-32〉 노인돌봄서비스 개선 사항(1순위)

(단위: %, 명)

특성	기능회복 훈련 및 재활서비스	서비스 내용 다양화	서비스 시간 확대	주말 야간 이용가능 서비스 제공	퇴원 후 단기돌봄 서비스	안전확인 및 응급서비스 자원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기타	계 (명)
전체 ¹⁾²⁾	37.0	25.7	24.0	6.5	3.8	1.3	1.8	0.0	100.0 (9,955)
지역									
동부	37.4	26.4	22.8	6.6	4.1	1.3	1.5	0.0	100.0 (7,359)
읍·면부	36.0	23.7	27.4	6.0	2.9	1.1	2.7	0.1	100.0 (2,596)
성									
남자	37.9	25.9	23.2	6.4	3.6	1.4	1.5	0.0	100.0 (4,384)
여자	36.4	25.5	24.5	6.5	4.0	1.2	2.0	0.0	100.0 (5,571)
연령									
65~69세	38.3	24.5	22.9	7.4	3.6	1.6	1.5	0.1	100.0 (3,465)
70~74세	35.3	25.0	24.4	6.6	4.9	1.7	2.0	0.0	100.0 (2,362)
75~79세	36.7	26.9	24.2	5.9	3.7	1.0	1.6	0.0	100.0 (1,729)
80~84세	38.5	25.7	24.2	4.5	3.5	0.8	2.8	0.0	100.0 (1,379)
85~89세	37.3	27.1	25.7	6.0	2.2	0.1	1.6	0.0	100.0 (781)
90세 이상	28.4	35.7	24.9	8.0	2.3	0.0	0.7	0.0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7.6	24.9	23.3	6.5	4.1	1.6	2.0	0.0	100.0 (5,987)
배우자 없음	36.1	26.9	25.0	6.4	3.2	0.7	1.5	0.0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36.6	27.5	24.1	6.3	3.3	0.7	1.5	0.0	100.0 (3,281)
노인부부	37.5	24.8	23.4	6.5	4.1	1.6	2.0	0.0	100.0 (5,509)
자녀동거	35.4	25.3	25.9	6.5	3.6	1.4	1.9	0.0	100.0 (993)
기타	38.4	21.5	26.6	6.2	4.1	1.0	2.1	0.0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35.5	26.6	26.9	5.7	2.6	0.7	2.1	0.0	100.0 (1,184)
초등학교	36.8	26.5	24.1	5.4	3.8	0.9	2.5	0.1	100.0 (2,810)
중학교	37.1	25.5	25.1	5.9	3.4	1.2	1.7	0.0	100.0 (2,127)
고등학교	37.1	25.0	22.4	7.7	4.6	1.7	1.4	0.0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39.7	24.4	21.8	7.9	3.3	1.9	0.8	0.0	100.0 (701)
현취업상태									
취업중	37.0	24.6	24.1	6.7	4.1	1.6	1.9	0.1	100.0 (3,926)
미취업	37.0	26.4	23.9	6.3	3.6	1.1	1.7	0.0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4.3	27.6	24.4	6.3	4.1	1.3	2.0	0.0	100.0 (1,989)
제2오분위	37.1	25.3	25.9	5.9	2.9	0.9	2.0	0.0	100.0 (1,983)
제3오분위	36.6	27.6	23.7	6.3	3.2	1.0	1.6	0.0	100.0 (1,981)
제4오분위	37.7	24.4	24.3	6.4	4.3	1.3	1.5	0.0	100.0 (2,007)
제5오분위	39.4	23.5	21.6	7.4	4.4	1.8	1.8	0.1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5.7	26.6	25.4	5.9	3.4	1.1	1.9	0.0	100.0 (3,722)
50%이상~100%미만	36.6	26.0	23.7	6.3	3.7	1.4	2.2	0.0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36.8	25.0	24.0	7.4	4.5	0.9	1.3	0.1	100.0 (1,657)
150%이상	40.5	24.0	21.3	6.8	4.1	1.7	1.4	0.1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37.1	25.7	23.4	6.7	4.0	1.3	1.7	0.0	100.0 (1,759)
제한 없음	36.5	25.7	26.4	5.4	2.8	1.0	2.1	0.1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2023년 신규 문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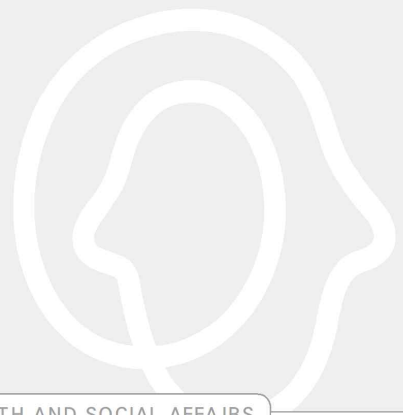
〈표 4-33〉 노인돌봄서비스 개선 사항(1+2순위)

(단위: %)

특성	기능회복 훈련 및 재활서비스	서비스 내용 다양화	서비스 시간 확대	주말 야간 이용가능 서비스 제공	퇴원 후 단기돌봄 서비스	안전확인 및 응급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기타
전체 ¹⁾²⁾	52.8	50.0	50.6	22.2	14.2	4.0	6.0	0.1
지역								
동부	52.3	50.4	49.4	23.2	15.2	4.2	5.2	0.0
읍·면부	54.3	48.9	54.2	19.4	11.3	3.3	8.0	0.3
성								
남자	52.8	49.4	51.2	21.9	14.1	4.5	5.7	0.1
여자	52.8	50.4	50.2	22.4	14.2	3.5	6.1	0.1
연령								
65~69세	54.0	47.8	47.4	23.3	15.3	5.5	6.3	0.2
70~74세	50.9	49.7	51.4	22.0	15.3	4.1	6.3	0.1
75~79세	52.5	51.2	51.5	21.8	13.9	3.4	5.2	0.2
80~84세	55.3	50.4	52.5	19.1	13.0	3.0	6.4	0.0
85~89세	51.1	53.9	55.6	23.4	10.7	0.6	4.8	0.0
90세 이상	47.8	59.2	56.2	23.8	6.9	1.6	4.5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3.0	48.7	49.6	22.5	15.3	4.3	6.3	0.1
배우자 없음	52.6	51.9	52.2	21.8	12.5	3.4	5.5	0.1
가구형태								
노인독거	51.9	52.5	52.0	21.6	13.1	3.6	5.1	0.1
노인부부	52.9	48.8	49.6	22.7	15.2	4.2	6.2	0.1
자녀동거	54.1	49.3	51.0	21.4	12.6	4.2	7.0	0.4
기타	57.7	43.7	57.6	21.3	10.0	1.0	8.7	0.0
교육수준								
무학	52.3	54.8	56.4	18.4	9.8	1.7	6.2	0.1
초등학교	53.7	52.1	51.5	21.2	12.9	2.2	6.0	0.1
중학교	54.8	46.9	50.9	21.8	14.5	4.8	5.9	0.2
고등학교	51.4	48.7	47.8	24.4	16.3	5.0	6.1	0.0
전문대학 이상	50.4	48.3	49.2	24.1	16.1	7.3	4.7	0.0
현취업상태								
취업중	53.5	48.0	49.7	22.6	14.9	4.9	6.1	0.1
미취업	52.3	51.3	51.3	21.9	13.7	3.3	5.9	0.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1.4	50.6	49.9	20.9	15.9	4.9	6.1	0.1
제2오분위	55.1	51.6	53.3	21.5	9.9	3.0	5.5	0.1
제3오분위	51.9	53.0	50.9	21.9	13.1	2.9	6.0	0.1
제4오분위	52.5	48.7	50.5	22.0	16.6	3.5	5.7	0.1
제5오분위	53.2	46.0	48.6	24.6	15.3	5.4	6.5	0.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3.3	51.0	52.1	20.9	12.9	3.8	5.7	0.1
50%이상~100%미만	52.9	51.3	49.8	22.2	13.8	3.3	6.4	0.1
100%이상~150%미만	51.6	49.8	49.8	22.9	15.5	3.8	6.0	0.2
150%이상	52.7	45.9	49.7	24.2	16.1	5.3	5.8	0.1
기능상태								
제한 있음	50.4	54.0	53.3	20.2	11.4	2.3	8.1	0.2
제한 없음	53.3	49.1	50.1	22.6	14.8	4.3	5.5	0.1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2023년 신규 문항임.



제5장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제1절 사회적 관계망의 규모와 특성

제2절 노인의 가구 유형별 특성

제3절 배우자와의 관계

제4절 자녀와의 관계

제5절 손자녀와의 관계

제6절 친인척 및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

제5장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본 장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와 교류 양상에 대해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한 사회적 관계망의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고, 이중 노인의 가구유형을 중심으로 그 특성과 형성 이유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나아가 노인이 가진 다양한 사회적 관계-배우자, 자녀, 손자녀, 친인척, 친구·이웃·지인-에 따라 어떠한 교류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 파악하였다. 본 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표본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결과로 유효응답 사례 수가 적은 항목이나 세부 인구집단(90세 이상, 기타 가구, 전문대학 졸업 이상 등)의 분석 결과 등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1절 사회적 관계망의 규모와 특성

1. 사회적 관계망의 규모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규모를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친구·이웃·지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녀 94.0%, 손자녀 85.5%, 형제자매 77.7% 순이며, 각각의 평균 수는 2.7명, 4.4명, 2.8명이다. 친구·이웃·지인이 있다는 응답은 89.4%이고 평균 3.7명으로,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관계망이 있다는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그 규모는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떨어져 사는 자녀가 있는 노인 중 88.6%는 필요시 연락 가능한 자녀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규모는 약 2.6명이다. 10% 내외의 노인은 자녀와 느슨한 관계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일반특성별로 살펴보면, 읍·면부 지역 노인이 동부 지역 노인들보다 자녀, 손자녀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망을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자녀에 있어서는 동부 지역 노인이 83.7%인데 반해 읍·면부 노인은 90.7%로 차이가 크다. 관계망의 규모 역시 읍·면부 노인에게서 전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노

인이 남자 노인보다 더 넓은 관계망을 갖고 있으며, 친구·이웃·지인을 제외한 대부분 관계의 규모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였다.

연령군별로 비교해 보면, 자녀와 손자녀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형제자매와 친구·이웃·지인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보유율 및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다. 65~69세 노인의 경우 77.6%가 손자녀가 있고, 평균 손자녀 수는 3.3명으로 응답한 반면, 90세 이상은 동 응답이 95.2%, 6.3명으로 나타나 비율 면에서는 약 18%포인트, 규모 면에서는 약 2배의 차이를 보인다. 형제자매와 친구·이웃·지인에 대한 응답은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응답 노인이 고령일 경우 그들의 동년배 역시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석 가능하다. 연락 가능한 비동거 자녀에 있어서는 연령군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65~69세 연령군이 타 연령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유율 및 규모가 작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관계망의 보유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관계망의 규모에 있어서는 배우자 유무에 따른 명확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같은 경향은 가구유형별 특성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즉, 자녀를 제외한 모든 관계망이 있다는 응답은 부부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관계망의 규모는 손자녀(독거가구 4.8명, 기타 가구 3.9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자녀를 둔 비율은 교육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으나, 평균 자녀 수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많다. 일례로 무학 노인은 평균 3.6명의 자녀를 둔 반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평균 2.2명이다. 손자녀 및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가능성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이다. 반면 형제자매와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유율 및 규모가 크다. 무학 노인 중 83.3%가 친구·이웃·지인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90.4%가 이에 해당한다. 관계망의 규모 역시 평균 3.5명과 4.5명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대체로 고령의 후기노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관계망 특성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취업 여부 역시 교육수준별 특성 차이와 유사하다. 대체로 취업 중인 노인은 손자녀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관계망을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취업 중인 노인이 미취업 노인에 비해 사회적 활동 범위가 넓고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일 수 있다. 단, 관계망 규모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미취업 노인의 경우 자녀, 손자녀, 연락 가능한 비동거 자녀의 규모가 더 큰 반면, 형제자매, 친구·이웃·

지인과 같은 동년배 규모는 취업 중인 노인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취업 중인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고 동년배와의 접촉 기회 역시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유형의 관계망(손자녀 제외)을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규모 면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관계망의 구성이 상이하다. 자녀, 손자녀, 연락 가능한 비동거 자녀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형제자매, 친구·이웃·지인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 규모가 더 크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자녀, 손자녀, 연락 가능한 비동거 자녀와 같은 관계망의 보유율 및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난다. 반면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형제자매, 친구·이웃·지인과 같은 관계에서 더 높은 보유율 및 규모를 보인다.

〈표 5-1〉 가족 및 친구·이웃·지인 유무(비율)

(단위: %)

특성	생존 자녀	생존 손자녀	생존 형제자매	친구·이웃·지인	연락 가능한 비동거 자녀 ²⁾
전체 ¹⁾	94.0	85.5	77.7	89.4	88.6
지역					
동부	93.4	83.7	77.4	88.2	88.5
읍·면부	95.7	90.7	78.4	92.6	88.9
성					
남자	93.6	83.5	78.7	88.7	88.2
여자	94.4	87.1	76.9	89.8	88.9
연령					
65~69세	92.6	77.6	89.7	93.0	86.6
70~74세	94.0	85.4	83.3	91.5	89.3
75~79세	94.7	90.4	75.4	88.9	89.7
80~84세	96.0	93.3	67.4	86.0	90.7
85~89세	95.5	93.2	46.4	80.7	88.9
90세 이상	93.6	95.2	35.4	68.9	89.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6.2	87.4	81.4	90.8	91.4
배우자 없음	90.7	82.8	72.2	87.1	84.4
가구형태					
노인독거	89.5	82.8	73.6	87.9	85.2
노인부부	95.9	89.1	81.3	90.8	92.7
자녀동거	99.9	77.2	70.7	86.2	78.2
기타	83.1	74.4	80.2	89.9	81.7
교육수준					
무학	95.4	92.4	59.8	83.3	87.0
초등학교	94.3	90.3	72.5	88.9	89.2
중학교	93.8	85.6	80.6	89.6	88.9
고등학교	93.4	80.1	85.2	91.8	88.6
전문대학 이상	94.0	78.5	87.6	90.4	87.7
현 취업상태					
취업중	95.0	83.9	84.5	93.9	89.3
미취업	93.4	86.6	73.3	86.5	88.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0.4	84.7	68.6	83.8	85.6
제2오분위	92.8	87.7	72.8	86.7	87.9
제3오분위	96.1	89.1	79.8	91.2	92.8
제4오분위	95.1	87.0	82.3	91.8	90.5
제5오분위	95.8	79.1	84.9	93.2	86.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2.2	86.8	70.0	85.1	87.6
50%이상~100%미만	95.6	88.6	79.7	90.6	91.5
100%이상~150%미만	95.4	84.5	84.1	92.7	88.5
150%이상	94.0	79.2	84.6	93.2	86.3
기능상태					
제한 있음	93.8	84.9	81.9	92.1	88.4
제한 없음	95.0	88.5	59.3	77.4	89.3
2020년도	96.8	88.3	79.8	93.6	—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2023년 신규 문항임.

〈표 5-2〉 가족 및 친구·이웃·지인 평균수

(단위: 명)

특성	생존 자녀 ¹⁾	생존 손자녀 ²⁾	생존 형제자매 ³⁾	친구·이웃·지인 ⁴⁾	연락 가능한 비동거 자녀 ⁵⁾⁶⁾
전체	2.7	4.4	2.8	3.7	2.6
지역					
동부	2.5	4.0	2.8	3.6	2.4
읍·면부	3.1	5.4	2.9	4.0	3.0
성					
남자	2.5	4.1	2.8	3.9	2.5
여자	2.8	4.7	2.8	3.6	2.7
연령					
65~69세	2.2	3.3	2.9	4.0	2.1
70~74세	2.5	4.0	2.9	3.7	2.4
75~79세	2.8	4.6	2.8	3.7	2.7
80~84세	3.3	5.5	2.6	3.5	3.1
85~89세	3.8	6.7	2.4	3.4	3.6
90세 이상	3.7	6.3	1.9	2.9	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6	4.2	2.9	3.9	2.5
배우자 없음	2.9	4.8	2.7	3.5	2.7
가구형태					
노인독거	2.8	4.8	2.7	3.5	2.7
노인부부	2.6	4.3	2.9	3.9	2.6
자녀동거	2.9	4.2	2.7	3.7	2.2
기타	2.5	3.9	2.9	3.6	2.3
교육수준					
무학	3.6	6.4	2.7	3.5	3.4
초등학교	3.0	5.0	2.9	3.6	2.9
중학교	2.5	4.1	2.8	3.7	2.4
고등학교	2.2	3.4	2.8	3.8	2.2
전문대학 이상	2.2	3.3	3.0	4.5	2.1
현 취업상태					
취업중	2.6	4.2	2.9	4.1	2.5
미취업	2.8	4.6	2.8	3.5	2.6
연가소득					
제1오분위	3.0	5.1	2.7	3.3	2.8
제2오분위	3.0	5.0	2.7	3.5	2.9
제3오분위	2.7	4.5	2.9	3.7	2.6
제4오분위	2.6	4.0	2.9	4.0	2.4
제5오분위	2.3	3.5	2.8	4.2	2.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0	5.0	2.7	3.3	2.8
50%이상~100%미만	2.7	4.5	2.9	3.8	2.6
100%이상~150%미만	2.5	3.9	2.9	4.0	2.4
150%이상	2.2	3.4	2.7	4.2	2.2
기능상태					
제한 있음	2.6	4.2	2.9	3.9	2.5
제한 없음	3.2	5.4	2.6	3.1	2.9
2020년도	3.0	4.1	2.9	3.0	—

주: 1) 전체응답자 중 생존 자녀가 있는 9,476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전체응답자 중 생존 손자녀가 있는 8,62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3) 전체응답자 중 생존 형제자매가 있는 7,829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4) 전체응답자 중 친구·이웃·지인이 있는 9,00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5) 전체응답자 중 연락 가능한 비동거 자녀가 있는 8,928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6) 2023년 신규 문항임.

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규모

노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있는가와 그 규모에 대해 살펴보았다. 크게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측면에서는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위로와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도구적 측면에서는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지를, 경제적 측면에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돈을 빌릴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는 일상생활 또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계망이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로 볼 수 있다.

관계망 기능에 따라 보면,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이 없다는 응답이 8.0%, 도구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응답이 14.8%,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응답이 37.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줄 관계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규모를 살펴본 결과 각각 2.5명, 2.1명, 1.8명 순으로, 관계망 보유율 및 규모가 서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공 가능한 지원 유형과 사회적 관계망의 강도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앞선 〈표 5-2〉에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이웃·지인의 평균 규모는 3.7명이었으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계망의 크기는 대략 2명 내외로 좁혀진다. 이 차이는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일상적 교류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규모가 더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응답자의 92.0%)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일반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 노인 중 8.2%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고, 읍·면부 지역 노인은 7.2%가 이에 해당하였다. 평균 규모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는 적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 중 9.0%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 노인은 동 응답이 7.1%에 불과하다. 성별에 따른 평균 규모의 차이는 미미하나, 전반적으로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에 비해 더 협소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높다. 특히 90세 이상 노인은 동 응답이 16.0%로 65~69세 노인의 5.1%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이 현저히 축소됨을 보여 준다. 평균 규모 역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90세 이상 노인은 평균 2.0명, 65~69세 노인은 평균 2.7명의 지원 가능한 사회적 관계망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배우자 유무 및 가구 유형에 있어서도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부에 차이가 있다. 우선 무배우 노인의 9.6%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유배우 노인은 이 비율이 6.9%로 나타났다. 또한 독거가구 노인은 9.4%가 같은 응답을 했으며, 이는 다른 가구유형의 노인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관계망 규모에 있어서는 배우자 유무 및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가 적지만, 관계망을 통해 가용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이 무배우 노인 또는 독거가구 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적음을 의미한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 노인의 13.9%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용한 평균 관계망 규모는 2.3명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의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1%이고 평균 규모가 2.8명으로 비교적 차이가 있다. 취업 여부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경향이다. 미취업 노인 중 9.7%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취업 중인 노인은 5.3%에 그친다. 관계망의 평균 규모 역시 미취업 노인은 2.4명, 취업 중인 노인은 2.8명 수준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역시 명확하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해당 관계망의 규모 역시 작다. 구체적으로 제1오분위에 속하는 노인들은 동 응답이 12.9%에 평균 2.2명으로 응답한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제5오분위 노인은 이 비율이 4.1%에 평균 2.7명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응답 경향도 이와 유사하다.

기능상태의 경우,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13.2%로 제한이 없는 노인(6.8%)의 2배 수준이다.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정서적 지지를 필요로 할 수 있으나, 실제 그러한 도움을 제공할 사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5-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단위: %, 명)

특성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계 (명)	평균 ²⁾
전체 ¹⁾³⁾	8.0	21.5	32.5	22.6	5.7	9.7	100.0 (9,955)	2.5
지역								
동부	8.2	22.3	32.7	22.3	5.1	9.3	100.0 (7,359)	2.5
읍·면부	7.2	19.4	31.9	23.4	7.4	10.7	100.0 (2,596)	2.6
성								
남자	9.0	21.3	31.5	22.1	5.4	10.7	100.0 (4,384)	2.6
여자	7.1	21.7	33.3	23.0	6.0	8.9	100.0 (5,571)	2.5
연령								
65~69세	5.1	19.5	32.0	24.5	6.2	12.8	100.0 (3,465)	2.7
70~74세	6.2	22.1	32.8	23.2	5.7	10.1	100.0 (2,362)	2.5
75~79세	8.9	22.0	32.4	22.3	6.9	7.4	100.0 (1,729)	2.5
80~84세	11.1	21.0	32.6	23.7	4.4	7.2	100.0 (1,379)	2.4
85~89세	15.8	27.4	30.2	15.9	4.5	6.2	100.0 (781)	2.2
90세 이상	16.0	26.6	43.9	7.8	2.4	3.3	100.0 (239)	2.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9	19.8	32.4	23.7	6.4	10.9	100.0 (5,987)	2.6
배우자 없음	9.6	24.2	32.6	21.0	4.8	7.9	100.0 (3,968)	2.4
가구형태								
노인독거	9.4	23.0	32.9	21.2	5.3	8.3	100.0 (3,281)	2.4
노인부부	7.0	19.7	32.4	23.7	6.7	10.6	100.0 (5,509)	2.6
자녀동거	8.6	26.7	31.4	21.7	2.6	9.0	100.0 (993)	2.4
기타	8.9	23.6	33.0	20.7	2.8	10.9	100.0 (172)	2.5
교육수준								
무학	13.9	25.9	31.5	16.5	4.4	7.9	100.0 (1,184)	2.3
초등학교	8.8	22.2	33.7	21.6	5.0	8.6	100.0 (2,810)	2.5
중학교	7.4	22.7	31.5	24.2	5.4	8.8	100.0 (2,127)	2.5
고등학교	5.7	19.1	32.7	24.7	6.9	10.8	100.0 (3,132)	2.6
전문대학 이상	6.1	18.8	31.1	22.7	6.7	14.6	100.0 (701)	2.8
현 취업상태								
취업중	5.3	17.5	30.7	26.1	6.5	14.0	100.0 (3,926)	2.8
미취업	9.7	24.2	33.7	20.4	5.3	6.8	100.0 (6,029)	2.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9	26.1	34.1	17.5	4.5	5.0	100.0 (1,989)	2.2
제2오분위	9.6	22.5	34.1	20.5	4.7	8.5	100.0 (1,983)	2.4
제3오분위	6.5	19.3	33.6	25.3	6.4	8.9	100.0 (1,981)	2.6
제4오분위	6.7	18.6	32.1	24.6	5.6	12.4	100.0 (2,007)	2.7
제5오분위	4.1	21.3	28.5	25.1	7.5	13.6	100.0 (1,995)	2.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1.3	24.5	34.4	18.8	4.7	6.3	100.0 (3,722)	2.3
50%이상~100%미만	7.5	19.2	32.9	24.8	6.0	9.6	100.0 (2,759)	2.6
100%이상~150%미만	5.1	19.8	30.7	25.9	5.8	12.8	100.0 (1,657)	2.7
150%이상	4.4	20.6	29.5	24.2	7.4	13.9	100.0 (1,817)	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13.2	29.0	34.9	16.2	2.8	4.0	100.0 (1,759)	2.6
제한 없음	6.8	20.0	32.0	24.0	6.4	10.9	100.0 (8,196)	2.1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9,164명을 대상으로 함.

3) 2023년 신규 문항임.

다음으로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응답자의 85.2%)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일반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 노인 중 15.8%는 도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고, 읍·면부 지역 노인은 12.0%가 이에 해당한다. 평균 규모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 중 16.2%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여자 노인은 13.8% 수준이다. 성별에 따른 평균 규모 차이는 적지만, 앞서 정서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와 마찬가지로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에 비해 가용한 관계망이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몸이 아플 때 도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높다. 65~69세 노인은 동 응답이 11.5%이었던 반면 90세 이상은 22.2%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계자원이 적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 역시 발견된다. 무배우자의 16.8%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유배우자는 동 비율이 13.6%로 나타났다. 관계망의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작다. 가구유형에 있어서는 뚜렷한 경향성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 편이며, 자녀 동거가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18.3%로 타 가구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 및 취업 여부, 소득수준에 따라 도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여부에 차이가 있다. 무학인 노인의 경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21.4%로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12.5%)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취업 여부에 있어서는 취업 중인 노인의 동 비율은 11.6%인 반면 미취업 노인은 17.0%가 이에 해당하였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낮은 소득계층일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다만 이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계망의 평균 규모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교육수준, 취업 여부,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작다.

기능제한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에게서 도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19.7%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13.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이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이 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표 5-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단위: %, 명)

특성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계 (명)	평균 ²⁾
전체 ¹⁾	14.8	30.1	32.6	15.4	3.1	4.0	100.0 (9,955)	2.1
지역								
동부	15.8	31.1	31.9	14.4	2.8	3.9	100.0 (7,359)	2.0
읍·면부	12.0	27.1	34.5	18.3	3.9	4.2	100.0 (2,596)	2.2
성								
남자	16.2	29.9	31.9	14.7	3.1	4.2	100.0 (4,384)	2.1
여자	13.8	30.2	33.1	16.0	3.1	3.8	100.0 (5,571)	2.1
연령								
65~69세	11.5	29.5	34.8	16.6	2.8	4.9	100.0 (3,465)	2.1
70~74세	12.9	31.2	32.8	15.7	2.9	4.4	100.0 (2,362)	2.1
75~79세	16.4	30.4	30.1	16.1	3.9	3.0	100.0 (1,729)	2.0
80~84세	19.8	26.3	31.4	16.0	4.0	2.5	100.0 (1,379)	2.1
85~89세	21.1	33.6	29.2	9.8	1.8	4.5	100.0 (781)	1.9
90세 이상	22.2	35.3	32.6	6.9	2.5	0.4	100.0 (239)	1.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3.6	28.9	33.4	16.4	3.4	4.3	100.0 (5,987)	2.1
배우자 없음	16.8	31.8	31.3	14.0	2.7	3.5	100.0 (3,968)	2.0
가구형태								
노인독거	16.1	31.1	32.0	14.3	2.9	3.7	100.0 (3,281)	2.0
노인부부	13.5	28.9	33.7	16.2	3.5	4.2	100.0 (5,509)	2.1
자녀동거	18.3	33.5	27.7	15.0	2.1	3.4	100.0 (993)	2.0
기타	13.3	30.8	34.7	15.2	1.8	4.2	100.0 (172)	2.0
교육수준								
무학	21.4	31.7	27.7	12.3	2.9	4.0	100.0 (1,184)	2.0
초등학교	16.5	29.2	31.9	15.5	3.4	3.5	100.0 (2,810)	2.1
중학교	14.0	31.3	32.6	15.9	2.6	3.5	100.0 (2,127)	2.0
고등학교	11.9	29.2	34.4	16.4	3.6	4.5	100.0 (3,132)	2.1
전문대학 이상	12.5	31.0	35.1	14.8	1.7	5.0	100.0 (701)	2.1
현 취업상태								
취업중	11.6	27.6	32.9	18.7	3.5	5.8	100.0 (3,926)	2.2
미취업	17.0	31.7	32.4	13.3	2.9	2.8	100.0 (6,029)	2.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9.5	32.0	31.9	11.7	2.8	2.0	100.0 (1,989)	1.9
제2오분위	17.3	30.6	31.2	14.3	2.9	3.7	100.0 (1,983)	2.0
제3오분위	15.1	28.3	33.5	16.0	3.0	4.2	100.0 (1,981)	2.1
제4오분위	12.6	27.5	35.1	15.9	3.6	5.2	100.0 (2,007)	2.1
제5오분위	9.7	31.9	31.0	19.3	3.3	4.7	100.0 (1,995)	2.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8.9	31.2	31.7	12.5	3.0	2.7	100.0 (3,722)	2.0
50%이상~100%미만	15.1	27.5	34.2	15.8	2.9	4.5	100.0 (2,759)	2.1
100%이상~150%미만	11.2	29.6	34.1	16.8	3.8	4.6	100.0 (1,657)	2.1
150%이상	9.4	32.1	30.5	19.8	3.1	5.1	100.0 (1,817)	2.1
기능상태								
제한 있음	19.7	34.0	31.6	10.0	3.0	1.7	100.0 (1,759)	2.1
제한 없음	13.8	29.2	32.8	16.6	3.1	4.5	100.0 (8,196)	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8,477명을 대상으로 함.

3) 2023년 신규 문항임.

마지막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응답자의 63.0%)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일반특성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관계망 여부는 일반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있어서 남자 노인은 34.9%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 노인은 38.6%가 이에 해당하였다. 근소한 차이지만 상대적으로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재정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관계망이 적음을 의미한다.

연령군별로는 90세 이상 노인의 경우 53.3%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하여, 65~69세 노인(28.7%)과 비교 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전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연령대 증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를 시사한다. 특히 고령일수록 재정적 도움 필요시 가용한 사회적 지원망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배우자 유무와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무배우자(43.0%), 독거가구(43.0%)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뚜렷한데, 무학 노인의 53.4%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27.8%만이 같은 응답을 하였다. 취업 여부에 있어서도 취업 중인 노인의 30.3%가, 미취업 노인의 41.4%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더 적게 나타났다. 기능상태에 따른 차이에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48.6%가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34.5%)에 비해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이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능제한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표 5-5〉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단위: %, 명)

특성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계 (명)	평균 ²⁾
전체 ¹⁾	37.0	29.3	22.0	8.3	1.9	1.5	100.0 (9,955)	1.8
지역								
동부	37.1	29.8	22.2	7.8	1.6	1.4	100.0 (7,359)	1.8
읍·면부	36.6	27.7	21.3	9.8	2.7	1.9	100.0 (2,596)	1.9
성								
남자	34.9	29.9	23.0	8.4	2.0	1.8	100.0 (4,384)	1.8
여자	38.6	28.8	21.2	8.3	1.8	1.3	100.0 (5,571)	1.8
연령								
65~69세	28.7	32.1	25.6	9.8	1.7	2.0	100.0 (3,465)	1.8
70~74세	36.3	30.4	21.6	8.0	2.2	1.5	100.0 (2,362)	1.8
75~79세	38.9	29.1	20.2	9.0	1.8	1.0	100.0 (1,729)	1.8
80~84세	45.7	25.0	18.3	7.8	2.3	1.0	100.0 (1,379)	1.8
85~89세	51.6	23.7	17.2	4.2	1.2	2.0	100.0 (781)	1.8
90세 이상	53.3	20.4	22.2	1.9	1.6	0.5	100.0 (239)	1.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3.0	30.6	23.8	8.9	1.9	1.7	100.0 (5,987)	1.8
배우자 없음	43.0	27.2	19.1	7.6	1.9	1.2	100.0 (3,968)	1.8
가구형태								
노인독거	43.0	26.7	19.1	7.8	2.0	1.3	100.0 (3,281)	1.8
노인부부	33.2	30.6	23.6	8.9	1.9	1.8	100.0 (5,509)	1.8
자녀동거	37.6	30.1	22.4	7.4	1.5	1.0	100.0 (993)	1.7
기타	40.5	29.2	20.3	6.6	1.0	2.4	100.0 (172)	1.8
교육수준								
무학	53.4	23.0	14.6	6.0	1.8	1.2	100.0 (1,184)	1.8
초등학교	42.3	27.3	18.7	8.1	1.9	1.7	100.0 (2,810)	1.8
중학교	37.2	29.3	22.0	9.1	1.1	1.3	100.0 (2,127)	1.8
고등학교	28.0	32.0	27.3	8.6	2.6	1.6	100.0 (3,132)	1.8
전문대학 이상	27.8	35.5	23.3	9.8	1.7	1.9	100.0 (701)	1.8
현 취업상태								
취업중	30.3	30.6	24.5	9.7	2.4	2.5	100.0 (3,926)	1.9
미취업	41.4	28.4	20.3	7.5	1.6	0.9	100.0 (6,029)	1.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5.9	28.1	18.6	5.5	1.3	0.7	100.0 (1,989)	1.7
제2오분위	46.1	26.0	17.7	6.9	2.3	1.0	100.0 (1,983)	1.8
제3오분위	38.5	29.5	20.8	8.4	1.4	1.5	100.0 (1,981)	1.8
제4오분위	30.5	30.0	23.9	11.1	2.3	2.3	100.0 (2,007)	1.9
제5오분위	24.2	32.6	28.8	9.9	2.3	2.2	100.0 (1,995)	1.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6.3	27.3	18.1	5.9	1.6	0.8	100.0 (3,722)	1.7
50%이상~100%미만	38.0	28.4	21.1	9.0	1.7	1.8	100.0 (2,759)	1.8
100%이상~150%미만	29.0	30.5	25.1	11.0	2.4	2.0	100.0 (1,657)	1.9
150%이상	23.9	33.4	28.4	9.8	2.2	2.3	100.0 (1,817)	1.9
기능상태								
제한 있음	48.6	24.3	20.2	4.3	1.8	0.8	100.0 (1,759)	1.8
제한 없음	34.5	30.3	22.3	9.2	1.9	1.7	100.0 (8,196)	1.7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6,271명을 대상으로 함.

3) 2023년 신규 문항임.

제2절 노인의 가구 유형별 특성

1. 일반특성별 가구 유형

가구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부부가구 55.2%, 독거가구 32.8%, 자녀 동거가구 10.3%, 기타 가구 1.7%의 순으로, 상당수의 노인이 노인 단독가구(혼자 또는 부부)로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과 비교할 때 독거가구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자녀 동거가구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지역별 분포에 있어서는 가구유형별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으나, 자녀 동거가구에 있어서 동부 지역 거주가 11.3%로 읍·면부 지역 거주 7.3%에 비해 높다. 성별 분포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의 경우 부부가구에서 71.1%로 가장 높고, 여자 노인은 독거가구에서 43.2%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연령군별로는 부부가구에서 전기 노인의 비중이 높은 반면(65~69세 62.6%, 70~74세 63.3%), 85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비중은 독거가구에서 높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독거가구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의 비중이 높아, 무학 56.4%, 초등학교 졸업 38.8% 순을 차지한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가구소득이 낮은 제1오분위 속한 비율이 독거가구에서 63.9%로 타 가구유형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 제한에 있어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있다는 비율이 부부가구 42.9%, 독거가구 39.0%로, 노인 단독가구에서 기능제한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종합할 때, 독거가구는 여자 노인 및 고령 노인의 비중이 높고, 사회경제적으로 저학력 및 낮은 소득수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취약성을 드러낸다. 부부가구의 경우, 독거가구와 비교 시 사회적 여건 등에서는 안정된 상황이나, 기능제한 경험률 등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

〈표 5-6〉 일반특성별 가구 유형

(단위: %, 명)

특성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계 (명)
전체 ¹⁾	32.8	55.2	10.3	1.7	100.0 (10,078)
지역					
동부	31.9	55.3	11.3	1.5	100.0 (7,450)
읍·면부	35.3	55.0	7.3	2.4	100.0 (2,628)
성					
남자	19.6	71.1	7.2	2.2	100.0 (4,429)
여자	43.2	42.8	12.7	1.4	100.0 (5,648)
연령					
65~69세	25.9	62.6	8.6	2.9	100.0 (3,473)
70~74세	28.4	63.3	7.1	1.2	100.0 (2,376)
75~79세	35.5	54.8	8.7	1.0	100.0 (1,743)
80~84세	38.7	46.8	13.5	1.0	100.0 (1,407)
85~89세	52.4	27.5	18.9	1.2	100.0 (825)
90세 이상	54.5	17.0	28.1	0.4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0	92.0	6.7	1.2	100.0 (6,046)
배우자 없음	82.0	0.0	15.6	2.5	100.0 (4,031)
교육수준					
무학	56.4	28.7	14.1	0.8	100.0 (1,240)
초등학교	38.8	47.5	11.9	1.8	100.0 (2,847)
중학교	29.2	61.4	7.9	1.5	100.0 (2,139)
고등학교	23.1	66.3	8.5	2.1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21.2	64.5	12.2	2.1	100.0 (7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29.3	60.0	8.5	2.2	100.0 (3,930)
미취업	35.0	52.1	11.4	1.4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3.9	31.2	4.1	0.7	100.0 (2,013)
제2오분위	41.0	53.6	4.1	1.3	100.0 (2,013)
제3오분위	28.7	63.9	5.8	1.5	100.0 (2,014)
제4오분위	19.6	64.5	13.3	2.7	100.0 (2,021)
제5오분위	10.8	62.8	24.1	2.3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2.2	50.9	5.6	1.3	100.0 (3,776)
50%이상~100%미만	30.2	58.3	9.0	2.4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24.0	56.9	17.1	2.0	100.0 (1,674)
150%이상	25.4	57.7	15.5	1.3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39.0	42.9	16.4	1.6	100.0 (1,873)
제한 없음	31.4	58.0	8.9	1.8	100.0 (8,205)
2020년도	19.8	58.4	20.1	1.7	10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자녀 동거가구와 관련하여, 자녀의 혼인 특성(기혼/미혼)을 바탕으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혼자녀 동거가구(424명)의 경우, 지역별로는 77.1%가 동부 지역에, 22.9%가 읍·면부에 거주하며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이 74.9%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연령군별로는 85~89세 28.2%, 80~84세 25.1%로 고령의 비중이 높고,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80.2%이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졸업이 41.0%로 가장 높고 무학 28.1% 등 저학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대다수 미취업 상태(82.4%)이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연가구소득 제5오분위가 41.9%, 제4오분위가 27.1%를 차지하는데, 이는 동거 자녀의 소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미혼자녀 동거가구(623명) 역시 주로 동부 지역에 거주하며(84.9%), 여자 노인의 비중이 62.1%로 높다. 이들 중 대다수는 전기노인(65~69세 42.6%, 70~74세 20.1%)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 노인이 46.5%로 약 1/2을 차지한다. 현재 취업 중인 비율은 42.4%로 사회참여가 활발하다. 소득수준의 경우, 기혼자녀 동거가구와 마찬가지로 제5오분위 51.0%, 제4오분위 24.9%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다. 기능상태 제한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비율이 81.3%로 대다수 기능상태가 원만한 특성을 보인다.

종합적으로 보면, 기혼자녀 동거가구는 주로 고령의 여자 노인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구조로,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가 일상생활 지원의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혼자녀 동거가구는 노인의 연령대가 비교적 낮고, 고학력의 노인이 현재도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보이고 있어 기혼자녀 동거가구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같은 특성 차이는 노인의 생활방식, 자녀와의 관계 및 동거 경향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역동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5-7〉 기혼·미혼자녀 동거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특성	기혼자녀 동거가구	미혼자녀 동거가구
	계 (명)	계 (명)
전체 ¹⁾	100.0 (424)	100.0 (623)
지역		
동부	77.1 (327)	84.9 (529)
읍·면부	22.9 (97)	15.1 (94)
성		
남자	20.6 (87)	37.9 (236)
여자	79.4 (336)	62.1 (387)
연령		
65~69세	8.6 (36)	42.6 (266)
70~74세	10.8 (46)	20.1 (125)
75~79세	13.3 (56)	15.8 (98)
80~84세	25.1 (107)	13.7 (86)
85~89세	28.2 (120)	5.7 (35)
90세 이상	14.0 (59)	2.0 (1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9.8 (84)	53.3 (332)
배우자 없음	80.2 (340)	46.7 (291)
교육수준		
무학	28.1 (119)	9.3 (58)
초등학교	41.0 (174)	26.7 (166)
중학교	15.4 (65)	17.5 (109)
고등학교	13.7 (58)	34.1 (212)
전문대학 이상	1.9 (8)	12.4 (77)
현취업상태		
취업중	17.6 (74)	42.4 (264)
미취업	82.4 (349)	57.6 (35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0 (42)	6.8 (42)
제2오분위	8.1 (34)	7.7 (48)
제3오분위	12.9 (55)	9.6 (60)
제4오분위	27.1 (115)	24.9 (155)
제5오분위	41.9 (178)	51.0 (31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5.1 (106)	17.3 (108)
50%이상~100%미만	28.4 (120)	21.2 (132)
100%이상~150%미만	28.2 (119)	27.8 (173)
150%이상	18.3 (78)	33.8 (211)
기능상태		
제한 있음	45.1 (191)	18.7 (116)
제한 없음	54.9 (233)	81.3 (507)
2020년도	100.0 (938)	100.0 (1,086)

주: 1) 전체응답자 중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424명,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623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기혼 및 미혼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노인은 14명으로 사례수가 적어 별도 분석하지 않음.

2. (단독가구) 형성 이유 및 생활상 어려움

가구 유형별로 현재의 거주형태를 택한 이유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단독가구(독거가구, 부부가구) 형성 이유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결혼이 24.3%로 주된 이유를 차지하였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노인 단독가구 거주에 중요한 요인임을 뜻한다. 다음으로 개인 또는 부부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선택이 21.4%로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기 싫어서라는 응답과 같은 비율로 나타났고,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13.6%, 건강해서 9.5% 등이 뒤를 이었다. 즉, 단독가구 선택에 있어 노인 개인 차원의 욕구 및 특성(경제적 능력, 건강상태, 개인/부부생활 향유 욕구, 익숙한 지역 선호)에 기인한 응답이 65.9%에 달하며, 자녀의 사회적 상황(결혼, 직업, 학업 등)에 기반한 이유는 약 1/3을 차지한다.

일반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 노인의 단독가구 거주에 주된 이유는 자녀의 결혼(26.9%)이었으나, 읍·면부 지역 노인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31.1%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단독가구를 선택하는 이유 차이가 분명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명확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으나, 연령군별로는 낮은 연령대에서 노인 개인 차원의 욕구 및 특성(개인/부부생활 향유 욕구, 경제적 능력, 건강상태)에 따라 단독가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고령일수록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기 싫어서라는 응답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며, 85~89세 및 90세 이상에서 동 응답은 29.5%, 28.9%이다.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익숙한 환경에서의 생활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을 보여준다.

가구형태에 있어서 부부가구에서는 대부분 개인 또는 부부생활 향유(25.6%)를 위해 단독가구를 선택하였으나, 독거가구에서는 익숙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은 욕구에 따라 선택했다는 응답이 28.9%로 나타난다.

교육수준별로는 경제적 능력이나 건강상태를 이유로 단독가구를 선택한 비율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에서 각 26.5%, 11.9%로 높게 나타나, 교육수준이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결정함에 있어 주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한편 무학 노인에서는 익숙한 지역에 대한 애착 또는 선호(32.6%)로 인해 단독가구를 선택했다는 응답이 높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경제적 능력, 건강상태, 개인/부부생활 향유와 같은 노인의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단독가구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강하며, 반대로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살고 있는 지역에서 떠나기 싫어서 단독가구를 선택했다는 응답 비중이 더 높다.

노인 단독가구 형성 이유에 있어 노인 개인적 차원의 욕구와 특성, 가족 구성원의 변화, 자녀의 상황적 요인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며, 특히 사회경제적 특성(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 5-8〉 단독거주 이유

(단위: %, 명)

특성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건강 해서	개인/ 부부생활 향유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기 싫어서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가 따로 살기를 원해서	자녀가 직장(학업) 때문에 다른 지역 거주	기타	계 (명)
전체 ¹⁾	13.6	9.5	21.4	21.4	24.3	4.5	4.4	0.9	100.0 (8,791)
지역									
동부	13.8	10.7	21.6	17.9	26.9	4.9	3.3	1.0	100.0 (6,438)
읍·면부	12.9	6.2	20.9	31.1	17.1	3.4	7.6	0.9	100.0 (2,353)
성									
남자	15.6	10.4	23.1	19.1	22.5	4.2	4.5	0.7	100.0 (3,976)
여자	11.9	8.8	20.0	23.4	25.8	4.6	4.3	1.2	100.0 (4,815)
연령									
65~69세	17.2	11.8	24.1	16.2	21.4	3.9	4.8	0.5	100.0 (3,068)
70~74세	14.2	11.2	22.1	20.4	24.8	3.1	3.4	0.7	100.0 (2,166)
75~79세	12.4	7.3	21.1	24.1	25.8	4.1	3.7	1.4	100.0 (1,562)
80~84세	9.4	5.9	18.0	27.7	26.8	6.7	4.6	0.8	100.0 (1,183)
85~89세	5.7	4.8	14.7	29.5	28.9	7.3	7.3	1.8	100.0 (637)
90세 이상	9.7	9.0	15.0	28.9	20.6	7.7	3.6	5.4	100.0 (175)
가구형태									
노인독거	11.3	8.7	14.4	28.9	23.9	5.9	4.7	2.1	100.0 (3,281)
노인부부	15.0	10.0	25.6	16.9	24.5	3.6	4.2	0.2	100.0 (5,509)
교육수준									
무학	4.5	2.3	15.2	32.6	28.1	7.3	7.7	2.4	100.0 (1,025)
초등학교	11.9	7.8	20.3	25.0	25.1	4.3	4.2	1.5	100.0 (2,437)
중학교	12.5	9.4	23.3	21.0	25.2	3.7	4.2	0.7	100.0 (1,927)
고등학교	16.4	13.3	23.2	16.9	22.3	4.0	3.8	0.2	100.0 (2,802)
전문대학 이상	26.5	11.9	22.4	10.3	20.7	4.4	3.4	0.4	100.0 (6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18.5	10.7	22.1	19.2	20.9	3.4	5.0	0.3	100.0 (3,507)
미취업	10.3	8.7	21.0	22.9	26.5	5.2	4.0	1.4	100.0 (5,28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6	8.0	17.7	26.3	24.7	6.4	4.3	1.9	100.0 (1,895)
제2오분위	8.0	7.1	20.8	26.4	26.0	5.5	4.6	1.4	100.0 (1,878)
제3오분위	11.5	10.1	21.6	21.4	24.7	4.8	5.2	0.7	100.0 (1,847)
제4오분위	17.6	12.5	22.9	16.8	23.8	2.5	3.6	0.2	100.0 (1,695)
제5오분위	22.4	10.3	24.9	13.9	21.5	2.3	4.3	0.3	100.0 (1,47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8	7.9	20.1	25.7	25.0	5.8	4.4	1.3	100.0 (3,472)
50%이상~100%미만	11.7	10.1	21.8	21.4	24.3	4.4	5.2	1.2	100.0 (2,455)
100%이상~150%미만	17.6	12.2	23.1	16.9	24.3	2.7	2.9	0.4	100.0 (1,349)
150%이상	21.9	9.9	22.3	15.7	22.4	2.9	4.6	0.3	100.0 (1,515)
기능상태									
제한 있음	7.9	8.6	20.2	26.7	22.6	8.0	4.0	1.9	100.0 (1,466)
제한 없음	14.7	9.7	21.6	20.4	24.6	3.7	4.5	0.8	100.0 (7,325)
2020년도	12.7	11.2	19.9	18.2	28.3	5.9	3.2	0.5	100.0 (7,832)

주: 1) 본인응답자 중에서 노인 단독가구 8,791명을 대상으로 함.

단독가구로 생활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에 대해 분석한 결과, 42.3%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나머지 응답자들의 경우, 주된 어려움으로 아플 때 간호 25.2%, 경제적 불안 11.5%, 일상생활 문제 처리 10.6% 등을 지적하였다.

일반특성별 차이에 있어,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이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단독가구로서 생활하는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으며, 특히 아플 때 간호(29.4%), 일상생활 문제 처리(12.5%) 측면에서의 문제를 더 많이 지적하였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이 경험하는 단독가구로서의 어려움이 더 크고, 아플 때 간호의 문제(30.2%)를 남자 노인보다 더 높게 언급하였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단독가구로서 겪는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며, 특히 90세 이상에서는 아플 때 간호(40.3%), 일상생활 문제 처리(15.9%),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의 문제(15.9%)를 타 연령대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였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독거가구에서 겪는 어려움이 부부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고, 아플 때 간호할 사람의 부재(39.9%) 및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측면에서의 어려움(11.6%)이 두드러진다.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단독가구로서 겪는 어려움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에게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66.9%에 달하는 반면 무학 노인은 20.7% 수준에 그친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고령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관련된 결과로 보이며, 특히 아플 때 간호(37.1%), 일상생활 문제 처리(15.2%) 등을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앞서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단독가구로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크고, 아플 때 간호 또는 일상생활 문제 처리의 어려움 등에 집중된 경향이다.

기능제한 여부에 있어서는 기능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이 단독가구로서의 어려움을 더 경험하며, 아플 때 간호(31.8%), 일상생활 문제 처리 어려움(20.4%)과 같은 신체적 돌봄과 관련한 문제가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표 5-9〉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

(단위: %, 명)

특성	없음	아플 때 간호	일상생활 문제처리	경제적 불안감	안전에 대한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 외로움	기타	계 (명)
전체 ¹⁾	42.3	25.2	10.6	11.5	3.3	7.0	0.1	100.0 (8,791)
지역								
동부	44.3	23.7	9.9	12.0	3.7	6.4	0.0	100.0 (6,438)
읍·면부	36.9	29.4	12.5	10.2	2.2	8.7	0.1	100.0 (2,353)
성								
남자	49.0	19.2	10.6	12.0	3.4	5.8	0.0	100.0 (3,976)
여자	36.8	30.2	10.6	11.2	3.2	7.9	0.1	100.0 (4,815)
연령								
65~69세	51.1	20.5	8.1	12.2	2.7	5.3	0.1	100.0 (3,068)
70~74세	43.6	25.6	9.8	11.1	3.4	6.5	0.0	100.0 (2,166)
75~79세	39.7	25.7	10.7	12.3	3.3	8.2	0.1	100.0 (1,562)
80~84세	31.0	29.9	15.1	12.4	4.5	7.1	0.1	100.0 (1,183)
85~89세	29.0	32.5	14.9	9.1	3.3	10.8	0.3	100.0 (637)
90세 이상	21.0	40.3	15.9	2.3	4.5	15.9	0.0	100.0 (175)
가구형태								
노인독거	26.1	39.9	9.9	9.4	3.0	11.6	0.0	100.0 (3,281)
노인부부	51.9	16.5	11.0	12.8	3.5	4.2	0.1	100.0 (5,509)
교육수준								
무학	20.7	37.1	15.2	13.7	3.2	10.0	0.1	100.0 (1,025)
초등학교	37.5	28.3	12.2	11.1	2.8	8.0	0.0	100.0 (2,437)
중학교	41.4	24.4	10.4	13.3	4.0	6.4	0.0	100.0 (1,927)
고등학교	49.7	21.3	8.4	11.3	3.5	5.6	0.1	100.0 (2,802)
전문대학 이상	66.9	13.1	6.8	5.2	2.0	5.8	0.2	100.0 (6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48.0	23.6	9.5	10.7	2.5	5.6	0.0	100.0 (3,507)
미취업	38.5	26.3	11.3	12.1	3.8	7.9	0.1	100.0 (5,28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1.8	34.5	12.2	11.4	2.0	8.1	0.1	100.0 (1,895)
제2오분위	30.5	30.1	11.6	16.0	3.7	8.1	0.1	100.0 (1,878)
제3오분위	42.4	23.3	11.9	11.3	4.0	7.1	0.0	100.0 (1,847)
제4오분위	52.2	19.9	8.8	9.9	3.5	5.8	0.0	100.0 (1,695)
제5오분위	59.4	15.6	7.7	8.3	3.5	5.3	0.2	100.0 (1,47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3.9	29.8	12.1	14.1	2.8	7.3	0.1	100.0 (3,472)
50%이상~100%미만	41.6	24.6	10.6	11.5	4.1	7.6	0.0	100.0 (2,455)
100%이상~150%미만	51.0	19.9	10.0	10.2	3.1	5.6	0.1	100.0 (1,349)
150%이상	55.1	20.5	7.7	6.9	3.4	6.4	0.1	100.0 (1,515)
기능상태								
제한 있음	21.0	31.8	20.4	11.7	4.8	10.2	0.1	100.0 (1,466)
제한 없음	46.6	23.9	8.6	11.5	3.0	6.3	0.0	100.0 (7,325)
2020년도	40.9	23.7	9.9	13.3	3.8	8.3	0.0	100.0 (7,832)

주: 1) 본인응답자 중에서 노인 단독가구 8,791명을 대상으로 함.

3. (자녀 동거가구) 형성 이유 및 생활 분담 방법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자녀의 혼인 여부(기혼/미혼)에 따라 동거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이나 규범적 기대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후 순위로는 노인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17.0%, 본인 또는 배우자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16.7%, 노인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14.5% 등이 제시되었다. 규범적 요인 이외에도 노인의 개인적 필요에 따른 자녀와의 동거 선택 비율 역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특성별로는 지역적 측면에서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규범적 이유(37.6%)를 읍·면부 지역 노인(27.6%)에 비해 더 중시하는 반면, 읍·면부 지역 노인은 단독가구의 외로움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돌봄 필요성에 의해 자녀와 동거한다는 응답이 각각 23.5%, 17.9%로 동부 지역 거주 노인(15.1%, 16.4%)에 비해 높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50.4%)이 규범적 요인에 의한 기혼자녀와의 동거를 여자 노인(31.1%)보다 더 많이 보고한다. 여자 노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한 돌봄 필요(17.5%)와 본인의 경제적 능력 부족(18.0%)을 이유로 자녀와 동거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연령군별로는 80세 이상에서 노인의 필요(본인(배우자) 돌봄, 경제적 능력 부족)에 기반하여 자녀와 동거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80세 미만 노인에게서는 자녀에게 육아나 가사 지원,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등과 같은 자녀의 필요로 인한 동거 이유를 더 높게 보고한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유배우 노인의 경우 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16.8%),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12.4%)을 이유로 동거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무배우 노인은 본인의 경제적 능력 부족(18.2%)으로 인해 동거한다는 응답이 더 높다.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에게서 노인의 경제적 능력 부족에 따라 자녀와 동거한다는 응답이 더 높고,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하거나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동거한다는 응답은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비교적 높다.

가구소득과 관련한 뚜렷한 경향성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며, 기능제한 여부에 있어서

는 기능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이 본인의 필요(돌봄 필요 26.9%, 경제적 능력 부족 19.4%)에 따라 동거한다는 이유가 높다.

다음으로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역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규범적 응답이 44.0%로 기혼자녀 동거가구에 비해 더 높다. 다음으로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14.8%, 단독가구의 외로움 14.1%, 본인의 경제적 능력 부족 10.4% 등을 언급하였다. 기혼자녀 동거가구와 비교 시 규범적 요인 및 자녀의 상황적 요인(자녀에게 도움 제공+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에 따른 동거 선택 비율이 더 높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이유로 경제적 사정을 꼽은 경우 본인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동거한다는 응답은 동부 지역 거주 노인에게서 11.0% (읍·면부 6.5%)로 나타난 반면, 자녀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동거한다는 응답은 읍·면부 노인에게서 17.8%(동부 14.3%)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성별에 있어서는 기혼자녀와의 동거와 마찬가지로 미혼자녀와의 동거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이 규범적 요인(52.5%)을 더 높게 지적한 반면 여자 노인은 단독가구의 외로움(16.1%), 돌봄 필요(8.9%), 본인의 경제적 능력 부족(13.1%)에 대한 응답이 더 높다. 이는 곧 여자 노인이 일상생활 영위에 있어 실질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자녀와의 동거를 선택함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기혼자녀와의 동거와 비교했을 때,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 노인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규범적 요인으로 인해 동거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65~69세에서의 응답이 54.2%로 매우 높는데, 이는 노인의 연령대를 고려 시 미혼자녀 역시 상대적으로 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통적 또는 규범적 이유로 자녀와 동거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노인의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필요에 따라 자녀와의 동거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다.

배우자와 관련하여, 유배우 노인은 규범적 요인에 따라 미혼자녀와 동거한다는 비율이 51.1%로 무배우 노인(35.9%)보다 현저히 높다. 반면 기혼자녀 동거와 마찬가지로 단독가구의 외로움(17.1%), 본인의 경제적 능력 부족(17.5%)에 따라 자녀와 동거한다는 응답은 무배우 노인에게서 더 높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직면하는 정서적 지지의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와의 동거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기혼자녀와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와 경향성을 같이 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분명치 않으나,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 동거한다는 응

답이 가장 낮은 소득수준인 제1오분위에서 30.6%로 가장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능제한 여부에 있어서도 기혼자녀 동거가구와 유사하게,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이 본인의 필요—예를 들어 돌봄 또는 경제적 도움—에 따라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다. 단, 이같은 경향은 기혼자녀 동거가구에 비해 다소 낮다.

노인과 자녀 간의 동거 결정에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더불어, 그들의 생애주기와 사회문화적 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녀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거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전히 규범적 이유가 강하게 작용하며, 이는 가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지속됨을 내포한다. 아울러 기혼자녀와의 동거는 노인 본인의 필요—예를 들어, 돌봄이 필요하거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할 때—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혼자녀와의 동거는 자녀의 필요—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도움 필요 등—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0〉 (자녀 동거가구) 자녀 혼인 특성에 따른 자녀와의 동거 이유

(단위: %, 명)

특성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이 당연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나(배우자) 돌봐 줄 사람 필요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자녀에게 육아, 가사 등 도움 제공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기타		계	(명)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전체 ^{1) 2)}	35.3	44.0	17.0	14.1	16.7	7.1	14.5	10.4	9.7	9.3	4.2	14.8	2.5	0.4	100.0	(387)	(617)
지역																	
동부	37.6	43.3	15.1	13.8	16.4	7.4	15.6	11.0	9.0	9.9	3.3	14.3	3.1	0.3	100.0	(300)	(523)
읍·면부	27.6	47.9	23.5	15.9	17.9	5.5	10.7	6.5	12.1	5.5	7.5	17.8	0.7	0.8	100.0	(88)	(94)
성																	
남자	50.4	52.5	18.3	10.9	14.1	4.2	1.8	5.9	9.2	8.6	4.3	17.6	1.9	0.3	100.0	(85)	(236)
여자	31.1	38.7	16.6	16.1	17.5	8.9	18.0	13.1	9.8	9.7	4.2	13.1	2.7	0.4	100.0	(303)	(381)
연령																	
65~69세	28.0	54.2	27.8	12.4	0.0	3.3	4.3	6.2	32.8	9.6	5.3	14.3	1.7	0.0	100.0	(36)	(265)
70~74세	34.3	44.8	8.4	12.9	7.6	8.4	6.5	11.1	26.3	13.5	14.5	8.6	2.3	0.6	100.0	(46)	(124)
75~79세	25.0	32.0	24.3	16.5	10.5	6.3	16.2	17.5	17.5	10.2	5.4	16.8	1.0	0.7	100.0	(55)	(96)
80~84세	34.6	39.9	22.7	12.5	17.7	14.6	12.4	11.9	2.4	5.3	3.9	14.9	6.2	0.9	100.0	(102)	(84)
85~89세	47.1	7.1	11.9	31.2	18.8	17.9	18.7	14.0	1.5	0.7	0.6	29.0	1.3	0.0	100.0	(98)	(35)
90세 이상	31.2	42.2	7.5	7.1	37.5	0.0	23.1	15.7	0.0	2.7	0.6	32.3	0.0	0.0	100.0	(51)	(1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2.5	51.1	17.6	11.4	14.8	6.0	1.1	4.1	16.8	9.7	12.4	17.5	4.6	0.2	100.0	(83)	(328)
배우자 없음	36.1	35.9	16.8	17.1	17.3	8.3	18.2	17.5	7.7	8.8	2.0	11.9	2.0	0.5	100.0	(304)	(288)
교육수준																	
무학	25.8	31.5	20.4	16.3	19.3	14.7	21.4	21.2	5.8	4.9	1.8	11.5	5.5	0.0	100.0	(94)	(57)
초등학교	41.9	33.1	16.1	13.5	20.0	11.0	11.9	14.6	6.6	9.9	2.4	16.5	1.1	1.4	100.0	(165)	(160)
중학교	31.7	46.6	11.5	14.6	8.8	4.5	22.2	15.0	18.8	9.3	7.1	10.0	0.0	0.0	100.0	(65)	(109)
고등학교	35.1	47.9	18.9	16.9	9.8	3.9	3.5	4.4	16.3	9.2	11.4	17.7	4.9	0.0	100.0	(55)	(212)
전문대학 이상	42.7	61.3	25.2	5.3	32.0	5.9	0.0	3.3	0.0	11.2	0.0	13.0	0.0	0.0	100.0	(82)	(77)
현 취업상태																	
취업중	41.1	52.2	19.6	13.5	2.5	2.1	10.2	6.9	12.4	9.1	11.9	15.9	2.2	0.3	100.0	(74)	(264)
미취업	34.0	37.9	16.4	14.6	20.1	10.8	15.5	12.9	9.0	9.4	2.4	14.0	2.6	0.4	100.0	(313)	(35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8.4	50.9	19.6	5.3	12.5	3.9	5.9	1.9	4.7	7.4	7.6	30.6	1.4	0.0	100.0	(39)	(42)
제2오분위	32.8	37.1	7.5	11.9	9.4	6.3	25.3	12.9	12.0	15.6	5.3	16.3	7.8	0.0	100.0	(31)	(47)
제3오분위	17.0	33.9	18.7	9.1	23.9	11.0	19.2	10.1	12.2	7.1	3.7	27.6	5.2	1.2	100.0	(44)	(59)
제4오분위	37.0	35.9	10.8	15.2	18.8	10.1	20.8	18.9	6.4	7.8	2.0	11.5	4.2	0.5	100.0	(106)	(155)
제5오분위	36.5	50.0	21.7	16.0	15.9	5.4	9.3	6.9	11.8	9.7	4.8	11.8	0.0	0.2	100.0	(167)	(31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2.2	42.7	13.9	10.8	14.5	4.3	17.9	7.1	11.9	11.4	5.5	23.7	4.1	0.0	100.0	(96)	(106)
50%이상~ 100%미만	34.7	35.9	10.3	11.9	15.5	13.9	21.7	15.4	9.8	4.8	4.3	17.0	3.8	1.2	100.0	(107)	(131)
100%이상~ 150%미만	31.8	39.8	15.8	14.8	26.6	7.5	9.1	13.5	11.8	11.4	3.5	12.7	1.5	0.4	100.0	(113)	(168)
150%이상	46.2	53.0	33.1	16.6	6.1	4.0	7.6	6.3	3.1	9.3	3.8	10.8	0.0	0.0	100.0	(71)	(211)
기능상태																	
제한 있음	27.3	29.9	16.3	12.3	26.9	19.2	19.4	13.4	2.2	6.4	3.4	18.8	4.6	0.0	100.0	(156)	(110)
제한 없음	40.7	47.0	17.5	14.5	9.9	4.5	11.2	9.7	14.7	9.9	4.8	14.0	1.2	0.4	100.0	(232)	(507)
2020년도	24.9	38.8	16.6	11.4	16.3	5.1	15.1	10.6	17.4	17.3	9.7	16.7	0.0	0.0	100.0	(872)	(1,060)

주: 1) 본인응답자 중 기혼자녀 동거가구 387명, 미혼자녀 617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일상생활 분담 방식은 자녀의 혼인 여부(기혼/미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자녀가 수행한다는 비율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수행 30.0%,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행 17.8%, 각자 알아서 수행 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행하는 비율이 46.8%로 가장 높고, 이어서 공동 수행 27.8%, 각자 알아서 수행 17.8%, 자녀가 수행 7.6%로 나타났다. 즉, 기혼자녀 동거가구는 대체로 자녀의 지원을 통해, 미혼자녀 동거가구는 노인 본인 또는 배우자를 통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자녀에게 가사 등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동거한다는 비율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 시, 일상생활 분담 방식에 있어서도 자녀의 결혼 여부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일반특성별 차이에 있어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남자 노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행하거나, 자녀와 함께 수행한다는 비율이 30.6%, 35.3%로 여자 노인(14.2%, 28.4%)보다 높다. 반면 여자 노인은 자녀가 담당하거나 각자 알아서 수행하는 비율이 43.9%, 13.5%로 남자 노인(28.2%, 5.9%)에 비해 높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이를 담당하거나 각자 알아서 따로 수행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수행 비율이 높다. 이는 높은 연령대에서 동거 자녀의 지원 및 역할이 더 강해짐을 알 수 있는 측면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행한다는 비율이 38.6%(무배우자 12.2%)인데 반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자녀가 수행한다는 비율이 46.1%(유배우자 20.5%)를 차지한다. 무배우 노인의 경우, 가정 내에서 자녀의 일상생활 참여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볼 때 배우자의 존재가 노인의 일상생활 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됨을 내포한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행한다는 비율에 있어서만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이를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다. 무학 노인의 동 비율이 10.5%인데 반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44.4%에 달한다. 취업 여부에 있어서도 취업 중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각자 알아서 따로 수행한다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미취업 노인에게서는 자녀의 수행 비율이 더 높다. 교육수준이 높거나 현재 취업 중인 노인의 경우, 자립적인 생활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일상생활 수행 비율이 높다. 기능제한 여부에 있어서는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수행(23.6%), 공동 수행(34.8%), 각자 알아서 수행(13.7%) 비율이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모두 높다. 기능제한에 따라 생활관리 여부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 가능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지역별 차이에 있어 읍·면부 거주 노인은 자녀의 수행 비율이 13.7%로 동부 거주 노인(6.5%)에 비해, 동부 거주 노인은 각자 알아서 수행하는 비율이 18.7%로 읍·면부 거주 노인(12.6%)에 비해 높게 나타나 거주 지역에 따라 가족 내 역할 및 책임 양상이 다르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행한다는 비율이 54.0%로 여자 노인(42.3%)에 비해 높지만 이외의 항목에서는 여자 노인의 비율이 더 높다. 연령군별 분석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가 일상생활을 분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기혼자녀 동거가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역할 및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차 시사하는 결과이다.

배우자 유무와 관련해서는 무배우 노인의 경우, 38.8%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유배우 노인(54.0%)에 비해 낮은 하나 기혼자녀의 분석 결과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교육수준 및 취업 여부에 따른 경향성은 교육수준이 높거나 취업 중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로 수행하며, 교육수준이 낮거나 취업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역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가 수행한다는 비율이 높아, 제1오분위에서는 동 비율이 17.1%인 반면 제5오분위는 5.1%로 나타났다. 경제적 여건이 제한적인 가정에서 자녀의 지원이 더 강조되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기능제한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역시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자녀 또는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응답이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더 높다.

〈표 5-11〉 (자녀 동거가구) 일상생활 분담 방법

(단위: %, 명)

특성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행		자녀가 수행		공동 수행		각자 알아서 따로 수행		계	(명)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전체 ^{1) 2)}	17.8	46.8	40.6	7.6	30.0	27.8	11.6	17.8	100.0	(387)	(617)
지역											
동부	17.7	46.8	39.8	6.5	30.4	27.9	12.0	18.7	100.0	(300)	(523)
읍·면부	18.2	46.3	43.2	13.7	28.4	27.4	10.2	12.6	100.0	(88)	(94)
성											
남자	30.6	54.0	28.2	4.7	35.3	23.8	5.9	17.4	100.0	(85)	(236)
여자	14.2	42.3	43.9	9.4	28.4	30.2	13.5	18.1	100.0	(303)	(381)
연령											
65~69세	41.7	52.8	8.3	1.9	27.8	23.8	22.2	21.5	100.0	(36)	(265)
70~74세	30.4	47.6	13.0	6.5	37.0	29.8	19.6	16.1	100.0	(46)	(124)
75~79세	29.1	42.3	41.8	11.3	25.5	27.8	3.6	18.6	100.0	(55)	(96)
80~84세	19.8	47.1	32.7	10.6	33.7	31.8	13.9	10.6	100.0	(102)	(84)
85~89세	3.0	25.7	48.5	31.4	35.4	42.9	13.1	0.0	100.0	(98)	(35)
90세 이상	0.0	0.0	86.3	30.8	11.8	15.4	2.0	53.8	100.0	(51)	(1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8.6	54.0	20.5	3.7	30.1	25.6	10.8	16.8	100.0	(83)	(328)
배우자 없음	12.2	38.8	46.1	12.1	29.9	30.1	11.8	19.0	100.0	(304)	(288)
교육수준											
무학	10.5	47.4	49.5	21.1	29.5	26.3	10.5	5.3	100.0	(94)	(57)
초등학교	13.3	40.0	47.6	13.8	28.3	30.6	10.8	15.6	100.0	(165)	(160)
중학교	26.6	47.7	18.8	7.3	35.9	29.4	18.8	15.6	100.0	(65)	(109)
고등학교	28.6	44.1	30.4	0.9	30.4	31.8	10.7	23.2	100.0	(55)	(212)
전문대학 이상	44.4	67.5	33.3	2.6	22.3	10.4	0.0	19.5	100.0	(82)	(77)
현 취업상태											
취업중	25.7	43.8	21.6	3.0	28.4	31.3	24.3	21.9	100.0	(74)	(264)
미취업	16.0	49.1	45.0	11.1	30.4	25.0	8.6	14.8	100.0	(313)	(35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5	39.0	65.0	17.1	15.0	22.0	12.5	22.0	100.0	(39)	(42)
제2오분위	18.8	40.4	28.1	14.9	31.3	36.2	21.9	8.5	100.0	(31)	(47)
제3오분위	20.9	68.3	44.2	5.0	20.9	16.7	14.0	10.0	100.0	(44)	(59)
제4오분위	15.0	41.9	43.9	9.7	29.9	29.0	11.2	19.4	100.0	(106)	(155)
제5오분위	21.6	46.8	34.1	5.1	34.7	28.7	9.6	19.4	100.0	(167)	(31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4.6	46.2	47.9	13.2	18.8	26.4	18.8	14.2	100.0	(96)	(106)
50%이상~100%미만	20.6	50.0	37.4	11.4	29.0	23.5	13.1	15.2	100.0	(107)	(131)
100%이상~150%미만	17.0	42.9	42.9	6.5	35.7	28.6	4.5	22.0	100.0	(113)	(168)
150%이상	19.4	47.9	31.9	3.8	37.5	30.3	11.1	18.0	100.0	(71)	(211)
기능상태											
제한 있음	9.0	33.0	59.6	17.4	22.4	36.7	9.0	12.8	100.0	(156)	(110)
제한 없음	23.6	49.8	27.9	5.5	34.8	25.8	13.7	18.9	100.0	(232)	(507)
2020년도	21.4	50.7	35.3	7.1	30.2	28.2	13.1	14.0	100.0	(872)	(1,060)

주: 1) 본인응답자 중 기혼자녀 동거가구 387명, 미혼자녀 617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제3절 배우자와의 관계

노인의 삶에서 배우자의 존재 및 건강상태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파악한 결과, 48.5%는 긍정적으로 인식(매우 건강+건강한 편)하는 반면 33.9%는 보통, 17.5%는 부정적으로 인식(건강하지 않은 편+전혀 건강하지 않음)하고 있다.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 노인의 49.7%가 배우자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비해 읍·면부 거주 노인은 이보다 다소 낮은 45.2% 수준이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며,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높다. 특히 65~69세 연령군에서는 61.6%가 배우자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85~89세는 동 비율이 23.6%로 감소하여 약 1/3 수준이다. 노인과 배우자가 대개 비슷한 연령대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연령 증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화현상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 및 취업 여부와 관련해서는 교육수준이 높거나 취업 중인 경우, 배우자의 건강상태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 중 61.9%가 배우자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취업 중인 노인의 57.0%가 이에 해당하였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비교적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는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가구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제1오분위에서 배우자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비율이 36.9%인 반면 제5오분위에서는 동 비율이 61.7%이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배우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본인이 건강한 편일수록 배우자의 건강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다. 본인을 매우 건강하다고 평가한 노인 중 91.8%는 배우자 역시 (매우) 건강한 편으로 평가한 반면, 본인이 전혀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노인의 74.3%는 배우자 역시 (전혀)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 기능상태 제한 여부에 따른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역시 주관적 건강상태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 중 31.2%만이 배우자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제한이 없는 노인은 동 비율이 51.5%로 더 높다.

〈표 5-12〉 배우자의 건강상태

(단위: %, 명)

특성	매우 건강	건강한 편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	전혀 건강하지 않음	계 (명)
전체 ¹⁾	1.8	46.7	33.9	14.7	2.8	100.0 (6,047)
지역						
동부	1.7	48.0	34.3	13.8	2.2	100.0 (4,514)
읍·면·부	2.4	42.8	32.8	17.5	4.5	100.0 (1,533)
성						
남자	2.1	48.0	33.8	13.7	2.4	100.0 (3,444)
여자	1.5	44.9	34.1	16.1	3.3	100.0 (2,603)
연령						
65~69세	3.0	58.6	29.5	7.6	1.3	100.0 (2,421)
70~74세	1.7	47.6	35.0	13.3	2.4	100.0 (1,607)
75~79세	0.8	36.5	39.4	20.4	3.0	100.0 (1,019)
80~84세	0.3	27.7	39.4	26.5	6.0	100.0 (708)
85~89세	0.0	23.6	34.1	33.9	8.3	100.0 (245)
90세 이상	0.0	28.4	24.3	34.0	13.3	100.0 (46)
교육수준						
무학	0.0	24.9	36.9	26.5	11.8	100.0 (374)
초등학교	1.0	31.9	39.6	23.5	4.0	100.0 (1,459)
중학교	1.6	45.4	35.7	15.3	2.1	100.0 (1,398)
고등학교	2.1	58.1	29.6	8.6	1.6	100.0 (2,275)
전문대학 이상	4.8	57.1	30.5	7.2	0.4	100.0 (538)
현 취업상태						
취업중	2.7	54.3	30.7	10.7	1.6	100.0 (2,598)
미취업	1.2	40.9	36.4	17.8	3.7	100.0 (3,45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9	34.0	34.4	22.6	6.1	100.0 (653)
제2오분위	0.4	31.2	39.4	23.7	5.3	100.0 (1,119)
제3오분위	1.1	43.0	35.9	16.4	3.7	100.0 (1,341)
제4오분위	2.4	54.8	30.4	11.6	0.9	100.0 (1,403)
제5오분위	2.6	59.1	31.4	6.3	0.6	100.0 (1,53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	31.8	38.3	23.1	5.6	100.0 (2,015)
50%이상~100%미만	1.5	49.0	32.8	14.4	2.4	100.0 (1,763)
100%이상~150%미만	2.6	55.3	30.6	10.7	0.8	100.0 (1,073)
150%이상	2.8	60.5	31.3	4.8	0.6	100.0 (1,196)
주관적 건강상태 ²⁾						
매우 건강	28.0	63.8	5.3	1.9	1.0	100.0 (207)
건강한 편	1.5	72.7	20.2	4.9	0.7	100.0 (2,747)
보통이다	0.3	24.6	57.7	15.4	1.9	100.0 (2,009)
건강하지 않은 편	0.3	19.7	31.0	41.6	7.3	100.0 (918)
전혀 건강하지 않음	0.0	7.6	18.1	40.0	34.3	100.0 (105)
기능상태						
제한 있음	0.9	30.3	35.2	25.3	8.3	100.0 (5,160)
제한 없음	2.0	49.5	33.7	12.9	1.9	100.0 (887)
2020년도	5.8	51.1	28.4	12.4	2.3	100.0 (6,779)

주: 1) 전체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6,047명을 대상으로 함

2) 주관적 건강상태는 본인응답만 허용하여, 해당 변수에 대한 사례수는 5,986명임.

배우자와의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12.1%이며, 주된 갈등 이유로는 배우자의 성격 및 사고방식 차이(51.8%)를 가장 많이 지목하였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생활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26.8%, 본인 또는 배우자의 수발 문제 7.1%, 경제적 문제 6.7% 등의 순이다. 배우자의 성격 및 사고방식, 생활방식, 가사분담 방식과 관련한 갈등이 대다수(82.1%)로, 노년기 부부간 상호작용 및 가정 내 역할 갈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일반특성별로 갈등 경험을 살펴본 결과, 지역 및 성별 차이는 크지 않다. 연령군별로는 사례수가 적은 90세 이상을 제외할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갈등 경험률이 더 높다. 교육수준 및 취업 여부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갈등 경험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제1오분위에서 부부 간 갈등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9.0%인 반면 제5오분위에서는 13.5% 수준이다.

갈등의 원인에 있어서는 동부 거주 노인은 배우자의 성격 및 사고방식, 생활방식, 가사분담 방식으로 인한 갈등(83.0%)을 읍·면부 거주 노인(78.7%)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읍·면부 노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수발 관련 갈등이 11.1%로 동부 노인의 6.0%보다 높다. 읍·면부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 접근성 문제 또는 가족 내 부양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성별과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여자 노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수발로 인한 갈등(9.5%)을 남자 노인(5.2%)에 비해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가정 내에서 부양의 역할을 더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유한 결과로 보인다. 연령군별로는 65~69세 연령군에서 배우자의 성격 및 사고방식, 생활방식에 기인한 갈등이 83.9%로 가장 높고, 상호 간의 수발에 따른 갈등은 2.0%로 가장 낮다. 반면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상호 간의 수발로 인한 어려움을 주된 어려움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노케어에 따른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해석된다.

취업상태에 있어서는 취업한 노인은 배우자와의 성격 및 사고방식, 생활방식에 따른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취업하지 않은 노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수발로 인한 갈등(10.3%)을 취업한 노인(3.4%)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였다. 취업상태가 노인의 일상생활과 가정 내 역할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갈등의 유형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내포한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와의 동거나 부양(제1오분위 12.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수발(제1오분위 11.1%)에 따른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용할 수 있는 외부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가정 내에서의 수

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능제한과 관련해서는 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에게서 본인 또는 배우자 수발에 따른 갈등이 17.0%로 제한이 없는 노인(5.4%)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상황 속에서 야기되는 부담 및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라 하겠다.

〈표 5-13〉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갈등

(단위: %, 명)

특성	갈등 경험률 ¹⁾	주된 갈등 원인 ²⁾							계 (명)
		부모와의 동거(수발)관련 갈등	배우자 생활방식	배우자 성격 및 사고방식	본인 (배우자) 수발	경제적 문제	가사분담 방식	기타	
전체	12.1	4.1	26.8	51.8	7.1	6.7	3.5	0.1	100.0 (722)
지역									
동부	12.6	3.7	27.0	52.5	6.0	7.2	3.5	0.2	100.0 (561)
읍·면부	10.5	5.4	26.1	49.4	11.1	4.8	3.2	0.0	100.0 (160)
성									
남자	11.7	4.2	28.1	53.1	5.2	7.2	2.3	0.0	100.0 (397)
여자	12.6	4.0	25.2	50.2	9.5	6.0	4.8	0.3	100.0 (324)
연령									
65~69세	14.3	3.7	28.2	55.7	2.0	5.3	4.8	0.3	100.0 (346)
70~74세	10.7	4.2	26.2	51.5	8.8	8.9	0.5	0.0	100.0 (170)
75~79세	10.9	3.0	24.9	44.9	12.6	11.1	3.4	0.0	100.0 (110)
80~84세	10.1	5.0	29.8	45.9	16.0	3.3	0.0	0.0	100.0 (70)
85~89세	6.6	12.2	16.7	20.5	25.1	0.0	25.5	0.0	100.0 (15)
90세 이상	21.2	7.0	0.0	89.4	3.6	0.0	0.0	0.0	100.0 (9)
교육수준									
무학	11.4	6.4	18.2	64.3	9.2	1.9	0.0	0.0	100.0 (41)
초등학교	13.1	3.9	26.9	48.9	10.8	5.8	3.8	0.0	100.0 (189)
중학교	13.4	4.2	33.0	43.1	8.0	10.5	1.3	0.0	100.0 (186)
고등학교	11.0	4.6	24.9	55.4	4.6	5.1	4.9	0.4	100.0 (250)
전문대학 이상	10.4	0.0	20.5	65.5	1.2	7.1	5.7	0.0	100.0 (55)
현 취업상태									
취업중	12.9	2.6	29.2	56.3	3.4	6.1	2.4	0.0	100.0 (335)
미취업	11.4	5.4	24.6	47.9	10.3	7.1	4.4	0.3	100.0 (38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0	12.5	28.3	38.2	11.1	6.1	3.8	0.0	100.0 (58)
제2오분위	12.6	3.8	16.6	58.0	10.4	8.0	3.2	0.0	100.0 (138)
제3오분위	12.4	2.7	24.7	52.8	9.7	8.6	0.9	0.6	100.0 (164)
제4오분위	11.1	6.5	30.0	45.2	6.1	7.7	4.5	0.0	100.0 (155)
제5오분위	13.5	1.2	32.4	55.7	2.5	3.6	4.7	0.0	100.0 (20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1.6	5.7	20.2	52.1	9.9	8.7	3.3	0.0	100.0 (230)
50%이상~100%미만	11.9	5.5	28.1	48.1	10.2	5.3	2.3	0.5	100.0 (208)
100%이상~150%미만	12.0	1.9	32.3	50.9	2.6	7.6	4.7	0.0	100.0 (128)
150%이상	13.0	1.5	30.1	57.0	2.5	4.7	4.2	0.0	100.0 (155)
기능상태									
제한 있음	12.6	10.3	25.0	38.3	17.0	3.7	5.6	0.0	100.0 (105)
제한 없음	12.0	3.0	27.1	54.1	5.4	7.2	3.1	0.2	100.0 (617)
2020년도	16.8	4.3	21.2	53.9	7.7	8.1	4.8	0.1	100.0 (1,125)

주: 1) 본인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6,047명을 대상으로 함.

2) 배우자와의 갈등을 경험한 722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제4절 자녀와의 관계

본 절에서는 노인-자녀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먼저 비동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 앞선 분석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10% 내외로 낮다는 점에서, 떨어져 사는 자녀와의 관계가 노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동거 자녀 전체의 특성과 더불어 노인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비동거 자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를 중심으로 노인과 상호작용 패턴을 왕래 및 연락 빈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과 자녀 간의 관계의 다양성을 포착하고자, 자녀와의 갈등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동거 자녀(또는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9,26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동거 자녀 중 남자 86.6%, 여자 78.8%이며, 기혼이 95.8%, 미혼이 16.0%를 차지한다. 이중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는 장녀(배우자) 43.4%, 장남(배우자) 42.7%로, 대다수 장남 또는 장녀에 집중된 양상이며, 차남 이하(배우자)는 7.1%, 차녀 이하(배우자)는 6.9%에 불과하다. 전통적 가치관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첫째 자녀가 부모에 대한 지원 및 책임을 주로 담당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함을 시사한다.

〈표 5-14〉 (전체 및 가장 접촉이 많은) 비동거 자녀 특성

(단위: %, 명)

특성	비동거 자녀 전체 ¹⁾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 ²⁾				
	성별		결혼 여부		계 (명)	장남 (배우자)	차남 이하 (배우자)	장녀 (배우자)	차녀 이하 (배우자)	계 (명)
	남자	여자	미혼	기혼						
전체	86.6	78.8	16.0	95.8	100.0 (9,265)	42.7	7.1	43.4	6.9	100.0 (8,928)
지역										
동부	85.2	77.2	15.9	95.3	100.0 (6,777)	42.1	6.8	44.5	6.6	100.0 (6,593)
읍·면부	90.4	83.2	16.1	97.0	100.0 (2,488)	44.2	7.7	40.2	8.0	100.0 (2,335)
성										
남자	87.2	76.6	18.3	94.9	100.0 (4,066)	47.7	5.9	40.3	6.0	100.0 (3,905)
여자	86.2	80.5	14.2	96.5	100.0 (5,199)	38.7	7.9	45.7	7.7	100.0 (5,023)
연령										
65~69세	83.2	73.1	24.5	91.5	100.0 (3,111)	45.0	4.6	45.1	5.4	100.0 (3,007)
70~74세	85.8	77.8	15.2	96.4	100.0 (2,194)	44.8	6.1	43.4	5.6	100.0 (2,123)
75~79세	86.1	81.9	10.6	98.3	100.0 (1,625)	42.2	6.0	43.9	8.0	100.0 (1,564)
80~84세	92.9	86.3	10.4	99.1	100.0 (1,326)	37.8	10.5	43.0	8.8	100.0 (1,275)
85~89세	91.4	85.8	9.0	99.1	100.0 (776)	37.0	13.6	38.0	11.5	100.0 (733)
90세 이상	91.7	77.8	3.1	99.7	100.0 (233)	40.4	15.8	35.4	8.4	100.0 (22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7.6	78.5	16.9	95.4	100.0 (5,711)	43.9	6.4	43.2	6.4	100.0 (5,528)
배우자 없음	85.0	79.3	14.5	96.3	100.0 (3,554)	40.6	8.1	43.6	7.7	100.0 (3,400)
가구형태										
노인독거	85.9	80.2	14.6	96.3	100.0 (2,960)	43.5	5.6	43.4	7.5	100.0 (2,816)
노인부부	88.6	79.2	16.4	95.6	100.0 (5,336)	44.2	6.1	43.5	6.2	100.0 (5,159)
자녀동거	75.7	72.3	17.5	95.8	100.0 (824)	28.7	19.3	42.3	9.7	100.0 (810)
기타	90.6	74.8	20.8	90.7	100.0 (145)	48.4	3.1	43.3	5.2	100.0 (142)
교육수준										
무학	90.0	85.8	10.8	98.4	100.0 (1,167)	35.7	12.1	41.5	10.8	100.0 (1,079)
초등학교	90.3	83.4	12.8	98.1	100.0 (2,638)	41.4	8.8	42.6	7.3	100.0 (2,540)
중학교	86.0	78.3	14.8	95.8	100.0 (1,965)	45.6	5.8	42.7	5.9	100.0 (1,902)
고등학교	82.9	74.4	21.0	92.9	100.0 (2,857)	43.4	4.8	45.8	6.0	100.0 (2,787)
전문대학 이상	83.6	68.8	20.0	94.3	100.0 (637)	47.9	5.0	40.9	6.2	100.0 (620)
현 취업상태										
취업중	86.3	76.8	20.0	93.8	100.0 (3,637)	45.0	7.1	41.6	6.3	100.0 (3,509)
미취업	86.8	80.1	13.4	97.0	100.0 (5,628)	41.1	7.1	44.5	7.3	100.0 (5,419)
연가구조득										
제1오분위	87.3	80.3	11.9	98.0	100.0 (1,814)	41.9	8.5	41.8	7.7	100.0 (1,724)
제2오분위	89.0	82.5	12.4	97.6	100.0 (1,855)	43.6	6.4	41.3	8.7	100.0 (1,770)
제3오분위	88.5	79.3	15.3	96.2	100.0 (1,929)	43.2	6.4	44.2	6.2	100.0 (1,869)
제4오분위	86.4	77.4	18.9	95.7	100.0 (1,889)	44.0	6.4	43.2	6.4	100.0 (1,828)
제5오분위	81.6	74.5	21.5	91.3	100.0 (1,778)	40.4	7.7	46.2	5.7	100.0 (1,73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8.3	81.1	12.9	97.9	100.0 (3,462)	41.7	8.1	42.2	8.1	100.0 (3,306)
50%이상~100%미만	87.6	79.8	15.0	96.1	100.0 (2,655)	44.5	6.4	42.0	7.1	100.0 (2,563)
100%이상~150%미만	85.0	77.6	19.1	94.4	100.0 (1,527)	41.3	7.5	45.5	5.8	100.0 (1,481)
150%이상	82.9	73.5	21.2	92.0	100.0 (1,621)	42.9	5.6	46.1	5.4	100.0 (1,578)
기능상태										
제한 있음	86.0	78.2	16.2	95.6	100.0 (7,503)	37.0	10.7	42.8	9.5	100.0 (1,671)
제한 없음	89.1	81.4	15.2	96.7	100.0 (1,762)	44.0	6.2	43.5	6.4	100.0 (7,257)
2020년도	87.7	81.6	14.1	97.3	100.0 (9,463)	38.7	10.0	36.0	9.0	100.0 (9,552)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또는 배우자)가 있는 9,26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전체응답자 중 연락 가능한 비동거 자녀가 있는 8,928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다빈도 접촉 비동거 자녀를 중심으로 교류 현황을 왕래 및 연락 빈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 주 1회 이상 왕래한다는 비율은 22.7%, 연락 한다는 비율은 64.9%로 나타났다. 연간 거의 왕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6.6%, 연락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8.4%이다. 이전 조사와의 경향성을 볼 때, 대면(왕래)보다는 비대면(연락)을 중심으로 한 교류가 더 빈번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왕래 빈도에 대해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동부 노인은 23.6%이나 읍·면부 노인은 다소 낮은 20.5%이다. 자녀와의 지리적 근접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며, 연령군별로는 연령 대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왕래 빈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90세 이상 노인 중에는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39.0%에 달하지만, 동시에 이 연령대에서 거의 왕래하지 않는다는 비율(월 1회 미만~ 만나지 않음)도 33.0%로 높아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27.5%)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19.8%)에 비해 주 1회 이상 왕래 비율이 높았고,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독거가구에서 동 비율이 28.0%를 차지한다. 배우자의 부재가 자녀와 더 자주 왕래를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내포하는 결과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며, 취업 여부에 있어서는 미취업 노인이 자녀와 주 1회 이상 왕래한다는 응답이 25.2%로 취업 노인(18.9%)에 비해 더 높다. 소득수준에 따른 경향성 차이 역시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소득수준이 낮은 제1오분위 노인에게서 거의 왕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1/3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유념이 필요하다. 기능상태 제한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한이 있는 경우,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30.9%로 제한이 없는 노인(20.9%)에 비해 더 높다. 기능제한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에 따라 자녀와 더 밀접한 교류를 필요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5-15〉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월 1회 미만	만나지 않음	계 (명)
전체 ¹⁾	4.4	6.1	12.2	23.1	27.6	26.0	0.6	100.0 (8,928)
지역								
동부	4.3	6.7	12.6	24.5	28.4	23.0	0.6	100.0 (6,593)
읍·면부	4.9	4.6	11.0	19.0	25.3	34.6	0.6	100.0 (2,335)
성								
남자	3.6	5.4	11.3	23.0	28.4	27.8	0.6	100.0 (3,905)
여자	5.1	6.7	12.9	23.1	26.9	24.7	0.6	100.0 (5,023)
연령								
65~69세	3.6	4.0	10.8	23.4	30.7	26.8	0.7	100.0 (3,007)
70~74세	3.8	5.5	11.5	22.7	28.2	27.9	0.4	100.0 (2,123)
75~79세	4.7	5.4	12.3	24.1	27.3	25.5	0.7	100.0 (1,564)
80~84세	4.8	7.9	15.4	23.0	24.8	23.9	0.3	100.0 (1,275)
85~89세	8.0	12.7	11.9	23.3	22.6	20.6	0.8	100.0 (733)
90세 이상	7.3	12.8	18.9	14.7	13.5	32.4	0.6	100.0 (22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5	4.8	11.5	23.8	30.4	25.5	0.4	100.0 (5,528)
배우자 없음	5.9	8.3	13.3	21.9	23.0	26.8	0.8	100.0 (3,400)
가구형태								
노인독거	5.4	8.8	13.8	21.8	23.1	26.4	0.7	100.0 (2,816)
노인부부	3.2	4.7	11.3	24.1	30.7	25.6	0.5	100.0 (5,159)
자녀동거	9.1	6.1	12.5	21.0	24.6	25.9	0.8	100.0 (810)
기타	4.9	5.8	13.0	22.0	18.1	34.3	1.9	100.0 (142)
교육수준								
무학	6.0	8.8	13.8	19.4	19.1	32.4	0.6	100.0 (1,079)
초등학교	6.1	7.1	11.4	22.7	23.8	28.2	0.7	100.0 (2,540)
중학교	2.9	6.5	11.0	23.5	29.7	25.8	0.6	100.0 (1,902)
고등학교	3.0	4.3	12.3	24.8	32.2	22.9	0.6	100.0 (2,787)
전문대학 이상	6.2	4.7	15.9	21.8	30.1	20.8	0.4	100.0 (620)
현 취업상태								
취업중	4.1	4.5	10.3	22.2	28.6	29.9	0.3	100.0 (3,509)
미취업	4.7	7.1	13.4	23.6	26.9	23.5	0.8	100.0 (5,41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8	7.9	11.5	18.6	25.9	29.5	0.7	100.0 (1,724)
제2오분위	4.4	6.6	12.8	21.9	25.2	28.2	0.8	100.0 (1,770)
제3오분위	3.6	5.1	12.3	24.1	29.3	25.0	0.6	100.0 (1,869)
제4오분위	4.2	6.2	12.4	23.9	26.6	25.9	0.8	100.0 (1,828)
제5오분위	4.3	4.7	11.9	26.6	30.7	21.6	0.1	100.0 (1,73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0	6.8	12.0	21.1	26.5	28.0	0.6	100.0 (3,306)
50%이상~100%미만	4.1	6.1	12.1	22.8	26.7	27.3	0.9	100.0 (2,563)
100%이상~150%미만	4.7	5.8	12.8	23.8	27.6	24.9	0.4	100.0 (1,481)
150%이상	3.5	4.9	12.1	26.9	31.2	21.1	0.2	100.0 (1,578)
기능상태								
제한 있음	5.6	10.6	14.7	24.4	22.0	22.1	0.6	100.0 (1,671)
제한 없음	4.2	5.1	11.6	22.8	28.9	26.9	0.6	100.0 (7,257)
2020년도 ²⁾	3.4	6.4	12.2	—	33.7	43.3	1.0	100.0 (9,552)

주: 1) 전체응답자 중 연락 가능한 비동거 자녀가 있는 8,928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선택지 변경으로 2023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2020년: ①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정도, ③ 주 1회 정도, ④ 월 1~2회 정도, ⑤ 3개월에 1~2회 정도, ⑥ 연 1~2회 정도, ⑦ 거의 왕래하지 않음).

노인의 특성별로 연락 빈도에 대해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연락을 기준으로 읍·면부 거주 노인의 연락 빈도가 70.7%로 동부 거주 노인(62.8%)에 비해 더 높다. 직접적인 대면 비율은 읍·면부 거주 노인이 다소 낮았으나, 통신수단을 활용한 연락 빈도에 있어서는 반대의 결과가 제시되었다. 지리적으로 자녀와 떨어져 사는 읍·면부 거주 노인들이 동부 거주 노인보다 자녀와 정기적인 비대면 연락을 더 선호하는 양상으로 해석된다.

성별 차이에 있어서 여자 노인은 67.9%가 주 1회 이상 자녀와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노인(60.9%)보다 높다. 연령군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비교적 비슷한 연락 빈도를 나타내나, 90세 이상에서 주 1회 이상 연락한다는 비율이 55.7%로 가장 낮다. 고령일수록 현대적인 연락 수단 사용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시에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해당 연령대에서 12.1%를 차지하여, 사회적 고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 및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가구유형에서는 독거가구에서 주 1회 이상 연락한다는 비율이 66.9%로 가장 높고,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에게서 동 비율이 71.5%로 가장 높다.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소득수준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주 1회 이상 빈번히 연락한다는 비율이 대체로 높다. 제5오분위에서 동 비율은 66.4%로 제1오분위(60.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경향성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한편 기능상태의 경우,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65.1%로 제한이 있는 노인의 63.6%보다 약간 높다. 연락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능제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표 5-16〉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연락하지 않음	계 (명)
전체 ¹⁾	13.3	25.8	25.8	18.1	8.7	8.0	0.4	100.0 (8,928)
지역								
동부	12.2	25.3	25.3	18.9	9.8	8.1	0.4	100.0 (6,593)
읍·면부	16.1	27.2	27.4	15.9	5.5	7.7	0.3	100.0 (2,335)
성								
남자	10.6	22.8	27.5	19.9	9.9	8.9	0.4	100.0 (3,905)
여자	15.3	28.1	24.5	16.6	7.7	7.3	0.4	100.0 (5,023)
연령								
65~69세	10.8	24.1	28.9	18.7	8.9	8.2	0.4	100.0 (3,007)
70~74세	11.4	26.1	25.4	19.3	8.9	8.6	0.3	100.0 (2,123)
75~79세	14.4	26.9	24.4	17.8	8.9	7.2	0.2	100.0 (1,564)
80~84세	16.5	27.9	24.2	16.6	6.9	7.7	0.2	100.0 (1,275)
85~89세	19.2	26.9	23.5	14.6	8.3	6.4	1.1	100.0 (733)
90세 이상	17.4	22.6	15.7	19.0	13.1	12.1	0.0	100.0 (22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1.4	25.2	27.7	18.6	9.2	7.7	0.2	100.0 (5,528)
배우자 없음	16.2	26.7	22.8	17.3	7.9	8.5	0.6	100.0 (3,400)
가구형태								
노인독거	16.6	28.3	22.0	16.6	7.5	8.5	0.5	100.0 (2,816)
노인부부	11.2	25.2	27.6	18.7	9.1	7.9	0.2	100.0 (5,159)
자녀동거	13.9	20.3	29.0	20.0	9.5	6.6	0.7	100.0 (810)
기타	16.9	28.7	18.4	12.5	10.0	11.1	2.3	100.0 (142)
교육수준								
무학	19.0	26.2	19.1	16.3	7.6	11.0	0.8	100.0 (1,079)
초등학교	16.5	25.3	25.0	16.3	8.8	7.8	0.3	100.0 (2,540)
중학교	9.7	24.1	27.4	19.6	9.6	9.1	0.4	100.0 (1,902)
고등학교	9.8	27.1	27.5	19.7	8.6	7.1	0.3	100.0 (2,787)
전문대학 이상	16.4	26.5	28.6	16.8	7.3	4.4	0.0	100.0 (620)
현 취업상태								
취업중	12.4	24.9	27.4	18.4	8.4	8.2	0.2	100.0 (3,509)
미취업	13.8	26.3	24.8	17.9	8.9	7.9	0.5	100.0 (5,41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9	23.2	21.7	16.7	10.7	11.4	0.5	100.0 (1,724)
제2오분위	14.9	25.4	24.0	17.1	9.5	8.9	0.3	100.0 (1,770)
제3오분위	13.4	27.3	26.3	17.5	8.0	7.4	0.2	100.0 (1,869)
제4오분위	11.8	27.6	26.3	19.1	7.6	6.9	0.8	100.0 (1,828)
제5오분위	10.4	25.3	30.7	20.0	7.7	5.7	0.1	100.0 (1,73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4.5	24.5	23.3	16.9	10.4	10.0	0.4	100.0 (3,306)
50%이상~100%미만	14.1	26.8	26.2	17.5	7.6	7.3	0.5	100.0 (2,563)
100%이상~150%미만	13.1	26.3	25.8	19.7	7.4	7.3	0.5	100.0 (1,481)
150%이상	9.5	26.4	30.3	19.8	8.1	5.8	0.1	100.0 (1,578)
기능상태								
제한 있음	14.4	26.6	22.6	18.3	9.4	7.9	0.7	100.0 (1,671)
제한 없음	13.0	25.6	26.5	18.0	8.5	8.0	0.3	100.0 (7,257)
2020년도 ²⁾	9.8	25.8	32.2	—	20.7	10.4	1.0	100.0 (9,552)

주: 1) 전체응답자 중 연락 가능한 비동거 자녀가 있는 8,928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선택지 변경으로 2023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2020년: ①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정도, ③ 주 1회 정도, ④ 월 1~2회 정도, ⑤ 3개월에 1~2회 정도, ⑥ 연 1~2회 정도, ⑦ 거의 연락하지 않음).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양적 측면에서의 교류 빈도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자녀와 갈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자녀가 있는 노인 중 단 3.1%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갈등 원인으로는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 28.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수발 문제 17.1%, 자녀의 장래와 관련한 문제 16.3%, 노인의 생활비 보조 문제 16.1%, 노인-자녀와의 동거 여부와 관련된 문제 9.7%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 또는 생활과 관련한 문제가 전체 갈등 원인의 44.5%를 차지하며, 노인의 수발 및 경제적 지원 문제도 33.2%로 높은 수준이다. 노인-자녀 간 경제적 의존 및 생활방식의 차이가 주요한 갈등의 원인임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갈등 경험률에 대한 일반특성별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경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 갈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가정 내에서 노인-자녀 간 역할 및 책임 문제가 나타나거나, 자녀와의 동거로 인해 일상생활의 여러 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갈등이 표출될 수 있음을 뜻한다.

갈등을 경험한 이유에 대한 일반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발견된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 중 39.5%가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에 따른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25.1%)에 비해 높다. 손자녀 양육 방식에 따른 갈등은 동부 거주 노인이 9.7%로 읍·면부 거주 노인(5.4%)에 비해 높다.

성별과 관련해서는 여자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 또는 본인(배우자)의 수발 문제를 둘러싼 갈등(10.0%, 19.2%)을 남자 노인(9.4%, 14.7%)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한다. 아울러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에 따른 갈등 역시 여자 노인이 31.5%로 남자 노인(24.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연령군별로는 다양한 갈등 양상이 발견되며, 65~69세 연령군에서는 자녀의 장래 문제에 따른 갈등이 29.7%로 가장 높고 85~89세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수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50.8%를 차지한다. 즉, 노인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수발이 주요한 부모-자녀 간 갈등 원인으로 자리함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자녀와의 동거 여부(13.0%)뿐 아니라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32.9%), 노인의 생활비 보조(18.1%)와 같이 가정 내 경제적 지원으로 인한 갈등 경험률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높다.

가구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에서는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34.6%, 27.7%)에 따른 갈등을, 자녀 동거가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비 보조(26.0%)에 따른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유형에 따라 노인-자녀 간 경제적 관계와 갈등의 양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장래 문제와 관련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의 경우 동 응답이 46.8%인 반면 초등학교 졸업 노인은 10.3% 수준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자녀의 장래 및 교육에 더 높은 기대를 가질 수 있으며, 이같은 기대가 관계의 갈등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은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나 노인의 생활비 보조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갈등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다. 손자녀 양육과 관련한 갈등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다.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서 이러한 경향성은 보다 분명하다. 기능상태와 관련해서는 제한이 있는 노인은 수발을 둘러싼 갈등이 38.2%로 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약 4배 높다. 제한이 없는 노인은 노인의 생활비 보조나 자녀의 장래 문제로 인한 갈등을 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18.5%, 19.2%).

〈표 5-17〉 자녀와의 갈등 실태

(단위: %, 명)

특성	갈등 경험률 ¹⁾	주된 갈등 원인 ²⁾								계 (명)
		동거 여부	수발 문제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	노인 생활비 보조	자녀 장래 문제	손자녀 양육방식	본인 이성, 결혼문제	기타	
전체	3.1	9.7	17.1	28.2	16.1	16.3	8.8	1.0	2.8	100.0 (291)
지역										
동부	3.4	9.5	17.6	25.1	15.7	18.7	9.7	1.2	2.5	100.0 (228)
읍·면부	2.5	10.6	15.4	39.5	17.4	7.7	5.4	0.0	3.9	100.0 (63)
성										
남자	3.3	9.4	14.7	24.5	19.0	19.8	8.6	0.7	3.4	100.0 (135)
여자	3.0	10.0	19.2	31.5	13.6	13.4	9.0	1.2	2.2	100.0 (156)
연령										
65~69세	3.4	6.7	11.1	16.9	22.1	29.7	9.5	1.7	2.4	100.0 (107)
70~74세	2.5	11.8	16.2	24.7	12.6	12.8	16.4	0.0	5.4	100.0 (55)
75~79세	3.3	8.7	21.6	42.0	9.2	6.1	7.5	1.7	3.2	100.0 (55)
80~84세	4.1	16.6	14.2	40.1	13.9	9.5	4.2	0.0	1.5	100.0 (53)
85~89세	2.3	6.5	50.8	16.8	23.6	2.3	0.0	0.0	0.0	100.0 (16)
90세 이상	2.1	0.0	26.4	73.6	0.0	0.0	0.0	0.0	0.0	100.0 (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9	7.2	17.3	24.6	14.5	21.6	12.2	1.2	1.4	100.0 (163)
배우자 없음	3.6	13.0	16.8	32.9	18.1	9.6	4.4	0.6	4.5	100.0 (128)
가구형태										
노인독거	3.0	12.3	16.1	34.6	14.4	10.8	6.4	0.9	4.5	100.0 (87)
노인부부	2.6	6.5	16.4	27.7	13.2	21.7	13.3	0.8	0.5	100.0 (139)
자녀동거	6.1	13.9	19.6	19.6	26.0	11.3	2.4	1.5	5.7	100.0 (61)
기타	3.2	0.0	24.1	44.7	0.0	31.2	0.0	0.0	0.0	100.0 (3)
교육수준										
무학	2.6	23.3	18.9	27.0	19.3	0.0	6.3	0.0	5.3	100.0 (29)
초등학교	3.4	11.2	30.8	32.4	5.1	10.3	3.7	1.2	5.3	100.0 (88)
중학교	3.1	11.5	11.9	31.2	22.0	12.3	9.8	0.0	1.3	100.0 (62)
고등학교	3.2	4.7	9.2	27.0	19.3	24.1	13.1	1.8	0.7	100.0 (93)
전문대학 이상	2.7	0.0	6.0	6.2	27.4	46.8	11.4	0.0	2.2	100.0 (18)
현 취업상태										
취업중	3.3	10.6	9.0	27.6	15.1	22.4	11.1	0.6	3.5	100.0 (123)
미취업	3.0	9.0	23.1	28.7	16.9	11.9	7.1	1.2	2.3	100.0 (16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9	1.2	17.2	42.3	9.0	12.2	12.1	2.1	3.9	100.0 (51)
제2오분위	2.7	16.1	17.9	32.6	26.0	2.5	4.8	0.0	0.0	100.0 (48)
제3오분위	2.9	9.7	19.1	36.1	3.6	19.8	9.8	0.0	1.9	100.0 (53)
제4오분위	3.7	9.9	15.7	23.6	24.5	13.9	8.4	0.0	4.0	100.0 (72)
제5오분위	3.4	11.3	16.4	12.9	15.3	29.5	8.8	2.6	3.3	100.0 (6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9	6.6	15.4	43.5	12.1	8.9	10.3	1.1	2.0	100.0 (99)
50%이상~100%미만	3.3	10.7	25.4	24.6	18.0	10.4	7.1	0.0	3.7	100.0 (84)
100%이상~150%미만	2.8	11.6	9.0	22.0	19.9	27.9	8.1	0.0	1.4	100.0 (45)
150%이상	3.7	11.9	14.4	13.4	17.0	27.7	9.2	2.7	3.7	100.0 (63)
기능상태										
제한 있음	4.4	8.2	38.2	28.1	9.0	7.9	6.0	0.0	2.6	100.0 (73)
제한 없음	2.8	10.2	10.0	28.3	18.5	19.2	9.7	1.3	2.8	100.0 (218)
2020년도	6.1	19.2	16.5	18.7	12.9	15.0	9.2	2.6	4.6	100.0 (604)

주: 1) 전체응답자 중 생존 자녀가 있는 9,476명을 대상으로 함.

2)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291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제5절 손자녀와의 관계

조사대상 노인의 85.5%는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비동거 손자녀를 중심으로 상호 간의 교류 양상을 왕래 및 연락 빈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비동거 손자녀와의 왕래 빈도는 월 1회 미만이 57.5%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월 1회 22.4%, 월 2~3회 11.1%, 주 1회 3.8% 등의 순이다.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하여 정기적인 상호 교류가 비동거 자녀와 비교 시 낮은 수준이다. 연락 빈도 역시 월 1회 미만이 43.1%로 가장 높고, 월 1회 17.5%, 월 2~3회 14.2% 등의 순이다. 왕래 빈도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높긴 하나, 대체로 월 1회 이상(46.8%) 연락하는 상황으로 노인-손자녀 간 접촉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일반특성별로 손자녀와의 왕래 빈도에 대해 비교해 보면,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에 비해 더 빈번히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월 1회 이상 왕래를 기준으로 동부 노인은 44.6%가 해당한 반면 읍·면부 노인은 28.2%에 그쳐, 비동거 자녀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접근성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연령군별로는 노인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월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높다. 65~69세는 동 비율이 48.6%이나 9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26.0%로 2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다. 월 1회 이상 왕래를 기준으로 유배우 노인은 42.7%가 왕래하고 있으나 무배우 노인은 36.0%로 나타난다.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42.4%)와 자녀 동거가구(41.1%)에서 월 1회 이상 왕래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 중 52.2%가 손자녀와 월 1회 이상 왕래하는 반면 무학 노인은 22.7% 수준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왕래 빈도가 높다. 가구소득 역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손자녀와 더 빈번히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월 1회 이상 손자녀와 왕래한다는 응답은 제5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경우 54.6%이었던데 반해,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은 33.8%로 나타난다. 기능상태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제한이 없는 노인이 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해 손자녀와 더 활발히 왕래하는 경향이다. 월 1회 이상 손자녀와 왕래하는 비율이 제한이 없는 노인은 41.2%인데 반해 제한이 있는 노인은 35.4% 수준이다.

〈표 5-18〉 비동거 손자녀와의 왕래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월 1회 미만	만나지 않음	계 (명)
전체 ¹⁾	1.3	1.4	3.8	11.1	22.4	57.5	2.4	100.0 (8,491)
지역								
동부	1.5	1.4	4.4	12.3	25.0	52.9	2.4	100.0 (6,138)
읍·면부	0.8	1.4	2.3	7.9	15.8	69.5	2.3	100.0 (2,353)
성								
남자	1.1	1.5	4.0	11.4	24.7	55.3	2.0	100.0 (3,654)
여자	1.4	1.4	3.7	10.9	20.7	59.2	2.7	100.0 (4,837)
연령								
65~69세	1.9	1.9	4.7	13.0	27.1	49.7	1.7	100.0 (2,654)
70~74세	1.1	1.7	3.9	12.5	23.7	54.9	2.2	100.0 (2,004)
75~79세	1.3	0.9	3.3	10.4	19.8	61.6	2.7	100.0 (1,552)
80~84세	0.8	0.7	3.4	7.9	18.5	66.9	1.9	100.0 (1,290)
85~89세	0.7	1.8	2.4	10.0	16.6	63.9	4.6	100.0 (758)
90세 이상	1.5	0.0	4.8	3.2	16.5	68.7	5.3	100.0 (2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3	1.4	3.9	11.9	24.2	55.5	1.8	100.0 (5,221)
배우자 없음	1.4	1.5	3.7	9.8	19.6	60.8	3.3	100.0 (3,271)
가구형태								
노인독거	1.2	1.7	3.9	9.5	20.1	60.6	3.0	100.0 (2,703)
노인부부	1.3	1.4	3.7	11.8	24.2	55.9	1.7	100.0 (4,898)
자녀동거	1.2	0.7	4.7	13.6	20.9	55.0	3.8	100.0 (771)
기타	4.9	1.1	2.6	3.2	12.3	69.0	6.9	100.0 (119)
교육수준								
무학	0.6	0.5	1.3	5.7	14.6	72.8	4.7	100.0 (1,133)
초등학교	1.1	1.9	3.5	9.2	17.8	63.7	2.7	100.0 (2,519)
중학교	1.4	1.2	4.5	12.7	21.7	56.8	1.7	100.0 (1,805)
고등학교	1.4	1.2	4.3	14.0	30.1	47.3	1.6	100.0 (2,483)
전문대학 이상	2.9	2.8	6.2	12.6	27.7	46.0	1.8	100.0 (551)
현 취업상태								
취업중	1.1	1.5	3.2	10.7	23.4	58.4	1.7	100.0 (3,264)
미취업	1.4	1.4	4.2	11.4	21.8	56.9	2.8	100.0 (5,22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	1.1	4.0	9.0	18.5	62.1	4.2	100.0 (1,674)
제2오분위	1.0	0.8	2.9	7.7	19.0	66.0	2.6	100.0 (1,736)
제3오분위	1.5	1.3	3.6	9.7	21.6	60.2	2.1	100.0 (1,784)
제4오분위	1.1	2.0	4.3	13.3	23.8	53.7	1.8	100.0 (1,732)
제5오분위	1.8	2.1	4.5	16.3	29.9	44.2	1.2	100.0 (1,56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1	0.9	3.4	8.5	19.3	63.4	3.3	100.0 (3,217)
50%이상~100%미만	1.4	1.4	3.9	10.2	21.2	59.8	2.2	100.0 (2,457)
100%이상~150%미만	1.0	2.2	4.5	13.3	22.9	54.3	1.9	100.0 (1,390)
150%이상	1.9	2.0	4.1	16.3	31.3	43.4	1.1	100.0 (1,427)
기능상태								
제한 있음	0.7	1.4	3.8	10.0	19.5	61.0	3.7	100.0 (1,635)
제한 없음	1.5	1.4	3.8	11.4	23.1	56.7	2.1	100.0 (6,856)
2020년도 ²⁾	1.3	2.2	5.1	—	17.9	70.8	2.7	100.0 (8,829)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손자녀가 있는 8,491명을 대상으로 함.

2) 선택지 변경으로 2023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2020년: ①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정도, ③ 주 1회 정도, ④ 월 1~2회 정도, ⑤ 3개월에 1~2회 정도, ⑥ 연 1~2회 정도, ⑦ 거의 왕래하지 않음).

일반특성별 연락 빈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왕래 빈도에서 나타난 경향성과 유사하다. 우선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 노인의 49.8%가 손자녀와 월 1회 이상 연락하는 데 반해 읍·면부 노인은 39.1%에 해당하여, 지역 간 차이를 드러낸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미미하며,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연락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65~69세에서는 53.0%가 월 1회 이상 연락하는 것에 반해 9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33.4%로 감소한다.

배우자 유무와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43.0%가 월 1회 이상 손자녀와 연락을 하는 것에 반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49.2%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 동거가구에서 49.7%, 부부가구에서 49.1%로 월 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락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 중 59.3%가 월 1회 이상 손자녀와 연락하는 반면 무학 노인은 29.3%에 그친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역시 명확하다.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인 제5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59.2%가 손자녀와 월 1회 이상 연락하는 반면 가장 낮은 소득구간(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은 40.2%로 나타났다. 기능상태와 관련해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 중 48.7%가 월 1회 이상 연락하는 것에 비해, 제한이 있는 노인은 39.3%로 기능상태가 좋은 노인이 더 활발히 손자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손자녀와 연락하지 않는 비율은 제한이 있는 노인이 12.3%로 제한이 없는 노인(9.5%)보다 높게 나타나,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19〉 비동거 손자녀와의 연락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연락하지 않음	계 (명)
전체 ¹⁾	1.6	4.3	9.2	14.2	17.5	43.1	10.1	100.0 (8,491)
지역								
동부	1.9	4.5	10.6	14.5	18.3	41.2	9.1	100.0 (6,138)
읍·면부	1.0	3.7	5.5	13.4	15.5	48.2	12.7	100.0 (2,353)
성								
남자	1.5	4.4	9.4	14.5	18.0	41.7	10.5	100.0 (3,654)
여자	1.7	4.2	9.0	13.9	17.1	44.2	9.8	100.0 (4,837)
연령								
65~69세	2.2	5.4	12.2	16.0	17.2	37.5	9.5	100.0 (2,654)
70~74세	1.5	5.2	9.3	15.2	16.8	43.0	9.0	100.0 (2,004)
75~79세	1.7	3.6	8.0	12.8	19.0	45.0	9.9	100.0 (1,552)
80~84세	1.1	2.4	7.2	12.8	18.3	47.6	10.6	100.0 (1,290)
85~89세	0.8	3.7	5.0	10.4	18.2	48.4	13.5	100.0 (758)
90세 이상	1.3	0.3	6.6	13.9	11.3	53.4	13.3	100.0 (2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7	4.7	9.8	15.0	18.0	41.4	9.3	100.0 (5,221)
배우자 없음	1.6	3.7	8.2	12.8	16.7	45.8	11.3	100.0 (3,271)
가구형태								
노인독거	1.5	4.0	8.3	12.3	16.4	46.3	11.2	100.0 (2,703)
노인부부	1.7	4.8	9.7	14.7	18.2	41.8	9.2	100.0 (4,898)
자녀동거	1.9	2.4	9.6	17.4	18.4	39.2	11.1	100.0 (771)
기타	3.0	3.8	6.6	13.2	9.9	48.6	14.9	100.0 (119)
교육수준								
무학	0.6	1.8	3.6	9.7	13.6	56.6	14.0	100.0 (1,133)
초등학교	1.4	3.5	7.4	12.7	18.0	45.2	11.8	100.0 (2,519)
중학교	1.4	4.1	10.5	14.3	16.3	44.1	9.3	100.0 (1,805)
고등학교	1.9	5.8	11.5	17.5	19.3	35.9	8.2	100.0 (2,483)
전문대학 이상	4.6	7.1	13.8	14.4	19.4	35.2	5.5	100.0 (551)
현 취업상태								
취업중	1.7	4.9	9.8	14.9	16.2	43.3	9.2	100.0 (3,264)
미취업	1.6	3.9	8.8	13.7	18.3	43.0	10.6	100.0 (5,22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6	3.2	7.2	11.2	17.0	47.3	12.5	100.0 (1,674)
제2오분위	1.0	2.9	7.1	12.4	14.6	50.8	11.3	100.0 (1,736)
제3오분위	1.8	3.3	7.5	13.0	19.9	44.3	10.3	100.0 (1,784)
제4오분위	1.9	5.1	10.6	17.7	17.1	39.2	8.4	100.0 (1,732)
제5오분위	2.0	7.2	14.0	16.7	19.3	33.2	7.7	100.0 (1,56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3	3.0	7.0	11.9	16.5	48.5	11.7	100.0 (3,217)
50%이상~100%미만	1.6	4.0	8.9	13.6	16.4	45.6	9.8	100.0 (2,457)
100%이상~150%미만	1.9	5.1	8.9	18.3	19.3	37.5	9.0	100.0 (1,390)
150%이상	2.0	7.0	14.8	16.1	20.2	32.1	7.8	100.0 (1,427)
가능상태								
제한 있음	1.0	3.5	7.6	12.0	15.2	48.4	12.3	100.0 (1,635)
제한 없음	1.8	4.5	9.6	14.7	18.1	41.9	9.5	100.0 (6,856)
2020년도 ²⁾	1.3	5.5	10.7	—	17.9	51.3	13.3	100.0 (8,829)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손자녀가 있는 8,491명을 대상으로 함.

2) 선택지 변경으로 2023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2020년: ①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정도, ③ 주 1회 정도, ④ 월 1~2회 정도, ⑤ 3개월에 1~2회 정도, ⑥ 연 1~2회 정도, ⑦ 거의 연락하지 않음).

제6절 친인척 및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

노인의 동년배로서 형제자매 및 친인척,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를 왕래 및 연락 빈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우선 노인의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의 교류 빈도는 다음과 같다. 대다수의 노인(56.8%)은 월 1회 미만으로 왕래하거나 상당수(21.9%)는 전혀 만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과의 교류가 주로 명절이나 특별한 가족 행사에 한정되어 이루어짐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월 1회 12.2%, 월 2~3회 6.1% 순이며, 주 1회 이상은 3.0%에 불과하다. 연락 빈도는 왕래 빈도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월 1회 미만 연락하는 비율이 40.3%로 가장 높고, 이어서 월 1회 17.3%, 월 2~3회 16.8% 등의 순이다. 자녀와의 교류 빈도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손자녀와의 교류와는 유사한 수준이다.

우선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의 왕래 빈도에 대해 일반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22.5%가 월 1회 이상 왕래하는 것에 반해 읍·면부 노인은 18.1%로 나타난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이 월 1회 이상 왕래한다는 비율이 23.0%로 남자 노인(19.4%)에 비해 더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연령군별로는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의 왕래 빈도가 높게 나타나며, 고령일수록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바탕으로 한 어려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배우자 유무와 관련하여 짚은 왕래 빈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적으나, 만나지 않는다는 비율에 있어서는 무배우 노인이 27.9%로 유배우 노인(17.8%)에 비해 더 높다. 배우자 부재가 노인의 사회적 교류를 형성하는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교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제한될 여지가 있다. 가구유형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며, 독거가구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비율이 27.1%로 가장 높다. 형제자매의 수가 많은 경우 왕래 빈도 역시 비례하는 경향이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더 자주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월 1회 이상 왕래한다는 비율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23.7%로 무학 노인(13.6%)에 비해 높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잦은 왕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5오분위에서는 월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은 25.5%로 제1오분위(17.5%)에 비해 8.0%포인트 더 높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월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22.5%로 제한이 있는 노인(16.5%)에 비해 높다. 건강상태가 노인의 사회적 활동 및 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표 5-20〉 형제자매, 친인척과의 왕래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월 1회 미만	만나지 않음	계 (명)
전체 ¹⁾	0.5	0.7	1.8	6.1	12.2	56.8	21.9	100.0 (10,078)
지역								
동부	0.4	0.7	1.9	6.3	13.2	56.1	21.4	100.0 (7,450)
읍·면부	0.7	0.7	1.4	5.7	9.6	58.8	23.2	100.0 (2,628)
성								
남자	0.5	0.6	1.2	5.3	11.8	60.3	20.4	100.0 (4,429)
여자	0.5	0.8	2.3	6.8	12.6	54.1	23.0	100.0 (5,649)
연령								
65~69세	0.5	0.8	2.0	7.3	14.4	63.1	12.0	100.0 (3,473)
70~74세	0.3	0.7	2.0	6.9	13.1	59.6	17.3	100.0 (2,377)
75~79세	0.5	0.7	1.6	5.0	12.4	54.2	25.7	100.0 (1,743)
80~84세	0.6	0.7	1.7	5.2	9.7	51.7	30.3	100.0 (1,407)
85~89세	0.2	0.3	1.2	3.7	6.2	43.5	44.9	100.0 (825)
90세 이상	0.9	0.0	1.0	3.7	6.6	35.8	52.0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3	0.6	1.7	6.1	12.9	60.7	17.8	100.0 (6,047)
배우자 없음	0.7	0.8	2.0	6.2	11.3	51.1	27.9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0.4	0.9	2.0	6.3	11.2	52.1	27.1	100.0 (3,306)
노인부부	0.3	0.5	1.7	6.0	12.7	60.8	18.1	100.0 (5,562)
자녀동거	0.3	0.7	2.1	6.5	13.0	50.8	26.7	100.0 (1,035)
기타	8.2	1.2	0.9	5.7	13.1	56.6	14.3	100.0 (174)
생존 형제자매 수								
0명	0.2	0.3	1.1	2.5	4.4	31.1	60.4	100.0 (2,249)
1명	1.0	0.6	2.0	6.0	12.4	58.9	19.3	100.0 (1,187)
2명	0.2	0.6	1.6	6.6	14.2	64.3	12.4	100.0 (2,649)
3명	0.3	0.7	2.0	7.5	15.1	67.0	7.4	100.0 (1,996)
4명	0.7	1.0	2.1	8.4	16.2	65.2	6.4	100.0 (1,061)
5명 이상	1.4	1.7	2.8	8.3	14.7	63.6	7.4	100.0 (936)
교육수준								
무학	0.7	1.1	1.1	3.9	6.8	48.5	37.9	100.0 (1,240)
초등학교	0.4	0.4	1.9	5.7	10.4	55.7	25.5	100.0 (2,846)
중학교	0.4	0.6	1.8	7.3	12.8	56.7	20.4	100.0 (2,139)
고등학교	0.5	0.8	1.8	6.7	15.2	59.6	15.4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0.2	0.7	2.4	6.0	14.4	64.2	12.1	100.0 (7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0.6	0.8	1.9	6.2	11.5	64.0	15.0	100.0 (3,931)
미취업	0.4	0.6	1.7	6.1	12.7	52.3	26.3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4	0.7	1.8	4.6	10.0	49.3	33.2	100.0 (2,014)
제2오분위	0.5	0.8	1.0	5.2	10.8	54.5	27.3	100.0 (2,014)
제3오분위	0.4	0.7	1.8	6.0	11.3	60.5	19.3	100.0 (2,014)
제4오분위	0.6	0.4	1.9	8.6	13.7	59.2	15.7	100.0 (2,020)
제5오분위	0.5	0.9	2.5	6.2	15.4	60.7	13.8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0.5	0.6	1.5	4.6	10.3	52.5	30.0	100.0 (3,776)
50%이상~100%미만	0.4	0.6	1.9	7.1	11.6	58.0	20.4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0.6	0.8	2.2	7.4	12.9	61.8	14.3	100.0 (1,673)
150%이상	0.3	0.9	2.0	6.7	16.6	59.4	14.1	100.0 (1,828)
가능상태								
제한 있음	0.4	0.8	1.7	5.6	8.0	45.3	38.4	100.0 (1,873)
제한 없음	0.5	0.7	1.8	6.3	13.2	59.5	18.1	100.0 (8,205)
2020년도 ^{2) 3)}	0.7	1.7	2.3	—	12.0	72.7	10.6	100.0 (8,05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전체응답자 중 생존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한한 분석 결과임.

3) 선택지 변경으로 2023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2020년: ①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정도, ③ 주 1회 정도, ④ 월 1~2회 정도, ⑤ 3개월에 1~2회 정도, ⑥ 연 1~2회 정도, ⑦ 거의 왕래하지 않음).

연락 빈도와 관련한 일반특성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이 월 1회 이상 연락한다는 비율이 47.0%로 남자 노인(41.9%)에 비해 높다. 사회적 관계에서 여자가 더 활발한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으며, 왕래 경향과도 일관된 측면이다. 연령군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월 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분명하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이 비율이 54.7%에 이르는 반면 9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19.7%로 매우 낮다. 반면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90세 이상 연령군에서 43.7%로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연락 빈도에서는 월 1회 이상 연락한다는 비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하지 않는다는 비율에서는 차이가 발견된다. 무배우 노인은 이 비율이 20.5%로 유배우 노인(11.1%)에 비해 높으며, 배우자의 유무가 사회적 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가구형태별로 차이는 명확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연락 빈도 역시 높게 나타나 가족구조의 크기가 교류를 강화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잦은 연락 빈도를 보인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의 50.9%가 월 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무학 노인은 29.3% 수준이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월 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이 높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제5오분위 노인의 경우, 동 비율이 53.4%로 소득수준이 낮은 제1오분위(34.4%)와 비교하여 19.0%포인트 높다. 기능상태 제한에 따른 연락 빈도 차이 역시 유지되어, 제한이 있는 노인은 월 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이 32.1%로 제한이 없는 노인(47.8%)에 비해 높다. 반대로 전혀 연락하지 않는 비율에 있어서는 기능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의 29.1%가 해당하여,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11.6%)과 비교하여 교류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대체로 여자 노인이거나 비교적 낮은 연령대, 배우자가 있거나 가족 관계망이 확대되었을수록,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빈번한 접촉(왕래 및 연락) 빈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건강수준이 저하되었거나 관계망이 협소한 경우, 교류가 제한적이다.

〈표 5-21〉 형제자매, 친인척과의 연락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연락하지 않음	계 (명)
전체 ¹⁾	0.9	3.2	6.6	16.8	17.3	40.3	14.9	100.0 (10,078)
지역								
동부	1.0	3.2	6.7	17.2	17.2	39.6	15.1	100.0 (7,450)
읍·면부	0.6	3.4	6.3	15.7	17.4	42.4	14.3	100.0 (2,628)
성								
남자	0.5	2.1	5.2	14.8	19.3	44.1	13.9	100.0 (4,429)
여자	1.2	4.1	7.7	18.3	15.7	37.3	15.6	100.0 (5,649)
연령								
65~69세	1.2	4.2	8.1	20.5	20.7	38.1	7.2	100.0 (3,473)
70~74세	0.9	2.7	7.1	17.4	17.9	42.9	11.1	100.0 (2,377)
75~79세	0.8	3.3	6.4	15.7	16.5	41.1	16.1	100.0 (1,743)
80~84세	0.7	3.2	5.3	12.9	14.2	42.2	21.4	100.0 (1,407)
85~89세	0.4	1.6	2.3	10.5	11.4	38.1	35.7	100.0 (825)
90세 이상	0.6	0.0	3.0	10.6	5.5	36.6	43.7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8	3.1	6.7	16.9	19.2	42.1	11.1	100.0 (6,047)
배우자 없음	1.2	3.5	6.4	16.6	14.3	37.6	20.5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1.0	3.8	6.3	16.9	14.3	37.9	19.8	100.0 (3,306)
노인부부	0.7	2.9	6.9	17.0	19.1	42.1	11.2	100.0 (5,562)
자녀동거	1.0	3.1	5.8	15.6	16.5	38.6	19.4	100.0 (1,035)
기타	5.2	4.6	7.5	14.1	19.1	37.3	12.3	100.0 (174)
생존 형제자매 수								
0명	0.1	0.7	1.4	4.2	6.4	30.7	56.5	100.0 (2,249)
1명	1.1	2.5	6.4	16.7	20.7	44.8	7.8	100.0 (1,187)
2명	0.5	3.6	6.9	18.7	19.9	47.7	2.7	100.0 (2,649)
3명	0.9	4.3	8.7	22.6	20.8	41.0	1.8	100.0 (1,996)
4명	2.0	4.6	9.7	23.5	22.6	35.8	1.9	100.0 (1,061)
5명 이상	2.8	5.6	10.2	21.7	18.2	40.5	1.1	100.0 (936)
교육수준								
무학	0.7	2.5	3.2	11.7	11.2	43.5	27.2	100.0 (1,240)
초등학교	0.7	2.5	6.4	15.6	14.9	41.7	18.2	100.0 (2,846)
중학교	0.7	3.2	6.3	18.7	16.6	42.4	12.1	100.0 (2,139)
고등학교	1.2	3.9	8.5	18.6	21.2	36.2	10.4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1.6	4.7	5.6	16.9	22.1	41.0	8.2	100.0 (7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1.1	3.3	7.7	17.8	19.0	41.6	9.5	100.0 (3,931)
미취업	0.8	3.2	5.9	16.1	16.2	39.5	18.3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6	2.4	4.7	11.8	14.9	41.2	24.5	100.0 (2,014)
제2오분위	1.0	2.9	4.9	14.6	14.9	43.4	18.3	100.0 (2,014)
제3오분위	0.6	3.4	7.6	17.6	16.1	42.6	12.2	100.0 (2,014)
제4오분위	1.0	3.5	7.9	20.3	20.0	36.9	10.2	100.0 (2,020)
제5오분위	1.4	3.9	7.8	19.8	20.5	37.4	9.4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0.7	2.4	5.0	12.7	15.2	42.6	21.4	100.0 (3,776)
50%이상~100%미만	1.0	3.2	7.4	18.3	16.9	40.6	12.6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1.0	4.5	8.0	19.9	18.0	39.3	9.3	100.0 (1,673)
150%이상	1.2	3.8	7.4	20.2	21.4	35.9	10.0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0.6	2.1	4.1	11.9	13.4	38.9	29.1	100.0 (1,873)
제한 없음	1.0	3.5	7.2	17.9	18.2	40.6	11.6	100.0 (8,205)
2020년도 ^{2) 3)}	2.0	6.3	12.0	—	25.4	49.4	4.9	100.0 (8,05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전체응답자 중 생존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한한 분석 결과임.

3) 선택지 변경으로 2023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2020년: ①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정도, ③ 주 1회 정도, ④ 월 1~2회 정도, ⑤ 3개월에 1~2회 정도, ⑥ 연 1~2회 정도, ⑦ 거의 연락하지 않음).

다음으로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노인의 사회적 교류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노인의 14.4%는 주 4회 이상 왕래하고 있으며, 주 2~3회 25.8%, 주 1회 19.5% 등의 순으로 왕래하고 있다. 즉 노인의 59.7%는 친구·이웃·지인과 주 1회 이상 만남을 유지하였다. 연락 빈도에 있어서는 유사한 경향으로 주 4회 이상 연락은 11.8%, 주 2~3회 28.9%, 주 1회 23.8% 등의 순이다.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비율이 64.5%로 왕래 빈도(59.7%)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

왕래 빈도를 중심으로 한 노인의 특성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주 1회 이상 왕래한다는 비율은 읍·면부 노인은 73.8%로 매우 높고 동부 노인은 이보다 낮은 54.5%이다. 주 4회 이상 왕래한다는 비율에 있어서도 읍·면부 노인이 25.8%로 동부 노인(10.2%)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읍·면부 지역에서의 사회적 교류가 더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에게서 주 1회 이상 왕래한다는 비율이 66.7%로 남자 노인(50.6%)에 비해 높다. 연령군별로는 90세 이상을 제외 시,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주 1회 이상 빈번히 왕래한다는 비율 역시 높다. 85~89세에서는 동 비율이 75.8%이며, 65~69세에서는 이보다 낮은 51.4%이다. 90세 이상의 경우, 동년배 역시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 시 관계망의 축소나 기능상태 제약 등으로 인해 교류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짐작된다. 월 1회 미만 또는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해당 연령군에서 18.2%로 타 연령군에 비해서 높다.

주 1회 이상 왕래한다는 응답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67.1%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55.0%)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에서 주 4회 이상 왕래한다는 비율(19.7%)뿐 아니라 주 1회 이상 왕래 비율(67.6%) 모두 타 가구유형에 비해 높다. 배우자 부재로 인한 관계망 축소를 동년배인 친구나 이웃, 지인 등과의 교류를 통해 상쇄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 4회 이상 왕래한다는 응답이 높다. 무학 노인의 경우 주 4회 이상 왕래한다는 비율이 27.6%인 반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5.0%에 그친다. 주 1회 이상 왕래한다는 비율에 있어서도 이같은 경향이 유지된다. 가구 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체로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빈도가 높다. 이는 중위 소득 대비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노인들이 친구나 이웃, 지인과 더 자주 만나는 경향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접근 가능한 자원이 제한적인 이들의 경우, 가까운 사회적 관계망과의 교류가 중요한 지지체제로

기능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기능상태 여부에 따라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이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63.1%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59.0%)에 비해 다소 높다. 기능제한을 가진 노인이 사회적 교류를 통해 필요한 지지와 도움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5-22〉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월 1회 미만	만나지 않음	계 (명)
전체 ¹⁾	14.4	25.8	19.5	17.1	12.8	9.7	0.7	100.0 (9,005)
지역								
동부	10.2	24.5	19.8	19.3	14.7	10.7	0.9	100.0 (6,571)
읍·면부	25.8	29.2	18.8	11.3	7.6	6.9	0.2	100.0 (2,434)
성								
남자	10.3	21.7	18.6	20.5	16.5	11.6	0.8	100.0 (3,930)
여자	17.6	28.9	20.2	14.6	9.9	8.2	0.6	100.0 (5,075)
연령								
65~69세	8.9	22.8	19.7	21.3	16.0	11.0	0.3	100.0 (3,231)
70~74세	13.3	25.7	18.8	18.6	13.0	9.9	0.6	100.0 (2,175)
75~79세	18.0	27.4	20.2	15.1	11.3	7.8	0.3	100.0 (1,549)
80~84세	20.0	31.6	16.9	11.1	9.7	9.6	1.2	100.0 (1,210)
85~89세	24.2	28.0	23.6	8.8	7.3	6.8	1.3	100.0 (666)
90세 이상	22.7	18.5	21.6	13.8	5.2	11.5	6.7	100.0 (17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1.4	24.4	19.2	19.0	15.1	10.5	0.5	100.0 (5,493)
배우자 없음	19.1	27.9	20.1	14.3	9.2	8.4	1.0	100.0 (3,512)
가구형태								
노인독거	19.7	28.5	19.4	14.0	9.5	8.2	0.8	100.0 (2,905)
노인부부	11.5	24.3	19.5	19.0	14.7	10.6	0.5	100.0 (5,050)
자녀동거	13.9	26.1	20.6	15.9	12.8	9.2	1.5	100.0 (893)
기타	13.9	22.8	16.9	22.3	12.4	11.7	0.0	100.0 (157)
교육수준								
무학	27.6	33.1	17.5	8.7	5.1	6.9	1.0	100.0 (1,033)
초등학교	21.1	28.9	17.7	13.3	10.1	8.0	0.8	100.0 (2,530)
중학교	12.2	25.9	21.6	18.3	12.7	8.9	0.5	100.0 (1,916)
고등학교	7.4	22.6	19.7	22.1	15.9	11.9	0.5	100.0 (2,887)
전문대학 이상	5.0	15.6	22.9	20.4	21.9	13.0	1.1	100.0 (6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16.0	24.0	18.3	18.9	12.9	9.6	0.3	100.0 (3,690)
미취업	13.3	27.0	20.4	15.9	12.7	9.7	0.9	100.0 (5,31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0.7	27.0	18.1	12.9	10.4	10.1	0.8	100.0 (1,688)
제2오분위	20.2	28.3	19.0	13.9	10.0	7.7	0.9	100.0 (1,745)
제3오분위	14.2	27.5	18.7	16.8	12.6	9.4	0.9	100.0 (1,837)
제4오분위	9.7	24.5	21.4	20.3	14.2	9.3	0.5	100.0 (1,855)
제5오분위	8.2	21.9	20.3	21.2	16.3	11.8	0.4	100.0 (1,8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9.2	26.9	18.7	14.2	10.9	9.2	0.9	100.0 (3,212)
50%이상~100%미만	15.5	28.1	19.4	15.5	11.5	9.3	0.7	100.0 (2,538)
100%이상~150%미만	10.5	24.5	19.2	21.8	13.6	9.6	0.8	100.0 (1,550)
150%이상	7.2	21.5	21.5	21.0	17.4	11.2	0.2	100.0 (1,705)
기능상태								
제한 있음	16.7	27.5	18.9	13.8	13.0	8.6	1.5	100.0 (1,450)
제한 없음	14.0	25.4	19.6	17.8	12.7	9.9	0.5	100.0 (7,555)
2020년도 ²⁾	24.5	26.7	18.2	-	15.6	10.1	4.9	10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 중 친구·이웃·지인이 있는 9,005명을 대상으로 함.

2) 선택지 변경으로 2023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2020년: ①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정도, ③ 주 1회 정도, ④ 월 1~2회 정도, ⑤ 3개월에 1~2회 정도, ⑥ 연 1~2회 정도, ⑦ 거의 왕래하지 않음).

일반특성별 연락 빈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역적으로 주 4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에서 읍·면부 노인이 16.2%, 동부 노인이 10.1%로 나타나, 읍·면부 노인이 동부 노인에 비해 더 자주 연락하는 비율이 높다.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경우에도 읍·면부 노인의 비율이 70.3%, 동부 거주 노인이 62.2%로 읍·면부에서의 더 빈번한 교류가 확인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경향이 있으며, 연령군별 차이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90세 이상 연령군에서 월 1회 미만 또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5.1%로 65~69세 연령군(8.1%)의 약 3배 수준이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는 무배우 노인이 주 4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15.3%로 유배우 노인(9.5%)보다 높게 나타나며, 이는 왕래 경향과 유사하다.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에서 주 4회 이상 연락한다는 비율이 15.8%,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68.3%로 타 가구유형과 비교 시 가장 높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친구·이웃·지인과 더 자주 연락하는 경향은 이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유지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함을 내포한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나, 무학 노인에서 월 1회 미만 또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4.4%로 가장 높다. 가구소득 및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 차이는 작다. 다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월 1회 미만 또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제1오분위 소득 노인은 12.7%인 반면 제5오분위 소득 노인은 8.4%로 나타난다. 경제적 제약이 사회적 교류에 필요한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기능상태의 경우, 제한이 없는 노인이 친구·이웃·지인과 더 빈번히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 1회 이상을 기준으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은 65.6%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제한이 있는 노인은 58.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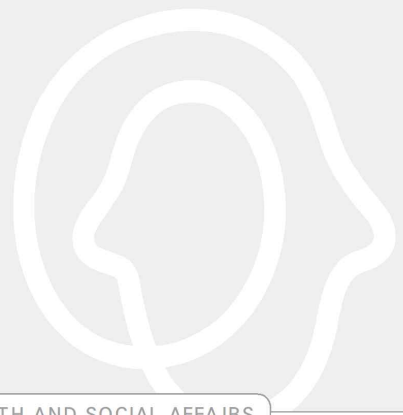
〈표 5-23〉 친구·이웃·지인과의 연락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연락하지 않음	계 (명)
전체 ¹⁾	11.8	28.9	23.8	17.3	8.7	7.6	2.0	100.0 (9,005)
지역								
동부	10.1	28.8	23.3	18.8	9.6	7.6	1.8	100.0 (6,571)
읍·면부	16.2	28.9	25.2	13.2	6.3	7.7	2.5	100.0 (2,434)
성								
남자	8.6	24.3	24.1	21.5	11.1	8.6	1.8	100.0 (3,930)
여자	14.2	32.4	23.6	14.0	6.8	6.8	2.2	100.0 (5,075)
연령								
65~69세	9.4	28.8	25.6	19.3	9.0	7.2	0.9	100.0 (3,231)
70~74세	11.0	29.6	23.3	17.7	10.0	6.8	1.5	100.0 (2,175)
75~79세	14.2	30.1	23.4	16.2	7.6	6.9	1.7	100.0 (1,549)
80~84세	15.1	29.1	20.3	14.7	7.5	9.7	3.5	100.0 (1,210)
85~89세	14.0	26.6	24.9	13.6	8.0	8.6	4.3	100.0 (666)
90세 이상	12.7	16.5	20.6	15.4	9.8	13.5	11.6	100.0 (17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5	28.1	24.7	19.1	9.7	7.5	1.4	100.0 (5,493)
배우자 없음	15.3	30.1	22.5	14.3	7.2	7.8	2.8	100.0 (3,512)
가구형태								
노인독거	15.8	30.4	22.1	14.5	7.2	7.5	2.5	100.0 (2,905)
노인부부	9.5	27.9	25.0	19.0	9.5	7.6	1.5	100.0 (5,050)
자녀동거	11.1	29.4	22.9	15.9	9.2	8.1	3.3	100.0 (893)
기타	11.9	27.5	22.5	19.8	9.2	8.3	0.8	100.0 (157)
교육수준								
무학	16.4	28.0	20.7	13.7	6.8	9.1	5.3	100.0 (1,033)
초등학교	15.4	28.2	21.9	15.5	8.0	8.1	2.9	100.0 (2,530)
중학교	10.7	30.3	24.9	17.2	9.4	6.4	1.1	100.0 (1,916)
고등학교	8.5	29.9	24.9	19.1	9.6	7.1	0.9	100.0 (2,887)
전문대학 이상	7.8	23.9	28.1	22.1	8.6	9.1	0.4	100.0 (6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12.2	28.2	25.4	17.8	8.0	7.3	1.0	100.0 (3,690)
미취업	11.5	29.3	22.7	16.9	9.2	7.8	2.6	100.0 (5,31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4.9	26.8	20.4	15.3	9.9	9.2	3.5	100.0 (1,688)
제2오분위	14.3	29.3	21.3	15.3	8.0	8.8	3.1	100.0 (1,745)
제3오분위	11.6	28.0	26.5	18.0	8.0	6.7	1.2	100.0 (1,837)
제4오분위	9.5	29.6	26.0	19.0	8.5	5.9	1.5	100.0 (1,855)
제5오분위	9.0	30.5	24.4	18.5	9.2	7.6	0.8	100.0 (1,8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3.6	27.3	22.0	15.7	9.2	9.0	3.1	100.0 (3,212)
50%이상~100%미만	11.8	29.8	24.8	16.7	7.8	7.1	2.1	100.0 (2,538)
100%이상~150%미만	10.9	28.6	25.1	20.2	8.1	5.8	1.2	100.0 (1,550)
150%이상	9.1	30.6	24.6	18.2	9.6	7.4	0.5	100.0 (1,705)
가능상태								
제한 있음	9.4	26.0	23.0	17.1	10.9	9.1	4.4	100.0 (1,450)
제한 없음	12.2	29.4	24.0	17.3	8.3	7.3	1.5	100.0 (7,555)
2020년도 ²⁾	19.9	28.1	23.0	—	14.2	8.7	6.1	10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 중 친구·이웃·지인이 있는 9,005명을 대상으로 함.

2) 선택지 변경으로 2023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2020년: ①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정도, ③ 주 1회 정도, ④ 월 1~2회 정도, ⑤ 3개월에 1~2회 정도, ⑥ 연 1~2회 정도, ⑦ 거의 연락하지 않음).



제6장

노인의 지원 교환 실태

- 제1절 배우자와의 지원 교환 실태
- 제2절 동거 자녀와의 지원 교환 실태
- 제3절 비동거 자녀와의 지원 교환 실태
- 제4절 노인의 부모와의 지원 교환 실태
- 제5절 손자녀 돌봄 실태
- 제6절 주요 지출 항목의 지불 주체
- 제7절 노년기 부양에 대한 태도

제6장 노인의 지원 교환 실태

이 장에서는 노인의 주요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지원 교환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관계망에는 배우자, 동거 및 비동거 자녀, 그리고 노인의 부모가 포함되며, 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정서적, 도구적, 돌봄, 경제적 자원 교환을 파악하였다. 또한 손자녀 돌봄 실태와 가정 내 주요 지출의 지불 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련의 분석을 통해 노인이 가정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의 변화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 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표본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결과로 유효응답 사례 수가 적은 항목이나 세부 인구집단(90세 이상, 기타 가구, 전문대학 졸업 이상 등)의 분석 결과 등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1절 배우자와의 지원 교환 실태

배우자와의 지원 교환은 정서적, 도구적, 돌봄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부부의 경우, 경제 공동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 측면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 중 대다수인 88.9%가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84.6%는 배우자에게 같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도구적 지원에 있어서도, 75.5%의 노인이 도움을 받고 있으며, 69.1%는 이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 지원은 58.1%가 배우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55.1%가 배우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양상이다. 즉, 노인과 배우자 간에 정서적, 도구적, 돌봄 지원을 통한 상호 지원 경향이 명확하며, 특히 정서적 지원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의 종류에 따라 노인의 일반특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정서적 지원의 수혜-제공률 차이(수혜-제공)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이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는 비율은 91.0%, 제공한다는 비율은 84.1%인데 반해, 여자 노인은 동 비율이 86.1%, 85.3%로 수혜-제공률 간 차이가 더

적게 나타나 상호호혜적 양상이 두드러진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노인이 배우자에게 받는 정서적 지원에 비해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이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89.3%, 제공한다는 응답이 85.7%로 나타났으나, 90세 이상에서는 수혜-제공 간 차이가 13.1%포인트로 65~69세 연령군에 비해 현저히 크다. 고령일수록 배우자와의 정서적 지원 교환에서 상호 균형을 이루는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배우자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 및 이를 제공하는 비율 모두 높아진다. 무학 졸업 노인의 경우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86.7%, 제공하는 비율이 79.2%인 반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이 비율이 93.2%, 89.2%로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정서적 지원의 수혜와 제공 간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로부터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제공 또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은 배우자로부터 82.4%가 정서적 지원을 받고 77.8%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5오분위에 속한 노인은 이 비율이 90.8%, 86.1%로 더 높다. 나아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제공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 역시 높아진다. 단, 수혜-제공률 간 차이에 있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사하다.

노인의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은 정서적 지원 교환에서 상호 균형을 보이나(수혜 88.6%, 제공 85.9%)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기능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은 배우자로부터 90.9%가 정서적 지원을 받지만 제공하는 비율은 76.9%로 수혜-제공 간 불균형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건강상태 역시 정서적 지원 교환에 영향을 미쳐, 배우자의 건강이 양호할수록 정서적 지원에 대한 제공률, 수혜율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가 매우 건강한 경우,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은 92.9%, 제공한다는 응답은 87.8%로 나타났지만 전혀 건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혜율은 71.1%, 제공률은 77.0%로 더 낮다. 이는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정서적 지원 교환의 강도 및 상호호혜적 양상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6-1> 배우자와의 정서적 지원 교환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전체 ¹⁾	24.3	22.4	64.6	62.2	8.3	12.0	2.8	3.4	100.0 (6,047)
지역									
동부	23.9	22.4	64.9	61.5	8.1	12.4	3.1	3.8	100.0 (4,514)
읍·면부	25.3	22.5	63.9	64.3	8.8	10.8	2.0	2.4	100.0 (1,533)
성									
남자	26.3	22.3	64.7	61.8	6.3	12.6	2.7	3.3	100.0 (3,444)
여자	21.7	22.5	64.4	62.8	10.9	11.1	3.0	3.6	100.0 (2,603)
연령									
65~69세	23.9	22.6	65.4	63.1	8.4	11.7	2.3	2.6	100.0 (2,421)
70~74세	24.1	22.9	64.8	62.2	7.9	11.4	3.2	3.6	100.0 (1,607)
75~79세	24.4	22.3	63.2	61.6	9.1	12.6	3.3	3.4	100.0 (1,019)
80~84세	24.8	22.7	62.8	58.8	8.4	12.4	4.0	6.1	100.0 (708)
85~89세	25.6	19.7	67.8	65.2	5.4	12.2	1.2	2.9	100.0 (245)
90세 이상	30.8	8.1	57.9	67.5	8.7	24.5	2.5	0.0	100.0 (46)
교육수준									
무학	21.0	14.9	65.7	64.3	11.0	14.4	2.4	6.4	100.0 (374)
초등학교	23.6	20.1	63.9	63.8	9.7	12.7	2.8	3.4	100.0 (1,460)
중학교	24.1	21.3	64.1	62.6	8.0	12.2	3.7	3.9	100.0 (1,398)
고등학교	24.4	24.0	65.2	61.3	7.7	11.8	2.7	2.9	100.0 (2,276)
전문대학 이상	28.5	29.6	64.7	59.6	5.4	8.3	1.3	2.5	100.0 (539)
현 취업상태									
취업중	23.8	23.9	66.1	62.8	7.8	11.0	2.3	2.3	100.0 (2,598)
미취업	24.7	21.3	63.5	61.8	8.6	12.7	3.2	4.2	100.0 (3,449)
연가소득									
제1오분위	22.4	19.5	60.0	58.3	11.6	15.6	6.0	6.6	100.0 (653)
제2오분위	23.6	20.3	62.4	62.4	9.9	12.9	4.2	4.4	100.0 (1,119)
제3오분위	26.4	21.3	63.3	63.7	7.6	11.4	2.7	3.6	100.0 (1,341)
제4오분위	26.5	24.3	64.9	63.0	6.7	10.4	1.9	2.3	100.0 (1,403)
제5오분위	21.7	24.3	69.1	61.8	7.6	11.7	1.5	2.2	100.0 (1,53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3.4	19.7	62.0	62.0	9.9	13.3	4.7	4.9	100.0 (2,014)
50%이상~100%미만	26.8	22.6	63.5	63.2	7.5	11.1	2.1	3.1	100.0 (1,763)
100%이상~150%미만	25.4	24.6	65.6	61.8	6.9	10.9	2.0	2.6	100.0 (1,073)
150%이상	21.1	24.6	69.7	61.5	7.8	11.9	1.5	2.0	100.0 (1,197)
기능상태									
제한 없음	24.5	23.6	64.1	62.3	8.5	11.1	3.0	2.9	100.0 (5,160)
제한 있음	23.1	15.1	67.8	61.8	7.0	16.9	2.1	6.3	100.0 (887)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41.6	40.4	51.3	47.4	6.7	11.1	0.4	1.2	100.0 (111)
건강한 편	27.4	25.8	65.1	62.3	6.2	9.9	1.4	2.0	100.0 (2,822)
그저 그렇다	21.6	18.0	65.5	62.9	9.1	14.5	3.9	4.7	100.0 (2,052)
건강하지 않은 편	18.2	18.0	66.6	65.2	11.7	12.2	3.5	4.5	100.0 (892)
전혀 건강하지 않음	26.6	29.7	44.5	47.3	16.1	16.2	12.7	6.7	100.0 (170)
2020년도 ²⁾	30.9	28.5	54.7	56.4	9.9	10.6	4.5	4.6	100.0 (6,778)

주: 1) 전체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6,047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배우자와의 도구적 지원에 대한 일반특성별 차이에 있어서, 읍·면부 거주 노인(수혜 76.8%, 제공 71.2%)은 동부 거주 노인(수혜 75.1%, 제공 68.4%)보다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제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지는데, 남자 노인의 도구적 지원 수혜율은 84.5%로 높지만 제공률은 63.1%에 그쳐, 가사 지원이 주로 여자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수혜 63.7%, 제공 77.0%).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배우자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뿐 아니라 제공하는 비율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90세 이상 연령군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이들의 수혜율은 68.9%이나 제공률은 39.8%에 그친다. 고령일수록 육체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 가사지원 제공 능력이 감소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은 배우자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학 노인은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66.3%, 제공하는 비율이 60.5%인 반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이 비율이 81.8%, 71.1%로 더 높다. 도구적 지원의 수혜-제공 간 격차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정서적 지원 교환과는 다른 양상이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구적 지원의 수혜율 및 제공률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오분위에 속한 노인은 배우자로부터 80.2%가 도구적 지원을 받고 73.7%는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더 높게 나타난다. 제1오분위의 경우 도구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35.9%로 제5오분위 19.7%의 약 2배 수준이다.

기능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은 배우자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지만(83.3%), 제공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54.6%) 수혜와 제공 사이의 격차가 28.7%포인트로 크다.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도구적 지원 교환에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도구적 지원을 받거나 제공하는 비율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배우자가 매우 건강한 경우, 도구적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은 83.8%, 제공한다는 응답은 76.4%로 전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51.0%, 55.9%)에 비해 매우 높다.

<표 6-2> 배우자와의 도구적 지원 교환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전체 ¹⁾	25.6	19.0	49.9	50.1	16.6	22.2	7.9	8.7	100.0 (6,047)
지역									
동부	25.9	18.9	49.2	49.5	16.3	22.5	8.6	9.2	100.0 (4,514)
읍·면부	24.8	19.4	52.0	51.8	17.4	21.3	5.8	7.5	100.0 (1,533)
성									
남자	33.8	12.9	50.7	50.2	9.9	27.4	5.6	9.6	100.0 (3,444)
여자	14.8	27.1	48.9	49.9	25.4	15.3	10.9	7.7	100.0 (2,603)
연령									
65~69세	25.2	19.7	51.1	52.9	17.1	20.5	6.5	7.0	100.0 (2,421)
70~74세	26.7	20.0	49.2	49.7	15.8	21.0	8.3	9.3	100.0 (1,607)
75~79세	24.6	17.9	51.4	50.1	16.1	23.1	7.9	8.9	100.0 (1,019)
80~84세	24.5	17.3	47.3	44.7	18.2	25.5	10.0	12.5	100.0 (708)
85~89세	31.3	17.4	43.7	43.5	15.6	30.4	9.4	8.7	100.0 (245)
90세 이상	20.5	10.9	48.4	28.9	7.2	40.0	24.0	20.1	100.0 (46)
교육수준									
무학	20.7	20.2	45.6	40.3	20.3	24.4	13.4	15.1	100.0 (374)
초등학교	24.0	19.7	48.2	48.6	18.8	22.8	9.1	9.0	100.0 (1,460)
중학교	23.9	19.5	50.7	48.8	16.9	22.4	8.6	9.3	100.0 (1,398)
고등학교	27.0	18.0	51.4	53.0	15.5	21.5	6.2	7.4	100.0 (2,276)
전문대학 이상	32.7	19.5	49.1	51.6	11.9	21.1	6.3	7.8	100.0 (539)
현 취업상태									
취업중	27.5	19.0	51.2	53.0	15.4	22.0	5.9	6.1	100.0 (2,598)
미취업	24.2	19.1	48.9	47.8	17.5	22.3	9.4	10.7	100.0 (3,44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0.0	18.2	44.1	40.5	21.2	25.5	14.7	15.8	100.0 (653)
제2오분위	22.3	17.3	46.8	46.4	20.1	25.9	10.8	10.4	100.0 (1,119)
제3오분위	25.9	19.7	49.7	48.0	16.7	21.9	7.7	10.3	100.0 (1,341)
제4오분위	28.6	20.8	52.3	53.7	13.2	19.4	5.9	6.1	100.0 (1,403)
제5오분위	27.6	18.4	52.6	55.3	14.9	20.8	4.8	5.5	100.0 (1,53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2.0	18.1	46.5	44.9	19.6	24.9	11.9	12.1	100.0 (2,014)
50%이상~100%미만	25.9	18.9	51.2	50.8	16.0	21.5	6.8	8.8	100.0 (1,763)
100%이상~150%미만	29.2	21.1	51.6	53.5	13.2	18.9	5.9	6.4	100.0 (1,073)
150%이상	28.2	18.8	52.0	54.5	15.3	21.5	4.5	5.1	100.0 (1,197)
기능상태									
제한 있음	34.2	12.0	49.1	42.6	10.4	29.2	6.3	16.2	100.0 (887)
제한 없음	24.2	20.2	50.0	51.3	17.6	21.0	8.2	7.5	100.0 (5,160)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41.8	32.4	42.0	44.0	9.7	14.8	6.5	8.8	100.0 (111)
건강한 편	27.9	18.8	50.2	51.2	15.8	22.7	6.0	7.3	100.0 (2,822)
그저 그렇다	23.6	16.8	52.3	50.7	16.4	23.3	7.7	9.1	100.0 (2,052)
건강하지 않은 편	20.7	20.0	49.3	51.0	20.3	18.6	9.8	10.3	100.0 (892)
전혀 건강하지 않음	27.3	34.5	23.7	21.4	16.5	23.4	32.6	20.8	100.0 (170)
2020년도 ²⁾	39.9	34.4	40.0	42.2	14.9	17.6	5.2	5.8	100.0 (6,778)

주: 1) 전체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6,047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배우자와의 돌봄 지원에 대해 일반특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도구적 지원 양상과 마찬가지로 읍·면부 거주 노인(수혜 61.2%, 제공 59.2%)이 동부 거주 노인(수혜 57.1%, 제공 53.7%)에 비해 돌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제공하는 양상을 보인다. 성별 차이에서는 남자 노인이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더 많이 받는 반면(60.4%), 여자 노인은 배우자에게 더 많이 제공하고 있어(56.9%) 가정 내에서 여자 노인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군의 경우, 85세 이하에서는 배우자와의 돌봄 제공 및 수혜율이 비교적 균형을 이룬다. 반면, 85세 이상에서는 양상이 달라져 배우자로부터 돌봄 수혜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90세 이상의 수혜율이 69.0%에 이른다. 제공률에 있어서는 85~89세에는 62.2%로 증가하였으나, 90세 이상에서는 42.4% 수준이다.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 제한으로 돌봄 제공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 지원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소득수준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돌봄을 더 많이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 중 51.7%는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받고 47.8%는 제공한다고 응답한 반면, 제5오분위는 이 비율이 61.2%, 57.6%이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용할 수 있는 돌봄 자원의 양뿐 아니라 접근성 역시 높아진다는 점에서 연유한 결과로 해석된다.

기능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은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더 많이 받으나(70.3%), 제공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47.5%).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은 제공률 및 수혜율 모두 56% 내외로 돌봄 지원의 균형을 더 잘 이루고 있다.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돌봄 지원 양상 역시 달라진다. 배우자가 전혀 건강하지 않은 경우 노인이 돌봄을 제공하는 비율은 62.4%로, 매우 건강한 경우(49.1%)보다 현저히 높다.

<표 6-3> 배우자와의 돌봄 지원 교환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전체 ¹⁾	13.8	10.6	44.3	44.5	22.2	24.5	19.6	20.4	100.0 (6,047)
지역									
동부	14.3	10.5	42.8	43.2	22.1	24.5	20.8	21.9	100.0 (4,514)
읍·면부	12.4	10.8	48.8	48.4	22.5	24.6	16.3	16.1	100.0 (1,533)
성									
남자	15.3	9.8	45.1	43.8	20.5	25.1	19.1	21.3	100.0 (3,444)
여자	11.9	11.6	43.3	45.3	24.6	23.7	20.3	19.3	100.0 (2,603)
연령									
65~69세	11.9	9.1	43.9	45.1	23.4	25.0	20.8	20.8	100.0 (2,421)
70~74세	14.0	10.8	44.0	44.6	21.3	23.0	20.7	21.6	100.0 (1,607)
75~79세	14.5	11.4	45.8	44.1	22.1	25.9	17.7	18.7	100.0 (1,019)
80~84세	16.7	13.2	42.3	41.7	22.5	24.4	18.5	20.7	100.0 (708)
85~89세	20.1	12.4	48.4	49.8	19.2	23.2	12.2	14.6	100.0 (245)
90세 이상	15.3	10.1	53.7	32.3	7.7	33.4	23.3	24.3	100.0 (46)
교육수준									
무학	13.1	9.7	45.3	42.9	23.4	27.0	18.2	20.5	100.0 (374)
초등학교	13.8	10.3	46.5	48.5	21.2	22.4	18.5	18.8	100.0 (1,460)
중학교	12.6	10.2	42.6	41.4	23.4	26.6	21.3	21.7	100.0 (1,398)
고등학교	14.2	10.5	43.7	44.8	22.9	25.0	19.2	19.8	100.0 (2,276)
전문대학 이상	16.1	13.4	44.6	41.4	18.2	21.3	21.1	23.9	100.0 (539)
현 취업상태									
취업중	12.8	10.9	45.1	46.5	22.9	23.7	19.2	18.9	100.0 (2,598)
미취업	14.6	10.3	43.7	43.0	21.7	25.2	19.9	21.5	100.0 (3,44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4.3	10.8	37.4	37.0	24.9	27.0	23.5	25.2	100.0 (653)
제2오분위	14.6	10.9	41.9	43.4	24.3	26.6	19.3	19.1	100.0 (1,119)
제3오분위	12.5	10.3	44.9	44.9	22.3	23.4	20.3	21.5	100.0 (1,341)
제4오분위	13.7	10.5	46.1	45.7	19.2	22.2	20.9	21.6	100.0 (1,403)
제5오분위	14.3	10.6	46.9	47.0	22.3	25.1	16.5	17.4	100.0 (1,53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4.6	11.2	41.5	42.4	23.5	25.5	20.4	20.8	100.0 (2,014)
50%이상~100%미만	12.3	9.7	45.3	45.5	21.2	22.5	21.2	22.3	100.0 (1,763)
100%이상~150%미만	14.2	10.6	44.3	42.8	21.3	25.7	20.2	20.9	100.0 (1,073)
150%이상	14.4	10.7	47.7	48.0	22.3	24.8	15.6	16.5	100.0 (1,197)
기능상태									
제한 있음	24.8	10.0	45.5	37.5	16.8	30.1	12.9	22.4	100.0 (887)
제한 없음	11.9	10.7	44.1	45.7	23.2	23.6	20.8	20.1	100.0 (5,160)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13.2	11.3	33.9	37.8	21.5	20.6	31.5	30.3	100.0 (111)
건강한 편	14.6	10.1	44.2	43.6	21.1	25.3	20.1	20.9	100.0 (2,822)
그저 그렇다	12.6	8.4	45.1	45.4	24.0	26.5	18.4	19.7	100.0 (2,052)
건강하지 않은 편	12.4	11.9	48.1	49.6	23.1	19.2	16.4	19.3	100.0 (892)
전혀 건강하지 않음	24.3	36.7	24.6	25.7	15.8	18.1	35.3	19.4	100.0 (170)
2020년도 ²⁾	24.8	23.3	37.9	39.0	14.5	15.5	22.8	22.1	100.0 (6,778)

주: 1) 전체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6,047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제2절 동거 자녀와의 지원 교환 실태

동거 자녀와의 지원 교환 실태를 정서적, 도구적, 돌봄 지원 및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인이 함께 사는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91.0%이며, 제공하는 비율은 81.5%이다. 가사지원과 같은 도구적 지원은 75.8%가 받고, 69.3%가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가족 내에서 상호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돌봄 지원은 63.2%가 받고, 34.0%가 제공하였다. 동거 자녀와의 교류에 있어서 정서적, 도구적 지원이 빈번히 이루어지며, 돌봄 지원은 주로 자녀가 노인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동거 자녀와의 정서적 지원 교환 실태를 일반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지역별로는 수혜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작고, 제공률에 있어서는 동부 거주 노인의 82.1%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응답하여 읍·면부 노인(78.7%)에 비해 높다. 그 결과, 수혜-제공 간 격차 역시 읍·면부 거주 노인이 13.1%포인트로 동부 거주 노인(8.7%포인트)과 비교하여 크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93.4%)이 남자 노인(85.9%)에 비해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공률은 남자 노인이 근소하게 더 높다. 여자 노인에게서 자녀와의 정서적 지원 수혜율 및 제공률 간 격차는 12.6%포인트로 남자 노인에 비해 큰 편이다. 가족 간 정서적 지원 교환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 및 기대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거 자녀로부터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연령 증가에 따른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 변화로 인해 자녀의 정서적 유대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공률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양상이다. 배우자의 경우, 무배우 노인이 유배우 노인에 비해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93.0%). 제공률에 있어서는 유배우 노인이 87.0%로 무배우 노인(77.8%)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자녀로부터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에 있어 보다 더 의존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공률에 있어서는 무학 노인(73.4%)을 제외하고 교육수준별 차이가 크지 않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 중 93.0%가 동거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어 취업한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들이 가족과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득수준에 따른 정서적 지원 차이는 크지 않다. 기능상태와 관련해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이 자녀로부터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94.8%). 이는 기능제한을 가진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함께 사는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이 수반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다.

동거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혼 장남, 기혼 딸, 기혼 차남 등의 순으로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고, 정서적 지원의 제공에 있어서는 기혼 딸, 미혼 자녀 등의 순으로 높게 제시되었다. 자녀의 성별 및 결혼 여부에 따라 노인-자녀 간 정서적 교류 양상이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기혼 딸이 정서적 지원의 주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표 6-4> 동거 자녀와의 정서적 지원 교환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전체 ¹⁾	24.1	16.8	66.9	64.7	7.5	15.3	1.5	3.3	100.0 (1,032)
지역									
동부	24.6	18.0	66.2	64.1	7.8	15.1	1.4	2.8	100.0 (842)
읍·면부	21.7	11.6	70.1	67.1	6.0	16.1	2.2	5.2	100.0 (191)
성									
남자	17.2	17.8	68.7	65.2	12.4	15.1	1.8	1.9	100.0 (317)
여자	27.2	16.3	66.2	64.5	5.3	15.3	1.4	3.9	100.0 (715)
연령									
65~69세	21.3	21.6	65.1	63.6	11.9	13.4	1.7	1.4	100.0 (297)
70~74세	18.0	18.3	73.2	67.4	6.8	12.8	2.0	1.5	100.0 (168)
75~79세	29.6	20.7	59.0	63.3	8.4	12.3	3.1	3.8	100.0 (152)
80~84세	25.0	15.6	66.3	64.5	8.2	16.5	0.4	3.5	100.0 (188)
85~89세	28.9	8.6	68.8	71.9	1.2	13.6	1.1	6.0	100.0 (155)
90세 이상	25.5	5.4	74.5	50.9	0.0	35.9	0.0	7.8	100.0 (7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8.8	21.0	69.1	66.0	10.0	12.0	2.1	0.9	100.0 (406)
배우자 없음	27.5	14.0	65.5	63.8	5.8	17.3	1.2	4.8	100.0 (626)
교육수준									
무학	30.7	15.6	63.1	57.8	5.4	18.5	0.8	8.2	100.0 (174)
초등학교	23.4	13.3	70.6	68.5	4.5	15.1	1.6	3.0	100.0 (337)
중학교	22.9	15.7	66.8	67.7	8.3	15.8	2.0	0.9	100.0 (168)
고등학교	25.0	21.8	63.7	63.0	9.3	12.5	2.1	2.7	100.0 (267)
전문대학 이상	13.1	19.1	70.8	62.8	16.1	17.2	0.0	0.9	100.0 (86)
현 취업상태									
취업중	21.2	18.6	65.8	65.9	11.6	14.1	1.4	1.4	100.0 (333)
미취업	25.5	15.9	67.5	64.1	5.5	15.8	1.6	4.2	100.0 (69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7.5	18.9	66.2	61.1	3.1	14.7	3.2	5.3	100.0 (83)
제2오분위	20.6	17.0	66.2	64.0	7.8	15.2	5.4	3.8	100.0 (82)
제3오분위	30.8	20.6	59.0	57.9	7.0	16.8	3.2	4.7	100.0 (115)
제4오분위	29.5	13.9	63.0	65.4	7.3	16.0	0.1	4.7	100.0 (268)
제5오분위	19.5	17.1	71.2	66.6	8.3	14.6	0.9	1.7	100.0 (48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8.3	20.7	62.0	59.1	5.6	16.0	4.1	4.2	100.0 (212)
50%이상~100%미만	29.0	13.7	62.4	66.3	7.5	15.3	1.0	4.8	100.0 (250)
100%이상~150%미만	25.2	17.4	67.1	63.6	7.5	16.6	0.2	2.4	100.0 (286)
150%이상	15.4	15.9	74.5	68.6	8.7	13.3	1.4	2.2	100.0 (284)
기능상태									
제한 있음	27.2	7.4	67.6	64.6	4.3	22.9	0.9	5.1	100.0 (306)
제한 없음	22.8	20.7	66.7	64.7	8.8	12.1	1.8	2.5	100.0 (727)
동거 자녀의 특성									
기혼장남(과 기타 자녀)	26.8	8.9	66.7	64.9	5.9	20.4	0.6	5.8	100.0 (263)
기혼차남이하(와 기타 자녀)	25.3	12.1	66.3	60.2	8.4	20.9	0.0	6.8	100.0 (45)
기혼딸(과 기타 자녀)	24.1	14.5	68.2	70.4	5.8	13.5	1.9	1.6	100.0 (112)
미혼자녀	22.7	20.8	66.9	63.9	8.4	13.1	2.0	2.3	100.0 (609)
기타	34.3	34.3	65.7	65.7	0.0	0.0	0.0	0.0	100.0 (4)
2020년도 ²⁾	26.0	16.1	51.9	49.2	15.0	22.4	7.1	12.3	100.0 (1,998)

주: 1) 전체응답자 중 동거 자녀가 있는 1,032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에 대한 일반특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수혜율에 있어서는 지역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나, 제공률에 있어서는 동부 거주 노인이 71.2%로 읍·면부 거주 노인(60.4%)에 비해 더 높다. 수혜-제공 간 격차는 읍·면부 노인에게서 16.3%포인트로 동부 거주 노인(4.2%포인트)과 비교하여 높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이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비율 모두 높게 나타난다. 동거 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여자 노인은 78.2%인 반면 남자 노인은 70.3%이며, 제공률은 69.8%, 68.1%이다. 이는 여자 노인이 가정 내에서 전통적으로 가사지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거 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며, 특히 90세 이상 노인에서는 수혜율이 95.3%에 달한다. 반면 동 연령대에서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은 28.0%로 노인의 신체 기능 제약에 따른 결과이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반대의 경향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노인-배우자 간 상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녀에게 보다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여력이 더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자녀로부터 도구적 도움을 받는 비율이 더 높다. 무학 노인은 81.3%가 동거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받는 반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51.8%에 그친다. 반면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교육수준 간에 큰 차이가 없어, 노인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 정도가 교육수준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취업 노인이 취업 노인에 비해 동거 자녀로부터 더 많은 도구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취업 70.4%, 미취업 78.2%), 제공률은 반대의 양상이다(취업 77.9%, 미취업 65.1%).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으며, 기능제한을 경험하는 노인 중 88.1%는 동거 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제공받아 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도구적 지원 제공률은 78.3%로 제한이 있는 노인의 47.8%에 비해 더 높다.

동거 자녀의 특성에 따라서는 기혼 딸(과 기타 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89.1%로 가장 높고, 기혼 장남(와 기타 자녀) 86.0%, 기혼 차남 이하(와 기타 자녀) 85.6%,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제공률은 이와 달리 미혼자녀 76.7%, 기혼 딸(와 기타 자녀) 69.6%, 기혼 차남 이하(와 기타 자녀) 67.3% 등의 순이다. 이같은 지원 교환 양상은 미혼 자녀와 동거하는 주된 이유로 자녀의 필요(가사, 육아 지원 등)에 의한 선택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던 것과 맞물리는 결과이다.

<표 6-5> 동거 자녀와의 도구적 지원 교환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전체 ¹⁾	19.6	14.0	56.2	55.3	17.2	20.3	7.1	10.4	100.0 (1,032)
지역									
동부	19.0	14.3	56.4	56.9	17.4	18.7	7.1	10.0	100.0 (842)
읍·면부	21.8	12.4	54.9	48.0	16.4	27.3	6.9	12.3	100.0 (191)
성									
남자	13.2	10.3	57.1	57.8	21.9	21.1	7.8	10.8	100.0 (317)
여자	22.4	15.6	55.8	54.2	15.1	20.0	6.7	10.3	100.0 (715)
연령									
65~69세	12.7	19.4	47.7	54.1	29.0	19.0	10.5	7.5	100.0 (297)
70~74세	12.5	21.3	53.9	58.9	24.1	16.1	9.5	3.6	100.0 (168)
75~79세	19.9	17.8	57.0	57.7	16.3	14.3	6.9	10.1	100.0 (152)
80~84세	19.2	10.5	67.8	62.7	9.4	17.5	3.6	9.3	100.0 (188)
85~89세	29.5	1.5	61.7	55.7	4.5	27.0	4.4	15.9	100.0 (155)
90세 이상	43.2	2.2	52.1	25.8	2.3	41.4	2.4	30.6	100.0 (7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2.4	17.0	52.6	55.6	25.7	18.3	9.3	9.0	100.0 (406)
배우자 없음	24.2	12.0	58.5	55.0	11.7	21.7	5.6	11.3	100.0 (626)
교육수준									
무학	33.1	6.5	48.2	44.7	10.7	29.2	8.1	19.6	100.0 (174)
초등학교	17.4	12.2	66.0	58.9	12.5	18.8	4.1	10.1	100.0 (337)
중학교	22.5	20.5	49.7	57.7	20.7	15.5	7.1	6.3	100.0 (168)
고등학교	15.3	18.6	57.0	56.1	20.1	20.2	7.6	5.2	100.0 (267)
전문대학 이상	8.2	9.1	43.6	55.1	33.1	18.3	15.1	17.6	100.0 (86)
현 취업상태									
취업중	14.6	17.4	55.8	60.5	21.4	15.5	8.1	6.6	100.0 (333)
미취업	21.9	12.3	56.3	52.8	15.2	22.6	6.6	12.2	100.0 (69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4.9	14.3	63.8	46.1	13.7	26.0	7.6	13.7	100.0 (83)
제2오분위	12.2	11.4	59.1	57.7	21.4	18.5	7.3	12.4	100.0 (82)
제3오분위	22.8	9.7	51.8	50.6	18.2	20.9	7.1	18.8	100.0 (115)
제4오분위	24.4	12.3	53.3	59.2	17.4	20.0	4.9	8.5	100.0 (268)
제5오분위	18.1	16.3	57.0	55.3	16.8	19.7	8.1	8.6	100.0 (48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7.7	12.0	58.4	47.9	16.7	23.9	7.2	16.1	100.0 (212)
50%이상~100%미만	26.5	10.2	50.5	61.0	18.0	19.9	5.0	8.9	100.0 (250)
100%이상~150%미만	18.7	12.4	58.5	57.4	15.5	20.3	7.3	9.9	100.0 (286)
150%이상	15.7	20.3	57.1	53.5	18.6	18.1	8.6	8.1	100.0 (284)
기능상태									
제한 있음	34.5	6.5	53.6	41.3	8.3	31.7	3.6	20.5	100.0 (306)
제한 없음	13.3	17.1	57.2	61.2	21.0	15.5	8.5	6.2	100.0 (727)
동거 자녀의 특성									
기혼장남(과 기타 자녀)	28.9	4.6	57.1	48.2	10.0	31.5	4.0	15.7	100.0 (263)
기혼차남이하(와 기타 자녀)	13.9	5.7	71.7	61.6	5.8	13.3	8.5	19.4	100.0 (45)
기혼딸(과 기타 자녀)	28.2	7.4	60.9	62.2	9.4	21.9	1.5	8.6	100.0 (112)
미혼자녀	14.2	19.9	53.7	56.8	22.7	15.7	9.4	7.7	100.0 (609)
기타	34.3	0.0	63.9	36.3	1.7	29.4	0.0	34.3	100.0 (4)
2020년도 ²⁾	30.0	25.6	44.3	43.3	16.2	17.9	9.6	13.2	100.0 (1,998)

주: 1) 전체응답자 중 동거 자녀가 있는 1,032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의 일반특성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 노인은 62.9%가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았으나, 읍·면부 거주 노인은 64.4%로 동부 노인에 비해 근소하게 높다. 제공률에 있어서는 비교적 동부 노인이 34.9%로 읍·면부 노인(29.4%)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역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돌봄 자원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이 동거 자녀로부터 더 많이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68.7%), 남자 노인에 비해 돌봄 수혜의 필요성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돌봄 제공률의 성별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다.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동거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는 비율이 뚜렷이 높아진다. 65~69세 연령대에서는 41.6%만이 해당하지만 90세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노인(95.1%)이 돌봄을 받고 있다. 제공률은 대체로 반대의 양상이나, 90세 이상 연령대에서도 14.0%가 자녀의 돌봄 지원을 행했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배우자 여부와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69.3%는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3.6%가 해당하였다. 배우자의 부재가 함께 사는 자녀로 하여금 노인에게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돌봄 제공률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더 높아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40.4%,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29.8%이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로부터 돌봄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무학 노인은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는 비율이 76.4%에 달하였다.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고령일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역시 제한되었을 수 있어 자녀의 돌봄에 더 의존적이라는 점을 내포한다. 교육수준에 따른 제공률 차이는 작다. 취업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취업 노인이 68.6%로 취업 노인(51.7%)보다 더 많은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취업 노인이 가정 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제공률에 있어서는 취업 노인이 37.0%로 미취업 노인에 비해 다소 높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교적 돌봄을 제공받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제공률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가 작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79.4%가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는 반면 제공은 23.2%에 그치며, 제한이 없는 경우는 이 비율이 56.3%, 38.5%이다. 동거 자녀 특성별로는 기혼 장남(과 기타 자녀)이나 기혼 딸(과 기타 자녀)로부터 비등한 수준으로 돌봄을 받고 있으며(75.5%, 74.0%), 제공은 이와 달리 미혼자녀에게 가장 높

은 38.5%로 나타났다. 즉, 결혼한 자녀가 가족 내에서 노인(부모)에 대한 돌봄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표 6-6> 동거 자녀와의 돌봄 지원 교환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전체 ¹⁾	18.0	5.0	45.2	29.0	18.7	32.0	18.2	34.0	100.0 (1,032)
지역									
동부	17.9	5.1	45.0	29.8	19.1	32.2	18.1	32.8	100.0 (842)
읍·면·부	18.4	4.3	46.0	25.1	16.8	31.1	18.8	39.5	100.0 (191)
성									
남자	8.6	4.6	41.9	27.7	25.1	32.5	24.4	35.2	100.0 (317)
여자	22.1	5.2	46.6	29.5	15.8	31.8	15.5	33.5	100.0 (715)
연령									
65~69세	8.7	6.2	32.9	29.2	26.9	32.4	31.4	32.3	100.0 (297)
70~74세	10.9	7.4	46.8	33.6	21.7	28.0	20.6	31.0	100.0 (168)
75~79세	16.2	8.5	48.6	30.2	20.6	32.5	14.6	28.8	100.0 (152)
80~84세	20.6	2.9	47.4	27.3	18.3	36.8	13.7	33.0	100.0 (188)
85~89세	32.0	1.6	55.8	31.2	5.5	25.6	6.7	41.6	100.0 (155)
90세 이상	39.4	0.1	55.7	13.9	2.5	40.1	2.4	45.9	100.0 (7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8	7.7	44.8	32.7	23.6	31.1	22.8	28.5	100.0 (406)
배우자 없음	23.9	3.3	45.4	26.5	15.5	32.6	15.3	37.6	100.0 (626)
교육수준									
무학	31.6	3.2	44.8	20.2	11.5	34.1	12.1	42.5	100.0 (174)
초등학교	19.2	5.0	52.2	33.0	16.4	30.0	12.3	32.0	100.0 (337)
중학교	13.5	4.2	37.5	24.1	24.9	33.2	24.2	38.5	100.0 (168)
고등학교	14.1	5.5	39.8	31.4	20.7	30.9	25.4	32.3	100.0 (267)
전문대학 이상	6.3	8.4	49.8	33.1	23.7	37.0	20.1	21.5	100.0 (86)
현 취업상태									
취업중	9.1	4.2	42.6	32.8	22.1	33.4	26.1	29.6	100.0 (333)
미취업	22.2	5.4	46.4	27.1	17.0	31.4	14.5	36.1	100.0 (699)
연가소득									
제1오분위	19.5	5.8	49.5	27.4	11.9	26.0	19.1	40.8	100.0 (83)
제2오분위	9.9	7.0	45.8	23.4	24.3	36.0	20.0	33.6	100.0 (82)
제3오분위	24.6	5.4	43.3	25.2	15.5	29.2	16.6	40.2	100.0 (115)
제4오분위	20.1	3.1	45.6	28.9	21.3	35.6	13.1	32.5	100.0 (268)
제5오분위	16.3	5.5	44.5	31.1	18.2	31.0	21.0	32.4	100.0 (48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9.5	6.7	45.9	22.7	16.0	29.4	18.7	41.2	100.0 (212)
50%이상~100%미만	20.0	2.8	43.7	32.7	19.5	33.2	16.8	31.3	100.0 (250)
100%이상~150%미만	20.4	5.7	42.6	26.3	21.7	33.6	15.3	34.3	100.0 (286)
150%이상	12.5	4.9	48.5	33.1	16.9	31.2	22.1	30.9	100.0 (284)
기능상태									
제한 있음	31.5	2.2	47.9	21.0	11.7	36.6	8.9	40.2	100.0 (306)
제한 없음	12.3	6.2	44.0	32.3	21.6	30.1	22.2	31.4	100.0 (727)
동거 자녀의 특성									
기혼장남(과 기타 자녀)	28.0	0.7	47.5	24.8	13.3	34.2	11.2	40.3	100.0 (263)
기혼차남이하(와 기타 자녀)	22.1	1.6	40.9	24.5	17.3	31.6	19.7	42.3	100.0 (45)
기혼딸(과 기타 자녀)	19.0	4.0	55.0	28.9	14.0	31.3	12.0	35.9	100.0 (112)
미혼자녀	13.0	7.3	42.7	31.2	21.9	31.1	22.4	30.4	100.0 (609)
기타	34.3	0.0	36.3	12.2	29.4	53.5	0.0	34.3	100.0 (4)
2020년도 ²⁾	14.3	8.5	35.6	21.0	19.3	21.8	30.8	48.7	100.0 (1,998)

주: 1) 전체응답자 중 동거 자녀가 있는 1,032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수혜율은 현금 지원 77.0%, 현물지원 71.2%로 나타난 반면 제공률은 각각 35.2%, 37.1%이다. 즉,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자녀로부터의 수혜율이 제공률보다 우위를 차지하며, 지원 항목(현금, 현물)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일반특성별 경제적 지원 교환 실태를 살펴보면, 현금 지원 수혜율은 읍·면부 거주 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79.3%). 반면 현물 지원은 동부 거주 노인(72.0%)이 더 높다. 제공률 측면에서는 현금 지원의 경우 동부 거주 노인이 더 높게 나타나며(36.3%), 현물 지원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성별 분석 결과,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경제적 지원 수혜율이 높은 반면 제공률은 낮다. 여자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지원 항목과 관계없이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다. 65~69세 연령군에서 현금 지원은 65.1%, 90세 이상에서는 82.2%, 현물 지원은 각 65.6%, 79.0%로 나타났다. 반면 제공률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이 유배우 노인보다 경제적 지원 수혜율이 높은 반면 유배우 노인은 자녀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더 높다. 배우자 유무가 자녀와의 경제적 지원 교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무배우 노인의 경우 자녀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수준 및 취업 여부에 따라 자녀와의 경제적 지원 교환 양상 역시 상이하다.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미취업 노인의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 수혜율이 높다. 경제적 지원 제공률은 반대의 경향을 띤다. 가구소득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발견하기 어렵다.

기능제한 여부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는 경우, 수혜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81.7%, 75.0%). 경제적 지원 제공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노인의 응답률이 42.4%, 44.5%로 제한이 있는 노인의 약 2배 수준이다.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동거 자녀 특성에 따른 경제적 지원 수혜율은 뚜렷한 경향성이 없다. 즉, 자녀의 출생순위나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동거 자녀의 경제적 상황이나 노인-자녀 간의 관계의 질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단, 경제적 지원 제공에 있어서는 미혼 자녀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지원 항목과 관계없이 가장 높다(41.9%, 46.3%).

<표 6-7> 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지원 교환

(단위: %, 명)

특성	수혜		제공		(명)
	정기/비정기 현금 지원	현물 지원	정기/비정기 현금 지원	현물 지원	
전체 ¹⁾	77.0	71.2	35.2	37.1	(1,032)
지역					
동부	76.4	72.0	36.3	37.1	(842)
읍·면부	79.3	67.7	30.5	37.4	(191)
성					
남자	66.4	64.0	43.5	45.1	(317)
여자	81.6	74.4	31.5	33.6	(715)
연령					
65~69세	65.1	65.6	50.9	56.7	(297)
70~74세	78.5	72.5	38.0	42.8	(168)
75~79세	82.9	74.4	34.6	36.4	(152)
80~84세	85.9	72.0	27.3	27.1	(188)
85~89세	78.9	72.7	20.0	16.4	(155)
90세 이상	82.2	79.0	18.7	15.5	(7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6.8	64.8	49.9	50.8	(406)
배우자 없음	83.5	75.3	25.7	28.3	(626)
교육수준					
무학	84.4	74.8	20.3	22.0	(174)
초등학교	80.7	72.2	31.7	31.1	(337)
중학교	77.3	70.9	30.3	35.3	(168)
고등학교	70.8	68.6	44.2	48.7	(267)
전문대학 이상	66.1	68.2	61.1	59.5	(86)
현 취업상태					
취업중	69.0	66.8	50.6	55.6	(333)
미취업	80.7	73.3	27.9	28.4	(69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8.0	70.9	28.2	26.4	(83)
제2오분위	79.6	63.6	43.3	44.0	(82)
제3오분위	79.1	76.1	33.7	34.4	(115)
제4오분위	82.0	73.7	24.9	29.4	(268)
제5오분위	73.1	70.0	41.1	42.8	(48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1.0	70.5	33.9	32.9	(212)
50%이상~100%미만	77.2	73.1	30.6	36.6	(250)
100%이상~150%미만	78.7	70.5	29.9	30.4	(286)
150%이상	72.0	70.7	45.6	47.6	(284)
기능상태					
제한 있음	81.7	75.0	18.3	19.6	(306)
제한 없음	75.0	69.6	42.4	44.5	(727)
동거 자녀의 특성					
기혼장남(과 기타 자녀)	81.0	72.3	24.0	23.2	(263)
기혼차남이하(와 기타 자녀)	83.9	77.8	26.6	33.5	(45)
기혼딸(과 기타 자녀)	82.3	71.1	29.4	22.8	(112)
미혼자녀	73.6	70.1	41.9	46.3	(609)
기타	98.3	98.3	12.2	12.2	(4)
2020년도 ^{2) 3)}	-	80.0	-	41.8	(1,998)

주: 1) 전체응답자 중 동거 자녀가 있는 1,032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3) 2020년에는 경제적 지원 교환을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조사하였으나, 2023년에는 2점 척도(1=예, 2=아니요)로 조사함. 또한, 2020년에는 현금 지원을 정기적 현금 지원과 비정기적 현금 지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2023년에는 통합하여 조사함.

제3절 비동거 자녀와의 지원 교환 실태

비동거 자녀와의 정서적, 도구적, 돌봄 지원 실태를 살펴본 결과이다. 노인-비동거 자녀 간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지원 교환이 이루어지는 측면은 정서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떨어져 사는 자녀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은 82.7%에 달하며, 제공하는 비율은 65.5%로 비동거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대 및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뜻한다. 도구적 지원 및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다. 도구적 지원은 35.1%가 자녀로부터 받고, 16.9%가 제공하였다. 돌봄 지원을 받는 비율은 33.9%이며, 제공하는 비율은 12.4%이다. 정서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통화,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비동거 상태에서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도구적 지원이나 돌봄 지원은 물리적인 장소에서 직접적 활동이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비동거 자녀를 통한 지원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원 교환 비율 역시 앞선 두 관계(배우자, 동거 자녀)와 비교 시 높지 않다.

구체적으로 비동거 자녀와의 정서적 교환 실태를 일반특성별로 살펴보았다. 동부 거주 노인의 경우, 자녀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이 83.1%이고, 자녀에게 제공하는 비율도 68.0%로, 읍·면부 거주 노인(81.6%, 59.2%)에 비해 높다. 이러한 차이는 노인-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이 가족 간의 정서적 지원 교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읍·면부 거주 노인이 경험하는 수혜율과 제공률 간의 격차는 22.4% 포인트로 동부 거주 노인의 15.1%포인트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정서적 지원 교환 양상이 더 불균형적이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수혜율 및 제공률이 모두 높다. 특히 수혜율에 있어서 여자 노인의 경우 85.6%가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남자 노인은 78.9%로 나타나,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자녀와 더 강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하고 있다. 제공률 간 차이는 크지 않다.

비동거 자녀와의 정서적 지원에 있어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율은 높고, 제공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분명하다. 이는 고령일수록 자녀로부터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할 여력이 감소함을 뜻한다. 65~69세의 경우, 지원받는 비율은 80.1%, 제공하는 비율은 70.3%이나 90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87.9%, 42.1%로 연령군 간 차이가 크다.

비동거 자녀와의 정서적 지원 측면에서, 배우자 유무 및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 역시 발견된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율은 69.3%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59.7%)에 비해 높다. 또한 부부가구에서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율이 69.0%로 타 가구유형에 비해 높다. 두 분석 결과는 배우자의 존재가 노인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할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높이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정서적 지원율에 있어서 배우자 유무나 가구형태에 따른 큰 차이는 없다. 비동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 수혜율이 높지만, 제공률에 있어서는 명확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노인이 받는 지원의 양은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으나,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의 양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해석된다.

정서적 지원 수혜율에 대한 교육수준별 차이는 미미하지만, 제공률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진다. 무학 노인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 비율은 51.7%인 반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78.9%에 이른다. 교육수준에 따른 수혜율-제공률 간 격차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무학 노인의 수혜율-제공률 간 차이는 32.7%포인트로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5.7%포인트)에 비해 훨씬 높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떨어져 사는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업 여부 및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취업 중인 노인에게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율이 높다. 경제적 자립성이 높은 노인일수록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형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능상태에 따른 정서적 지원 수혜율 차이는 부재하며, 제공률에 있어서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이 68.4%로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53.5%)에 비해 더 높다.

<표 6-8> 비동거 자녀와의 정서적 지원 교환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전체 ¹⁾	21.6	13.2	61.1	52.3	12.7	25.8	4.6	8.6	100.0 (9,265)
지역									
동부	21.5	14.0	61.6	54.0	12.4	24.0	4.5	8.0	100.0 (6,777)
읍·면·부	22.0	11.3	59.6	47.9	13.5	30.6	5.0	10.3	100.0 (2,488)
성									
남자	18.3	12.2	60.6	52.1	15.5	26.5	5.6	9.2	100.0 (4,066)
여자	24.2	14.1	61.4	52.5	10.5	25.2	3.8	8.2	100.0 (5,199)
연령									
65~69세	19.1	13.9	61.0	56.4	14.4	22.8	5.5	6.8	100.0 (3,111)
70~74세	20.7	14.0	61.5	54.6	12.9	23.7	5.0	7.7	100.0 (2,194)
75~79세	21.7	14.0	61.3	51.9	12.7	25.4	4.3	8.7	100.0 (1,625)
80~84세	24.6	11.8	60.5	47.3	11.2	30.0	3.7	10.9	100.0 (1,326)
85~89세	26.4	11.1	61.7	44.2	8.5	32.2	3.4	12.5	100.0 (776)
90세 이상	30.1	7.5	57.8	34.6	11.6	42.5	0.6	15.3	100.0 (23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0.6	14.5	61.9	54.8	13.3	23.8	4.2	6.9	100.0 (5,711)
배우자 없음	23.2	11.3	59.9	48.4	11.7	28.9	5.3	11.4	100.0 (3,554)
가구형태									
노인독거	24.0	11.6	58.8	48.1	11.4	28.5	5.8	11.8	100.0 (2,960)
노인부부	21.1	14.3	61.4	54.7	13.3	24.1	4.2	6.9	100.0 (5,336)
자녀동거	17.8	13.0	67.5	52.7	13.1	26.6	1.6	7.7	100.0 (824)
기타	12.9	10.4	59.2	51.0	15.1	26.9	12.8	11.7	100.0 (145)
교육수준									
무학	24.4	9.3	60.0	42.4	10.4	33.7	5.2	14.7	100.0 (1,167)
초등학교	23.9	12.8	59.3	50.3	12.9	28.8	3.8	8.2	100.0 (2,638)
중학교	20.8	13.2	62.2	54.5	12.0	23.9	5.0	8.5	100.0 (1,965)
고등학교	18.5	13.8	62.3	55.5	14.0	23.2	5.1	7.6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23.2	20.3	61.4	58.6	12.2	16.5	3.2	4.6	100.0 (637)
현 취업상태									
취업중	20.3	13.8	61.4	57.3	13.7	22.5	4.6	6.5	100.0 (3,637)
미취업	22.5	12.9	60.9	49.1	12.1	27.9	4.6	10.0	100.0 (5,62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3.5	11.6	57.8	45.6	12.3	30.6	6.4	12.3	100.0 (1,814)
제2오분위	22.6	10.9	60.9	49.1	11.5	29.3	5.0	10.6	100.0 (1,855)
제3오분위	24.5	13.7	60.7	55.1	11.2	23.5	3.6	7.6	100.0 (1,929)
제4오분위	19.9	14.5	62.4	54.5	13.6	23.9	4.1	7.1	100.0 (1,889)
제5오분위	17.4	15.5	63.7	57.2	15.1	21.7	3.9	5.5	100.0 (1,77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3.2	11.7	59.0	47.3	12.0	29.7	5.7	11.2	100.0 (3,462)
50%이상~100%미만	23.7	13.9	60.7	53.8	11.8	24.3	3.8	8.0	100.0 (2,655)
100%이상~150%미만	19.4	13.9	64.2	57.2	12.2	21.9	4.2	7.0	100.0 (1,527)
150%이상	16.9	14.8	63.2	56.0	16.1	23.4	3.8	5.7	100.0 (1,621)
기능상태									
제한 있음	19.8	6.6	62.8	46.9	13.1	32.7	4.3	13.8	100.0 (1,762)
제한 없음	22.0	14.8	60.7	53.6	12.6	24.2	4.7	7.4	100.0 (7,503)
비동거 자녀 수									
1명	16.5	13.1	58.5	51.1	17.8	25.2	7.2	10.6	100.0 (1,161)
2명	18.6	13.3	63.5	55.5	13.1	23.7	4.8	7.5	100.0 (3,856)
3명	23.7	14.6	59.7	50.4	12.6	26.5	4.1	8.6	100.0 (2,449)
4명	26.7	11.5	59.9	50.2	9.6	27.8	3.9	10.4	100.0 (1,080)
5명 이상	31.6	11.4	58.8	46.9	7.3	32.4	2.3	9.3	100.0 (719)
2020년도 ²⁾	18.8	12.5	51.7	43.9	16.7	25.3	12.9	18.3	100.0 (9,463)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265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에 대한 일반특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 노인이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이 18.4%로 읍·면부 거주 노인(12.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차이는 노인-자녀 간 물리적 거리가 도구적 지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도구적 지원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로 근거리에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 교환의 특성은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비동거 자녀와의 지원 교환율이 더 낮은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이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비율 모두 높다. 비동거 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여자 노인은 37.5%인 반면 남자 노인은 32.1%이며, 제공률은 17.9%, 15.6%로, 여자 노인이 가족 내에서 돌봄의 중심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동거 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높아지고, 제공하는 비율은 낮아진다. 90세 이상에서 도구적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은 58.9%이나 65~69세는 26.6% 수준으로, 고령의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나, 본인이 도움을 제공할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도 13~14% 정도의 노인은 자녀에게 가사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유념이 필요하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42.1%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30.8%)에 비해 더 높다.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떨어져 사는 자녀에게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제공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독거가구에서 도구적 지원 수혜율이 42.1%로 가장 높고, 제공률이 15.3%로 가장 낮다는 점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독거노인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줄 배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부재하므로, 떨어져 사는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비동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도구적 지원율이 높다는 결과는 자녀들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의 양과 범위가 더 넓어짐을 나타낸다. 반면 제공률은 대체로 자녀 수가 적을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적은 수의 자녀에게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양상이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자녀로부터 도구적 도움을 받는 비율이 더 높다. 무학 노인은 43.1%가 떨어져 사는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받는 반

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22.0% 수준이다. 반면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교육수준 간에 큰 차이가 없다.

기능제한을 경험하는 노인 중 48.3%는 비동거 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제공받아 제한이 없는 노인(32.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기능 제한이 노인의 일상생활의 도움 필요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도구적 지원 제공률은 17.7%로 제한이 있는 노인(13.6%)에 비해 더 높다.

<표 6-9> 비동거 자녀와의 도구적 지원 교환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전체 ¹⁾	6.8	2.9	28.3	14.0	37.3	44.1	27.5	39.0	100.0 (9,265)
지역									
동부	7.3	2.9	28.1	15.5	37.5	44.1	27.1	37.5	100.0 (6,777)
읍·면부	5.6	3.0	28.8	9.8	36.8	44.1	28.8	43.1	100.0 (2,488)
성									
남자	6.2	2.5	25.9	13.1	38.7	44.1	29.2	40.4	100.0 (4,066)
여자	7.3	3.2	30.2	14.7	36.2	44.1	26.2	37.9	100.0 (5,199)
연령									
65~69세	5.0	3.1	21.6	16.2	41.7	46.0	31.8	34.8	100.0 (3,111)
70~74세	5.4	2.9	27.1	13.9	39.4	45.6	28.1	37.6	100.0 (2,194)
75~79세	7.2	2.5	32.1	14.2	35.3	43.8	25.4	39.4	100.0 (1,625)
80~84세	8.8	2.5	33.9	11.2	33.9	39.7	23.4	46.5	100.0 (1,326)
85~89세	13.2	4.1	35.1	10.3	27.6	40.0	24.1	45.6	100.0 (776)
90세 이상	10.6	1.2	48.3	12.0	25.4	45.6	15.6	41.2	100.0 (23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8	2.9	25.0	14.1	40.3	45.3	28.9	37.7	100.0 (5,711)
배우자 없음	8.5	2.9	33.6	13.8	32.5	42.3	25.4	41.1	100.0 (3,554)
가구형태									
노인독거	8.5	2.8	33.6	12.5	33.0	43.3	25.0	41.4	100.0 (2,960)
노인부부	5.9	3.0	25.1	13.7	40.3	45.7	28.7	37.6	100.0 (5,336)
자녀동거	8.0	2.7	31.2	20.9	32.9	37.2	27.8	39.2	100.0 (824)
기타	2.4	2.6	19.9	16.2	40.9	39.6	36.7	41.6	100.0 (145)
교육수준									
무학	10.6	2.0	32.5	7.6	29.9	37.5	27.0	52.9	100.0 (1,167)
초등학교	8.3	3.6	33.3	15.1	34.1	43.9	24.3	37.4	100.0 (2,638)
중학교	6.1	2.9	27.9	14.5	39.0	46.2	26.9	36.4	100.0 (1,965)
고등학교	5.0	2.7	24.6	15.4	42.0	46.6	28.4	35.3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4.3	2.5	17.7	13.2	37.7	39.7	40.3	44.6	100.0 (637)
현 취업상태									
취업중	5.5	2.7	24.4	14.5	40.4	44.9	29.7	37.8	100.0 (3,637)
미취업	7.7	3.0	30.8	13.6	35.3	43.6	26.2	39.8	100.0 (5,62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5	1.9	31.2	12.0	34.1	42.1	26.2	44.0	100.0 (1,814)
제2오분위	7.7	2.3	31.3	10.9	35.7	45.3	25.4	41.6	100.0 (1,855)
제3오분위	6.4	2.8	27.5	13.6	37.6	43.3	28.4	40.3	100.0 (1,929)
제4오분위	5.9	3.9	28.5	17.1	36.9	44.0	28.8	35.0	100.0 (1,889)
제5오분위	5.8	3.6	22.9	16.4	42.4	45.9	28.9	34.1	100.0 (1,77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9	2.2	31.1	12.1	35.1	43.4	25.9	42.3	100.0 (3,462)
50%이상~100%미만	6.8	3.1	27.9	13.4	37.4	43.6	27.9	40.0	100.0 (2,655)
100%이상~150%미만	5.9	3.4	28.2	16.8	35.0	42.1	31.0	37.7	100.0 (1,527)
150%이상	5.5	3.6	23.3	16.3	44.0	48.6	27.2	31.5	100.0 (1,621)
기능상태									
제한 있음	11.0	3.4	37.3	10.2	31.6	43.2	20.1	43.2	100.0 (1,762)
제한 없음	5.9	2.8	26.2	14.9	38.6	44.3	29.3	38.0	100.0 (7,503)
비동거 자녀 수									
1명	4.5	1.9	22.1	15.6	41.3	43.1	32.1	39.4	100.0 (1,161)
2명	5.4	2.8	25.3	15.4	40.5	46.4	28.8	35.4	100.0 (3,856)
3명	7.2	3.3	30.9	13.8	35.9	43.8	26.0	39.2	100.0 (2,449)
4명	10.7	3.1	33.7	10.3	29.8	40.8	25.8	45.9	100.0 (1,080)
5명 이상	11.3	3.6	37.4	9.9	29.9	39.8	21.4	46.6	100.0 (719)
2020년도 ²⁾	7.9	3.8	25.1	15.8	29.1	31.2	37.9	49.1	100.0 (9,463)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265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비동거 자녀와의 돌봄 지원에 대한 일반특성별 분석 결과이다. 제공률에 있어서만 지역 간 차이가 발견되며 동부 거주 노인이 13.3%로 읍·면부 거주 노인(10.0%)에 비해 약간 높다. 앞서 도구적 지원 경향과 마찬가지로 자녀와의 물리적 접근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이 돌봄 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비율 모두 높다. 비동거 자녀에게 돌봄 지원을 받는 비율이 여자 노인은 37.3%인 반면 남자 노인은 29.6%이며, 제공률은 13.1%, 11.5%이다. 여자 노인이 가족 내에서 돌봄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할 뿐 아니라 본인 역시도 돌봄 필요시 자녀로부터 더 많이 지원을 받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동거 자녀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며, 제공률은 대체로 감소한다. 65~69세 연령군은 24.8%가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으며, 90세 이상은 58.9%로 약 1/2의 노인이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 연령 증가에 따라 돌봄 지원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자녀에게 더 많은 돌봄을 받고 있다(39.6%). 배우자 부재로 인해 자녀에게 돌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차이로 볼 수 있다. 반면 자녀에 대한 제공률은 배우자 유무에 따른 큰 차이가 없다. 가구유형별로는 독거가구에서 39.1%가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고, 다음은 자녀 동거가구의 비율이 38.5%로 높다. 제공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자녀 동거가구에서의 응답이 15.0%로 높은 편이다. 비동거 자녀 수에 있어서는 앞선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돌봄을 받는 비율이 높다. 제공률은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제공률에 있어서는 자녀의 수보다 돌봄 필요성과 관련한 자녀의 개별적 특성이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돌봄을 받는 비율이 더 높다. 무학 노인은 이 비율이 46.2%로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21.7%)에 비해 월등히 높다. 무학 노인이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노인보다 고령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돌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상되는 결과이다. 제공률에 있어서는 무학 노인의 제공률이 7.0%로 가장 낮긴 하나 교육수준별 차이는 명확하지 않다.

미취업 노인인 경우(37.6%),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비동거 자녀로부터 더 많은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 분위에 따라 제1오분위(가장 낮은 소득)에 속한 노인의 37.5%가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는 반면, 제5오분위(가장 높은 소득)의 노인은 28.6%

만이 돌봄을 받는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이 자녀에게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돌봄 제공률에 있어서는 취업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른 명확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는 비율은 49.3%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30.3%)에 비해 현저히 높다.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돌봄 제공률은 12.7%로, 이 또한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1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표 6-10> 비동거 자녀와의 돌봄 지원 교환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전체 ¹⁾	6.7	1.7	27.2	10.7	33.1	42.5	33.0	45.1	100.0 (9,265)
지역									
동부	6.7	1.4	27.2	11.9	32.5	42.5	33.5	44.3	100.0 (6,777)
읍·면부	6.6	2.7	27.3	7.3	34.7	42.5	31.4	47.5	100.0 (2,488)
성									
남자	5.4	1.5	24.2	10.0	34.4	42.4	36.0	46.1	100.0 (4,066)
여자	7.7	1.9	29.6	11.2	32.1	42.6	30.6	44.3	100.0 (5,199)
연령									
65~69세	3.9	1.5	20.9	11.4	37.4	45.0	37.8	42.1	100.0 (3,111)
70~74세	4.8	1.9	25.6	11.6	35.2	42.6	34.3	44.0	100.0 (2,194)
75~79세	7.4	1.3	30.0	11.2	31.3	42.8	31.2	44.8	100.0 (1,625)
80~84세	9.6	1.8	32.2	8.7	29.0	37.6	29.2	52.0	100.0 (1,326)
85~89세	13.9	3.1	38.0	8.6	23.5	38.9	24.6	49.4	100.0 (776)
90세 이상	14.4	2.3	44.5	6.6	24.0	47.0	17.1	44.2	100.0 (23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2	1.7	25.2	10.7	34.8	43.2	34.9	44.4	100.0 (5,711)
배우자 없음	9.0	1.7	30.6	10.5	30.5	41.4	29.9	46.3	100.0 (3,554)
가구형태									
노인독거	9.1	1.8	30.0	10.1	30.8	41.4	30.1	46.7	100.0 (2,960)
노인부부	5.2	1.8	25.3	10.4	34.7	43.4	34.8	44.3	100.0 (5,336)
자녀동거	8.0	1.2	30.5	13.8	31.3	40.9	30.1	44.1	100.0 (824)
기타	2.4	1.7	22.3	11.6	33.7	38.1	41.6	48.7	100.0 (145)
교육수준									
무학	10.7	1.8	35.5	5.2	26.6	38.2	27.1	54.9	100.0 (1,167)
초등학교	8.7	2.4	31.4	11.9	29.9	41.2	30.1	44.4	100.0 (2,638)
중학교	6.2	1.7	26.9	11.1	33.9	43.6	33.1	43.6	100.0 (1,965)
고등학교	4.2	1.1	22.3	11.8	37.9	45.5	35.6	41.7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3.6	1.8	18.1	9.2	34.9	39.0	43.5	50.1	100.0 (637)
현 취업상태									
취업중	5.1	1.6	23.1	10.9	36.2	43.2	35.6	44.2	100.0 (3,637)
미취업	7.7	1.8	29.9	10.5	31.1	42.0	31.2	45.7	100.0 (5,628)
연가소득									
제1오분위	8.8	1.2	28.7	9.6	31.1	40.5	31.4	48.7	100.0 (1,814)
제2오분위	6.6	1.2	30.7	8.7	30.7	42.3	32.1	47.7	100.0 (1,855)
제3오분위	5.8	1.9	27.9	10.0	32.4	41.1	33.9	47.0	100.0 (1,929)
제4오분위	6.6	2.5	25.9	13.1	32.7	41.9	34.9	42.5	100.0 (1,889)
제5오분위	5.6	1.8	23.0	11.9	39.0	46.9	32.4	39.4	100.0 (1,77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4	1.4	29.3	9.5	31.2	40.9	32.0	48.2	100.0 (3,462)
50%이상~100%미만	6.7	1.8	28.7	10.8	31.2	41.8	33.4	45.6	100.0 (2,655)
100%이상~150%미만	5.5	2.2	25.2	11.8	32.8	40.8	36.4	45.2	100.0 (1,527)
150%이상	6.2	1.9	22.4	11.9	40.6	48.5	30.9	37.6	100.0 (1,621)
기능상태									
제한 있음	11.8	2.1	37.5	8.7	28.4	42.3	22.3	46.9	100.0 (1,762)
제한 없음	5.5	1.6	24.8	11.1	34.2	42.5	35.5	44.7	100.0 (7,503)
비동거 자녀 수									
1명	4.5	1.0	21.2	10.8	37.7	42.5	36.6	45.7	100.0 (1,161)
2명	4.6	1.4	24.6	11.7	36.3	44.9	34.5	42.0	100.0 (3,856)
3명	7.7	1.9	28.8	10.7	31.1	41.7	32.4	45.7	100.0 (2,449)
4명	10.1	3.1	32.6	8.5	27.0	38.4	30.3	50.0	100.0 (1,080)
5명 이상	12.6	2.1	37.8	8.0	24.8	38.4	24.7	51.5	100.0 (719)
2020년도 ²⁾	8.2	1.5	23.1	7.9	24.6	34.8	44.1	55.9	100.0 (9,463)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265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 노인은 떨어져 사는 자녀로부터 비슷한 비율로 현금 및 현물 지원을 받고 있으며(68.2%, 68.3%), 제공률은 현금 지원이 26.9%, 현물 지원이 36.3%로 나타나 현물 지원의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동거 자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자녀로부터의 수혜가 중심이 되며, 그 수준은 동거 자녀에 비해 낮다.

일반특성별 경제적 지원 교환 실태를 살펴보면, 지원 항목과 관계없이 읍·면부 거주 노인들의 수혜율이 더 높다(74.6%, 72.1%). 제공률 측면에서는 현금 지원의 경우 동부 거주 노인이 더 높게 나타나며(27.2%), 현물 지원에서는 읍·면부 거주 노인이 47.2%로 더 높게 제시되어 거주 지역에 따른 경제적 지원 양상 차이를 알 수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은 수혜율이 더 높은 반면, 남자 노인은 제공률이 더 높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다. 65~69세 연령군에서 현금 지원 수혜율이 57.8%, 현물 지원 수혜율이 60.2%인 반면 90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83.6%, 79.1%로 크게 증가한다. 고령 노인일수록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해 자녀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제공률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다. 65~69세 연령군의 현금 및 현물 제공률은 각각 33.2%, 41.8%로 비교적 낮은 연령대에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다. 90세 이상은 현금 및 현물 지원 제공률이 각각 18.3%에 그친다.

배우자 유무와 가구 형태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수혜 및 제공 경향성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무배우 노인의 현금 지원 수혜율이 71.2%, 현물 지원 수혜율이 69.4%로, 유배우 노인보다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다. 반면 경제적 지원의 제공률은 유배우 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며, 현금 지원은 30.3%, 현물 지원은 40.9%에 이른다.

가구 형태별로는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에서 현금 지원 수혜율이 74.5%, 현물 지원 수혜율이 71.1%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독거가구의 경우, 현금 지원 수혜율은 70.0%, 현물 지원 수혜율은 69.1%로 높은 편이나, 제공률은 가장 낮다. 이는 독거노인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과 여력이 더 적다는 것을 뜻한다. 비동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지원의 수혜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제공률에 있어서는 자녀의 수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작다.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다양해지지만, 개별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양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수준과 취업 여부에 따른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양상 역시 명확한 차이가 있다.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다. 무학 노인의 경우 현금 지원 수혜율이 82.8%, 현물 지원 수혜율이 76.9%에 달하는 반면,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노인의 경우 이 비율은 각각 51.6%, 59.6%로 상대적으로 낮다.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경제적 취약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더 필수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공률의 경우,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취업 여부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양상도 비슷하다. 취업하지 않은 노인은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으며, 이는 미취업 노인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할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취업 노인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혜율이 높고, 제공률이 낮다. 현금 수혜율에 있어서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은 18.2%가 자녀에게 제공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제5오분위에 속한 노인은 이 비율이 40.5%에 이른다.

기능제한 여부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는 경우, 수혜율이 더 높다(현금 74.8%, 현물 70.8%). 기능제한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더 많이 직면하므로, 그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자녀에게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현금 29.5%, 현물 39.4%)이 기능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에 비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표 6-11> 비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지원 교환

(단위: %, 명)

특성	수혜		제공		(명)
	정기/비정기 지원	현금 현물 지원	정기/비정기 지원	현금 현물 지원	
전체 ¹⁾	68.2	68.3	26.9	36.3	(9,265)
지역					
동부	65.9	66.9	27.2	32.3	(6,777)
읍·면부	74.6	72.1	25.8	47.2	(2,488)
성					
남자	62.9	64.3	28.9	37.1	(4,066)
여자	72.5	71.4	25.2	35.7	(5,199)
연령					
65~69세	57.8	60.2	33.2	41.8	(3,111)
70~74세	65.8	67.3	28.2	38.7	(2,194)
75~79세	72.8	70.9	25.1	34.9	(1,625)
80~84세	80.8	78.6	20.4	30.6	(1,326)
85~89세	81.3	77.1	14.8	25.3	(776)
90세 이상	83.6	79.1	18.3	18.3	(23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6.4	67.6	30.3	40.9	(5,711)
배우자 없음	71.2	69.4	21.3	28.9	(3,554)
가구형태					
노인독거	70.0	69.1	21.4	29.2	(2,960)
노인부부	66.5	67.8	30.1	40.7	(5,336)
자녀동거	74.5	71.1	25.8	32.6	(824)
기타	60.1	55.0	23.4	39.5	(145)
교육수준					
무학	82.8	76.9	15.0	29.2	(1,167)
초등학교	76.3	72.5	24.1	35.5	(2,638)
중학교	67.7	68.7	26.3	35.8	(1,965)
고등학교	58.9	62.5	31.2	38.1	(2,857)
전문대학 이상	51.6	59.6	42.1	46.3	(637)
현 취업상태					
취업중	63.2	63.7	32.7	46.4	(3,637)
미취업	71.5	71.3	23.1	29.8	(5,628)
연가소득					
제1오분위	71.8	70.7	18.2	26.5	(1,814)
제2오분위	79.3	74.2	19.2	29.8	(1,855)
제3오분위	70.5	69.0	24.6	36.8	(1,929)
제4오분위	63.1	66.0	32.1	42.1	(1,889)
제5오분위	56.2	61.3	40.5	46.4	(1,77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5.0	71.6	19.0	28.7	(3,462)
50%이상~100%미만	72.7	71.7	25.7	37.6	(2,655)
100%이상~150%미만	60.1	63.0	30.8	40.1	(1,527)
150%이상	54.3	60.6	41.8	46.8	(1,621)
가능상태					
제한 있음	74.8	70.8	15.4	23.1	(1,762)
제한 없음	66.7	67.7	29.5	39.4	(7,503)
비동거 자녀 수					
1명	52.9	56.9	28.9	35.4	(1,161)
2명	61.9	64.6	30.0	37.3	(3,856)
3명	74.0	71.4	27.3	37.1	(2,449)
4명	81.7	78.6	20.1	35.4	(1,080)
5명 이상	87.1	80.7	15.0	30.8	(719)
2020년도 ^{2) 3)}	—	77.9	—	42.4	(9,463)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265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3) 2020년에는 경제적 지원 교환을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조사하였으나, 2023년에는 2점 척도(1=예, 2=아니요)로 조사함. 또한, 2020년에는 현금 지원을 정기적 현금 지원과 비정기적 현금 지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2023년에는 통합하여 조사함.

제4절 노인의 부모와의 지원 교환 실태

노인의 부모와의 정서적, 도구적, 돌봄 지원 실태는 다음과 같다. 노인이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44.1%이며, 제공하는 비율은 66.5%이다. 도구적 지원은 15.4%가 받으며, 43.7%가 제공한다. 돌봄 지원은 8.5%가 받고, 33.9%가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부모와의 부양 교환에 있어서는 대체로 노인이 그들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 교환이 이루어진다. 제공률은 정서적 지원, 돌봄 지원, 도구적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부모로부터는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돌봄 지원 순으로 수혜율이 높다.

부모와의 정서적 지원 수혜에 관한 일반특성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 노인이 수혜율 및 제공률에 있어서 모두 높다. 동부 거주 노인의 정서적 지원 수혜율은 45.1%이며 제공률은 67.8%로, 읍·면부 거주 노인(41.2%, 62.5%)과 비교하여 더 활발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이 그들의 부모와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정서적 지원 수혜율은 45.8%, 제공률은 70.6%로 남자 노인(42.9%, 63.4%)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여자 노인이 가족 내에서 정서적 연결고리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

연령군별¹⁶⁾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 80세 이상 노인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뿐 아니라 제공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44.6%, 68.8%). 배우자의 존재가 가족 내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유형별로는 수혜율은 부부가구(44.6%)에서, 제공률은 자녀 동거가구(68.9%)에서 가장 높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큰 차이 없이, 노인이 부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은 대체로 40% 내외로 일관되며, 부모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의 비율도 60%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다. 취업상태에 따라, 취업 중인 노인이 부모에게 더 많은 정서적 지

15) 2017년 조사 결과에서 돌봄 수혜율은 4.0%, 2020년에는 0.0%, 2023년에는 8.5%로 대체로 10% 미만 이긴 하나 연도별 등락이 존재함.

16) 85세 이상에서 생존 부모가 있는 사례수 부재

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9.8%).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다만 제공률에 있어서는 명확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데, 노인이 부모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가 경제적 상황에 크게 의존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기능제한 여부에 따라서는 제한을 경험하지 않는 노인(46.5%)이 제한이 있는 노인(22.2%)보다 부모로부터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제공률은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이 67.3%로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58.6%)에 비해 높다.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이 가족 내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향성이 노인과 그들의 부모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표 6-12> 부모와의 정서적 지원 교환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전체 ¹⁾	9.9	13.9	34.2	52.6	29.0	17.4	26.8	16.2	100.0 (382)
지역									
동부	9.5	11.1	35.6	56.7	26.3	14.1	28.5	18.2	100.0 (285)
읍·면부	11.0	22.1	30.2	40.4	37.0	27.2	21.8	10.3	100.0 (96)
성									
남자	8.6	13.3	34.3	50.1	29.8	18.7	27.3	17.9	100.0 (219)
여자	11.7	14.7	34.1	55.9	27.9	15.7	26.2	13.8	100.0 (163)
연령									
65~69세	10.5	13.9	32.2	51.3	31.1	20.0	26.2	14.8	100.0 (284)
70~74세	9.0	17.1	33.8	53.8	24.1	10.1	33.2	19.0	100.0 (70)
75~79세	0.0	10.2	49.7	59.3	36.6	16.9	13.7	13.7	100.0 (15)
80~84세	14.1	0.0	66.5	66.5	0.0	0.0	19.3	33.5	100.0 (12)
85~89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90세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5	12.5	35.1	56.3	26.1	13.5	29.3	17.7	100.0 (286)
배우자 없음	11.2	18.1	31.7	41.3	37.7	29.0	19.4	11.6	100.0 (95)
가구형태									
노인독거	14.5	21.2	24.7	40.0	30.1	22.0	30.6	16.8	100.0 (45)
노인부부	9.8	11.4	34.8	55.8	24.4	13.2	31.0	19.6	100.0 (208)
자녀동거	19.1	19.4	18.4	49.5	36.5	17.5	26.0	13.6	100.0 (39)
기타	4.0	13.6	44.5	52.7	35.9	24.8	15.6	8.9	100.0 (90)
교육수준									
무학 ²⁾	0.0	0.0	27.1	27.1	0.0	0.0	72.9	72.9	100.0 (2)
초등학교	6.9	17.8	41.2	48.9	26.7	13.4	25.2	19.9	100.0 (55)
중학교	11.2	8.8	32.7	56.6	28.5	18.0	27.6	16.6	100.0 (88)
고등학교	11.1	15.7	34.4	48.4	27.8	21.6	26.7	14.2	100.0 (183)
전문대학 이상	7.2	12.4	29.5	64.9	37.2	6.7	26.0	16.0	100.0 (53)
현 취업상태									
취업중	8.1	16.3	35.5	53.5	31.0	18.9	25.5	11.2	100.0 (204)
미취업	12.0	11.0	32.8	51.4	26.8	15.7	28.4	21.8	100.0 (17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8.9	29.0	34.3	31.8	20.3	16.5	26.6	22.6	100.0 (52)
제2오분위	5.5	11.4	49.8	65.3	22.0	7.6	22.6	15.8	100.0 (37)
제3오분위	11.3	10.4	32.2	62.0	26.0	10.2	30.5	17.4	100.0 (67)
제4오분위	7.7	12.0	29.0	48.8	34.4	19.3	28.9	19.9	100.0 (107)
제5오분위	8.6	11.8	35.3	55.7	31.8	23.1	24.3	9.4	100.0 (12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8	20.7	40.0	48.0	22.6	11.5	24.7	19.8	100.0 (92)
50%이상~100%미만	9.8	9.5	28.3	54.3	30.7	16.2	31.2	20.0	100.0 (120)
100%이상~150%미만	5.9	11.2	42.2	51.3	26.2	22.1	25.7	15.4	100.0 (85)
150%이상	11.1	15.3	28.4	56.4	36.5	20.7	24.1	7.5	100.0 (84)
기능상태									
제한 있음	10.0	7.4	12.2	51.2	41.0	8.8	36.8	32.6	100.0 (36)
제한 없음	9.9	14.6	36.6	52.7	27.8	18.3	25.8	14.4	100.0 (345)
2020년도 ²⁾	1.4	7.6	21.2	30.2	42.3	33.2	35.0	29.0	100.0 (519)

주: 1) 전체응답자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382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일반특성별 부모와의 도구적 지원 경향은 다음과 같다. 도구적 지원 수혜 측면에서 지역별 차이는 읍·면부 거주 노인이 25.0%로 동부 거주 노인 12.2%에 비해 높다. 제공률에 있어서도 읍·면부 거주 노인이 50.3%로 동부 거주 노인(41.4%)과 비교하여 활발한 수준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의 수혜율이 17.6%로 여자 노인(12.7%)보다 높고 제공률은 반대로 여자 노인이 48.6%로 남자 노인(40.0%)에 비해 높다. 성별에 따른 역할과 기대가 노인과 그들의 부모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작용하는 측면이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도구적 지원의 수혜율은 증가하는 양상이며, 제공률은 대체로 50% 내외로 일관된다(65~69세 제외). 사례수가 적긴 하나, 75세 이상 노인이 그들의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20~30% 수준에 이른다는 점은, 고령-초고령 노인 간 지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뜻한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은 25.7%로, 유배우 노인(12.1%)의 2배 수준이다. 배우자의 부재가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부모에 대한 제공률이 45.0%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39.7%)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가구유형에 있어서는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에서 수혜율 및 제공률이 모두 높게 나타나지만, 가구유형에 따른 명확한 경향성을 찾기는 어렵다. 가족 구성 및 생활방식의 다양성이 도구적 지원 교환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로부터 제공받는 도구적 지원 수혜율이 낮다. 전문대학 이상 노인의 수혜율은 16.1%인 반면 무학 노인은 27.1%이다.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고령일 가능성으로 짐작되나, 도구적 지원 수혜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는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기대 또는 그들의 부모와의 상호 의존성, 기타 자원의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의 수혜율 및 제공률이 근소하게 높으며, 소득수준의 경우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22.8%가 부모로부터 세탁, 청소 등의 가사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14.8%)에 비해 높다. 제공률의 차이는 크지 않다.

<표 6-13> 부모와의 도구적 지원 교환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전체 ¹⁾	5.6	9.7	9.8	34.0	40.9	29.8	43.6	26.6	100.0 (382)
지역									
동부	5.2	7.9	7.0	33.5	40.4	29.3	47.4	29.3	100.0 (285)
읍·면부	6.8	14.9	18.2	35.4	42.5	31.3	32.5	18.4	100.0 (96)
성									
남자	7.6	7.1	10.0	32.9	37.4	30.7	45.1	29.3	100.0 (219)
여자	3.0	13.1	9.7	35.5	45.7	28.5	41.6	22.9	100.0 (163)
연령									
65~69세	6.4	9.2	6.8	30.6	42.0	32.0	44.8	28.2	100.0 (284)
70~74세	4.9	14.4	15.6	41.4	35.6	19.1	44.0	25.1	100.0 (70)
75~79세	0.0	4.0	23.5	50.8	39.8	27.8	36.6	17.4	100.0 (15)
80~84세	0.0	0.0	30.3	50.3	46.9	42.5	22.8	7.2	100.0 (12)
85~89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90세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0	10.2	7.1	34.8	40.7	27.0	47.3	28.1	100.0 (286)
배우자 없음	7.5	8.2	18.2	31.5	41.7	38.3	32.6	22.0	100.0 (95)
가구형태									
노인독거	9.2	10.2	13.0	27.9	32.8	24.4	45.1	37.5	100.0 (45)
노인부부	4.2	7.1	5.5	30.8	42.3	30.9	47.9	31.2	100.0 (208)
자녀동거	9.6	11.8	16.0	39.5	35.6	30.4	38.8	18.3	100.0 (39)
기타	5.4	14.4	15.6	42.0	44.0	29.6	35.0	14.0	100.0 (90)
교육수준									
무학 ²⁾	0.0	32.4	27.1	0.0	0.0	27.1	72.9	40.6	100.0 (2)
초등학교	1.7	7.5	19.5	47.0	47.8	17.0	31.0	28.5	100.0 (55)
중학교	7.4	6.7	11.5	43.5	36.3	24.9	44.9	24.9	100.0 (88)
고등학교	5.5	11.1	6.4	26.7	39.0	34.2	49.2	27.9	100.0 (183)
전문대학 이상	7.6	10.9	8.5	31.1	49.8	35.8	34.2	22.2	100.0 (53)
현 취업상태									
취업중	4.5	11.6	10.5	30.4	40.1	32.8	44.9	25.2	100.0 (204)
미취업	6.9	7.5	9.1	38.2	41.9	26.3	42.1	28.1	100.0 (17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8	15.5	15.8	36.4	39.1	23.6	43.2	24.5	100.0 (52)
제2오분위	0.0	19.4	22.0	46.1	42.6	14.7	35.3	19.7	100.0 (37)
제3오분위	10.3	4.7	1.1	47.1	39.9	21.4	48.8	26.7	100.0 (67)
제4오분위	6.5	10.7	7.6	26.6	44.5	32.5	41.4	30.2	100.0 (107)
제5오분위	5.6	6.0	10.5	28.5	38.5	39.3	45.4	26.2	100.0 (12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0	17.1	18.4	42.2	42.1	19.1	38.5	21.6	100.0 (92)
50%이상~100%미만	7.7	9.0	3.8	37.9	42.4	24.8	46.0	28.3	100.0 (120)
100%이상~150%미만	8.6	5.2	10.0	25.2	30.9	35.7	50.5	34.0	100.0 (85)
150%이상	4.7	7.0	9.0	28.3	47.6	42.7	38.8	22.0	100.0 (84)
기능상태									
제한 있음	11.2	2.2	11.6	42.0	43.3	33.9	34.0	21.9	100.0 (36)
제한 없음	5.1	10.5	9.7	33.2	40.7	29.4	44.6	27.0	100.0 (345)
2020년도 ²⁾	1.9	9.1	9.8	20.2	25.4	32.9	62.9	37.8	100.0 (519)

주: 1) 전체응답자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382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일반특성별 부모와의 돌봄 지원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차이는 수혜율은 크지 않으나, 제공률에 있어서는 읍·면부 거주 노인이 43.1%로 동부 거주 노인(30.8%)에 비해 높다. 지역 간 차이를 비롯해 기존에 가족들이 지니고 있던 지원의 양상이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성별 수혜율 차이는 미미하나, 제공률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이 35.3%로 여자 노인(32.0%)에 비해 더 많이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돌봄을 받은 비율이 높다. 65~69세는 돌봄의 필요성이 아직 크지 않은 연령대라는 점에서 5.4%로 가장 낮다. 80~84세에서는 이 비율이 33.6%로 높은 편이나, 사례수가 적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공률에 있어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찾기 어렵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무배우 노인이 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14.1%)뿐 아니라 제공하는 비율(39.2%) 역시 유배우 노인에 비해 높다. 가구유형에 있어서는 수혜율은 독거가구에서 18.4%로 가장 높고, 제공률에 있어서는 자녀 동거가구에서 52.5%로 가장 높다. 독거노인이 부모로부터 더 많은 돌봄을 받는 것은 개인의 돌봄 필요성이 더 크거나 외부의 지원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의 수혜율이 3.9%로 가장 낮다. 교육수준에 따라 각자가 보유한 자원의 다양성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요인이 돌봄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취업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취업 노인의 수혜율이 11.5%로 취업 노인(5.7%)에 비해 높다. 취업 중인 노인은 경제적 자립성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성이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혜율에 있어서는 이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혜율 및 제공률이 모두 높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가족 내 지원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능상태 제한 여부에 있어서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그들의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았다는 비율이 19.0%로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7.3%)에 비해 더 높다. 제공률에 있어서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가 47.7%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32.4%)에 비해 더 높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표 6-14> 부모와의 돌봄 지원 교환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전체 ¹⁾	1.6	6.3	6.9	27.6	31.6	30.5	60.0	35.7	100.0 (382)
지역									
동부	1.5	4.0	7.2	26.8	27.1	29.5	64.2	39.7	100.0 (285)
읍·면부	1.9	12.9	5.7	30.2	45.0	33.4	47.4	23.5	100.0 (96)
성									
남자	2.1	4.7	6.7	30.6	31.3	29.9	59.9	34.8	100.0 (219)
여자	0.9	8.4	7.1	23.6	32.0	31.2	60.0	36.8	100.0 (163)
연령									
65~69세	1.5	6.6	3.9	24.5	33.1	31.1	61.5	37.7	100.0 (284)
70~74세	0.0	6.3	14.3	40.7	27.0	22.6	58.7	30.4	100.0 (70)
75~79세	0.0	4.0	17.3	22.0	39.6	50.6	43.1	23.4	100.0 (15)
80~84세	14.1	0.0	19.5	30.7	14.5	36.4	51.8	32.9	100.0 (12)
85~89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90세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5	6.1	6.0	26.0	26.7	26.6	66.7	41.2	100.0 (286)
배우자 없음	4.7	6.8	9.4	32.4	46.3	42.0	39.5	18.8	100.0 (95)
가구형태									
노인독거	6.2	7.2	12.2	31.1	35.0	31.8	46.6	30.0	100.0 (45)
노인부부	0.3	1.8	5.3	21.0	27.0	31.5	67.5	45.7	100.0 (208)
자녀동거	4.5	10.6	11.5	41.9	35.6	21.1	48.3	26.3	100.0 (39)
기타	1.0	14.3	5.8	35.0	38.8	31.4	54.3	19.3	100.0 (90)
교육수준									
무학 ²⁾	0.0	32.4	0.0	0.0	0.0	0.0	100.0	67.6	100.0 (2)
초등학교	0.0	2.7	17.2	38.6	27.8	20.7	55.0	38.0	100.0 (55)
중학교	1.1	1.5	9.4	32.0	26.2	31.6	63.3	34.9	100.0 (88)
고등학교	2.2	8.3	4.0	21.7	32.5	33.2	61.2	36.8	100.0 (183)
전문대학 이상	1.8	10.0	2.1	30.3	42.7	30.4	53.5	29.4	100.0 (53)
현 취업상태									
취업중	1.6	8.5	4.1	25.4	33.4	34.4	60.9	31.6	100.0 (204)
미취업	1.5	3.7	10.0	30.2	29.5	25.9	58.9	40.3	100.0 (17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2	13.9	12.2	35.3	29.7	24.3	52.9	26.5	100.0 (52)
제2오분위	0.0	11.5	15.7	35.3	41.6	26.1	42.7	27.0	100.0 (37)
제3오분위	1.4	0.8	7.1	27.1	19.5	24.7	72.0	47.3	100.0 (67)
제4오분위	0.0	6.1	6.9	27.4	37.1	31.2	55.9	35.4	100.0 (107)
제5오분위	2.0	4.6	1.7	22.5	31.2	36.9	65.1	36.0	100.0 (12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9	12.3	13.8	38.6	35.0	23.5	48.2	25.6	100.0 (92)
50%이상~100%미만	0.8	5.4	5.3	26.5	26.0	26.6	67.9	41.6	100.0 (120)
100%이상~150%미만	0.0	1.1	4.7	17.7	27.2	33.9	68.0	47.3	100.0 (85)
150%이상	2.8	6.1	3.6	27.3	40.3	40.2	53.3	26.4	100.0 (84)
가능상태									
제한 있음	4.9	2.2	14.1	45.5	33.9	21.4	47.1	30.9	100.0 (36)
제한 없음	1.2	6.7	6.1	25.7	31.4	31.4	61.3	36.2	100.0 (345)
2020년도 ²⁾	0.0	18.1	0.0	32.0	29.4	16.0	70.6	33.9	100.0 (519)

주: 1) 전체응답자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382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 노인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일부 받고 있으며(16.9%, 18.0%), 제공률은 현금 지원이 48.9%, 현물 지원이 49.8%로 비슷한 규모로 나타난다. 앞선 지원 유형과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제공이 중심이 되며, 노인 중 약 1/2이 부모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특성별 경제적 지원 교환 실태를 살펴보면, 지원 항목과 관계없이 동부 거주 노인의 수혜율이 더 높다. 제공률은 반대로 읍·면부 노인이 현금 지원 62.8%, 현물 지원 52.3%로 동부 거주 노인에 비해 더 높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의 수혜율이 남자 노인에 비해 더 높고, 지원 항목에 있어서는 현금 지원 수혜율이 근소하게 더 높다. 제공률은 비등한 수준이나, 현물 지원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의 제공률이 54.4%로 남자 노인(46.3%)에 비해 더 높다. 성별에 따른 역할 기대 및 지원 제공 방식의 차이가 노인과 그들의 부모 간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80세 이상을 제외 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제적 지원 수혜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 제공률에 있어서는 연령대별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고령일수록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높아지지만, 동시에 다른 세대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상황은 그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 유무와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경제적 지원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배우자의 존재 여부가 노인의 경제적 지원 필요성 및 제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가구유형에 있어서는 자녀 동거가구에서 지원 항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지원 수혜율 및 제공률이 가장 높다.

교육수준과 취업 여부에 따라 부모와의 경제적 지원 양상 역시 차이가 있다.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 노인은 현금 지원 수혜율이 23.3%, 현물 지원 수혜율이 25.4%에 달하는 반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의 경우 이 비율은 각각 10.7%로 상대적으로 낮다. 제공률의 경우, 반대의 경향이다.

취업 여부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양상도 비슷하다. 취업하지 않은 노인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으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률은 더 낮다. 미취업 노인은 본인의 수입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생활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부모에게 제공할 능력이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 지원 제공률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높은 소득수준을 가진 노인은 본인의 재정적 여유를 바탕으로 부모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은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것과 관련된다. 분석 결과,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현금 지원율이 34.6%인 반면 제5분위에 속한 노인은 51.9% 수준이다. 기능제한 여부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제적 지원 수혜율 및 제공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수혜율에 있어서는 기존의 논의들과 결을 달리하고 있어, 기능제한 여부를 뛰어넘어 노인 개개인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나 개인적 다양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15> 부모와의 경제적 지원 교환

(단위: %, 명)

특성	수혜		제공		(명)
	정기/비정기 현금 지원	현물 지원	정기/비정기 현금 지원	현물 지원	
전체 ¹⁾	16.9	18.0	48.9	49.8	(382)
지역					
동부	17.2	18.3	44.2	48.9	(285)
읍·면부	16.1	16.8	62.8	52.3	(96)
성					
남자	12.3	14.8	48.8	46.3	(219)
여자	23.1	22.3	48.9	54.4	(163)
연령					
65~69세	14.5	15.6	49.8	51.5	(284)
70~74세	24.2	25.1	53.8	50.5	(70)
75~79세	32.2	32.2	32.3	41.1	(15)
80~84세	14.1	14.1	18.9	15.6	(12)
85~89세	0.0	0.0	0.0	0.0	(0)
90세 이상	0.0	0.0	0.0	0.0	(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7.7	18.5	48.7	50.5	(286)
배우자 없음	14.4	16.4	49.3	47.5	(95)
가구형태					
노인독거	19.4	19.0	52.7	45.0	(45)
노인부부	18.5	20.0	43.8	45.7	(208)
자녀동거	24.6	26.9	58.6	62.4	(39)
기타	8.6	8.8	54.3	55.9	(90)
교육수준					
무학 ²⁾	0.0	0.0	32.4	32.4	(2)
초등학교	23.3	25.4	38.6	37.9	(55)
중학교	23.4	22.2	51.7	45.6	(88)
고등학교	13.9	16.0	48.3	53.0	(183)
전문대학 이상	10.7	10.7	57.1	58.3	(53)
현 취업상태					
취업중	12.8	15.2	59.5	60.7	(204)
미취업	21.7	21.2	36.6	37.3	(178)
연가소득					
제1오분위	19.4	18.6	34.6	31.3	(52)
제2오분위	35.1	34.8	42.4	45.8	(37)
제3오분위	21.9	22.8	47.1	43.2	(67)
제4오분위	12.1	12.8	55.6	55.4	(107)
제5오분위	11.8	14.5	51.9	57.5	(12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4.8	25.0	39.5	38.4	(92)
50%이상~100%미만	17.6	18.3	50.4	50.1	(120)
100%이상~150%미만	15.4	14.9	49.7	53.7	(85)
150%이상	8.9	12.9	56.0	57.8	(84)
가능상태					
제한 있음	13.0	13.0	38.8	30.1	(36)
제한 없음	17.3	18.5	49.9	51.8	(345)
2020년도 ^{2) 3)}	—	13.4	—	61.7	(519)

주: 1) 전체응답자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382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3) 2020년에는 경제적 지원 교환을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조사하였으나, 2023년에는 2점 척도(1=예, 2=아니요)로 조사함. 또한, 2020년에는 현금 지원을 정기적 현금 지원과 비정기적 현금 지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2023년에는 통합하여 조사함.

제5절 손자녀 돌봄 실태

노인-손자녀 간의 관계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조사 대상 중 5.2%가 지난 1년간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2.6명의 손자녀를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이 5.7%로 읍·면부 노인의 3.9%에 비해 손자녀 돌봄 비율이 더 높다. 이러한 차이는 자녀와의 지리적 근접성이 손자녀 돌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평균 돌봄 손자녀 수는 읍·면부 거주 노인이 3.3명으로 동부 거주 노인(2.5명)에 비해 많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손자녀 돌봄 비율이 높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7.6%가 이에 해당한 반면, 80~84세 연령군은 2.9% 수준이다. 노인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손자녀와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데 반해, 고령일수록 건강 및 기능상태로 인해 손자녀 돌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단, 평균 돌봄 손자녀 수는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이는 고령일수록 대체로 자녀 수가 많고, 손자녀 수 역시 그에 비례하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유배우 노인의 손자녀 돌봄 비율이 6.0%로 무배우 노인(4.1%)에 비해 높다. 노인 본인 외에도 가사나 육아를 협력할 관계자원이 있는 경우, 손자녀 돌봄 비율 역시 더 높게 나타난다. 가구 유형에 있어서는 자녀 동거가구가 6.6%, 부부가구 5.8% 등의 순이다. 특히 자녀 동거가구의 경우, 노인이 손자녀의 돌봄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자녀와의 동거 이유에 있어 자녀의 가사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응답의 비율이 높았던 점과도 관련되는 결과이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손자녀 돌봄 비율이 높아져,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8.8% 수준이다. 다만 돌본 손자녀의 수는 무학 노인이 4.1명으로 가장 많다. 취업상태에 있어서는 취업 중인 노인의 돌봄 제공률은 4.7%로 미취업 노인(5.6%)에 비해 약간 낮다. 취업에 따라 활용 가능한 시간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해석된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나,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돌봄 제공률이 높다. 기능제한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5.7%가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반면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는 3.3% 수준으로 다소 낮다.

<표 6-16> (지난 1년간) 손자녀 돌봄 여부 및 돌본 손자녀 수

(단위: %, 명)

특성	손자녀 돌봄 비율	돌본 손자녀 수 ¹⁾			돌본 손자녀 수 평균	계 (명)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5.2	30.9	34.9	34.2	2.6	100.0 (527)
지역						
동부	5.7	29.5	39.1	31.4	2.5	100.0 (424)
읍·면부	3.9	36.6	17.7	45.7	3.3	100.0 (102)
성						
남자	5.3	26.0	41.2	32.8	2.6	100.0 (234)
여자	5.2	34.8	30.0	35.2	2.6	100.0 (293)
연령						
65~69세	7.6	35.2	40.9	24.0	2.1	100.0 (265)
70~74세	5.3	33.5	30.7	35.8	2.6	100.0 (125)
75~79세	4.3	19.2	36.0	44.8	3.1	100.0 (76)
80~84세	2.9	32.3	16.0	51.7	3.9	100.0 (41)
85~89세	1.4	0.0	32.2	67.8	3.6	100.0 (11)
90세 이상	3.4	0.0	0.0	100.0	6.9	100.0 (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0	30.8	34.4	34.8	2.6	100.0 (363)
배우자 없음	4.1	31.2	36.1	32.8	2.7	100.0 (164)
가구형태						
노인독거	3.8	28.2	34.5	37.3	2.9	100.0 (125)
노인부부	5.8	30.0	33.1	36.9	2.7	100.0 (324)
자녀동거	6.6	38.6	45.2	16.2	2.0	100.0 (68)
기타	5.3	41.5	30.5	28.0	2.0	100.0 (9)
교육수준						
무학	1.6	29.5	13.5	57.0	4.1	100.0 (20)
초등학교	5.0	23.4	29.5	47.1	3.4	100.0 (143)
중학교	5.3	25.1	40.8	34.1	2.6	100.0 (112)
고등학교	6.0	38.9	37.2	23.9	2.1	100.0 (189)
전문대학 이상	8.8	34.8	37.0	28.2	2.2	100.0 (62)
현 취업상태						
취업중	4.7	31.5	39.5	29.0	2.5	100.0 (183)
미취업	5.6	30.6	32.5	36.9	2.7	100.0 (34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	34.6	27.9	37.5	3.0	100.0 (106)
제2오분위	4.0	16.3	40.1	43.6	3.2	100.0 (80)
제3오분위	4.7	26.1	34.0	39.9	2.6	100.0 (95)
제4오분위	6.0	29.5	38.7	31.8	2.7	100.0 (120)
제5오분위	6.2	42.1	34.7	23.2	2.0	100.0 (12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4	29.3	30.5	40.2	3.1	100.0 (168)
50%이상~100%미만	5.7	27.0	34.1	38.9	2.5	100.0 (159)
100%이상~150%미만	6.4	34.8	40.1	25.0	2.5	100.0 (107)
150%이상	5.1	35.9	38.5	25.6	2.2	100.0 (93)
기능상태						
제한 있음	3.3	31.3	32.6	36.1	2.9	100.0 (61)
제한 없음	5.7	30.9	35.3	33.9	2.6	100.0 (466)
2020년도 ²⁾	9.0	35.4	35.4	29.2	2.3	100.0 (911)

주: 1) 전체응답자 10,078명 중 지난 1년간 손자녀를 돌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본인응답자 중 돌보는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91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일주일간 손자녀를 돌본 경험에 있는지와 돌봄 특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파악하였다.

우선 지난 일주일간 손자녀를 돌본 비율은 24.8%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비동거 손자녀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였다(79.4%). 이들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4.1일, 하루 평균 약 3.9시간을 손자녀 돌봄에 할애하였다.

지난 일주일간 손자녀를 돌본 사례수가 적다는 점에서, 일반특성별로는 주요한 차이를 중심으로만 파악하였다. 우선 지난 일주일간 손자녀를 돌본 비율은 동부 거주 노인이 26.0%로 읍·면부 거주 노인(19.8%)에 비해 더 많다. 성별로는 여자 노인이 지난 일주일간 손자녀를 돌본 비율이 28.6%로 남자 노인(20.0%)에 비해 많고,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다. 65~69세에서 이 비율은 32.6%로 가장 높다. 앞서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노인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손자녀와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손자녀를 돌본 비율이 26.8%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23.9%)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 경우, 동거 손자녀를 돌본 비율이 42.3%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9.5%)와 비교 시 높다.

가구유형에 있어서는 자녀 동거가구에서 돌본 경험이 43.8%로 가장 높다. 이중 함께 사는 손자녀가 77.2%에 해당하며, 주당 평균 돌봄 일수 역시 5.4일로 타 가구유형과 비교 시(기타 가구 제외) 가장 많다. 즉, 동거가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손자녀 돌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노인들이 손자녀를 돌본 비율이 약 30%로 높은 수준이다. 돌봄 특성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미취업 노인의 손자녀 돌봄 경험이 27.2%로 취업 중인 노인(20.2%)에 비해 높고, 평균 돌봄 일수 역시 4.3일로 취업 중인 노인(3.7일)에 비해 다소 많다. 미취업 노인은 취업한 노인에 비해 가용한 시간이 더 많으므로, 손자녀 돌봄에 더 깊이 관여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손자녀를 돌본 경험 역시 많다. 제5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경우, 이 비율이 31.5%로 제1오분위에 속한 노인(13.7%)의 약 2.3배 수준이다.

기능제한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한이 없는 노인의 손자녀 돌봄 경험이 25.2%로 제한이 있는 노인(21.4%)에 비해 높다. 손자녀를 돌보는데 할애한 시간(일수) 역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더 많다.

<표 6-17> (지난 일주일간) 손자녀 돌봄 여부 및 돌봄 특성

(단위: %, 일, 시간, 명)

특성	지난 일주일간 돌봄 여부 ¹⁾		돌봄 특성 ²⁾				
	없음	있음	동거	비동거	주당 평균 돌봄 일수	하루 평균 돌봄 시간	(명)
전체	75.2	24.8	20.6	79.4	4.1	3.9	(130)
지역							
동부	74.0	26.0	16.7	83.3	4.0	3.9	(110)
읍·면부	80.2	19.8	41.6	58.4	5.0	4.1	(20)
성							
남자	80.0	20.0	15.7	84.3	3.8	3.3	(47)
여자	71.4	28.6	23.3	76.7	4.3	4.2	(84)
연령							
65~69세	67.4	32.6	13.4	86.6	4.0	4.3	(86)
70~74세	76.9	23.1	26.1	73.9	4.6	3.3	(29)
75~79세	91.5	8.5	26.3	73.7	4.3	1.8	(6)
80~84세	85.5	14.5	52.1	47.9	4.4	3.3	(6)
85~89세	74.3	25.7	100.0	0.0	3.0	4.0	(3)
90세 이상	100.0	0.0	0.0	0.0	0.0	0.0	(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6.1	23.9	9.5	90.5	4.0	3.9	(87)
배우자 없음	73.2	26.8	42.3	57.7	4.5	3.9	(44)
가구형태							
노인독거	81.9	18.1	0.0	100.0	4.0	4.1	(23)
노인부부	77.1	22.9	0.0	100.0	3.5	4.0	(74)
자녀동거	56.2	43.8	77.2	22.8	5.4	3.6	(30)
기타	58.5	41.5	100.0	0.0	7.0	3.4	(4)
교육수준							
무학	72.7	27.3	25.4	74.6	5.4	3.0	(5)
초등학교	83.6	16.4	22.9	77.1	4.1	3.2	(23)
중학교	76.8	23.2	28.8	71.2	4.6	4.0	(26)
고등학교	69.9	30.1	22.1	77.9	4.0	4.1	(57)
전문대학 이상	70.0	30.0	0.0	100.0	3.6	4.6	(19)
현 취업상태							
취업중	79.8	20.2	17.5	82.5	3.7	3.9	(37)
미취업	72.8	27.2	21.8	78.2	4.3	3.9	(9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6.3	13.7	12.1	87.9	3.6	4.1	(15)
제2오분위	82.5	17.5	19.9	80.1	4.8	4.2	(14)
제3오분위	75.1	24.9	12.6	87.4	4.8	3.9	(24)
제4오분위	67.7	32.3	16.0	84.0	3.2	3.6	(39)
제5오분위	68.5	31.5	33.2	66.8	4.5	4.0	(3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2.7	17.3	21.5	78.5	4.4	4.2	(29)
50%이상~100%미만	72.4	27.6	28.7	71.3	4.5	3.7	(44)
100%이상~150%미만	68.7	31.3	22.0	78.0	3.7	3.9	(33)
150%이상	74.1	25.9	2.5	97.5	3.8	4.0	(24)
기능상태							
제한 있음	78.6	21.4	36.2	63.8	3.9	2.9	(13)
제한 없음	74.8	25.2	18.8	81.2	4.2	4.0	(117)

주: 1) 전체응답자 10,078명 중 지난 1년간 손자녀를 돌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전체응답자 중 지난 일주일 동안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3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2023년 신규 문항임.

제6절 주요 지출 항목의 지불 주체

노인의 주요 지출항목인 생활비, 의료비, 간병돌봄비를 중심으로 그 분담 실태를 파악하였다. 주요한 지출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지불 주체의 역할 및 기능을 가늠할 수 있다.

지불 항목에 따른 구체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생활비는 주거, 식비, 교통비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포괄한다. 따라서 거의 모든 노인이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 방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65.9%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본인(배우자)이 부담하되 자녀가 일부 보조하는 비율이 22.6%, 자녀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비율이 6.3%, 자녀가 전액 부담하는 비율이 3.5%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친인척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한 부담은 극히 소수이다. 대다수 노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구조이다.

일반특성별로 지역별 특성에 있어서는 동부, 읍·면부 노인 모두 본인(배우자) 부담률이 가장 높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의 73.5%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으나, 여자 노인은 59.9%로 상대적으로 낮다. 자녀가 일정 부분 또는 전액 부담한다는 비율은 여자 노인이 13.2%로 남자 노인(5.5%)에 비해 높다. 여자 노인의 누적된 경제적 취약성이 발현된 결과로 해석된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본인(배우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65~69세 연령군에서 이 응답은 80.0%에 육박하나, 90세 이상에서는 27.6%에 그친다. 자녀가 일정 부분 또는 전액 부담하는 비율은 90세 이상에서 35.5%로 해당 연령대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어, 연령 증가에 따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짐을 짐작케 한다.

배우자 유무와 관련해서는 유배우 노인은 본인과 배우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비율이 72.3%로 무배우 노인(56.2%)에 비하여 높다. 한편 무배우 노인은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한다는 비율이 17.2%로 유배우 노인과 비교하여 약 3.4배 높게 나타난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배우자 유무와 마찬가지로 부부가구에서 본인(배우자)가 부담한다는 비율이 72.8%로 가장 높다.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한다는 비율은 자녀 동거가구에서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구 유형이 노인의 경제적 안정 및 생활비 부담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배우자) 부담률이 높게 나타나,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의 경우 이 비율이 88.1%에 달한다. 무학 노인의 경우, 자녀의 일정 또는 전액 부담률이 24.6%로 가장 높다. 취업 중인 노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부분 생활비를 지불한다는 응답이 77.5%로 미취업 노인(58.5%)에 비해 더 높다. 다음으로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한다는 응답률이 높다. 제5오분위에 속한 노인에게 이 응답은 76.1%인 반면, 제1오분위는 54.5% 수준이며 자녀가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한다는 비율이 13.2%로 해당 노인에게서 가장 높다.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경제적 자립성을 드러낸다.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응답이 70.7%로,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44.8%)에 비해 월등히 높다.

<표 6-18> 생활비 지불방식

(단위: %, 명)

특성	지불 상황 없었음	지불상황 있었음							계 (명)
		대부분 본인 (배우자)부담	본인 (배우자)부담, 자녀일부보조	대부분 자녀 일정부담	대부분 자녀 전액부담	친인척 대부분 부담	사회 복지기관 부담	기타	
전체 ¹⁾	0.1	65.9	22.6	6.3	3.5	0.5	1.1	0.0	100.0 (10,078)
지역									
동부	0.2	66.5	21.5	6.7	3.3	0.5	1.2	0.0	100.0 (7,450)
읍·면부	0.0	64.0	25.5	5.2	4.1	0.4	0.8	0.0	100.0 (2,628)
성									
남자	0.1	73.5	19.6	4.2	1.3	0.4	0.9	0.0	100.0 (4,429)
여자	0.2	59.9	24.9	8.0	5.2	0.5	1.3	0.0	100.0 (5,649)
연령									
65~69세	0.0	80.0	14.9	3.1	1.2	0.1	0.7	0.0	100.0 (3,473)
70~74세	0.1	69.9	22.5	4.6	1.9	0.3	0.7	0.0	100.0 (2,377)
75~79세	0.1	60.6	24.9	8.9	2.9	0.7	1.8	0.0	100.0 (1,743)
80~84세	0.4	52.6	29.5	8.9	6.9	0.6	0.9	0.0	100.0 (1,407)
85~89세	0.0	40.3	35.3	11.0	9.7	1.1	2.5	0.0	100.0 (825)
90세 이상	0.0	27.6	31.0	18.7	16.8	2.2	3.7	0.0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1	72.3	21.9	3.8	1.2	0.3	0.4	0.0	100.0 (6,047)
배우자 없음	0.2	56.2	23.5	10.1	7.1	0.7	2.3	0.0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0.2	61.9	23.9	8.1	3.1	0.5	2.4	0.0	100.0 (3,306)
노인부부	0.1	72.8	22.0	3.4	1.0	0.3	0.4	0.0	100.0 (5,562)
자녀동거	0.1	40.4	23.0	16.0	19.0	0.7	0.8	0.0	100.0 (1,035)
기타	0.0	73.9	12.9	6.7	0.7	3.6	2.3	0.0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0.0	42.5	29.6	13.3	11.3	0.5	2.8	0.0	100.0 (1,240)
초등학교	0.2	57.1	27.6	8.3	4.3	1.1	1.3	0.0	100.0 (2,846)
중학교	0.1	66.5	24.6	5.3	2.4	0.2	0.9	0.0	100.0 (2,139)
고등학교	0.1	77.6	17.3	3.2	1.2	0.1	0.6	0.0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0.0	88.1	7.3	3.1	0.9	0.4	0.2	0.0	100.0 (7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0.0	77.5	17.8	3.0	1.4	0.1	0.2	0.0	100.0 (3,931)
미취업	0.2	58.5	25.6	8.5	4.9	0.7	1.7	0.0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1	54.5	29.4	9.7	3.5	0.8	2.0	0.0	100.0 (2,014)
제2오분위	0.4	56.7	28.9	7.8	3.0	0.6	2.7	0.0	100.0 (2,014)
제3오분위	0.0	69.5	22.6	4.6	2.7	0.1	0.5	0.0	100.0 (2,014)
제4오분위	0.1	72.7	17.8	5.0	3.8	0.4	0.2	0.0	100.0 (2,020)
제5오분위	0.1	76.1	14.1	4.5	4.6	0.4	0.2	0.0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0.2	56.0	29.8	8.3	3.2	0.7	1.9	0.0	100.0 (3,776)
50%이상~100%미만	0.1	66.7	21.7	6.3	3.6	0.3	1.2	0.0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0.1	73.3	15.8	5.3	5.1	0.4	0.2	0.0	100.0 (1,673)
150%이상	0.1	78.4	15.1	3.1	2.7	0.3	0.2	0.0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0.0	44.8	30.7	12.6	8.5	0.7	2.7	0.0	100.0 (1,873)
제한 없음	0.1	70.7	20.7	4.9	2.4	0.4	0.8	0.0	100.0 (8,205)
2020년도 ²⁾	—	65.0	17.1	10.1	7.0	0.1	0.7	—	100.0 (10,097)

주: 1) 전체 응답자 10,0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다음으로 의료비는 노인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부대 비용으로, 노년기는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만연하다.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의 95.3%가 의료비 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지불 방식에 있어서는 65.6%가 본인(배우자)이 의료비를 지불하며, 다음으로 본인(배우자)가 부담하되 자녀가 일부 보조한다는 응답이 19.3%, 자녀가 일정 부분 부담 5.4%, 자녀가 전액 부담 3.5% 등의 순이다. 생활비 지불 구조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는 노인 또는 그들의 배우자를 통한 지출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의료비 지불 방식의 일반특성별 특성 차이를 살펴보면, 본인(배우자)이 부담한다는 비율은 동부 노인에게서 더 높다. 읍·면부 노인은 본인(배우자)이 대부분 부담하되 자녀가 일부 보조한다는 응답이 23.5%로 동부 노인(17.8%)에 비해 높다. 성별 차이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이 본인(배우자)이 부담한다는 응답이 72.0%로 여자 노인(60.6%)에 비해 높다. 반면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한다는 비율은 여자 노인이 12.0%로 남자 노인(5.0%)보다 더 높아,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의 경제적 의존도를 짐작할 수 있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에 의한 의료비 부담률이 감소한다. 90세 이상 노인에서 이 비율은 35.2%로 가장 낮은 반면 65~69세 연령군에서는 77.5%로 높다. 고령일수록 경제적 자립성이 감소하여 자녀나 사회복지시스템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9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소수이긴 하나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의료비 부담률이 3.7%로 제시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게서 본인(배우자) 부담률이 더 높다. 유배우 노인은 이 비율이 71.9%인 반면, 무배우 노인은 56.2%이다. 무배우 노인의 경우, 자녀가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는 비율이 15.8%로 유배우 노인(4.3%)과 비교 시 높은 수준이다.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배우자) 부담률이 71.6%로 가장 높다. 자녀의 일정 또는 전액 부담률은 생활비 부담에서와 같이 자녀 동거가구에서 26.9%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배우자) 부담률이 높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자립성 역시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84.5%가 이에 해당한 반면 무학 노인은 45.9%에 그친다. 취업 여부와 관련해서도 취업 중인 노인의 75.7%가 본인(배우자)이 의료비를 부담한다고 응답한 반면 미취업 노인은

59.2% 수준이다. 미취업 노인의 11.8%는 의료비 지출을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중인 노인에 비해 높다. 소득수준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 시 본인(배우자) 부담률이 높다. 제5분위에서 이 비율은 78.5%이나, 제1오분위에서는 51.4%로 나타났다. 기능상태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하는 비율이 19.8%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6.5%)에 비해 높다.

<표 6-19> 의료비 지불방식

(단위: %, 명)

특성	지불 상황 없었음	지불상황 있었음							계	(명)
		대부분 본인 (배우자)부담	본인 (배우자)부담, 자녀일부보조	대부분 자녀 일정부담	대부분 자녀 전액부담	친인척 대부분 부담	사회 복지기관 부담	기타		
전체 ¹⁾	4.7	65.6	19.3	5.4	3.5	0.3	1.1	0.0	100.0	(10,078)
지역										
동부	5.3	66.9	17.8	5.2	3.2	0.3	1.2	0.0	100.0	(7,450)
읍·면부	3.0	62.1	23.5	5.8	4.3	0.3	0.9	0.0	100.0	(2,628)
성										
남자	5.2	72.0	16.7	3.4	1.6	0.3	0.8	0.0	100.0	(4,429)
여자	4.3	60.6	21.3	7.0	5.0	0.3	1.4	0.0	100.0	(5,649)
연령										
65~69세	5.5	77.5	12.5	2.7	0.9	0.2	0.7	0.0	100.0	(3,473)
70~74세	4.9	67.4	21.3	3.7	1.7	0.2	0.7	0.0	100.0	(2,377)
75~79세	4.9	61.2	22.1	6.6	3.1	0.3	2.0	0.0	100.0	(1,743)
80~84세	3.1	56.0	23.2	9.6	6.7	0.5	1.1	0.0	100.0	(1,407)
85~89세	3.3	45.4	28.4	9.3	11.1	0.9	1.7	0.0	100.0	(825)
90세 이상	3.9	35.2	25.0	15.2	16.7	0.3	3.7	0.0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2	71.9	19.0	2.9	1.4	0.2	0.4	0.0	100.0	(6,047)
배우자 없음	5.4	56.2	19.8	9.1	6.7	0.5	2.2	0.0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5.7	59.5	20.6	7.7	3.8	0.2	2.4	0.0	100.0	(3,306)
노인부부	4.3	71.6	19.3	2.9	1.3	0.2	0.5	0.0	100.0	(5,562)
자녀동거	3.2	51.8	16.8	11.8	15.1	0.7	0.6	0.0	100.0	(1,035)
기타	6.7	71.7	9.9	5.0	0.7	4.4	1.6	0.0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3.1	45.9	24.3	12.4	11.6	0.3	2.3	0.0	100.0	(1,240)
초등학교	4.5	57.7	23.9	7.7	4.2	0.7	1.2	0.0	100.0	(2,846)
중학교	4.6	64.2	23.2	4.5	2.2	0.2	1.2	0.0	100.0	(2,139)
고등학교	5.4	77.3	13.3	2.1	1.2	0.1	0.7	0.0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5.4	84.5	7.3	1.3	1.1	0.2	0.4	0.0	100.0	(7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4.1	75.7	15.5	3.2	1.3	0.1	0.2	0.0	100.0	(3,931)
미취업	5.1	59.2	21.7	6.8	5.0	0.4	1.7	0.0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4	51.4	25.2	9.1	4.8	0.3	1.8	0.0	100.0	(2,014)
제2오분위	4.2	56.9	25.6	6.5	3.4	0.3	3.0	0.0	100.0	(2,014)
제3오분위	4.2	66.9	21.5	3.8	2.6	0.3	0.6	0.0	100.0	(2,014)
제4오분위	3.7	74.3	14.7	4.0	2.9	0.3	0.1	0.0	100.0	(2,020)
제5오분위	4.0	78.5	9.5	3.6	3.9	0.3	0.2	0.0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6	54.6	26.0	7.3	4.0	0.3	2.0	0.0	100.0	(3,776)
50%이상~100%미만	4.3	66.2	19.6	5.3	3.3	0.3	1.0	0.0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3.8	72.4	14.5	4.9	4.0	0.2	0.4	0.0	100.0	(1,673)
150%이상	4.2	81.3	9.5	2.1	2.3	0.4	0.3	0.0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2.4	48.6	26.1	11.3	8.5	0.3	2.8	0.0	100.0	(1,873)
제한 없음	5.2	69.5	17.8	4.1	2.4	0.3	0.8	0.0	100.0	(8,205)
2020년도 ²⁾	2.1	59.0	20.7	10.7	6.5	0.0	0.9	—	100.0	(10,097)

주: 1) 전체 응답자 10,0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마지막으로 간병돌봄비는 전체의 22.0%가 지불 경험에 있다. 앞서 생활비 및 의료비 지출과 비교 시, 지출 경험 자체가 많지 않다. 지불 상황에 있어서는 대부분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한다는 응답이 11.2%, 본인(배우자)이 부담하되 자녀가 일부 보조 6.0%, 자녀가 일정 부분 부담 2.2%, 자녀가 전액 부담 1.8% 등의 순이다.

일반특성별 차이에 있어서는 동부 노인이 본인(배우자)이 대부분 부담한다는 비율이 11.8%로 읍·면부 노인(9.3%)에 비해 높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이 본인(배우자) 부담률이 12.3%로 여자 노인(10.3%)에 비해 높다.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한다는 응답은 여자 노인이 5.2%로 남자 노인(2.3%)에 비해 근소하게 높다.

연령군별로는 특히 90세 이상의 노인에서 간병돌봄비 지출 경험이 높게 나타난다. 해당 연령대에서 자녀에 의한 비용 부담률은 21.4%로, 65~69세 연령군의 1.5%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는 고령 노인의 심화된 돌봄 필요성 및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이들의 자녀에게 이전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유배우 노인이 본인(배우자)이 대부분 부담했다는 응답이 12.1%로 무배우 노인(9.7%)에 비해 높다. 이는 가구유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기타 가구 제외 시 부부가구에서 11.8%로 가장 높다. 자녀의 일정 또는 전액 부담률은 자녀 동거가구에서 10.4%로 가장 높다. 자녀가 경제적 지원 제공자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간병비를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한다는 비율이 더 높고, 취업 여부에 있어서는 미취업 노인일 경우 동 비율이 5.6%로 취업 노인에 비해 높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부담률이 높다. 교육수준이 낮거나, 미취업 또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이들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자녀의 지원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능제한의 경우,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은 38.4%가 간병비 지불 경험이 있으며 제한이 없는 노인은 18.2%가 지불경험이 있다. 한편 지출 분담에 있어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이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하는 비율이 11.2%로 제한이 없는 노인의 2.3%에 비해 더 높다.

<표 6-20> 간병돌봄비 지불방식

(단위: %, 명)

특성	지불 상황 없었음	지불상황 있었음							계	(명)
		대부분 본인 (배우자)부담	본인 (배우자)부담, 자녀일부보조	대부분 자녀 일정부담	대부분 자녀 전액부담	친인척 대부분 부담	사회 복지기관 부담	기타		
전체 ¹⁾	78.0	11.2	6.0	2.2	1.8	0.1	0.7	0.0	100.0	(10,078)
지역										
동부	77.7	11.8	5.5	2.2	1.8	0.1	0.8	0.0	100.0	(7,450)
읍·면부	78.8	9.3	7.4	2.2	1.7	0.1	0.5	0.0	100.0	(2,628)
성										
남자	79.6	12.3	5.2	1.6	0.7	0.1	0.5	0.0	100.0	(4,429)
여자	76.8	10.3	6.7	2.6	2.6	0.1	0.9	0.0	100.0	(5,649)
연령										
65~69세	82.9	12.1	3.2	1.0	0.5	0.0	0.3	0.0	100.0	(3,473)
70~74세	79.4	11.4	7.1	1.1	0.8	0.1	0.2	0.0	100.0	(2,377)
75~79세	79.8	10.3	6.1	2.0	1.0	0.0	0.8	0.0	100.0	(1,743)
80~84세	73.5	11.5	6.9	4.0	3.0	0.4	0.8	0.0	100.0	(1,407)
85~89세	64.8	8.3	12.6	5.1	6.8	0.0	2.3	0.0	100.0	(825)
90세 이상	54.9	10.4	8.3	11.2	10.2	0.0	5.1	0.0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9.7	12.1	5.7	1.4	0.7	0.0	0.4	0.0	100.0	(6,047)
배우자 없음	75.5	9.7	6.5	3.4	3.4	0.1	1.3	0.0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76.5	10.4	6.5	3.0	2.3	0.0	1.3	0.0	100.0	(3,306)
노인부부	79.8	11.8	5.9	1.4	0.7	0.0	0.4	0.0	100.0	(5,562)
자녀동거	74.5	8.3	5.5	4.0	6.4	0.5	0.9	0.0	100.0	(1,035)
기타	70.8	23.9	4.6	0.4	0.3	0.0	0.0	0.0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71.2	7.6	8.1	6.0	5.0	0.0	2.2	0.0	100.0	(1,240)
초등학교	75.3	10.8	8.2	2.5	2.3	0.3	0.7	0.0	100.0	(2,846)
중학교	77.5	12.1	6.9	1.7	1.2	0.0	0.6	0.0	100.0	(2,139)
고등학교	81.8	12.4	3.6	1.1	0.7	0.0	0.4	0.0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85.6	11.1	2.2	0.4	0.6	0.0	0.0	0.0	100.0	(7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83.6	10.9	4.0	0.9	0.4	0.0	0.1	0.0	100.0	(3,931)
미취업	74.4	11.3	7.3	3.0	2.6	0.1	1.1	0.0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2.7	11.5	8.3	3.6	2.5	0.1	1.3	0.0	100.0	(2,014)
제2오분위	76.9	9.5	8.0	2.4	1.7	0.0	1.4	0.0	100.0	(2,014)
제3오분위	80.4	10.3	5.3	1.7	1.5	0.0	0.6	0.0	100.0	(2,014)
제4오분위	78.4	13.7	5.0	1.7	1.0	0.1	0.1	0.0	100.0	(2,020)
제5오분위	81.7	10.9	3.6	1.5	2.1	0.1	0.2	0.0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4.5	11.2	8.2	2.9	2.1	0.1	1.1	0.0	100.0	(3,776)
50%이상~100%미만	78.1	11.6	5.5	2.2	1.7	0.1	0.8	0.0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81.0	10.8	4.3	1.9	1.8	0.0	0.2	0.0	100.0	(1,673)
150%이상	82.4	11.0	4.1	1.0	1.2	0.1	0.2	0.0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61.6	12.7	11.9	6.2	5.0	0.0	2.6	0.0	100.0	(1,873)
제한 없음	81.8	10.8	4.7	1.3	1.0	0.1	0.3	0.0	100.0	(8,205)
2020년도 ²⁾	93.9	1.7	0.8	0.7	2.3	0.0	0.6	0.0	100.0	(10,097)

주: 1) 전체 응답자 10,0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며, 기타 응답은 0.0%임.

제7절 노년기 부양에 대한 태도

본 절에서는 노년기 부양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선호와 노후 생활비 마련 방안에 대해 파악하였다.

우선 노부모 부양과 관련한 노인의 태도를 살펴본 결과, 노인의 25.1%는 자녀와 동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전 조사들과 비교 시 자녀 동거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여기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뿐 아니라 노인-자녀 간의 역동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에도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동거 시 선호하는 자녀로는 형편이 되는 자녀 42.3%, 마음이 맞는 자녀 24.9%, 장남 19.0%, 장녀 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이나 출생순위보다는 노인-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일반특성별 차이에 있어 동부 거주 노인 중 25.7%는 자녀와 동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읍·면부 거주 노인(23.6%)에 비해 높다. 자녀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염두에 둔 응답으로 해석된다. 동거를 희망하는 장남 또는 아들이라는 응답이 읍·면부 거주 노인에게서 25.6%로 동부 거주 노인(23.0%)보다 약간 높다.

성별로는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응답한 여자 노인 비율은 28.4%로 남자 노인(21.0%)에 비해 높다. 이는 여자 노인이 전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이전의 분석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노후 동거 희망 자녀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녀와 동거를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다. 9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54.4%에 달하는 높은 희망률을 보이는 반면 65~69세 연령군에서는 이 비율이 19.4%에 그친다. 고령일수록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를 자녀와의 동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함을 시사한다. 한편 동거 희망 자녀에 있어 90세 이상 연령군에서 장남 또는 아들을 선호하는 응답은 29.6%로, 65~69세(20.1%)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연령 증가에 따라 전통적 가치관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응답이 32.1%로 유배우 노인(20.5%)에 비해 높다. 노후에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자녀를 통해 일정 부문 해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유형별로는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에서 5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독거가구가 26.7%로 높다. 이미 동거 중인 가구에서는 자녀와

의 동거에서 얻어진 긍정적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간주되며, 독거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재로 인해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거 희망 자녀의 비율에 있어서는 장남을 선호하는 비율이 자녀 동거가구에서 22.5%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와 동거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아져, 무학 노인은 32.5%,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14.8%이다. 장남 또는 아들을 동거 자녀로 선호하는 비율 역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다. 취업 여부에 있어서는 미취업 노인의 자녀 동거 희망률이 29.5%로 취업 중인 노인(18.4%)에 비해 높고, 동거 선호 자녀에 대한 차이는 작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이 높다. 제1오분위에서는 32.1%가 희망하는 반면 제5오분위에서는 이 비율이 24.7%로 나타났다. 동거 선호 자녀의 차이는 역시 적은 편이다.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은 39.3%가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여,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더 높다. 특히 장남에 대한 선호(19.8%)가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17.0%)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6-21〉 노후 자녀와의 동거 가치관

(단위: %, 명)

특성	노후의 자녀동거 인식 ¹⁾	노후 동거 희망 자녀 ²⁾							계 (명)
		장남	아들 중 누구나	장녀	딸 중 누구나	형편이 되는 자녀	마음이 맞는 자녀	기타	
전체	25.1	19.0	4.6	6.0	3.1	42.3	24.9	0.0	100.0 (2,501)
지역									
동부	25.7	19.2	3.8	6.3	3.0	40.8	26.9	0.0	100.0 (1,889)
읍·면부	23.6	18.5	7.1	5.1	3.5	46.9	19.0	0.0	100.0 (612)
성									
남자	21.0	20.0	4.0	4.9	2.4	43.6	25.0	0.1	100.0 (920)
여자	28.4	18.5	5.0	6.6	3.5	41.5	24.9	0.0	100.0 (1,581)
연령									
65~69세	19.4	15.8	4.3	8.1	2.5	43.0	26.3	0.0	100.0 (672)
70~74세	24.3	20.6	2.9	6.0	3.2	42.7	24.7	0.0	100.0 (573)
75~79세	24.4	17.8	3.2	4.8	2.5	46.0	25.7	0.2	100.0 (422)
80~84세	30.4	19.1	7.4	3.3	4.5	38.8	26.9	0.0	100.0 (420)
85~89세	36.4	24.2	5.5	5.0	2.5	44.5	18.3	0.0	100.0 (284)
90세 이상	54.4	22.0	7.6	9.7	4.7	31.2	24.9	0.0	100.0 (13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0.5	16.9	4.4	5.7	2.8	42.2	28.1	0.1	100.0 (1,228)
배우자 없음	32.1	21.2	4.9	6.3	3.4	42.4	21.9	0.0	100.0 (1,273)
가구형태									
노인독거	26.7	18.9	5.0	7.9	4.4	41.0	22.8	0.0	100.0 (875)
노인부부	19.5	17.4	4.6	6.1	3.0	42.4	26.4	0.0	100.0 (1,076)
자녀동거	51.9	22.5	4.1	2.2	1.3	43.4	26.4	0.1	100.0 (515)
기타	20.3	19.6	3.1	9.0	0.0	54.9	13.3	0.0	100.0 (35)
교육수준									
무학	32.5	19.0	8.6	4.8	3.1	43.5	21.1	0.0	100.0 (385)
초등학교	28.6	21.3	4.6	4.7	3.9	41.7	23.8	0.0	100.0 (804)
중학교	26.3	17.2	4.2	5.8	2.8	44.6	25.3	0.0	100.0 (559)
고등학교	20.7	17.9	3.0	8.3	2.6	41.7	26.6	0.0	100.0 (649)
전문대학 이상	14.8	18.9	2.7	6.8	1.3	33.4	36.3	0.6	100.0 (10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8.4	19.3	3.0	7.5	2.6	42.5	25.1	0.0	100.0 (723)
미취업	29.5	18.9	5.3	5.4	3.3	42.2	24.9	0.0	100.0 (1,77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2.1	20.4	5.1	7.4	3.8	39.0	24.3	0.0	100.0 (638)
제2오분위	25.2	15.5	4.3	3.9	3.6	43.2	29.5	0.0	100.0 (500)
제3오분위	21.2	14.5	5.9	5.9	3.8	47.1	22.8	0.0	100.0 (421)
제4오분위	22.4	22.1	4.0	4.2	2.7	44.7	22.4	0.0	100.0 (451)
제5오분위	24.7	21.9	3.9	8.0	1.4	39.3	25.3	0.1	100.0 (49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8.7	18.6	5.0	5.5	3.8	40.0	27.0	0.0	100.0 (1,070)
50%이상~100%미만	23.4	16.4	5.2	5.8	3.3	47.4	21.9	0.0	100.0 (646)
100%이상~150%미만	23.5	19.5	4.2	4.5	2.3	44.3	25.0	0.2	100.0 (389)
150%이상	21.8	23.9	3.1	9.1	1.5	38.1	24.3	0.0	100.0 (396)
기능상태									
제한 있음	39.3	19.8	3.6	6.9	2.3	42.1	25.3	0.0	100.0 (1,809)
제한 없음	22.1	17.0	7.4	3.7	5.1	42.7	24.1	0.0	100.0 (692)
2020년도 ³⁾	12.8	32.1	10.3	3.3	0.8	29.9	23.5	0.0	100.0 (1,27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본인응답자 중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응답한 2,501명을 대상으로 함.

3)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020년에는 노후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부모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자녀에 대한 문항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2023년에는 한 문항으로 조사함.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45.0%는 본인 스스로, 25.1%는 본인과 사회보장제도로 응답하였다. 사회보장제도라는 응답은 23.5%, 본인과 자녀 3.9%, 자녀라는 응답은 2.6%에 그친다. 이같은 결과는 노인들이 스스로 노후의 자립성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함을 의미한다. 즉, 노인들이 노후 생활비 마련에 있어 본인의 책임과 사회보장제도에 더 큰 기대를 하며, 자녀의 부담은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일반특성별로 이를 살펴보면,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에 있어서는 지역 간 차이가 작다. 그러나 본인과 사회보장제도 간 지원을 통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응답은 동부 노인이 26.7%로 읍·면부 노인(20.4%)보다 비율이 높았다. 읍·면부 거주 노인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26.0%)가 동부 거주 노인(22.6%)보다 더 높게 나타나, 거주지역에 따라 제도적 지원에 대한 기대치 및 의존도가 상이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본인 스스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남자 노인이 48.5%로 여자 노인(42.2%)에 비해 높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자 노인이 25.7%로 남자 노인(20.7%)에 비해 높아, 성별에 따라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경향이 명확하다. 65~69세 연령군에서 이 비율은 48.3%를 차지한 반면, 9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38.3% 수준이다. 반면 자녀 또는 사회보장제도를 택한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다. 고령이 될수록 본인이 직접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내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로 해석된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에게서 본인 스스로 마련하고자 하는 비율이 47.9%로 무배우 노인(40.5%)보다 높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부부가구가 47.9%로 본인 스스로 마련하고자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자녀라는 응답은 1.7%로 기타 가구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 스스로 마련하고자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에게서 이 비율은 50.7%로 무학 노인(36.7%)에 비해 더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에 대한 자립적 태도가 더 강함을 의미한다. 반면 자녀 또는 사회보장제도를 택한 비율은 무학 노인이 타 교육수준 노인에 비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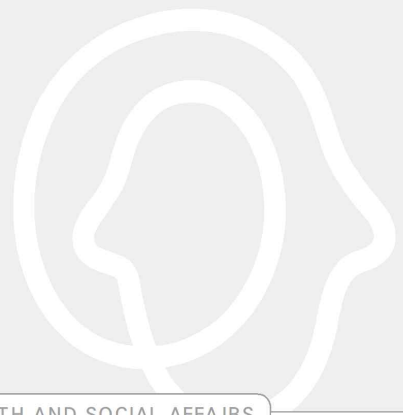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 중인 노인 중 49.8%는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다. 사회보장제도를 택한 응답은 미취업 노인이 25.5%로 취업 노인(20.4%)에 비하여 더 높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연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본인 스스로 준비하려는 응답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제5오분위의 경우 이 비율이 48.7%에 달한다. 기능상태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한이 없는 노인의 47.0%는 본인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나, 제한이 있는 노인은 35.5% 수준이다. 사회보장제도가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은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이 28.4%로 제한이 없는 노인(22.4%)에 비해 더 높다.

〈표 6-22〉 선호하는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명)

특성	본인 스스로	자녀	사회보장 제도	본인과 자녀	본인과 사회보장제도	기타	계 (명)
전체 ¹⁾	45.0	2.6	23.5	3.9	25.1	0.0	100.0 (9,955)
지역							
동부	44.8	2.5	22.6	3.4	26.7	0.0	100.0 (7,359)
읍·면부	45.5	2.6	26.0	5.5	20.4	0.0	100.0 (2,596)
성							
남자	48.5	2.1	20.7	3.6	25.1	0.0	100.0 (4,384)
여자	42.2	2.9	25.7	4.2	25.0	0.0	100.0 (5,571)
연령							
65~69세	48.3	1.8	20.2	2.9	26.7	0.0	100.0 (3,465)
70~74세	45.2	1.6	23.8	3.2	26.1	0.0	100.0 (2,362)
75~79세	44.1	2.1	24.2	4.0	25.5	0.0	100.0 (1,729)
80~84세	44.8	3.1	24.3	5.6	22.1	0.0	100.0 (1,379)
85~89세	33.8	6.5	31.7	6.9	21.0	0.0	100.0 (781)
90세 이상	38.3	9.2	30.5	4.8	17.2	0.0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7.9	1.7	20.8	3.6	25.9	0.0	100.0 (5,987)
배우자 없음	40.5	3.8	27.6	4.4	23.8	0.0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41.0	3.7	26.9	4.1	24.3	0.0	100.0 (3,281)
노인부부	47.9	1.7	20.7	3.6	26.1	0.0	100.0 (5,509)
자녀동거	40.8	3.9	27.6	5.1	22.6	0.0	100.0 (993)
기타	49.1	1.8	26.0	2.5	20.7	0.0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36.7	3.9	32.1	6.5	20.8	0.0	100.0 (1,184)
초등학교	43.9	3.2	24.2	5.0	23.8	0.0	100.0 (2,810)
중학교	45.5	3.0	21.1	4.0	26.4	0.0	100.0 (2,127)
고등학교	47.4	1.4	22.2	2.6	26.3	0.0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50.7	1.5	19.2	0.8	27.8	0.0	100.0 (7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49.8	1.8	20.4	3.1	24.8	0.0	100.0 (3,926)
미취업	41.8	3.0	25.5	4.5	25.2	0.0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0.8	3.6	29.3	4.0	22.4	0.0	100.0 (1,989)
제2오분위	40.9	2.4	26.1	4.4	26.3	0.0	100.0 (1,983)
제3오분위	46.6	1.8	19.5	4.5	27.6	0.0	100.0 (1,981)
제4오분위	47.8	2.9	20.3	3.7	25.2	0.0	100.0 (2,007)
제5오분위	48.7	2.2	22.3	2.9	23.8	0.0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1.1	2.8	27.2	4.2	24.8	0.0	100.0 (3,722)
50%이상~100%미만	46.0	2.7	20.3	4.3	26.7	0.0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46.9	2.4	21.6	4.2	25.0	0.0	100.0 (1,657)
150%이상	49.6	1.9	22.6	2.7	23.2	0.0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35.5	4.2	28.4	5.5	26.4	0.0	100.0 (1,759)
제한 없음	47.0	2.2	22.4	3.6	24.8	0.0	100.0 (8,196)
2020년도	40.6	4.7	22.3	5.3	27.0	0.0	100.0 (9,93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제7장

노인의 경제상태

제1절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제2절 자산과 부채

제3절 가구지출과 개인지출

제4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제 7 장 노인의 경제상태

본 장에서는 노인의 가구 및 개인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의 경우 가구소득 전체와 함께 응답 노인, 그 외 가구원으로 구분하여 가구소득에서 노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한다. 지출은 노인가구의 월평균 지출수준과 함께 노인을 위한 지출 그리고 노인가구의 지출 중 부담되는 항목, 주거비지출액을 추가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가구의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그리고 부채 보유 여부와 규모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경제상태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의 제도적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본 장의 소득 및 자산 등의 금액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임을 밝힌다. 소득이나 자산의 경우 보유 개인을 기준으로 평균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는 노인 전체의 경제상태를 조망한다는 측면에서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및 부채의 경우 보유자 기준의 평균 값을 표에 함께 제시한다.

본 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표본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결과로 유효응답 사례 수가 적은 항목이나 세부 인구집단(90세 이상, 기타 가구, 전문대학 졸업 이상 등)의 분석 결과 등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1절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본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가구의 본인 및 그 외 가구원 그리고 가구의 2022년 연간 소득을 조사하였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공적급여를 포함하며,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한다.

1. 가구소득

가구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원천별로 해당 소득의 존재 여부를 살펴본 <표 7-1>에 의하면 노인의 91.7%는 공적이전소득을, 81.2%는 사적이전소득을 갖고 있어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전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 39.7%, 사업소득 30.2%, 재산소득 16.7%, 사적연금소득 13.4%, 그리고 기타소득 8.5%의 순으로 각 소득원을 갖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재산소득(18.0%), 사적연금소득(15.52)의 보유율이 높고, 읍·면부 노인은 동부 노인에 비해 사업소득(47.8%), 사적이전소득(85.6%), 그리고 공적이전소득(93.5%)에서 보유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42.0%), 사업소득(36.6%), 재산소득(18.7%), 사적연금소득(15.2%)에서 보유율이 높고, 여자 노인은 사적이전소득(84.4%)과 공적이전소득(95.5%)에서 더 높은 보유율을 나타냈다. 공적이전소득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남자 노인의 경우 공적연금(61.9%)의 보유율이 높은 반면, 여자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78.2%)의 보유율이 높은 특성이 있다.

한편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69세 연령군에서는 근로소득(52.7%), 사업소득(45.5%)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유율이 높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보유율이 낮아지고, 사적이전소득의 보유율은 높아지는 경향성이 확인된다.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 41.8%, 사업소득 35.0%, 재산소득 19.3%, 사적연금소득 14.9%로 무배우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무배우 노인은 공적이전소득 92.9%로 유배우 노인보다 조금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근로소득(28.6%), 사업소득(21.5%) 보유율은 낮았다. 부부가구는 재산소득(19.4%), 사적연금소득(14.5%)에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높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자녀동거가구에서는 근로소득(71.7%)이 높은 반면 사적이전소득(78.1%)의 보유율은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인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연금소득은 높은 경향성이 있는 반면, 사적이전소득 보유율은 낮은 경향이 있다. 취업 여부별로 살펴보면, 취업 노인은 근로소득(67.0%), 사업소득(60.9%)의 보유율이 미취업 노인보다 높은 반면, 미취업 노인은 사적이전소득(83.9%)과 공적이전소득(93.8%),

사적연금소득(16.3%)의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연금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하여 사적이전소득은 Ⅱ형의 관계성을 보이지만 소득수준별 차이가 크지는 않다. 신체적 기능상태별 보유율에서는 기능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근로소득(42.0%), 사업소득(33.0%)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사적이전소득(85.3%)과 공적이전소득(95.6%), 사적연금소득(17.2%)은 기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이 조금 더 높다.

〈표 7-2〉와 〈표 7-3〉을 통해 노인가구의 소득금액과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의 연 총소득은 3,468.6만 원이며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소득이 1,015.9만 원(29.3%)으로 가장 많고, 공적이전소득 897.1만 원(25.9%), 사업소득 849.8만 원(24.5%), 사적이전소득 279.1만 원(8.0%), 재산소득 231.2만 원(6.7%), 그리고 사적연금소득 169.6만 원(4.9%)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일반특성별 소득규모와 구성을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연 총 가구소득은 3,587.2만 원으로 읍·면부 노인의 연 3,132.2만 원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동부와 읍·면부의 소득구성을 비교해 보면,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30.9%(1,109.2만 원), 재산소득 7.0%(251.4만 원), 그리고 사적이전소득 8.2%(292.8만 원), 사적연금소득이 5.6%(199.8만 원)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읍·면부 노인은 사업소득이 32.1%(1,005.9만 원)으로 동부 노인보다 더 높은 수준인데,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읍·면부 노인은 공적이전소득 26.9%로 동부 노인(25.5%)보다 구성 비율은 높지만 금액은 843.8만 원으로 동부 노인(915.8만 원)보다 작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가구소득이 4,034.8만 원으로 여자 노인의 가구소득 3,024.7만 원보다 약 1,000만 원 더 많다. 소득항목별 금액은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유일하게 많은 항목은 사적이전소득(여자 287.6만 원, 남자 268.3만 원)이다.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남자 노인은 사업소득이 27.3%로 여자 노인 21.6%보다 높았다. 반면 여자 노인은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각각 9.5%와 27.1%로 남자 노인의 6.6%와 2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소득을 비교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낮은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표 7-1>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 가구소득

(단위: %, 명)

특성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계	사적 연금 ²⁾ 소득	기타 소득	(명)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기초생활 보장급여	기타 공적 급여				
전체 ¹⁾	39.7	30.2	16.7	81.2	54.2	74.0	8.4	5.3	91.7	13.4	8.5	(10,078)
지역												
동부	39.9	24.1	18.0	79.7	54.7	70.9	8.7	4.8	91.0	15.2	7.9	(7,450)
읍·면부	39.0	47.8	13.3	85.6	52.6	82.5	7.7	6.6	93.5	8.3	10.3	(2,628)
성												
남자	42.0	36.6	18.7	77.2	61.9	68.5	7.1	5.3	91.1	15.2	7.7	(4,429)
여자	37.8	25.3	15.2	84.4	48.1	78.2	9.4	5.2	92.2	12.0	9.1	(5,649)
연령												
65~69세	52.7	45.5	16.3	73.3	57.6	62.8	5.5	3.0	86.4	12.3	7.2	(3,473)
70~74세	37.9	29.6	16.6	81.2	60.3	76.0	9.1	4.7	93.6	13.8	7.3	(2,377)
75~79세	33.3	22.1	20.1	85.1	57.0	80.3	9.2	7.1	94.4	14.9	10.2	(1,743)
80~84세	29.7	17.0	15.3	90.2	48.0	81.4	8.8	6.0	94.7	14.0	10.6	(1,407)
85~89세	27.1	14.0	16.1	87.4	35.8	85.9	14.5	8.4	96.7	13.1	9.9	(825)
90세 이상	17.6	9.6	10.3	92.9	25.8	83.3	13.9	14.7	94.9	12.2	10.9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1.8	35.0	19.3	81.7	62.6	69.2	4.6	4.9	90.9	14.9	8.1	(6,047)
배우자 없음	36.4	23.1	12.9	80.5	41.5	81.2	14.1	5.8	92.9	11.1	9.1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28.6	21.5	13.2	80.8	42.1	81.0	15.5	5.7	93.1	11.7	9.4	(3,306)
노인부부	39.8	34.5	19.4	82.2	62.5	70.0	4.7	4.7	91.0	14.5	8.2	(5,562)
자녀동거	71.7	33.4	14.8	78.1	48.1	70.9	4.6	6.1	90.1	13.3	7.6	(1,035)
기타	53.8	41.8	11.8	74.6	54.4	84.1	15.7	9.7	94.5	11.2	6.4	(174)
교육수준												
무학	32.9	20.4	11.0	89.8	38.5	93.5	13.7	9.7	98.0	7.1	10.0	(1,240)
초등학교	34.7	26.1	14.6	84.9	46.7	86.2	10.9	6.3	94.5	11.1	8.9	(2,846)
중학교	40.5	27.8	16.6	81.8	57.1	78.7	8.4	5.2	93.5	12.7	7.6	(2,139)
고등학교	46.2	38.4	19.0	76.3	60.9	60.3	5.0	3.3	86.9	16.0	9.0	(3,145)
전문대학 이상	39.9	35.2	25.7	71.6	73.4	37.0	4.1	2.4	85.2	24.0	5.1	(7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67.0	60.9	14.0	77.1	53.8	68.9	3.1	2.8	88.4	8.9	7.0	(3,931)
미취업	22.2	10.7	18.5	83.9	54.4	77.2	11.8	6.8	93.8	16.3	9.5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3	5.5	3.7	78.0	23.7	83.9	13.5	3.8	89.4	5.6	5.2	(2,014)
제2오분위	24.5	16.7	10.9	87.4	56.3	90.9	16.5	7.0	98.1	11.1	9.8	(2,014)
제3오분위	38.5	29.3	18.9	84.5	62.7	80.7	6.6	7.1	94.6	13.4	10.5	(2,014)
제4오분위	50.7	39.8	21.8	80.2	61.9	66.5	3.0	4.4	91.0	18.1	9.6	(2,020)
제5오분위	69.3	59.8	28.4	75.9	66.2	47.9	2.5	4.1	85.5	18.8	7.4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9.7	10.5	7.8	82.8	40.7	86.8	13.2	4.9	93.4	8.6	8.8	(3,776)
50%이상~100%미만	40.6	29.2	17.9	84.6	60.3	79.9	8.4	7.0	94.5	14.4	9.7	(2,801)
100%이상~150%미만	54.2	40.9	22.0	78.6	61.4	64.9	3.0	4.8	90.3	16.7	8.1	(1,673)
150%이상	66.2	62.8	28.7	75.1	66.1	46.6	3.4	3.7	85.1	18.8	6.5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29.2	18.3	15.2	85.3	48.8	82.7	14.4	9.8	95.6	17.2	11.5	(1,873)
제한 없음	42.0	33.0	17.1	80.3	55.4	72.0	7.0	4.2	90.8	12.5	7.8	(8,205)
2020년도	44.0	17.5	34.8	95.1	40.5	71.6	5.6	15.4	87.1	13.0	0.1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 해(2022.1.1.~2022.12.31.)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은 4,043.8만 원으로 무배우 노인의 2,605.8만 원보다 높다. 소득원천별 금액은 유배우 노인이 무배우 노인보다 모두 높지만, 구성 비율은 무배우 노인이 유배우 노인보다 근로소득(32.4%)과 사적이전소득(10.1%)이 높았다. 한편,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독거가구의 경우 2,085.7만 원으로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부부가구 3,828.6만 원, 기타 가구 4,039.1만 원, 자녀동거가구 5,853.9만 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구성을 보면, 독거가구의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12.4%)과 공적이전소득(31.4%)이 모든 가구유형 중에서 가장 높았다. 즉 독거가구는 공·사적이전소득이 43.8%로 상당한 역할을 한다. 부부가구와 기타 가구의 경우는 사업소득(각각 26.1%, 27.7%), 자녀동거가구는 근로소득(52.6%)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노인의 경우, 연 총 가구소득은 5,865.4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무학의 경우 연 1,840.9만 원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고학력인 경우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사업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의 비중이 큰 경향성이 나타났다. 한편,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 노인의 가구소득은 4,694.4만 원으로 미취업 노인의 2,684.8만 원보다 높았고, 소득원천별로 취업 노인은 근로소득 1,712.5만 원(36.5%), 사업소득 1,734.5만 원(36.9%)에서 미취업 노인보다 높았다. 반면 미취업 노인은 재산소득 268.9만 원(10.0%), 사적이전소득 317.1만 원(11.8%), 공적이전소득 996.7만 원(37.1%), 사적연금소득 217.2만 원(8.1%)에서 취업 노인보다 금액과 구성 비율 모두 높았다.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중위소득 150% 이상인 노인의 연소득은 8,563.1만 원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의 연소득 1,044.6만 원의 약 8배 수준이다. 소득원천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은 반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등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한편,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 가구소득 3,664.0만 원으로 제한이 있는 노인의 2,612.3만 원보다 높았다. 소득원천별로는 제한이 있는 노인은 사적이전소득 319.7만 원(12.2%)과 사적연금소득 209.9만 원(8.0%)에서 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금액과 비율이 모두 높았다.

<표 7-2> 연간 총소득, 소득원천별 금액: 가구소득

(단위: 만 원)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연금소득 ²⁾	기타소득	연 총소득
전체 ¹⁾	1,015.9	849.8	231.2	279.1	897.1	169.6	25.9	3,468.6
지역								
동부	1,109.2	794.8	251.4	292.8	915.8	199.8	23.4	3,587.2
읍·면·부	751.4	1,005.9	173.9	240.5	843.8	84.0	32.9	3,132.2
성								
남자	1,175.1	1,100.8	258.8	268.3	996.4	209.8	25.7	4,034.8
여자	891.1	653.0	209.6	287.6	819.2	138.1	26.0	3,024.7
연령								
65~69세	1,678.5	1,581.5	240.4	214.9	896.3	152.6	22.2	4,786.5
70~74세	855.1	732.7	202.8	274.5	1,000.2	172.6	22.6	3,260.5
75~79세	594.5	401.1	298.6	307.8	936.9	194.2	34.8	2,768.0
80~84세	503.5	237.9	237.8	341.5	778.5	172.7	28.7	2,300.6
85~89세	640.7	287.8	161.5	358.1	779.5	183.4	29.5	2,440.6
90세 이상	410.0	234.0	97.9	402.4	706.1	141.6	17.7	2,009.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130.4	1,054.9	290.3	290.6	1,047.5	202.4	27.6	4,043.8
배우자 없음	844.2	542.1	142.6	261.9	671.4	120.3	23.3	2,605.8
가구형태								
노인독거	420.2	449.1	147.0	258.3	654.9	133.9	22.2	2,085.7
노인부부	978.6	999.3	293.3	288.1	1,047.5	195.2	26.7	3,828.6
자녀동거	3,078.6	1,280.9	188.5	302.1	818.0	163.3	22.6	5,853.9
기타	1,252.9	1,118.5	102.8	251.9	1,156.3	67.2	89.6	4,039.1
교육수준								
무학	429.8	280.9	68.0	288.5	692.5	58.5	22.7	1,840.9
초등학교	642.9	446.8	205.5	293.4	756.7	114.0	22.9	2,482.1
중학교	984.9	713.1	260.5	271.7	888.9	118.8	25.5	3,263.4
고등학교	1,476.4	1,389.8	277.9	269.2	958.8	197.3	34.3	4,603.6
전문대학 이상	1,591.2	1,481.3	324.8	272.0	1,570.4	618.4	7.4	5,865.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712.5	1,734.5	172.2	219.8	741.2	95.2	19.0	4,694.4
미취업	570.6	284.2	268.9	317.1	996.7	217.2	30.3	2,684.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0.3	13.7	6.2	167.2	413.1	10.5	5.3	656.3
제2오분위	110.2	92.9	37.2	295.4	791.0	47.2	15.8	1,389.7
제3오분위	517.9	414.7	135.4	315.1	978.4	106.1	34.3	2,501.9
제4오분위	1,258.2	1,041.8	244.2	286.4	1,056.0	260.2	35.7	4,182.5
제5오분위	3,148.4	2,682.0	732.1	331.4	1,245.7	423.2	38.2	8,601.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8.0	52.1	24.4	226.5	613.3	29.4	21.0	1,044.6
50%이상~100%미만	654.6	477.4	135.9	311.1	958.6	147.0	34.8	2,719.4
100%이상~150%미만	1,650.7	1,116.7	272.8	281.9	1,047.2	228.6	29.2	4,627.2
150%이상	2,926.0	2,823.9	766.3	336.4	1,251.4	439.7	19.4	8,563.1
가능상태								
제한 있음	657.8	389.7	163.9	319.7	834.9	209.9	36.4	2,612.3
제한 없음	1,097.7	954.8	246.6	269.9	911.2	160.4	23.5	3,664.0
2020년도	1,077.8	465.5	294.5	353.7	675.6	158.0	1.4	3,026.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 해(2022.1.1.~2022.12.31.)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표 7-3> 소득원천별 구성 비율: 가구소득

(단위: %)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연금소득 ²⁾	기타소득	계
전체 ¹⁾	29.3	24.5	6.7	8.0	25.9	4.9	0.7	100.0
지역								
동부	30.9	22.2	7.0	8.2	25.5	5.6	0.7	100.0
읍·면부	24.0	32.1	5.6	7.7	26.9	2.7	1.0	100.0
성								
남자	29.1	27.3	6.4	6.6	24.7	5.2	0.6	100.0
여자	29.5	21.6	6.9	9.5	27.1	4.6	0.9	100.0
연령								
65~69세	35.1	33.0	5.0	4.5	18.7	3.2	0.5	100.0
70~74세	26.2	22.5	6.2	8.4	30.7	5.3	0.7	100.0
75~79세	21.5	14.5	10.8	11.1	33.8	7.0	1.3	100.0
80~84세	21.9	10.3	10.3	14.8	33.8	7.5	1.2	100.0
85~89세	26.3	11.8	6.6	14.7	31.9	7.5	1.2	100.0
90세 이상	20.4	11.6	4.9	20.0	35.1	7.0	0.9	10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8.0	26.1	7.2	7.2	25.9	5.0	0.7	100.0
배우자 없음	32.4	20.8	5.5	10.1	25.8	4.6	0.9	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20.1	21.5	7.0	12.4	31.4	6.4	1.1	100.0
노인부부	25.6	26.1	7.7	7.5	27.4	5.1	0.7	100.0
자녀동거	52.6	21.9	3.2	5.2	14.0	2.8	0.4	100.0
기타	31.0	27.7	2.5	6.2	28.6	1.7	2.2	100.0
교육수준								
무학	23.3	15.3	3.7	15.7	37.6	3.2	1.2	100.0
초등학교	25.9	18.0	8.3	11.8	30.5	4.6	0.9	100.0
중학교	30.2	21.9	8.0	8.3	27.2	3.6	0.8	100.0
고등학교	32.1	30.2	6.0	5.8	20.8	4.3	0.7	100.0
전문대학 이상	27.1	25.3	5.5	4.6	26.8	10.5	0.1	10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36.5	36.9	3.7	4.7	15.8	2.0	0.4	100.0
미취업	21.3	10.6	10.0	11.8	37.1	8.1	1.1	100.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1	2.1	0.9	25.5	62.9	1.6	0.8	100.0
제2오분위	7.9	6.7	2.7	21.3	56.9	3.4	1.1	100.0
제3오분위	20.7	16.6	5.4	12.6	39.1	4.2	1.4	100.0
제4오분위	30.1	24.9	5.8	6.8	25.2	6.2	0.9	100.0
제5오분위	36.6	31.2	8.5	3.9	14.5	4.9	0.4	100.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5	5.0	2.3	21.7	58.7	2.8	2.0	100.0
50%이상~100%미만	24.1	17.6	5.0	11.4	35.3	5.4	1.3	100.0
100%이상~150%미만	35.7	24.1	5.9	6.1	22.6	4.9	0.6	100.0
150%이상	34.2	33.0	8.9	3.9	14.6	5.1	0.2	100.0
가능상태								
제한 있음	25.2	14.9	6.3	12.2	32.0	8.0	1.4	100.0
제한 없음	30.0	26.1	6.7	7.4	24.9	4.4	0.6	100.0
2020년도	35.6	15.4	9.7	11.7	22.3	5.2	0.0	100.0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 해(2022.1.1.~2022.12.31.)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2. 개인소득

노인 자신의 소득원천별 보유 비율을 분석한 〈표 7-4〉에 의하면 근로소득 28.2%, 사업소득 23.1%, 재산소득 13.8%, 사적이전소득 78.8%, 공적연금 44.4%, 기초연금 72.0%, 기타공적급여 4.1%, 사적연금소득 11.3%, 기타소득 7.5%이다. 즉, 노인 개인의 소득원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사적이전소득과 기초연금이다. 또한, 노인 10명 중 4명은 공적연금소득을 갖고 있다는 점도 파악되었다.

〈표 7-5〉와 〈표 7-6〉에서 노인 본인의 항목별 소득 금액과 비율을 살펴보면, 본인의 연간 총소득은 2,163.7만 원으로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기타공적급여 포함)이 578.3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사업소득 562.8만 원, 근로소득 504.3만 원, 사적이전소득 199.8만 원, 재산소득 170.9만 원 그리고 사적연금소득 130.3만 원, 기타소득 17.3만 원 순이다. 구성비를 통해 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 26.7%, 사업소득 26.0%, 근로소득 23.3%, 사적이전소득 9.2%, 재산소득 7.9% 그리고 사적연금소득 6.0%, 기타소득 0.8% 순이다.

구성비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24.1%, 재산소득이 8.6%, 사적연금소득이 6.9%로 읍·면부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읍·면부 노인은 사업소득이 33.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농어업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구성비가 각각 24.5%와 5.5%로 여자 노인의 30.3%와 15.4%보다 낮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소득(30.7%), 근로소득(25.3%)에서 여자 노인에 비해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대별 소득구성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적 및 공적이전소득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중이 높다.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은 근로소득이 24.8%, 사업소득이 28.0%로 무배우 노인보다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고 무배우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소득 13.3%, 공적이전소득 29.6%로 유배우 노인보다 더 높다. 가구형태별 본인 소득구성을 보면 독거가구와 자녀동거 가구는 전체 개인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아서 각각 28.7%와 27.9%인 반면, 부부가구와 기타 가구는 사업소득이 각각 27.9%와 30.6%로 가장 높았다.

<표 7-4>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 개인소득

(단위: %, 명)

특성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계	사적 연금 ²⁾ 소득	기타 소득	(명)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기타 공적 급여				
전체 ¹⁾	28.2	23.1	13.8	78.8	44.4	72.0	4.1	87.2	11.3	7.5	(10,078)
지역											
동부	27.7	18.3	14.9	77.3	45.4	68.8	3.8	86.1	12.9	7.0	(7,450)
음·면부	29.7	36.7	10.4	83.2	41.6	81.1	4.8	90.2	6.9	8.6	(2,628)
성											
남자	33.1	33.5	17.2	73.5	60.3	65.7	4.8	89.3	14.6	6.7	(4,429)
여자	24.4	15.0	11.1	82.9	32.0	77.0	3.5	85.5	8.8	8.1	(5,649)
연령											
65~69세	40.3	35.6	13.5	70.9	46.4	59.9	2.2	79.8	9.9	6.2	(3,473)
70~74세	27.7	23.2	12.8	78.9	48.2	73.8	3.1	88.6	11.4	6.2	(2,377)
75~79세	23.3	17.3	17.4	82.7	48.4	78.7	5.9	90.9	12.4	9.1	(1,743)
80~84세	18.3	12.0	12.7	87.7	41.0	80.8	4.7	92.5	12.5	9.2	(1,407)
85~89세	12.4	8.0	13.3	84.4	30.9	85.0	6.7	94.8	12.6	9.1	(825)
90세 이상	7.7	3.6	8.6	92.0	18.3	83.3	14.7	94.9	11.5	10.3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8.8	25.3	14.7	78.1	47.1	66.1	3.1	84.3	11.6	6.5	(6,047)
배우자 없음	27.4	19.9	12.4	80.0	40.4	80.8	5.6	91.5	11.0	8.8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28.5	21.5	13.2	80.7	42.1	81.0	5.7	91.9	11.7	9.4	(3,306)
노인부부	28.4	25.0	14.6	78.7	47.0	67.2	3.0	84.8	11.2	6.6	(5,562)
자녀동거	25.1	16.3	11.8	76.0	37.3	69.2	4.3	85.6	11.1	6.2	(1,035)
기타	32.6	33.1	9.8	62.2	48.7	72.8	5.2	83.9	10.4	5.2	(174)
교육수준											
무학	20.7	12.7	9.1	88.4	29.9	92.9	8.3	95.9	6.0	8.9	(1,240)
초등학교	23.1	18.9	11.6	82.5	36.5	85.5	4.6	92.1	9.6	7.8	(2,846)
중학교	29.1	20.9	13.7	79.2	46.8	76.4	3.9	87.7	10.3	6.7	(2,139)
고등학교	34.6	31.1	15.5	73.6	50.9	57.2	2.6	80.6	13.2	7.8	(3,145)
전문대학 이상	30.6	29.8	22.9	68.7	65.9	33.8	1.8	79.5	22.1	4.5	(7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61.8	54.0	12.2	74.7	45.5	65.9	2.1	84.1	7.8	6.0	(3,931)
미취업	6.7	3.4	14.8	81.5	43.8	75.9	5.3	89.1	13.6	8.4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8	4.9	3.2	77.1	22.3	83.2	3.7	86.8	5.0	5.0	(2,014)
제2오분위	19.7	13.8	9.2	84.8	46.6	90.3	5.1	95.5	9.7	8.7	(2,014)
제3오분위	28.2	21.2	14.5	81.7	50.1	78.6	5.3	91.4	11.3	9.5	(2,014)
제4오분위	32.4	30.2	18.0	77.2	49.7	63.8	3.1	84.8	15.3	8.1	(2,020)
제5오분위	46.9	45.5	23.8	73.2	53.5	44.3	3.2	77.3	15.3	6.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5.5	8.0	6.2	80.7	33.2	86.1	3.8	90.6	7.3	7.7	(3,776)
50%이상~100%미만	27.0	21.2	14.0	81.8	49.1	77.5	5.2	90.3	12.3	8.7	(2,801)
100%이상~150%미만	35.1	31.4	18.5	75.9	50.2	62.4	3.9	84.2	13.9	7.0	(1,673)
150%이상	49.9	49.9	24.7	73.1	55.3	43.4	3.1	78.0	15.8	5.5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15.4	11.4	12.4	82.3	39.5	81.4	8.3	93.0	15.4	10.1	(1,873)
제한 없음	31.1	25.8	14.1	78.0	45.6	69.9	3.1	85.9	10.4	6.9	(8,205)
2020년도	26.3	12.3	16.5	90.0	30.6	68.9	12.8	81.8	10.3	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 해(2022.1.1.~2022.12.31.)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표 7-5> 연간 총소득, 소득원천별 금액: 개인소득

(단위: 만 원)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연금소득 ²⁾	기타소득	연 총소득
전체 ¹⁾	504.3	562.8	170.9	199.8	578.3	130.3	17.3	2,163.7
지역								
동부	538.6	525.8	192.8	209.6	595.0	153.6	15.3	2,230.7
읍·면·부	407.2	667.9	108.8	172.1	530.8	64.2	22.7	1,973.7
성								
남자	771.8	937.1	225.6	166.8	748.5	186.4	17.3	3,053.5
여자	294.6	269.4	128.0	225.7	444.8	86.3	17.2	1,466.0
연령								
65~69세	962.5	1,096.8	180.0	141.2	558.4	117.7	14.7	3,071.2
70~74세	444.9	497.9	147.6	187.7	617.6	118.3	12.1	2,026.2
75~79세	265.0	259.1	240.4	221.7	619.2	139.7	25.3	1,770.3
80~84세	113.8	114.3	136.8	254.4	532.4	148.6	18.6	1,318.8
85~89세	58.3	75.8	135.7	298.4	563.2	166.0	24.7	1,322.1
90세 이상	48.6	19.1	91.5	343.2	504.5	130.8	14.1	1,151.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82.4	657.0	195.2	165.7	591.0	139.2	15.2	2,345.7
배우자 없음	387.2	421.5	134.5	251.0	559.3	116.9	20.3	1,890.7
가구형태								
노인독거	405.0	449.1	147.0	256.4	569.9	133.9	22.2	1,983.5
노인부부	570.0	646.9	198.2	164.4	591.2	136.0	14.5	2,321.2
자녀동거	452.0	451.5	116.5	220.5	522.0	100.4	9.7	1,872.6
기타	601.7	697.6	77.7	135.0	659.3	56.1	55.3	2,282.8
교육수준								
무학	95.4	101.5	54.5	230.2	467.1	45.2	15.3	1,009.1
초등학교	220.5	251.1	136.7	225.5	472.8	89.9	15.3	1,411.8
중학교	497.6	454.3	201.2	189.8	536.3	87.3	19.2	1,985.7
고등학교	830.9	967.9	207.7	176.2	622.8	145.3	20.9	2,971.7
전문대학 이상	931.1	1,152.3	257.6	178.6	1,126.9	505.1	6.4	4,158.1
현 취업상태								
취업중	1,161.9	1,363.8	144.7	144.6	502.7	76.7	13.0	3,407.4
미취업	83.9	50.7	187.7	235.1	626.7	164.5	20.0	1,368.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5.0	12.0	5.3	153.5	325.3	8.7	4.8	544.5
제2오분위	81.5	72.4	30.5	231.5	491.6	39.4	12.6	959.4
제3오분위	352.1	285.3	102.5	216.7	612.4	85.9	23.9	1,678.9
제4오분위	638.3	715.4	177.6	194.5	684.5	196.0	24.3	2,630.5
제5오분위	1,412.5	1,726.3	538.1	203.0	777.1	320.9	20.7	4,998.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2.0	33.4	18.6	173.1	393.5	23.5	14.4	708.6
50%이상~100%미만	317.0	295.7	95.8	226.2	599.7	113.3	23.2	1,671.0
100%이상~150%미만	728.1	734.2	187.8	192.6	684.2	165.3	18.6	2,710.8
150%이상	1,520.7	1,908.6	585.2	221.2	830.3	344.7	12.8	5,423.5
가능상태								
제한 있음	189.8	192.4	123.7	240.3	536.6	172.7	24.8	1,480.4
제한 없음	576.1	647.3	181.7	190.6	587.8	120.6	15.5	2,319.6
2020년도	375.8	267.4	171.8	215.8	428.7	97.9	0.2	1,557.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 해(2022.1.1.~2022.12.31.)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표 7-6> 소득원천별 구성 비율: 개인소득

(단위: %)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연금소득 ²⁾	기타소득	계
전체 ¹⁾	23.3	26.0	7.9	9.2	26.7	6.0	0.8	100.0
지역								
동부	24.1	23.6	8.6	9.4	26.7	6.9	0.7	100.0
읍·면부	20.6	33.8	5.5	8.7	26.9	3.3	1.2	100.0
성								
남자	25.3	30.7	7.4	5.5	24.5	6.1	0.6	100.0
여자	20.1	18.4	8.7	15.4	30.3	5.9	1.2	100.0
연령								
65~69세	31.3	35.7	5.9	4.6	18.2	3.8	0.5	100.0
70~74세	22.0	24.6	7.3	9.3	30.5	5.8	0.6	100.0
75~79세	15.0	14.6	13.6	12.5	35.0	7.9	1.4	100.0
80~84세	8.6	8.7	10.4	19.3	40.4	11.3	1.4	100.0
85~89세	4.4	5.7	10.3	22.6	42.6	12.6	1.9	100.0
90세 이상	4.2	1.7	7.9	29.8	43.8	11.4	1.2	10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4.8	28.0	8.3	7.1	25.2	5.9	0.6	100.0
배우자 없음	20.5	22.3	7.1	13.3	29.6	6.2	1.1	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20.4	22.6	7.4	12.9	28.7	6.8	1.1	100.0
노인부부	24.6	27.9	8.5	7.1	25.5	5.9	0.6	100.0
자녀동거	24.1	24.1	6.2	11.8	27.9	5.4	0.5	100.0
기타	26.4	30.6	3.4	5.9	28.9	2.5	2.4	100.0
교육수준								
무학	9.4	10.1	5.4	22.8	46.3	4.5	1.5	100.0
초등학교	15.6	17.8	9.7	16.0	33.5	6.4	1.1	100.0
중학교	25.1	22.9	10.1	9.6	27.0	4.4	1.0	100.0
고등학교	28.0	32.6	7.0	5.9	21.0	4.9	0.7	100.0
전문대학 이상	22.4	27.7	6.2	4.3	27.1	12.1	0.2	10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34.1	40.0	4.2	4.2	14.8	2.3	0.4	100.0
미취업	6.1	3.7	13.7	17.2	45.8	12.0	1.5	100.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4	2.2	1.0	28.2	59.7	1.6	0.9	100.0
제2오분위	8.5	7.5	3.2	24.1	51.2	4.1	1.3	100.0
제3오분위	21.0	17.0	6.1	12.9	36.5	5.1	1.4	100.0
제4오분위	24.3	27.2	6.7	7.4	26.0	7.5	0.9	100.0
제5오분위	28.3	34.5	10.8	4.1	15.5	6.4	0.4	100.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3	4.7	2.6	24.4	55.5	3.3	2.0	100.0
50%이상~100%미만	19.0	17.7	5.7	13.5	35.9	6.8	1.4	100.0
100%이상~150%미만	26.9	27.1	6.9	7.1	25.2	6.1	0.7	100.0
150%이상	28.0	35.2	10.8	4.1	15.3	6.4	0.2	100.0
기능상태								
제한 있음	12.8	13.0	8.4	16.2	36.2	11.7	1.7	100.0
제한 없음	24.8	27.9	7.8	8.2	25.3	5.2	0.7	100.0
2020년도	24.1	17.2	11.0	13.9	27.5	6.3	0.0	100.0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 해(2022.1.1.~2022.12.31.)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의 경우 공적이전소득(46.3%)과 사적이전소득(22.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근로소득(28.0%)과 사업소득(32.6%)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으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인다. 또한, 기능상태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는 근로소득(24.8%)과 사업소득(27.9%)의 비중이 높고, 제한이 있는 경우는 사적이전소득(16.2%)과 공적이전소득(36.2%), 사적연금소득(11.7%)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표 7-7> 에서 총 가구소득에서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의 80~100%인 경우가 48.2%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이 가구소득 40~60% 미만인 15.2%이다. 총 가구소득에서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67.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평균 비중이 동부의 67.1%에 비하여 읍·면부 노인은 69.5%로 읍·면부 노인에게서 가구소득 대비 노인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또한, 성별로도 남자 노인 74.8%, 여자 노인 62.2%로 남자 노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 노인은 개인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80~100%인 경우 53.0%, 가구소득의 20% 미만인 경우 5.0%이다. 반면 여자 노인은 가구소득 80~100%가 44.4%, 가구소득의 20% 미만 19.3%로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가구소득에서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두드러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 유배우 노인 평균 비중은 58.0%이지만 무배우 노인은 82.4%에 달하고 있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독거가구의 경우 대부분인 85.6%가 본인의 소득이 가구소득의 80~1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가구에서 본인의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가 아닌 것은 가구형태의 조사시점과 소득의 조사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구형태는 조사년도인 2023년, 소득은 작년 한 해(2022년)를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 가구소득의 80~100%를 차지하는 비율은 32.5%, 자녀동거가구는 16.2%, 기타 가구는 28.2%이다.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가구소득 20% 미만 비중이 38.7%로 나타나 가구형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독거가구는 개인이 스스로의 소득을 충당하고 있었으며 자녀동거가구는 자녀의 경제적 부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개인소득이 가구소득의 20% 미만인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취업유무에 따라 비교해 보면, 취업 노인 보다 미취업 노인의 경

우 노인 본인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각각 5.1%, 18.1%).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이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중위소득 50%미만 노인의 평균 비중이 71.5%에서 중위소득 100% 이상~150% 미만 노인 63.6%로 낮아진 후, 중위소득 150% 이상에서는 66.7%로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노인 스스로의 소득 외에도 다른 가구원으로부터의 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제한이 없는 경우 개인소득의 평균 비중이 68.3%로 제한이 있는 경우의 65.3%과 큰 차이는 없다. 또한, 기능상 제한이 없는 노인은 본인 소득이 가구소득의 80~100%를 차지하는 비율이 49.2%인 반면, 제한이 있는 노인은 가구소득의 60% 미만 비율이 4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 가구소득 중 개인소득의 비중

(단위: %, 명)

특성	가구소득 20% 미만	가구소득 20~40%	가구소득 40~60%	가구소득 60~80%	가구소득 80~100%	계 (명)	평균 비중
전체 ¹⁾	13.0	10.9	15.2	12.6	48.2	100.0 (10,078)	67.7
지역							
동부	13.6	10.9	15.7	12.4	47.5	100.0 (7,450)	67.1
읍·면부	11.4	11.1	14.0	13.3	50.1	100.0 (2,628)	69.5
성							
남자	5.0	6.4	16.1	19.5	53.0	100.0 (4,429)	74.8
여자	19.3	14.4	14.6	7.3	44.4	100.0 (5,649)	62.2
연령							
65~69세	14.9	10.5	14.9	12.0	47.6	100.0 (3,473)	66.4
70~74세	12.5	13.8	14.3	13.4	46.1	100.0 (2,377)	66.4
75~79세	10.7	9.8	16.2	13.7	49.6	100.0 (1,743)	69.5
80~84세	12.0	10.3	16.4	14.1	47.2	100.0 (1,407)	68.6
85~89세	13.4	9.7	16.3	8.6	52.0	100.0 (825)	69.6
90세 이상	12.5	4.8	11.7	12.3	58.6	100.0 (253)	7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5.6	14.6	20.8	17.4	31.5	100.0 (6,047)	58.0
배우자 없음	9.1	5.4	6.9	5.5	73.1	100.0 (4,031)	82.4
가구형태							
노인독거	2.0	2.0	5.4	5.1	85.6	100.0 (3,306)	92.2
노인부부	14.7	14.1	20.9	17.8	32.5	100.0 (5,562)	59.0
자녀동거	38.7	22.0	15.4	7.7	16.2	100.0 (1,035)	38.4
기타	17.1	13.9	20.9	19.8	28.2	100.0 (174)	56.3
교육수준							
무학	11.8	11.0	15.2	10.4	51.5	100.0 (1,240)	70.3
초등학교	13.0	12.7	15.9	12.0	46.4	100.0 (2,846)	66.8
중학교	15.2	10.0	15.9	12.3	46.6	100.0 (2,139)	65.9
고등학교	13.4	10.4	14.2	13.9	48.1	100.0 (3,145)	67.5
전문대학 이상	7.0	8.8	15.1	14.5	54.7	100.0 (707)	73.7
현 취업상태							
취업중	5.1	8.1	14.6	14.1	58.1	100.0 (3,931)	76.3
미취업	18.1	12.7	15.6	11.7	41.8	100.0 (6,147)	62.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7	3.7	14.8	8.4	66.4	100.0 (2,014)	80.5
제2오분위	3.8	14.8	21.5	17.9	42.0	100.0 (2,014)	69.4
제3오분위	12.2	13.2	13.2	13.8	47.5	100.0 (2,014)	67.4
제4오분위	22.5	10.0	8.9	9.6	49.0	100.0 (2,020)	63.1
제5오분위	20.0	12.9	17.8	13.5	35.8	100.0 (2,017)	58.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3	10.9	20.0	14.3	48.5	100.0 (3,776)	71.5
50%이상~100%미만	16.9	11.2	11.1	11.9	48.9	100.0 (2,801)	65.9
100%이상~150%미만	20.4	11.3	10.7	9.5	48.0	100.0 (1,673)	63.6
150%이상	14.2	10.1	15.9	13.2	46.5	100.0 (1,828)	66.7
기능상태							
제한 있음	13.8	11.9	18.6	12.1	43.6	100.0 (1,873)	65.3
제한 없음	12.9	10.7	14.5	12.8	49.2	100.0 (8,205)	68.3
2020년도	17.1	13.0	22.6	11.7	35.6	100.0 (10,097)	59.1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소득은 작년 한 해(2022.1.1.~2022.12.31.)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3. 응답 노인 외 가구원의 소득

〈표 7-8〉에서 응답 노인의 특성에 따라 그 외 가구원의 소득원별 유무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28.7%, 사업소득 16.3%, 재산소득 8.4%, 사적이전소득 57.8%, 공적연금 28.2%, 기초연금 49.3%, 기타공적급여 2.1%, 사적연금소득 5.3%, 기타소득 4.8%로 나타났다.

〈표 7-9〉와 〈표 7-10〉에서 그 외 가구원의 소득원천별 금액과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연간 총소득은 1,770.3만 원으로 근로소득 722.9만 원(40.8%), 사업소득 405.5만 원(22.9%), 공적이전소득 376.8만 원(21.3%), 사적이전소득 112.1만 원(6.3%), 재산소득 85.2만 원(4.8%), 사적연금소득 55.6만 원(3.1%), 기타소득 12.2만 원(0.7%) 순이다.

지역별로 그 외 가구원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동부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읍·면부 노인의 경우 사업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지역별 구성비 순서 차원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동부 노인은 근로소득(43.8%), 사업소득(20.6%)과 공적이전소득(20.6%), 사적이전소득(6.4%), 재산소득(4.5%), 사적연금소득(3.5%)의 순이며, 읍·면부 노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31.1%), 사업소득(30.5%), 공적이전소득(23.7%), 사적이전소득(6.2%), 재산소득(5.9%), 사적연금소득(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여자 노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군별 소득구성을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중은 낮아졌다 높아지는 U자형을 보인다. 반면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연금소득은 연령 증가에 따라 비중이 낮아지는 역U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이 공적이전소득(25.4%)과 사적이전소득(7.5%)의 비중이 높고, 무배우 노인은 근로소득(72.0%)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독거가구는 근로소득(87.6%)과 사적이전소득(10.9%)의 비중은 높고, 사업소득(0.0%)과 공적이전소득(1.5%)의 비중은 낮다. 반면 부부가구는 근로소득(27.7%)의 비중이 낮고, 공적이전소득(28.7%)과 재산소득(6.4%), 사적연금소득(4.0%)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 있다. 자녀동거가구는 독거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근로소득(66.6%)의 비중은 높은 반면 공적이전소득(6.6%)의 비중이 낮다. 기타 가구는 모든 가구형태 중 사업소득(25.6%)이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소득원천별 분포의 큰 차이가 없어서 두드러진 경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 노인은 미취업 노인에 비해 근로소득(43.5%)과 사업소득(29.3%) 비중이 높은 반면, 미취업 노인은 취업 노인에 비해 재산소득(6.5%)과 공적이전소득(24.0%)의 비중이 높다.

〈표 7-11〉에 기초하여 총 가구소득에서 그 외 가구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가구소득 20% 미만인 경우가 35.9%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은 가구소득 40~60%로 18.7%이다. 평균 비중은 39.6%이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이 39.1%로 읍·면부 노인 41.2%보다 조금 높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에는 그 외 가구원의 가구소득이 20% 미만인 경우는 50.3%인 반면, 여자 노인은 20.1%에 불과하다. 평균은 각각 25.5%와 55.0%이다. 즉 여자 노인의 경우 그 외 가구원의 소득 비중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그 외 가구원 소득 비중의 특별한 경향성이 없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경우 평균 비중이 39.5%로 무배우 노인 40.3%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유배우 노인은 무배우 노인과 비교하여 가구소득 80~100%(각각 14.0%, 27.8%), 가구소득 20% 미만(각각 34.1%, 45.8%)의 비율이 낮은 특성이 있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그 외 가구원의 소득이 가구소득의 평균 비중이 59.6%로 높고, 부부가구와 기타 가구는 이보다 낮은 38.3%와 37.0%이다.¹⁷⁾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중 그 외 가구원 소득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비중이 높아지다가 낮아지는 역U자형이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의 경우(45.5%)가 취업 노인(31.1%)보다 그 외 가구원의 소득 비중이 높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상 제한이 있는 경우(42.9%)가 기능상 제한이 없는 경우(38.9%)보다 그 외 가구원의 소득 비중이 높다.

17) 가구소득은 작년 한 해(2022.1.1.~2022.12.31.) 기준이므로, 가구형태의 항목과 시점 차이가 있으므로 독거가구에서도 그 외 가구원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음. 독거가구와 기타 가구의 경우 사례 수가 작아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표 7-8>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 응답 노인 외 가구원

(단위: %, 명)

특성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계	사적 연금 ²⁾ 소득	기타 소득	(명)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기타 공적 급여				
전체 ¹⁾	28.7	16.3	8.4	57.8	28.2	49.3	2.1	60.6	5.3	4.8	(7,132)
지역											
동부	29.1	13.0	9.1	54.9	27.9	45.5	1.8	57.9	5.8	4.2	(5,381)
읍·면부	27.5	26.6	6.2	66.5	29.1	60.9	3.0	69.2	3.7	6.5	(1,751)
성											
남자	23.5	10.2	6.3	61.6	16.2	50.7	0.8	57.3	3.2	4.7	(3,725)
여자	34.3	23.0	10.7	53.6	41.4	47.8	3.5	64.3	7.5	4.8	(3,407)
연령											
65~69세	34.1	22.0	8.5	56.5	30.8	41.5	1.3	56.8	5.1	4.4	(2,712)
70~74세	24.0	14.4	8.1	60.2	33.1	52.7	2.3	64.0	6.0	4.3	(1,796)
75~79세	23.4	11.4	8.2	62.3	26.1	59.8	2.5	67.5	6.3	5.4	(1,175)
80~84세	27.0	11.1	9.8	60.3	19.9	55.7	2.8	62.8	3.7	5.7	(886)
85~89세	33.6	13.3	8.3	44.3	16.6	46.7	3.7	52.7	3.8	5.3	(433)
90세 이상	23.0	14.2	3.3	36.5	21.7	35.4	0.8	44.6	3.6	3.8	(12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5.7	16.8	9.4	66.5	32.2	56.6	2.1	69.3	6.1	5.3	(6,042)
배우자 없음	45.3	13.9	3.2	9.2	6.1	8.8	1.6	12.4	0.8	2.0	(1,090)
가구형태											
노인독거	7.0	0.0	0.0	1.2	0.3	0.3	0.0	0.3	0.0	0.0	(364)
노인부부	23.0	16.1	9.2	67.3	32.3	57.7	2.0	70.0	6.0	5.4	(5,559)
자녀동거	66.2	22.5	7.4	27.1	16.8	20.6	2.7	31.6	3.0	3.0	(1,035)
기타	30.2	19.8	6.5	53.7	23.4	55.7	6.1	61.0	4.9	5.6	(174)
교육수준											
무학	34.4	20.2	8.7	57.0	26.4	61.7	3.7	65.3	4.2	6.1	(571)
초등학교	27.7	17.4	7.6	56.7	27.4	58.9	3.2	65.5	4.5	5.4	(1,836)
중학교	26.8	14.2	7.8	60.2	29.2	54.2	2.3	64.4	5.0	4.0	(1,607)
고등학교	30.1	16.8	8.7	57.1	28.5	41.7	1.0	56.8	6.0	5.2	(2,532)
전문대학 이상	24.7	12.9	10.9	57.7	28.7	26.6	0.9	47.1	6.2	1.6	(586)
현 취업상태											
취업중	33.3	23.8	6.7	59.8	24.6	49.4	1.3	60.4	3.7	4.4	(2,912)
미취업	25.4	11.2	9.6	56.4	30.7	49.2	2.6	60.8	6.4	5.0	(4,22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6	2.4	1.4	33.4	5.9	33.7	0.5	36.7	2.9	1.4	(835)
제2오분위	12.8	7.9	4.1	63.2	27.4	71.5	3.6	76.2	3.6	4.1	(1,251)
제3오분위	21.9	14.2	8.8	66.0	34.6	66.0	2.7	73.2	4.2	5.6	(1,496)
제4오분위	32.5	17.3	9.6	59.8	29.6	45.0	1.8	58.3	6.9	6.4	(1,701)
제5오분위	51.8	29.2	13.0	56.5	32.4	31.8	1.5	52.9	6.8	4.5	(1,84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0.9	6.4	3.9	53.5	20.9	57.8	2.3	61.9	3.4	4.7	(2,371)
50%이상~100%미만	26.7	15.1	8.7	61.7	30.7	57.0	2.8	65.8	4.9	5.4	(2,054)
100%이상~150%미만	40.1	20.0	11.0	58.6	32.0	42.4	1.3	59.0	7.0	5.1	(1,306)
150%이상	50.9	31.6	13.3	58.4	33.4	30.2	1.4	52.4	7.4	3.6	(1,401)
기능상태											
제한 있음	28.4	13.0	7.7	52.1	25.9	50.5	2.7	59.0	5.7	6.4	(1,249)
제한 없음	28.7	17.0	8.6	59.0	28.7	49.0	1.9	61.0	5.2	4.4	(5,883)
2020년도	35.3	10.4	24.5	92.2	21.2	44.5	11.2	55.7	7.2	0.0	(8,083)

주: 1) 2022년 기준 그 외 가구원 7,132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 해(2022.1.1.~2022.12.31.)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표 7-9> 연간 총소득, 소득원천별 금액: 응답 노인 외 가구원

(단위: 만 원)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연금소득 ²⁾	기타소득	연 총소득
전체 ¹⁾	722.9	405.5	85.2	112.1	376.8	55.6	12.2	1,770.3
지역								
동부	790.2	372.5	81.1	115.2	371.2	64.0	11.2	1,805.4
읍·면부	516.4	507.1	97.6	102.5	394.0	29.7	15.2	1,662.7
성								
남자	479.5	194.6	39.4	120.7	235.3	27.8	9.9	1,107.4
여자	989.1	636.2	135.2	102.6	531.6	85.9	14.6	2,495.3
연령								
65~69세	916.8	620.7	77.4	94.4	380.1	44.7	9.7	2,143.7
70~74세	542.6	310.7	73.0	114.8	424.4	71.8	13.9	1,551.2
75~79세	488.7	210.6	86.3	127.8	384.0	80.9	14.1	1,392.5
80~84세	618.8	196.2	160.4	138.4	317.6	38.3	16.1	1,485.7
85~89세	1,110.4	404.3	49.2	113.8	292.4	33.3	9.1	2,012.5
90세 이상	708.0	421.0	12.6	116.0	271.8	21.1	7.2	1,557.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48.5	398.3	95.1	125.0	423.4	63.3	12.4	1,665.9
배우자 없음	1,690.2	446.0	30.0	40.5	118.9	12.6	11.0	2,349.2
가구형태								
노인독거	138.4	0.0	0.0	17.3	2.4	0.0	0.0	158.0
노인부부	408.8	352.6	95.1	123.8	423.0	59.2	12.2	1,474.8
자녀동거	2,626.6	829.4	72.0	81.5	258.9	63.0	12.9	3,944.2
기타	652.5	421.7	25.1	117.1	385.8	11.1	34.3	1,647.5
교육수준								
무학	726.5	389.7	29.4	126.4	346.2	29.1	16.1	1,663.4
초등학교	654.6	303.3	106.6	105.3	346.6	37.4	11.7	1,565.5
중학교	648.7	344.5	79.0	109.0	387.2	42.0	8.3	1,618.7
고등학교	801.7	524.0	87.1	115.5	372.5	64.5	16.7	1,982.1
전문대학 이상	796.9	397.1	81.1	112.7	491.8	136.7	1.1	2,017.4
현 취업상태								
취업중	743.2	500.2	37.1	101.6	292.2	24.9	8.1	1,707.3
미취업	709.0	340.2	118.4	119.3	435.2	76.7	15.0	1,813.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8	4.2	2.2	33.0	91.2	4.4	1.1	149.1
제2오분위	46.2	33.0	10.8	102.9	320.2	12.6	5.2	530.9
제3오분위	223.2	174.1	44.3	132.5	426.7	27.3	14.0	1,042.1
제4오분위	736.1	387.5	79.1	109.2	407.9	76.2	13.6	1,809.5
제5오분위	1,893.8	1,042.7	211.7	140.1	475.3	111.7	19.1	3,894.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1.4	29.7	9.3	85.0	248.7	9.3	10.4	433.8
50%이상~100%미만	460.3	247.7	54.7	115.8	408.4	46.0	15.8	1,348.6
100%이상~150%미만	1,182.2	490.0	108.9	114.4	436.6	81.2	13.6	2,426.9
150%이상	1,833.5	1,194.3	236.3	150.3	491.8	124.0	8.6	4,038.7
가능상태								
제한 있음	701.6	295.8	60.2	119.0	333.5	55.8	17.4	1,583.2
제한 없음	727.5	428.9	90.5	110.6	386.0	55.5	11.1	1,810.1
2020년도	876.8	247.4	153.3	172.3	278.7	75.1	1.5	1,805.2

주: 1) 2022년 기준 그 외 가구원 7,132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 해(2022.1.1.~2022.12.31.)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표 7-10> 소득원천별 구성 비율: 응답 노인 외 가구원

(단위: %)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연금소득 ²⁾	기타소득	연 총소득
전체 ¹⁾	40.8	22.9	4.8	6.3	21.3	3.1	0.7	100.0
지역								
동부	43.8	20.6	4.5	6.4	20.6	3.5	0.6	100.0
읍·면부	31.1	30.5	5.9	6.2	23.7	1.8	0.9	100.0
성								
남자	43.3	17.6	3.6	10.9	21.3	2.5	0.9	100.0
여자	39.6	25.5	5.4	4.1	21.3	3.4	0.6	100.0
연령								
65~69세	42.8	29.0	3.6	4.4	17.7	2.1	0.5	100.0
70~74세	35.0	20.0	4.7	7.4	27.4	4.6	0.9	100.0
75~79세	35.1	15.1	6.2	9.2	27.6	5.8	1.0	100.0
80~84세	41.7	13.2	10.8	9.3	21.4	2.6	1.1	100.0
85~89세	55.2	20.1	2.4	5.7	14.5	1.7	0.5	100.0
90세 이상	45.5	27.0	0.8	7.4	17.4	1.4	0.5	10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2.9	23.9	5.7	7.5	25.4	3.8	0.7	100.0
배우자 없음	72.0	19.0	1.3	1.7	5.1	0.5	0.5	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87.6	0.0	0.0	10.9	1.5	0.0	0.0	100.0
노인부부	27.7	23.9	6.4	8.4	28.7	4.0	0.8	100.0
자녀동거	66.6	21.0	1.8	2.1	6.6	1.6	0.3	100.0
기타	39.6	25.6	1.5	7.1	23.4	0.7	2.1	100.0
교육수준								
무학	43.7	23.4	1.8	7.6	20.8	1.7	1.0	100.0
초등학교	41.8	19.4	6.8	6.7	22.1	2.4	0.7	100.0
중학교	40.1	21.3	4.9	6.7	23.9	2.6	0.5	100.0
고등학교	40.4	26.4	4.4	5.8	18.8	3.3	0.8	100.0
전문대학 이상	39.5	19.7	4.0	5.6	24.4	6.8	0.1	10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43.5	29.3	2.2	5.9	17.1	1.5	0.5	100.0
미취업	39.1	18.8	6.5	6.6	24.0	4.2	0.8	100.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6	2.8	1.5	22.2	61.2	3.0	0.8	100.0
제2오분위	8.7	6.2	2.0	19.4	60.3	2.4	1.0	100.0
제3오분위	21.4	16.7	4.3	12.7	41.0	2.6	1.3	100.0
제4오분위	40.7	21.4	4.4	6.0	22.5	4.2	0.8	100.0
제5오분위	48.6	26.8	5.4	3.6	12.2	2.9	0.5	100.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5	6.9	2.1	19.6	57.3	2.2	2.4	100.0
50%이상~100%미만	34.1	18.4	4.1	8.6	30.3	3.4	1.2	100.0
100%이상~150%미만	48.7	20.2	4.5	4.7	18.0	3.3	0.6	100.0
150%이상	45.4	29.6	5.9	3.7	12.2	3.1	0.2	100.0
기능상태								
제한 있음	44.3	18.7	3.8	7.5	21.1	3.5	1.1	100.0
제한 없음	40.2	23.7	5.0	6.1	21.3	3.1	0.6	100.0
2020년도	48.6	13.7	8.5	9.5	15.4	4.2	0.1	100.0

주: 1) 2022년 기준 그 외 가구원 7,132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 해(2022.1.1.~2022.12.31.)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표 7-11> 가구소득 중 응답 노인 외 가구원 소득의 비중

(단위: %, 명)

특성	가구소득 20% 미만	가구소득 20~40%	가구소득 40~60%	가구소득 60~80%	가구소득 80~100%	계 (명)	평균 비중
전체 ¹⁾	35.9	16.3	18.7	13.0	16.1	100.0 (7,132)	39.6
지역							
동부	36.9	15.8	18.8	12.5	16.1	100.0 (5,381)	39.1
읍·면부	32.8	18.0	18.5	14.6	16.1	100.0 (1,751)	41.2
성							
남자	50.3	22.5	17.4	5.8	3.9	100.0 (3,725)	25.5
여자	20.1	9.5	20.1	20.8	29.5	100.0 (3,407)	55.0
연령							
65~69세	38.7	14.1	17.9	12.0	17.3	100.0 (2,712)	39.0
70~74세	37.4	17.0	16.3	15.5	13.9	100.0 (1,796)	38.4
75~79세	35.3	19.9	20.4	11.5	12.8	100.0 (1,175)	37.9
80~84세	27.1	20.2	22.4	13.2	17.1	100.0 (886)	43.0
85~89세	29.4	9.0	24.3	14.2	23.1	100.0 (433)	46.4
90세 이상	42.6	17.8	8.9	7.7	22.9	100.0 (129)	36.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4.1	18.4	20.4	13.1	14.0	100.0 (6,042)	39.5
배우자 없음	45.8	4.9	9.2	12.3	27.8	100.0 (1,090)	40.3
가구형태							
노인독거	94.5	1.1	2.4	0.4	1.5	100.0 (364)	3.5
노인부부	35.3	18.8	20.4	12.5	13.0	100.0 (5,559)	38.3
자녀동거	18.4	7.7	14.7	20.7	38.5	100.0 (1,035)	59.6
기타	36.8	20.3	20.3	9.6	12.9	100.0 (174)	37.0
교육수준							
무학	18.7	14.9	24.8	18.0	23.6	100.0 (571)	51.3
초등학교	29.7	17.1	19.8	16.1	17.3	100.0 (1,836)	43.2
중학교	37.5	15.3	19.4	10.9	16.9	100.0 (1,607)	39.2
고등학교	40.3	16.4	16.5	11.7	15.1	100.0 (2,532)	37.0
전문대학 이상	48.4	17.7	16.8	9.5	7.7	100.0 (586)	29.0
현 취업상태							
취업중	45.4	17.9	19.3	10.6	6.8	100.0 (2,912)	31.1
미취업	29.3	15.2	18.2	14.6	22.6	100.0 (4,220)	45.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7.5	13.1	22.2	5.3	1.9	100.0 (835)	21.2
제2오분위	25.1	27.9	28.3	15.5	3.2	100.0 (1,251)	37.0
제3오분위	33.5	17.6	17.0	15.8	16.0	100.0 (1,496)	41.2
제4오분위	40.9	10.6	10.4	11.6	26.5	100.0 (1,701)	43.0
제5오분위	30.7	14.1	19.6	13.7	21.9	100.0 (1,849)	45.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6.8	21.6	25.8	12.2	3.6	100.0 (2,371)	32.0
50%이상~100%미만	38.0	14.0	12.1	13.3	22.6	100.0 (2,054)	42.2
100%이상~150%미만	35.1	10.7	13.8	14.1	26.2	100.0 (1,306)	45.9
150%이상	31.8	16.0	20.9	12.8	18.5	100.0 (1,401)	42.6
기능상태							
제한 있음	30.5	15.6	21.6	13.8	18.5	100.0 (1,249)	42.9
제한 없음	37.0	16.5	18.1	12.8	15.6	100.0 (5,883)	38.9
2020년도	17.9	12.0	21.7	12.0	36.4	100.0 (8,083)	48.9

주: 1) 2022년 기준 그 외 가구원 7,132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소득은 작년 한 해(2022.1.1.~2022.12.31.)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제2절 자산과 부채

1. 자산

〈표 7-12〉에 의하면 노인의 97.0%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보유주택, 전세/사무실보증금, 논, 밭, 임야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노인 기준으로 부동산 규모는 3억 1,817.3만 원이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97.4%)이 읍·면부 노인(95.9%)보다 부동산 보유율도 높고, 보유 부동산의 가격도 동부 노인의 경우 3억 6,880.1만 원으로 읍·면부 노인의 1억 7,462.7만 원으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98.1%)이 여자 노인(96.2%)보다 보유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부동산 규모 또한, 남자 노인은 3억 4,429.6만 원으로 여자 노인 2억 9,769.1만 원보다 높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 보유율이 낮은 경향성이 있어서, 65~69세 연령군이 98.8%, 75~79세 연령군이 97.5%, 90세 이상 연령군이 91.7%이다. 보유 부동산의 가격은 연령대별 뚜렷한 경향성이 없지만, 90세 이상이 3억 6,266.3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65~69세 3억 3,644.0만 원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보유율은 98.6%, 무배우 노인은 94.8%로 나타나 유배우 노인의 보유율이 다소 높은 편이며 보유 부동산 규모 또한 유배우 노인이 3억 5,579.9만 원으로 무배우 노인의 2억 6,173.2만 원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의 경우 부동산 보유율이 98.5%로 가장 높고, 독거가구는 94.4%로 가장 낮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는 기타 가구에서 2억 2,522.7만 원으로 가장 낮다. 자녀동거가구 4억 1,912.7만 원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다, 교육 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동산 보유율이나 보유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학의 보유율은 91.6%, 부동산 가격은 1억 4,177.8만 원으로 가장 낮다. 반면에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부동산 보유율은 98.7%로 가장 높고, 가격 또한 6억 8,755.3만 원으로 무학의 경우보다 4배 이상 높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 노인의 부동산 보유율은 98.3%로 미취업 노인의 96.2%보다 2.1%포인트 높지만, 규모의 경우 취업 노인이 2억 9,220.3만 원으로 미취업 노인의 3억 3,477.8만 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동산 보유율이 더 높고, 부동산 가치 역시 더 크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의 부동산 보유율은 94.3%이며, 부동산 금액은 1억 9,970.4만 원이다. 반면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중위소득 150% 이상은 부동산 보유율 99.5%, 부동산 금액 5억 4,968.5만 원이다. 기능상의 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 부동산 보유율이 97.8%로,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노인 93.7%보다 높은 부동산 보유율을 보인다. 부동산 규모도 제한이 없는 노인 3억 2,727.6만 원으로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 2억 7,828.7만 원보다 높다.

〈표 7-13〉은 노인의 금융자산 유무와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노인의 75.1%는 금융자산이 있으며, 전체 응답 노인 기준 금융자산의 평균 규모는 4,912.3만 원이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금융자산 보유율이 74.3%로 읍·면부 노인의 금융자산 보유율 77.2%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자산 규모는 동부 노인이 5,279.6만 원으로 읍·면부 노인의 3,870.7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금융자산 보유율이 77.1%로 여자 노인의 73.5%보다 높고, 금융자산 규모 또한 남자 노인이 더 높다(남자 노인 5,662.2만 원, 여자 노인 4,324.3만 원). 연령군별 금융자산 보유율과 규모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65~69세 연령군의 보유율 77.9% 규모 5,522.9만 원이다.

가구형태별 금융자산 보유 비율은 자녀동거가구가 81.1%로 가장 높고, 금융자산 보유금액도 6,809.1만 원으로 가장 많다. 독거가구의 경우 부동산 보유율이 기타 가구 74.2% 다음으로 낮은 67.9%이며, 부동산 규모도 3,293.1만 원으로 가장 작다. 교육수준별 금융자산 보유 비율과 규모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11,295.4만 원(86.2%)으로 무학 2,306.9만 원(68.3%)의 약 3배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의 금융자산 보유율은 81.1%로 미취업 노인의 71.3%보다 높고, 규모도 취업 노인이 5,128.5만 원으로 미취업 노인의 4,774.1만 원보다 높았다.

가구소득별 부동산 보유 비율과 규모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다. 중위소득 150% 이상 노인의 경우 9,044.5만 원(86.1%)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 2,808.1만 원(65.3%)에 비해 약 3배 높다.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없는 노인의 금융자산 보유율과 규모가 높아서 76.4%와 5,126.7만 원이다(제한 있음 69.3%, 3,973.0만 원).

<표 7-12> 부동산 보유 유무 및 보유 부동산 규모

(단위: %, 명, 만 원)

특성	보유 유무			부동산 규모 (전체)	부동산 규모 (보유자) ²⁾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¹⁾	97.0	3.0	100.0 (10,078)	31,817.3	32,789.5
지역					
동부	97.4	2.6	100.0 (7,450)	36,880.1	37,852.7
읍·면부	95.9	4.1	100.0 (2,628)	17,462.7	18,206.9
성					
남자	98.1	1.9	100.0 (4,429)	34,429.6	35,095.8
여자	96.2	3.8	100.0 (5,649)	29,769.1	30,945.5
연령					
65~69세	98.8	1.2	100.0 (3,473)	33,644.0	34,038.9
70~74세	97.8	2.2	100.0 (2,377)	30,603.2	31,288.0
75~79세	97.5	2.5	100.0 (1,743)	31,677.3	32,473.9
80~84세	95.2	4.8	100.0 (1,407)	30,205.8	31,713.5
85~89세	90.8	9.2	100.0 (825)	29,304.3	32,269.9
90세 이상	91.7	8.3	100.0 (253)	36,266.3	39,550.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8.6	1.4	100.0 (6,047)	35,579.9	36,101.1
배우자 없음	94.8	5.2	100.0 (4,031)	26,173.2	27,6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94.4	5.6	100.0 (3,306)	24,188.6	25,629.0
노인부부	98.5	1.5	100.0 (5,562)	34,763.1	35,289.0
자녀동거	97.7	2.3	100.0 (1,035)	41,912.7	42,879.7
기타	96.1	3.9	100.0 (174)	22,522.7	23,436.1
교육수준					
무학	91.6	8.4	100.0 (1,240)	14,177.8	15,485.5
초등학교	96.6	3.4	100.0 (2,846)	25,276.3	26,171.2
중학교	98.2	1.8	100.0 (2,139)	28,739.7	29,276.8
고등학교	98.5	1.5	100.0 (3,145)	38,477.5	39,081.0
전문대학 이상	98.7	1.3	100.0 (707)	68,755.3	69,638.3
현 취업상태					
취업중	98.3	1.7	100.0 (3,931)	29,220.3	29,725.7
미취업	96.2	3.8	100.0 (6,147)	33,477.8	34,790.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2.9	7.1	100.0 (2,014)	18,496.4	19,908.9
제2오분위	95.5	4.5	100.0 (2,014)	18,514.7	19,396.0
제3오분위	98.0	2.0	100.0 (2,014)	28,564.8	29,156.9
제4오분위	99.3	0.7	100.0 (2,020)	38,124.8	38,410.0
제5오분위	99.6	0.4	100.0 (2,017)	55,323.8	55,560.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4.3	5.7	100.0 (3,776)	19,970.4	21,169.1
50%이상~100%미만	97.9	2.1	100.0 (2,801)	26,944.1	27,525.3
100%이상~150%미만	99.0	1.0	100.0 (1,673)	41,417.6	41,818.8
150%이상	99.5	0.5	100.0 (1,828)	54,968.5	55,265.2
기능상태					
제한 있음	93.7	6.3	100.0 (1,873)	27,828.7	29,697.6
제한 없음	97.8	2.2	100.0 (8,205)	32,727.6	33,465.7
2020년도	96.6	3.4	100.0 (10,097)	26,182.7	27,110.4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부동산 보유 유무에 있음으로 응답한 9,779명을 대상으로 함.

<표 7-13> 금융자산 보유 유무 및 보유 금융자산 규모

(단위: %, 명, 만 원)

특성	보유 유무			금융자산 규모 (전체)	금융자산 규모 (보유자) ²⁾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¹⁾	75.1	24.9	100.0 (10,078)	4,912.3	6,542.2
지역					
동부	74.3	25.7	100.0 (7,450)	5,279.6	7,102.4
읍·면부	77.2	22.8	100.0 (2,628)	3,870.7	5,013.2
성					
남자	77.1	22.9	100.0 (4,429)	5,662.2	7,344.2
여자	73.5	26.5	100.0 (5,649)	4,324.3	5,882.8
연령					
65~69세	77.9	22.1	100.0 (3,473)	5,522.9	7,092.9
70~74세	74.0	26.0	100.0 (2,377)	4,883.9	6,602.5
75~79세	75.9	24.1	100.0 (1,743)	4,632.0	6,103.9
80~84세	76.1	23.9	100.0 (1,407)	4,530.3	5,953.2
85~89세	67.8	32.2	100.0 (825)	3,948.9	5,823.8
90세 이상	60.0	40.0	100.0 (253)	3,996.9	6,659.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8.6	21.4	100.0 (6,047)	5,735.4	7,292.8
배우자 없음	69.7	30.3	100.0 (4,031)	3,677.6	5,272.8
가구형태					
노인독거	67.9	32.1	100.0 (3,306)	3,293.1	4,848.7
노인부부	78.2	21.8	100.0 (5,562)	5,566.4	7,113.8
자녀동거	81.1	18.9	100.0 (1,035)	6,809.1	8,391.9
기타	74.2	25.8	100.0 (174)	3,480.8	4,691.3
교육수준					
무학	68.3	31.7	100.0 (1,240)	2,306.9	3,379.0
초등학교	72.0	28.0	100.0 (2,846)	3,628.3	5,041.0
중학교	73.4	26.6	100.0 (2,139)	4,361.3	5,940.6
고등학교	79.2	20.8	100.0 (3,145)	6,040.7	7,625.0
전문대학 이상	86.2	13.8	100.0 (707)	11,295.4	13,103.3
현 취업상태					
취업중	81.1	18.9	100.0 (3,931)	5,128.5	6,325.3
미취업	71.3	28.7	100.0 (6,147)	4,774.1	6,700.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9.8	40.2	100.0 (2,014)	2,274.3	3,805.7
제2오분위	69.3	30.7	100.0 (2,014)	2,767.6	3,995.7
제3오분위	77.6	22.4	100.0 (2,014)	4,456.7	5,746.3
제4오분위	82.3	17.7	100.0 (2,020)	5,898.8	7,165.4
제5오분위	86.5	13.5	100.0 (2,017)	9,153.3	10,584.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5.3	34.7	100.0 (3,776)	2,808.1	4,303.0
50%이상~100%미만	75.5	24.5	100.0 (2,801)	4,294.6	5,686.1
100%이상~150%미만	84.5	15.5	100.0 (1,673)	6,180.5	7,314.8
150%이상	86.1	13.9	100.0 (1,828)	9,044.5	10,505.0
가능상태					
제한 있음	69.3	30.7	100.0 (1,873)	3,973.0	5,729.0
제한 없음	76.4	23.6	100.0 (8,205)	5,126.7	6,710.7
2020년도	77.8	22.2	100.0 (10,097)	3,212.8	4,130.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금융자산 보유 유무에 있음으로 응답한 7,567명을 대상으로 함.

노인 중 기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38.1%이며, 평균 기타자산 규모는 834.6만 원으로 나타났다(〈표 7-14〉 참조).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동부 노인의 기타자산 보유율은 35.8%로 읍·면부 노인의 44.6%보다 낮고, 기타자산 규모도 동부 노인 831.1만 원으로 읍·면부 노인의 842.7만 원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타자산을 보유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치는 동부 노인 2,322.2만 원으로 읍·면부 노인의 1,890.0만 원보다 많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1,075.4만 원(45.4%), 여자 노인이 645.8만 원(32.3%)으로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기타자산 규모와 보유율이 크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기타자산 보유율과 규모가 높은 경향이 있다. 65~69세 연령군의 기타자산 보유율과 규모가 가장 높아서 각각 53.3%와 1,351.3만 원인 반면, 보유율은 85~89세(20.0%), 규모는 80~84세 연령군(384.3만 원)에서 가장 낮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경우 무배우 노인보다 기타자산 보유 비율과 규모가 높다. 유배우 노인의 기타자산은 1,063.0만 원(46.7%), 무배우 노인의 기타자산은 491.9만 원(25.2%)이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의 기타자산 보유율과 규모가 가장 높고(각각 52.1%, 1,350.3만 원), 독거가구가 가장 낮다(각각 20.5%, 364.0만 원).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타자산 보유 비율과 규모가 커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의 경우 2,001.4만 원(59.9%)으로 무학 328.0만 원(22.0%)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 노인의 기타자산 보유율은 53.0%로 미취업 노인의 28.6%보다 24.4%포인트 높으며, 규모 역시 취업 노인이 1,241.9만 원으로 미취업 노인의 574.1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타자산의 규모가 커서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노인의 경우 281.9만 원(19.9%)지만,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 노인의 경우 2,093.6만 원(63.2%)에 달하고 있다. 한편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기타자산 보유율과 규모가 높아서 각각 41.4%, 917.6만 원이다.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기타자산 보유율은 23.4%, 기타자산 규모는 470.6만 원이다.

<표 7-14> 기타자산 보유 유무 및 보유 기타자산 규모

(단위: %, 명, 만 원)

특성	보유유무			기타자산 규모 (전체)	기타자산 규모 (보유자) ²⁾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¹⁾	38.1	61.9	100.0 (10,078)	834.6	2,190.4
지역					
동부	35.8	64.2	100.0 (7,450)	831.7	2,322.2
읍·면부	44.6	55.4	100.0 (2,628)	842.7	1,890.0
성					
남자	45.4	54.6	100.0 (4,429)	1,075.4	2,366.2
여자	32.3	67.7	100.0 (5,649)	645.8	1,996.7
연령					
65~69세	53.3	46.7	100.0 (3,473)	1,351.3	2,535.6
70~74세	37.1	62.9	100.0 (2,377)	758.6	2,042.1
75~79세	30.0	70.0	100.0 (1,743)	530.5	1,768.4
80~84세	25.4	74.6	100.0 (1,407)	384.3	1,513.7
85~89세	20.0	80.0	100.0 (825)	403.4	2,016.7
90세 이상	24.1	75.9	100.0 (253)	460.8	1,910.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6.7	53.3	100.0 (6,047)	1,063.0	2,277.2
배우자 없음	25.2	74.8	100.0 (4,031)	491.9	1,949.3
가구형태					
노인독거	20.5	79.5	100.0 (3,306)	364.0	1,772.9
노인부부	45.8	54.2	100.0 (5,562)	1,021.6	2,231.7
자녀동거	52.1	47.9	100.0 (1,035)	1,350.3	2,589.4
기타	43.0	57.0	100.0 (174)	726.3	1,690.6
교육수준					
무학	22.0	78.0	100.0 (1,240)	328.0	1,488.4
초등학교	29.5	70.5	100.0 (2,846)	495.9	1,681.1
중학교	36.9	63.1	100.0 (2,139)	750.3	2,032.5
고등학교	48.1	51.9	100.0 (3,145)	1,135.7	2,360.2
전문대학 이상	59.9	40.1	100.0 (707)	2,001.4	3,339.1
현 취업상태					
취업중	53.0	47.0	100.0 (3,931)	1,241.9	2,345.3
미취업	28.6	71.4	100.0 (6,147)	574.1	2,007.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4.4	85.6	100.0 (2,014)	203.4	1,415.3
제2오분위	21.2	78.8	100.0 (2,014)	267.6	1,260.9
제3오분위	39.6	60.4	100.0 (2,014)	587.3	1,484.2
제4오분위	50.4	49.6	100.0 (2,020)	996.2	1,975.7
제5오분위	64.8	35.2	100.0 (2,017)	2,115.6	3,262.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9.9	80.1	100.0 (3,776)	281.9	1,415.5
50%이상~100%미만	38.1	61.9	100.0 (2,801)	614.0	1,613.0
100%이상~150%미만	51.8	48.2	100.0 (1,673)	1,075.5	2,076.2
150%이상	63.2	36.8	100.0 (1,828)	2,093.6	3,313.6
가능상태					
제한 있음	23.4	76.6	100.0 (1,873)	470.6	2,007.7
제한 없음	41.4	58.6	100.0 (8,205)	917.6	2,213.9
2020년도	45.6	54.4	100.0 (10,097)	1,120.1	2,490.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기타자산 보유 유무에 있음으로 응답한 3,840명을 대상으로 함.

2. 부채

〈표 7-15〉는 가구의 부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 중에 가구 부채가 있는 비율은 20.4%이며 부채 규모는 1135.7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부채 보유율과 읍·면부 노인의 부채 보유율은 각각 20.3%와 20.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부채 규모는 동부 노인이 1,203.3만 원으로 읍·면부 노인의 943.9만 원보다 많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부채 보유율이 23.3%이며 규모는 1,323.8만 원으로, 여자 노인의 부채 보유율 18.0%와 규모 988.2만 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채 보유율이 높고, 부채 수준 또한 연령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65~69세 연령군은 1,720.5만 원(28.6%), 70~74세 연령군은 964.7만 원(19.1%), 75~79세 연령군은 779.9만 원(15.6%), 80~84세 678.4만 원(13.2%), 85~89세 775.2만 원(13.1%)이다. 그러나 9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부채 수준이 증가하여 883.7만 원(14.2%)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부채 비율(23.4%)과 부채 규모(1,359.2만 원)가 더 높다. 또한, 가구 형태별 부채 보유 비율을 보면, 독거가구의 부채 비율이 14.1%로 가장 낮으며, 기타 가구 19.3%, 부부가구 22.7%, 자녀동거가구 27.7%의 순으로 높다. 부채 규모 역시 독거가구가 681.2만 원으로 가장 적다. 그다음 기타 가구 1,107.7만 원, 부부가구 1,228.5만 원, 자녀동거가구 2,082.5만 원 순으로 부채 규모가 크다.

교육수준별 부채 보유 규모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으며, 비율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부채 보유 비율이 가장 큰 유형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으로 26.7%이며, 부채 규모는 2,647.3만 원이다. 반대로 무학 노인은 부채 비율 11.9%, 부채 규모 584.2만 원으로 가장 낮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의 부채 보유율은 27.3%로 미취업 노인의 15.9%보다 높으며, 규모 역시 취업 노인이 1,536.9만 원으로 미취업 노인의 879.1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 비율과 규모가 높다. 중위소득 150% 이상 노인의 경우 2,628.0만 원(35.2%)이며,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 522.5만 원(11.4%)으로 차이가 크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 부채 보유율이 20.9%로 더 높고, 부채 규모도 1,186만 원으로 더 높다.

<표 7-15> 부채 보유 유무 및 부채 규모

(단위: %, 명, 만 원)

특성	보유 유무			부채 규모 (전체)	부채 규모 (보유자) ²⁾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¹⁾	20.4	79.6	100.0 (10,078)	1,135.7	5,583.2
지역					
동부	20.3	79.7	100.0 (7,450)	1,203.3	5,932.5
읍·면부	20.5	79.5	100.0 (2,628)	943.9	4,603.5
성					
남자	23.3	76.7	100.0 (4,429)	1,323.8	5,671.9
여자	18.0	82.0	100.0 (5,649)	988.2	5,493.0
연령					
65~69세	28.6	71.4	100.0 (3,473)	1,720.5	6,010.2
70~74세	19.1	80.9	100.0 (2,377)	964.7	5,053.4
75~79세	15.6	84.4	100.0 (1,743)	779.9	4,993.8
80~84세	13.2	86.8	100.0 (1,407)	678.4	5,132.2
85~89세	13.1	86.9	100.0 (825)	775.2	5,950.4
90세 이상	14.2	85.8	100.0 (253)	883.7	6,151.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3.4	76.6	100.0 (6,047)	1,359.2	5,809.5
배우자 없음	15.8	84.2	100.0 (4,031)	800.4	5,079.3
가구형태					
노인독거	14.1	85.9	100.0 (3,306)	681.2	4,833.5
노인부부	22.7	77.3	100.0 (5,562)	1,228.5	5,406.8
자녀동거	27.7	72.3	100.0 (1,035)	2,082.5	7,524.8
기타	19.3	80.7	100.0 (174)	1,170.7	6,050.1
교육수준					
무학	11.9	88.1	100.0 (1,240)	584.2	4,913.1
초등학교	16.2	83.8	100.0 (2,846)	766.5	4,756.9
중학교	20.7	79.3	100.0 (2,139)	911.2	4,404.2
고등학교	25.8	74.2	100.0 (3,145)	1,499.9	5,808.8
전문대학 이상	26.7	73.3	100.0 (707)	2,647.3	9,898.2
현 취업상태					
취업중	27.3	72.7	100.0 (3,931)	1,536.9	5,623.6
미취업	15.9	84.1	100.0 (6,147)	879.1	5,538.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5	90.5	100.0 (2,014)	434.9	4,594.8
제2오분위	12.5	87.5	100.0 (2,014)	586.1	4,686.9
제3오분위	17.8	82.2	100.0 (2,014)	824.1	4,633.9
제4오분위	27.3	72.7	100.0 (2,020)	1,288.6	4,735.9
제5오분위	34.7	65.3	100.0 (2,017)	2,541.7	7,325.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1.4	88.6	100.0 (3,776)	522.5	4,581.2
50%이상~100%미만	19.8	80.2	100.0 (2,801)	932.5	4,718.7
100%이상~150%미만	25.3	74.7	100.0 (1,673)	1,229.2	4,861.8
150%이상	35.2	64.8	100.0 (1,828)	2,628.0	7,473.5
가능상태					
제한 있음	18.2	81.8	100.0 (1,873)	915.0	5,693.6
제한 없음	20.9	79.1	100.0 (8,205)	1,186.0	5,029.1
2020년도	27.1	72.9	100.0 (10,097)	1,892.8	6,989.1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부채 보유 유무에 있음으로 응답한 2,050명을 대상으로 함.

제3절 가구지출과 개인지출

1. 가구지출

〈표 7-16〉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은 162.3만 원으로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 171.1만 원, 읍·면부 노인 137.6만 원으로 동부 노인이 약 34만 원 정도 더 지출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175.3만 원, 여자 노인이 152.1만 원으로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소비지출이 23.2만 원 더 많다. 연령별로는 65~69세 연령군의 소비지출이 191.4만 원으로 가장 많고, 70~74세 연령군이 157.7만 원, 75~79세 연령군이 150.5만 원, 80~84세 연령군 132.4만 원이지만, 85~89세 연령군에서는 137.5만 원, 9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136.2만 원으로 U자형의 지출구조를 보인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인 경우 181.2만 원, 무배우 노인의 경우 134.0만 원으로 유배우 노인이 47.2만 원 더 지출하고 있다. 가구 형태별로는 독거가구인 경우 117.2만 원으로 가장 낮고 자녀동거가구 소비지출이 233.2만 원으로 가장 높다. 부부가구의 가구지출은 176.0만 원, 기타 가구는 159.8만 원이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소비지출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학 노인은 106.7만 원의 소비지출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졸업 147.0만 원, 중학교 졸업 154.4만 원, 고등학교 졸업 187.9만 원 그리고 전문대학 이상 졸업은 232.4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비지출을 보여준다. 현재 취업상태에 따른 소비지출은 취업 노인이 174.5만 원으로 미취업 노인의 154.6만 원보다 약 20만 원 더 소비하고 있다. 또한, 가구소득별 소비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역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지출도 높다. 중위소득 150% 이상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21.7만 원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119.0만 원의 약 2배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제한이 없는 경우 167.6만 원으로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 139.5만 원보다 약 28만 원 더 높은 수준이다.

한편 월평균 주거비지출은 25.1만 원으로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 27.0만 원, 읍·면부 노인 19.7만 원으로 동부 노인이 7.3만 원 정도 더 지출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27.0만 원, 여자 노인이 23.7만 원으로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주거비지출이 3.3만 원 더 많으며,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월평균 주거비지출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표 7-16> 월평균 가구소비지출 및 주거비지출 금액(대표 가구원 응답)

(단위: 만 원, 명)

특성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²⁾	월평균 주거비지출 금액 ²⁾	(명)
전체 ¹⁾	162.3	25.1	(10,078)
지역			
동부	171.1	27.0	(7,450)
읍·면부	137.6	19.7	(2,628)
성			
남자	175.3	27.0	(4,429)
여자	152.1	23.7	(5,649)
연령			
65~69세	191.4	28.3	(3,473)
70~74세	157.7	25.5	(2,377)
75~79세	150.5	24.3	(1,743)
80~84세	132.4	21.0	(1,407)
85~89세	137.5	20.5	(825)
90세 이상	136.2	21.3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81.2	27.7	(6,047)
배우자 없음	134.0	21.2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117.2	19.5	(3,306)
노인부부	176.0	27.1	(5,562)
자녀동거	233.2	32.3	(1,035)
기타	159.8	26.1	(174)
교육수준			
무학	106.7	18.4	(1,240)
초등학교	147.0	22.9	(2,846)
중학교	154.4	24.7	(2,139)
고등학교	187.9	28.6	(3,145)
전문대학 이상	232.4	31.8	(7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174.5	25.8	(3,931)
미취업	154.6	24.6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10.7	21.6	(2,014)
제2오분위	121.2	20.9	(2,014)
제3오분위	152.3	23.2	(2,014)
제4오분위	191.2	28.2	(2,020)
제5오분위	236.1	31.6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19.0	22.0	(3,776)
50%이상~100%미만	158.9	23.7	(2,801)
100%이상~150%미만	201.1	28.5	(1,673)
150%이상	221.7	30.4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139.5	22.7	(1,873)
제한 없음	167.6	25.7	(8,205)
2020년도	147.5	23.0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지출은 작년 한 해(2022.1.1.~2022.12.31.) 기준임.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은 27.7만 원, 무배우 노인은 21.2만 원으로 유배우 노인이 6.5만 원 더 지출하고 있다. 가구 형태별로는 독거가구가 19.5만 원으로 주거비지출이 가장 적고, 기타 가구는 26.1만 원, 부부가구는 27.1만 원, 그리고 자녀동거가구의 주거비지출이 32.3만 원으로 가장 많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비지출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학 학력의 노인은 18.4만 원의 주거비지출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졸업 22.9만 원, 중학교 졸업 24.7만 원, 고등학교 졸업 28.6만 원 그리고 전문대학 이상 졸업은 31.8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비지출을 보여준다. 현재 취업상태별 주거비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취업 노인(25.8만 원)과 미취업 노인(24.6만 원) 간의 지출 규모 차이가 거의 없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비지출도 높아서 중위소득 150% 이상 30.4만 원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22.0만 원보다 8.4만 원 더 지출하고 있다. 기능상태별로 주거비지출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25.7만 원으로 제한이 없는 노인이 22.7만 원보다 3만 원 더 많이 주거비를 지출하였다.

가구 소비지출 중 부담을 느끼는 생활비 항목을 살펴본 <표 7-17>에 의하면, 노인의 약 절반에 가까운 49.7%가 식비 지출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25.7%가 주택관리비, 냉난방비, 수도비 등을 포함하는 주거 관련 비용의 지출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응답했으며, 월세 1.0%를 더하면 전체 응답자 중 26.7%가 주거와 관련된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보건의료비 8.3%, 경조사비 2.5%의 순으로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노인의 8.2%는 부담되는 생활비 지출 항목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특징을 보면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비(54.8%)에 대해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부 노인은 주거관련비(32.3%), 보건의료비(14.2%)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지만, 남자 노인은 상대적으로 식비(51.5%), 여자 노인은 주거관련비(27.2%)에 대한 응답이 조금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비의 경우 연령과 정의 관계로 나타나서 연령이 높을수록 보건의료비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경우 식비(52.1%), 무배우 노인의 경우 월세(1.9%)와 주거관련비(30.1%)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 특징을 보면, 독거가구의 경우 주거관련비(32.2%)와 월세(2.2%)에 대한 부담이 높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식비(51.9%)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녀동거가구는 모든 가구형태 중 식비(55.7%)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며, 부담이 없다는 응답도 모든 가구형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특징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경조사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학력이 낮을수록 주거관련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부담되는 지출 항목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서 전문대학 이상 학력 노인의 경우 11.9%로 무학 노인 4.9% 보다 2배 이상 높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되는 지출 항목이 없다(10.8%), 미취업 노인의 경우 식비(52.0%)와 보건의료비(9.5%)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거관련비와 보건의료비, 월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조사비와 기타 항목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담되는 지출 항목이 없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신체적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 식비(50.3%)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느끼는 반면, 제한이 있는 노인은 보건의료비(15.2%)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은 부담되는 지출 항목이 없다는 응답도 9.3%로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3.3%)보다 높았다.

<표 7-17>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단위: %, 명)

특성	식비	월세	주거 관련비	보건 의료비	경조사비	기타 ²⁾	없음	계 (명)
전체 ¹⁾	49.7	1.0	25.7	8.3	2.5	4.8	8.2	100.0 (10,078)
지역								
동부	54.8	1.2	23.3	6.2	2.8	4.2	7.4	100.0 (7,450)
읍·면부	35.0	0.1	32.3	14.2	1.7	6.4	10.2	100.0 (2,628)
성								
남자	51.5	1.0	23.7	7.5	3.1	5.0	8.3	100.0 (4,429)
여자	48.2	0.9	27.2	8.9	2.0	4.6	8.1	100.0 (5,649)
연령								
65~69세	50.0	0.9	23.5	5.1	4.4	6.7	9.3	100.0 (3,473)
70~74세	49.7	1.0	26.7	8.1	2.5	3.7	8.4	100.0 (2,377)
75~79세	52.8	1.2	26.8	7.9	1.5	3.7	6.0	100.0 (1,743)
80~84세	47.8	0.9	26.3	12.3	0.7	3.6	8.5	100.0 (1,407)
85~89세	47.1	0.6	27.4	13.5	0.6	3.5	7.2	100.0 (825)
90세 이상	41.9	0.9	27.7	17.5	0.0	5.8	6.3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2.1	0.3	22.7	7.8	3.2	5.0	8.8	100.0 (6,047)
배우자 없음	45.9	1.9	30.1	9.1	1.5	4.4	7.1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44.1	2.2	32.2	9.2	1.7	3.9	6.8	100.0 (3,306)
노인부부	51.9	0.3	23.1	7.9	3.0	5.1	8.6	100.0 (5,562)
자녀동거	55.7	0.4	17.7	7.3	2.9	5.7	10.2	100.0 (1,035)
기타	47.2	0.0	28.7	9.8	0.5	6.1	7.7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45.4	1.9	29.3	14.7	0.5	3.4	4.9	100.0 (1,240)
초등학교	47.6	0.8	29.1	10.6	1.0	3.3	7.5	100.0 (2,846)
중학교	51.9	1.2	26.7	6.5	2.2	4.3	7.3	100.0 (2,139)
고등학교	51.8	0.6	21.6	5.3	4.5	6.4	9.8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49.0	0.9	20.1	6.7	4.2	7.2	11.9	100.0 (7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46.0	0.6	26.7	6.4	3.4	6.0	10.8	100.0 (3,931)
미취업	52.0	1.2	25.0	9.5	1.9	4.0	6.5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5.8	2.1	30.7	11.0	2.1	2.8	5.5	100.0 (2,014)
제2오분위	47.5	1.3	31.7	11.2	1.1	3.3	3.8	100.0 (2,014)
제3오분위	53.0	0.7	26.4	7.4	1.7	3.9	6.8	100.0 (2,014)
제4오분위	53.2	0.4	22.2	7.2	3.0	4.6	9.4	100.0 (2,020)
제5오분위	48.7	0.3	17.2	4.7	4.6	9.2	15.3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7.9	1.6	29.8	11.1	1.7	3.2	4.7	100.0 (3,776)
50%이상~100%미만	52.6	0.7	27.2	7.6	1.9	3.6	6.5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53.1	0.4	20.5	6.8	2.9	5.8	10.4	100.0 (1,673)
150%이상	45.6	0.5	19.4	4.9	4.8	9.0	15.8	100.0 (1,828)
가능상태								
제한 있음	47.0	1.6	26.0	15.2	0.9	6.1	3.3	100.0 (1,873)
제한 없음	50.3	0.8	25.6	6.7	2.9	4.5	9.3	100.0 (8,205)
2020년도	46.6	2.2	22.3	10.9	1.6	5.9	10.5	10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기타는 간병돌봄비(1.0%), 교통비(1.0%), 부채상환(0.8%), 교양오락비(0.5%), 기타(0.4%), 피복비(0.4%), 통신비(0.3%), 가구·집기·사무용품(0.3%), 교육비(0.2%)를 합한 항목임.

2. 개인지출

〈표 7-18〉에 기초하여 본인을 위한 지출 항목과 지출액을 살펴보면, 보건의료비, 간병돌봄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에 지출하고 있는 비율이 91.0%, 4.7%, 65.3%, 50.8%로 지출액은 각각 8.1만 원, 0.8만 원, 5.6만 원, 6.0만 원이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개인지출 비율과 규모가 모두 큰 편이며, 특히 경조사비가 동부 노인 6.5만 원으로 읍·면부 노인 4.7만 원보다 약 2만 원 더 지출하고 있었다. 동부 노인은 보건의료비(8.4만 원)와 문화여가비(6.1만 원)도 읍·면부 노인(각각 7.2만 원, 4.2만 원)보다 1~2만 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여자 노인보다 개인지출이 높은 경향이 있다. 특히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는 남자 노인의 경우 지출 비율과 지출액이 모두 여자 노인보다 높아서, 남자 노인 문화여가비 68.4%, 6.8만 원(여자 노인 62.9%, 4.6만 원), 경조사비 58.0%, 7.4만 원(여자 노인 45.2%, 4.9만 원)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에 지출의 비율과 금액이 많아서, 65~69세 연령군의 경조사비가 8.6만 원이며 9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2.3만 원이다(문화여가비 각각 7.9만 원, 1.9만 원). 보건의료비는 연령군별 차이가 크지 않고, 간병돌봄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출 경험 비율은 높아지지만, 지출액은 규모가 작아서 연령군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90세 이상의 간병돌봄비는 3.7만 원으로 65~69세의 0.2만 원보다 높다. 배우자 유무별로 보면, 유배우 노인에게서 문화여가비(68.9%, 6.2만 원)와 경조사비(57.7%, 7.0만 원) 지출 비율과 금액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문화여가비(68.8%, 6.1만 원)와 경조사비(57.1%, 6.9만 원)가 다른 가구형태보다 높게 지출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 모두 지출 비율과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이상 학력 노인의 문화여가비 지출 비율은 83.4%, 지출액은 12.1만 원이며, 무학 학력 노인은 각각 46.3%, 2.1만 원이다. 경조사비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 학력 노인 73.9%와 12.5만 원, 무학 학력 노인 26.7%와 1.9만 원이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비는 취업 노인과 미취업 노인의 보건의료비 지출률은 91% 안팎으로 거의 차이가 없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취업 노인이 6.8만 원으

로 미취업 노인 8.9만 원보다 다소 작다. 그리고 취업 노인은 상대적으로 문화여가비(72.4%, 6.5만 원)와 경조사비(62.9%, 7.6만 원)의 지출률과 지출 규모가 큰 반면, 미취업 노인은 간병돌봄비(6.8%, 1.2만 원)의 지출률과 지출 규모가 크다. 가구소득별 소비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의 지출 비율과 지출액이 높다. 신체적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 비해 보건의료비와 간병돌봄비 지출 비율과 규모는 크지만,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9>과 같이 항목별로 본인을 위한 지출 경험에 있는 노인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비 8.9만 원, 간병돌봄비 17.4만 원, 문화여가비 8.5만 원, 경조사비 11.8만 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이 있는 노인의 지출규모 기준으로 볼 경우 간병돌봄비가 가장 크고 그다음 경조사비이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개인지출 규모가 모두 큰 편이며, 특히 간병돌봄비의 경우 동부 노인 18.7만 원으로 읍·면부 노인 14.2만 원보다 약 4.5만 원 더 지출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간병돌봄비를 제외하고 여자 노인보다 개인지출 규모가 큰데, 특히 문화여가비의 경우 남자 노인 10.0만 원으로 여자 노인의 7.3만 원보다 높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간병돌봄비, 연령대가 낮을수록 문화여가비가 높은 경향성이 있었다. 배우자 유무별로 보면 유배우 노인은 무배우 노인에 비해 지출 규모가 모두 크고,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가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지출 규모가 모두 큰 특성이 있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의 지출 금액이 큰 편이며, 특히 문화여가비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 14.5만 원으로 무학 4.5만 원의 약 3배 수준이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미취업 노인은 취업노인에 비해 간병돌봄비가 큰 것이 특징적이며, 소득수준별로는 문화여가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신체적 기능상태 제한 여부에 따라서는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보건의료비가 조금 높은 편이다.

<표 7-18> 노인을 위한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단위: %, 만 원, 명)

특성	지출 유무 ²⁾				지출액 ²⁾				(명)
	보건 의료비	간병 돌봄비	문화 여가비	경조사비	보건 의료비	간병 돌봄비	문화 여가비	경조사비	
전체 ¹⁾	91.0	4.7	65.3	50.8	8.1	0.8	5.6	6.0	(10,078)
지역									
동부	90.9	4.6	67.6	51.8	8.4	0.9	6.1	6.5	(7,450)
읍·면부	91.1	5.0	59.0	47.9	7.2	0.7	4.2	4.7	(2,628)
성									
남자	89.9	3.5	68.4	58.0	8.4	0.6	6.8	7.4	(4,429)
여자	91.8	5.7	62.9	45.2	7.8	1.0	4.6	4.9	(5,649)
연령									
65~69세	89.4	1.8	77.1	65.4	7.9	0.2	7.9	8.6	(3,473)
70~74세	90.9	2.8	66.5	53.4	8.4	0.4	5.6	5.8	(2,377)
75~79세	91.4	3.7	63.2	46.3	7.8	0.5	4.5	4.9	(1,743)
80~84세	93.5	7.3	55.3	34.6	7.9	1.3	3.4	3.3	(1,407)
85~89세	91.5	14.7	44.1	27.2	8.9	3.4	2.9	3.3	(825)
90세 이상	93.5	23.0	32.4	23.5	7.8	3.7	1.9	2.3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1.1	3.3	68.9	57.7	8.2	0.6	6.2	7.0	(6,047)
배우자 없음	90.7	6.9	59.9	40.5	7.9	1.2	4.6	4.4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90.4	6.5	60.2	40.2	8.1	1.1	4.8	4.5	(3,306)
노인부부	91.1	3.1	68.8	57.1	8.3	0.6	6.1	6.9	(5,562)
자녀동거	91.9	7.5	64.1	50.6	7.2	1.3	5.5	6.0	(1,035)
기타	90.5	6.9	60.3	52.3	6.8	0.7	4.1	4.9	(174)
교육수준									
무학	93.9	12.7	46.3	26.7	7.5	1.8	2.1	1.9	(1,240)
초등학교	91.9	4.8	56.5	41.6	8.4	1.0	3.8	4.2	(2,846)
중학교	90.0	3.2	67.2	53.6	9.0	0.6	5.1	5.9	(2,139)
고등학교	89.7	2.6	75.6	61.5	7.6	0.5	7.5	7.9	(3,145)
전문대학 이상	90.4	4.6	83.4	73.9	7.2	0.4	12.1	12.5	(7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91.5	1.5	72.4	62.9	6.8	0.2	6.5	7.6	(3,931)
미취업	90.6	6.8	60.8	43.0	8.9	1.2	5.0	5.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8.8	6.2	47.4	31.3	8.7	0.8	2.9	3.4	(2,014)
제2오분위	90.1	4.9	55.3	38.8	7.5	0.9	3.3	3.5	(2,014)
제3오분위	92.9	4.8	67.7	51.9	9.2	0.7	5.0	5.4	(2,014)
제4오분위	92.2	4.0	73.9	61.9	7.8	1.0	7.1	7.3	(2,020)
제5오분위	90.8	3.8	82.3	70.0	7.3	0.7	9.6	10.4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9.6	5.4	51.4	35.8	8.5	0.9	3.1	3.6	(3,776)
50%이상~100%미만	92.2	4.9	66.4	50.6	8.1	0.7	5.1	5.2	(2,801)
100%이상~150%미만	92.5	4.2	76.5	62.8	7.6	0.8	7.5	7.6	(1,673)
150%이상	90.4	3.4	82.3	71.1	7.6	0.9	9.7	10.8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93.7	17.8	47.3	30.3	10.3	3.1	3.7	3.4	(1,873)
제한 없음	90.3	1.7	69.5	55.5	7.6	0.3	6.0	6.6	(8,205)
2020년도	92.6	3.7	57.9	52.0	9.4	1.6	6.9	7.6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지출은 작년 한 해(2022.1.1.~2022.12.31.) 기준임.

<표 7-19> 노인을 위한 월평균 지출액: 항목별 지출한 적이 있는 노인의 평균

(단위: 만 원, 명)

특성	지출노인의 지출액 ²⁾				지출노인 수(명) ²⁾			
	보건 의료비	간병 돌봄비	문화 여가비	경조사비	보건 의료비	간병 돌봄비	문화 여가비	경조사비
전체 ¹⁾	8.9	17.4	8.5	11.8	(9,166)	(476)	(6,584)	(5,119)
지역								
동부	9.2	18.7	9.0	12.5	(6,773)	(345)	(5,034)	(3,861)
읍·면부	7.9	14.2	7.1	9.8	(2,393)	(131)	(1,550)	(1,258)
성								
남자	9.3	16.3	10.0	12.8	(3,983)	(154)	(3,029)	(2,568)
여자	8.5	18.0	7.3	10.8	(5,183)	(323)	(3,555)	(2,551)
연령								
65~69세	8.8	12.4	10.3	13.2	(3,105)	(63)	(2,677)	(2,272)
70~74세	9.3	14.5	8.4	10.9	(2,160)	(66)	(1,581)	(1,269)
75~79세	8.5	14.7	7.1	10.6	(1,594)	(65)	(1,102)	(808)
80~84세	8.5	18.5	6.2	9.7	(1,315)	(103)	(777)	(487)
85~89세	9.7	22.8	6.5	12.0	(755)	(121)	(364)	(225)
90세 이상	8.4	16.1	5.9	9.8	(237)	(58)	(82)	(5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0	17.8	9.0	12.2	(5,511)	(199)	(4,168)	(3,488)
배우자 없음	8.8	17.2	7.7	10.9	(3,656)	(277)	(2,417)	(1,631)
가구형태								
노인독거	8.9	17.1	8.0	11.2	(2,989)	(214)	(1,988)	(1,328)
노인부부	9.1	18.5	8.9	12.1	(5,068)	(172)	(3,827)	(3,176)
자녀동거	7.9	17.0	8.5	11.9	(952)	(78)	(664)	(524)
기타	7.5	10.8	6.7	9.3	(158)	(12)	(105)	(91)
교육수준								
무학	8.0	14.1	4.5	7.0	(1,164)	(157)	(574)	(331)
초등학교	9.1	21.0	6.7	10.0	(2,616)	(136)	(1,607)	(1,184)
중학교	10.0	19.5	7.5	11.0	(1,925)	(69)	(1,437)	(1,146)
고등학교	8.5	19.4	9.9	12.8	(2,822)	(82)	(2,377)	(1,935)
전문대학 이상	8.0	8.8	14.5	16.9	(639)	(33)	(590)	(523)
현 취업상태								
취업중	7.4	12.6	8.9	12.1	(3,597)	(60)	(2,848)	(2,474)
미취업	9.9	18.1	8.3	11.5	(5,570)	(416)	(3,737)	(2,646)
연가구조득								
제1오분위	9.8	13.3	6.1	11.0	(1,788)	(124)	(955)	(631)
제2오분위	8.3	17.9	5.9	9.0	(1,814)	(99)	(1,113)	(782)
제3오분위	9.9	14.4	7.4	10.3	(1,872)	(97)	(1,364)	(1,046)
제4오분위	8.4	25.0	9.7	11.7	(1,862)	(80)	(1,492)	(1,250)
제5오분위	8.1	19.2	11.7	14.9	(1,831)	(76)	(1,660)	(1,41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5	16.0	6.1	10.0	(3,384)	(205)	(1,941)	(1,353)
50%이상-100%미만	8.7	13.5	7.6	10.2	(2,581)	(139)	(1,860)	(1,418)
100%이상-150%미만	8.3	20.1	9.8	12.1	(1,547)	(71)	(1,279)	(1,050)
150%이상	8.4	27.9	11.8	15.2	(1,653)	(62)	(1,504)	(1,299)
기능상태								
제한 있음	11.0	17.2	7.7	11.1	(1,754)	(333)	(885)	(567)
제한 없음	8.4	17.9	8.7	11.9	(7,412)	(143)	(5,699)	(4,552)
2020년도	10.1	44.0	11.9	14.6	(9,347)	(373)	(5,842)	(5,250)

주: 1) 지난 1년간 항목별 지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을 대상으로 평균 지출액을 산출함.

2) 지출은 작년 한 해(2022.1.1.~2022.12.31.) 기준임.

제4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표 7-20〉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6.5%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7.1%로 읍·면부 노인 4.9%로 보다 2.2%포인트 높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 5.6%, 여자 노인 7.2%로 여자 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급자 비율이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65~69세 연령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3.9%, 70~74세 연령군 6.8%, 75~79세 연령군 7.9%, 80~84세 연령군 6.4%, 85~89세 11.9%, 90세 이상 연령군 12.6%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은 3.4%이지만 무배우 노인의 경우 11.2%로 훨씬 더 높으며(7.8%포인트),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가 12.1%로 가장 높고, 부부가구 3.6%, 자녀동거가구 3.7%, 그리고 기타 가구가 10.8%이다.

교육수준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 무학 11.3%, 초등학교 졸업 8.3%, 중학교 졸업 6.6%, 고등학교 졸업 4.1%, 전문대학 이상 졸업 1.5%이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취업 노인보다 높으며(취업 노인 1.6%, 미취업 노인 9.7%), 가구소득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높아 중위소득 50% 미만의 경우 11.9%, 중위소득 50% 이상~100% 미만 5.7%, 중위소득 100% 이상~150% 미만 1.8%, 중위소득 150% 이상 0.9%의 순이다. 신체적 기능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12.2%로 제한이 없는 경우 5.2%보다 7.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표 7-2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	아니요	계 (명)
전체 ¹⁾	6.5	93.5	100.0 (10,078)
지역			
동부	7.1	92.9	100.0 (7,450)
읍·면부	4.9	95.1	100.0 (2,628)
성			
남자	5.6	94.4	100.0 (4,429)
여자	7.2	92.8	100.0 (5,649)
연령			
65~69세	3.9	96.1	100.0 (3,473)
70~74세	6.8	93.2	100.0 (2,377)
75~79세	7.9	92.1	100.0 (1,743)
80~84세	6.4	93.6	100.0 (1,407)
85~89세	11.9	88.1	100.0 (825)
90세 이상	12.6	87.4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4	96.6	100.0 (6,047)
배우자 없음	11.2	88.8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12.1	87.9	100.0 (3,306)
노인부부	3.6	96.4	100.0 (5,562)
자녀동거	3.7	96.3	100.0 (1,035)
기타	10.8	89.2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11.3	88.7	100.0 (1,240)
초등학교	8.3	91.7	100.0 (2,846)
중학교	6.6	93.4	100.0 (2,139)
고등학교	4.1	95.9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1.5	98.5	100.0 (7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1.6	98.4	100.0 (3,931)
미취업	9.7	90.3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0	87.0	100.0 (2,014)
제2오분위	13.0	87.0	100.0 (2,014)
제3오분위	4.6	95.4	100.0 (2,014)
제4오분위	1.2	98.8	100.0 (2,020)
제5오분위	0.7	99.3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1.9	88.1	100.0 (3,776)
50%이상~100%미만	5.7	94.3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1.8	98.2	100.0 (1,673)
150%이상	0.9	99.1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12.2	87.8	100.0 (1,873)
제한 없음	5.2	94.8	100.0 (8,205)
2020년도 ²⁾	7.1 ²⁾	92.9	10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2020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특례)수급자를 합한 값임. 2023년은 이를 통합적으로 질문함.



제8장

노인의 경제활동

제1절 경제활동 참여실태

제2절 최장기 종사 직종

제3절 향후 경제활동 의사

제4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및 욕구

제 8 장 노인의 경제활동

본 장에서는 노인의 경제활동 관련 특징을 현재, 과거, 미래의 관점에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현재의 경제활동 참여실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본 후, 노년기 이전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장기 종사 직종을 분석한다. 또한, 향후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실태를 전망하기 위해 미래의 관점에서 향후 경제활동 의사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표본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결과로 유효응답 사례 수가 적은 항목이나 세부 인구집단(90세 이상, 기타 가구, 전문대학 졸업 이상 등)의 분석 결과 등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1절 경제활동 참여실태

본 조사에서 일이란 조사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기간 중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를 의미한다. 202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39.0%는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7.1%는 과거 일을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13.9%는 평생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1〉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33.7%, 읍·면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53.9%로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다. 또한, 성별로도 차이가 있어 남자 노인은 48.2%이며 여자 노인은 31.8%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은 낮은 경향을 보여, 65~69세 연령군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9.4%, 70~74세 연령군 38.9%, 75~79세 연령군 29.0%, 80~84세 연령군 21.9%, 85~89세 연령군 14.1%, 그리고 90세 이상 연령군은 5.9%이다.

유배우 노인의 43.0%, 무배우 노인의 33.1%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가구형태별로는 기타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9.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부부가구 42.4%, 독거가구 34.9%, 자녀동거가구 32.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경향이 있어서, 무학 경제활동 참여율

25.1%, 초등학교 32.9%, 중학교 37.6%, 고등학교 50.0%로 증가한다. 그러나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져 43.3%로 감소한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져, 중위소득 150% 이상 66.9%로 중위소득 50% 미만 19.6%보다 약 3배 높다.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신체기능상의 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3.8%로 전체 평균 39.0%보다 높으나, 신체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7.9%이다.

〈표 8-1〉 경제활동 참여 실태

(단위: %, 명)

특성	현재 일을 한다	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계 (명)
전체 ¹⁾	39.0	47.1	13.9	100.0 (10,078)
지역				
동부	33.7	50.1	16.1	100.0 (7,450)
읍·면부	53.9	38.6	7.5	100.0 (2,628)
성				
남자	48.2	50.6	1.2	100.0 (4,429)
여자	31.8	44.4	23.8	100.0 (5,649)
연령				
65~69세	59.4	31.5	9.1	100.0 (3,473)
70~74세	38.9	48.5	12.5	100.0 (2,377)
75~79세	29.0	55.7	15.4	100.0 (1,743)
80~84세	21.9	59.7	18.5	100.0 (1,407)
85~89세	14.1	61.0	24.8	100.0 (825)
90세 이상	5.9	73.5	20.5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3.0	44.6	12.4	100.0 (6,047)
배우자 없음	33.1	50.9	16.0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34.9	51.2	13.9	100.0 (3,306)
노인부부	42.4	44.9	12.7	100.0 (5,562)
자녀동거	32.2	47.4	20.5	100.0 (1,035)
기타	49.9	36.6	13.5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25.1	60.9	14.0	100.0 (1,240)
초등학교	32.9	48.9	18.3	100.0 (2,846)
중학교	37.6	48.2	14.3	100.0 (2,139)
고등학교	50.0	38.6	11.4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43.3	50.6	6.1	100.0 (70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8	63.5	20.6	100.0 (2,014)
제2오분위	25.7	59.6	14.7	100.0 (2,014)
제3오분위	40.5	47.6	12.0	100.0 (2,014)
제4오분위	49.8	38.1	12.1	100.0 (2,020)
제5오분위	63.2	26.8	10.0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9.6	62.3	18.1	100.0 (3,776)
50%이상~100%미만	39.0	48.1	12.9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52.3	36.1	11.5	100.0 (1,673)
150%이상	66.9	24.3	8.8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17.9	64.3	17.8	100.0 (1,873)
제한 없음	43.8	43.2	13.0	100.0 (8,205)
2020년도	36.9	49.5	13.6	10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8-2〉에 의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중 단순노무 종사자가 33.0%로 가장 큰 비율로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20.3%로 나타났다. 그 밖에 서비스종사자 14.4%, 판매종사자 12.5%, 기능원 및 관련 직종 7.0%, 관리자 5.6% 등이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의 48.8%가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이며, 단순노무종사자는 동부 노인 33.2%, 읍·면부 노인 32.6%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남자 노인이 21.4%, 여자 노인이 19.1%로 남녀 간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는 남자 노인이 26.7%, 여자 노인이 40.4%로 여자 노인의 비율이 높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및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으며, 그 외 직종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종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28.6%는 단순노무종사자, 22.0%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3.6%는 서비스종사자이다. 반면 무배우 노인의 41.6%는 단순노무종사자이며, 17.1%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6.0%는 서비스종사자 등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가구형태에 상관없이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거가구의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41.0%로 가장 높고, 그다음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7.0%, 서비스종사자 16.1%이다. 부부가구는 독거가구에 비해 단순노무종사자(29.5%) 비율이 낮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비율(22.5%)은 높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종사상 지위의 차이가 크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의 경우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관리자 비율이 17.6%로 월등히 높은 반면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은 14.1%로 매우 낮다. 반면 무학 노인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이 60.7%로 대다수이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높은 반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관리자, 서비스종사자 비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32.2%는 단순노무종사자, 20.1%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이며,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는 노인의 41.3%는 단순노무종사자, 22.6%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 현재 일자리 종사 직종

(단위: %, 명)

특성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계 (명)
전체 ¹⁾	5.6	1.6	1.7	14.4	12.5	20.3	7.0	3.8	33.0	0.0	100.0(3,931)
지역											
동부	7.9	2.0	2.2	18.9	17.1	4.3	9.3	5.2	33.2	0.0	100.0(2,513)
읍·면·부	1.5	1.0	0.9	6.5	4.5	48.8	3.0	1.1	32.6	0.0	100.0(1,418)
성											
남자	7.3	1.8	2.4	10.3	12.3	21.4	11.3	6.5	26.7	0.0	100.0(2,136)
여자	3.5	1.4	0.9	19.3	12.9	19.1	2.0	0.5	40.4	0.0	100.0(1,795)
연령											
65~69세	8.0	2.0	2.7	19.1	16.4	15.6	8.6	5.1	22.7	0.0	100.0(2,061)
70~74세	4.3	1.5	0.6	12.7	10.3	23.5	7.7	2.7	36.6	0.0	100.0(925)
75~79세	1.2	0.6	0.1	7.3	9.6	27.7	4.3	3.7	45.5	0.0	100.0(505)
80~84세	1.4	1.6	1.0	4.6	3.8	26.5	2.4	0.0	58.6	0.0	100.0(307)
85~89세	3.3	0.0	2.2	4.1	0.0	26.2	0.0	0.0	64.1	0.0	100.0(117)
90세 이상	0.0	0.0	0.0	0.0	0.0	59.3	0.0	0.0	40.7	0.0	100.0(1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8	1.5	2.1	13.6	13.6	22.0	8.4	4.5	28.6	0.0	100.0(2,598)
배우자 없음	5.1	1.9	1.1	16.0	10.5	17.1	4.4	2.4	41.6	0.0	100.0(1,333)
가구형태											
노인독거	5.4	1.8	1.1	16.1	10.6	17.0	4.5	2.5	41.0	0.0	100.0(1,153)
노인부부	5.7	1.2	1.8	13.2	13.5	22.5	8.2	4.4	29.5	0.0	100.0(2,357)
자녀동거	6.3	4.3	3.0	16.4	13.2	14.4	7.3	3.5	31.6	0.0	100.0(333)
기타	1.4	1.7	2.7	15.6	10.3	29.5	7.1	3.4	28.3	0.0	100.0(87)
교육수준											
무학	2.7	0.0	0.0	4.2	0.4	30.5	1.1	0.4	60.7	0.0	100.0(311)
초등학교	0.8	0.7	0.1	7.8	4.9	38.6	2.8	1.9	42.5	0.0	100.0(935)
중학교	2.1	0.4	0.4	17.3	10.7	21.0	7.2	4.4	36.5	0.0	100.0(804)
고등학교	8.4	1.1	1.8	18.7	20.2	10.1	10.8	5.2	23.8	0.0	100.0(1,574)
전문대학 이상	17.6	11.8	11.5	15.3	13.9	5.4	6.5	4.0	14.1	0.0	100.0(30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4	0.3	2.1	7.4	2.5	16.8	1.9	0.7	64.1	0.0	100.0(319)
제2오분위	1.9	0.7	0.4	8.7	4.2	30.1	1.0	0.3	52.9	0.0	100.0(517)
제3오분위	1.2	1.2	0.7	9.8	9.8	29.2	4.4	3.4	40.3	0.0	100.0(815)
제4오분위	4.7	1.6	1.0	17.1	13.8	22.1	7.8	4.9	27.0	0.0	100.0(1,005)
제5오분위	10.9	2.6	3.4	19.3	19.3	10.2	11.8	5.3	17.2	0.0	100.0(1,27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4	0.5	1.1	7.1	3.1	25.7	1.4	0.8	57.9	0.0	100.0(740)
50%이상~100%미만	2.4	0.7	0.3	11.3	7.7	30.3	5.0	3.1	39.2	0.0	100.0(1,093)
100%이상~150%미만	5.0	2.4	1.6	16.0	16.5	17.1	7.5	5.2	28.9	0.0	100.0(875)
150%이상	10.8	2.6	3.4	20.4	19.8	10.5	12.0	5.1	15.4	0.0	100.0(1,222)
기능상태											
제한 있음	6.6	1.2	1.0	10.3	7.7	22.6	5.7	3.4	41.3	0.0	100.0(335)
제한 없음	5.5	1.7	1.8	14.8	13.0	20.1	7.2	3.8	32.2	0.0	100.0(3,595)
2020년도	8.8	2.0	1.1	12.2	4.7	13.5	5.6	3.2	48.7	0.3	100.0(3,725)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93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인이 종사하는 일의 내용을 범주화하여 살펴본 <표 8-3>에 의하면 농림축산어업이 24.5%로 가장 많고, 경비·수위·시설관리 관련 업무 18.1%, 운송·건설 관련 16.2%, 가사·조리·음식 14.3%, 공공·환경 관련 업무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거주 노인의 58.8%가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였으며, 동부 거주 노인의 경우 운송·건설 관련 업무가 2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비·수위·시설관리 업무 21.5%, 가사·조리·음식 종사자 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은 운송, 건설 관련 종사자 27.6%로 가장 높으며, 농림축산어업 25.4%, 경비·수위·시설관리 종사자 15.4% 순으로 높았다. 반면 여자 노인은 조리 음식 종사자 25.2%로 가장 높고, 그다음 농림축산어업 23.3%, 경비·수위·시설관리 종사자 21.2%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

연령군에 따른 일의 내용은 7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농림축산어업 관련 일을 하는 비율이 전체 평균(24.5%)보다 높다. 그리고 경비·수위·시설관리 종사자는 80대 연령군에서 3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송과 건설 종사자는 65~69세 연령군의 비율이 22.3%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경우 경비·수위·시설관리 종사자 비율이 23.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농림축산어업 20.6%, 가사·조리·음식 종사자 17.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독거가구의 경우 경비·수위·시설관리 종사자 비율이 23.2%로 모든 가구형태에서 가장 높고, 기타 가구(34.5%)와 부부가구(27.2%)는 농림축산어업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일의 내용을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농림축산어업과 공공·환경 종사자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조리·음식 종사자와 운송·건설 관련 종사자, 기타분야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공공·환경 관련 종사자와 경비·수위·시설관리 종사자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사, 조리 음식 종사자와 운송, 건설 관련 종사자, 기타 분야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신체적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노인의 27.2%는 경비·수위·시설관리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으며,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노인도 23.9%에 달하였다. 반면 신체적 기능상의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는 가사·조리·음식 종사자와 기타 분야 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8-3〉 현재 일자리 일의 내용

(단위: %, 명)

특성	농림축산 어업	경비·수위· 시설관리 ²⁾	가사, 조리, 음식 ³⁾	운송, 건설 관련 ⁴⁾	공공, 환경 관련 ⁵⁾	기타 ⁶⁾	계 (명)
전체 ¹⁾	24.5	18.1	14.3	16.2	5.9	21.2	100.0 (3,931)
지역							
동부	5.1	21.5	17.9	22.4	5.3	27.9	100.0 (2,513)
읍·면부	58.8	11.9	7.9	5.2	6.9	9.3	100.0 (1,418)
성							
남자	25.4	15.4	5.1	27.6	4.2	22.2	100.0 (2,136)
여자	23.3	21.2	25.2	2.5	7.8	19.9	100.0 (1,795)
연령							
65~69세	18.9	11.9	18.4	22.3	2.4	26.0	100.0 (2,061)
70~74세	28.5	21.6	13.6	13.2	4.8	18.3	100.0 (925)
75~79세	31.9	24.6	6.0	8.8	11.9	16.9	100.0 (505)
80~84세	33.1	31.3	5.1	2.7	16.4	11.3	100.0 (307)
85~89세	30.8	34.8	8.0	0.0	21.1	5.2	100.0 (117)
90세 이상	66.9	17.0	4.2	0.0	12.0	0.0	100.0 (1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6.5	15.1	12.6	18.3	4.6	23.0	100.0 (2,598)
배우자 없음	20.6	23.9	17.6	12.0	8.4	17.6	100.0 (1,333)
가구형태							
노인독거	20.2	23.2	17.4	12.4	8.9	17.9	100.0 (1,153)
노인부부	27.2	15.7	11.9	17.8	4.7	22.8	100.0 (2,357)
자녀동거	17.3	18.5	20.6	16.7	4.0	22.9	100.0 (333)
기타	34.5	12.5	14.7	19.3	3.7	15.4	100.0 (87)
교육수준							
무학	39.6	29.0	7.3	2.3	16.7	5.1	100.0 (311)
초등학교	44.2	21.7	10.4	5.7	8.6	9.4	100.0 (935)
중학교	26.4	20.2	17.1	16.3	4.3	15.7	100.0 (804)
고등학교	11.9	14.2	17.1	23.8	3.5	29.5	100.0 (1,574)
전문대학 이상	8.2	9.9	11.3	22.5	2.8	45.4	100.0 (307)
연가소득							
제1오분위	22.4	34.1	11.5	6.0	18.0	8.0	100.0 (319)
제2오분위	38.1	23.6	12.3	2.7	14.0	9.4	100.0 (517)
제3오분위	33.9	22.7	12.2	10.3	6.2	14.7	100.0 (815)
제4오분위	25.3	16.9	14.8	19.3	2.3	21.2	100.0 (1,005)
제5오분위	12.7	9.7	16.7	25.4	2.1	33.4	100.0 (1,27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3.0	27.9	10.4	4.4	15.0	9.3	100.0 (740)
50%이상~100%미만	35.4	22.8	11.9	11.3	6.7	11.9	100.0 (1,093)
100%이상~150%미만	20.4	16.8	16.1	20.2	2.6	23.9	100.0 (875)
150%이상	12.4	8.7	17.4	24.8	1.9	34.7	100.0 (1,222)
기능상태							
제한 있음	23.9	27.2	7.1	16.0	11.6	14.2	100.0 (335)
제한 없음	24.5	17.2	15.0	16.2	5.3	21.8	100.0 (3,595)
2020년도	20.6	25.7	13.8	18.7	10.0	11.2	100.0 (3,725)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93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경비·수위·시설관리(5.9%), 청소 업무(12.2%)가 해당됨.

3) 가사·돌봄(4.3%), 조리·음식업(10.0%)이 해당됨.

4) 생산 작업(3.6%), 운전·운송(5.5%), 택배·배달(0.4%), 건설·기계(6.6%)가 해당됨.

5) 환경·조경(1.5%), 공공질서 유지(2.8%), 폐휴지 수거(1.5%)가 해당됨.

6) 부동산임대(1.0%), 행정 사무(1.7%), 숙박업(0.3%), 도·소매업(10.9%), 판매·판촉(3.5%), 기타(3.7%)가 해당됨.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 37.3%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임시근로자 22.2%, 상용근로자 17.2%, 일용근로자 7.9%, 무급가족종사자 8.3%로 나타났다(〈표 8-4〉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 노인은 자영업자 30.2%, 임시근로자 24.0%, 상용근로자 22.6%, 일용근로자 9.6% 등 종사상 지위가 비교적 고른 편이나, 읍·면부 노인은 자영업자 비율이 49.7%로 절반을 차지하며, 그다음 임시근로자 19.2%, 무급가족종사자 15.5%, 상용근로자 7.7% 등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노인의 경우, 자영업자가 46.6%를 차지하며, 여자 노인은 임시근로자 29.5%와 자영업자 26.2%이다. 또한, 여자 노인은 상대적으로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높은 16.1%(남자 노인 1.7%)에 달한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용근로자와 고용주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임시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 연령군 특성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65~69세 연령군에서 가장 높으며, 임시근로자는 85~89세 연령군에서 50.6%로 가장 높다. 자영업자는 70대 연령군에서 평균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은 자영업자(37.4%) 비율이 높은 반면, 무배우 노인의 경우 자영업자(37.0%)와 임시근로자(30.4%) 비율이 높았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독거가구는 임시근로자(30.3%) 비율이 모든 가구 중에서 가장 높고, 부부가구는 무급가족종사자(12.1%) 비율이 모든 가구 중에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용근로자와 고용주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임시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용근로자와 고용주 비율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적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에서 상용근로자(17.7%)와 고용주(7.5%)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에서 임시근로자(32.4%)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8-4〉 현재 일자리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특성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단독)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계 (명)
전체 ¹⁾	17.2	22.2	7.9	7.1	37.3	8.3	0.1	100.0 (3,931)
지역								
동부	22.6	24.0	9.6	9.3	30.2	4.2	0.1	100.0 (2,513)
읍·면부	7.7	19.2	4.8	3.1	49.7	15.5	0.0	100.0 (1,418)
성								
남자	19.9	16.1	5.9	9.8	46.6	1.7	0.0	100.0 (2,136)
여자	14.0	29.5	10.3	3.8	26.2	16.1	0.2	100.0 (1,795)
연령								
65~69세	22.0	16.3	6.4	10.1	36.7	8.5	0.0	100.0 (2,061)
70~74세	16.3	20.8	9.1	5.0	39.0	9.8	0.0	100.0 (925)
75~79세	9.5	30.6	10.5	3.2	39.3	6.9	0.0	100.0 (505)
80~84세	6.4	41.2	9.4	1.5	34.4	6.2	0.9	100.0 (307)
85~89세	4.3	50.6	10.6	0.5	29.9	4.0	0.0	100.0 (117)
90세 이상	0.0	33.1	0.0	4.2	50.9	11.7	0.0	100.0 (1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7.9	18.1	7.1	7.6	37.4	11.8	0.0	100.0 (2,598)
배우자 없음	15.8	30.4	9.3	5.9	37.0	1.3	0.2	100.0 (1,333)
가구형태								
노인독거	15.8	30.3	9.1	5.8	37.9	0.9	0.2	100.0 (1,153)
노인부부	17.5	18.7	6.7	7.4	37.6	12.1	0.0	100.0 (2,357)
자녀동거	20.3	20.6	12.2	9.8	30.1	7.1	0.0	100.0 (333)
기타	17.9	16.9	7.3	4.4	46.4	7.0	0.0	100.0 (87)
교육수준								
무학	3.6	43.1	10.7	1.1	28.6	12.9	0.0	100.0 (311)
초등학교	9.2	25.8	9.2	1.8	41.0	12.7	0.3	100.0 (935)
중학교	17.7	22.0	11.4	3.1	37.6	8.2	0.0	100.0 (804)
고등학교	22.9	17.6	5.6	10.6	37.6	5.7	0.0	100.0 (1,574)
전문대학 이상	25.0	14.8	3.2	21.2	32.0	3.8	0.0	100.0 (307)
연가소득								
제1오분위	10.4	45.1	14.1	0.9	20.6	8.0	0.9	100.0 (319)
제2오분위	6.4	39.9	9.3	0.9	35.5	8.0	0.0	100.0 (517)
제3오분위	14.7	26.4	8.4	1.3	39.4	9.8	0.0	100.0 (815)
제4오분위	20.5	16.2	7.1	5.4	42.6	8.2	0.0	100.0 (1,005)
제5오분위	22.3	11.5	6.1	16.1	36.5	7.6	0.0	100.0 (1,27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6	41.8	11.3	1.3	26.8	10.7	0.4	100.0 (740)
50%이상~100%미만	14.8	25.1	8.7	0.9	40.3	10.2	0.0	100.0 (1,093)
100%이상~150%미만	21.1	18.1	6.6	5.9	42.5	5.8	0.0	100.0 (875)
150%이상	22.4	10.7	6.0	17.0	37.0	6.9	0.0	100.0 (1,222)
기능상태								
제한 있음	12.4	32.4	7.7	2.8	38.5	6.1	0.0	100.0 (335)
제한 없음	17.7	21.3	7.9	7.5	37.1	8.5	0.1	100.0 (3,595)
2020년도	18.4	21.2	15.2	4.3	33.4	7.4	—	100.0 (3,725)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93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현재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근로자)에 종사하고 있는 1,860명을 대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가 정부지원 일자리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표 8-5〉 참조). 노인 임금근로자의 37.5%는 정부지원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정부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특성을 보면, 지역별로 동부 노인(30.4%)보다는 읍·면부 노인(59.7%)의 비율이 높고, 성별로 남자 노인(21.0%)보다는 여자 노인(52.8%)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연령군별로는 임금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80세 이상 연령군의 90%대 이상(80~84세 90.4%, 85~89세 95.7%, 90세 이상 100%)이 정부지원 일자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임금근로 노인의 48.9%, 독거가구 노인의 48.5%가 정부지원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지원 일자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신체기능상태별로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57.0%)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35.5%)보다 정부지원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8-5〉 현재 일자리 정부지원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요	계 (명)
전체 ^{1) 2)}	37.5	62.5	100.0 (1,860)
지역			
동부	30.4	69.6	100.0 (1,411)
읍·면부	59.7	40.3	100.0 (449)
성			
남자	21.0	79.0	100.0 (895)
여자	52.8	47.2	100.0 (965)
연령			
65~69세	14.3	85.7	100.0 (921)
70~74세	36.8	63.2	100.0 (428)
75~79세	67.6	32.4	100.0 (255)
80~84세	90.4	9.6	100.0 (175)
85~89세	95.7	4.3	100.0 (77)
90세 이상	100.0	0.0	100.0 (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0.0	70.0	100.0 (1,120)
배우자 없음	48.9	51.1	100.0 (740)
가구형태			
노인독거	48.5	51.5	100.0 (637)
노인부부	30.7	69.3	100.0 (1,010)
자녀동거	38.9	61.1	100.0 (177)
기타	27.3	72.7	100.0 (37)
교육수준			
무학	90.8	9.2	100.0 (179)
초등학교	64.1	35.9	100.0 (414)
중학교	29.2	70.8	100.0 (411)
고등학교	17.7	82.3	100.0 (725)
전문대학 이상	16.6	83.4	100.0 (13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9.1	20.9	100.0 (222)
제2오분위	78.6	21.4	100.0 (287)
제3오분위	37.2	62.8	100.0 (403)
제4오분위	16.3	83.7	100.0 (440)
제5오분위	14.6	85.4	100.0 (50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8.9	21.1	100.0 (450)
50%이상~100%미만	41.5	58.5	100.0 (532)
100%이상~150%미만	15.6	84.4	100.0 (401)
150%이상	12.5	87.5	100.0 (478)
기능상태			
제한 있음	57.0	43.0	100.0 (176)
제한 없음	35.5	64.5	100.0 (1,684)
2020년도	41.8	58.2	100.0 (2,045)

주: 1) 전체응답자 중 임금근로자 1,86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현재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1,860명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의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다. 근무환경 인식은 타 연령대와의 소통 어려움, 노인 차별적 분위기, 건강에 위해한 작업환경, 건강에 위해한 업무내용이다. 먼저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노인의 69.8%(그렇지 않다 53.4%, 전혀 그렇지 않다 16.4%)는 일자리에서 타 연령대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밖에 ‘보통이다’ 20.1%, ‘(매우) 그렇다’ 10.1%(그렇다 9.5%, 매우 그렇다 0.6%)로 나타났다. 타 연령대와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매우 그렇다+그렇다)는 노인의 특성은 동부 노인(11.0%), 남자 노인(12.2%), 유배우 노인(11.1%), 부부가구(11.6%), 고등학교 이상 졸업의 학력 노인(고등학교 11.7%, 전문대학 이상 11.6%)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7>에 의하면 임금근로 노인의 70.3%(그렇지 않다 41.8%, 전혀 그렇지 않다 28.5%)는 일자리에서 언어적 학대, 굴욕감, 소외 등 노인을 차별하는 분위기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밖에 ‘보통이다’ 21.4%, ‘(매우) 그렇다’ 8.3%(그렇다 7.1%, 매우 그렇다 1.2%)로 나타났다. 노인 차별 분위기를 인식하는(매우 그렇다+그렇다) 응답은 동부 노인(9.4%), 남자 노인(9.5%), 65~69세 연령군(9.5%), 초등학교 학력 노인(10.7%), 가구소득 중위 150% 이상 노인(10.3%)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 노인의 64.2%(그렇지 않다 40.9%, 전혀 그렇지 않다 23.2%)는 소음, 고온, 저온 등 신체 건강에 위해하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8>). 그 외 ‘보통이다’ 23.7%, ‘(매우) 그렇다’ 12.2%(그렇다 11.2%, 매우 그렇다 1.0%)로 나타났다. 건강에 위해한 작업환경(매우 그렇다+그렇다)이라는 응답은 남자 노인(16.4%), 65~69세 연령군(14.6%), 고등학교 졸업 학력 노인(15.1%), 가구소득 중위 150% 이상의 노인(15.0%)에서 높았다.

<표 8-9>에 의하면 현재 업무 내용에 대해 노인의 63.0%(그렇지 않다 41.7%, 전혀 그렇지 않다 21.3%)는 신체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밖에 ‘보통이다’ 26.3%, ‘(매우) 그렇다’ 10.7%(그렇다 9.9%, 매우 그렇다 0.8%)로 나타났다. 건강에 위해한 업무 내용(매우 그렇다+그렇다)이라는 응답은 남자 노인(13.7%), 75세 미만 연령군(65~69세 13.0%, 70~74세 12.3%), 유배우 노인(11.5%), 중·고등학교 졸업의 학력 노인(중학교 12.1%, 고등학교 12.7%), 가구소득 중위 100% 이상의 노인(중위소득 대비 100~150%,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 각각 13.0%)에서 높았다.

〈표 8-6〉 현재 일자리 근무환경 인식: 다른 연령대와 소통 어려움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1) 2) 3)}	0.6	9.5	20.1	53.4	16.4	100.0 (1,860)
지역						
동부	0.5	10.5	21.5	53.4	14.1	100.0 (1,411)
읍·면부	0.9	6.3	15.8	53.1	23.9	100.0 (449)
성						
남자	0.4	11.8	21.9	51.5	14.4	100.0 (895)
여자	0.9	7.3	18.4	55.1	18.4	100.0 (965)
연령						
65~69세	0.5	11.7	20.3	52.3	15.3	100.0 (921)
70~74세	0.8	7.5	21.3	52.2	18.2	100.0 (428)
75~79세	1.2	9.0	17.3	56.1	16.3	100.0 (255)
80~84세	0.2	3.6	21.8	54.8	19.6	100.0 (175)
85~89세	0.0	8.8	18.3	58.9	14.0	100.0 (77)
90세 이상	0.0	0.0	0.0	82.0	18.0	100.0 (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3	10.8	20.0	52.8	16.1	100.0 (1,120)
배우자 없음	1.1	7.4	20.3	54.2	17.0	100.0 (740)
가구형태						
노인독거	1.3	7.2	19.6	53.9	18.0	100.0 (637)
노인부부	0.3	11.3	20.7	51.6	16.2	100.0 (1,010)
자녀동거	0.0	7.1	19.3	59.0	14.5	100.0 (177)
기타	0.0	10.2	18.9	66.6	4.3	100.0 (37)
교육수준						
무학	0.2	2.6	12.4	60.1	24.8	100.0 (179)
초등학교	0.9	10.1	20.9	51.1	17.1	100.0 (414)
중학교	0.7	8.2	22.7	54.2	14.2	100.0 (411)
고등학교	0.6	11.1	21.0	53.6	13.7	100.0 (725)
전문대학 이상	0.0	11.6	15.6	47.6	25.2	100.0 (13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4	9.1	17.1	57.4	15.1	100.0 (222)
제2오분위	0.3	6.0	16.3	58.4	19.0	100.0 (287)
제3오분위	0.3	8.2	22.7	50.8	18.0	100.0 (403)
제4오분위	0.8	10.7	20.8	53.0	14.7	100.0 (440)
제5오분위	0.6	11.5	21.0	51.1	15.8	100.0 (50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0.7	8.9	17.8	55.5	17.1	100.0 (450)
50%이상~100%미만	0.6	9.0	19.2	54.8	16.4	100.0 (532)
100%이상~150%미만	0.1	10.5	19.7	51.4	18.4	100.0 (401)
150%이상	1.0	9.6	23.7	51.4	14.3	100.0 (478)
기능상태						
제한 있음	0.0	5.4	23.6	62.9	8.2	100.0 (176)
제한 없음	0.7	9.9	19.8	52.4	17.3	100.0 (1,684)

주: 1) 본인응답자 중 임금근로자 1,86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2023년 신규 문항임.

〈표 8-7〉 현재 일자리 근무환경 인식: 노인 차별적 분위기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1) 2) 3)}	1.2	7.1	21.4	41.8	28.5	100.0 (1,860)
지역						
동부	1.2	8.2	23.6	40.8	26.3	100.0 (1,411)
읍·면부	1.3	3.6	14.5	45.3	35.3	100.0 (449)
성						
남자	1.6	7.9	25.3	39.4	25.8	100.0 (895)
여자	0.8	6.3	17.8	44.1	31.0	100.0 (965)
연령						
65~69세	1.1	8.4	24.5	39.7	26.3	100.0 (921)
70~74세	1.3	5.8	22.0	43.9	27.1	100.0 (428)
75~79세	2.6	5.7	17.5	41.5	32.7	100.0 (255)
80~84세	0.0	6.7	12.6	46.0	34.7	100.0 (175)
85~89세	0.0	4.6	14.9	47.0	33.4	100.0 (77)
90세 이상	0.0	0.0	0.0	47.2	52.8	100.0 (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1	7.5	22.4	41.0	27.9	100.0 (1,120)
배우자 없음	1.3	6.4	19.9	43.1	29.4	100.0 (740)
가구형태						
노인독거	1.2	6.7	20.0	43.7	28.5	100.0 (637)
노인부부	1.1	8.2	22.4	40.3	27.9	100.0 (1,010)
자녀동거	1.9	2.6	20.2	40.3	35.1	100.0 (177)
기타	0.0	4.0	23.4	60.1	12.4	100.0 (37)
교육수준						
무학	0.2	2.0	8.7	47.1	42.1	100.0 (179)
초등학교	1.4	9.3	17.8	42.5	29.0	100.0 (414)
중학교	0.8	6.7	21.4	45.6	25.6	100.0 (411)
고등학교	1.5	7.4	26.8	39.1	25.2	100.0 (725)
전문대학 이상	1.1	6.6	20.2	36.2	35.9	100.0 (132)
연가소득						
제1오분위	2.7	6.2	19.8	44.7	26.5	100.0 (222)
제2오분위	0.5	4.9	14.4	48.5	31.8	100.0 (287)
제3오분위	0.4	6.7	22.0	41.3	29.7	100.0 (403)
제4오분위	2.0	8.0	21.7	38.9	29.5	100.0 (440)
제5오분위	0.8	8.3	25.3	39.9	25.7	100.0 (50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5	5.2	19.4	45.9	28.1	100.0 (450)
50%이상~100%미만	1.2	6.7	19.6	41.7	30.8	100.0 (532)
100%이상~150%미만	1.7	6.4	21.6	38.8	31.6	100.0 (401)
150%이상	0.5	9.8	25.2	40.7	23.8	100.0 (478)
기능상태						
제한 있음	0.0	7.7	22.4	50.9	19.0	100.0 (176)
제한 없음	1.3	7.0	21.3	40.9	29.5	100.0 (1,684)

주: 1) 본인응답자 중 임금근로자 1,86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2023년 신규 문항임.

〈표 8-8〉 현재 일자리 근무환경 인식: 건강에 위대한 작업환경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1) 2) 3)}	1.0	11.2	23.7	40.9	23.3	100.0 (1,860)
지역						
동부	1.2	11.1	26.0	40.0	21.6	100.0 (1,411)
읍·면부	0.5	11.3	16.4	43.4	28.4	100.0 (449)
성						
남자	1.3	15.1	26.4	38.2	19.0	100.0 (895)
여자	0.8	7.6	21.1	43.4	27.2	100.0 (965)
연령						
65~69세	1.1	13.5	25.0	38.6	21.8	100.0 (921)
70~74세	1.2	9.5	25.1	43.8	20.3	100.0 (428)
75~79세	1.7	8.7	18.9	43.4	27.2	100.0 (255)
80~84세	0.0	8.5	21.4	38.9	31.2	100.0 (175)
85~89세	0.0	7.0	22.1	46.3	24.7	100.0 (77)
90세 이상	0.0	0.0	0.0	63.8	36.2	100.0 (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1	11.5	24.8	41.5	21.0	100.0 (1,120)
배우자 없음	0.9	10.6	21.9	39.9	26.6	100.0 (740)
가구형태						
노인독거	0.8	11.2	22.1	38.2	27.6	100.0 (637)
노인부부	1.2	11.3	26.6	39.8	21.0	100.0 (1,010)
자녀동거	0.9	9.6	13.8	54.4	21.3	100.0 (177)
기타	0.0	13.4	18.9	49.4	18.3	100.0 (37)
교육수준						
무학	0.0	7.5	13.6	40.6	38.3	100.0 (179)
초등학교	1.2	10.1	23.9	42.9	21.9	100.0 (414)
중학교	1.5	9.8	24.6	41.9	22.2	100.0 (411)
고등학교	0.8	14.3	25.7	38.3	20.9	100.0 (725)
전문대학 이상	1.6	6.3	22.9	45.9	23.3	100.0 (13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0	14.3	21.3	42.5	21.9	100.0 (222)
제2오분위	1.5	6.3	19.0	39.1	34.0	100.0 (287)
제3오분위	1.8	8.2	24.7	41.7	23.5	100.0 (403)
제4오분위	1.3	11.0	28.5	36.6	22.6	100.0 (440)
제5오분위	0.4	15.0	22.3	44.2	18.1	100.0 (50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0.5	10.5	22.2	39.9	27.0	100.0 (450)
50%이상~100%미만	1.5	10.2	22.9	41.7	23.6	100.0 (532)
100%이상~150%미만	1.6	9.3	26.0	38.5	24.6	100.0 (401)
150%이상	0.5	14.5	24.0	42.8	18.2	100.0 (478)
기능상태						
제한 있음	0.9	6.5	37.0	40.9	14.7	100.0 (176)
제한 없음	1.0	11.7	22.3	40.9	24.2	100.0 (1,684)

주: 1) 본인응답자 중 임금근로자 1,86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2023년 신규 문항임.

〈표 8-9〉 현재 일자리 근무환경 인식: 건강에 위해한 업무내용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1) 2) 3)}	0.8	9.9	26.3	41.7	21.3	100.0 (1,860)
지역						
동부	0.8	10.7	28.0	41.5	19.0	100.0 (1,411)
읍·면부	0.9	7.2	21.0	42.2	28.6	100.0 (449)
성						
남자	1.0	12.7	30.5	38.4	17.3	100.0 (895)
여자	0.7	7.2	22.3	44.8	25.0	100.0 (965)
연령						
65~69세	1.2	11.8	30.2	39.6	17.3	100.0 (921)
70~74세	0.5	11.8	27.3	37.6	22.8	100.0 (428)
75~79세	1.0	7.8	17.1	51.7	22.4	100.0 (255)
80~84세	0.0	2.2	21.8	42.8	33.2	100.0 (175)
85~89세	0.0	0.6	16.6	54.5	28.3	100.0 (77)
90세 이상	0.0	12.6	0.0	34.8	52.6	100.0 (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9	10.6	27.9	40.3	20.3	100.0 (1,120)
배우자 없음	0.7	8.7	23.8	43.9	22.8	100.0 (740)
가구형태						
노인독거	0.9	8.5	23.4	43.9	23.3	100.0 (637)
노인부부	1.0	11.0	28.5	39.5	20.0	100.0 (1,010)
자녀동거	0.0	9.1	21.5	45.0	24.4	100.0 (177)
기타	0.0	6.0	39.2	48.6	6.3	100.0 (37)
교육수준						
무학	0.2	2.1	14.9	43.8	38.9	100.0 (179)
초등학교	0.2	10.4	23.0	44.1	22.3	100.0 (414)
중학교	1.6	10.5	28.2	40.7	18.9	100.0 (411)
고등학교	1.1	11.6	30.9	38.8	17.6	100.0 (725)
전문대학 이상	0.0	6.7	20.4	50.5	22.4	100.0 (13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	8.0	20.6	45.2	24.9	100.0 (222)
제2오분위	0.1	5.0	20.9	45.1	28.9	100.0 (287)
제3오분위	1.0	7.8	26.9	41.4	23.0	100.0 (403)
제4오분위	1.4	13.3	30.0	39.1	16.2	100.0 (440)
제5오분위	0.4	12.2	28.2	40.8	18.5	100.0 (50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0.7	6.0	21.6	45.3	26.4	100.0 (450)
50%이상~100%미만	1.3	9.0	26.0	41.2	22.5	100.0 (532)
100%이상~150%미만	0.4	12.6	29.0	39.6	18.3	100.0 (401)
150%이상	0.8	12.2	28.7	40.6	17.7	100.0 (478)
기능상태						
제한 있음	0.0	8.4	22.8	50.7	18.1	100.0 (176)
제한 없음	0.9	10.0	26.7	40.8	21.6	100.0 (1,684)

주: 1) 본인응답자 중 임금근로자 1,86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2023년 신규 문항임.

〈표 8-10〉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주당 근무일수를 보면, 주 5일 일하는 노인이 전체의 42.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주 6일 25.7%, 주 3일 17.6%, 주 7일 6.7%, 주 4일 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주 5일과 주 6일 근무하는 노인은 동부 노인(각각 47.0%, 27.8%)이 읍·면부 노인(각각 34.5%, 22.0%)보다 높은데 반해, 주 7일과 주 3일 근무자는 읍·면부 노인(각각 13.4%, 20.8%)이 동부 노인(각각 2.9%, 1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근무일수도 차이가 있으며, 남자 노인은 주 5일(46.4%), 여자 노인은 주 3일(25.7%)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 5일 근무와 주 6일 근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 3일 근무자는 85~89세 연령군(59.9%)과 90세 이상 연령군(56.9%)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 주당 근무일수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무배우 노인은 주 3일(25.4%), 유배우 노인은 주 5일(45.2%)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가구형태별 역시 주당 근무일수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독거가구의 경우 주 5일 근무가 37.5%로 모든 가구형태에서 가장 낮고, 주 3일 근무 비율이 24.3%로 높은 특성이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 노인의 경우 주 3일 근무자 비율이 51.4%를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 이상 졸업 노인의 경우 주 5일 근무자가 59.9%로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주 2일 이하와 주 3일 근무자 비율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 5일과 주 6일 근무자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에서 주 5일 이상 근무 비율이 44.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면,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에서는 92.2%로 큰 차이가 있다. 기능상태별 근무일수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신체적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 주 6일 근무(26.7%) 비율이 높고,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주 3일 이하 근무(33.0%) 비율이 높다.

주당 근무시간 현황을 살펴보면, 40~50시간 미만 근무한다는 노인이 29.3%로 가장 많으며, 주 10시간 미만 28.1%, 50시간 이상 13.9%, 30~40시간 미만 11.3%, 20~30시간 미만 8.7%, 10~20시간 미만 8.6% 등으로 나타났다(〈표 8-11〉 참조).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은 주당 근무시간이 읍·면부 노인보다 높아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52.0%로 나타났다. 즉, 읍·면부 노인은 상대적으로 40시간 미만 근무 비율이 72.2%로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가 55.0%를 차지한 반면 여자 노인의 48.4%는 주 20시간 미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 20시

간 미만 비율이 높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37.2%는 주 10시간 미만으로 일하며,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의 36.9%도 주 10시간 미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 20시간 미만 근무자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 10시간 미만 근무자 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중위소득 대비 100% 이상에 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비율이 약 60%대이다.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50만 원 이상이 31.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만 원 미만 25.6%, 200~250만 원 미만 14.5%, 150~200만 원 미만 10.7%, 50~100만 원 미만 8.3%, 100~150만 원 미만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12〉 참조).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동부 노인의 경우, 250만 원 이상 비율이 38.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읍·면부 노인은 상대적으로 30만 원 미만 비율(37.3%)이 높은 편이다. 성별로는 250만 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비율이 남자 노인의 경우 46.8%로 높은 반면 여자 노인은 12.8%에 불과하다. 여자 노인의 44.8%는 30만 원 미만의 근로소득을 받았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근로소득이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30만 원 미만인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에서 근로소득 100만 원 이상 비율이 67.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무배우 노인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낮은 57.9%이다. 상대적으로 무배우 노인(29.2%)의 근로소득 30만 원 미만 비율이 유배우 노인(23.8%)보다 높았다. 가구형태별로 차이는 크지 않지만, 독거가구의 경우 50만 원 미만의 비율이 30.8%로 다른 가구형태보다 높은 편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50만 원 미만인 일을 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250만 원 이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월 50만 원 미만인 비율,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250만 원 이상인 비율이 높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상에 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 150만 원 이상의 비율이 57.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기능상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100만 원 미만의 비율이 약 50%를 차지한다.

〈표 8-10〉 현재 일자리 주당 근무일수

(단위: %, 명)

특성	2일 이하	3일	4일	5일	6일	7일	계 (명)
전체 ¹⁾	1.8	17.6	5.7	42.5	25.7	6.7	100.0 (3,931)
지역							
동부	1.6	15.7	5.0	47.0	27.8	2.9	100.0 (2,513)
읍·면부	2.2	20.8	7.1	34.5	22.0	13.4	100.0 (1,418)
성							
남자	1.3	10.7	6.5	46.4	27.5	7.6	100.0 (2,136)
여자	2.5	25.7	4.9	37.8	23.5	5.6	100.0 (1,795)
연령							
65~69세	1.0	7.2	5.9	48.2	31.2	6.6	100.0 (2,061)
70~74세	1.4	17.6	5.8	42.4	25.0	7.7	100.0 (925)
75~79세	3.0	30.8	6.6	34.0	20.2	5.4	100.0 (505)
80~84세	6.2	47.4	3.9	28.1	8.1	6.2	100.0 (307)
85~89세	2.9	59.9	3.5	20.3	7.1	6.3	100.0 (117)
90세 이상	0.0	56.9	15.3	19.2	0.0	8.5	100.0 (1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4	13.5	6.2	45.2	26.5	7.1	100.0 (2,598)
배우자 없음	2.7	25.4	4.8	37.2	24.1	5.7	100.0 (1,333)
가구형태							
노인독거	3.0	24.3	4.7	37.5	24.5	6.0	100.0 (1,153)
노인부부	1.3	14.0	6.4	44.4	26.4	7.4	100.0 (2,357)
자녀동거	2.1	20.5	4.1	45.3	24.5	3.5	100.0 (333)
기타	0.0	12.9	8.9	46.3	25.5	6.4	100.0 (87)
교육수준							
무학	4.4	51.4	7.0	20.2	10.2	6.8	100.0 (311)
초등학교	3.3	27.7	7.9	32.3	19.6	9.3	100.0 (935)
중학교	1.3	16.1	6.6	43.5	27.6	4.8	100.0 (804)
고등학교	1.0	7.3	4.4	49.1	31.8	6.4	100.0 (1,574)
전문대학 이상	0.5	8.9	2.7	59.9	23.5	4.5	100.0 (30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1	49.3	4.4	28.9	6.7	6.6	100.0 (319)
제2오분위	4.3	42.5	6.5	30.5	9.1	7.1	100.0 (517)
제3오분위	2.2	20.3	8.1	40.3	22.3	6.9	100.0 (815)
제4오분위	1.1	8.7	6.0	44.1	33.1	6.9	100.0 (1,005)
제5오분위	0.6	4.8	4.0	50.9	33.5	6.2	100.0 (1,27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2	46.3	5.1	30.9	7.5	6.1	100.0 (740)
50%이상~100%미만	2.3	21.6	7.9	38.6	21.5	8.1	100.0 (1,093)
100%이상~150%미만	1.1	7.3	6.9	47.4	30.7	6.6	100.0 (875)
150%이상	0.6	4.0	3.3	49.5	36.9	5.8	100.0 (1,222)
가능상태							
제한 있음	4.1	28.9	6.8	40.1	14.7	5.4	100.0 (335)
제한 없음	1.6	16.5	5.6	42.7	26.7	6.8	100.0 (3,595)
2020년도	3.4	14.7	6.3	41.5	24.1	10.0	100.0 (3,725)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93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8-11〉 현재 일자리 주당 근무시간

(단위: %, 명)

특성	10시간 미만	10~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계 (명)
전체 ¹⁾	28.1	8.6	8.7	11.3	29.3	13.9	100.0 (3,931)
지역							
동부	27.1	6.4	6.4	8.2	35.6	16.4	100.0 (2,513)
읍·면부	30.0	12.4	12.8	17.0	18.3	9.6	100.0 (1,418)
성							
남자	21.3	5.6	7.1	11.0	37.6	17.4	100.0 (2,136)
여자	36.3	12.1	10.6	11.7	19.5	9.8	100.0 (1,795)
연령							
65~69세	18.1	5.8	8.0	10.6	38.8	18.8	100.0 (2,061)
70~74세	28.4	10.6	9.4	14.2	25.7	11.8	100.0 (925)
75~79세	41.8	12.7	9.6	11.3	17.6	7.0	100.0 (505)
80~84세	57.6	11.5	9.4	9.3	8.2	4.0	100.0 (307)
85~89세	64.2	12.4	11.1	8.0	1.3	2.9	100.0 (117)
90세 이상	48.4	39.1	4.0	8.5	0.0	0.0	100.0 (1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3.4	8.0	8.8	12.3	32.7	14.7	100.0 (2,598)
배우자 없음	37.2	9.7	8.6	9.4	22.7	12.4	100.0 (1,333)
가구형태							
노인독거	36.9	9.4	8.5	9.7	22.7	12.9	100.0 (1,153)
노인부부	23.8	8.0	8.8	12.6	31.9	14.9	100.0 (2,357)
자녀동거	29.6	9.6	8.2	8.3	34.6	9.8	100.0 (333)
기타	22.9	10.4	9.8	10.0	27.7	19.2	100.0 (87)
교육수준							
무학	58.5	14.1	8.8	9.8	5.3	3.5	100.0 (311)
초등학교	38.4	14.4	12.9	13.6	13.6	7.1	100.0 (935)
중학교	28.4	8.1	10.6	15.1	27.3	10.5	100.0 (804)
고등학교	18.3	5.0	5.8	9.5	40.3	21.0	100.0 (1,574)
전문대학 이상	15.3	4.7	5.3	5.6	50.8	18.3	100.0 (30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7.7	12.8	11.1	4.1	11.5	2.8	100.0 (319)
제2오분위	49.4	15.7	13.3	11.9	5.9	3.8	100.0 (517)
제3오분위	31.9	11.1	10.7	15.2	21.5	9.7	100.0 (815)
제4오분위	19.9	6.5	7.5	12.1	36.8	17.2	100.0 (1,005)
제5오분위	16.1	4.6	5.9	9.8	42.5	21.0	100.0 (1,27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2.5	15.7	12.0	8.6	8.4	2.7	100.0 (740)
50%이상~100%미만	33.0	10.8	10.8	14.3	21.2	10.0	100.0 (1,093)
100%이상~150%미만	18.6	5.7	8.5	12.7	38.0	16.5	100.0 (875)
150%이상	15.8	4.4	5.0	9.3	43.0	22.4	100.0 (1,222)
기능상태							
제한 있음	42.0	10.2	9.2	11.0	17.8	9.8	100.0 (335)
제한 없음	26.8	8.4	8.6	11.4	30.4	14.3	100.0 (3,595)
2020년도	22.2	16.3	7.2	12.1	26.8	15.5	100.0 (3,725)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93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8-12〉 현재 일자리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명)

특성	30만원 미만 ²⁾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150 만원 미만	150~200 만원 미만	200~250 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계 (명)	평균 ³⁾
전체 ¹⁾	25.6	1.9	8.3	7.6	10.7	14.5	31.3	100.0 (3,931)	192.4
지역									
동부	19.0	0.7	6.5	6.4	11.3	17.2	38.9	100.0 (2,513)	215.2
읍·면부	37.3	4.1	11.6	9.6	9.7	9.7	17.9	100.0 (1,418)	146.5
성									
남자	9.5	1.5	7.4	7.4	10.8	16.6	46.8	100.0 (2,136)	238.6
여자	44.9	2.5	9.4	7.8	10.7	11.9	12.8	100.0 (1,795)	127.8
연령									
65~69세	13.7	1.0	5.3	7.1	11.4	18.3	43.2	100.0 (2,061)	244.7
70~74세	25.8	2.0	11.7	7.5	12.1	14.9	26.1	100.0 (925)	177.0
75~79세	40.8	4.3	12.4	8.3	11.4	8.2	14.5	100.0 (505)	118.3
80~84세	61.4	4.2	7.2	12.2	4.0	3.3	7.7	100.0 (307)	78.7
85~89세	70.2	1.6	18.3	2.6	5.0	1.8	0.5	100.0 (117)	47.0
90세 이상	68.0	8.2	19.6	4.2	0.0	0.0	0.0	100.0 (15)	42.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3.8	1.6	7.3	7.4	9.6	15.0	35.2	100.0 (2,598)	214.0
배우자 없음	29.2	2.6	10.2	7.9	12.9	13.4	23.8	100.0 (1,333)	155.0
가구형태									
노인독거	28.2	2.6	10.3	8.1	12.8	14.1	24.0	100.0 (1,153)	155.0
노인부부	24.5	1.7	7.2	7.2	9.9	15.1	34.4	100.0 (2,357)	211.2
자녀동거	26.1	1.0	9.1	8.4	10.2	12.5	32.8	100.0 (333)	204.7
기타	20.7	3.7	9.7	8.3	8.6	10.4	38.6	100.0 (87)	195.3
교육수준									
무학	69.7	4.3	10.1	6.4	5.0	2.3	2.2	100.0 (311)	56.4
초등학교	42.3	3.2	14.8	11.4	10.3	8.7	9.3	100.0 (935)	106.1
중학교	22.4	2.0	8.5	10.0	15.9	17.4	23.7	100.0 (804)	169.8
고등학교	12.0	0.9	4.8	4.8	10.6	19.3	47.6	100.0 (1,574)	248.1
전문대학 이상	8.9	0.8	4.0	5.1	5.0	12.1	64.0	100.0 (307)	333.0
연가소득									
제1오분위	65.6	2.1	10.6	3.2	4.9	7.1	6.4	100.0 (319)	76.1
제2오분위	55.2	7.1	19.7	9.4	3.1	2.5	3.0	100.0 (517)	62.2
제3오분위	27.7	2.0	11.1	15.1	19.7	17.5	6.8	100.0 (815)	127.5
제4오분위	14.0	1.1	7.5	6.2	12.5	20.5	38.3	100.0 (1,005)	211.3
제5오분위	11.5	0.4	2.0	4.2	8.2	14.6	59.1	100.0 (1,274)	299.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2.3	4.9	13.8	6.2	3.8	4.0	4.9	100.0 (740)	68.9
50%이상~100%미만	30.1	2.7	13.0	12.6	14.1	15.3	12.2	100.0 (1,093)	133.5
100%이상~150%미만	10.9	0.9	7.1	9.0	16.2	21.0	35.0	100.0 (875)	206.6
150%이상	10.0	0.2	1.7	3.0	8.0	15.4	61.7	100.0 (1,222)	304.3
기능상태									
제한 있음	38.3	2.8	9.0	5.6	9.9	11.7	22.6	100.0 (335)	137.7
제한 없음	24.5	1.9	8.3	7.8	10.8	14.7	32.1	100.0 (3,595)	197.6
2020년도	15.7	9.4	13.0	14.0	17.5	14.5	15.8	100.0 (3,725)	148.7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93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근로소득 없음(8.6%)이 포함됨.

3)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931명 중 근로소득이 있는 3,592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직업에 종사한 기간은 30년 이상 28.0%, 5년 미만 23.9%, 10~20년 미만 18.1%, 5~10년 미만 15.9%, 20~30년 미만 14.1%로 나타났다(〈표 8-13〉 참조). 현 직업의 종사 기간이 5년 미만인 비율은 동부 거주 노인(26.5%)과 여자 노인(33.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30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읍·면부 거주 노인(49.0%)과 남자 노인(32.1%)에서 높다. 그리고 현 직업 종사 기간이 5년 미만인 노인의 연령대는 85~89세 연령군(50.7%)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30년 이상 근무자는 90세 이상을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30% 안팎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30.3%는 현재 직업 종사 기간이 5년 미만이며, 유배우 노인의 경우에는 30년 이상 근무자가 30.2%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 살펴보면, 현재 직업 종사 기간 5년 미만의 응답 비율은 독거가구에서 30.3%로 가장 높고, 30년 이상의 응답 비율은 부부가구에서 31.0%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현재 직업 종사 기간이 5년 미만과 30년 이상이 높은 경향성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5~20년 미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5년 미만 근무자 비율이 낮으며, 5~30년 미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는 노인의 30.2%는 현재 직업이 5년 미만이지만, 30년 이상인 비율도 26.9%를 차지하였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해 10년 이상 비율이 높았다.

〈표 8-14〉를 통하여 현재 일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생계비 마련이 77.9%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용돈마련 6.9%, 건강유지 6.2%, 능력(경력) 발휘 3.6%, 시간보내기 3.1% 등으로 나타났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는 노인의 특성은 동부 노인, 남자 노인, 65~69세 연령군과 90세 이상 연령군, 유배우 노인에게서 그리고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용돈 필요가 목적인 경우는 여자 노인, 85~89세 연령군, 무배우 노인, 자녀동거가구, 무학, 중위소득 50% 미만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8-13〉 현재 일자리 종사 기간

(단위: %, 명)

특성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계 (명)
전체 ¹⁾	23.9	15.9	18.1	14.1	28.0	100.0 (3,931)
지역						
동부	26.5	19.2	21.3	16.9	16.2	100.0 (2,513)
읍·면부	19.4	10.0	12.3	9.2	49.0	100.0 (1,418)
성						
남자	15.9	15.4	19.5	17.1	32.1	100.0 (2,136)
여자	33.5	16.4	16.4	10.6	23.2	100.0 (1,795)
연령						
65~69세	17.3	17.0	24.7	19.1	21.9	100.0 (2,061)
70~74세	23.3	16.4	14.9	12.2	33.2	100.0 (925)
75~79세	35.6	11.9	9.0	7.5	36.0	100.0 (505)
80~84세	41.4	15.0	4.6	2.7	36.3	100.0 (307)
85~89세	50.7	12.2	2.3	1.4	33.4	100.0 (117)
90세 이상	22.9	10.2	0.0	0.0	66.9	100.0 (1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0.7	15.6	19.2	14.3	30.2	100.0 (2,598)
배우자 없음	30.3	16.4	15.9	13.7	23.7	100.0 (1,333)
가구형태						
노인독거	30.3	15.9	16.2	13.1	24.4	100.0 (1,153)
노인부부	20.6	15.5	19.0	13.9	31.0	100.0 (2,357)
자녀동거	27.4	17.9	14.7	17.8	22.3	100.0 (333)
기타	17.0	17.1	28.7	19.9	17.3	100.0 (87)
교육수준						
무학	43.9	9.9	3.7	5.4	37.1	100.0 (311)
초등학교	29.4	11.1	7.3	6.7	45.4	100.0 (935)
중학교	25.3	17.5	15.3	11.6	30.2	100.0 (804)
고등학교	17.6	18.1	27.9	19.1	17.3	100.0 (1,574)
전문대학 이상	16.1	20.6	21.9	26.4	15.0	100.0 (30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5.0	13.6	7.7	2.1	21.6	100.0 (319)
제2오분위	42.8	9.8	7.8	6.4	33.1	100.0 (517)
제3오분위	28.3	15.0	13.0	9.0	34.7	100.0 (815)
제4오분위	15.6	16.6	22.6	15.4	29.8	100.0 (1,005)
제5오분위	12.3	18.8	24.5	22.5	21.8	100.0 (1,27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7.8	11.1	6.8	4.6	29.7	100.0 (740)
50%이상~100%미만	28.6	14.7	13.9	8.4	34.2	100.0 (1,093)
100%이상~150%미만	15.8	17.3	24.5	15.2	27.2	100.0 (875)
150%이상	11.1	18.8	23.9	24.2	22.0	100.0 (1,222)
기능상태						
제한 있음	30.2	19.0	15.6	8.4	26.9	100.0 (335)
제한 없음	23.4	15.6	18.3	14.6	28.1	100.0 (3,595)
2020년도	30.1	13.5	16.1	13.5	26.9	100.0 (3,725)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93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8-14〉 현재 일을 하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생계비 마련	용돈 필요	건강 유지	친교·사교	능력(경력) 발휘	시간 보내기	사회적 기여	기타	계 (명)
전체 ¹⁾	77.9	6.9	6.2	2.0	3.6	3.1	0.2	0.2	100.0 (3,926)
지역									
동부	78.3	7.2	6.2	1.5	3.9	2.5	0.3	0.1	100.0 (2,510)
읍·면부	77.1	6.3	6.3	2.8	2.9	4.2	0.1	0.3	100.0 (1,416)
성									
남자	81.1	4.2	5.9	0.9	5.1	2.6	0.2	0.0	100.0 (2,132)
여자	74.0	10.0	6.6	3.2	1.8	3.7	0.3	0.3	100.0 (1,793)
연령									
65~69세	83.3	3.8	4.9	1.3	4.6	1.7	0.2	0.2	100.0 (2,060)
70~74세	77.2	7.3	6.5	1.8	3.4	3.5	0.2	0.0	100.0 (922)
75~79세	67.6	11.6	9.5	3.2	1.1	6.5	0.1	0.3	100.0 (505)
80~84세	64.6	14.2	9.5	4.1	1.9	5.5	0.1	0.0	100.0 (307)
85~89세	64.2	18.5	5.4	4.7	1.0	5.5	0.7	0.0	100.0 (116)
90세 이상	89.9	4.2	6.0	0.0	0.0	0.0	0.0	0.0	100.0 (1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8.0	5.8	6.6	1.6	4.2	3.5	0.1	0.2	100.0 (2,593)
배우자 없음	77.6	8.9	5.5	2.7	2.3	2.5	0.4	0.0	100.0 (1,333)
가구형태									
노인독거	78.5	8.1	5.6	2.7	2.3	2.4	0.4	0.0	100.0 (1,153)
노인부부	78.2	5.6	6.7	1.6	4.0	3.6	0.1	0.2	100.0 (2,354)
자녀동거	72.2	12.3	4.5	2.9	4.8	3.2	0.0	0.2	100.0 (333)
기타	83.6	2.4	8.3	0.0	3.7	0.0	1.2	0.8	100.0 (86)
교육수준									
무학	66.7	16.1	9.4	3.8	0.0	3.6	0.4	0.0	100.0 (309)
초등학교	75.7	9.0	5.9	2.7	1.5	4.8	0.0	0.4	100.0 (935)
중학교	80.1	6.5	6.7	1.4	2.4	2.7	0.1	0.0	100.0 (803)
고등학교	81.8	4.5	5.5	1.2	4.2	2.3	0.2	0.1	100.0 (1,572)
전문대학 이상	69.6	4.0	6.1	3.2	13.2	2.7	0.9	0.2	100.0 (307)
연가소득									
제1오분위	68.4	13.9	7.2	3.3	3.1	3.7	0.3	0.0	100.0 (319)
제2오분위	69.6	13.9	7.5	2.7	2.0	3.9	0.4	0.0	100.0 (515)
제3오분위	78.3	7.0	6.2	2.4	1.9	3.7	0.1	0.4	100.0 (812)
제4오분위	81.6	5.2	6.3	1.6	2.2	2.8	0.3	0.1	100.0 (1,005)
제5오분위	80.3	3.5	5.4	1.4	6.5	2.5	0.1	0.2	100.0 (1,27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8.9	14.1	7.1	2.6	2.7	4.4	0.1	0.1	100.0 (738)
50%이상~100%미만	76.4	7.8	7.6	2.4	2.0	3.2	0.4	0.2	100.0 (1,090)
100%이상~150%미만	80.7	4.7	5.7	1.7	3.6	3.3	0.1	0.1	100.0 (875)
150%이상	82.6	3.2	4.8	1.4	5.4	2.1	0.2	0.2	100.0 (1,222)
기능상태									
제한 있음	78.0	7.4	6.8	2.1	2.6	2.7	0.2	0.1	100.0 (334)
제한 없음	77.9	6.8	6.2	2.0	3.7	3.2	0.2	0.2	100.0 (3,592)
2020년도	73.9	7.9	8.3	1.7	3.6	3.9	0.5	0.2	100.0 (3,712)

주: 1)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931명 중 본인응답자 3,926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67.1%(만족 60.1%, 매우 만족 7.0%)는 현재 일 자리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보통이다’ 28.6%,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4.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1%로 나타났다(〈표 8-15〉 참조).

지역별로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이 동부 거주 노인에 비해 보통이다 및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성별로는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보통이다 및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배우자 유무와 가구 형태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중위소득 150% 이상에 속한 노인의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매우 만족 7.2%, 만족하는 편 63.3%), 중위소득 100% 이상~150% 미만에 속한 노인의 일자리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만족하지 않는 편 5.7%).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지 않는다(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및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70명을 대상으로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낮은 급여수준이 가장 큰 불만족 사유였으며(47.2%), 다음으로 건강상태와 맞지 않음 19.3%, 일의 내용에 대한 불만족 16.5%, 불안정한 일자리 11.6%이다(〈표 8-16〉 참조).

낮은 급여수준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은 집단은 동부 노인(55.7%), 남자 노인(59.5%), 65~69세 연령군(52.7%), 유배우 노인(49.5%),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노인(53.3%), 신체기능제한이 없는 노인(48.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상태와 맞지 않아서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읍·면부 노인(30.0%), 여자 노인(25.4%), 무학 및 초등학교 졸업 노인, 신체기능제한이 있는 노인(51.7%)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의 내용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은 집단은 읍·면부 노인(20.6%), 여자 노인(23.4%), 70~74세 연령군(21.3%), 신체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18.6%)이 해당된다.

〈표 8-15〉 현재 일자리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 편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¹⁾	7.0	60.1	28.6	4.3	0.1	100.0 (3,926)
지역						
동부	7.7	61.7	27.0	3.6	0.1	100.0 (2,510)
읍·면부	5.8	57.2	31.4	5.5	0.1	100.0 (1,416)
성						
남자	6.1	62.2	27.9	3.8	0.1	100.0 (2,132)
여자	8.1	57.6	29.3	4.9	0.1	100.0 (1,793)
연령						
65~69세	6.3	60.9	28.7	4.0	0.0	100.0 (2,060)
70~74세	6.6	56.5	32.6	4.2	0.2	100.0 (922)
75~79세	7.2	62.6	26.4	3.8	0.0	100.0 (505)
80~84세	7.7	62.8	23.0	6.3	0.2	100.0 (307)
85~89세	15.6	60.7	16.7	7.0	0.1	100.0 (116)
90세 이상	29.2	26.6	36.6	4.0	3.6	100.0 (1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4	61.2	28.4	3.9	0.1	100.0 (2,593)
배우자 없음	8.2	57.8	28.9	5.0	0.1	100.0 (1,333)
가구형태						
노인독거	7.9	57.4	29.7	4.8	0.1	100.0 (1,153)
노인부부	6.1	60.3	29.4	4.1	0.1	100.0 (2,354)
자녀동거	9.8	67.5	20.0	2.8	0.0	100.0 (333)
기타	9.0	59.5	22.8	8.8	0.0	100.0 (86)
교육수준						
무학	13.1	54.2	27.5	4.9	0.4	100.0 (309)
초등학교	4.8	59.0	30.0	6.1	0.2	100.0 (935)
중학교	4.7	60.7	29.9	4.6	0.0	100.0 (803)
고등학교	7.6	60.2	29.2	3.0	0.0	100.0 (1,572)
전문대학 이상	10.2	67.0	18.7	4.0	0.0	100.0 (30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9	56.7	26.8	6.6	0.0	100.0 (319)
제2오분위	7.8	59.7	27.6	4.4	0.5	100.0 (515)
제3오분위	5.9	56.3	33.8	3.8	0.1	100.0 (812)
제4오분위	5.9	60.4	28.0	5.6	0.0	100.0 (1,005)
제5오분위	7.4	63.2	26.5	2.9	0.0	100.0 (1,27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0	58.4	29.0	4.3	0.3	100.0 (738)
50%이상~100%미만	6.7	58.6	29.7	4.9	0.1	100.0 (1,090)
100%이상~150%미만	6.3	58.8	29.2	5.7	0.0	100.0 (875)
150%이상	7.2	63.3	26.8	2.7	0.0	100.0 (1,222)
기능상태						
제한 있음	6.9	56.7	30.5	5.7	0.2	100.0 (334)
제한 없음	7.0	60.4	28.4	4.2	0.1	100.0 (3,592)
2020년도	13.9	56.3	24.5	4.7	0.7	100.0 (3,712)

주: 1)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931명 중 본인응답자 3,926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8-16〉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낮은 급여수준	건강상태와 맞지 않음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시간	일의 내용	대인관계	기타	계 (명)
전체 ^{1) 2)}	47.2	19.3	11.6	1.8	16.5	1.5	2.1	100.0 (170)
지역								
동부	55.7	9.8	17.4	2.4	12.8	0.4	1.4	100.0 (90)
읍·면부	37.6	30.0	4.9	1.1	20.6	2.7	2.9	100.0 (80)
성								
남자	59.5	12.8	14.1	0.0	9.1	2.7	1.8	100.0 (82)
여자	35.7	25.4	9.2	3.5	23.4	0.5	2.4	100.0 (87)
연령								
65~69세	52.7	5.3	14.1	2.7	18.4	3.1	3.7	100.0 (82)
70~74세	50.2	15.6	9.1	2.3	21.3	0.0	1.5	100.0 (39)
75~79세	47.2	25.2	10.8	0.0	16.8	0.0	0.0	100.0 (19)
80~84세	27.2	57.6	12.0	0.0	3.1	0.0	0.0	100.0 (20)
85~89세	19.9	72.1	0.0	0.0	7.9	0.0	0.0	100.0 (8)
90세 이상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9.5	15.6	11.3	2.2	16.6	2.6	2.3	100.0 (101)
배우자 없음	43.7	24.7	12.0	1.3	16.3	0.0	1.9	100.0 (68)
가구형태								
노인독거	45.0	26.7	9.4	1.6	16.3	0.0	1.0	100.0 (57)
노인부부	48.5	14.8	11.8	2.3	17.4	2.7	2.4	100.0 (96)
자녀동거	39.3	22.2	10.5	0.0	20.6	0.0	7.4	100.0 (9)
기타	56.9	17.5	25.6	0.0	0.0	0.0	0.0	100.0 (8)
교육수준								
무학	51.6	31.6	3.8	0.0	13.1	0.0	0.0	100.0 (16)
초등학교	41.9	37.3	6.5	1.6	11.8	0.0	1.0	100.0 (57)
중학교	44.5	4.8	17.9	0.0	29.8	1.1	1.8	100.0 (37)
고등학교	53.3	8.1	14.9	4.7	12.4	4.7	1.8	100.0 (46)
전문대학 이상	51.2	5.7	13.3	0.0	17.6	0.0	12.2	100.0 (1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6.1	57.5	3.3	0.0	3.1	0.0	0.0	100.0 (21)
제2오분위	32.9	17.6	13.1	3.6	32.9	0.0	0.0	100.0 (25)
제3오분위	66.6	8.0	5.3	0.0	20.1	0.0	0.0	100.0 (32)
제4오분위	58.1	17.7	9.3	2.0	6.9	0.7	5.3	100.0 (55)
제5오분위	29.4	10.8	24.5	3.1	24.2	6.1	1.9	100.0 (3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0.4	43.9	5.5	0.0	10.2	0.0	0.0	100.0 (34)
50%이상~100%미만	55.2	17.2	6.3	1.7	19.0	0.7	0.0	100.0 (55)
100%이상~150%미만	50.2	8.6	17.8	2.3	14.8	0.0	6.4	100.0 (48)
150%이상	36.7	13.0	17.5	3.3	21.2	6.6	1.8	100.0 (33)
기능상태								
제한 있음	35.2	51.7	7.6	5.5	0.0	0.0	0.0	100.0 (20)
제한 없음	48.8	15.0	12.1	1.3	18.6	1.7	2.4	100.0 (150)
2020년도	47.2	15.3	9.5	2.1	24.2	1.6	0.0	100.0 (197)

주: 1) 현재 일하고 있는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70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현재 종사하는 일이 전 생애에 걸쳐 가장 오래 일한 직업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66.8%는 최장기 직업이며, 나머지 33.2%는 최장기 직업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표 8-17〉 참조).

거주 지역별로는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64.1%가 최장기 직종인 반면,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71.6%가 최장기 직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여자 노인(66.0%)보다 남자 노인(67.6%)의 최장기 직종인 경우가 조금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최장기 직종인 비율이 높으며,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64.2%)보다 유배우 노인(68.2%)의 최장기 직종 비율이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에 속한 노인 중 69.0%가 최장기 직종인 반면, 독거가구의 경우 이보다 낮은 63.9%가 최장기 직업으로 응답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최장기 직업인 비율이 69.2%로 상대적으로 높고, 무학의 경우 최장기 직업인 비율은 52.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일자리가 최장기 일자리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은 75.7%로 중위소득 50% 미만의 51.1%보다 24.6%포인트 높다. 그리고 신체적 기능상태의 제한이 없는 노인의 67.4%, 그리고 제한이 있는 노인의 61.2%가 현재 일자리가 최장기 일자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8-17〉 현재 일자리의 최장기 직업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요	계 (명)
전체 ¹⁾	66.8	33.2	100.0 (3,931)
지역			
동부	64.1	35.9	100.0 (2,513)
읍·면부	71.6	28.4	100.0 (1,418)
성			
남자	67.6	32.4	100.0 (2,136)
여자	66.0	34.0	100.0 (1,795)
연령			
65~69세	72.7	27.3	100.0 (2,061)
70~74세	65.9	34.1	100.0 (925)
75~79세	58.4	41.6	100.0 (505)
80~84세	50.3	49.7	100.0 (307)
85~89세	51.0	49.0	100.0 (117)
90세 이상	66.9	33.1	100.0 (1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8.2	31.8	100.0 (2,598)
배우자 없음	64.2	35.8	100.0 (1,333)
가구형태			
노인독거	63.9	36.1	100.0 (1,153)
노인부부	67.9	32.1	100.0 (2,357)
자녀동거	69.0	31.0	100.0 (333)
기타	68.6	31.4	100.0 (87)
교육수준			
무학	52.5	47.5	100.0 (311)
초등학교	67.8	32.2	100.0 (935)
중학교	67.0	33.0	100.0 (804)
고등학교	69.2	30.8	100.0 (1,574)
전문대학 이상	66.1	33.9	100.0 (30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4.8	55.2	100.0 (319)
제2오분위	55.8	44.2	100.0 (517)
제3오분위	64.2	35.8	100.0 (815)
제4오분위	71.1	28.9	100.0 (1,005)
제5오분위	75.2	24.8	100.0 (1,27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1.1	48.9	100.0 (740)
50%이상~100%미만	62.4	37.6	100.0 (1,093)
100%이상~150%미만	73.3	26.7	100.0 (875)
150%이상	75.7	24.3	100.0 (1,222)
기능상태			
제한 있음	61.2	38.8	100.0 (335)
제한 없음	67.4	32.6	100.0 (3,595)
2020년도	61.0	39.0	100.0 (3,725)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93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2절 최장기 종사 직종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오래 일했던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로 20.5%이며, 다음으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6.9%, 서비스종사자 15.3%, 판매종사자 13.0%, 기능원 및 관련 직종 종사자 11.1%, 관리자 8.3%, 사무종사자 6.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2% 등으로 나타났다(〈표 8-18〉 참조).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동부 노인의 20.1%는 단순노무직이 최장기 직종이며, 서비스종사자 18.2%, 판매종사자 15.4%, 기능원 및 관련 직종 종사자 13.0%, 관리자 10.3%, 사무종사자 7.7% 등이다. 읍·면부 노인의 46.5%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로서 가장 오래 일했으며, 그다음으로 단순노무종사자 21.5%, 서비스종사자 7.8%, 판매종사자 6.8%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은 상대적으로 기능원 및 관련 직종 종사자(17.6%)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9.1%), 관리자(12.1%)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 노인은 단순노무종사자(27.2%)와 서비스종사자(21.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9.1%), 판매종사자(15.8%)의 비율이 높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단순노무종사자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판매종사자와 서비스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경우 기능원 및 관련 직종(12.9%)과 관리자(9.9%)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무배우 노인은 단순노무종사자(26.4%)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19.0%), 서비스종사자(17.8%) 비율이 높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독거가구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26.6%로 모든 가구형태에서 가장 높으며, 부부가구는 기능원 및 관련 직종 비율이 13.0%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관리자 및 전문가, 사무종사자 비율이 높고, 농림어업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기능상태와 관련해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은 단순노무종사자 25.8%,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22.5%인 반면,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은 19.4%가 단순노무종사자이며, 농림어업숙련 종사자도 15.7%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8〉 최장기 일자리의 직종

(단위: %, 명)

특성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계 (명)
전체 ¹⁾	8.3	3.2	6.3	15.3	13.0	16.9	11.1	5.0	20.5	0.4	100.0 (8,680)
지역											
동부	10.3	3.6	7.7	18.2	15.4	5.4	13.0	6.0	20.1	0.4	100.0 (6,248)
읍·면부	3.0	2.1	3.0	7.8	6.8	46.5	6.3	2.5	21.5	0.5	100.0 (2,431)
성											
남자	12.1	4.1	7.7	9.6	10.3	14.8	17.6	9.1	13.9	0.8	100.0 (4,378)
여자	4.3	2.3	5.0	21.0	15.8	19.1	4.5	0.9	27.2	0.0	100.0 (4,302)
연령											
65~69세	9.1	3.5	8.4	18.1	15.7	11.1	12.0	5.4	16.3	0.4	100.0 (3,157)
70~74세	7.7	3.6	6.8	16.2	12.6	15.3	12.0	5.6	20.0	0.2	100.0 (2,079)
75~79세	6.4	2.9	5.6	12.8	13.7	17.6	12.4	5.1	22.7	0.7	100.0 (1,475)
80~84세	8.2	2.0	4.0	12.5	9.2	24.3	9.0	5.0	25.3	0.4	100.0 (1,147)
85~89세	10.2	3.1	2.2	10.1	7.4	31.3	6.1	2.6	26.7	0.4	100.0 (621)
90세 이상	8.2	2.6	0.4	11.1	8.5	34.0	5.1	1.4	28.8	0.0	100.0 (20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9	3.5	7.6	13.7	13.3	15.6	12.9	6.5	16.7	0.5	100.0 (5,295)
배우자 없음	5.7	2.7	4.4	17.8	12.7	19.0	8.3	2.8	26.4	0.3	100.0 (3,385)
가구형태											
노인독거	5.9	2.8	4.8	17.7	11.9	18.7	8.3	3.0	26.6	0.3	100.0 (2,848)
노인부부	9.6	3.4	7.3	13.2	13.5	16.1	13.0	6.7	16.9	0.4	100.0 (4,858)
자녀동거	9.4	3.2	6.2	17.8	14.7	14.9	9.7	3.2	20.4	0.5	100.0 (824)
기타	2.2	3.3	5.3	21.1	10.6	23.1	11.7	2.0	20.7	0.0	100.0 (151)
교육수준											
무학	2.2	0.2	0.4	9.3	6.6	35.7	5.5	2.1	38.0	0.0	100.0 (1,067)
초등학교	4.2	0.8	1.1	15.2	10.8	28.5	8.8	3.8	26.7	0.1	100.0 (2,326)
중학교	5.9	1.3	4.8	16.6	13.7	13.0	15.1	6.4	22.6	0.5	100.0 (1,834)
고등학교	10.9	2.4	11.0	18.4	18.2	6.4	13.9	6.8	11.4	0.7	100.0 (2,788)
전문대학 이상	27.5	24.6	19.0	8.0	7.9	1.5	5.1	2.7	2.9	0.8	100.0 (66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5	2.0	4.9	15.6	9.7	20.7	9.8	2.1	29.6	0.0	100.0 (1,598)
제2오분위	5.9	1.4	4.0	13.3	10.6	22.0	9.9	5.0	27.9	0.2	100.0 (1,718)
제3오분위	5.9	2.8	6.2	13.7	12.4	18.9	12.0	6.3	21.4	0.4	100.0 (1,773)
제4오분위	10.0	4.0	7.8	16.5	13.9	14.6	11.7	6.2	14.8	0.6	100.0 (1,776)
제5오분위	13.6	5.4	8.5	17.2	18.0	9.1	11.9	5.3	10.3	0.7	100.0 (1,81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9	1.8	4.8	13.9	10.6	20.7	10.5	3.9	27.9	0.1	100.0 (3,093)
50%이상~100%미만	7.4	2.1	5.9	14.4	11.0	20.5	11.1	5.7	21.4	0.5	100.0 (2,439)
100%이상~150%미만	8.1	4.8	8.4	16.0	15.8	12.0	11.3	6.2	17.0	0.5	100.0 (1,480)
150%이상	14.2	5.7	8.0	18.5	18.1	9.1	12.1	5.1	8.6	0.7	100.0 (1,667)
기능상태											
제한 있음	7.1	2.3	5.3	12.3	9.8	22.5	9.7	4.9	25.8	0.3	100.0 (1,540)
제한 없음	8.5	3.4	6.6	15.9	13.7	15.7	11.4	5.1	19.4	0.4	100.0 (7,140)
2020년도	16.4	4.4	4.0	14.3	6.7	14.0	9.6	4.1	26.2	0.5	100.0 (8,724)

주: 1) 전체응답자 중 최장기 직업이 있는 8,68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8-19〉를 통하여 최장기 직업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38.9%, 자영업자가 29.6%, 임시근로자 9.4%, 무급가족종사자 9.2%, 일용근로자 6.6%, 고용주 6.3%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비율은 읍·면부 노인보다 동부 노인(45.0%)이 높고, 여자 노인보다 남자 노인(47.2%), 그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유배우(42.2%), 부부가구(42.3%)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용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자영업자 비율은 동부 노인보다는 읍·면부 노인(41.9%)에서 높으며, 여자 노인보다는 남자 노인(33.2%),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임시근로자는 동부 노인(11.2%), 여자 노인(13.7%), 무배우 노인(11.9%),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높았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읍·면부 노인(22.1%), 여자 노인(17.7%),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녀동거노인(10.5%)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다. 일용근로자는 동부 노인(7.6%), 여자 노인(7.6%), 연령대가 높을수록, 무배우 노인(8.7%), 독거가구(12.4%),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다.

최장기 직종에서의 종사 기간을 살펴보면, 30~40년 미만인 22.9%, 20~30년 미만 25.0%, 10~20년 미만 22.8%, 40년 이상 16.2%, 5~10년 미만 9.1%, 5년 미만 4.0%로 나타났다(〈표 8-20〉 참조).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동부 노인의 최장기 종사 기간이 30년 미만인 비율은 약 70% 수준인 반면, 읍·면부 노인은 최장기 종사 기간이 20년 이상의 비율이 80%로 나타나 읍·면부 노인의 최장기 종사 기간이 도시지역 거주 노인에 비해 긴 것을 볼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최장기 일자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비율이 76.9%지만, 여자 노인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비율은 51.1%로 상대적으로 낮다. 유배우 노인의 경우, 최장기 직종에서 30년 이상 일한 비율이 41.0%를 차지하는 반면 무배우 노인은 10년에서 30년 미만 근무한 비율(48.4%)이 높다. 교육수준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 졸업 학력을 지닌 노인의 경우, 30~40년 미만 비율이 39.9%로 모든 교육수준에서 가장 높으며, 무학인 노인의 경우, 40년 이상 일한 비율이 36.0%로 모든 교육수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40년 이상 비율과 5년 미만 비율이 낮았다. 신체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는 노인은 30년 이상,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은 30년 미만의 비율이 높았다.

〈표 8-19〉 최장기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특성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단독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계 (명)
전체 ¹⁾	38.9	9.4	6.6	6.3	29.6	9.2	0.0	100.0 (8,680)
지역								
동부	45.0	11.2	7.6	7.3	24.8	4.2	0.0	100.0 (6,248)
읍·면부	23.3	4.9	4.1	3.7	41.9	22.1	0.0	100.0 (2,431)
성								
남자	47.2	5.3	5.7	7.7	33.2	0.9	0.0	100.0 (4,378)
여자	30.4	13.7	7.6	4.9	25.8	17.7	0.0	100.0 (4,302)
연령								
65~69세	41.8	9.4	5.5	8.2	28.5	6.6	0.0	100.0 (3,157)
70~74세	42.2	9.7	6.7	4.7	27.8	8.9	0.0	100.0 (2,079)
75~79세	39.8	9.5	7.2	5.5	28.9	9.1	0.0	100.0 (1,475)
80~84세	33.1	9.7	7.7	4.6	33.0	12.0	0.0	100.0 (1,147)
85~89세	28.2	8.2	7.4	5.2	34.3	16.7	0.0	100.0 (621)
90세 이상	18.9	9.3	11.0	11.0	35.0	14.8	0.0	100.0 (20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2.2	7.9	5.3	6.5	28.6	9.5	0.0	100.0 (5,295)
배우자 없음	33.6	11.9	8.7	5.9	31.1	8.8	0.0	100.0 (3,385)
가구형태								
노인독거	33.6	12.4	9.1	5.3	31.6	8.1	0.0	100.0 (2,848)
노인부부	42.3	7.8	5.1	6.4	28.7	9.7	0.0	100.0 (4,858)
자녀동거	37.7	8.5	6.9	9.7	26.6	10.5	0.0	100.0 (824)
기타	37.4	10.8	6.0	2.9	36.2	6.7	0.0	100.0 (151)
교육수준								
무학	18.2	10.9	11.1	2.5	31.7	25.7	0.0	100.0 (1,067)
초등학교	26.4	10.6	9.3	5.0	35.5	13.2	0.0	100.0 (2,326)
중학교	41.5	11.7	7.8	4.4	28.2	6.4	0.0	100.0 (1,834)
고등학교	48.4	7.9	3.4	8.8	28.2	3.3	0.0	100.0 (2,788)
전문대학 이상	68.9	3.2	0.4	11.4	14.7	1.5	0.0	100.0 (66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1.7	13.3	12.4	3.0	27.4	12.1	0.0	100.0 (1,598)
제2오분위	34.7	11.7	8.2	3.7	30.7	11.1	0.0	100.0 (1,718)
제3오분위	41.2	9.7	5.4	4.4	29.4	9.9	0.0	100.0 (1,773)
제4오분위	43.2	7.8	4.6	5.9	30.9	7.6	0.0	100.0 (1,776)
제5오분위	42.7	5.3	3.3	13.8	29.2	5.8	0.0	100.0 (1,81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4.2	11.8	10.2	3.8	28.0	11.9	0.0	100.0 (3,093)
50%이상~100%미만	41.0	10.0	5.4	3.2	29.6	10.8	0.0	100.0 (2,439)
100%이상~150%미만	41.9	8.3	5.0	6.7	32.5	5.5	0.0	100.0 (1,480)
150%이상	41.7	5.1	3.3	15.0	29.7	5.3	0.0	100.0 (1,667)
기능상태								
제한 있음	33.3	10.3	8.2	7.0	29.1	12.1	0.0	100.0 (1,540)
제한 없음	40.1	9.3	6.3	6.1	29.6	8.6	0.0	100.0 (7,140)
2020년도	37.4	9.4	7.5	5.6	31.1	9.1	—	100.0 (8,724)

주: 1) 전체응답자 중 최장기 직업이 있는 8,68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8-20〉 최장기 일자리의 종사 기간

(단위: %, 명)

특성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년 이상	계 (명)
전체 ¹⁾	4.0	9.1	22.8	25.0	22.9	16.2	100.0 (8,680)
지역							
동부	4.5	11.0	26.5	27.8	22.2	8.0	100.0 (6,248)
읍·면부	2.7	4.2	13.2	17.8	24.8	37.3	100.0 (2,431)
성							
남자	1.3	4.7	17.1	28.2	31.4	17.3	100.0 (4,378)
여자	6.9	13.6	28.5	21.7	14.3	15.1	100.0 (4,302)
연령							
65~69세	4.9	11.0	29.0	27.8	20.3	7.0	100.0 (3,157)
70~74세	4.2	10.7	20.8	25.2	23.7	15.5	100.0 (2,079)
75~79세	4.0	7.5	18.8	25.5	25.9	18.3	100.0 (1,475)
80~84세	2.4	6.3	18.6	20.6	24.8	27.3	100.0 (1,147)
85~89세	3.6	4.5	16.0	16.0	24.7	35.4	100.0 (621)
90세 이상	0.1	5.6	18.9	26.7	19.9	28.8	100.0 (20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4	8.3	21.9	25.4	25.3	15.7	100.0 (5,295)
배우자 없음	5.1	10.4	24.1	24.3	19.2	16.9	100.0 (3,385)
가구형태							
노인독거	5.1	10.7	23.8	24.0	19.4	16.9	100.0 (2,848)
노인부부	3.3	8.2	22.0	25.1	25.3	16.1	100.0 (4,858)
자녀동거	4.7	9.7	22.4	26.4	22.0	14.9	100.0 (824)
기타	2.9	5.1	30.5	30.9	19.6	10.9	100.0 (151)
교육수준							
무학	3.1	4.9	17.8	18.5	19.6	36.0	100.0 (1,067)
초등학교	4.2	8.6	20.2	21.2	22.0	23.9	100.0 (2,326)
중학교	5.6	11.4	24.3	24.6	21.4	12.7	100.0 (1,834)
고등학교	3.6	10.4	28.2	29.6	22.0	6.2	100.0 (2,788)
전문대학 이상	2.6	5.9	12.3	30.3	39.9	9.0	100.0 (66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6	11.0	23.1	23.7	17.7	19.0	100.0 (1,598)
제2오분위	4.8	8.2	21.3	21.9	22.4	21.5	100.0 (1,718)
제3오분위	3.7	8.8	20.2	25.3	24.5	17.4	100.0 (1,773)
제4오분위	2.9	8.3	24.0	25.6	26.0	13.3	100.0 (1,776)
제5오분위	3.3	9.4	25.1	28.2	23.5	10.4	100.0 (1,81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8	9.3	21.8	23.0	20.8	20.4	100.0 (3,093)
50%이상~100%미만	4.4	8.1	21.0	23.2	25.2	18.1	100.0 (2,439)
100%이상~150%미만	2.9	11.0	25.4	26.2	22.7	11.8	100.0 (1,480)
150%이상	3.2	8.5	24.8	30.1	23.8	9.6	100.0 (1,667)
기능상태							
제한 있음	2.7	8.3	21.4	22.8	23.7	21.1	100.0 (1,540)
제한 없음	4.3	9.3	23.0	25.4	22.8	15.1	100.0 (7,140)
2020년도	4.0	7.8	22.8	23.4	23.9	18.1	100.0 (8,724)

주: 1) 전체응답자 중 최장기 직업이 있는 8,68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최장기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건강상의 이유가 35.6%로 가장 높으며, 정년퇴직이 25.5%,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휴업으로 인한 퇴직 13.5%, 가사문제 8.9%, 근로조건이나 환경 8.5% 등으로 나타났다(〈표 8-21〉 참조). 동부 노인의 주된 사유는 건강문제 30.8%, 정년퇴직이 27.7%,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휴업 15.0% 등이며, 읍·면부 노인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도시 노인보다 높은 51.2%이며, 정년퇴직과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휴업은 도시 노인보다 낮은 18.1%, 8.6%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정년퇴직이 43.3%로 가장 높은 반면 여자 노인은 건강상의 이유 43.9%가 높고, 가사문제 역시 16.4%로 남자 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상의 이유나 일할 필요가 없어서 퇴직한 비율이 높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년퇴직과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휴업, 근로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한 퇴직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서(45.7%) 비율이 높은 반면, 부부가구의 경우 정년퇴직(32.4%) 비율이 높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년퇴직 비율이 높아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정년퇴직 비율이 66.9%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휴업으로 인한 퇴직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 반면 건강이 좋지 않아 퇴직한 경우는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에게서 높아 무학 노인의 경우 건강으로 인한 퇴직이 67.7%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년퇴직 비율이 높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높다. 신체적 제한이 있는 노인의 53.0%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최장기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기 직종에서 퇴직 후 다른 일자리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6%이다(〈표 8-22〉 참조). 지역별로 동부 노인(34.5%), 성별로 남자 노인(34.2%)이 최장기 일자리에서 퇴직 후 일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32.9%)이 다시 일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의 32.6%가 퇴직 후 일을 한 적이 있으며, 교육수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35.8%)에서 최장기 직업 퇴직 후 다시 일한 적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33.3%) 최장기 직업 퇴직 이후에 경제활동을 지속한 비율이 높다.

〈표 8-21〉 최장기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단위: %, 명)

특성	정년 퇴직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휴업	가사 문제	근로조건/환경이 나빠서	이직, 창업	일할 필요가 없어서	기타	계 (명)
전체 ¹⁾	25.5	35.6	13.5	8.9	8.5	2.7	3.3	2.0	100.0 (6,053)
지역									
동부	27.7	30.8	15.0	9.8	9.4	2.4	3.2	1.7	100.0 (4,636)
읍·면부	18.1	51.2	8.6	6.0	5.8	3.8	3.6	2.9	100.0 (1,417)
성									
남자	43.3	26.7	14.5	1.0	7.7	3.0	2.1	1.6	100.0 (2,935)
여자	8.7	43.9	12.5	16.4	9.3	2.4	4.4	2.3	100.0 (3,118)
연령									
65~69세	30.6	22.2	15.4	12.1	11.8	4.1	2.6	1.3	100.0 (1,659)
70~74세	28.1	30.4	14.5	10.2	9.3	2.5	2.9	2.1	100.0 (1,469)
75~79세	25.2	37.0	15.4	7.0	7.6	2.6	3.5	1.7	100.0 (1,180)
80~84세	20.0	47.8	11.3	6.2	6.4	1.4	4.3	2.7	100.0 (992)
85~89세	18.9	56.2	8.0	4.8	3.8	0.9	4.9	2.5	100.0 (561)
90세 이상	10.5	59.9	4.8	10.0	5.5	4.1	2.0	3.2	100.0 (19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2.5	28.0	14.1	8.5	9.0	3.1	3.1	1.8	100.0 (3,524)
배우자 없음	15.8	46.2	12.7	9.4	7.9	2.2	3.6	2.2	100.0 (2,528)
가구형태									
노인독거	16.0	45.7	13.0	8.8	8.1	2.4	3.7	2.4	100.0 (2,111)
노인부부	32.4	28.3	14.0	8.6	8.6	3.0	3.2	1.8	100.0 (3,257)
자녀동거	21.2	39.2	12.6	11.3	9.4	2.0	2.9	1.5	100.0 (594)
기타	26.9	38.8	12.8	7.1	8.8	3.6	0.8	1.2	100.0 (91)
교육수준									
무학	5.2	67.7	7.7	6.7	5.7	2.2	3.1	1.7	100.0 (904)
초등학교	13.3	47.9	12.4	7.6	8.4	1.8	5.6	2.9	100.0 (1,692)
중학교	24.2	31.4	14.9	11.7	10.3	3.0	2.5	1.9	100.0 (1,296)
고등학교	38.1	17.5	15.9	10.3	10.7	3.5	2.5	1.4	100.0 (1,700)
전문대학 이상	66.9	5.9	16.0	5.1	1.7	2.7	0.5	1.2	100.0 (46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8	51.6	10.4	8.6	7.2	2.0	4.0	2.4	100.0 (1,455)
제2오분위	16.7	45.6	13.0	8.2	8.9	2.2	3.1	2.2	100.0 (1,430)
제3오분위	30.3	29.3	15.3	9.6	7.6	2.3	3.9	1.7	100.0 (1,250)
제4오분위	34.3	23.4	15.4	9.5	9.7	3.4	2.7	1.6	100.0 (1,061)
제5오분위	42.0	16.1	14.5	9.0	10.0	4.4	2.4	1.6	100.0 (85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6.4	47.6	12.0	8.6	7.8	1.9	3.5	2.1	100.0 (2,715)
50%이상~100%미만	28.2	33.0	13.9	9.3	7.9	2.8	2.8	2.1	100.0 (1,757)
100%이상~150%미만	34.4	20.8	15.6	9.3	10.4	3.3	4.4	1.8	100.0 (839)
150%이상	42.1	14.6	15.6	8.9	10.5	4.5	2.6	1.1	100.0 (742)
기능상태									
제한 있음	19.4	53.0	9.8	5.7	7.0	1.4	2.1	1.5	100.0 (1,335)
제한 없음	27.2	30.7	14.5	9.8	9.0	3.1	3.7	2.1	100.0 (4,718)
2020년도	24.6	35.7	16.9	6.7	7.8	3.5	4.4	0.4	100.0 (6,451)

주: 1) 전체응답자 중 과거 일한 적이 있는 응답자와 현재 일자리가 최장기 직업이 아닌 6,053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8-22〉 최장기 일자리 퇴직 후 경제활동 지속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요	계 (명)
전체 ¹⁾	30.6	69.4	100.0 (6,053)
지역			
동부	29.4	70.6	100.0 (4,636)
읍·면부	34.5	65.5	100.0 (1,417)
성			
남자	34.2	65.8	100.0 (2,935)
여자	27.1	72.9	100.0 (3,118)
연령			
65~69세	40.6	59.4	100.0 (1,659)
70~74세	31.1	68.9	100.0 (1,469)
75~79세	29.6	70.4	100.0 (1,180)
80~84세	23.8	76.2	100.0 (992)
85~89세	19.4	80.6	100.0 (561)
90세 이상	13.4	86.6	100.0 (19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2.9	67.1	100.0 (3,524)
배우자 없음	27.3	72.7	100.0 (2,528)
가구형태			
노인독거	28.3	71.7	100.0 (2,111)
노인부부	32.6	67.4	100.0 (3,257)
자녀동거	27.2	72.8	100.0 (594)
기타	33.3	66.7	100.0 (91)
교육수준			
무학	26.9	73.1	100.0 (904)
초등학교	26.1	73.9	100.0 (1,692)
중학교	32.1	67.9	100.0 (1,296)
고등학교	35.8	64.2	100.0 (1,700)
전문대학 이상	30.2	69.8	100.0 (46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1.2	78.8	100.0 (1,455)
제2오분위	27.1	72.9	100.0 (1,430)
제3오분위	31.7	68.3	100.0 (1,250)
제4오분위	36.4	63.6	100.0 (1,061)
제5오분위	43.4	56.6	100.0 (85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3.1	76.9	100.0 (2,715)
50%이상~100%미만	33.7	66.3	100.0 (1,757)
100%이상~150%미만	34.9	65.1	100.0 (839)
150%이상	45.5	54.5	100.0 (742)
기능상태			
제한 있음	20.9	79.1	100.0 (1,335)
제한 없음	33.3	66.7	100.0 (4,718)
2020년도	31.5	68.5	100.0 (6,451)

주: 1) 전체응답자 중 과거 일한 적이 있는 응답자와 현재 일자리가 최장기 직업이 아닌 6,053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3절 향후 경제활동 의사

65세 이상 노인의 58.1%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41.9%는 일을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23〉 참조). 전체 노인의 31.9%는 현재의 일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며, 지금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1.7%였다. 동부 노인 중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은 61.6%, 현재 일을 지속하고 싶다 27.5%, 지금은 일하지 않으나 앞으로 일하고 싶다 9.3% 등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부 노인의 경우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44.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40.6%로 여자 노인(25.1%)에 비해 높은 반면, 여자 노인의 경우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65.8%로 남자 노인(48.2%)에 비해 높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높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많다. 무배우 노인 중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비율은 63.9%로 유배우 노인 54.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63.6%)와 독거가구(62.4%)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비율이 다른 가구형태보다 높았다.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비율이 무학 노인에게서 71.8%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노인(40.8%) 및 전문대학 이상 노인(38.1%)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31.9%)보다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일을 지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았다. 신체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는 노인의 79.2%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앞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6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강유지 목적이 13.4%이며, 용돈 필요 9.2%이다. 생계비 마련의 목적이 높은 노인은 읍·면부 거주(67.7%), 남자 노인(66.8%), 65~69세 연령군(69.3%), 독거노인(66.6%),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았다(〈표 8-24〉 참조). 건강유지를 위해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은 특성별 차이가 크지 않으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용돈 필요는 여자 노인,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8-23〉 향후 경제활동 참여 의향

(단위: %, 명)

특성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지금 하고 있는 직종의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지금은 일하지 않으나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	계 (명)
전체 ¹⁾	58.1	31.9	1.7	8.3	100.0 (9,955)
지역					
동부	61.6	27.5	1.6	9.3	100.0 (7,359)
읍·면부	48.1	44.5	1.9	5.5	100.0 (2,596)
성					
남자	48.2	40.6	1.7	9.5	100.0 (4,384)
여자	65.8	25.1	1.7	7.4	100.0 (5,571)
연령					
65~69세	39.4	48.6	2.8	9.2	100.0 (3,465)
70~74세	55.9	31.7	1.9	10.5	100.0 (2,362)
75~79세	66.6	22.9	1.2	9.3	100.0 (1,729)
80~84세	76.5	17.5	0.5	5.5	100.0 (1,379)
85~89세	85.2	12.1	0.0	2.7	100.0 (781)
90세 이상	94.5	4.9	0.0	0.6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4.2	35.0	1.9	8.9	100.0 (5,987)
배우자 없음	63.9	27.3	1.4	7.4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62.4	28.3	1.6	7.7	100.0 (3,281)
노인부부	54.6	34.4	2.0	9.0	100.0 (5,509)
자녀동거	63.6	29.0	0.5	6.8	100.0 (993)
기타	52.6	38.8	3.2	5.3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71.8	21.0	0.9	6.3	100.0 (1,184)
초등학교	65.4	26.0	1.3	7.3	100.0 (2,810)
중학교	58.5	30.6	2.0	8.9	100.0 (2,127)
고등학교	47.7	40.8	2.2	9.4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50.8	38.1	1.7	9.4	100.0 (70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6.5	12.2	0.8	10.5	100.0 (1,989)
제2오분위	67.7	21.1	1.2	10.1	100.0 (1,983)
제3오분위	55.0	32.8	2.2	10.0	100.0 (1,981)
제4오분위	50.0	41.3	1.8	6.9	100.0 (2,007)
제5오분위	41.3	52.0	2.5	4.2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2.8	15.6	1.0	10.6	100.0 (3,722)
50%이상~100%미만	57.2	31.8	2.0	8.9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47.1	43.5	2.0	7.4	100.0 (1,657)
150%이상	39.1	54.8	2.5	3.6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79.2	14.7	0.5	5.6	100.0 (1,759)
제한 없음	53.5	35.6	2.0	8.9	100.0 (8,196)
2020년도	61.6	28.6	2.7	7.2	100.0 (9,93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8-24〉 향후 일을 하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특성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돈이 필요해서	건강유지를 위해서	사람들과 사귄 수 있으므로	능력(경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기타	계 (명)
전체 ¹⁾	64.2	9.2	13.4	4.2	3.9	4.4	0.7	0.1	100.0 (4,174)
지역									
동부	62.5	9.7	14.0	4.6	4.0	4.4	0.8	0.0	100.0 (2,827)
읍·면부	67.7	8.3	12.1	3.4	3.5	4.6	0.3	0.1	100.0 (1,346)
성									
남자	66.8	6.0	14.0	3.0	5.2	4.3	0.8	0.0	100.0 (2,270)
여자	61.0	13.1	12.7	5.6	2.3	4.6	0.5	0.1	100.0 (1,903)
연령									
65~69세	69.3	5.5	12.2	3.8	4.8	3.6	0.7	0.1	100.0 (2,102)
70~74세	63.7	9.4	13.9	4.2	3.6	4.5	0.8	0.0	100.0 (1,041)
75~79세	55.6	15.3	15.3	4.7	1.8	6.5	0.7	0.1	100.0 (578)
80~84세	53.1	18.4	13.5	5.0	3.9	6.1	0.2	0.0	100.0 (325)
85~89세	48.0	19.9	20.6	7.6	1.0	2.9	0.0	0.0	100.0 (115)
90세 이상	65.2	4.8	20.3	0.0	0.0	9.8	0.0	0.0	100.0 (1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3.3	8.2	14.6	3.8	4.5	4.9	0.8	0.1	100.0 (2,739)
배우자 없음	65.9	11.2	11.2	5.0	2.7	3.6	0.4	0.0	100.0 (1,434)
가구형태									
노인독거	66.6	10.1	11.3	5.2	2.4	3.8	0.5	0.0	100.0 (1,232)
노인부부	62.9	8.5	14.8	3.7	4.3	5.0	0.8	0.1	100.0 (2,499)
자녀동거	61.6	12.7	11.4	5.1	5.5	3.1	0.6	0.0	100.0 (361)
기타	76.5	3.4	11.4	0.0	5.5	3.2	0.0	0.0	100.0 (81)
교육수준									
무학	57.6	20.7	12.0	5.0	0.7	4.1	0.0	0.0	100.0 (334)
초등학교	65.5	12.2	11.3	4.2	1.3	5.0	0.2	0.1	100.0 (973)
중학교	68.6	9.1	12.4	3.3	2.5	3.5	0.5	0.0	100.0 (883)
고등학교	65.4	6.2	14.8	4.4	4.5	4.1	0.6	0.0	100.0 (1,638)
전문대학 이상	49.5	4.4	16.4	4.5	14.7	6.8	3.3	0.3	100.0 (34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5.3	15.7	15.0	6.1	2.1	5.0	0.8	0.0	100.0 (467)
제2오분위	61.9	15.6	10.4	4.0	2.3	5.3	0.5	0.0	100.0 (641)
제3오분위	64.8	9.4	13.4	4.4	2.9	4.6	0.4	0.1	100.0 (890)
제4오분위	67.3	7.4	14.2	4.0	2.6	3.5	0.9	0.1	100.0 (1,003)
제5오분위	65.8	4.5	13.7	3.5	7.2	4.4	0.7	0.1	100.0 (1,17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9.0	15.2	13.3	4.4	2.6	5.2	0.5	0.0	100.0 (1,011)
50%이상~100%미만	63.7	11.1	13.5	4.1	2.6	4.1	0.9	0.1	100.0 (1,180)
100%이상~150%미만	66.3	6.5	13.7	5.2	2.7	4.9	0.5	0.1	100.0 (876)
150%이상	67.7	3.9	13.2	3.3	7.3	3.8	0.7	0.1	100.0 (1,106)
기능상태									
제한 있음	60.9	12.8	13.3	4.7	2.3	5.7	0.3	0.0	100.0 (365)
제한 없음	64.5	8.9	13.4	4.1	4.0	4.3	0.7	0.1	100.0 (3,808)
2020년도	61.9	11.2	13.6	4.6	3.8	4.1	—	0.8	100.0 (3,814)

주: 1) 본인응답자 중 향후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4,17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향후 일을 계속하고 싶은 노인(현재 경제활동 참여자 포함)이 주당 희망하는 근로일수는 5일이 61.0%로 가장 높으며, 3일이 20.8%, 4일 7.5%, 6일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8-25〉 참조). 주 5일 일하고 싶은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집단은 동부 노인(62.5%), 남자 노인(65.9%),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 노인(64.3%),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62.5%)이다. 그리고 주 3일 일하고 싶은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집단은 여자 노인(28.2%), 연령대가 높을수록, 무배우 노인(28.9%), 독거가구(28.8%),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경우(37.5%)로 나타났다.

향후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40~50시간 미만이 28.5%로 가장 높으며, 10시간 미만 23.6%, 30~40시간 미만이 19.1%, 20~30시간 미만 13.1%, 10~20시간 미만 12.1%, 50시간 이상 3.7%로 나타났다(〈표 8-26〉 참조). 40~5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싶다는 응답률은 동부 노인(33.1%), 남자 노인(36.9%), 연령대가 낮을수록, 유배우 노인(31.4%),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신체적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29.6%)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싶은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집단은 여자 노인(28.9%), 85~89세 연령군 노인(65.7%), 무배우 노인(29.0%), 독거노인(28.7%),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33.8%)이다.

〈표 8-27〉에 의하면 향후 희망하는 월평균 근로소득은 50만 원 미만이 12.0%, 50~100만 원 미만 14.6%, 100~150만 원 미만 12.9%, 150~200만 원 미만 10.5%, 그리고 200~250만 원 미만 17.3%, 250만 원 이상 32.7%로 나타났다. 즉, 250만 원 이상을 희망하는 노인이 가장 많았다. 희망 월평균 근로소득을 250만 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집단의 특성은 동부 노인, 남자 노인, 65~69세 연령군, 유배우 노인, 노인부부 및 자녀동거가구,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노인, 중위소득 100% 이상 노인, 신체적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으로 나타났다. 희망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평균(12.0%)보다 높은 경우는 읍·면부, 여자, 75세 이상의 고령, 무배우, 독거 및 자녀동거가구, 초등학교 이하 학력, 그리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미만,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이다.

〈표 8-25〉 희망 주당 근로일수

(단위: %, 명)

특성	2일 이하	3일	4일	5일	6일	7일	계 (명)
전체 ¹⁾	1.3	20.8	7.5	61.0	7.4	2.0	100.0 (4,174)
지역							
동부	1.0	20.6	8.2	62.5	6.8	0.8	100.0 (2,827)
읍·면부	1.9	21.2	6.1	57.9	8.6	4.5	100.0 (1,346)
성							
남자	0.7	14.6	8.3	65.9	8.3	2.1	100.0 (2,270)
여자	2.0	28.2	6.4	55.2	6.3	1.8	100.0 (1,903)
연령							
65~69세	0.7	11.6	7.5	69.6	8.8	1.7	100.0 (2,102)
70~74세	0.9	21.2	7.6	59.3	8.2	2.8	100.0 (1,041)
75~79세	2.3	29.9	8.5	52.3	5.5	1.4	100.0 (578)
80~84세	4.4	44.4	7.0	40.9	1.3	2.0	100.0 (325)
85~89세	3.0	64.7	2.5	26.8	1.3	1.7	100.0 (115)
90세 이상	0.0	90.2	0.0	0.0	0.0	9.8	100.0 (1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0	16.5	8.2	64.3	7.9	2.0	100.0 (2,739)
배우자 없음	1.9	28.9	6.2	54.7	6.4	1.9	100.0 (1,434)
가구형태							
노인독거	1.9	28.8	6.1	54.2	6.8	2.3	100.0 (1,232)
노인부부	1.0	17.1	8.2	63.8	7.8	2.0	100.0 (2,499)
자녀동거	1.5	20.5	7.1	63.5	6.1	1.3	100.0 (361)
기타	0.7	13.0	8.0	67.4	10.8	0.0	100.0 (81)
교육수준							
무학	4.0	45.9	4.8	40.0	2.8	2.5	100.0 (334)
초등학교	2.2	31.4	7.4	47.7	7.9	3.4	100.0 (973)
중학교	0.9	18.5	8.7	62.9	7.5	1.5	100.0 (883)
고등학교	0.5	13.3	6.8	69.5	8.4	1.6	100.0 (1,638)
전문대학 이상	0.9	8.0	10.5	74.3	5.2	1.0	100.0 (34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9	40.2	11.5	41.5	2.5	1.4	100.0 (467)
제2오분위	1.9	37.1	7.2	48.1	3.0	2.8	100.0 (641)
제3오분위	1.3	21.8	8.2	59.3	6.8	2.6	100.0 (890)
제4오분위	0.8	14.5	7.0	65.8	10.2	1.7	100.0 (1,003)
제5오분위	0.7	8.8	5.9	73.2	9.8	1.6	100.0 (1,17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6	38.2	9.0	46.0	2.2	2.0	100.0 (1,011)
50%이상~100%미만	1.2	23.6	8.5	57.7	6.7	2.4	100.0 (1,180)
100%이상~150%미만	0.7	12.7	7.3	66.8	10.0	2.4	100.0 (876)
150%이상	0.7	8.3	5.1	73.8	10.8	1.3	100.0 (1,106)
기능상태							
제한 있음	3.4	37.5	9.2	45.4	2.8	1.7	100.0 (365)
제한 없음	1.1	19.2	7.3	62.5	7.8	2.0	100.0 (3,808)

주: 1) 본인응답자 중 향후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4,17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8-26〉 희망 주당 근로시간

(단위: %, 명)

특성	10시간 미만	10~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계 (명)
전체 ¹⁾	23.6	12.1	13.1	19.1	28.5	3.7	100.0 (4,174)
지역							
동부	23.7	10.0	11.1	17.9	33.1	4.2	100.0 (2,827)
읍·면부	23.3	16.4	17.3	21.4	19.0	2.6	100.0 (1,346)
성							
남자	19.1	7.7	11.6	19.9	36.9	4.7	100.0 (2,270)
여자	28.9	17.2	14.9	18.1	18.5	2.4	100.0 (1,903)
연령							
65~69세	15.8	7.3	12.6	20.9	38.8	4.5	100.0 (2,102)
70~74세	23.6	13.9	14.9	19.8	23.6	4.2	100.0 (1,041)
75~79세	34.2	17.9	13.1	16.4	16.6	1.8	100.0 (578)
80~84세	38.6	24.1	13.7	14.2	8.1	1.3	100.0 (325)
85~89세	65.7	15.3	6.2	7.0	5.0	0.8	100.0 (115)
90세 이상	49.5	40.8	0.0	9.8	0.0	0.0	100.0 (1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0.7	10.1	13.3	20.6	31.4	4.0	100.0 (2,739)
배우자 없음	29.0	15.9	12.7	16.2	23.1	3.1	100.0 (1,434)
가구형태							
노인독거	28.7	15.1	12.7	16.8	22.9	3.7	100.0 (1,232)
노인부부	21.0	10.2	13.7	20.6	30.5	4.0	100.0 (2,499)
자녀동거	23.8	13.3	11.1	16.8	33.0	1.9	100.0 (361)
기타	22.1	16.1	8.6	16.3	33.5	3.4	100.0 (81)
교육수준							
무학	42.0	26.1	14.6	8.5	6.5	2.3	100.0 (334)
초등학교	31.9	17.6	15.3	16.2	16.5	2.5	100.0 (973)
중학교	25.5	11.3	14.2	23.2	23.0	2.8	100.0 (883)
고등학교	16.3	7.6	11.7	20.1	39.7	4.6	100.0 (1,638)
전문대학 이상	12.0	5.7	9.5	21.5	45.1	6.1	100.0 (34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3.2	18.9	14.4	10.8	11.8	1.0	100.0 (467)
제2오분위	35.1	22.8	18.5	15.7	6.5	1.4	100.0 (641)
제3오분위	25.4	12.9	16.0	21.9	21.4	2.3	100.0 (890)
제4오분위	16.8	9.5	11.1	21.4	36.7	4.5	100.0 (1,003)
제5오분위	13.8	5.1	9.2	20.0	45.6	6.3	100.0 (1,17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8.5	21.8	16.7	13.0	8.9	1.0	100.0 (1,011)
50%이상~100%미만	24.7	13.4	16.8	20.7	21.8	2.7	100.0 (1,180)
100%이상~150%미만	17.7	7.9	10.9	22.8	36.3	4.4	100.0 (876)
150%이상	13.3	5.0	7.7	19.8	47.5	6.6	100.0 (1,106)
기능상태							
제한 있음	33.8	19.5	13.4	15.1	16.9	1.3	100.0 (365)
제한 없음	22.6	11.4	13.1	19.4	29.6	3.9	100.0 (3,808)
2020년도	13.8	15.6	15.2	18.4	30.6	6.4	100.0 (3,814)

주: 1) 본인응답자 중 향후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4,17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8-27〉 희망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명, 만 원)

특성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계(명)	평균
전체 ¹⁾	12.0	14.6	12.9	10.5	17.3	32.7	100.0 (4,174)	188.2
지역								
동부	10.7	11.7	10.8	10.9	18.4	37.5	100.0 (2,827)	203.6
읍·면부	14.9	20.6	17.2	9.7	14.9	22.7	100.0 (1,346)	155.9
성								
남자	5.5	9.1	10.2	9.5	18.4	47.3	100.0 (2,270)	232.0
여자	19.8	21.1	16.0	11.7	16.0	15.4	100.0 (1,903)	136.0
연령								
65~69세	3.6	8.1	11.4	10.6	20.3	46.0	100.0 (2,102)	235.3
70~74세	10.7	17.2	15.9	11.2	18.8	26.1	100.0 (1,041)	170.5
75~79세	22.2	22.8	13.8	11.4	13.5	16.4	100.0 (578)	128.0
80~84세	36.5	28.1	12.8	8.3	5.5	8.8	100.0 (325)	98.3
85~89세	53.6	29.3	6.3	4.8	2.9	3.0	100.0 (115)	61.0
90세 이상	52.6	11.5	35.9	0.0	0.0	0.0	100.0 (13)	62.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3	12.4	12.8	9.9	17.3	38.3	100.0 (2,739)	205.4
배우자 없음	17.2	18.8	13.0	11.7	17.4	22.0	100.0 (1,434)	155.5
가구형태								
노인독거	16.8	18.9	12.2	11.9	17.2	22.9	100.0 (1,232)	156.6
노인부부	9.8	12.8	13.0	10.2	17.5	36.8	100.0 (2,499)	201.2
자녀동거	13.4	12.6	13.2	8.7	13.7	38.5	100.0 (361)	206.2
기타	3.7	10.4	18.2	8.1	28.7	30.9	100.0 (81)	191.5
교육수준								
무학	35.6	34.5	14.5	6.4	4.3	4.7	100.0 (334)	76.7
초등학교	22.7	23.3	17.4	11.8	13.2	11.6	100.0 (973)	118.9
중학교	10.2	13.7	16.5	13.7	21.2	24.7	100.0 (883)	170.4
고등학교	4.0	7.8	9.1	9.8	21.1	48.2	100.0 (1,638)	235.9
전문대학 이상	2.1	5.1	7.1	5.9	13.4	66.4	100.0 (345)	311.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7.6	26.7	17.1	8.9	8.2	11.6	100.0 (467)	107.6
제2오분위	27.4	33.4	18.3	8.7	7.5	4.7	100.0 (641)	93.1
제3오분위	14.0	15.7	17.4	16.5	22.0	14.3	100.0 (890)	142.7
제4오분위	4.9	8.4	10.9	12.5	22.6	40.8	100.0 (1,003)	206.2
제5오분위	2.0	3.9	6.5	5.8	18.2	63.5	100.0 (1,172)	291.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9.3	28.2	17.0	8.7	7.9	8.9	100.0 (1,011)	101.9
50%이상~100%미만	13.5	18.4	18.2	13.7	18.7	17.5	100.0 (1,180)	143.6
100%이상~150%미만	3.2	8.1	11.0	13.8	25.1	38.8	100.0 (876)	211.3
150%이상	1.6	3.1	5.0	6.2	18.3	65.8	100.0 (1,106)	296.5
기능상태								
제한 있음	22.0	19.1	9.8	12.8	12.7	23.6	100.0 (365)	149.1
제한 없음	11.1	14.1	13.2	10.3	17.7	33.6	100.0 (3,808)	192.0
2020년도	13.4	21.7	15.7	15.6	15.4	18.1	100.0 (3,814)	155.3

주: 1) 본인응답자 중 향후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4,17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현재 경제활동 참여자 포함)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여부와 구직활동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노인 중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23.8%였으며, 주된 구직활동 방법은 취업센터 의뢰 61.4%, 개인 인맥 의뢰 27.9%로 나타났다(〈표 8-28〉 참조). 그 외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취업 정보 검색,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작성, 직업상담 등을 수행한 노인비율은 매우 낮다.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노인은 성별로는 여자 노인,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상태별로는 무배우 노인,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에서 높았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 저소득에 속하는 낮은 가구소득에서 전반적으로 노인의 구직활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직활동의 방법 중 취업지원센터 의뢰 활동 비율이 전체 평균(61.4%)보다 높은 집단은 읍·면부 거주 노인(65.5%), 여자 노인(70.7%), 75~89세 연령군, 무배우 노인(69.1%), 가구형태에서는 자녀동거가구(81.3%)와 독거가구(67.3%),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노인(무학 86.9%, 초등학교 76.9%),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미만에 속한 노인(50% 미만에서 75.0%, 50% 이상~100% 미만에서 65.7%), 그리고 신체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노인(72.3%)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 인맥을 통한 구직활동을 한 비율이 전체 평균(27.9%)보다 높은 집단은 읍·면부 노인(29.7%), 남자 노인(34.1%), 75세 이하 연령군(65~69세 40.0%, 70~74세 30.8%), 유배우 노인(30.0%), 부부가구(30.5%), 중학교 졸업자 이상, 그리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상인 노인, 신체적 기능상태의 제한이 없는 노인(29.6%)으로 나타났다.

〈표 8-28〉 구직활동 비율 및 구직활동

(단위: %, 명)

특성	구직활동 비율 ¹⁾	구직활동 ^{2) 3)}							계 (명)
		취업지원 센터 의뢰	개인적 인맥 의뢰	신문, 잡지, 컴퓨터 등 검색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면접컨설팅 참여	직업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일자리 박람회 등 참여	직업교육 훈련 참여	기타	
전체	23.8	61.4	27.9	4.7	1.9	3.0	1.1	0.0	100.0 (994)
지역									
동부	24.2	59.6	27.1	5.7	2.6	3.5	1.4	0.1	100.0 (685)
읍·면부	22.9	65.5	29.7	2.5	0.3	1.7	0.3	0.0	100.0 (308)
성									
남자	19.3	49.7	34.1	7.5	2.9	4.6	1.1	0.0	100.0 (439)
여자	29.1	70.7	23.1	2.5	1.0	1.6	1.0	0.1	100.0 (555)
연령									
65~69세	17.8	43.0	40.0	7.9	3.0	4.2	1.8	0.0	100.0 (374)
70~74세	24.0	57.3	30.8	4.7	2.7	3.0	1.4	0.2	100.0 (250)
75~79세	33.3	72.8	21.5	2.8	0.2	2.4	0.3	0.0	100.0 (193)
80~84세	37.4	92.6	7.4	0.0	0.0	0.0	0.0	0.0	100.0 (122)
85~89세	44.1	100.0	0.0	0.0	0.0	0.0	0.0	0.0	100.0 (51)
90세 이상	42.5	57.0	16.1	0.0	0.0	27.0	0.0	0.0	100.0 (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1.6	56.2	30.0	6.1	2.6	3.9	1.1	0.0	100.0 (593)
배우자 없음	28.0	69.1	25.0	2.6	0.7	1.5	1.0	0.1	100.0 (401)
가구형태									
노인독거	27.9	67.3	26.7	2.7	0.9	1.4	0.9	0.1	100.0 (344)
노인부부	22.2	55.2	30.5	6.6	2.6	4.0	1.1	0.0	100.0 (554)
자녀동거	23.0	81.3	17.2	0.0	0.0	1.1	0.5	0.0	100.0 (83)
기타	16.0	43.8	21.2	8.4	9.7	10.1	6.9	0.0	100.0 (13)
교육수준									
무학	41.0	86.9	12.6	0.0	0.0	0.5	0.0	0.0	100.0 (137)
초등학교	27.7	76.9	19.0	1.7	0.3	1.2	0.9	0.0	100.0 (270)
중학교	21.1	59.6	30.2	4.0	1.2	3.7	1.4	0.0	100.0 (187)
고등학교	21.0	42.8	39.3	7.8	3.9	4.6	1.5	0.1	100.0 (344)
전문대학 이상	16.3	45.2	31.3	14.4	3.6	4.8	0.7	0.0	100.0 (5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0.4	75.0	16.2	3.8	2.2	2.0	0.8	0.0	100.0 (188)
제2오분위	35.8	76.9	18.5	1.6	0.0	2.3	0.6	0.2	100.0 (230)
제3오분위	25.9	58.1	30.6	5.9	1.4	2.1	1.9	0.0	100.0 (230)
제4오분위	16.2	49.0	37.6	6.5	1.4	4.8	0.6	0.0	100.0 (162)
제5오분위	15.6	43.1	40.0	6.5	4.8	4.2	1.3	0.0	100.0 (18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7.6	75.0	18.2	2.8	1.2	2.2	0.6	0.0	100.0 (380)
50%이상~100%미만	25.6	65.7	23.8	5.3	1.4	1.9	1.9	0.1	100.0 (302)
100%이상~150%미만	17.5	41.7	44.2	7.4	1.3	5.3	0.0	0.0	100.0 (153)
150%이상	14.3	39.9	43.6	5.5	4.9	4.5	1.5	0.0	100.0 (158)
기능상태									
제한 있음	30.0	72.3	14.5	6.6	1.4	5.2	0.0	0.0	100.0 (110)
제한 없음	23.2	60.1	29.6	4.5	1.9	2.7	1.2	0.0	100.0 (884)
2020년도	34.4	58.2	32.0	3.9	—	—	—	5.9	100.0 (1,311)

주: 1) 본인응답자 중 향후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4,17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구직활동 내용은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99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3)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제4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및 욕구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정식 명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6.7%이며, 참여한 적이 있는 노인은 4.1%, 사업에 신청했으나 참여하지 못한 노인은 5.5%, 아예 신청한 적이 없는 노인은 83.8%로 나타났다(〈표 8-29〉 참조).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동부 노인의 5.2%, 읍·면부 지역 노인의 10.9%이며, 80~84세 연령군 중 11.3%가 참여하고 있고, 독거가구의 9.2%, 무학인 노인의 13.7%와 초등학교 졸업인 노인의 9.3%, 그리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의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부 노인, 남자 노인, 70~79세 연령군, 그리고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미만 노인에게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했으나 참여하지 못한 노인의 비율이 높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한 적이 없는 노인은 동부 노인, 남자 노인, 65~69세 연령군과 90세 이상 노인, 기타 가구 노인,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상 졸업 노인, 그리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상에 속한 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0〉에 의하면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85.6%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형 사업단 3.3%, 취·창업형 사업단 5.9%, 사회서비스형 5.2%로 나타났다. 공익활동은 읍·면부 노인의 90.4%가 참여하고 있으며 여자 노인, 무배우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공익활동 참여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 외 사업은 참여자 규모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형 사업단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취·창업형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참여 비율이 높다. 사회서비스형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은 65~69세, 중위소득 100% 이상,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에게서 참여 비율이 높다.

〈표 8-2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

(단위: %, 명)

특성	현재 참여	참여경험 있음	신청했으나 참여기회 없었음	신청한 적 없음	계 (명)
전체 ¹⁾	6.7	4.1	5.5	83.8	100.0 (10,078)
지역					
동부	5.2	4.1	5.3	85.4	100.0 (7,450)
읍·면부	10.9	4.1	5.9	79.2	100.0 (2,628)
성					
남자	3.9	4.4	5.5	86.2	100.0 (4,429)
여자	8.9	3.8	5.4	81.9	100.0 (5,649)
연령					
65~69세	3.2	3.2	4.4	89.1	100.0 (3,473)
70~74세	6.6	3.9	6.0	83.6	100.0 (2,377)
75~79세	10.0	5.0	7.4	77.6	100.0 (1,743)
80~84세	11.3	4.6	6.8	77.3	100.0 (1,407)
85~89세	8.3	5.5	3.0	83.1	100.0 (825)
90세 이상	2.0	2.8	2.0	93.2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2	4.0	5.8	85.0	100.0 (6,047)
배우자 없음	9.0	4.1	4.9	82.0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9.2	4.6	4.7	81.4	100.0 (3,306)
노인부부	5.2	4.0	5.9	84.8	100.0 (5,562)
자녀동거	6.5	3.2	5.5	84.7	100.0 (1,035)
기타	6.5	1.6	3.4	88.4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13.7	5.8	5.6	74.9	100.0 (1,240)
초등학교	9.3	3.6	5.9	81.2	100.0 (2,846)
중학교	5.3	4.5	6.7	83.6	100.0 (2,139)
고등학교	3.6	3.7	4.9	87.9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2.2	3.4	2.3	92.1	100.0 (70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4	5.2	6.0	80.3	100.0 (2,014)
제2오분위	11.1	5.1	7.3	76.6	100.0 (2,014)
제3오분위	7.5	3.7	6.1	82.7	100.0 (2,014)
제4오분위	3.6	2.9	4.6	89.0	100.0 (2,020)
제5오분위	3.0	3.5	3.3	90.1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2	4.8	6.9	79.0	100.0 (3,776)
50%이상~100%미만	8.0	4.5	5.9	81.7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3.5	2.3	4.4	89.9	100.0 (1,673)
150%이상	2.5	3.5	2.7	91.2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5.2	5.8	4.1	84.9	100.0 (1,873)
제한 없음	7.0	3.7	5.8	83.5	100.0 (8,205)
2020년도	7.9	5.9	5.9	80.3	10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8-3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유형

(단위: %, 명)

특성	공익활동	시장형 사업단	취·창업형	사회서비스형	계 (명)
전체 ^{1) 2) 3)}	85.6	3.3	5.9	5.2	100.0 (676)
지역					
동부	82.0	4.1	7.1	6.7	100.0 (389)
읍·면부	90.4	2.1	4.3	3.2	100.0 (286)
성					
남자	79.6	4.0	9.3	7.1	100.0 (172)
여자	87.6	3.0	4.8	4.6	100.0 (504)
연령					
65~69세	72.3	5.2	11.1	11.5	100.0 (113)
70~74세	77.2	6.2	8.7	8.0	100.0 (156)
75~79세	89.0	2.7	3.0	5.3	100.0 (174)
80~84세	94.4	0.7	4.6	0.4	100.0 (159)
85~89세	96.3	1.4	2.3	0.0	100.0 (69)
90세 이상	100.0	0.0	0.0	0.0	100.0 (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2.3	4.0	6.2	7.4	100.0 (313)
배우자 없음	88.4	2.6	5.7	3.3	100.0 (362)
가구형태					
노인독거	87.9	2.6	5.7	3.8	100.0 (305)
노인부부	82.5	3.9	6.5	7.1	100.0 (292)
자녀동거	87.7	3.5	5.4	3.4	100.0 (68)
기타	88.5	5.3	0.0	6.2	100.0 (11)
교육수준					
무학	93.0	2.0	4.6	0.4	100.0 (170)
초등학교	88.5	2.4	5.5	3.6	100.0 (266)
중학교	87.6	1.5	4.6	6.3	100.0 (113)
고등학교	68.8	7.5	8.8	14.9	100.0 (112)
전문대학 이상	59.1	14.9	17.3	8.7	100.0 (1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0.6	1.3	3.7	4.4	100.0 (170)
제2오분위	90.0	3.3	4.4	2.3	100.0 (223)
제3오분위	87.7	0.6	6.2	5.5	100.0 (150)
제4오분위	72.9	6.0	9.5	11.6	100.0 (72)
제5오분위	65.0	12.0	13.1	10.0	100.0 (6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0.3	2.3	4.6	2.8	100.0 (348)
50%이상~100%미만	88.7	1.8	4.1	5.3	100.0 (223)
100%이상~150%미만	67.7	7.6	11.3	13.4	100.0 (58)
150%이상	56.9	12.1	18.1	12.9	100.0 (46)
기능상태					
제한 있음	90.1	1.4	1.3	7.2	100.0 (98)
제한 없음	84.8	3.6	6.7	4.9	100.0 (577)

주: 1)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676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공익활동 71.9%, 시장형 사업단 5.4%, 취·창업형 사업단 13.5%, 재능나눔 활동 3.2%,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5.9%)이 달라서 직접 비교가 어려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공익활동의 세부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노노케어 25.7%, 취약계층 지원 4.5%, 공공시설 봉사 68.7%, 경륜 전수 활동 1.2%로 나타났다(<표 8-31> 참조). 노노케어에 참여하는 노인의 특성은 동부 노인, 여자 노인, 65~69세와 75~79세 연령군, 무배우 노인, 자녀동거가구,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 교육수준,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150% 미만, 신체기능 제한 없는 노인으로 확인된다. 취약계층 지원, 경륜 전수 활동은 참여자 규모가 작아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공공시설 봉사는 읍·면부 노인, 85세 이상, 무학 및 중학교 졸업자에 속하는 노인, 신체기능 제한있는 노인의 참여 비율이 높다.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살펴본 <표 8-32> 에 의하면 노인의 22.5%가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나머지 77.5%는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읍·면부 노인, 여자 노인, 75~79세 연령군, 독거가구, 무배우 노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 중위소득 100% 미만,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업유형을 파악해 보았는데, 공익활동이 5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사회서비스형 25.4%, 취·창업형 10.9%, 시장형 사업단 7.6% 순으로 높았다(<표 8-33> 참조). 공익활동에 참여 의향은 읍·면부 노인 68.0%, 여자 노인 62.2%, 85~89세의 88.4%, 무배우 노인의 61.8%, 독거가구의 62.5%, 무학인 노인의 82.4%, 초등학교 졸업 노인의 65.7%,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의 64.6%로 나타났다.

시장형 사업단은 65~69세 연령군,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력,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참여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취·창업형은 동부 노인, 65~69세 연령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참여 의향이 높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형은 동부 노인, 남자 노인, 연령이 젊을수록, 유배우 노인, 기타 가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선호하고 있다.

〈표 8-31〉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 세부유형

(단위: %, 명)

특성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	계 (명)
전체 ^{1) 2)}	25.7	4.5	68.7	1.2	100.0 (578)
지역					
동부	26.3	5.4	66.2	2.0	100.0 (319)
읍·면부	24.8	3.2	71.8	0.1	100.0 (259)
성					
남자	23.7	5.6	68.5	2.2	100.0 (137)
여자	26.3	4.1	68.8	0.8	100.0 (441)
연령					
65~69세	33.0	4.8	61.1	1.1	100.0 (81)
70~74세	22.9	2.7	72.0	2.4	100.0 (121)
75~79세	31.2	6.2	61.2	1.4	100.0 (155)
80~84세	21.6	5.0	73.1	0.3	100.0 (150)
85~89세	20.0	2.0	77.5	0.4	100.0 (66)
90세 이상	0.0	0.0	100.0	0.0	100.0 (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3.7	5.5	68.8	2.0	100.0 (258)
배우자 없음	27.2	3.6	68.6	0.5	100.0 (320)
가구형태					
노인독거	24.3	3.7	71.4	0.6	100.0 (268)
노인부부	23.3	5.9	68.7	2.1	100.0 (241)
자녀동거	41.4	2.2	56.4	0.0	100.0 (59)
기타	25.6	3.1	71.3	0.0	100.0 (10)
교육수준					
무학	15.2	6.0	78.8	0.0	100.0 (158)
초등학교	29.6	3.4	66.3	0.7	100.0 (235)
중학교	23.7	2.5	72.6	1.3	100.0 (99)
고등학교	35.1	7.1	52.9	5.0	100.0 (77)
전문대학 이상	47.9	4.1	48.0	0.0	100.0 (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8.2	3.8	68.1	0.0	100.0 (154)
제2오분위	23.0	5.5	69.7	1.8	100.0 (200)
제3오분위	23.1	6.0	68.6	2.3	100.0 (132)
제4오분위	26.8	1.8	71.4	0.0	100.0 (52)
제5오분위	36.5	0.0	63.5	0.0	100.0 (4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6.0	4.1	69.0	0.8	100.0 (315)
50%이상~100%미만	20.5	6.4	70.9	2.1	100.0 (198)
100%이상~150%미만	40.8	0.0	59.2	0.0	100.0 (39)
150%이상	37.6	0.0	62.4	0.0	100.0 (26)
기능상태					
제한 있음	18.8	2.8	78.4	0.0	100.0 (88)
제한 없음	26.9	4.7	67.0	1.4	100.0 (490)
2020년도	25.8	6.1	67.1	1.0	100.0 (577)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유형 참여자 578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표 8-32〉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요	계 (명)
전체 ¹⁾	22.5	77.5	100.0 (9,955)
지역			
동부	20.7	79.3	100.0 (7,359)
읍·면부	27.6	72.4	100.0 (2,596)
성			
남자	20.9	79.1	100.0 (4,384)
여자	23.8	76.2	100.0 (5,571)
연령			
65~69세	22.4	77.6	100.0 (3,465)
70~74세	24.9	75.1	100.0 (2,362)
75~79세	26.2	73.8	100.0 (1,729)
80~84세	22.3	77.7	100.0 (1,379)
85~89세	13.9	86.1	100.0 (781)
90세 이상	3.8	96.2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1.5	78.5	100.0 (5,987)
배우자 없음	24.0	76.0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24.7	75.3	100.0 (3,281)
노인부부	21.9	78.1	100.0 (5,509)
자녀동거	18.5	81.5	100.0 (993)
기타	25.2	74.8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25.0	75.0	100.0 (1,184)
초등학교	25.0	75.0	100.0 (2,810)
중학교	22.8	77.2	100.0 (2,127)
고등학교	20.9	79.1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15.0	85.0	100.0 (70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3.8	76.2	100.0 (1,989)
제2오분위	28.4	71.6	100.0 (1,983)
제3오분위	25.9	74.1	100.0 (1,981)
제4오분위	18.6	81.4	100.0 (2,007)
제5오분위	16.0	84.0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5.6	74.4	100.0 (3,722)
50%이상~100%미만	25.7	74.3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17.8	82.2	100.0 (1,657)
150%이상	15.8	84.2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16.3	83.7	100.0 (1,759)
제한 없음	23.9	76.1	100.0 (8,196)
2020년도	22.4	77.6	100.0 (9,93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8-33〉 노인일자리사업 희망 참여유형

(단위: %, 명)

특성	공익활동	시장형 사업단	취·창업형	사회서비스형	계 (명)
전체 ^{1) 2) 3)}	56.1	7.6	10.9	25.4	100.0 (2,243)
지역					
동부	50.5	8.3	12.0	29.3	100.0 (1,526)
읍·면부	68.0	6.1	8.7	17.2	100.0 (717)
성					
남자	47.3	8.9	14.2	29.6	100.0 (917)
여자	62.2	6.7	8.7	22.5	100.0 (1,326)
연령					
65~69세	40.7	10.7	14.6	34.0	100.0 (776)
70~74세	52.7	8.2	11.8	27.3	100.0 (588)
75~79세	64.8	5.5	8.0	21.7	100.0 (454)
80~84세	75.9	4.2	7.1	12.8	100.0 (308)
85~89세	88.4	0.5	3.9	7.2	100.0 (108)
90세 이상	100.0	0.0	0.0	0.0	100.0 (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1.9	8.9	10.9	28.3	100.0 (1,290)
배우자 없음	61.8	5.8	10.9	21.5	100.0 (953)
가구형태					
노인독거	62.5	5.3	10.5	21.7	100.0 (809)
노인부부	52.6	8.9	10.4	28.2	100.0 (1,207)
자녀동거	55.7	9.4	14.7	20.2	100.0 (183)
기타	36.3	5.0	19.1	39.7	100.0 (43)
교육수준					
무학	82.4	3.5	6.0	8.1	100.0 (296)
초등학교	65.7	4.7	9.7	19.9	100.0 (701)
중학교	52.5	10.3	10.9	26.3	100.0 (485)
고등학교	40.6	10.6	13.5	35.3	100.0 (655)
전문대학 이상	31.6	6.5	16.5	45.4	100.0 (1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3.4	4.5	8.0	24.1	100.0 (473)
제2오분위	67.2	5.8	8.0	19.0	100.0 (564)
제3오분위	52.7	7.8	9.7	29.9	100.0 (513)
제4오분위	50.2	8.3	15.5	26.0	100.0 (373)
제5오분위	38.0	14.0	17.2	30.9	100.0 (31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4.6	5.7	8.4	21.2	100.0 (952)
50%이상~100%미만	57.0	6.2	9.8	27.0	100.0 (709)
100%이상~150%미만	43.5	9.9	12.4	34.2	100.0 (295)
150%이상	38.4	14.7	20.5	26.4	100.0 (287)
기능상태					
제한 있음	72.3	7.3	5.3	15.1	100.0 (286)
제한 없음	53.7	7.6	11.7	26.9	100.0 (1,956)

주: 1) 본인응답자 중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2,243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공익활동 58.9%, 시장형 사업단 9.7%, 취·창업형 사업단 14.3%, 재능나눔 활동 7.0%,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10.1%)이 달라서 직접 비교가 어려움.

<표 8-34>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 1순위를 보면,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23.9%,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22.8%, 건강이 좋지 않아서 22.6%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를 1순위와 2순위를 합으로 살펴보면(<표 8-35>),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가 39.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36.4%, 자격요건이 안될 것 같아서 24.8%,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24.7%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16.9%, 급여수준이 너무 적어서 14.0%, 참여 방법을 몰라서 12.4%, 경제적 여유로 필요성을 못느껴서 12.2%, 집안일로 시간 여유가 없어서 7.6%의 응답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은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40.5%)의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부 노인은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33.9%), 건강이 좋지 않아서(38.3%)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35.1%), 여자 노인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서(43.2%)와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41.3%)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배우자 유무별로 유배우 노인은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28.9%)와 급여수준이 너무 적어서(16.1%), 무배우 노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48.4%)와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42.4%)의 응답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47.4%)와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43.1%)라는 응답이 모든 가구형태 중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아서와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와 경제적 여유로 필요성을 못느껴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수준이 좋지 않아서와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의 응답이 높았다.

신체기능제한 유무에서는 제한이 없는 경우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28.5%)와 경제적 여유로 필요성을 못느껴서(13.5%), 급여수준이 너무 적어서(16.1%),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18.7%)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제한이 있는 경우 건강수준이 좋지 않아서(66.8%)와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42.7%)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8-34〉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비희망 이유(1순위)

(단위: %, 명)

특성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경제적 여유로 필요성을 못느껴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	참여 방법을 몰라서	자격 요건이 안될 것 같아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집안일로 시간 여유가 없어서	급여 수준이 너무 적어서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기타	계(명)
전체 ^{1) 2)}	22.8	7.2	23.9	4.1	8.2	22.6	3.1	4.5	3.4	0.3	100.0 (7,712)
지역											
동부	20.4	7.8	25.6	4.2	8.5	21.6	3.1	4.6	3.9	0.3	100.0 (5,833)
읍·면부	30.3	5.2	18.7	3.7	7.4	25.6	3.0	4.2	1.8	0.3	100.0 (1,879)
성											
남자	32.8	7.3	23.2	2.8	7.5	16.4	0.8	5.0	4.0	0.2	100.0 (3,467)
여자	14.7	7.1	24.5	5.2	8.8	27.6	4.9	4.1	2.8	0.4	100.0 (4,245)
연령											
65~69세	39.4	7.4	18.2	3.2	8.6	9.3	3.0	6.7	3.8	0.2	100.0 (2,690)
70~74세	23.7	7.7	26.5	5.0	7.6	16.9	3.7	4.4	4.2	0.3	100.0 (1,773)
75~79세	14.3	8.2	28.3	4.2	8.2	26.1	4.0	3.4	3.2	0.2	100.0 (1,275)
80~84세	6.9	5.9	27.7	4.2	9.5	37.0	2.8	2.7	3.0	0.4	100.0 (1,072)
85~89세	3.0	6.2	24.8	4.5	7.5	49.6	1.1	1.7	0.8	0.6	100.0 (673)
90세 이상	1.6	4.3	25.8	4.8	3.3	57.1	0.3	0.8	1.3	0.7	100.0 (22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6.7	8.1	23.1	4.0	9.0	16.5	3.7	5.0	3.7	0.2	100.0 (4,697)
배우자 없음	16.9	5.7	25.1	4.3	6.9	32.1	2.0	3.7	2.8	0.5	100.0 (3,015)
가구형태											
노인독거	17.9	5.8	25.6	4.3	6.8	30.5	1.8	3.9	2.8	0.5	100.0 (2,472)
노인부부	26.2	8.1	23.4	4.2	9.0	16.5	3.8	4.9	3.9	0.1	100.0 (4,302)
자녀동거	19.1	6.7	22.0	3.6	8.4	31.0	3.0	3.1	2.4	0.7	100.0 (809)
기타	28.7	6.5	20.7	0.8	8.3	20.6	2.4	10.0	2.0	0.0	100.0 (128)
교육수준											
무학	7.5	3.1	22.2	4.4	5.7	51.4	2.4	2.0	0.9	0.5	100.0 (888)
초등학교	15.8	6.3	24.2	5.2	8.5	30.9	3.4	2.6	2.7	0.4	100.0 (2,109)
중학교	23.8	7.1	28.2	3.9	7.5	17.8	3.7	4.8	3.0	0.2	100.0 (1,643)
고등학교	31.9	7.9	22.2	3.7	9.0	11.7	2.9	6.3	4.2	0.3	100.0 (2,477)
전문대학 이상	30.2	13.9	20.7	2.0	9.5	8.7	1.9	6.3	6.7	0.1	100.0 (59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7	6.6	28.7	5.7	8.9	35.7	3.2	4.1	3.4	0.2	100.0 (1,516)
제2오분위	9.2	4.5	25.7	4.1	8.4	35.4	3.6	5.4	2.9	0.7	100.0 (1,419)
제3오분위	23.5	7.1	24.1	3.6	8.4	20.6	3.8	4.6	4.0	0.1	100.0 (1,467)
제4오분위	31.6	7.4	23.0	3.8	9.1	14.5	2.6	4.3	3.3	0.3	100.0 (1,634)
제5오분위	42.5	9.9	18.8	3.3	6.4	9.5	2.3	3.9	3.2	0.2	100.0 (1,67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1	5.9	26.8	5.4	8.8	34.8	3.6	4.7	3.6	0.2	100.0 (2,769)
50%이상~100%미만	21.9	6.2	24.6	3.3	9.2	23.4	3.5	4.3	3.0	0.7	100.0 (2,050)
100%이상~150%미만	33.1	8.6	22.1	3.7	8.1	12.7	2.3	5.0	4.2	0.2	100.0 (1,362)
150%이상	45.2	9.6	19.4	3.2	5.7	8.2	2.2	3.7	2.6	0.1	100.0 (1,530)
기능상태											
제한 있음	7.9	3.7	24.7	4.5	6.0	48.9	1.3	1.6	1.2	0.1	100.0 (1,473)
제한 없음	26.3	8.0	23.7	4.0	8.7	16.4	3.5	5.1	3.9	0.3	100.0 (6,239)

주: 1) 본인응답자 중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7,712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2023년 신규 문항임.

〈표 8-35〉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비희망 이유(1+2순위)

(단위: %, 명)

특성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경제적 여유로 필요성을 못느껴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	참여 방법을 몰라서	자격요건이 안될 것 같아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집안일로 시간 여유가 없어서	급여수준이 너무 적어서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기타
전체 ^{1) 2)}	24.7	12.2	39.3	12.4	24.8	36.3	7.6	14.0	16.9	0.6
지역										
동부	21.7	12.8	40.5	13.2	24.9	35.7	7.9	14.7	17.9	0.5
읍·면부	33.9	10.4	35.7	10.2	24.7	38.3	6.6	11.8	13.7	0.7
성										
남자	35.1	12.6	36.8	10.8	24.7	27.9	3.3	17.6	20.1	0.5
여자	16.1	11.9	41.3	13.8	24.9	43.2	11.1	11.0	14.3	0.7
연령										
65~69세	42.8	13.1	30.4	11.9	26.0	17.2	7.5	20.9	19.8	0.3
70~74세	25.4	13.9	40.5	15.2	22.6	31.2	8.7	14.7	17.9	0.7
75~79세	15.2	12.8	45.4	12.5	25.4	41.7	8.1	10.6	16.7	0.3
80~84세	7.7	9.1	45.9	11.5	24.8	58.2	8.4	8.2	14.2	0.5
85~89세	3.3	10.3	45.9	10.2	25.6	67.5	4.5	3.4	10.8	1.2
90세 이상	1.6	6.7	50.5	8.6	23.4	77.5	3.0	4.8	6.2	2.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8.9	13.6	37.3	12.7	25.9	28.6	8.3	16.1	18.1	0.3
배우자 없음	18.1	10.1	42.4	12.1	23.2	48.4	6.5	10.8	15.0	1.0
가구형태										
노인독거	19.3	10.3	43.1	11.7	21.8	47.4	5.8	11.6	15.5	0.9
노인부부	28.5	13.6	37.8	12.7	25.8	28.8	8.2	16.0	18.5	0.3
자녀동거	20.0	10.6	37.9	14.1	27.3	43.6	9.3	10.6	12.0	1.1
기타	29.3	12.1	27.3	8.3	35.4	32.3	14.0	14.9	20.3	0.5
교육수준										
무학	8.5	6.6	44.0	10.4	20.8	70.0	6.3	5.2	7.7	1.7
초등학교	17.3	10.9	42.5	12.9	25.0	49.1	8.3	9.7	13.1	0.6
중학교	25.5	11.5	42.7	13.4	23.2	33.3	8.7	15.1	16.0	0.4
고등학교	34.4	13.3	33.6	13.2	26.8	20.2	7.2	19.2	21.4	0.4
전문대학 이상	32.1	22.9	35.6	8.1	26.4	16.5	5.8	17.5	27.3	0.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3	9.3	45.9	12.9	26.6	55.8	8.3	10.8	13.7	0.4
제2오분위	10.9	8.0	44.1	10.7	23.4	53.4	7.9	13.3	14.6	1.3
제3오분위	25.6	11.9	40.0	11.5	23.6	34.5	8.5	14.5	18.8	0.5
제4오분위	34.0	12.7	36.6	12.2	25.1	25.4	7.4	15.1	18.5	0.4
제5오분위	44.9	18.2	31.3	14.6	25.3	16.6	6.1	16.0	18.4	0.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2	8.7	45.3	12.6	24.9	53.7	8.6	12.3	14.6	0.4
50%이상~100%미만	23.7	11.5	39.6	11.2	26.1	36.9	7.7	13.4	16.2	1.2
100%이상~150%미만	35.5	14.3	35.0	12.1	24.6	23.7	7.0	16.7	20.9	0.2
150%이상	48.0	17.8	32.0	14.2	23.1	15.5	6.2	15.6	18.4	0.3
기능상태										
제한 있음	8.6	7.0	42.7	13.3	24.7	66.8	5.0	5.3	9.1	0.7
제한 없음	28.5	13.5	38.5	12.2	24.9	29.1	8.2	16.1	18.7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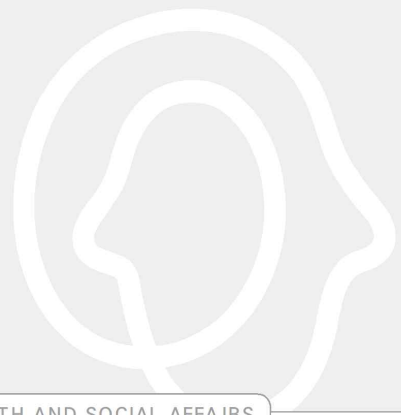
주: 1) 본인응답자 중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7,712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2023년 신규 문항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9장

노인의 사회활동

제1절 여가활동

제2절 사회참여활동

제3절 여가문화시설 이용

제4절 정보화 현황

제9장 노인의 사회활동

본 장에서는 노인의 사회활동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여가활동, 사회참여 활동, 여가문화시설 이용, 정보화 기기 활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은 TV 및 라디오 청취, 여가문화활동 여부 및 미참여 이유,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사회참여활동은 교육 및 학습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주된 참여 내용, 참여기관, 참여빈도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그 외 사회단체 활동은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참여빈도를 파악하고, 종교활동 여부 및 참여빈도도 함께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활동에 대해서도 실태를 확인하였다. 셋째, 여가문화시설 이용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의 이용경험, 이용빈도, 주된 이용이유, 향후 이용 의향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넷째, 정보화 기기 활용은 가정 내 인터넷 사용 가능 환경, 전자기기 보유 및 활용 여부와 시간, 전자기기 사용 역량, 정보화 사회 적응 어려움 수준 및 적응을 위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표본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결과로 유효응답 사례 수가 적은 항목이나 세부 인구집단(90세 이상, 기타 가구, 전문대학 졸업 이상 등)의 분석 결과 등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1절 여가활동

1.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스마트 기기의 확대로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를 할 수 있는 기기가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TV와 라디오 외의 기기로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2023년 노인실태에서는 기존의 TV와 라디오를 활용한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TV 및 유튜브 시청 및 라디오 청취로 구분하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기존의 TV와 라디오를 활용한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기존의 기기를 활용한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 중 95.3%가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시청시간은 3.9시간으로 5시간 이상의 장시간 시청 및 청취자의 비율이 29.4%로 가장 높았으며, 3~4시간 미만 27.1%, 2~3시간 미만 18.3%로 나타났다.

일반특성별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이 94.6%, 읍·면부 노인이 97.0%로 읍·면부 노인이 높았으며, 1일 평균 시청시간은 동부 노인 3.8시간, 읍·면부 노인 3.9시간으로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 95.2%, 여자 노인 95.3%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나, 1일 평균 시청시간은 여자 노인이 4.0시간, 남자 노인이 3.6시간으로 여자 노인이 높았으며 5시간 장시간 시청비율도 여자 노인이 33.2%로 남자 노인 24.6%보다 8.6%포인트 높아 여자 노인이 더 장시간 시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율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1일 평균 시청시간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높았다. 또한, 5시간 이상 장시간 시청비율 역시 65~69세 18.5%, 70~74세 28.3%, 75~79세 36.4%, 80~84세 39.9%, 85세~89세 41.6%, 90세 이상 46.6%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 95.8%, 무배우 노인 94.5%로 유배우 노인의 비율이 높았으나, 1일 평균 시청시간은 무배우 노인이 4.1시간으로 유배우 노인 3.7시간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인다. 5시간 이상의 장시간 시청비율 역시 유배우 노인은 25.5%인 반면, 무배우 노인은 35.3%로 9.8%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율은 독거가구의 비율이 93.9%로 가장 낮았으나, 1일 평균 시청시간은 독거가구가 4.2시간으로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았다. 또한, 5시간 이상 장시간 시청비율도 독거가구가 36.4%로 자녀동거가구 28.0%, 부부가구 26.0%에 비해 약 8~10%포인트 높게 나타나, 독거가구, 무배우 가구의 경우 매우 소극적 여가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율은 교육수준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1일 평균 시청시간이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무학은 4.4시간, 초등학교 졸업 4.1시간, 중학교 졸업

4.0시간, 고등학교 졸업 3.5시간, 전문대학 이상 졸업 3.1시간의 분포를 보인다. 5시간 이상 장시간 시청 및 청취 비율도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무학은 42.2%가 5시간 이상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 중인 경우 3.3시간, 미취업자인 경우 4.2시간으로 미취업자의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저소득 집단(제1오분위,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의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율이 타 집단에 비해 낮았으나, 1일 평균 시청 시간은 높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1일 평균 시청 및 청취 시간은 낮았다. 5시간 이상 장시간 시청 및 청취율도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소득수준의 집단과 가장 높은 소득수준의 집단은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경우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율은 94.5%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경우보다 낮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1일 평균 시청 시간은 4.4시간으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경우의 3.7시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TV·유튜브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 중 43.7%가 TV·유튜브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시청시간은 1.3시간으로 1~2시간 미만의 비율이 45.0%로 가장 높았으며, 1시간 미만 단시간 시청 및 청취자의 비율은 27.6%로 70% 이상이 2시간 미만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TV·유튜브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특성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TV·유튜브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이 46.6%, 읍·면부 노인이 35.3%로 동부 노인이 높았으며, 1일 평균 시청시간은 두 지역 모두 1.3시간으로 동일하였고, 구간별 분포도 유사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 52.1%, 여자 노인 37.1%로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에 약 15%포인트 높아 성별 차이를 보였으나, 1일 평균 시청시간은 남자 노인 1.4시간, 여자 노인 1.3시간으로 비슷하였다. 연령군별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TV·유튜브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비율이 높았으며, 65~69세 집단은 절반 이상인 65.5%로 나타난 반면, 90세 이상은 4.1%로 연령군별 높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1일 평균 시청시간은 연령군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 51.2%, 무배우 노인 32.3%로 유배우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1일 평균 시청시간은 무배우 노인이 1.4시간으로 유배우 노인에 비해 높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TV·유튜브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율은 독거가구의 비율이 33.9%로 가장 낮았으나, 1일 평균 시청시간은 독거가구가 1.4시간으로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았다. 5시간 이상 장시간 시청비율은 자녀동거가구와 기타 가구가 1.3시간으로 타 가구에 비해 높았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TV·유튜브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율은 교육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무학은 5.9%인 반면, 전문대학 이상은 74.5%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1일 평균 시청시간 역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특성을 보였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중인 경우 53.9%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TV·유튜브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를 하는 반면, 미취업인 경우는 37.1%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1일 평균 시청시간은 미취업이 1.4시간으로 취업중인 경우보다 약간 높았다.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TV·유튜브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율이 낮았으나, 1일 평균 시청시간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경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TV·유튜브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율은 21.2%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경우 48.8%보다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인 반면, 1일 평균 시청시간은 1.5시간으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경우의 1.3시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9-1〉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단위: %, 명, 시간)

특성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1) 3)}	1일 평균 시청시간	1일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시간 ²⁾						계 (명)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전체	95.3	3.9	0.6	7.0	18.3	27.1	17.6	29.4	100.0 (9,600)
지역									
동부	94.6	3.8	0.7	6.6	18.6	27.7	17.7	28.8	100.0 (7,050)
읍·면부	97.0	3.9	0.5	7.9	17.5	25.6	17.4	31.2	100.0 (2,550)
성									
남자	95.2	3.6	0.9	8.2	20.4	27.9	18.1	24.6	100.0 (4,216)
여자	95.3	4.0	0.4	6.0	16.6	26.5	17.3	33.2	100.0 (5,384)
연령									
65~69세	96.0	3.4	0.7	9.5	22.8	31.0	17.5	18.5	100.0 (3,334)
70~74세	95.4	3.8	0.7	7.6	18.7	28.4	16.4	28.3	100.0 (2,267)
75~79세	93.7	4.2	0.4	4.8	16.1	23.1	19.1	36.4	100.0 (1,633)
80~84세	95.4	4.3	0.4	3.9	13.3	23.6	18.9	39.9	100.0 (1,341)
85~89세	95.5	4.5	0.6	4.2	12.6	22.2	18.7	41.6	100.0 (789)
90세 이상	93.4	4.7	1.5	5.9	12.5	24.2	9.4	46.6	100.0 (23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5.8	3.7	0.6	7.3	20.4	28.3	17.8	25.5	100.0 (5,792)
배우자 없음	94.5	4.1	0.6	6.4	15.0	25.3	17.3	35.3	100.0 (3,808)
가구형태									
노인독거	93.9	4.2	0.3	6.7	14.6	24.4	17.6	36.4	100.0 (3,103)
노인부부	95.7	3.7	0.6	7.4	19.9	28.0	18.1	26.0	100.0 (5,323)
자녀동거	96.9	3.8	1.5	5.2	20.5	29.9	14.9	28.0	100.0 (1,003)
기타	98.2	3.6	0.6	6.5	20.3	34.4	19.6	18.6	100.0 (171)
교육수준									
무학	96.7	4.4	0.4	4.2	11.4	23.3	18.4	42.2	100.0 (1,199)
초등학교	94.4	4.1	0.6	5.8	15.2	24.2	17.3	36.8	100.0 (2,686)
중학교	95.1	4.0	0.4	6.9	16.1	27.4	18.7	30.4	100.0 (2,034)
고등학교	95.3	3.5	0.7	8.1	22.7	30.1	17.8	20.6	100.0 (2,999)
전문대학 이상	96.6	3.1	1.3	11.1	29.1	31.5	13.2	13.9	100.0 (683)
현취업상태									
취업중	97.0	3.3	0.8	10.4	23.7	31.2	16.0	17.9	100.0 (3,812)
미취업	94.2	4.2	0.5	4.7	14.7	24.4	18.7	37.0	100.0 (5,788)
연가구조득									
제1오분위	91.2	4.5	0.3	5.6	11.2	23.2	17.2	42.4	100.0 (1,837)
제2오분위	95.2	4.2	0.5	6.7	13.8	22.4	17.6	39.0	100.0 (1,918)
제3오분위	96.3	3.8	0.8	7.5	18.0	26.8	18.5	28.4	100.0 (1,939)
제4오분위	97.2	3.5	1.0	6.7	21.7	31.6	18.0	21.1	100.0 (1,963)
제5오분위	96.4	3.3	0.5	8.2	26.2	31.3	16.7	17.1	100.0 (1,94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3.2	4.3	0.4	6.4	13.1	23.6	17.8	38.8	100.0 (3,521)
50%이상~100%미만	96.4	3.9	0.9	7.0	17.3	26.4	17.9	30.6	100.0 (2,699)
100%이상~150%미만	96.6	3.5	0.7	6.5	22.4	31.2	17.6	21.7	100.0 (1,616)
150%이상	96.5	3.3	0.6	8.5	26.3	31.7	16.9	16.0	100.0 (1,764)
가능상태									
제한 있음	94.5	4.4	0.5	6.5	15.6	21.4	13.9	42.1	100.0 (1,770)
제한 없음	95.4	3.7	0.7	7.1	18.9	28.4	18.5	26.5	100.0 (7,830)
2020년도 ³⁾	96.6	4.2	3.0		12.7	25.3	20.0	39.0	100.0 (9,74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를 한다고 응답한 9,600명을 대상으로 함.

3)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과거 2020년 조사까지는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시간을 “시간”단위로 질문하여, 2023년 조사 선택지 변경으로 동일 기준으로 직접 비교 어려움. 다만, 경향성 측면에서의 비교는 가능함.

〈표 9-2〉 스마트 기기 이용 TV·유튜브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단위: %, 명, 시간)

특성	TV·유튜브 및 라디오 청취 ¹⁾	1일 평균 시청시간	1일 TV·유튜브 및 라디오 청취 시간 ²⁾						계(명)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전체	43.7	1.3	27.6	45.0	17.6	7.6	1.3	0.9	100.0 (4,400)
지역									
동부	46.6	1.3	27.7	44.8	17.1	8.2	1.3	1.0	100.0 (3,473)
읍·면부	35.3	1.3	27.3	45.8	19.5	5.3	1.2	0.8	100.0 (927)
성									
남자	52.1	1.4	26.0	46.0	18.3	7.3	1.5	1.0	100.0 (2,306)
여자	37.1	1.3	29.5	43.8	16.8	7.9	1.1	0.9	100.0 (2,095)
연령									
65~69세	65.5	1.3	27.9	45.4	18.0	6.5	1.0	1.2	100.0 (2,276)
70~74세	48.8	1.3	27.4	46.1	17.8	6.5	1.4	0.8	100.0 (1,159)
75~79세	33.8	1.4	26.2	43.5	20.2	8.1	1.5	0.5	100.0 (588)
80~84세	20.2	1.4	26.6	43.8	12.9	14.3	1.6	0.7	100.0 (284)
85~89세	10.0	1.4	33.7	37.3	3.4	25.5	0.0	0.0	100.0 (83)
90세 이상	4.1	1.4	60.6	13.0	0.0	0.0	26.3	0.0	100.0 (1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1.2	1.3	27.5	45.7	17.9	6.6	1.3	0.9	100.0 (3,098)
배우자 없음	32.3	1.4	28.0	43.3	16.7	9.8	1.2	1.0	100.0 (1,302)
가구형태									
노인독거	33.9	1.4	26.3	43.2	17.9	10.6	1.1	0.8	100.0 (1,121)
노인부부	50.5	1.3	28.0	45.4	17.9	6.7	1.2	0.9	100.0 (2,811)
자녀동거	37.9	1.3	28.2	46.8	14.6	6.3	2.9	1.3	100.0 (393)
기타	43.5	1.2	31.8	47.1	18.3	1.4	0.0	1.3	100.0 (76)
교육수준									
무학	5.9	1.2	29.7	51.6	9.8	6.6	1.1	1.1	100.0 (73)
초등학교	23.8	1.2	32.8	44.4	14.2	7.1	0.7	0.8	100.0 (678)
중학교	48.0	1.3	31.7	44.1	15.5	6.1	1.8	0.7	100.0 (1,026)
고등학교	66.6	1.4	24.8	45.5	18.9	8.4	1.3	1.0	100.0 (2,096)
전문대학 이상	74.5	1.4	23.9	44.2	22.0	7.7	1.0	1.2	100.0 (527)
현직업상태									
취업중	53.9	1.3	27.4	46.9	17.2	6.4	1.1	1.1	100.0 (2,119)
미취업	37.1	1.4	27.9	43.2	18.0	8.7	1.4	0.8	100.0 (2,28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5.5	1.4	30.3	40.8	18.7	7.5	1.1	1.4	100.0 (513)
제2오분위	28.0	1.2	31.3	47.2	16.2	4.3	0.4	0.6	100.0 (565)
제3오분위	44.6	1.3	27.1	47.3	17.6	6.7	0.9	0.4	100.0 (898)
제4오분위	57.0	1.3	29.6	46.0	14.6	7.6	1.3	0.9	100.0 (1,151)
제5오분위	63.2	1.5	23.5	43.1	20.4	9.7	2.0	1.3	100.0 (1,27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8.0	1.3	30.5	43.6	17.9	6.2	0.8	1.0	100.0 (1,056)
50%이상~100%미만	43.1	1.2	30.1	47.8	14.9	5.4	1.2	0.6	100.0 (1,207)
100%이상~150%미만	55.7	1.3	26.0	48.8	15.7	7.9	1.0	0.6	100.0 (932)
150%이상	66.0	1.5	23.9	40.5	21.4	10.6	2.0	1.5	100.0 (1,206)
기능상태									
제한 있음	21.2	1.5	23.3	40.1	21.4	12.1	1.9	1.2	100.0 (397)
제한 없음	48.8	1.3	28.1	45.5	17.2	7.1	1.2	0.9	100.0 (4,00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TV·유튜브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를 한다고 응답한 4,400명을 대상으로 함.

2. 여가활동 참여

가. 현재 여가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여가활동은 TV·유튜브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를 제외한 활동으로 여가활동 참여율과 주된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된 활동은 1, 2순위로 구분하고 전체, 지역, 성별, 연령에 따른 특성을 다중응답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여가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노인들은 지난 1년간 81.3%가 여가활동을 한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은 80.9%, 읍·면부 노인은 82.4%로 읍·면부 노인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남자 노인은 81.2%, 여자 노인은 81.3%로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 65~69세 86.3%, 70~74세 82.6%, 75~79세 81.1%, 80~84세 75.5%, 85~89세 72.2%, 90세 이상 62.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주된 여가활동(1순위)은 휴식활동(산책, 음악감상, 기타)이 51.8%, 사회 및 기타 활동 18.7%, 취미오락활동 16.7%, 스포츠 참여활동 7.0%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 참여율은 산책이 37.8%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및 친지방문과 같은 그 외 사회활동이 11.7%, 목욕, 사우나, 낮잠 등의 기타 휴식활동이 10.6% 순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주된 여가활동 내용(1+2순위)을 살펴보면, 휴식활동(산책, 음악감상, 기타)이 9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 및 기타 활동 43.2%, 취미오락활동 39.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는 산책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목욕, 사우나, 낮잠 등의 기타 휴식활동이 32.1%, 가족 및 친지방문과 같은 그 외 사회활동이 26.6%, 종교활동이 10.5%로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 여가활동 내용(1+2순위)을 보면, 동부와 읍·면부 노인 모두 휴식활동이 각각 97.1%와 94.9%로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세부 영역별로는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문화예술 관람활동(동부 2.3%, 읍·면부 0.9%), 스포츠 참여활동(동부 9.6%, 읍·면부 7.8%), 등산(동부 8.3%, 읍·면부 4.3%), 영화보기(동부 1.7%, 읍·면부 0.4%) 등 적극적인 활동에서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부 노인은 동부 노인에 비해 화투·고스톱(동부 5.5%, 읍·면부 9.6%), 기타 사회활동(동부 3.4%, 읍·면부 13.5%)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내용(1+2순위)을 보면, 남녀 노인 모두 휴식활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남자 노인은 취미오락활동이 46.3%, 사회 및 기타 활동 37.5% 순인 반면, 여자 노인은 사회 및 기타 활동 47.6%, 취미오락활동 33.6%의 순으로 상이한 분포를 보였다. 세부 영역별로는 남자 노인은 영화보기(남자 1.8%, 여자 1.1%), 스포츠 관람(남자 5.4%, 여자 0.6%), 스포츠 참여활동(남자 11.2%, 여자 7.5%), 등산(남자 13.1%, 여자 2.6%), 낚시(남자 4.5%, 여자 0.2%), 바둑·장기·윷놀이(남자 8.2%, 여자 0.2%) 등의 비율이 여자 노인에 비해 높은 반면, 여자 노인은 화초·텃밭가꾸기(남자 6.2%, 여자 13.6%), 기타 휴식활동(남자 27.5%, 여자 35.7%), 종교활동(남자 6.5%, 여자 13.6%) 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군별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내용(1+2순위)을 살펴보면, 휴식활동과 사회 및 기타 활동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문화예술관람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은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세부 영역별로는 연령군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표 9-3〉 지난 1년간 여가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단위: %, 명)

특성	1순위	1+2순위	2020년 1+2순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¹⁾	81.3		80.3
주된 여가활동 ²⁾			
문화예술관람활동	1.1	1.9	3.5
영화보기	0.8	1.4	2.4
기타 ³⁾	0.3	0.5	1.1
문화예술참여활동	1.8	14.9	5.1
악기연주·노래교실	1.0	1.6	3.3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0.5	0.9	0.9
춤·무용	0.2	0.4	0.3
기타 ⁴⁾	0.0	0.2	0.6
스포츠관람활동	1.4	2.7	2.9
스포츠참여활동	7.0	9.1	8.1
관광활동	1.5	4.3	—
자동차 드라이브, 오토바이 드라이브	0.2	0.7	—
기타 ⁵⁾	1.2	3.6	—
취미오락활동	16.7	39.1	49.8
화투·고스톱 등	3.1	6.6	5.4
등산	3.8	7.2	14.1
화초가꾸기	3.2	10.4	11.3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	0.5	1.6	2.4
낚시	1.0	2.1	2.8
바둑·장기·윷놀이 등	1.7	3.7	5.1
교양강좌, 노인교실 등	1.1	2.0	3.2
기타 ⁶⁾	2.3	5.6	5.6
휴식활동	51.8	96.5	52.7
산책	37.9	55.9	34.1
음악감상	3.3	8.5	5.2
기타 ⁷⁾	10.6	32.1	13.4
사회 및 기타활동	18.7	43.2	44.4
종교활동	5.2	10.5	19.0
그 외 사회활동 ⁸⁾	11.7	26.6	21.1
기타활동 ⁹⁾	1.8	6.0	4.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전체응답자 10,078명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8,190명을 대상으로 함.

3) 문화예술관람활동의 기타는 전시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및 전통예술공연 관람 등이 포함됨.

4) 문화예술참여활동의 기타에는 문학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이 포함됨.

5) 관광활동의 기타에는 문화유적방문,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산림욕 등이 포함됨.

6) 취미오락활동의 기타에는 수집활동(스크랩 포함), 생활공예, 요리하기·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게임, 음주 등이 포함됨.

7) 휴식활동의 기타에는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보기 등이 포함됨.

8) 그 외 활동에는 사회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단체활동 모임 등이 포함됨.

9) 기타활동에는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이 포함됨.

〈표 9-4〉 지역·성별 지난 1년간 여가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1+2순위)

(단위: %, 명)

특성	전체 ¹⁾	지역 ²⁾		성 ²⁾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¹⁾	81.3	80.9	82.4	81.2	81.3
주된 여가활동 ²⁾					
문화예술관람활동	1.9	2.3	0.9	2.3	1.6
영화보기	1.4	1.7	0.4	1.8	1.1
기타 ³⁾	0.5	0.5	0.5	0.6	0.5
문화예술참여활동	3.1	3.0	3.3	1.8	4.1
악기연주·노래교실	1.6	1.7	1.4	1.0	2.1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0.9	0.8	1.0	0.6	1.1
춤·무용	0.4	0.3	0.7	0.1	0.6
기타 ⁴⁾	0.2	0.2	0.2	0.1	0.2
스포츠관람활동	2.7	2.7	2.7	5.4	0.6
스포츠참여활동	9.1	9.6	7.8	11.2	7.5
관광활동	4.3	4.5	4.0	5.0	3.8
자동차 드라이브, 오토바이 드라이브	0.7	0.7	0.6	1.0	0.5
기타 ⁵⁾	3.6	3.7	3.4	4.0	3.4
취미오락활동	39.1	39.5	38.1	46.3	33.6
화투·고스톱 등	6.6	5.5	9.6	5.8	7.3
등산	7.2	8.3	4.3	13.1	2.6
화초·텃밭가꾸기	10.4	10.7	9.5	6.2	13.6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	1.6	1.6	1.4	1.9	1.3
낚시	2.1	2.2	1.7	4.5	0.2
바둑·장기·윷놀이 등	3.7	3.8	3.6	8.2	0.2
교양강좌, 노인교실 등	2.0	1.7	2.7	1.2	2.5
기타 ⁶⁾	5.6	5.7	5.3	5.3	5.8
휴식활동	96.5	97.1	94.9	90.5	101.2
산책	55.9	57.2	52.4	55.0	56.6
음악감상	8.5	8.6	8.2	7.9	8.9
기타 ⁷⁾	32.1	31.4	34.2	27.5	35.7
사회 및 기타활동	43.2	41.3	48.2	37.5	47.6
종교활동	10.5	11.1	8.8	6.5	13.6
그 외 사회활동 ⁸⁾	26.6	26.9	25.9	25.7	27.3
기타활동 ⁹⁾	6.0	3.4	13.5	5.2	6.7
(명)	(8,190)	(6,024)	(2,166)	(3,597)	(4,592)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전체응답자 10,078명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8,190명을 대상으로 함.

3) 문화예술관람활동의 기타는 전시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및 전통예술공연 관람 등이 포함됨.

4) 문화예술참여활동의 기타에는 문학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이 포함됨.

5) 관광활동의 기타에는 문화유적방문,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삼림욕 등이 포함됨.

6) 취미오락활동의 기타에는 수집활동(스크랩 포함), 생활공예, 요리하기·다도, 애원동물 돌보기, 게임, 음주 등이 포함됨.

7) 휴식활동의 기타에는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보기 등이 포함됨.

8) 그 외 활동에는 사회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단체활동 모임 등이 포함됨.

9) 기타활동에는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이 포함됨.

〈표 9-5〉 연령군별 지난 1년간 여가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1+2순위)

(단위: %, 명)

특성	전체 ¹⁾	연령 ²⁾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 이상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¹⁾	81.3	86.3	82.6	81.1	75.5	72.2	62.0
주된 여가활동 ²⁾							
문화예술관람활동	1.9	3.1	1.9	1.3	0.6	0.5	0.0
영화보기	1.4	2.3	1.3	0.8	0.5	0.4	0.0
기타 ³⁾	0.5	0.8	0.5	0.4	0.1	0.1	0.0
문화예술참여활동	3.1	2.9	2.6	3.5	4.4	2.1	2.9
악기연주·노래교실	1.6	1.7	1.4	2.2	1.6	0.9	1.6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0.9	0.6	0.7	0.8	2.1	1.0	1.3
춤·무용	0.4	0.3	0.4	0.5	0.7	0.2	0.0
기타 ⁴⁾	0.2	0.3	0.1	0.0	0.0	0.0	0.0
스포츠관람활동	2.7	3.9	2.5	2.0	1.4	1.7	1.3
스포츠참여활동	9.1	12.6	8.7	8.8	5.9	1.7	0.8
관광활동	4.3	6.3	4.1	3.7	2.1	1.5	2.5
자동차 드라이브, 오토바이 드라이브	0.7	1.4	0.5	0.2	0.0	0.1	0.0
기타 ⁵⁾	3.6	4.9	3.6	3.4	2.1	1.3	2.5
취미오락활동	39.1	44.3	38.7	35.6	38.0	27.1	31.4
화투·고스톱 등	6.6	5.3	5.2	7.6	10.6	9.2	4.7
등산	7.2	11.9	7.4	4.0	2.4	1.4	0.0
화초·텃밭가꾸기	10.4	8.9	11.2	9.9	13.4	9.0	17.9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	1.6	1.9	1.4	2.2	0.8	0.4	0.0
낚시	2.1	3.1	2.5	1.2	0.7	0.0	1.9
바둑·장기·윷놀이 등	3.7	3.5	4.0	4.3	4.0	2.3	2.7
교양강좌, 노인교실 등	2.0	1.7	1.6	2.7	2.2	2.7	1.1
기타 ⁶⁾	5.6	8.1	5.3	3.8	3.9	1.9	3.2
휴식활동	96.5	87.6	97.2	101.5	103.5	113.1	102.7
산책	55.9	49.0	57.6	61.3	62.0	60.6	59.5
음악감상	8.5	8.0	9.3	7.5	8.0	10.9	9.9
기타 ⁷⁾	32.1	30.6	30.3	32.8	33.6	41.6	33.4
사회 및 기타활동	43.2	39.2	44.4	43.5	44.1	52.3	58.3
종교활동	10.5	8.3	10.9	11.6	10.8	15.4	16.6
그 외 사회활동 ⁸⁾	26.6	27.1	27.6	26.2	24.6	24.4	32.4
기타활동 ⁹⁾	6.0	3.8	5.8	5.8	8.8	12.6	9.3
(명)	(8,190)	(2,997)	(1,963)	(1,415)	(1,061)	(596)	(15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전체응답자 10,078명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8,190명을 대상으로 함.

3) 문화예술관람활동의 기타는 전시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및 전통예술공연 관람 등이 포함됨.

4) 문화예술참여활동의 기타에는 문학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이 포함됨.

5) 관광활동의 기타에는 문화유적방문,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삼림욕 등이 포함됨.

6) 취미오락활동의 기타에는 수집활동(스크랩 포함), 생활공예, 요리하기·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게임, 음주 등이 포함됨.

7) 휴식활동의 기타에는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보기 등이 포함됨.

8) 그 외 활동에는 사회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단체활동 모임 등이 포함됨.

9) 기타활동에는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이 포함됨.

나. 여가활동 미참여 이유

이러한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24.2%,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21.3%의 비율이 높아, 참여방법 및 내용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18.3%, 건강이 좋지 않아서 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가 각각 22.9%와 22.6%로 등의 순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읍·면부 노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29.0%, 시간이 없어서 19.4%로 상이한 분포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은 시간이 없어서가 24.9%로 가장 높은 반면, 여자 노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가 28.3%로 가장 높았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22.9%, 건강이 좋지 않아서 15.2% 등으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시간이 없어서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은 시간이 없어서가 23.3%,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21.5%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배우 노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가 27.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22.2%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부부가구는 시간이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가 각각 22.6%, 20.2%, 22.0%로 유사하였으며, 독거가구와 자녀동거가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독거가구 21.7%, 자녀동거가구 25.9%)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독거가구 26.8%, 자녀동거가구 25.6%)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서는 먼저 교육수준의 경우 저학력 집단(무학~초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중학교 졸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의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다. 그러나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은 시간이 없어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는 40%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무학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서의 비율이 24.6%로 타 집단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히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 취업자는 시간이 없어서가 42.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미취업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24.1%)와 어떻게 해야 하

는지 몰라서(27.7%)의 비율이 높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저소득 집단(연가구소득 제2오분위 이하, 중위소득 대비 100% 미만 가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그 이상의 소득수준 집단에서는 시간이 없어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수준별 차이를 보였다. 기능상태에서는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서의 비율이 34.2%로 가장 높았으며,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23.2%,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22.9%, 시간이 없어서 22.7%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표 9-6〉 지난 1년간 여가활동 미참여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간이 없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기관이 멀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계 (명)
전체 ^{1) 2)}	18.3	9.3	21.3	24.2	7.4	14.2	5.4	100.0 (1,836)
지역								
동부	17.9	10.9	22.9	22.6	6.6	14.0	5.0	100.0 (1,386)
음·면부	19.4	4.3	16.2	29.0	9.6	15.0	6.6	100.0 (450)
성								
남자	24.9	10.2	19.3	19.0	8.9	13.0	4.8	100.0 (815)
여자	13.0	8.5	22.9	28.3	6.2	15.2	5.9	100.0 (1,021)
연령								
65~69세	35.3	12.6	18.3	11.3	8.9	6.9	6.6	100.0 (473)
70~74세	24.1	9.2	19.9	21.7	9.2	10.3	5.6	100.0 (407)
75~79세	9.3	10.4	26.0	28.7	7.0	12.4	6.1	100.0 (324)
80~84세	7.9	5.3	27.5	31.1	6.4	16.5	5.3	100.0 (331)
85~89세	5.3	8.6	11.7	39.5	4.1	28.4	2.3	100.0 (211)
90세 이상	2.7	4.3	25.7	25.7	3.2	35.5	2.9	100.0 (9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3.3	8.6	20.6	21.5	8.4	13.5	4.1	100.0 (1,036)
배우자 없음	11.7	10.1	22.2	27.7	6.0	15.2	7.1	100.0 (801)
가구형태								
노인독거	12.7	9.2	21.7	26.8	6.7	15.1	7.7	100.0 (615)
노인부부	22.6	8.9	20.2	22.0	8.9	13.7	3.6	100.0 (951)
자녀동거	14.9	8.9	25.9	25.6	3.6	15.6	5.4	100.0 (231)
기타	19.0	21.3	14.0	25.8	3.9	5.3	10.7	100.0 (39)
교육수준								
무학	8.4	9.5	15.8	34.1	3.5	24.6	4.2	100.0 (290)
초등학교	9.3	9.4	23.6	31.1	7.0	14.4	5.1	100.0 (636)
중학교	13.4	10.0	25.7	22.7	8.3	12.9	6.9	100.0 (385)
고등학교	40.0	9.2	16.8	10.8	9.2	8.4	5.6	100.0 (444)
전문대학 이상	27.8	4.9	25.8	15.1	9.4	13.9	3.1	100.0 (83)
현취업상태								
취업중	42.8	7.8	15.8	17.3	7.9	4.9	3.4	100.0 (620)
미취업	5.7	10.1	24.1	27.7	7.1	19.0	6.4	100.0 (1,21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5	8.5	22.8	31.6	8.2	17.3	5.2	100.0 (593)
제2오분위	8.3	10.7	20.6	28.6	9.0	15.7	7.1	100.0 (389)
제3오분위	22.1	10.4	20.9	19.8	6.3	15.4	5.2	100.0 (313)
제4오분위	30.5	9.0	20.3	16.1	8.0	11.4	4.7	100.0 (311)
제5오분위	43.7	7.8	20.4	14.6	2.9	6.2	4.3	100.0 (23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5	9.4	21.7	29.0	9.0	17.8	5.5	100.0 (950)
50%이상~100%미만	18.8	10.1	22.0	24.9	6.5	12.7	5.1	100.0 (442)
100%이상~150%미만	35.8	8.6	23.1	13.5	5.2	8.3	5.5	100.0 (249)
150%이상	46.8	7.8	15.1	12.9	4.2	8.0	5.3	100.0 (196)
기능상태								
제한 있음	7.1	8.6	17.1	26.6	2.4	34.2	4.1	100.0 (518)
제한 없음	22.7	9.6	22.9	23.2	9.3	6.4	5.9	100.0 (1,319)
2020년도 ³⁾	25.9	19.5	20.9	8.6	9.3	20.7	—	100.0 (1,905)

주: 1) 본인응답자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 활동을 하지 않는 1,836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선택지 변경으로 2020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

제2절 사회참여활동

1. 교육 및 학습 활동

노인의 교육 및 학습 활동 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의 13.3%가 교육 및 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의 참여 수준을 살펴보면, 월평균 참여 횟수는 5.3회이며, 월평균 7.4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참여시간을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6시간 미만이 57.6%로 가장 많았으며, 6~11시간 미만 24.3%로 대부분이 월평균 11시간 미만 교육 및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 12.5%, 읍·면부 노인 15.7%로 읍·면부 노인이 높았다. 그러나 월평균 참여 횟수와 참여 시간은 동부가 5.4회, 7.7시간으로 읍·면부의 4.9회, 6.7시간보다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 15.3%, 남자 노인 10.8%로 여자 노인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월평균 참여 횟수와 참여 시간 모두 여자 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월평균 참여 횟수는 70대, 참여 시간은 75~79세 집단이 타 연령군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 13.5%, 무배우 노인 13.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월평균 참여 횟수와 시간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참여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타 가구형태의 참여율이 낮았으며, 월평균 참여 횟수와 참여 시간 역시도 기타 가구의 값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참여율이 높았으며, 월평균 참여 횟수와 참여 시간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 집단의 월평균 참여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참여 시간은 중학교 졸업과 전문대학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 중인 노인의 참여율은 13.8%로 미취업 노인 13.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월평균 참여 횟수와 참여 시간은 5.7회, 8.1시간으로 취업중 4.6회와 6.4시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월평균 참여 횟수와 참여 시간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의 학습활동 참여율이 10.0%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 14.1%보다 낮으며, 참여 횟수와 시간 모두 낮았다.

〈표 9-7〉 교육 및 학습활동 참여 현황

(단위: %, 회, 시간, 명)

특성	학습활동 참여율 ¹⁾	월평균 참여 횟수 ²⁾	월당 교육 참여 시간 ³⁾					월당 평균 참여시간	계 (명)
			6시간 미만	6~11시간 미만	11~16시 간 미만	16~21시 간 미만	21시간 이상		
전체	13.3	5.3	57.6	24.3	6.8	5.6	5.7	7.4	100.0 (1,343)
지역									
동부	12.5	5.4	55.8	25.4	6.9	6.2	5.6	7.7	100.0 (930)
읍·면부	15.7	4.9	61.7	21.7	6.6	4.3	5.7	6.7	100.0 (413)
성									
남자	10.8	4.8	62.2	20.4	5.4	6.6	5.4	7.0	100.0 (477)
여자	15.3	5.5	55.1	26.4	7.6	5.1	5.8	7.6	100.0 (867)
연령									
65~69세	15.7	5.2	57.1	24.1	7.6	6.2	5.0	7.5	100.0 (544)
70~74세	13.0	5.4	57.6	24.7	6.2	5.6	5.9	7.3	100.0 (310)
75~79세	13.4	5.6	54.1	23.8	8.4	5.5	8.2	8.2	100.0 (234)
80~84세	11.9	5.2	59.2	22.0	6.3	6.9	5.5	7.2	100.0 (167)
85~89세	8.1	4.6	57.0	38.7	0.9	0.0	3.4	6.3	100.0 (67)
90세 이상	8.5	2.6	100.0	0.0	0.0	0.0	0.0	2.2	100.0 (2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3.5	5.3	59.4	21.9	6.8	6.3	5.6	7.3	100.0 (815)
배우자 없음	13.1	5.2	54.9	27.9	6.9	4.5	5.7	7.6	100.0 (528)
가구형태									
노인독거	13.4	5.3	54.2	28.6	6.9	4.1	6.1	7.8	100.0 (442)
노인부부	13.4	5.4	58.2	22.1	6.8	6.8	6.1	7.5	100.0 (744)
자녀동거	13.1	4.7	65.2	22.0	4.8	5.1	2.9	6.2	100.0 (135)
기타	12.5	4.0	60.5	23.3	16.1	0.0	0.0	4.8	100.0 (22)
교육수준									
무학	11.3	4.2	67.3	20.0	5.0	4.1	3.7	5.3	100.0 (140)
초등학교	11.1	5.1	57.7	25.7	5.9	4.4	6.2	7.4	100.0 (316)
중학교	13.1	5.5	57.0	20.7	8.6	6.5	7.1	9.0	100.0 (279)
고등학교	14.9	5.2	58.7	26.1	4.5	5.9	4.8	6.8	100.0 (468)
전문대학 이상	19.8	6.1	45.6	26.3	14.6	7.2	6.3	8.3	100.0 (140)
현취업상태									
취업중	13.8	4.6	63.0	21.5	6.6	4.7	4.2	6.4	100.0 (544)
미취업	13.0	5.7	54.0	26.2	7.0	6.3	6.6	8.1	100.0 (79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1	5.1	60.1	26.0	4.9	5.1	4.0	7.1	100.0 (164)
제2오분위	11.2	5.4	52.2	27.4	10.7	4.0	5.8	7.9	100.0 (225)
제3오분위	13.1	5.1	59.4	24.0	5.9	4.8	5.9	6.8	100.0 (264)
제4오분위	15.5	5.4	59.1	20.8	6.7	5.8	7.6	8.0	100.0 (313)
제5오분위	18.7	5.3	57.4	24.7	6.1	7.3	4.5	7.1	100.0 (37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1	5.1	58.1	25.9	7.4	4.2	4.3	7.2	100.0 (343)
50%이상~100%미만	14.0	5.2	57.5	24.9	6.5	4.6	6.4	7.0	100.0 (391)
100%이상~150%미만	15.9	5.5	58.7	19.2	7.2	6.6	8.3	8.8	100.0 (267)
150%이상	18.7	5.3	56.4	25.9	6.2	7.3	4.1	7.0	100.0 (342)
기능상태									
제한 있음	10.0	5.1	57.2	22.0	4.8	6.4	9.5	8.3	100.0 (188)
제한 없음	14.1	5.3	57.7	24.6	7.1	5.5	5.0	7.3	100.0 (1,155)
2020년도	12.9	6.5	48.8	25.4	9.8	9.4	6.7	9.0	100.0 (1,198)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전체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학습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343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전체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학습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343명을 대상으로 월평균 참여 횟수와 회당 하루 참여시간을 곱하여 산출함.

교육 및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중 37.3%는 스포츠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강 및 노화 이해 교육 30.5%, 문화예술 교육 26.8%, 정보화 교육 11.7%, 노인복지정책 교육 8.5%, 경제교육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동부 노인은 스포츠 교육 40.4%, 건강 및 노화 이해 교육 27.8%, 문화예술교육 27.1%, 정보화 교육 13.4%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부 노인은 건강 및 노화 이해 교육 36.7%, 스포츠 교육 30.5%, 문화예술교육 26.1%로 상이한 분포를 보였다. 또한 문해교육은 동부 노인은 2.9%인 것이에 비해 읍·면부 노인은 9.8%로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은 정보화 교육 17.1%, 직업능력 향상 교육 11.0%, 경제교육 9.7%의 비율이 여자 노인에 비해 높으며, 여자 노인은 스포츠 교육 42.0%, 건강 및 노화 이해 교육 31.6%, 문화 예술 교육 30.3%로 남자 노인에 비해 높고, 일부 항목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문화예술 교육과 건강 및 노화 이해 교육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다양한 교육에 좀 더 고르게 분포한 특성을 보인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은 스포츠 교육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무배우 노인은 건강 및 노화 이해 교육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자녀동거가구는 타 집단에 비해 문화예술 교육의 비율이 34.3%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독거가구는 건강 및 노화 이해 교육의 비율이 36.7%로 높았다. 그러나 가구형태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건강 및 노화에 대한 교육의 비율이 높았으며, 정보화 교육과 직업능력 향상 교육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특성을 보였다. 또한, 무학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문해력 교육의 비율이 높았다.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은 문화예술 교육의 비율이 30.6%로 취업 노인 21.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취업 노인은 직업능력향상 교육의 비율이 11.6%로 미취업 노인 1.6%에 비해 매우 높았다. 또한, 정보화 교육도 취업 노인 13.5%, 미취업 노인 10.5%로 취업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보화 교육과 직업능력향상 교육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으며, 중위소득 기준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건강 및 노화에 대한 교육 비율이 높았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 건강 및 노화에 대한 교육의 비율이 39.9%로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9-8〉 교육 및 학습활동 참여 영역(1+2순위, 계속)

(단위: %)

특성	학력인정 과정교육	문해교육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교육	외국어교육	인문교양 교육	건강 및 노화이해 교육	정보화교육
전체 ^{1) 2) 3)}	1.7	5.0	26.8	37.3	2.7	5.4	30.5	11.7
지역								
동부	1.7	2.9	27.1	40.4	2.8	6.8	27.8	13.4
읍·면부	1.7	9.8	26.1	30.5	2.5	2.3	36.7	7.8
성								
남자	1.5	1.3	20.4	28.9	3.9	9.1	28.6	17.1
여자	1.8	7.1	30.3	42.0	2.1	3.4	31.6	8.7
연령								
65~69세	1.9	2.4	22.6	39.6	3.6	5.9	22.9	15.8
70~74세	2.3	5.1	25.4	39.1	3.6	6.5	30.0	12.0
75~79세	1.0	7.1	27.7	35.2	1.6	5.6	31.1	10.0
80~84세	1.9	6.7	35.9	37.0	1.7	4.5	41.6	6.0
85~89세	0.0	15.4	32.2	27.7	0.0	0.0	54.1	0.0
90세 이상	0.0	5.1	55.2	11.7	0.0	0.0	65.1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4	2.5	26.0	38.9	3.4	6.5	26.7	13.8
배우자 없음	2.1	9.0	28.0	34.9	1.8	3.7	36.3	8.4
가구형태								
노인독거	2.2	10.0	27.4	33.8	1.6	4.0	36.7	8.7
노인부부	1.3	2.5	25.2	38.9	3.2	6.1	27.2	13.1
자녀동거	2.7	3.6	34.3	38.1	3.4	7.2	29.1	13.8
기타	0.0	0.0	20.5	50.8	5.6	0.0	25.2	9.2
교육수준								
무학	1.9	16.9	29.9	23.9	0.0	1.9	44.3	0.7
초등학교	2.3	6.5	29.5	35.5	1.2	3.8	41.3	5.1
중학교	1.8	1.6	23.8	36.1	0.2	1.9	29.7	14.5
고등학교	1.5	3.6	25.2	44.6	5.0	5.8	23.8	16.0
전문대학 이상	0.5	1.6	28.9	33.2	6.5	18.4	16.0	17.5
현취업상태								
취업중	1.0	2.8	21.2	38.0	2.5	4.2	30.4	13.5
미취업	2.2	6.6	30.6	36.9	2.9	6.2	30.6	10.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7	7.6	33.8	29.1	0.0	5.8	29.4	5.0
제2오분위	1.6	6.8	32.5	37.0	1.2	2.0	37.2	4.8
제3오분위	1.2	8.5	25.4	28.9	1.4	4.5	39.6	7.0
제4오분위	1.7	2.7	22.1	40.4	3.6	5.4	28.4	17.8
제5오분위	0.7	2.4	25.2	44.5	5.1	7.9	22.3	16.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5	6.3	33.3	32.1	0.5	4.0	35.7	5.7
50%이상~100%미만	0.8	6.0	25.6	35.7	2.5	4.3	32.0	9.8
100%이상~150%미만	0.5	4.5	22.4	36.8	2.9	8.5	29.5	16.6
150%이상	1.8	3.2	25.0	44.9	5.2	5.6	24.3	16.0
기능상태								
제한 있음	0.0	5.6	32.4	30.8	1.5	3.4	39.9	11.0
제한 없음	2.0	4.9	25.9	38.4	2.9	5.7	29.0	11.8

주: 1) 전체응답자 중 지난 1년간 교육 및 학습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343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1, 2순위 중복응답으로 분석하여 전체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3) 선택지 변경으로 2020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2020년 단일응답, 2023년 1, 2순위 다중응답).

〈표 9-9〉 교육 및 학습활동 참여 영역(1+2순위)

(단위: %)

특성	직업능력향상교육	경제교육	인간, 가족관계 교육	노인복지정책 교육	자원봉사 관련 교육
전체 ^{1) 2) 3)}	5.6	7.0	4.4	8.5	4.7
지역					
동부	3.9	8.3	5.5	8.6	4.4
읍·면부	9.5	4.1	1.9	8.3	5.3
성					
남자	11.0	9.7	3.7	9.2	6.3
여자	2.7	5.6	4.8	8.1	3.7
연령					
65~69세	9.5	8.1	4.3	9.4	5.7
70~74세	5.4	8.4	2.8	8.4	6.3
75~79세	2.6	6.0	4.7	9.8	3.2
80~84세	0.9	5.6	3.4	5.6	2.7
85~89세	0.0	1.8	8.0	7.1	0.0
90세 이상	0.0	0.0	22.6	0.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6	7.8	4.1	7.5	5.3
배우자 없음	4.1	5.9	4.8	10.0	3.7
가구형태					
노인독거	3.0	5.9	4.6	10.6	3.4
노인부부	6.9	8.0	3.9	7.5	5.4
자녀동거	3.3	4.8	7.2	7.4	4.8
기타	31.6	10.4	0.0	6.5	5.0
교육수준					
무학	3.2	2.6	6.0	7.7	1.9
초등학교	3.9	5.2	5.3	9.0	3.4
중학교	6.6	9.7	5.1	8.5	5.3
고등학교	5.9	6.8	3.2	8.9	5.7
전문대학 이상	9.2	11.0	3.5	6.6	5.5
현취업상태					
취업중	11.6	8.1	2.6	11.9	4.6
미취업	1.6	6.3	5.6	6.2	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	5.1	3.5	7.8	4.5
제2오분위	1.5	5.0	6.6	11.4	4.9
제3오분위	5.7	8.1	6.0	10.7	4.1
제4오분위	7.0	8.7	3.7	7.3	4.2
제5오분위	8.8	6.9	2.9	6.6	5.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1	4.5	6.1	9.1	3.8
50%이상~100%미만	4.9	7.6	5.6	9.4	5.6
100%이상~150%미만	9.1	8.7	1.9	9.0	4.1
150%이상	8.3	7.6	3.2	6.4	4.8
가능상태					
제한 있음	4.4	6.1	4.9	5.3	3.7
제한 없음	5.8	7.2	4.3	9.0	4.8

주: 1) 전체응답자 중 지난 1년간 교육 및 학습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343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1, 2순위 중복응답으로 분석하여 전체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3) 선택지 변경으로 2020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2020년 단일응답, 2023년 1, 2순위 다중응답).

교육 및 학습활동 참여자의 학습활동 실시 기관은 시·군·구/읍·면·동 29.8%, 노인복지관 28.1%, 매체활용 26.7%, 경로당 21.0%, 평생교육센터 14.2%, 민간문화교육기관 9.8%, 종교기관 5.0%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은 시·군·구/읍·면·동 32.4%, 매체활용 29.8%, 노인복지관 27.3%, 평생교육센터 17.5% 등의 순인 반면, 읍·면부 노인은 경로당 40.6%, 노인복지관 30.1%, 시·군·구/읍·면·동 23.9%로 지역별 큰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은 매체 활용의 비율이 36.8%로 가장 높은 반면, 여자 노인은 시·군·구/읍·면·동과 노인복지관이 각각 30.5%와 30.3%로 높고 경로당의 비율도 26.0%로 남자 노인 11.8%에 비해 높아 성별에 따라 교육 및 학습활동 참여 기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로당에서 교육 및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시·군·구/읍·면·동과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학습활동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경우 70대와 80대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은 시·군·구/읍·면·동, 노인복지관, 매체활용 비율이 각각 33.9%와 25.7%, 28.7%로 높았으며, 무배우 노인은 노인복지관 32.0%, 경로당 31.2%, 매체활용 23.6%, 시·군·구/읍·면·동 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에 따라서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독거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매체활용은 자녀동거가구와 기타 가구, 시·군·구/읍·면·동은 기타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매체활용, 민간 및 공공 문화교육기관의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로당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시·군·구/읍·면·동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았으나 전문대학 이상은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노인복지관은 초졸과 중졸의 비율이 높았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자는 시·군·구/읍·면·동과 매체 활용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미취업자는 노인복지관과 시·군·구/읍·면·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민간 및 공공 문화교육기관의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제한이 없는 노인은 시·군·구/읍·면·동의 비율이 30.7%로 가장 높고, 노인복지관 28.5%, 매체 활용 26.9%인 반면,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은 경로당 36.5%, 노인복지관 26.1%, 매체 활용 25.3%로 나타났다.

〈표 9-10〉 교육 및 학습활동 참여 기관(1+2순위)

(단위: %)

특성	노인 복지관	경로당	대한 노인회	종교 기관	시·군·구/ 읍·면·동	평생교육 센터	학교	공공문화 교육기관	민간문화 교육기관	매체 활용
전체 ^{1) 2) 3)} 지역	28.1	21.0	3.8	5.0	29.8	14.2	0.6	3.9	9.8	26.7
동부 읍·면부	27.3	12.2	3.9	5.2	32.4	17.5	0.4	3.8	11.8	29.8
성	30.1	40.6	3.5	4.6	23.9	6.8	1.0	4.0	5.1	19.6
남자	24.3	11.8	3.5	3.1	28.4	16.3	0.8	4.2	13.2	36.8
여자	30.3	26.0	3.9	6.0	30.5	13.0	0.5	3.7	7.9	21.1
연령										
65~69세	20.5	7.7	2.2	4.6	37.0	18.4	0.5	5.1	16.0	33.4
70~74세	31.2	17.5	3.7	5.8	33.4	14.7	0.7	4.0	9.2	25.0
75~79세	38.2	23.4	7.0	4.2	24.4	10.9	1.2	4.3	4.0	20.1
80~84세	34.6	45.9	5.3	4.5	17.5	11.5	0.0	1.1	3.9	19.1
85~89세	30.9	60.7	1.2	10.0	11.7	0.0	0.0	0.0	0.0	18.3
90세 이상	8.9	62.5	5.1	0.0	2.8	0.0	0.0	0.0	0.0	38.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5.7	14.3	3.4	4.7	33.9	17.5	0.8	4.4	11.2	28.7
배우자 없음	32.0	31.2	4.4	5.4	23.4	9.0	0.3	3.0	7.5	23.6
가구형태										
노인독거	32.5	31.2	5.1	6.1	23.1	9.2	0.3	3.2	7.7	21.9
노인부부	26.8	14.7	3.3	4.1	34.2	16.6	0.6	3.9	11.0	27.7
자녀동거	23.9	22.4	2.6	6.1	24.3	17.9	1.4	4.7	10.4	33.9
기타	14.0	17.4	0.0	6.0	46.8	9.8	0.0	10.3	5.0	43.8
교육수준										
무학	21.5	58.4	5.1	7.6	12.1	3.2	0.0	1.4	3.4	17.5
초등학교	35.4	36.3	6.6	5.2	20.7	7.7	0.3	3.8	4.0	20.8
중학교	31.0	14.1	4.2	6.4	32.2	14.7	1.7	2.3	9.2	27.8
고등학교	25.6	8.9	1.5	3.1	41.1	19.1	0.4	4.4	13.8	29.3
전문대학 이상	21.1	2.9	2.9	5.3	25.1	22.4	0.3	7.8	16.7	38.4
현취업상태										
취업중	21.7	19.5	4.6	3.4	33.0	15.7	0.2	4.6	11.3	30.7
미취업	32.5	21.9	3.2	6.1	27.5	13.2	0.8	3.4	8.7	23.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1.4	38.5	6.7	7.4	15.2	8.8	0.0	2.0	1.8	14.0
제2오분위	34.7	34.3	5.2	4.2	20.7	6.4	0.3	2.3	7.1	24.8
제3오분위	30.8	25.0	5.1	6.7	27.3	9.3	0.6	3.2	5.7	31.6
제4오분위	27.4	16.4	1.6	5.1	35.1	14.1	0.7	4.2	12.5	26.8
제5오분위	21.6	6.4	2.6	3.2	38.7	24.6	0.9	5.8	15.3	29.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2.0	36.9	6.1	5.3	17.4	7.1	0.4	1.9	4.2	21.8
50%이상~100%미만	31.3	22.7	3.8	6.1	29.4	9.0	0.6	3.9	7.0	28.1
100%이상~150%미만	24.5	13.2	1.2	6.2	39.2	19.4	1.1	4.7	11.3	26.4
150%이상	23.5	9.0	3.4	2.6	35.2	23.2	0.3	5.1	17.2	30.2
기능상태										
제한 있음	26.1	36.5	3.9	3.0	23.9	11.4	0.0	2.5	1.2	25.3
제한 없음	28.5	18.4	3.8	5.3	30.7	14.6	0.7	4.1	11.2	26.9

주: 1) 전체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학습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343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선택지 변경으로 2020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2020년 단일응답, 2023년 1, 2순위 다중응답).

3) 1, 2순위 중복응답으로 분석하여 전체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2. 자원봉사활동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 시간을 살펴보면, 2.5%가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월평균 참여 횟수는 2.2회이며, 평균 참여시간은 4.6시간으로 참여자의 74.9%는 월 6시간 미만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참여율이 2.4%로 읍·면부 노인 2.8%에 비해 낮은 특성을 보이는 반면, 월평균 참여 횟수와 참여 시간은 동부 노인이 2.4회, 4.8시간으로 읍·면부 노인의 1.8회, 4.2시간보다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은 2.2% 여자 노인은 2.7%가 참여하고 있으며, 월평균 참여 횟수도 여자 노인이 2.3시간으로 더 많았다. 그러나 월평균 참여 시간은 남자 노인이 4.8시간으로 더 많았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참여율이 낮은 특성을 보이며, 월평균 참여 횟수와 참여 시간 모두 85~89세가 3.4회와 11.8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3.0%가 참여하여 무배우 노인 1.8%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월평균 참여 횟수는 거의 유사하였다. 월평균 참여 시간은 유배우 노인이 4.7시간으로 무배우 노인 4.4시간에 비해 조금 높았다. 가구형태에서는 부부가구의 참여율이 3.0%로 가장 높았으나, 월평균 참여 횟수와 참여 시간은 기타 가구가 7.1회, 7.1 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동거가구도 월평균 2.4회, 5.2시간 참여로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았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월평균 참여 횟수와 시간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중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참여 횟수와 시간 모두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취업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3.0%이고 미취업 노인은 2.2%이었으나 미취업 노인의 월평균 참여 횟수와 참여 시간 모두 취업노인에 비해 많았다.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가구의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연 가구소득 오분위와 중위소득 기준 모두에서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월평균 참여 횟수 및 참여 시간은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8%로 제한이 있는 노인 1.1%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참여 횟수 및 참여 시간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1〉 자원봉사활동 참여 현황

(단위: %, 회, 시간, 명)

특성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¹⁾	월평균 참여 횟수 ²⁾	월평균 자원봉사활동 참여 시간 ²⁾					월평균 참여시간 ³⁾	계 (명)
			6시간 미만	6~11시간 미만	11~16시간 미만	16~21시간 미만	21시간 이상		
전체 ⁴⁾	2.5	2.2	74.9	17.3	3.9	2.1	1.9	4.6	100.0 (253)
지역									
동부	2.4	2.4	76.5	16.7	2.2	2.3	2.3	4.8	100.0 (181)
읍·면부	2.8	1.8	71.0	18.7	8.0	1.5	0.9	4.2	100.0 (72)
성									
남자	2.2	2.1	77.8	16.2	2.4	1.8	1.7	4.8	100.0 (100)
여자	2.7	2.3	73.0	17.9	4.9	2.2	2.0	4.6	100.0 (154)
연령									
65~69세	3.8	2.1	75.7	15.4	4.3	2.3	2.3	4.7	100.0 (131)
70~74세	2.7	2.4	74.4	20.5	1.6	3.5	0.0	4.1	100.0 (64)
75~79세	1.8	1.8	83.7	15.2	1.1	0.0	0.0	3.0	100.0 (32)
80~84세	1.3	2.9	67.7	12.9	13.3	0.0	6.2	5.8	100.0 (18)
85~89세	1.1	3.4	49.9	37.8	5.5	0.0	6.8	11.8	100.0 (9)
90세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0	2.2	75.7	18.1	1.6	2.7	1.8	4.7	100.0 (182)
배우자 없음	1.8	2.2	72.8	15.2	9.6	0.4	2.1	4.4	100.0 (71)
가구형태									
노인독거	1.9	2.1	73.1	17.1	7.0	0.4	2.3	4.3	100.0 (63)
노인부부	3.0	2.1	77.0	17.9	0.7	2.4	2.0	4.6	100.0 (167)
자녀동거	1.9	2.4	62.5	15.6	21.8	0.0	0.0	5.2	100.0 (20)
기타	2.1	7.1	74.8	0.0	0.0	25.2	0.0	7.1	100.0 (4)
교육수준									
무학	0.5	0.9	87.0	13.0	0.0	0.0	0.0	1.8	100.0 (6)
초등학교	1.4	1.8	81.8	9.2	8.3	0.6	0.0	3.4	100.0 (39)
중학교	2.2	2.5	78.0	14.0	2.9	0.0	5.1	4.8	100.0 (48)
고등학교	3.6	2.2	73.1	20.3	2.8	2.8	1.0	4.5	100.0 (113)
전문대학 이상	6.7	2.5	68.8	20.6	4.1	3.9	2.6	6.2	100.0 (47)
현취업상태									
취업중	3.0	2.0	77.5	15.0	4.8	1.7	1.0	4.3	100.0 (117)
미취업	2.2	2.4	72.6	19.2	3.1	2.4	2.7	4.9	100.0 (136)
연구구소속									
제1오분위	1.3	1.3	84.8	13.8	1.4	0.0	0.0	2.0	100.0 (27)
제2오분위	1.7	2.5	70.9	18.8	3.4	3.4	3.4	5.4	100.0 (33)
제3오분위	2.7	2.7	71.3	16.3	5.9	2.2	4.4	6.1	100.0 (55)
제4오분위	3.2	2.1	74.9	16.2	5.8	1.2	1.9	4.5	100.0 (65)
제5오분위	3.6	2.2	75.8	19.5	1.8	2.9	0.0	4.3	100.0 (7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4	2.1	74.3	15.4	6.1	2.1	2.1	4.2	100.0 (54)
50%이상~100%미만	2.5	2.6	70.7	20.3	2.9	2.8	3.4	5.8	100.0 (71)
100%이상~150%미만	3.2	1.8	78.2	14.0	6.6	0.0	1.1	4.1	100.0 (54)
150%이상	4.1	2.2	77.0	18.1	1.2	2.8	0.8	4.3	100.0 (75)
가능상태									
제한 있음	1.1	1.1	80.7	9.8	9.4	0.0	0.0	3.3	100.0 (20)
제한 없음	2.8	2.3	74.4	17.9	3.4	2.2	2.0	4.8	100.0 (233)
2020년도	2.9	2.6	59.2	23.9	6.9	4.8	5.2	6.3	100.0 (291)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전체응답자 중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53명을 대상으로 함.

3) 월평균 참여시간은 전체 응답자 10,078명 중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53명을 대상으로 월평균 참여횟수와 회당 하루 참여시간을 곱하여 산출함.

4)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원봉사활동 참여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역은 사회복지 부분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56.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환경보호 17.5%, 교통질서 13.2%, 문화체육 9.0%, 교육활동 2.2%, 보건의료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은 사회복지 외에 교통질서(14.7%)와 환경보호(13.7%)의 비율이 유사한 반면, 읍·면부 노인은 사회복지 외에 환경보호가 26.8%로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노인 모두 많이 참여하는 분야의 비율이 유사하다. 다만, 남자 노인은 교육활동 4.7%, 보건의료 0.0%인 반면, 여자 노인은 교육활동 0.6%, 보건의료 3.1%로 상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80~84세의 사회복지 영역 비율이 61.7%로 가장 높았으며, 85~89세는 환경보호가 45.2%로 타 연령군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70대는 교통질서 참여 비율이 타 연령군에 비해 높았다.

배우자 유무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은 사회복지 영역 비율이 58.2%로 무배우 노인 51.0%에 비해 높았으며, 교통질서도 14.8%로 높았다. 무배우 노인은 환경보호의 비율이 23.5%로 유배우 노인 15.1%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부부가구의 사회복지 영역 참여 비율이 59.1%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형태별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 이상의 고학력 집단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그 외 영역에서도 다양한 영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학의 경우 사회복지와 환경보호에 집중되어 활동하는 경향이 보였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 노인의 사회복지 영역 참여 비율이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았으며, 교통질서 영역은 미취업 노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성이 도출되지 않았으나, 연가구소득 제4오분위와 제5오분위,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인 집단은 교육분야 봉사활동의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환경보호 45.2%, 사회복지 30.3%로 사회복지 영역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사회복지영역의 비율이 58.4%로 매우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9-12〉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역

(단위: %, 명)

특성	사회복지	문화체육	교통질서	환경보호	보건의료	교육활동	계 (명)
전체 ^{1) 2)}	56.2	9.0	13.2	17.5	1.9	2.2	100.0 (253)
지역							
동부	57.5	9.3	14.7	13.7	1.9	2.8	100.0 (181)
읍·면부	52.7	8.3	9.5	26.8	1.8	0.9	100.0 (72)
성							
남자	58.1	8.7	12.6	16.0	0.0	4.7	100.0 (100)
여자	54.9	9.3	13.7	18.4	3.1	0.6	100.0 (154)
연령							
65~69세	60.8	11.6	8.7	15.8	1.9	1.3	100.0 (131)
70~74세	50.1	3.0	22.5	19.1	3.6	1.8	100.0 (64)
75~79세	46.8	9.1	24.5	19.7	0.0	0.0	100.0 (32)
80~84세	61.7	16.0	0.0	6.5	0.0	15.9	100.0 (18)
85~89세	54.8	0.0	0.0	45.2	0.0	0.0	100.0 (9)
90세 이상	0.0	0.0	0.0	0.0	0.0	0.0	100.0 (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8.2	9.5	14.8	15.1	0.6	1.8	100.0 (182)
배우자 없음	51.0	8.0	9.2	23.5	5.1	3.4	100.0 (71)
가구형태							
노인독거	49.4	7.7	10.4	22.9	5.7	3.8	100.0 (63)
노인부부	59.1	10.0	14.0	14.5	0.7	1.7	100.0 (167)
자녀동거	53.7	6.8	18.2	19.3	0.0	2.0	100.0 (20)
기타	50.2	0.0	0.0	49.8	0.0	0.0	100.0 (4)
교육수준							
무학	56.6	0.0	0.0	43.4	0.0	0.0	100.0 (6)
초등학교	54.2	7.3	5.8	32.7	0.0	0.0	100.0 (39)
중학교	48.0	7.1	23.3	21.6	0.0	0.0	100.0 (48)
고등학교	58.9	9.3	14.8	13.0	2.0	2.0	100.0 (113)
전문대학 이상	59.4	13.0	7.1	7.8	5.4	7.2	100.0 (47)
현취업상태							
취업중	61.6	10.4	6.9	19.1	2.0	0.0	100.0 (117)
미취업	51.5	7.9	18.7	16.1	1.7	4.1	100.0 (13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9.6	4.0	0.0	6.4	0.0	0.0	100.0 (27)
제2오분위	44.6	10.7	13.1	28.1	3.4	0.0	100.0 (33)
제3오분위	61.5	10.0	9.8	16.8	1.9	0.0	100.0 (55)
제4오분위	48.7	12.5	14.6	18.5	1.9	3.7	100.0 (65)
제5오분위	51.8	6.3	19.4	16.2	1.8	4.4	100.0 (7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4.4	9.0	7.4	17.0	2.1	0.0	100.0 (54)
50%이상~100%미만	66.0	8.3	10.4	15.3	0.0	0.0	100.0 (71)
100%이상~150%미만	49.7	13.3	11.8	20.7	4.4	0.0	100.0 (54)
150%이상	45.5	6.7	21.1	17.5	1.7	7.6	100.0 (75)
기능상태							
제한 있음	30.3	5.6	19.0	45.2	0.0	0.0	100.0 (20)
제한 없음	58.4	9.3	12.7	15.1	2.0	2.4	100.0 (233)
2020년도	48.8	7.8	20.5	14.0	5.8	3.1	100.0 (291)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53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원봉사활동 참여 종류는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봉사(단순노력봉사)가 8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미(교육)등으로 습득한 지식/기술 활용(준전문자원봉사)이 8.1%, 직업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 활용(전문자원봉사)이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은 단순노력봉사가 87.4%인 반면, 읍·면부 노인은 92.6%로 읍·면부 대부분의 참여 노인들이 단순노력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의 단순노력봉사 비율이 93.9%로 남자 노인 81.1%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전문자원봉사의 경우 남자 노인이 5.5%, 여자 노인이 1.4%로 성별에 따른 전문적 봉사활동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70~74세의 단순노력봉사 비율이 타 연령군에 비해 높았다.

배우자 유무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의 단순노력봉사 비율이 89.2%로 무배우 노인 88.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의 전문자원봉사 참여율이 4.5%로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무학은 100.0%가 단순노력봉사를 하고 있었으며, 전문대학 이상 졸업은 70.0%만이 단순노력봉사를 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전문자원봉사 참여 비율이 높았다. 취업상태에서는 취업 노인의 90.6%, 미취업 노인의 87.4%가 단순노력봉사를 하며, 전문자원봉사의 비율도 취업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소득에 따라서는 저소득에서는 단순노력봉사의 비율이 높으며, 제5오분위와 중위 소득 150% 이상에서는 타 소득수준에 비해 전문자원봉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경우 전문자원봉사의 비율이 높았다.

〈표 9-13〉 자원봉사활동 참여 종류

(단위: %, 명)

특성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봉사 (단순노력봉사)	취미(교육) 등으로 습득한 지식/기술 활용 (준전문자원봉사)	직업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 활용 (전문자원봉사)	계 (명)
전체 ^{1) 2)}	88.9	8.1	3.0	100.0 (253)
지역				
동부	87.4	8.8	3.7	100.0 (181)
읍·면부	92.6	6.2	1.2	100.0 (72)
성				
남자	81.1	13.4	5.5	100.0 (100)
여자	93.9	4.7	1.4	100.0 (154)
연령				
65~69세	87.2	8.4	4.4	100.0 (131)
70~74세	94.3	3.7	2.0	100.0 (64)
75~79세	90.1	9.9	0.0	100.0 (32)
80~84세	79.5	17.0	3.5	100.0 (18)
85~89세	90.1	9.9	0.0	100.0 (9)
90세 이상	0.0	0.0	0.0	100.0 (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9.2	8.2	2.7	100.0 (182)
배우자 없음	88.2	7.9	4.0	100.0 (71)
가구형태				
노인독거	86.6	8.9	4.5	100.0 (63)
노인부부	89.4	7.7	2.9	100.0 (167)
자녀동거	89.9	10.1	0.0	100.0 (20)
기타	100.0	0.0	0.0	100.0 (4)
교육수준				
무학	100.0	0.0	0.0	100.0 (6)
초등학교	94.7	3.6	1.7	100.0 (39)
중학교	96.3	1.8	1.9	100.0 (48)
고등학교	91.0	6.5	2.5	100.0 (113)
전문대학 이상	70.0	23.1	6.9	100.0 (47)
현취업상태				
취업중	90.6	5.9	3.5	100.0 (117)
미취업	87.4	9.9	2.6	100.0 (13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0.0	0.0	0.0	100.0 (27)
제2오분위	94.5	2.8	2.7	100.0 (33)
제3오분위	88.7	9.2	2.2	100.0 (55)
제4오분위	90.7	6.7	2.6	100.0 (65)
제5오분위	80.9	13.8	5.3	100.0 (7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7.4	2.6	0.0	100.0 (54)
50%이상~100%미만	88.6	8.4	2.9	100.0 (71)
100%이상~150%미만	86.5	12.1	1.4	100.0 (54)
150%이상	84.7	8.8	6.5	100.0 (75)
기능상태				
제한 있음	89.7	5.6	4.7	100.0 (20)
제한 없음	88.8	8.3	2.9	100.0 (233)
2020년도	83.7	8.5	7.8	100.0 (291)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53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원봉사활동 참여 노인의 연계기관은 지자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29.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종교기관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26.8%, 연계 기관 없음 12.5%, 복지기관 11.0%, 경로당 10.6%, 민간 및 비영리단체 9.3%의 순이었다.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동부 노인과 읍·면부 노인 모두 지자체 및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종교기관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동부는 복지기관이 13.5%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읍·면부는 경로당이 16.2%로 높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은 지자체 및 자원봉사센터 35.5%, 종교기관 22.4%의 분포이나, 여자 노인은 종교기관 29.6%, 지자체 및 자원봉사센터 26.3%로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65~69세는 민간 및 비영리단체의 비율이 13.7%로 타 연령군에 비해 높은 반면, 80~84세는 경로당의 비율이 36.6%로 높아 연령군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두 집단 모두 지자체 및 자원봉사센터와 종교기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민간 및 비영리단체의 비율은 유배우 노인이 3.4%포인트, 복지기관과 연계기관 없음은 무배우 노인이 각각 4.5%포인트와 5.0% 포인트 높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기타 가구를 제외하면, 세 집단이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다만,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복지기관을 통한 자원봉사 비율 19.0%와 민간 및 비영리 단체를 통한 비율이 20.0%로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무학은 경로당의 비율이 58.1%로 매우 높았으며, 초졸과 전문대졸 이상은 종교기관의 비율이 31.2%와 40.9%로 가장 높았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두 집단 모두 지자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미취업 노인은 종교기관의 비율도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종교기관을 통한 자원봉사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지자체 및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 비율이 높았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종교기관을 통한 봉사활동 비율이 47.4%로 매우 높은 반면,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지자체 및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봉사활동 비율이 31.3%로 기능상태에 따라 상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9-14〉 자원봉사활동 연계 기관

(단위: %, 명)

특성	연계 기관 없음	종교기관	경로당	복지기관	지자체 및 자원봉사센터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NGO)	계 (명)
전체 ^{1) 2)}	12.5	26.8	10.6	11.0	29.9	9.3	100.0 (253)
지역							
동부	12.1	26.9	8.3	13.5	31.0	8.1	100.0 (181)
읍·면부	13.5	26.5	16.2	4.7	27.2	12.0	100.0 (72)
성							
남자	9.6	22.4	7.8	9.4	35.5	15.3	100.0 (100)
여자	14.4	29.6	12.4	12.0	26.3	5.3	100.0 (154)
연령							
65~69세	11.1	25.9	6.8	12.0	30.5	13.7	100.0 (131)
70~74세	15.8	30.5	6.1	10.2	33.0	4.3	100.0 (64)
75~79세	19.7	25.5	23.1	4.6	21.9	5.2	100.0 (32)
80~84세	0.0	15.8	36.6	18.9	26.1	2.6	100.0 (18)
85~89세	9.9	40.0	0.0	9.0	34.3	6.8	100.0 (9)
90세 이상	0.0	0.0	0.0	0.0	0.0	0.0	100.0 (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1.1	27.8	10.7	9.7	30.4	10.2	100.0 (182)
배우자 없음	16.1	24.1	10.1	14.2	28.6	6.8	100.0 (71)
가구형태							
노인독거	15.7	24.0	10.0	12.3	30.4	7.6	100.0 (63)
노인부부	11.7	28.3	11.1	9.8	30.2	8.8	100.0 (167)
자녀동거	11.9	27.7	0.0	19.0	21.3	20.0	100.0 (20)
기타	0.0	0.0	50.2	0.0	49.8	0.0	100.0 (4)
교육수준							
무학	14.7	7.8	58.1	13.0	0.0	6.4	100.0 (6)
초등학교	10.0	31.2	16.6	11.0	29.4	1.7	100.0 (39)
중학교	15.9	16.2	18.6	5.6	37.1	6.6	100.0 (48)
고등학교	11.0	24.9	5.8	14.8	30.2	13.4	100.0 (113)
전문대학 이상	14.6	40.9	2.8	7.0	26.1	8.7	100.0 (47)
현취업상태							
취업중	9.8	23.9	10.8	13.9	30.3	11.3	100.0 (117)
미취업	14.9	29.3	10.4	8.5	29.5	7.5	100.0 (13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	67.2	6.3	3.8	13.4	4.1	100.0 (27)
제2오분위	14.9	26.6	20.8	15.3	21.4	1.0	100.0 (33)
제3오분위	22.1	26.5	10.9	9.2	25.8	5.5	100.0 (55)
제4오분위	9.6	25.2	17.5	5.5	26.9	15.3	100.0 (65)
제5오분위	9.6	13.9	1.1	17.7	45.4	12.3	100.0 (7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2	49.7	10.8	10.4	18.2	2.6	100.0 (54)
50%이상~100%미만	17.3	26.0	18.9	9.7	22.3	5.9	100.0 (71)
100%이상~150%미만	18.7	20.8	12.5	5.3	28.9	13.7	100.0 (54)
150%이상	6.6	15.3	1.1	16.7	46.3	14.0	100.0 (75)
기능상태							
제한 있음	13.9	47.4	10.8	4.7	13.7	9.4	100.0 (20)
제한 없음	12.4	25.0	10.6	11.5	31.3	9.2	100.0 (233)
2020년도	6.6	33.4	5.9	15.8	31.2	7.1	100.0 (291)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53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사회단체활동

사회단체활동은 동호회 활동, 친목단체 활동, 정치사회단체 활동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노인의 동호회 활동 참여율은 6.6%이며 월 1회 참여자의 비율이 41.3%로 가장 높고, 월 1회 미만 19.4%, 월 2~3회 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목단체 활동 참여율은 54.2%이며, 월 1회 참여자의 비율이 41.1%로 가장 높고, 월 1회 미만 28.9%, 주 1회 5.2% 등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사회단체활동 참여율은 1.3%이며, 월 1회 미만 참여자의 비율이 61.1%로 가장 높았고, 월 1회 13.2% 등의 순이었다. 세부 활동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호회 활동의 참여율은 동부 노인이 7.4%로 읍·면부 노인 4.4%보다 높으나, 주 1회 이상의 참여 정도는 읍·면부 노인이 26.7%로 동부 노인에 비해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의 동호회 참여율은 9.8%로 여자 노인 4.1%보다 높았으나, 주 1회 이상의 빈번한 참여는 여자 노인이 27.0%로, 남자 노인 22.1%에 비해 높았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동호회 참여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참여 빈도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배우 노인(7.8%)은 무배우 노인(4.9%)에 비해 동호회 참여 비율이 높았으며, 부부가구(7.5%)가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취업 노인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동호회 참여율이 높았으며,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경우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해 동호회 참여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친목단체활동 참여율은 54.2%이며, 월 1회 이하 참여율은 70.0%로 대다수 노인들이 월 1회 이하의 간헐적인 친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부 노인의 참여율은 56.1%로 읍·면부 노인 48.9%에 비하여 높았으며, 주 1회 이상의 적극적 참여 비율은 동부 8.3%, 읍·면부 7.6%로 동부의 비율이 높았다. 남자 노인의 참여율이 60.5%로 여자 노인 49.2%보다 높았으며, 주 1회 이상 참여율은 여자 노인이 9.8%로 남자 노인 6.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친목단체 참여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나, 주 1회 이상의 적극적 참여 비율은 연령대가 높은 집단일수록 높은 특성을 보여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유배우 노인의 친목단체 참여율은 61.9%로 무배우 노인 42.6%에 비해 높았으며, 부부가구는 61.6%가 친목단체에 참여하고 있어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친목단체

활동 참여율이 높았으며, 취업 노인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집단일수록 친목단체 활동 참여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정치사회단체활동 참여율은 1.3%로 참여자 중 61.1%가 월 1회 미만으로 간헐적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 노인은 1.5%, 읍·면부 노인은 0.7%가 정치사회단체활동을 하고 있으나, 주 1회 이상의 적극적 참여 비율은 동부 노인은 17.3%, 읍·면부 노인은 3.1%로 동부 노인의 정치사회단체활동 참여율과 적극성 모두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의 참여율이 2.0%로 여자 노인 0.8%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주 1회 이상의 적극적 참여 비율은 남자 노인 10.7%, 여자 노인 24.1%로 여자 노인의 참여율은 낮으나 적극적 참여는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군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높았으나, 주 1회 이상 적극적 참여율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유배우 노인의 정치사회단체활동 참여율은 1.6%로 무배우 노인 1.0%에 비해 높았으며, 기타 가구형태의 경우 2.0%로 타 가구형태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취업중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경우 정치사회단체활동 참여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표 9-15〉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단위: %, 명)

특성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명)
전체 ¹⁾	6.6	54.2	1.3	(10,078)
지역				
동부	7.4	56.1	1.5	(7,450)
읍·면부	4.4	48.9	0.7	(2,628)
성				
남자	9.8	60.5	2.0	(4,429)
여자	4.1	49.2	0.8	(5,649)
연령				
65~69세	10.7	73.3	1.6	(3,473)
70~74세	6.3	59.9	1.9	(2,377)
75~79세	4.5	46.2	1.2	(1,743)
80~84세	3.5	33.2	0.5	(1,407)
85~89세	1.2	23.3	0.4	(825)
90세 이상	2.5	10.7	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8	61.9	1.6	(6,047)
배우자 없음	4.9	42.6	1.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5.3	43.9	1.1	(3,306)
노인부부	7.5	61.6	1.5	(5,562)
자녀동거	6.2	47.0	0.9	(1,035)
기타	5.5	55.3	2.0	(174)
교육수준				
무학	2.0	21.9	0.4	(1,240)
초등학교	2.7	42.1	0.7	(2,846)
중학교	5.5	57.8	1.2	(2,139)
고등학교	9.5	70.9	1.9	(3,145)
전문대학 이상	21.0	74.3	3.2	(707)
현취업상태				
취업중	8.5	67.6	1.6	(3,931)
미취업	5.4	45.6	1.1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9	33.5	0.9	(2,014)
제2오분위	3.8	41.8	0.7	(2,014)
제3오분위	5.1	56.4	1.0	(2,014)
제4오분위	8.6	65.8	1.7	(2,020)
제5오분위	12.5	73.4	2.4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3	38.0	0.7	(3,776)
50%이상~100%미만	5.9	54.7	1.0	(2,801)
100%이상~150%미만	8.4	67.2	1.9	(1,673)
150%이상	12.8	75.0	2.4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5.0	28.2	1.1	(1,873)
제한 없음	6.9	60.1	1.4	(8,205)
2020년도	4.7	44.1	1.2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16〉 사회단체활동 참여빈도

(단위: %, 명)

동호회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¹⁾
전체	5.8	6.2	11.8	15.5	41.3	19.4	100.0 (665)
지역							
동부	5.6	5.7	11.9	17.7	41.3	17.7	100.0 (549)
읍·면부	6.4	9.0	11.3	5.1	41.0	27.1	100.0 (116)
성							
남자	5.8	7.2	9.1	16.7	43.0	18.2	100.0 (434)
여자	5.7	4.4	16.9	13.4	38.1	21.6	100.0 (230)
연령							
65~69세	5.8	5.8	10.0	15.0	39.2	24.3	100.0 (371)
70~74세	6.1	5.0	14.9	13.2	47.7	13.1	100.0 (150)
75~79세	6.7	9.3	12.6	13.5	44.5	13.4	100.0 (78)
80~84세	5.2	10.2	16.8	21.7	33.1	12.9	100.0 (50)
85~89세	0.0	3.4	5.8	40.3	28.5	22.0	100.0 (10)
90세 이상	0.0	0.0	0.0	43.8	56.2	0.0	100.0 (6)
2020년도	4.4	6.8	14.8	8.4	40.1	25.4	100.0 (475)
친목단체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¹⁾
전체	0.5	2.5	5.2	21.9	41.1	28.9	100.0 (5,462)
지역							
동부	0.5	2.7	5.1	23.0	40.4	28.3	100.0 (4,178)
읍·면부	0.4	1.8	5.4	18.3	43.4	30.7	100.0 (1,284)
성							
남자	0.4	1.9	4.3	23.7	40.7	29.1	100.0 (2,681)
여자	0.6	3.1	6.1	20.2	41.5	28.6	100.0 (2,782)
연령							
65~69세	0.3	1.8	3.6	25.6	41.3	27.4	100.0 (2,546)
70~74세	0.4	2.5	5.1	20.5	41.4	30.1	100.0 (1,424)
75~79세	1.0	2.9	6.4	17.7	43.2	28.7	100.0 (806)
80~84세	0.5	3.9	7.4	16.0	39.5	32.8	100.0 (467)
85~89세	1.0	7.0	13.5	13.9	32.7	31.8	100.0 (192)
90세 이상	0.0	0.0	26.9	24.6	34.0	14.5	100.0 (27)
2020년도	0.6	2.1	4.8	14.0	49.6	28.9	100.0 (4,448)
정치사회단체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¹⁾
전체	8.4	5.0	1.9	10.6	13.2	61.1	100.0 (134)
지역							
동부	9.3	5.8	2.2	12.1	14.0	56.5	100.0 (114)
읍·면부	3.1	0.0	0.0	1.3	8.1	87.5	100.0 (20)
성							
남자	7.5	1.5	1.7	10.5	17.5	61.3	100.0 (89)
여자	10.2	11.7	2.2	10.7	4.7	60.5	100.0 (45)
연령							
65~69세	8.4	1.6	4.4	10.2	11.4	64.0	100.0 (56)
70~74세	8.4	7.3	0.0	12.8	14.4	57.2	100.0 (45)
75~79세	4.1	11.4	0.0	8.4	18.9	57.3	100.0 (22)
80~84세	12.9	0.0	0.0	11.7	8.8	66.6	100.0 (7)
85~89세	25.9	0.0	0.0	0.0	0.0	74.1	100.0 (4)
90세 이상	0.0	0.0	0.0	0.0	0.0	0.0	100.0 (0)
2020년도	0.0	0.7	0.8	8.2	27.0	63.1	100.0 (122)

주: 1) 해당 항목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종교활동

노인의 사회참여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인 종교활동에 대해 종교 현황 및 종교활동 수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노인의 60.2%는 종교가 없으며, 불교 18.5%, 개신교(기독교) 16.3%, 천주교 4.8%, 그 외 유교, 원불교, 기타가 각각 0.1%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노인 중 16.9%는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주 1회 활동의 비율이 32.0%로 가장 많았다. 또한, 주 1회 이상의 적극적 종교활동 비율은 41.9%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부 노인의 62.3%가 종교가 없었으며 동부 노인에 비해 높았다. 또한, 종교가 있는 노인 중 주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비율은 동부 노인 43.0%, 읍·면부 노인 38.4%로 동부 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종교가 없는 비율이 남자 노인은 69.4%, 여자 노인은 52.9%로 여자 노인이 종교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주 1회 이상 적극적 활동 비율은 성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종교 현황에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종교활동 참여정도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 1회 이상의 적극적 활동 비율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종교 없음은 61.3%로 무배우 노인 58.4%에 비해 높으나, 주 1회 이상의 적극적 참여는 유배우 노인이 약간 높았다. 가구형태에서도 부부가구는 61.3%가 종교가 없으며,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부부가구의 주 1회 이상 적극적 참여 비율은 42.9%로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종교활동 참여정도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주 1회 이상의 적극적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취업 노인의 경우 62.3%가 종교가 없으며,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종교활동 참여 정도는 취업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소득에 따른 분포에서는 종교 현황에 대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주 1회 이상 종교활동 참여 비율이 높았다. 기능상태 제한 상태에 따른 종교 유무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43.4%)의 경우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35.4%)에 비해 주 1회 이상 종교활동 참여 비율이 높았다.

〈표 9-17〉 종교 현황

(단위: %, 명)

특성	종교없음	불교	개신교 (기독교)	천주교 (가톨릭)	유교	원불교	기타	계 (명)
전체 ¹⁾	60.2	18.5	16.3	4.8	0.1	0.1	0.1	100.0 (10,078)
지역								
동부	59.4	17.8	17.5	5.0	0.1	0.1	0.1	100.0 (7,450)
읍·면부	62.3	20.5	12.8	4.0	0.2	0.0	0.1	100.0 (2,628)
성								
남자	69.4	13.0	13.2	4.1	0.2	0.1	0.0	100.0 (4,429)
여자	52.9	22.8	18.7	5.3	0.1	0.1	0.1	100.0 (5,649)
연령								
65~69세	60.9	17.8	16.6	4.4	0.1	0.1	0.0	100.0 (3,473)
70~74세	60.3	17.8	16.6	5.1	0.1	0.1	0.1	100.0 (2,377)
75~79세	58.2	19.1	17.3	4.8	0.3	0.1	0.2	100.0 (1,743)
80~84세	61.0	18.1	15.7	4.8	0.2	0.0	0.2	100.0 (1,407)
85~89세	60.9	22.3	12.5	4.3	0.0	0.0	0.0	100.0 (825)
90세 이상	56.2	18.7	16.9	8.2	0.0	0.0	0.0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1.3	17.1	16.5	4.8	0.2	0.1	0.0	100.0 (6,047)
배우자 없음	58.4	20.5	15.9	4.8	0.1	0.1	0.2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58.5	20.2	16.2	4.8	0.1	0.0	0.2	100.0 (3,306)
노인부부	61.3	17.2	16.4	4.9	0.2	0.1	0.0	100.0 (5,562)
자녀동거	58.3	19.8	17.6	4.1	0.0	0.1	0.1	100.0 (1,035)
기타	68.0	21.7	6.0	3.7	0.0	0.3	0.3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62.3	23.3	10.3	3.7	0.1	0.1	0.2	100.0 (1,240)
초등학교	60.5	21.5	14.1	3.8	0.0	0.0	0.0	100.0 (2,846)
중학교	60.6	18.5	17.1	3.5	0.2	0.0	0.1	100.0 (2,139)
고등학교	60.0	14.9	18.8	5.9	0.3	0.1	0.0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54.9	13.7	21.9	9.3	0.1	0.0	0.1	100.0 (707)
현취업상태								
취업중	62.3	18.2	15.0	4.2	0.2	0.1	0.1	100.0 (3,931)
미취업	58.8	18.7	17.1	5.1	0.1	0.1	0.1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0.6	19.9	15.6	3.3	0.3	0.1	0.2	100.0 (2,014)
제2오분위	59.1	20.7	15.9	4.1	0.0	0.0	0.1	100.0 (2,014)
제3오분위	61.6	17.6	15.2	5.3	0.2	0.1	0.0	100.0 (2,014)
제4오분위	61.2	17.2	15.4	5.9	0.2	0.1	0.0	100.0 (2,020)
제5오분위	58.4	17.1	19.3	5.2	0.0	0.0	0.0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0.6	19.3	15.6	4.0	0.2	0.1	0.1	100.0 (3,776)
50%이상~100%미만	60.9	19.6	14.9	4.3	0.2	0.1	0.1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59.6	17.4	16.3	6.7	0.1	0.0	0.0	100.0 (1,673)
150%이상	58.8	16.2	19.8	5.2	0.0	0.0	0.0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60.9	18.7	14.6	5.6	0.1	0.0	0.1	100.0 (1,873)
제한 없음	60.0	18.4	16.7	4.6	0.2	0.1	0.1	100.0 (8,205)
2020년도	40.2	23.8	24.3	10.8	0.6	0.2	0.1	10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18〉 종교활동 참여 정도

(단위: %, 명)

특성	없음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전체 ¹⁾	16.9	2.0	7.9	32.0	8.7	9.2	23.4	100.0 (4,013)
지역								
동부	15.7	2.1	8.0	32.9	9.5	9.8	21.9	100.0 (3,022)
읍·면부	20.4	1.5	7.6	29.3	6.1	7.4	27.7	100.0 (990)
성								
남자	19.8	1.9	4.3	35.2	9.0	8.3	21.5	100.0 (1,354)
여자	15.4	2.0	9.8	30.3	8.5	9.7	24.3	100.0 (2,658)
연령								
65~69세	12.2	3.0	8.0	34.7	7.9	10.4	23.8	100.0 (1,358)
70~74세	15.1	2.1	8.4	32.4	11.0	8.5	22.5	100.0 (944)
75~79세	16.4	1.6	9.8	31.1	8.7	8.2	24.3	100.0 (728)
80~84세	23.3	0.5	6.2	30.2	7.6	9.5	22.8	100.0 (548)
85~89세	26.2	0.9	5.8	26.4	6.6	10.8	23.3	100.0 (323)
90세 이상	33.9	0.7	4.8	26.2	9.9	2.3	22.3	100.0 (11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5.9	1.7	7.2	33.8	9.0	9.5	22.9	100.0 (2,338)
배우자 없음	18.2	2.3	8.8	29.4	8.3	8.9	24.1	100.0 (1,675)
가구형태								
노인독거	18.7	2.6	9.5	28.8	8.7	8.8	23.0	100.0 (1,372)
노인부부	15.8	1.8	7.1	34.0	9.3	9.5	22.6	100.0 (2,154)
자녀동거	15.8	1.0	7.5	33.4	6.2	8.3	27.8	100.0 (431)
기타	21.1	2.7	4.4	24.0	5.1	15.5	27.2	100.0 (56)
교육수준								
무학	23.2	0.9	5.0	22.6	6.9	6.9	34.4	100.0 (468)
초등학교	21.8	0.9	7.1	26.4	7.6	9.2	26.9	100.0 (1,124)
중학교	16.1	2.2	5.8	30.9	10.6	9.2	25.0	100.0 (843)
고등학교	11.5	2.9	9.5	39.2	9.6	10.3	17.0	100.0 (1,259)
전문대학 이상	13.2	2.8	14.1	39.7	6.2	8.8	15.2	100.0 (319)
현취업상태								
취업중	14.7	2.1	6.9	32.9	7.0	9.4	27.1	100.0 (1,481)
미취업	18.2	1.9	8.5	31.4	9.7	9.1	21.2	100.0 (2,53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1.3	2.5	4.6	28.2	10.4	9.1	23.9	100.0 (793)
제2오분위	19.9	2.2	8.2	28.1	9.9	7.4	24.3	100.0 (825)
제3오분위	14.2	2.7	8.3	31.8	9.0	9.9	24.1	100.0 (772)
제4오분위	16.7	1.4	7.9	33.6	6.6	10.3	23.4	100.0 (784)
제5오분위	12.2	1.1	10.3	38.0	7.6	9.6	21.2	100.0 (83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9.1	2.5	6.1	28.5	11.2	8.5	24.1	100.0 (1,486)
50%이상~100%미만	18.1	1.8	7.1	30.3	7.3	9.8	25.5	100.0 (1,096)
100%이상~150%미만	14.8	1.7	9.3	36.5	6.1	9.1	22.5	100.0 (677)
150%이상	12.5	1.2	11.3	37.4	8.2	9.9	19.6	100.0 (754)
기능상태								
제한 있음	26.8	1.1	6.3	28.0	8.0	10.1	19.8	100.0 (733)
제한 없음	14.6	2.2	8.3	32.9	8.8	9.0	24.2	100.0 (3,280)
2020년도	10.9	2.6	9.1	41.2	3.7	8.4	24.1	100.0 (6,034)

주: 1) 전체응답자 중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4,013명을 대상으로 함.

5.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 활동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 활동은 취미활동, 여행 및 관광 활동, 자원봉사 활동, 교육 및 학습 활동, 종교활동, 친목 활동, 동호회 활동, 정치사회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취미활동을 향후 희망하는 비율은 그렇다 33.1%, 보통이다 28.6%, 그렇지 않다 21.4%, 전혀 그렇지 않다 11.4%, 매우 그렇다 5.5%로 취미활동을 하고 싶은 비율은 38.6%(매우 그렇다 5.5%, 그렇다 33.1%)이다.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 남자 노인, 연령이 적은 집단, 유배우 노인, 부부가구,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취업 노인,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일수록 상대적으로 취미활동 희망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여행 및 관광활동을 향후 희망하는 비율은 그렇다 36.7%, 보통이다 29.3%, 그렇지 않다 15.3%, 전혀 그렇지 않다 10.8%, 매우 그렇다 7.9%의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여행 및 관광활동을 하고 싶은 비율은 44.6%(매우 그렇다 7.9%, 그렇다 36.7%)이다.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 남자 노인, 연령이 적은 집단, 유배우 노인, 부부가구,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취업 노인,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일수록 상대적으로 여행 및 관광활동 희망 비율이 높았다.

자원봉사활동을 향후 희망하는 비율은 그렇지 않다 35.2%, 전혀 그렇지 않다 26.9%, 보통이다 25.3%, 그렇다 10.7%, 매우 그렇다 1.9%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비율은 12.6%(매우 그렇다 1.9%, 그렇다 10.7%)이다.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 여자 노인, 80세 미만 집단, 유배우 노인, 부부가구,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취업 노인,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일수록 상대적으로 자원봉사활동 희망 비율이 높았다.

교육 및 학습활동을 향후 희망하는 비율은 그렇지 않다 33.8%, 전혀 그렇지 않다 31.7%, 보통이다 23.9%, 그렇다 9.0%, 매우 그렇다 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및 학습활동을 하고 싶은 비율은 10.6%(매우 그렇다 1.6%, 그렇다 9.0%)이다.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 남자 노인, 연령이 적은 집단(단, 90세 이상 제외), 유배우 노인, 부부가구,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취업 노인,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일수록 상대적으로 교육 및 학습활동 희망 비율이 높았다.

〈표 9-19〉 취미활동 참여 의향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5.5	33.1	28.6	21.4	11.4	100.0 (9,955)
지역						
동부	5.9	35.6	27.9	21.3	9.3	100.0 (7,359)
읍·면부	4.2	26.2	30.6	21.7	17.3	100.0 (2,596)
성						
남자	5.5	34.9	29.6	20.2	9.9	100.0 (4,384)
여자	5.5	31.8	27.8	22.4	12.6	100.0 (5,571)
연령						
65~69세	7.4	41.8	27.7	15.6	7.4	100.0 (3,465)
70~74세	6.0	34.5	29.6	20.3	9.7	100.0 (2,362)
75~79세	4.7	30.5	31.3	22.4	11.1	100.0 (1,729)
80~84세	3.3	25.2	28.4	29.2	14.0	100.0 (1,379)
85~89세	1.6	16.5	26.7	30.2	25.0	100.0 (781)
90세 이상	3.2	13.0	19.5	35.3	29.1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2	37.1	28.9	18.9	9.0	100.0 (5,987)
배우자 없음	4.5	27.2	28.2	25.1	15.0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4.9	27.1	27.9	25.3	14.9	100.0 (3,281)
노인부부	6.2	37.0	29.0	19.0	8.9	100.0 (5,509)
자녀동거	3.9	31.7	29.5	20.7	14.1	100.0 (993)
기타	4.9	34.0	23.0	26.4	11.8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1.6	13.7	24.0	32.3	28.4	100.0 (1,184)
초등학교	4.0	27.6	29.4	24.9	14.1	100.0 (2,810)
중학교	4.6	34.1	29.6	22.2	9.5	100.0 (2,127)
고등학교	7.0	42.2	30.2	15.5	5.2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14.1	45.0	22.7	12.7	5.5	100.0 (701)
현취업상태						
취업중	5.9	38.5	29.0	18.0	8.6	100.0 (3,926)
미취업	5.2	29.7	28.3	23.6	13.2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3	23.8	28.2	28.8	15.9	100.0 (1,989)
제2오분위	3.7	25.8	27.7	26.1	16.7	100.0 (1,983)
제3오분위	5.2	33.6	29.5	21.2	10.4	100.0 (1,981)
제4오분위	7.0	38.7	28.3	17.8	8.2	100.0 (2,007)
제5오분위	8.2	43.6	29.1	13.1	5.9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1	24.6	29.6	26.7	16.0	100.0 (3,722)
50%이상~100%미만	5.1	33.9	28.0	21.8	11.3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8.0	40.1	27.2	17.1	7.6	100.0 (1,657)
150%이상	8.8	43.1	28.5	13.8	5.8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2.8	22.0	25.9	29.3	20.0	100.0 (1,759)
제한 없음	6.1	35.5	29.1	19.7	9.6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20〉 여행 및 관광 활동 참여 의향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7.9	36.7	29.3	15.3	10.8	100.0 (9,955)
지역						
동부	8.8	37.7	29.0	15.0	9.5	100.0 (7,359)
읍·면부	5.4	33.9	30.1	16.2	14.5	100.0 (2,596)
성						
남자	8.0	39.2	30.1	13.7	9.0	100.0 (4,384)
여자	7.8	34.8	28.6	16.5	12.3	100.0 (5,571)
연령						
65~69세	10.8	45.9	26.7	10.1	6.5	100.0 (3,465)
70~74세	8.0	40.7	29.3	13.4	8.7	100.0 (2,362)
75~79세	6.6	34.4	32.1	16.3	10.7	100.0 (1,729)
80~84세	4.7	25.7	33.3	20.6	15.7	100.0 (1,379)
85~89세	3.5	17.4	28.2	28.1	22.9	100.0 (781)
90세 이상	6.6	8.2	26.9	30.5	27.9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4	40.5	28.6	13.0	8.5	100.0 (5,987)
배우자 없음	5.6	31.1	30.3	18.8	14.3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5.7	31.2	29.6	19.3	14.2	100.0 (3,281)
노인부부	9.3	40.1	29.0	12.9	8.7	100.0 (5,509)
자녀동거	7.3	35.7	29.8	15.7	11.5	100.0 (993)
기타	5.9	40.6	29.5	12.4	11.6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2.3	15.9	29.6	25.8	26.4	100.0 (1,184)
초등학교	5.2	32.9	30.6	17.4	13.9	100.0 (2,810)
중학교	6.7	38.5	31.6	14.3	8.8	100.0 (2,127)
고등학교	11.3	45.2	27.3	11.3	4.9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16.2	43.9	25.4	9.7	4.8	100.0 (701)
현취업상태						
취업중	9.0	43.5	28.8	11.5	7.2	100.0 (3,926)
미취업	7.2	32.3	29.6	17.8	13.2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1	24.8	32.7	21.9	16.5	100.0 (1,989)
제2오분위	5.2	30.3	30.1	18.7	15.8	100.0 (1,983)
제3오분위	7.2	39.2	27.3	15.4	10.8	100.0 (1,981)
제4오분위	10.8	43.1	28.8	10.7	6.5	100.0 (2,007)
제5오분위	12.0	46.1	27.4	9.8	4.7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5	28.0	32.2	19.7	15.5	100.0 (3,722)
50%이상~100%미만	7.7	38.4	26.6	16.0	11.3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10.8	42.5	29.3	10.3	7.1	100.0 (1,657)
150%이상	12.3	46.8	27.4	9.6	3.8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4.6	23.4	30.2	24.1	17.6	100.0 (1,759)
제한 없음	8.6	39.6	29.1	13.4	9.4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21〉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1.9	10.7	25.3	35.2	26.9	100.0 (9,955)
지역						
동부	2.2	11.5	25.4	36.3	24.6	100.0 (7,359)
읍·면부	1.1	8.4	25.1	32.2	33.2	100.0 (2,596)
성						
남자	2.1	10.3	26.5	36.2	24.9	100.0 (4,384)
여자	1.8	11.0	24.3	34.5	28.4	100.0 (5,571)
연령						
65~69세	2.0	13.4	30.9	33.4	20.3	100.0 (3,465)
70~74세	2.5	11.2	27.1	35.6	23.6	100.0 (2,362)
75~79세	1.7	10.0	25.5	36.0	26.8	100.0 (1,729)
80~84세	1.3	6.8	17.8	37.9	36.2	100.0 (1,379)
85~89세	0.5	7.7	11.2	36.0	44.7	100.0 (781)
90세 이상	4.9	3.9	14.0	34.0	43.1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	12.1	27.2	35.0	23.5	100.0 (5,987)
배우자 없음	1.5	8.5	22.5	35.6	31.8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1.8	8.4	22.4	35.7	31.8	100.0 (3,281)
노인부부	2.1	11.9	27.5	34.9	23.5	100.0 (5,509)
자녀동거	1.8	11.0	23.3	34.7	29.2	100.0 (993)
기타	0.7	12.6	21.3	38.7	26.6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0.8	4.1	11.8	33.2	50.1	100.0 (1,184)
초등학교	1.9	8.6	23.0	35.6	30.9	100.0 (2,810)
중학교	1.8	10.1	24.5	39.4	24.2	100.0 (2,127)
고등학교	2.2	14.4	32.2	33.3	17.9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3.3	15.4	28.9	33.1	19.3	100.0 (701)
현취업상태						
취업중	2.4	11.9	29.1	34.3	22.3	100.0 (3,926)
미취업	1.6	9.9	22.8	35.8	29.8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6	8.5	22.6	36.0	31.2	100.0 (1,989)
제2오분위	1.1	7.8	21.2	35.0	35.0	100.0 (1,983)
제3오분위	2.0	9.7	25.1	35.9	27.3	100.0 (1,981)
제4오분위	2.4	12.7	26.1	35.7	23.1	100.0 (2,007)
제5오분위	2.6	14.7	31.4	33.6	17.7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	8.1	22.8	35.7	32.1	100.0 (3,722)
50%이상~100%미만	1.9	10.3	23.3	35.8	28.7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2.7	12.8	26.9	35.1	22.6	100.0 (1,657)
150%이상	2.9	14.6	31.9	33.5	17.1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1.8	6.3	17.3	38.0	36.6	100.0 (1,759)
제한 없음	2.0	11.6	27.0	34.6	24.8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22〉 교육 및 학습활동 참여 의향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1.6	9.0	23.9	33.8	31.7	100.0 (9,955)
지역						
동부	1.9	9.8	23.8	34.9	29.7	100.0 (7,359)
읍·면부	0.9	6.9	24.1	30.6	37.6	100.0 (2,596)
성						
남자	1.5	9.3	25.2	34.2	29.8	100.0 (4,384)
여자	1.8	8.8	22.8	33.4	33.2	100.0 (5,571)
연령						
65~69세	1.9	11.8	28.3	32.5	25.5	100.0 (3,465)
70~74세	2.0	9.7	24.8	34.5	29.0	100.0 (2,362)
75~79세	1.2	7.6	23.1	35.3	32.7	100.0 (1,729)
80~84세	1.3	5.4	18.9	33.2	41.3	100.0 (1,379)
85~89세	0.3	4.5	16.3	34.2	44.7	100.0 (781)
90세 이상	4.4	8.1	8.6	35.4	43.5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	10.2	25.3	34.1	28.9	100.0 (5,987)
배우자 없음	1.7	7.3	21.7	33.3	36.0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1.9	7.6	21.9	32.7	35.9	100.0 (3,281)
노인부부	1.5	10.1	25.1	34.3	28.9	100.0 (5,509)
자녀동거	1.5	8.2	23.7	34.6	32.0	100.0 (993)
기타	0.8	6.3	22.6	30.0	40.3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0.7	4.6	12.7	29.4	52.5	100.0 (1,184)
초등학교	1.1	7.3	21.0	34.6	35.9	100.0 (2,810)
중학교	1.4	8.0	23.2	36.0	31.4	100.0 (2,127)
고등학교	2.5	11.8	29.3	34.0	22.4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2.5	13.7	31.6	29.6	22.7	100.0 (701)
현취업상태						
취업중	2.0	10.9	27.0	32.2	28.0	100.0 (3,926)
미취업	1.4	7.8	21.8	34.8	34.1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	7.8	21.7	33.9	35.0	100.0 (1,989)
제2오분위	1.1	5.9	20.6	33.6	38.8	100.0 (1,983)
제3오분위	1.1	8.8	22.1	34.0	34.0	100.0 (1,981)
제4오분위	2.5	10.0	24.4	34.8	28.3	100.0 (2,007)
제5오분위	1.9	12.6	30.5	32.5	22.5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	6.7	22.2	34.0	35.9	100.0 (3,722)
50%이상~100%미만	1.6	9.2	20.2	33.9	35.1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2.0	10.8	25.2	34.8	27.2	100.0 (1,657)
150%이상	2.3	11.9	31.7	31.9	22.2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0.9	6.2	16.8	36.1	40.0	100.0 (1,759)
제한 없음	1.8	9.6	25.4	33.3	29.9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종교활동을 향후 희망하는 비율은 그렇지 않다 28.2%, 전혀 그렇지 않다 23.0%, 보통이다 20.2%, 그렇다 19.4%, 매우 그렇다 9.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교활동을 하고 싶은 비율은 28.6%(매우 그렇다 9.2%, 그렇다 19.4%)이다.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 여자 노인, 무배우 노인, 자녀동거가구,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취업 노인,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일수록 상대적으로 종교활동 희망 비율이 높았다. 다만, 연령군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배우자 유무와 취업수준에 따른 차이는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친목활동을 향후 희망하는 비율은 그렇다 37.6%, 보통이다 25.6%, 그렇지 않다 17.5%, 전혀 그렇지 않다 10.6%, 매우 그렇다 8.6%로 친목활동을 하고 싶은 비율은 46.2%(매우 그렇다 8.6%, 그렇다 37.6%)이다.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 남자 노인, 연령이 적은 집단, 유배우 노인, 부부가구,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취업 노인,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일수록 상대적으로 친목활동 희망 비율이 높았다.

동호회 활동을 향후 희망하는 비율은 그렇지 않다 33.8%, 전혀 그렇지 않다 32.7%, 보통이다 21.3%, 그렇다 10.5%, 매우 그렇다 1.8%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싶은 비율은 12.3%(매우 그렇다 1.8%, 그렇다 10.5%)이다.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 남자 노인, 연령이 적은 집단(다만, 90세 이상 제외), 유배우 노인, 부부가구,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취업 노인, 소득이 높은 집단,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일수록 상대적으로 동호회 활동 희망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정치사회활동을 향후 희망하는 비율은 전혀 그렇지 않다 46.7%, 그렇지 않다 34.4%, 보통이다 14.2%, 그렇다 4.1%, 매우 그렇다 0.6%로 정치사회활동을 하고 싶은 비율은 4.7%(매우 그렇다 0.6%, 그렇다 4.1%)이다. 세부 특성별로는 동부 노인, 남자 노인, 연령이 적은 집단(다만, 90세 이상 제외), 유배우 노인, 부부가구,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다만, 초등학교 졸업 제외), 취업 노인,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일수록 상대적으로 정치사회활동 희망 비율이 높았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9-23〉 종교활동 참여 의향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9.2	19.4	20.2	28.2	23.0	100.0 (9,955)
지역						
동부	9.9	19.7	20.6	28.7	21.1	100.0 (7,359)
읍·면부	7.1	18.5	19.1	27.0	28.4	100.0 (2,596)
성						
남자	6.6	15.7	19.3	32.8	25.6	100.0 (4,384)
여자	11.2	22.3	20.9	24.6	20.9	100.0 (5,571)
연령						
65~69세	9.3	21.8	20.5	29.0	19.4	100.0 (3,465)
70~74세	9.2	20.1	21.1	27.6	22.0	100.0 (2,362)
75~79세	10.9	17.8	19.9	29.4	22.0	100.0 (1,729)
80~84세	8.2	16.5	19.7	27.0	28.6	100.0 (1,379)
85~89세	6.1	16.5	18.8	27.9	30.7	100.0 (781)
90세 이상	11.2	15.5	16.3	23.4	33.6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0	19.3	20.6	29.2	21.9	100.0 (5,987)
배우자 없음	9.5	19.6	19.6	26.8	24.6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9.5	19.0	19.7	26.7	25.0	100.0 (3,281)
노인부부	9.0	19.2	20.6	29.1	22.1	100.0 (5,509)
자녀동거	9.4	22.6	19.6	28.2	20.3	100.0 (993)
기타	6.8	13.0	19.7	30.2	30.2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7.2	13.6	17.5	22.7	39.0	100.0 (1,184)
초등학교	7.7	18.0	20.6	29.4	24.3	100.0 (2,810)
중학교	8.3	20.5	20.2	30.2	20.8	100.0 (2,127)
고등학교	10.5	21.8	20.7	28.7	18.4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15.4	20.6	20.7	25.4	18.0	100.0 (701)
현취업상태						
취업중	8.4	20.9	20.5	28.9	21.3	100.0 (3,926)
미취업	9.7	18.4	20.0	27.8	24.1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1	17.5	22.9	26.5	26.0	100.0 (1,989)
제2오분위	8.4	17.8	19.0	27.9	26.9	100.0 (1,983)
제3오분위	9.1	19.2	19.3	28.2	24.2	100.0 (1,981)
제4오분위	10.6	19.9	19.5	29.0	21.1	100.0 (2,007)
제5오분위	10.6	22.6	20.3	29.7	16.9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3	17.9	20.9	28.0	25.8	100.0 (3,722)
50%이상~100%미만	9.2	18.5	19.8	27.3	25.2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11.4	20.9	19.1	29.2	19.4	100.0 (1,657)
150%이상	10.9	22.5	20.2	29.3	17.1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6.9	17.4	18.6	30.1	27.0	100.0 (1,759)
제한 없음	9.7	19.8	20.5	27.8	22.1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24〉 친목활동 참여 의향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8.6	37.6	25.6	17.5	10.6	100.0 (9,955)
지역						
동부	9.8	38.1	25.4	17.8	8.9	100.0 (7,359)
읍·면부	5.2	36.2	26.3	16.8	15.5	100.0 (2,596)
성						
남자	10.1	40.7	25.2	15.4	8.6	100.0 (4,384)
여자	7.5	35.2	26.0	19.2	12.2	100.0 (5,571)
연령						
65~69세	11.5	47.9	23.7	11.2	5.7	100.0 (3,465)
70~74세	10.3	39.2	25.1	16.1	9.2	100.0 (2,362)
75~79세	7.2	33.5	29.3	19.0	10.9	100.0 (1,729)
80~84세	5.0	28.0	26.9	24.9	15.1	100.0 (1,379)
85~89세	1.9	20.3	26.7	28.8	22.4	100.0 (781)
90세 이상	2.7	12.7	22.8	32.3	29.4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8	41.8	25.4	15.0	8.1	100.0 (5,987)
배우자 없음	6.9	31.3	26.0	21.3	14.5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7.2	31.2	26.4	20.9	14.2	100.0 (3,281)
노인부부	9.6	41.8	25.7	14.9	8.0	100.0 (5,509)
자녀동거	7.9	34.5	23.8	21.0	12.8	100.0 (993)
기타	7.7	44.6	20.5	14.4	12.9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3.1	16.2	26.7	27.7	26.2	100.0 (1,184)
초등학교	5.6	33.0	27.3	20.6	13.5	100.0 (2,810)
중학교	9.2	38.4	26.9	17.1	8.4	100.0 (2,127)
고등학교	11.2	47.7	23.8	12.8	4.5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16.5	44.9	21.4	10.2	7.0	100.0 (701)
현취업상태						
취업중	10.7	44.9	25.0	12.8	6.6	100.0 (3,926)
미취업	7.3	32.9	26.0	20.6	13.2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3	25.9	28.8	24.8	16.2	100.0 (1,989)
제2오분위	5.7	30.2	28.2	20.2	15.7	100.0 (1,983)
제3오분위	8.2	39.4	25.8	15.9	10.7	100.0 (1,981)
제4오분위	11.7	44.9	22.7	14.6	6.1	100.0 (2,007)
제5오분위	13.3	47.5	22.7	12.0	4.5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7	28.5	29.0	22.5	15.3	100.0 (3,722)
50%이상~100%미만	8.4	39.3	24.6	16.0	11.8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12.2	42.8	23.3	15.7	6.1	100.0 (1,657)
150%이상	13.9	48.9	22.4	11.2	3.5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3.9	22.6	28.1	26.0	19.4	100.0 (1,759)
제한 없음	9.6	40.8	25.1	15.7	8.8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25〉 동호회 활동 참여 의향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1.8	10.5	21.3	33.8	32.7	100.0 (9,955)
지역						
동부	2.1	11.5	21.4	35.1	30.0	100.0 (7,359)
읍·면부	1.0	8.0	20.7	30.1	40.2	100.0 (2,596)
성						
남자	2.5	13.5	22.5	33.1	28.4	100.0 (4,384)
여자	1.3	8.2	20.2	34.3	36.0	100.0 (5,571)
연령						
65~69세	2.6	14.9	24.5	34.0	24.0	100.0 (3,465)
70~74세	1.8	11.2	21.6	35.8	29.6	100.0 (2,362)
75~79세	0.9	8.9	21.2	33.2	35.7	100.0 (1,729)
80~84세	1.2	5.4	17.7	32.2	43.5	100.0 (1,379)
85~89세	0.7	4.1	14.0	34.0	47.2	100.0 (781)
90세 이상	3.2	3.5	15.3	22.8	55.1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8	12.5	23.1	33.4	29.3	100.0 (5,987)
배우자 없음	1.8	7.6	18.5	34.3	37.7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2.1	7.7	18.7	34.2	37.4	100.0 (3,281)
노인부부	1.7	12.3	23.0	33.3	29.6	100.0 (5,509)
자녀동거	1.1	10.2	20.9	34.1	33.7	100.0 (993)
기타	1.6	10.1	16.5	38.4	33.4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0.6	3.1	11.4	27.9	57.0	100.0 (1,184)
초등학교	1.3	7.2	19.6	33.7	38.1	100.0 (2,810)
중학교	1.6	10.3	20.9	36.4	30.9	100.0 (2,127)
고등학교	2.1	14.9	25.7	35.0	22.4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4.8	17.8	26.0	30.4	20.9	100.0 (701)
현취업상태						
취업중	2.2	12.9	22.7	34.5	27.7	100.0 (3,926)
미취업	1.5	9.0	20.3	33.3	35.9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	7.6	21.2	33.6	36.3	100.0 (1,989)
제2오분위	1.1	6.7	18.8	31.1	42.3	100.0 (1,983)
제3오분위	1.1	9.5	20.6	33.8	35.1	100.0 (1,981)
제4오분위	2.6	14.2	19.6	35.2	28.4	100.0 (2,007)
제5오분위	2.8	14.6	26.1	35.2	21.3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1	7.2	21.2	32.4	38.0	100.0 (3,722)
50%이상~100%미만	1.7	10.4	17.9	33.2	36.7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1.7	13.5	21.7	35.4	27.6	100.0 (1,657)
150%이상	3.3	14.8	26.1	35.8	20.1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1.4	6.6	15.0	34.7	42.3	100.0 (1,759)
제한 없음	1.9	11.4	22.6	33.6	30.6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26〉 정치사회활동 참여 의향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0.6	4.1	14.2	34.4	46.7	100.0 (9,955)
지역						
동부	0.7	4.6	13.8	36.1	44.7	100.0 (7,359)
읍·면부	0.3	2.8	15.3	29.4	52.3	100.0 (2,596)
성						
남자	0.8	4.9	15.3	36.6	42.4	100.0 (4,384)
여자	0.5	3.5	13.4	32.6	50.0	100.0 (5,571)
연령						
65~69세	0.6	4.5	16.4	37.7	40.8	100.0 (3,465)
70~74세	0.5	4.8	15.1	34.5	45.1	100.0 (2,362)
75~79세	0.4	4.4	13.3	33.1	48.8	100.0 (1,729)
80~84세	0.4	2.7	12.1	31.2	53.6	100.0 (1,379)
85~89세	0.7	2.5	8.4	30.4	58.0	100.0 (781)
90세 이상	4.3	3.4	11.9	25.4	55.0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4	4.6	15.8	35.6	43.5	100.0 (5,987)
배우자 없음	0.9	3.3	11.9	32.5	51.4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1.1	3.5	11.9	31.8	51.6	100.0 (3,281)
노인부부	0.5	4.5	15.7	35.7	43.6	100.0 (5,509)
자녀동거	0.0	3.9	13.6	36.3	46.2	100.0 (993)
기타	0.0	3.1	13.0	31.8	52.1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0.5	1.1	8.3	24.3	65.9	100.0 (1,184)
초등학교	0.9	4.2	12.7	32.0	50.3	100.0 (2,810)
중학교	0.5	4.1	14.3	35.6	45.6	100.0 (2,127)
고등학교	0.7	4.8	17.8	38.3	38.5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0.2	6.0	14.1	40.2	39.6	100.0 (701)
현취업상태						
취업중	0.7	4.6	16.5	35.5	42.6	100.0 (3,926)
미취업	0.6	3.8	12.7	33.6	49.3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5	4.6	14.8	32.1	48.1	100.0 (1,989)
제2오분위	0.5	2.1	12.2	30.5	54.6	100.0 (1,983)
제3오분위	0.8	4.1	11.6	35.1	48.4	100.0 (1,981)
제4오분위	1.2	4.8	14.9	34.4	44.6	100.0 (2,007)
제5오분위	0.2	5.0	17.5	39.8	37.6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0.4	3.6	13.8	31.8	50.3	100.0 (3,722)
50%이상~100%미만	0.8	3.3	12.4	33.5	50.0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1.0	6.0	14.4	36.0	42.6	100.0 (1,657)
150%이상	0.4	4.7	17.7	39.5	37.7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0.9	2.5	9.0	33.1	54.4	100.0 (1,759)
제한 없음	0.5	4.5	15.3	34.7	45.0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3절 여가문화시설 이용

1. 경로당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 중 가장 접근성이 높은 시설로 노인들에게 중요한 여가문화 시설 중 하나이다. 경로당 이용 현황 및 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노인의 26.5%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경로당 이용자는 주당 평균 2.9회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전체 노인 중 33.7%의 노인이 향후(계속)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앞으로 더 많은 수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노인들은 친목도모를 위한 경로당 이용 비율이 6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식사서비스 이용이 19.2%로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 18.7%, 읍·면부 노인 48.6%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읍·면부 노인이 동부 노인보다 약 2.5배 이상 경로당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에서도 유사하다. 동부 노인은 26.3%, 읍·면부 노인은 54.7%가 향후(계속) 이용 희망 의사를 가지고 있어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동부 노인 3.0회, 읍·면부 노인 2.8회로 동부 노인이 더 자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로당 이용 이유는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동부 노인은 친목도모의 비율이 63.5%로 읍·면부 노인 69.1%에 비해 낮지만, 식사서비스 이용은 동부 노인 21.6%, 읍·면부 노인 16.5%로 동부 노인이 더 높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의 현재 이용률이 32.6%로 남자 노인 18.6%에 비해 높았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 의사도 여자 노인은 39.4%, 남자 노인은 26.4%로 여자 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주당 평균 이용 횟수도 여자 노인은 3.1회, 남자 노인은 2.4회로 여자 노인이 더 높았다. 경로당 이용 이유는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남자 노인은 친목도모의 비율이 69.9%로 여자 노인 64.5%보다 높은 반면, 식사서비스 이용은 남자 노인 15.4%, 여자 노인 20.9%로 여자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재 이용률과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현재 이용률은 90세 이상의 경우 85~89세 집단에 비해 적고, 향후 이용희망률은 80~84세까지 증가하다가, 85세 이상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65~69세 연령군의 경로당 이용률과 향후 이용 희망률 모두 타 연령군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당 평균 이용 횟수도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90세 이상은 85~89세에 비해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이용 이유는 연령군별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식사서비스 이용을 위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연령이 낮은 집단은 각종 프로그램 이용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비율이 높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무배우 노인의 현재 이용률은 34.9%로 유배우 노인 20.9%보다 높으며, 향후(계속)이용 희망률 역시 무배우 노인이 41.5%로 유배우 노인 28.5%에 비해 높았다. 또한, 주당 평균 이용 횟수 역시 무배우 노인은 3.2회, 유배우 노인은 2.5회로 무배우 노인이 경로당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 노인은 식사서비스 이용을 위한 경로당 이용 비율이 24.0%로 유배우 노인 13.8%에 비해 높았으며, 유배우 노인은 친목도모를 위한 경로당 이용 비율이 69.3%로 무배우 노인 63.3%에 비해 높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독거가구의 현재 이용률(34.0%),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41.7%)이 높았으며, 식사서비스를 위한 경로당 이용 비율이 25.1%로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았다. 다만,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부부가구가 2.5회로 가장 적었으며, 그 외 집단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 가구형태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경로당 이용률과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주당 평균 이용횟수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경로당 이용의 비율이 높았으며,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경로당 이용이 10.1%로 타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의 현재 이용률(28.0%),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34.1%), 주당 평균 이용 횟수(3.0회) 모두 취업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 노인은 친목도모를 위한 경로당 이용이 71.5%로 미취업 노인 63.2%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식사서비스 이용은 미취업 노인이 21.5%로 취업 노인 15.1%에 비해 높았다. 또한, 일자리 소득지원을 위한 경로당 이용도 취업 노인은 2.4%인 반면 미취업 노인은 0.2%로 취업 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로당 이용률과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연가구소득 제1

오분위는 제2오분위에 비해 경로당 이용률과 향후 이용 희망률 모두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가장 저소득 집단인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와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가구의 값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집단에서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경로당 이용 이유는 가구소득에 따라 일관된 경향성은 보이지 않으나, 가장 저소득 집단인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와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가구의 식사서비스 이용을 위한 경로당 이용의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제5오분위와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 가구는 타 집단에 비해 각종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경로당 이용의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의 이용률이 38.0%, 이용 희망률이 44.8%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높은 특성을 보인다. 다만, 주당 평균 이용 일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친목도모를 위한 경로당 이용의 비율이 67.3%로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해 높았으며, 식사서비스 이용은 반대로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의 비율이 25.2%로 높았다.

〈표 9-27〉 경로당 이용 현황

(단위: %, 회, 명)

특성	이용 현황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³⁾
	현재 이용률 ¹⁾	주당 평균 이용횟수 ²⁾	(명)	
전체	26.5	2.9	(2,667)	33.7
지역				
동부	18.7	3.0	(1,390)	26.3
읍·면부	48.6	2.8	(1,277)	54.7
성				
남자	18.6	2.4	(825)	26.4
여자	32.6	3.1	(1,842)	39.4
연령				
65~69세	10.1	2.3	(352)	19.4
70~74세	21.7	2.5	(515)	31.9
75~79세	33.8	3.0	(590)	40.3
80~84세	46.3	3.1	(652)	52.2
85~89세	52.9	3.3	(437)	51.8
90세 이상	48.0	3.2	(122)	43.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0.9	2.5	(1,262)	28.5
배우자 없음	34.9	3.2	(1,405)	41.5
가구형태				
노인독거	34.0	3.2	(1,123)	41.7
노인부부	21.7	2.5	(1,207)	29.5
자녀동거	28.6	3.2	(296)	31.7
기타	23.0	3.2	(40)	26.6
교육수준				
무학	56.3	3.2	(699)	59.1
초등학교	42.1	3.0	(1,197)	47.4
중학교	21.1	2.6	(451)	30.4
고등학교	8.9	2.1	(281)	18.6
전문대학 이상	5.5	2.4	(39)	12.7
현취업상태				
취업중	24.1	2.8	(948)	32.9
미취업	28.0	3.0	(1,719)	34.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4.6	3.3	(697)	39.4
제2오분위	36.5	3.0	(735)	42.4
제3오분위	29.1	2.5	(585)	37.2
제4오분위	19.6	2.6	(396)	27.6
제5오분위	12.6	2.6	(253)	21.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4.6	3.1	(1,306)	40.0
50%이상~100%미만	29.2	2.7	(817)	36.8
100%이상~150%미만	19.5	2.7	(327)	28.0
150%이상	11.8	2.7	(216)	21.2
기능상태				
제한 있음	38.0	3.0	(712)	44.8
제한 없음	23.8	2.9	(1,955)	31.3
2020년도	28.1	3.2	(2,841)	45.8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2,667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표 9-28〉 경로당 이용 이유

(단위: %, 명)

특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취미여가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식사 서비스	상담 및 정서지원	일자리 소득지원	자원봉사 활동참여	친목 도모	계 (명)
전체 ^{1) 2)}	4.3	3.4	4.6	19.2	0.4	1.0	0.9	66.2	100.0 (2,667)
지역									
동부	4.3	3.9	4.4	21.6	0.4	0.8	1.0	63.5	100.0 (1,390)
읍·면부	4.2	2.9	4.9	16.5	0.4	1.1	0.9	69.1	100.0 (1,277)
성									
남자	2.7	3.6	6.0	15.4	0.8	0.5	1.0	69.9	100.0 (825)
여자	4.9	3.3	4.0	20.9	0.2	1.2	0.9	64.5	100.0 (1,842)
연령									
65~69세	5.5	4.4	5.3	10.6	0.5	0.5	2.4	70.9	100.0 (352)
70~74세	5.5	2.3	7.5	15.5	0.7	0.9	1.2	66.3	100.0 (515)
75~79세	3.1	3.4	6.5	21.5	0.5	1.1	1.1	62.8	100.0 (590)
80~84세	5.2	2.8	3.5	20.1	0.0	1.3	0.1	67.0	100.0 (652)
85~89세	3.1	5.7	0.4	21.5	0.7	0.9	0.5	67.1	100.0 (437)
90세 이상	0.1	0.7	2.8	35.8	0.0	0.0	0.0	60.6	100.0 (12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5	3.2	6.3	13.8	0.6	0.8	1.5	69.3	100.0 (1,262)
배우자 없음	4.0	3.7	3.1	24.0	0.3	1.1	0.4	63.3	100.0 (1,405)
가구형태									
노인독거	3.9	3.5	3.3	25.1	0.2	0.9	0.5	62.7	100.0 (1,123)
노인부부	4.3	3.2	6.2	13.9	0.5	0.8	1.4	69.7	100.0 (1,207)
자녀동거	4.9	3.0	4.0	18.4	0.7	1.8	0.5	66.7	100.0 (296)
기타	9.3	9.8	0.0	18.7	2.9	2.7	1.8	54.9	100.0 (40)
교육수준									
무학	3.4	2.2	1.9	26.0	0.2	0.5	0.2	65.6	100.0 (699)
초등학교	3.0	3.2	5.6	19.2	0.3	1.5	0.5	66.7	100.0 (1,197)
중학교	6.5	3.2	5.1	13.2	1.1	0.6	1.2	69.2	100.0 (451)
고등학교	7.9	6.5	6.6	12.2	0.2	0.5	2.8	63.2	100.0 (281)
전문대학 이상	5.9	15.1	4.7	17.4	0.0	0.0	10.1	46.7	100.0 (39)
현직업상태									
취업중	3.1	3.3	3.3	15.1	0.3	2.4	1.1	71.5	100.0 (948)
미취업	4.9	3.5	5.4	21.5	0.5	0.2	0.8	63.2	100.0 (1,71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2	3.4	4.0	24.7	0.5	0.9	0.3	63.9	100.0 (697)
제2오분위	3.4	3.8	7.0	18.6	0.5	1.4	1.0	64.3	100.0 (735)
제3오분위	4.6	2.6	2.0	18.8	0.2	0.5	0.8	70.7	100.0 (585)
제4오분위	8.2	3.0	4.4	14.3	0.5	0.7	2.4	66.4	100.0 (396)
제5오분위	5.6	4.9	6.0	14.5	0.4	1.3	0.3	67.0	100.0 (25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2	3.5	5.7	21.9	0.6	1.2	0.6	63.3	100.0 (1,306)
50%이상~100%미만	4.6	3.7	3.0	16.2	0.3	0.5	1.2	70.5	100.0 (817)
100%이상~150%미만	4.9	2.3	3.6	15.9	0.4	0.7	1.9	70.2	100.0 (327)
150%이상	8.4	3.8	6.1	19.0	0.0	1.3	0.4	60.9	100.0 (216)
기능상태									
제한 있음	4.0	3.0	2.3	25.2	0.8	1.3	0.4	63.0	100.0 (712)
제한 없음	4.4	3.6	5.5	17.0	0.3	0.8	1.1	67.3	100.0 (1,955)
2020년도	0.2	19.0	11.0	62.5	2.3	1.6	1.3	82.9	- (2,841)

주: 1) 본인응답자 9,955명 중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2,667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응답 방식의 변경으로 2020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2020년 1, 2순위 다중응답, 2023년 단일응답).

2.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용 현황 및 주된 이용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체 노인의 9.6%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22.8%는 향후(계속)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더 많은 수의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1.5회로 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36.8%),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18.5%), 친목도모(16.4%),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15.0%), 식사서비스 이용(9.0%) 등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 9.4%, 읍·면부 노인 10.2%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어 읍·면부 노인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동부 노인이 23.3%로 읍·면부 노인 21.4%에 비해 높았다. 주당 평균 이용 빈도도 동부 노인 1.6회, 읍·면부 노인 1.3회로 동부 노인이 많았다.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에서도 지역별 차이를 보이지만 두 지역 모두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다음으로 동부 노인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19.5%),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16.7%), 친목도모(14.2%), 식사서비스 이용(10.5%)인 반면, 읍·면부 노인은 친목도모(22.1%),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16.0%),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의 현재 이용률이 11.0%로 남자 노인 7.9%에 비해 높았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 의사도 여자 노인은 23.5%, 남자 노인은 22.0%로 여자 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주당 평균 이용 횟수도 여자 노인 1.6회, 남자 노인 1.4회로 남자 노인이 더 높았다.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는 여자 노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이 39.3%로 남자 노인 32.4%에 비해 높은 반면, 친목도모는 남자 노인은 19.1%, 여자 노인은 14.9%로 남자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현재 이용률과 향후(계속)이용 희망률 모두 75~79세 연령군이 가장 높았으며, Ⅱ의 형태를 보였다. 주당 평균 이용 횟수도 Ⅱ의 형태를 보이나, 85~89세는 2.0회로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는 전반적으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은 연령군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며, 65~69세는 56.4%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무배우 노인의 현재 이용률은 11.8%로 유배우 노인 8.1%보다 높다.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도 무배우 노인이 23.1%로 유배우 노

인 22.6%에 비해 높았지만 차이가 크지 않다. 또한, 주당 평균 이용 횟수도 무배우 노인이 1.7회로 높았다. 또한, 유배우 노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41.8%)의 비율이 무배우 노인(31.7%)에 비해 높은 반면, 무배우 노인은 식사서비스 이용(13.0%)이 유배우 노인(5.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독거가구의 현재 이용률(12.5%),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24.2%), 1주간 평균 이용 횟수(1.7회)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독거가구와 기타 가구는 식사서비스 이용의 비율이 높은 반면, 부부가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자녀동거가구는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의 노인복지관 이용률과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전문대학 이상이 1.9회로 가장 많았다. 또한, 친목도모를 위한 노인복지관 이용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특성을 보이는 반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특성을 보이지만, 완전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의 현재 이용률(11.6%),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24.0%), 1주간 평균 이용 횟수(1.6회) 모두 취업 노인보다 높았다. 미취업 노인은 취업 노인에 비해 식사서비스 이용(10.6%),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16.2%),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19.2%)의 비율이 높은 반면, 취업 노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42.0%) 일자리 소득지원(5.2%)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연가구소득 오분위와 중위소득 대비 모두 이용률은 Ⅱ의 형태를 보였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노인복지관 이용 비율이 높았으며,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친목도모를 위한 노인복지관 이용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이용률 12.2%, 이용 희망률 27.5%, 주당 평균 이용 빈도 1.7일로 세 가지 모두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높았다.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친목도모(24.1%),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19.3%), 식사서비스 이용(18.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41.3%)과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20.5%)의 비율이 높았다.

〈표 9-29〉 노인복지관 이용 현황

(단위: %, 회, 명)

특성	이용 현황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³⁾
	현재 이용률 ¹⁾	주당 평균 이용 횟수 ²⁾	(명)	
전체	9.6	1.5	(968)	22.8
지역				
동부	9.4	1.6	(701)	23.3
읍·면부	10.2	1.3	(267)	21.4
성				
남자	7.9	1.4	(348)	22.0
여자	11.0	1.6	(620)	23.5
연령				
65~69세	5.6	1.1	(193)	19.0
70~74세	10.3	1.5	(244)	25.0
75~79세	13.9	1.7	(243)	26.7
80~84세	12.8	1.6	(180)	25.3
85~89세	10.5	2.0	(87)	22.7
90세 이상	8.5	1.2	(21)	14.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1	1.4	(492)	22.6
배우자 없음	11.8	1.7	(476)	23.1
가구형태				
노인독거	12.5	1.7	(413)	24.2
노인부부	8.4	1.4	(467)	23.1
자녀동거	7.6	1.7	(78)	18.1
기타	5.8	1.3	(10)	13.3
교육수준				
무학	9.4	1.5	(117)	18.4
초등학교	12.0	1.6	(342)	24.7
중학교	11.2	1.5	(241)	26.6
고등학교	6.9	1.4	(218)	21.1
전문대학 이상	7.2	1.9	(51)	18.6
현재취업상태				
취업중	6.5	1.2	(257)	20.9
미취업	11.6	1.6	(711)	24.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2	1.8	(206)	20.3
제2오분위	10.8	1.7	(218)	24.1
제3오분위	11.0	1.4	(222)	26.4
제4오분위	8.6	1.3	(174)	21.5
제5오분위	7.4	1.4	(149)	21.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0.0	1.7	(377)	22.7
50%이상~100%미만	10.6	1.5	(296)	24.0
100%이상~150%미만	9.0	1.5	(150)	22.3
150%이상	8.0	1.3	(145)	21.6
기능상태				
제한 있음	12.2	1.7	(229)	27.5
제한 없음	9.0	1.5	(739)	21.8
2020년도	9.5	2.0	(963)	37.8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968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표 9-30〉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

(단위: %, 명)

특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취미여가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식사 서비스	상담 및 정서지원	일자리 소득지원	자원봉사 활동참여	친목 도모	계 (명)
전체 ^{1) 2)}	36.8	18.5	15.0	9.0	1.1	1.8	1.3	16.4	100.0 (968)
지역									
동부	35.5	19.5	16.7	10.5	0.9	1.1	1.5	14.2	100.0 (701)
읍·면부	40.3	16.0	10.2	5.1	1.6	3.8	0.8	22.1	100.0 (267)
성									
남자	32.4	19.2	16.1	9.8	2.0	0.9	0.6	19.1	100.0 (348)
여자	39.3	18.2	14.3	8.6	0.6	2.3	1.7	14.9	100.0 (620)
연령									
65~69세	56.4	18.4	12.5	3.2	1.7	0.0	1.3	6.5	100.0 (193)
70~74세	39.9	20.5	11.6	7.4	0.9	2.3	1.6	15.8	100.0 (244)
75~79세	32.4	16.7	16.3	12.4	1.2	3.9	0.4	16.7	100.0 (243)
80~84세	27.4	21.4	14.7	6.9	0.3	1.2	0.4	27.6	100.0 (180)
85~89세	23.6	16.2	16.5	21.6	2.3	0.7	5.3	13.9	100.0 (87)
90세 이상	8.9	3.8	55.6	7.7	0.0	0.0	0.0	23.9	100.0 (2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1.8	18.3	14.5	5.2	1.2	1.8	0.6	16.7	100.0 (492)
배우자 없음	31.7	18.8	15.4	13.0	1.1	1.9	2.0	16.1	100.0 (476)
가구형태									
노인독거	31.5	17.4	16.3	13.4	1.0	2.1	2.0	16.5	100.0 (413)
노인부부	42.2	17.1	15.1	4.8	1.2	1.8	0.6	17.1	100.0 (467)
자녀동거	33.6	34.3	8.0	10.1	1.7	1.4	1.6	9.3	100.0 (78)
기타	30.4	11.1	7.0	18.3	0.0	0.0	0.0	33.2	100.0 (10)
교육수준									
무학	21.8	10.8	11.4	19.3	1.7	4.1	0.0	30.9	100.0 (117)
초등학교	30.0	18.1	17.7	9.3	1.8	2.1	2.0	19.0	100.0 (342)
중학교	38.7	21.1	13.3	10.1	0.5	1.7	0.6	14.0	100.0 (241)
고등학교	50.9	18.6	13.6	4.0	0.7	0.8	1.7	9.6	100.0 (218)
전문대학 이상	48.4	26.7	17.8	0.0	0.0	0.0	1.3	5.8	100.0 (51)
현취업상태									
취업중	42.0	16.7	11.5	4.5	1.0	5.2	1.5	17.6	100.0 (257)
미취업	34.9	19.2	16.2	10.6	1.2	0.6	1.2	16.0	100.0 (71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6.8	18.1	18.8	15.1	1.3	1.2	0.5	18.2	100.0 (206)
제2오분위	33.0	20.4	13.3	11.0	1.6	3.3	1.0	16.4	100.0 (218)
제3오분위	35.4	18.5	17.1	5.9	0.4	2.0	2.9	17.8	100.0 (222)
제4오분위	45.1	16.1	13.3	5.0	1.1	1.7	1.4	16.3	100.0 (174)
제5오분위	48.8	19.5	10.8	7.1	1.3	0.4	0.3	11.8	100.0 (14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9.2	19.0	16.2	12.4	1.7	1.5	0.4	19.7	100.0 (377)
50%이상~100%미만	36.8	19.4	14.3	6.5	1.0	3.8	1.8	16.3	100.0 (296)
100%이상~150%미만	39.7	21.1	14.3	7.6	0.0	0.7	3.8	12.9	100.0 (150)
150%이상	53.6	12.9	13.7	6.9	1.3	0.0	0.0	11.5	100.0 (145)
기능상태									
제한 있음	22.3	12.2	19.3	18.6	0.9	0.7	2.0	24.1	100.0 (229)
제한 없음	41.3	20.5	13.6	6.1	1.2	2.2	1.1	14.0	100.0 (739)
2020년도	3.7	35.1	23.4	45.9	7.0	9.1	1.9	45.7	- (963)

주: 1) 본인응답자 9,955명 중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968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2) 응답 방식의 변경으로 2020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2020년 1, 2순위 다중응답, 2023년 단일응답).

3.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의 3.5%가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1.2회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전체 노인 중 16.6%의 노인이 향후(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30.0%),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21.1%), 친목도모(16.4%),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10.3%), 식사서비스 이용(9.7%)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현재 이용률(동부 노인 3.7%, 읍·면부 노인 3.0%)과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동부 노인 17.7%, 읍·면부 노인 13.4%) 모두 동부 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주당 평균 이용 횟수 역시 동부 노인은 1.4회, 읍·면부 노인은 0.8회로 동부 노인이 많았다. 이용 이유에서도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데 읍·면부 노인은 친목도모(26.6%)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22.6%)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동부 노인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32.2%),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22.0%)의 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인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의 현재 이용률이 4.2%로 남자 노인 2.6%에 비해 높았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 의사도 여자 노인 17.9%, 남자 노인 14.8%로 여자 노인이 높았다. 그러나 1주일간 평균 이용 횟수는 여자 노인 1.2회, 남자 노인 1.3회로 남자 노인이 더 높았다. 남자 노인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27.3%), 식사서비스 이용(19.7%)을 위한 이용이 높은 반면, 여자 노인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35.7%)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연령군에 따른 현재 이용률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90세 이상을 제외하면,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특성을 보였다. 주당 평균 이용 횟수도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의 이용 이유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무배우 노인의 현재 이용률은 4.5%로 유배우 노인 2.8%보다 높다. 반면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무배우 노인이 16.1%로 유배우 노인 16.9%에 비해 낮다.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유배우 노인 1.2회, 무배우 노인 1.3회로 나타났다. 또한, 유배우 노인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33.6%), 자원봉사활동 참여

(5.1%), 친목도모(17.7%)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무배우 노인은 식사서비스 이용(13.7%), 일자리 소득지원(5.3%) 등에서 유배우 노인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기타 가구의 현재 이용률이 3.5%로 가장 높았으나,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독거가구가 17.2%로 가장 높았다. 주당 평균 이용 횟수도 독거가구가 1.3회로 가장 높았다. 이용 이유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독거가구는 타 가구형태에 비해 식사서비스 이용의 비율이 14.5%로 높았으며, 자녀동거가구는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이 60.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았으나, 전문대학 이상은 1.9%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향후(계속) 이용 의향은 $\cap$ 형태로 중학교 졸업의 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주당 평균 이용 횟수도 $\cap$ 형태를 보였다. 주된 이용 이유는 교육수준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초졸 이하의 저학력자는 친목도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문대학 이상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과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이 각각 23.7%와 29.8%로 높았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은 4.5%, 취업 노인은 2.0%로 미취업 노인의 이용률이 높고, 주당 평균 이용 횟수도 미취업 노인 1.3회, 취업 노인 1.1회로 미취업 노인이 높았으나,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주된 이용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미취업 노인은 취업 노인에 비해 친목도모(17.5%), 식사서비스 이용(10.4%),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11.2%)에서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이용률이 높았으나, 연가구소득 제5오분위와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은 평균 수준의 이용률을 보여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주당 평균 이용 횟수도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이용 횟수가 많은 경향을 보이나, 연가구소득 제5오분위와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은 반대로 나타났다.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과 주된 이용 이유 역시도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의 이용률은 6.9%,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1.5회,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19.3%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높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의 비율이 35.9%로 가장 높은 반면,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이 34.6%로 가장 높았다.

〈표 9-31〉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이용 현황

(단위: %, 회, 명)

특성	이용 현황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³⁾
	현재 이용률 ¹⁾	주당 평균 이용 횟수 ²⁾	(명)	
전체	3.5	1.2	(353)	16.6
지역				
동부	3.7	1.4	(275)	17.7
읍·면부	3.0	0.8	(78)	13.4
성				
남자	2.6	1.3	(117)	14.8
여자	4.2	1.2	(237)	17.9
연령				
65~69세	3.4	1.3	(118)	18.9
70~74세	3.8	1.3	(90)	17.8
75~79세	4.0	1.3	(70)	15.2
80~84세	2.3	1.2	(32)	14.4
85~89세	3.9	1.0	(32)	10.3
90세 이상	4.1	1.1	(10)	13.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8	1.2	(170)	16.9
배우자 없음	4.5	1.3	(183)	16.1
가구형태				
노인독거	5.2	1.3	(172)	17.2
노인부부	2.9	1.1	(159)	17.1
자녀동거	1.6	1.7	(16)	12.3
기타	3.5	0.5	(6)	11.8
교육수준				
무학	2.2	1.0	(28)	8.8
초등학교	3.6	1.2	(102)	15.1
중학교	3.9	1.3	(84)	19.7
고등학교	4.0	1.3	(126)	18.8
전문대학 이상	1.9	1.1	(14)	16.0
현직업상태				
취업중	2.0	1.1	(77)	16.6
미취업	4.5	1.3	(276)	16.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1	0.8	(82)	12.6
제2오분위	4.0	1.3	(81)	16.9
제3오분위	3.3	1.3	(67)	18.7
제4오분위	2.6	1.8	(52)	16.0
제5오분위	3.5	1.1	(71)	18.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9	1.1	(146)	15.3
50%이상~100%미만	3.4	1.4	(94)	17.1
100%이상~150%미만	3.1	1.6	(52)	16.6
150%이상	3.3	1.2	(61)	18.3
기능상태				
제한 있음	6.9	1.5	(129)	19.3
제한 없음	2.7	1.1	(224)	16.0
2020년도	6.0	1.7	(602)	30.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353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표 9-32〉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이용 이유

(단위: %, 명)

특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취미여가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식사 서비스	상담 및 정서지원	일자리 소득지원	자원봉사 활동참여	친목 도모	계 (명)
전체 ^{1) 2)}	10.3	30.0	21.1	9.7	5.2	4.2	3.0	16.4	100.0 (353)
지역									
동부	10.2	32.2	22.0	11.7	4.6	3.2	2.7	13.5	100.0 (275)
읍·면부	10.7	22.6	17.9	2.8	7.5	7.6	4.3	26.6	100.0 (78)
성									
남자	11.2	18.6	27.3	19.7	2.4	0.4	4.7	15.6	100.0 (117)
여자	9.9	35.7	18.1	4.8	6.6	6.0	2.2	16.8	100.0 (237)
연령									
65~69세	13.6	32.6	18.5	11.6	2.7	4.8	8.5	7.7	100.0 (118)
70~74세	10.1	38.2	26.0	6.5	2.3	0.6	0.7	15.5	100.0 (90)
75~79세	5.3	29.5	22.7	6.1	9.2	10.7	0.0	16.4	100.0 (70)
80~84세	4.1	20.0	16.0	11.5	10.3	3.1	0.0	35.0	100.0 (32)
85~89세	19.1	18.6	10.4	11.6	10.4	0.0	0.0	29.8	100.0 (32)
90세 이상	0.0	0.0	46.7	28.1	0.0	0.0	0.0	25.2	100.0 (1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0.7	33.6	20.2	5.4	4.4	3.0	5.1	17.7	100.0 (170)
배우자 없음	10.0	26.8	22.0	13.7	5.9	5.3	1.1	15.3	100.0 (183)
가구형태									
노인독거	10.4	24.9	22.1	14.5	6.3	4.4	1.2	16.2	100.0 (172)
노인부부	10.7	33.0	20.6	5.8	3.6	3.2	4.7	18.5	100.0 (159)
자녀동거	2.9	60.2	19.2	0.0	0.0	12.5	0.0	5.1	100.0 (16)
기타	19.3	17.5	11.7	0.0	29.9	0.0	21.6	0.0	100.0 (6)
교육수준									
무학	6.6	10.0	23.0	13.0	12.0	0.0	0.0	35.3	100.0 (28)
초등학교	10.0	25.1	22.3	5.8	8.4	3.0	2.3	23.2	100.0 (102)
중학교	5.3	28.0	24.3	10.2	6.5	7.1	0.0	18.6	100.0 (84)
고등학교	13.3	39.8	18.8	11.4	0.9	4.1	6.6	5.3	100.0 (126)
전문대학 이상	23.7	29.8	11.0	14.2	0.0	3.7	0.0	17.5	100.0 (14)
현취업상태									
취업중	7.1	31.8	21.8	7.1	4.4	9.0	6.2	12.6	100.0 (77)
미취업	11.2	29.6	20.9	10.4	5.4	2.8	2.1	17.5	100.0 (27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6	31.4	24.0	6.5	6.4	2.9	0.0	16.1	100.0 (82)
제2오분위	13.3	19.0	17.3	17.4	5.3	7.6	1.1	19.1	100.0 (81)
제3오분위	14.0	29.5	21.1	16.2	4.0	0.8	3.1	11.3	100.0 (67)
제4오분위	4.2	54.5	10.7	1.0	1.6	4.0	4.4	19.7	100.0 (52)
제5오분위	5.4	23.6	29.7	4.9	7.5	5.0	7.6	16.2	100.0 (7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4	27.7	20.8	12.4	5.8	2.9	0.0	17.9	100.0 (146)
50%이상~100%미만	8.4	33.5	20.0	9.5	1.8	5.8	4.4	16.3	100.0 (94)
100%이상~150%미만	15.9	42.0	9.5	7.0	5.5	3.4	5.9	10.9	100.0 (52)
150%이상	3.4	20.1	33.4	5.7	8.7	5.2	5.7	17.8	100.0 (61)
기능상태									
제한 있음	6.8	19.8	34.6	11.9	9.1	0.0	0.8	17.0	100.0 (129)
제한 없음	12.4	35.9	13.3	8.5	2.9	6.6	4.3	16.1	100.0 (224)
2020년도	3.2	38.4	23.2	38.1	12.1	8.7	3.4	38.5	- (602)

주: 1) 본인응답자 9,955명 중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353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응답 방식의 변경으로 2020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2020년 1, 2순위 다중응답, 2023년 단일응답).

4. 노인교실

노인교실을 이용하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7%로, 이들은 주당 평균 1.5회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전체 노인 중 14.5%의 노인이 향후(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교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37.9%, 친목도모 26.1%,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17.3%,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8.8% 등을 위해 주로 노인교실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 1.9%, 읍·면부 노인 1.2%가 노인교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동부 노인 15.5%, 읍·면부 노인 11.7%로 두 가지 다 동부 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동부 노인 1.7회, 읍·면부 노인 0.7회로 동부 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교실 이용 이유는 두 지역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동부 노인은 취미여가 프로그램과 친목 도모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읍·면부 노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과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소득지원이 동부 노인에 비해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의 현재 이용률이 2.1%로 남자 노인 1.2%에 비해 높았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 의사도 여자 노인 15.5%, 남자 노인 13.3%로 여자 노인이 높았다. 그러나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여자 노인 1.5회, 남자 노인 1.6회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노인교실의 이용 이유는 남자 노인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친목도모, 식사 서비스, 상담 및 정서지원의 비율이 여자 노인에 비해 높았으며, 여자 노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및 소득지원, 자원봉사 활동참여 등이 남자 노인에 비해 높았다.

연령군에 따른 현재 이용률은 75~79세와 85~89세가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85~89세,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70~74세가 가장 높아 연령군별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용 이유로는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이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그 외 항목들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무배우 노인의 현재 이용률은 2.4%로 유배우 노인 1.2%보다 높은 반면,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유배우 노인이 1.6회로 무배우 노인 1.4회에 비해 높았다.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무배우 노인이 15.2%로 유배우 노인 14.1%에

비해 높았다. 유배우 노인은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이 47.6%로 무배우 노인 30.7%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무배우 노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이 12.2%로 유배우 노인 4.2%에 비해 높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독거가구의 현재 이용률이 2.5%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도 16.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부부가구가 1.7회로 가장 높았다. 노인교실 이용 이유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부부가구의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47.7%), 자녀동거가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21.2%)의 비율이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노인교실 이용률과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용률은 초등학교 졸업(2.8%),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중학교 졸업(16.8%)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고등학교 졸업(1.7회)에서 높았다. 또한, 노인교실 이용 이유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고등학교 졸업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이 44.4%로 타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전문대학 이상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이 23.3%로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의 현재 이용률(2.4%)과 주당 평균 이용 횟수(1.6회),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15.2%) 모두 취업 노인보다 높았다. 미취업 노인은 건강 증진 프로그램 이용 비율이 19.2%로 취업 노인 7.1%에 비해 높았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이용률과 주당 평균 참여율은 $\cap$ 형태를 보이나,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노인교실 이용 이유는 연가구소득 기준에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중위소득 기준에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친목도모 비율이 높았다.

기능상태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의 노인교실 이용률은 3.0%,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17.2%, 주당 평균 이용횟수는 1.6회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높았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비율이 46.0%로 가장 높은 반면,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친목도모의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아 기능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표 9-33〉 노인교실 이용 현황

(단위: %, 회, 명)

특성	이용 현황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³⁾
	현재 이용률 ¹⁾	주당 평균 이용 횟수 ²⁾	(명)	
전체	1.7	1.5	(172)	14.5
지역				
동부	1.9	1.7	(140)	15.5
읍·면부	1.2	0.7	(32)	11.7
성				
남자	1.2	1.6	(52)	13.3
여자	2.1	1.5	(120)	15.5
연령				
65~69세	0.8	1.6	(27)	14.2
70~74세	1.3	1.6	(30)	16.3
75~79세	3.2	1.3	(56)	15.2
80~84세	2.0	1.5	(27)	15.0
85~89세	3.2	1.8	(26)	10.5
90세 이상	2.1	1.5	(5)	6.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2	1.6	(74)	14.1
배우자 없음	2.4	1.4	(98)	15.2
가구형태				
노인독거	2.5	1.4	(81)	16.3
노인부부	1.3	1.7	(71)	14.4
자녀동거	1.8	1.6	(19)	10.7
기타	0.7	0.0	(1)	6.6
교육수준				
무학	1.6	1.6	(20)	8.1
초등학교	2.8	1.6	(80)	15.5
중학교	1.7	1.2	(37)	16.8
고등학교	1.0	1.7	(30)	15.2
전문대학 이상	0.8	0.7	(6)	11.9
현취업상태				
취업중	0.7	1.2	(27)	13.4
미취업	2.4	1.6	(145)	15.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	1.1	(30)	11.6
제2오분위	1.9	1.2	(38)	13.3
제3오분위	2.0	2.0	(40)	17.1
제4오분위	2.0	1.8	(41)	15.4
제5오분위	1.2	1.3	(24)	15.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6	1.2	(62)	13.1
50%이상~100%미만	2.0	1.8	(56)	15.3
100%이상~150%미만	1.9	1.7	(32)	15.2
150%이상	1.3	1.2	(23)	15.7
기능상태				
제한 있음	3.0	1.6	(57)	17.2
제한 없음	1.4	1.5	(115)	13.9
2020년도	1.8	1.2	(181)	24.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노인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172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표 9-34〉 노인교실 이용 이유

(단위: %, 명)

특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취미여가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식사 서비스	상담 및 정서지원	일자리 소득지원	자원봉사 활동참여	친목 도모	계 (명)
전체 ^{1) 2)}	8.8	37.9	17.3	2.2	2.9	2.2	2.7	26.1	100.0 (172)
지역									
동부	7.8	39.5	17.1	2.6	1.9	0.8	3.3	27.0	100.0 (140)
읍·면부	13.3	30.9	17.9	0.0	7.1	8.6	0.0	22.0	100.0 (32)
성									
남자	6.3	39.4	13.5	7.2	5.4	0.0	0.0	28.2	100.0 (52)
여자	9.9	37.3	18.9	0.0	1.8	3.2	3.8	25.2	100.0 (120)
연령									
65~69세	20.1	61.6	14.9	0.0	0.0	1.7	0.0	1.7	100.0 (27)
70~74세	4.4	48.6	12.3	8.1	6.6	2.2	0.0	17.8	100.0 (30)
75~79세	7.6	34.7	13.3	2.3	2.0	4.9	0.0	35.3	100.0 (56)
80~84세	8.8	31.1	27.1	0.0	6.9	0.0	0.0	26.2	100.0 (27)
85~89세	3.1	20.2	23.7	0.0	0.0	0.0	17.3	35.7	100.0 (26)
90세 이상	18.1	13.6	15.7	0.0	0.0	0.0	0.0	52.6	100.0 (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2	47.6	15.1	1.9	3.8	0.6	0.0	26.8	100.0 (74)
배우자 없음	12.2	30.7	18.9	2.4	2.2	3.5	4.7	25.5	100.0 (98)
가구형태									
노인독거	9.8	29.8	17.6	2.9	2.7	4.2	5.6	27.4	100.0 (81)
노인부부	4.4	47.7	15.7	1.9	2.3	0.7	0.0	27.2	100.0 (71)
자녀동거	21.2	38.3	22.3	0.0	0.0	0.0	0.0	18.2	100.0 (19)
기타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
교육수준									
무학	9.6	39.2	20.6	0.0	12.2	3.3	0.0	15.1	100.0 (20)
초등학교	7.1	35.0	12.8	2.9	1.0	0.0	5.8	35.4	100.0 (80)
중학교	5.8	39.0	19.1	0.0	4.6	8.7	0.0	22.7	100.0 (37)
고등학교	13.7	44.4	22.9	4.6	0.0	0.0	0.0	14.4	100.0 (30)
전문대학 이상	23.3	32.4	25.5	0.0	0.0	0.0	0.0	18.8	100.0 (6)
현취업상태									
취업중	9.9	46.5	7.1	5.0	2.0	4.1	0.0	25.4	100.0 (27)
미취업	8.6	36.3	19.2	1.6	3.1	1.9	3.2	26.2	100.0 (14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6.4	32.4	44.3	0.0	3.5	0.0	0.0	3.4	100.0 (30)
제2오분위	10.1	40.1	12.5	0.0	6.8	9.0	0.0	21.5	100.0 (38)
제3오분위	9.5	40.2	13.1	2.7	3.4	0.0	11.5	19.7	100.0 (40)
제4오분위	4.9	30.0	15.9	3.1	0.0	1.1	0.0	45.0	100.0 (41)
제5오분위	2.8	51.3	0.0	5.7	0.0	0.0	0.0	40.1	100.0 (2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3.4	41.3	26.6	0.0	5.8	1.1	0.0	11.8	100.0 (62)
50%이상~100%미만	7.5	42.6	20.0	1.9	2.5	4.9	0.0	20.5	100.0 (56)
100%이상~150%미만	2.1	40.4	6.7	0.0	0.0	1.5	14.4	35.0	100.0 (32)
150%이상	8.7	14.1	0.0	11.5	0.0	0.0	0.0	65.7	100.0 (23)
기능상태									
제한 있음	1.2	21.3	16.0	4.1	7.3	0.0	8.1	41.9	100.0 (57)
제한 없음	12.5	46.0	17.9	1.2	0.7	3.3	0.0	18.3	100.0 (115)
2020년도	9.5	38.3	27.4	14.8	15.9	12.6	0.2	55.0	- (181)

주: 1) 본인응답자 9,955명 중 노인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172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2) 응답 방식의 변경으로 2020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2020년 1, 2순위 다중응답, 2023년 단일응답).

5.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

전체 노인의 7.0%는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1.4회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전체 노인 중 23.1%의 노인이 향후(계속)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31.3%),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23.3%),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18.1%), 친목도모(14.3%)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 7.8%, 읍·면부 노인 4.7%가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계속)이용 희망률은 동부 노인 25.3%, 읍·면부 노인 17.1%로 두 가지 다 동부 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주당 평균 이용 횟수 역시도 동부 노인 1.5회, 읍·면부 노인 0.8회로 동부 노인의 이용 빈도가 높았다.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는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데 동부 노인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비율이 33.1%로 가장 높으나, 읍·면부 노인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비율이 23.3%로 가장 높았다. 또한,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 대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율과 친목도모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부 노인은 상담 및 정서지원과 일자리 소득지원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의 현재 이용률(여자 노인 7.5%, 남자 노인 6.4%)과 향후(계속) 이용 희망 의사(여자 노인 23.8%, 남자 노인 22.4%), 주당 평균 이용 횟수(여자 노인 1.5회, 남자 노인 1.1회) 모두 남자 노인에 비해 높았다.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는 여자 노인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이 남자 노인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남자 노인은 친목도모의 비율이 19.8%로 여자 노인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의 현재 이용률과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며,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80~84세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는 연령군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85~89세는 타 연령군에 비해 친목도모의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현재 이용률(유배우 노인 7.4%로 무배우 노인 6.5%)과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유배우 노인 25.0% 무배우 노인 20.3%) 모두 무배우 노인에 비해 높았으나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주된 이용 이유 역시도 두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부부가구의 현재 이용률(7.3%)과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24.7%) 모두 가장 높았으며,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기타 가구가 2.7회로 가장 높았다.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향후(계속) 이용 의향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1.5회로 가장 많았다. 주된 이용 이유로는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상담 및 정서지원은 그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또한, 무학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상담 및 정서 지원(22.1%)과 식사서비스(9.4%)의 비율이 높았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의 현재 이용률(7.1%)과 주당 평균 이용 횟수(1.5회)는 취업 노인에 비해 높은 반면,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취업 노인이 25.8%로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았다. 미취업 노인(35.3%)은 취업 노인(24.8%)에 비해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위한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 이용의 비율이 높은 반면, 취업 노인(12.1%)은 미취업 노인(0.8%)에 비해 일자리 소득지원을 위한 이용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연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 이용 비율이 높았으나,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향후(계속) 이용 의향은 두 가지 기준 모두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특성을 보였다. 주된 이용 이유에서는 소득수준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의 경우 45.3%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기능상태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 이용률은 7.4%로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5.5%)보다 높고,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도 23.9%로 높았다. 주당 평균 이용 횟수도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이 1.4회로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주된 이용 이유는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24.0%)은 제한이 있는 노인(19.5%)에 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았으며, 식사서비스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표 9-35〉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 이용 현황

(단위: %, 회, 명)

특성	이용 현황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³⁾
	현재 이용률 ¹⁾	주당 평균 이용 횟수 ²⁾	(명)	
전체	7.0	1.4	(707)	23.1
지역				
동부	7.8	1.5	(583)	25.3
읍·면부	4.7	0.8	(124)	17.1
성				
남자	6.4	1.1	(282)	22.4
여자	7.5	1.5	(425)	23.8
연령				
65~69세	9.6	1.3	(335)	30.6
70~74세	7.1	1.4	(168)	24.8
75~79세	6.3	1.3	(110)	20.7
80~84세	4.6	1.8	(65)	15.5
85~89세	3.3	1.5	(27)	9.9
90세 이상	0.8	1.0	(2)	4.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4	1.4	(446)	25.0
배우자 없음	6.5	1.4	(261)	20.3
가구형태				
노인독거	6.7	1.4	(222)	21.3
노인부부	7.3	1.3	(408)	24.7
자녀동거	7.0	1.6	(72)	21.8
기타	2.6	2.7	(5)	18.2
교육수준				
무학	1.9	1.0	(24)	6.6
초등학교	4.7	1.4	(135)	17.3
중학교	6.5	1.4	(140)	24.2
고등학교	9.9	1.5	(312)	31.6
전문대학 이상	13.6	1.1	(96)	33.4
현취업상태				
취업중	6.9	1.2	(269)	25.8
미취업	7.1	1.5	(438)	21.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4	1.3	(89)	14.6
제2오분위	4.6	1.2	(92)	17.5
제3오분위	6.8	1.2	(137)	25.2
제4오분위	7.8	1.5	(157)	25.3
제5오분위	11.5	1.5	(231)	33.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4	1.3	(165)	16.9
50%이상~100%미만	7.3	1.3	(204)	23.2
100%이상~150%미만	7.5	1.6	(125)	25.8
150%이상	11.6	1.5	(213)	33.5
기능상태				
제한 있음	5.5	1.3	(103)	19.5
제한 없음	7.4	1.4	(604)	23.9
2020년도	4.7	1.6	(477)	31.2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707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표 9-36〉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

(단위: %, 명)

특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취미여가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식사 서비스	상담 및 정서지원	일자리 소득지원	자원봉사 활동참여	친목 도모	계 (명)
전체 ^{1) 2) 3)}	18.1	31.3	23.3	2.2	4.3	5.1	1.4	14.3	100.0 (707)
지역									
동부	18.2	33.1	23.3	2.3	3.1	3.7	1.4	14.9	100.0 (583)
읍·면부	17.9	22.6	23.3	1.9	9.9	11.8	1.2	11.5	100.0 (124)
성									
남자	18.1	28.0	15.9	3.4	5.5	7.1	2.0	19.8	100.0 (282)
여자	18.1	33.4	28.2	1.4	3.5	3.8	0.9	10.6	100.0 (425)
연령									
65~69세	22.6	32.0	18.4	2.0	6.0	5.8	1.6	11.6	100.0 (335)
70~74세	15.2	34.6	29.9	0.6	1.3	4.9	0.0	13.5	100.0 (168)
75~79세	10.3	27.2	32.9	5.2	2.3	3.0	1.2	17.8	100.0 (110)
80~84세	18.9	30.3	16.4	2.0	5.4	8.4	4.4	14.2	100.0 (65)
85~89세	12.4	22.8	15.0	3.5	6.7	0.0	0.0	39.7	100.0 (27)
90세 이상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9.1	31.8	23.0	1.2	3.6	4.5	1.6	15.2	100.0 (446)
배우자 없음	16.5	30.3	23.8	3.9	5.5	6.2	0.9	12.8	100.0 (261)
가구형태									
노인독거	17.9	27.9	22.6	4.6	5.5	6.9	1.1	13.5	100.0 (222)
노인부부	18.2	31.9	22.5	1.3	3.9	4.9	1.8	15.5	100.0 (408)
자녀동거	15.3	37.9	31.5	0.0	3.0	1.2	0.0	11.1	100.0 (72)
기타	69.1	30.9	0.0	0.0	0.0	0.0	0.0	0.0	100.0 (5)
교육수준									
무학	17.2	9.6	19.3	9.4	22.1	2.1	0.0	20.3	100.0 (24)
초등학교	18.7	25.4	30.1	1.7	5.5	3.1	0.0	15.4	100.0 (135)
중학교	10.2	31.2	20.6	4.0	4.3	5.7	0.9	23.1	100.0 (140)
고등학교	17.4	34.0	25.8	1.2	3.3	6.1	2.5	9.9	100.0 (312)
전문대학 이상	31.6	36.2	10.6	1.9	1.4	5.0	0.7	12.7	100.0 (96)
현취업상태									
취업중	17.8	24.8	23.2	0.7	5.3	12.1	1.3	14.8	100.0 (269)
미취업	18.3	35.3	23.4	3.1	3.6	0.8	1.4	14.0	100.0 (43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1.7	45.3	20.9	0.0	6.0	3.1	0.9	11.9	100.0 (89)
제2오분위	17.6	31.7	22.0	4.3	9.2	6.4	1.0	7.8	100.0 (92)
제3오분위	17.8	23.6	28.3	7.2	2.4	5.5	0.9	14.3	100.0 (137)
제4오분위	22.2	30.1	23.4	1.1	2.8	3.7	0.4	16.2	100.0 (157)
제5오분위	18.2	30.9	21.7	0.0	3.8	6.2	2.5	16.6	100.0 (23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8	39.8	24.8	1.2	5.7	2.5	0.5	12.7	100.0 (165)
50%이상~100%미만	20.4	25.2	23.2	5.1	5.1	5.9	1.1	14.0	100.0 (204)
100%이상~150%미만	24.8	32.1	22.6	2.5	2.4	2.9	0.0	12.7	100.0 (125)
150%이상	16.2	30.0	22.7	0.0	3.5	7.8	3.1	16.8	100.0 (213)
기능상태									
제한 있음	15.9	30.1	19.5	7.1	3.5	6.8	1.6	15.5	100.0 (103)
제한 없음	18.5	31.5	24.0	1.4	4.4	4.9	1.3	14.1	100.0 (604)
2020년도	5.9	52.6	35.8	16.9	9.8	8.5	4.1	30.9	- (477)

주: 1) 본인응답자 9,955명 중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707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응답 방식의 변경으로 2020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2020년 1, 2순위 다중응답, 2023년 단일응답).

6.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은 전체 노인의 3.5%가 이용하고 있으며, 11.1%의 노인들이 향후(계속)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은 주당 평균 1.5회 이용하고 있었다.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 이용 노인의 이용 이유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32.0%,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25.0%, 친목도모 24.6%,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10.1%, 식사서비스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 4.2%, 읍·면부 노인 1.5%가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동부 노인 13.0%, 읍·면부 노인 5.8%로 두 지역 간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동부 노인 1.6회, 읍·면부 노인 1.0회로 이 역시도 동부 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동부 노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30.6%, 친목도모 26.5%,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22.9%,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10.5% 등의 순인 반면, 읍·면부 노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43.1%,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41.0%로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현재 이용률(여자 노인 3.9%, 남자 노인은 3.0%),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여자 노인 11.3%, 남자 노인 10.9%), 주당 평균 이용 횟수(여자 노인 1.5회, 남자 노인 1.4회) 모두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높았다.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는 남자 노인은 44.9%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여자 노인은 친목도모 28.4%,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27.5%,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24.3%로 보다 다양한 이유에 고르게 분포하였다.

연령군에 따른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의 현재 이용률과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주당 평균 이용횟수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며, 85~89세가 1.9회로 가장 높았다. 85세 이상은 대부분 친목도모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69세는 평생교육과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의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현재 이용률(유배우 노인 3.8%, 무배우 노인 3.1%), 주당 평균 이용 횟수(유배우 노인 1.5회, 무배우 노인 1.4회),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유배우 노인 12.8%, 무배우 노인 8.6%) 모두 유배우 노인이 높았다. 주된 이용 이유는 집단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무배우 노인은 상대적으로 일자리 소득 지원이 5.0%로

유배우 노인 0.0%에 비해 높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은 유배우 노인이 11.9%로 무배우 노인 6.7%에 비해 높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자녀동거가구의 이용률이 3.8%로 가장 높았으나, 주당 평균 이용 횟수와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부부가구가 가장 높았다. 주된 이용 이유는 가구형태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식사서비스 이용이 12.1%로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 이용률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이는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에서도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주당 평균 이용횟수는 Ⅱ형태를 보여, 중학교 졸업 노인이 1.7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그 외에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3.5%)이 취업 노인(3.4%)에 비해 이용률이 높았으며, 주당 평균 이용 횟수도 미취업 노인이 1.6회로 취업 노인 1.4회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취업 노인이 13.5%로 미취업 노인 9.6%에 비해 높았다. 취업상태에 따른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는 취업 노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이 38.3%로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미취업 노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28.1%), 친목도모(27.7%),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25.6%)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이용률이 높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다만,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이용보다는 소득이 높은 경우에 이용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주된 이용 이유는 소득수준에 따른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기능상태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 이용률은 3.7%로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 2.7%보다 높고,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도 11.5%로 높았다. 다만,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36.0%)과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27.2%)의 비율이 높은 반면,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친목도모가 57.8%로 높아 기능상태에 따른 이용 이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37〉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 이용 현황

(단위: %, 회, 명)

특성	이용 현황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³⁾
	현재 이용률 ¹⁾	주당 평균 이용 횟수 ²⁾	(명)	
전체	3.5	1.5	(350)	11.1
지역				
동부	4.2	1.6	(311)	13.0
읍·면부	1.5	1.0	(40)	5.8
성				
남자	3.0	1.4	(132)	10.9
여자	3.9	1.5	(218)	11.3
연령				
65~69세	5.2	1.5	(181)	16.5
70~74세	3.4	1.4	(80)	11.7
75~79세	2.6	1.9	(45)	8.2
80~84세	2.1	1.1	(30)	6.2
85~89세	1.7	1.7	(14)	3.5
90세 이상	0.6	0.0	(2)	2.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8	1.5	(227)	12.8
배우자 없음	3.1	1.4	(123)	8.6
가구형태				
노인독거	3.2	1.5	(105)	9.0
노인부부	3.6	1.6	(203)	12.5
자녀동거	3.8	1.3	(39)	10.9
기타	1.6	0.0	(3)	7.6
교육수준				
무학	1.4	1.3	(17)	2.9
초등학교	2.0	1.4	(56)	6.4
중학교	3.1	1.7	(67)	10.3
고등학교	5.0	1.5	(156)	17.1
전문대학 이상	7.7	1.4	(54)	20.1
현취업상태				
취업중	3.4	1.4	(135)	13.5
미취업	3.5	1.6	(215)	9.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	1.4	(26)	6.3
제2오분위	2.5	1.3	(50)	6.9
제3오분위	2.6	1.4	(51)	9.0
제4오분위	4.9	1.6	(100)	13.8
제5오분위	6.1	1.6	(124)	19.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8	1.3	(67)	7.1
50%이상~100%미만	3.1	1.6	(86)	9.7
100%이상~150%미만	5.0	1.5	(84)	13.1
150%이상	6.2	1.5	(114)	19.7
기능상태				
제한 있음	2.7	1.5	(50)	9.3
제한 없음	3.7	1.5	(301)	11.5
2020년도	0.8	1.4	(79)	14.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350명을 대상으로 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표 9-38〉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

(단위: %, 명)

특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취미여가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식사 서비스	상담 및 정서지원	일자리 소득지원	자원봉사 활동참여	친목 도모	계 (명)
전체 ^{1) 2) 3)}	32.0	25.0	10.1	4.8	0.1	1.8	1.7	24.6	100.0 (350)
지역									
동부	30.6	22.9	10.5	5.4	0.1	2.0	1.9	26.5	100.0 (311)
읍·면부	43.1	41.0	6.6	0.0	0.0	0.0	0.0	9.4	100.0 (40)
성									
남자	44.9	20.9	10.1	5.9	0.0	0.0	0.0	18.2	100.0 (132)
여자	24.3	27.5	10.1	4.0	0.2	2.8	2.7	28.4	100.0 (218)
연령									
65~69세	38.6	32.6	10.2	2.7	0.3	0.9	1.3	13.6	100.0 (181)
70~74세	29.5	16.0	11.3	4.3	0.0	0.0	1.0	37.8	100.0 (80)
75~79세	28.0	19.1	9.3	8.8	0.0	10.4	0.0	24.4	100.0 (45)
80~84세	21.4	22.1	12.3	14.9	0.0	0.0	0.0	29.3	100.0 (30)
85~89세	0.0	6.0	0.0	0.0	0.0	0.0	20.1	73.8	100.0 (14)
90세 이상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1.8	25.1	11.9	4.3	0.2	0.0	1.0	25.6	100.0 (227)
배우자 없음	32.5	24.8	6.7	5.5	0.0	5.0	2.9	22.6	100.0 (123)
가구형태									
노인독거	33.7	22.7	6.2	3.9	0.0	5.3	3.4	24.8	100.0 (105)
노인부부	30.9	25.4	12.2	3.9	0.2	0.0	1.1	26.2	100.0 (203)
자녀동거	28.9	30.5	10.1	12.1	0.0	1.5	0.0	16.9	100.0 (39)
기타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
교육수준									
무학	30.8	9.6	5.9	11.7	0.0	0.0	0.0	42.0	100.0 (17)
초등학교	25.9	8.9	3.3	6.1	0.0	6.0	6.4	43.4	100.0 (56)
중학교	37.9	22.8	7.5	7.4	0.0	0.0	0.0	24.4	100.0 (67)
고등학교	27.2	29.5	15.0	3.5	0.0	1.8	1.5	21.5	100.0 (156)
전문대학 이상	45.3	36.3	7.3	1.6	0.9	0.0	0.0	8.6	100.0 (54)
현취업상태									
취업중	38.3	24.0	10.0	3.3	0.3	3.2	1.3	19.6	100.0 (135)
미취업	28.1	25.6	10.2	5.7	0.0	0.9	1.9	27.7	100.0 (21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1.3	40.2	13.9	1.8	0.0	10.7	0.0	22.1	100.0 (26)
제2오분위	39.6	15.6	7.5	11.7	0.9	4.3	0.0	20.3	100.0 (50)
제3오분위	26.4	29.9	5.2	4.7	0.0	1.3	1.6	30.8	100.0 (51)
제4오분위	31.9	21.9	16.5	5.1	0.0	0.6	1.3	22.6	100.0 (100)
제5오분위	35.7	26.1	7.1	2.3	0.0	0.0	3.0	25.7	100.0 (12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2.9	24.6	10.8	8.0	0.7	4.1	0.0	28.9	100.0 (67)
50%이상~100%미만	31.0	25.7	14.3	5.2	0.0	3.2	5.6	15.0	100.0 (86)
100%이상~150%미만	31.5	30.7	8.3	4.2	0.0	0.8	0.0	24.5	100.0 (84)
150%이상	38.6	20.5	7.8	3.0	0.0	0.0	0.9	29.3	100.0 (114)
기능상태									
제한 있음	8.4	11.9	11.9	0.0	0.9	3.7	5.5	57.8	100.0 (50)
제한 없음	36.0	27.2	9.8	5.5	0.0	1.4	1.0	19.0	100.0 (301)
2020년도	2.9	73.0	17.2	30.6	3.2	5.0	—	13.9	— (79)

주: 1) 본인응답자 9,955명 중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350명을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응답 방식의 변경으로 2020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2020년 1, 2순위 다중응답, 2023년 단일응답).

제4절 정보화 현황

1. 정보화 기기 보유 및 사용 현황

가. 스마트폰

노인 중 스마트폰을 보유자는 76.6%, 사용자는 68.1%이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주당 평균 5.9일, 1일 평균 1.3시간을 사용하며, 1일 3시간 이상의 장시간 이용자는 10.1%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동부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은 78.8%와 71.6%로 읍·면부 노인 70.2%와 58.3%에 비해 높지만, 주당 사용일수와 일일 평균 사용 시간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3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자는 동부 노인 10.9%, 읍·면부 노인 7.5%로 동부 노인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이 83.9%와 76.4%로 여자 노인 70.8%와 61.6%에 비해 높으며, 일일 평균 사용 시간은 남자 노인 1.4시간, 여자 노인 1.2시간으로 이 역시도 남자 노인이 더 높았다. 그러나 주당 사용일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보유율과 사용률 모두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65~69세는 보유율과 사용률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당 사용 일수와 일일 평균 사용 시간도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일 3시간 이상의 장시간 사용자 비율은 연령군에 따른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은 83.4%와 76.3%로 무배우 노인 66.3%와 55.9%에 비해 높았으며, 주당 사용 일수도 유배우 노인 6.0일, 무배우 노인 5.7일로 유배우 노인이 높았다. 일일 사용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 형태에 따라서는 부부가구의 보유율과 사용률이 83.0%와 75.7%로 가장 높았으며, 독거가구는 보유율 68.1%, 사용률 57.3%로 가장 낮았다. 주당 사용 일수는 기타 가구가 6.2일로 가장 높은 반면, 일일 평균 사용 시간은 가구형태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독거가구는 3시간 이상 사용자의 비율이 11.6%로 타 가구형태에 비해 매우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의 보유율과 사용률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대학 이상은 보유율 95.2%, 사용률은 93.6%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주당

사용일수와 일일 사용시간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았으며, 3시간 이상의 장시간 사용자의 비율도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높았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 노인의 스마트폰 보유율과 사용률은 87.6%와 79.5%로 미취업 노인 69.5%와 60.9%에 비해 높았으며, 주당 사용 일수도 높았다. 일일 사용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두 가지 소득기준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의 보유율과 사용률이 높았으며, 주당 평균 사용 일수와 일일 평균 사용시간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다만 3시간 이상 장시간 이용률의 경우 중위소득 대비 기준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장시간 이용자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지만, 연가구소득에서는 제1오분위를 제외한 제2오분위부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81.9%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73.7%가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53.0%만이 보유하고 43.8%만이 사용하고 있어 기능상태에 따른 스마트폰 보유 및 사용률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주당 사용일수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이 많은 반면, 일일 평균 사용시간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3시간 이상 장시간 이용자는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이 12.3%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 9.8%에 비해 높았다.

〈표 9-39〉 스마트폰 보유 및 사용시간

(단위: %, 일, 시간, 명)

특성	보유율 ¹⁾	사용률 ¹⁾	주당 사용일수 ²⁾	일일 사용 시간 ²⁾					
				평균 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계 (명)
전체 ³⁾	76.6	68.1	5.9	1.3	36.0	37.2	16.6	10.1	100.0 (6,846)
지역									
동부	78.8	71.6	5.9	1.3	35.5	36.9	16.8	10.9	100.0 (5,315)
읍·면부	70.2	58.3	6.0	1.2	38.0	38.3	16.2	7.5	100.0 (1,531)
성									
남자	83.9	76.4	6.0	1.4	32.3	37.4	18.9	11.4	100.0 (3,373)
여자	70.8	61.6	5.9	1.2	39.7	37.0	14.4	8.9	100.0 (3,473)
연령									
65~69세	94.9	90.6	6.2	1.4	29.9	38.8	19.8	11.4	100.0 (3,143)
70~74세	84.2	75.2	5.9	1.2	35.0	39.4	17.2	8.3	100.0 (1,784)
75~79세	72.3	60.2	5.7	1.1	42.5	35.0	13.8	8.8	100.0 (1,047)
80~84세	55.0	43.1	5.5	1.1	49.3	31.9	7.9	10.9	100.0 (599)
85~89세	37.6	28.0	5.0	1.0	56.4	24.5	7.8	11.3	100.0 (227)
90세 이상	29.4	19.0	3.3	0.6	74.3	19.5	0.0	6.1	100.0 (4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3.4	76.3	6.0	1.3	34.1	38.5	17.6	9.7	100.0 (4,604)
배우자 없음	66.3	55.9	5.7	1.2	39.9	34.5	14.7	10.9	100.0 (2,242)
가구형태									
노인독거	68.1	57.3	5.6	1.3	39.2	34.1	15.2	11.6	100.0 (1,889)
노인부부	83.0	75.7	6.0	1.3	34.8	38.1	17.5	9.6	100.0 (4,200)
자녀동거	68.3	61.5	6.1	1.2	35.4	41.1	13.7	9.9	100.0 (628)
기타	82.0	74.1	6.2	1.3	33.6	33.9	25.2	7.2	100.0 (129)
교육수준									
무학	33.1	20.7	4.8	0.7	62.4	28.7	4.4	4.5	100.0 (251)
초등학교	66.6	52.6	5.5	1.0	50.5	33.0	10.0	6.5	100.0 (1,492)
중학교	83.3	74.7	5.8	1.2	38.0	40.0	14.6	7.5	100.0 (1,596)
고등학교	94.0	90.7	6.2	1.5	27.7	38.7	20.8	12.8	100.0 (2,847)
전문대학 이상	95.2	93.6	6.4	1.5	24.4	36.9	23.6	15.1	100.0 (660)
현취업상태									
취업중	87.6	79.5	6.1	1.3	33.5	38.1	17.8	10.6	100.0 (3,122)
미취업	69.5	60.9	5.8	1.2	38.1	36.5	15.7	9.7	100.0 (3,72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9.8	49.8	5.2	1.1	47.6	31.5	12.3	8.6	100.0 (997)
제2오분위	65.7	54.0	5.4	1.0	48.3	34.2	12.8	4.7	100.0 (1,085)
제3오분위	79.4	69.2	6.1	1.2	36.0	39.3	16.1	8.6	100.0 (1,390)
제4오분위	86.4	80.0	6.1	1.3	31.9	38.8	17.9	11.4	100.0 (1,615)
제5오분위	91.5	87.7	6.3	1.5	25.7	39.2	20.8	14.4	100.0 (1,76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4.2	53.5	5.3	1.1	47.5	33.0	12.8	6.7	100.0 (2,014)
50%이상~100%미만	76.4	66.8	6.0	1.2	37.4	39.8	15.5	7.3	100.0 (1,866)
100%이상~150%미만	86.6	80.0	6.2	1.4	30.1	39.0	18.8	12.2	100.0 (1,332)
150%이상	93.1	89.6	6.3	1.5	25.2	37.9	21.1	15.8	100.0 (1,634)
기능상태									
제한 있음	53.0	43.8	5.3	1.3	43.0	29.6	15.1	12.3	100.0 (800)
제한 없음	81.9	73.7	6.0	1.3	35.1	38.2	16.9	9.8	100.0 (6,04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6,846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3) 선택지 변경으로 2020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2020년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2023년 스마트폰).

나.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PC)

전체 노인 중 컴퓨터를 보유한 비율은 20.6%, 사용률은 13.1%이며, 사용자의 주당 사용일수는 3.0일, 일일 평균 사용 시간은 1.3시간이었다. 3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자의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동부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은 22.5%와 14.4%로 읍·면부 노인 15.4%와 9.3%에 비해 높지만, 주당 사용일수는 읍·면부 노인이 3.3일로 동부 노인 2.9일에 비해 많으며, 일일 평균 사용시간은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이 25.8%와 20.5%로 여자 노인 16.6%와 7.2%에 비해 높으며, 주당 사용일수 및 일일 사용시간도 남자 노인 3.1일과 1.4시간으로 여자 노인 2.6일과 1.1시간보다 높았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보유율과 사용률 모두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당 사용일수와 일일 사용시간은 연령군에 따른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은 26.1%와 17.2%로 무배우 노인 12.5%와 6.8%에 비해 높았으나, 주당 사용일수와 일일 사용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자녀동거가구의 보유율이 44.6%로 가장 높았으나, 사용률은 부부가구가 16.5%로 가장 높았다. 주당 사용일수는 독거가구와 부부가구가 3.0일로 가장 높았으며, 일일 사용시간은 자녀동거가구가 1.6시간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3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자의 비율은 자녀동거가구가 13.2%로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컴퓨터 보유율과 사용률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특히나 전문대학 이상은 사용률이 49.8%로 타 연령군에 비해 매우 높았다. 주당 사용일수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일일 사용시간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특성을 보였으며, 3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률은 전문대학 이상이 11.5%로 매우 높았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의 컴퓨터 보유율과 사용률은 25.8%와 18.9%로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았으며, 주당 사용일수와 일일 사용시간도 취업 노인이 높았다.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컴퓨터 보유율과 사용률이 높았으며 주당 사용일수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았으나, 일일 사용 시간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컴퓨터 보유율은 22.6%, 사용률은 14.8%로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보다 높았다. 그러나 주당 사용일수는 동일하였으며, 일일 사용시간은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이 1.3시간으로 많았다.

534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표 9-40〉 컴퓨터 보유 및 사용시간

(단위: %, 일, 시간, 명)

특성	보유율 ¹⁾	사용률 ¹⁾	주당 사용일수 ²⁾	일일 사용 시간 ²⁾					계 (명)
				평균 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전체 ³⁾	20.6	13.1	3.0	1.3	29.8	47.9	14.1	8.3	100.0 (1,315)
지역									
동부	22.5	14.4	2.9	1.3	30.0	46.7	15.0	8.3	100.0 (1,070)
읍·면부	15.4	9.3	3.3	1.2	28.6	53.1	9.9	8.3	100.0 (245)
성									
남자	25.8	20.5	3.1	1.4	24.3	51.9	15.4	8.4	100.0 (907)
여자	16.6	7.2	2.6	1.1	41.9	39.0	11.2	7.9	100.0 (407)
연령									
65~69세	32.4	23.3	3.0	1.3	30.4	49.5	13.3	6.8	100.0 (810)
70~74세	19.9	12.8	3.0	1.4	26.9	45.3	16.6	11.2	100.0 (304)
75~79세	14.0	7.7	2.9	1.3	27.3	46.0	15.7	11.0	100.0 (134)
80~84세	10.3	3.1	3.3	1.5	27.7	47.4	12.5	12.4	100.0 (44)
85~89세	7.7	2.2	2.9	0.6	65.0	35.0	0.0	0.0	100.0 (19)
90세 이상	11.1	1.8	2.2	0.8	49.9	50.1	0.0	0.0	100.0 (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6.1	17.2	3.0	1.3	28.6	49.2	14.0	8.2	100.0 (1,041)
배우자 없음	12.5	6.8	2.9	1.3	34.3	42.7	14.3	8.7	100.0 (274)
가구형태									
노인독거	8.1	7.1	3.0	1.4	32.4	43.4	15.8	8.4	100.0 (234)
노인부부	23.5	16.5	3.0	1.2	29.4	49.6	13.4	7.5	100.0 (914)
자녀동거	44.6	13.8	2.9	1.6	27.9	40.9	18.0	13.2	100.0 (142)
기타	25.5	13.9	2.6	1.0	28.6	65.8	0.0	5.6	100.0 (24)
교육수준									
무학	3.2	0.1	0.9	0.3	100.0	0.0	0.0	0.0	100.0 (1)
초등학교	8.8	2.5	2.8	1.0	56.7	30.9	5.0	7.4	100.0 (70)
중학교	15.8	7.9	3.0	1.2	33.7	43.9	14.7	7.7	100.0 (168)
고등학교	33.0	23.0	2.8	1.2	31.1	50.0	12.1	6.9	100.0 (723)
전문대학 이상	58.5	49.8	3.4	1.5	19.7	48.9	19.8	11.5	100.0 (352)
현취업상태									
취업중	25.8	18.9	3.1	1.4	28.1	47.1	16.2	8.5	100.0 (742)
미취업	17.4	9.3	2.8	1.2	31.9	48.9	11.3	7.9	100.0 (57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8	4.8	2.4	1.0	50.7	36.4	6.6	6.3	100.0 (96)
제2오분위	7.8	4.5	2.2	0.9	40.5	50.2	8.5	0.8	100.0 (91)
제3오분위	16.0	10.0	2.7	1.3	33.9	51.3	8.1	6.7	100.0 (200)
제4오분위	29.5	18.0	3.1	1.2	31.8	47.0	15.1	6.1	100.0 (364)
제5오분위	43.0	27.9	3.2	1.5	21.7	48.8	17.7	11.8	100.0 (56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0	5.0	2.4	1.0	43.7	43.4	8.9	3.9	100.0 (190)
50%이상-100%미만	17.2	10.5	2.6	1.0	38.1	46.7	9.3	5.9	100.0 (292)
100%이상-150%미만	31.4	17.6	3.2	1.4	26.7	49.6	16.8	6.9	100.0 (294)
150%이상	40.2	29.5	3.2	1.4	22.0	49.2	17.0	11.9	100.0 (539)
기능상태									
제한 있음	12.1	5.5	3.0	1.0	32.1	57.5	4.3	6.2	100.0 (102)
제한 없음	22.6	14.8	3.0	1.3	29.6	47.1	14.9	8.5	100.0 (1,21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1,31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선택지 변경으로 2020년과 직접 비교 어려움(2020년 데스크톱, 노트북, 2023년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릿 PC).

다. 스마트 워치

전체 노인 중 스마트 워치를 보유한 비율은 2.1%, 사용률은 1.9%이며, 사용자의 주당 사용일수는 5.7일, 일일 평균 사용 시간은 2.7시간이었다. 3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자의 비율은 32.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은 2.3%와 2.2%로 읍·면부 노인 1.2%와 1.1%에 비해 높지만, 주당 사용일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일 평균 사용시간은 동부 노인 2.7시간, 읍·면부 노인 3.0시간으로 읍·면부 노인이 더 많았으며, 3시간 이상 사용 비율도 읍·면부 노인이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이 3.1%와 3.0%로 여자 노인 1.2%와 1.0%에 비해 높으며, 주당 사용일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일 평균 사용시간은 남자 노인 2.5시간, 여자 노인 3.1시간으로 여자 노인이 더 많았으며, 3시간 이상 사용 비율도 여자 노인이 39.9%로 더 높았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65~84세까지만 사용하고 있었으며,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보유율과 사용률, 주당 이용 일수가 높았다. 그러나 일일 평균 사용시간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은 2.6%와 2.5%로 무배우 노인 1.2%와 1.0%에 비해 높았으나, 주당 사용일수와 일일 사용시간은 무배우 노인이 더 높았다. 3시간 이상 사용률에서도 무배우 노인은 43.6%로 매우 높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자녀동거가구의 보유율과 사용률이 3.6%와 2.8%로 가장 높았으나, 주당 사용일수와 일일 평균 사용 시간은 기타 가구가 7.0일, 4.8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독거가구도 6.4일, 3.5시간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 워치 보유율과 사용률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특히나 전문대학 이상은 보유율과 사용률이 10.6%와 10.2%로 타 연령군에 비해 매우 높았다. 주당 사용일수와 일일 사용시간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은 3.2%와 2.9%로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았으며, 주당 사용일수도 5.9일로 높았다. 그러나 일일 평균 사용 시간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유율과 사용률이 높았으며 주당 사용일수와 일일 사용시간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보유율은 2.4%, 사용률은 2.2%로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보다 높았으며, 주당 사용일수와 일일 사용시간도 높았다.

〈표 9-41〉 스마트 워치 보유 및 사용시간

(단위: %, 일, 시간, 명)

특성	보유율 ¹⁾	사용률 ¹⁾	주당 사용일수 ²⁾	일일 사용 시간 ²⁾					계 (명)
				평균 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전체 ³⁾	2.1	1.9	5.7	2.7	36.7	26.4	4.6	32.3	100.0 (189)
지역									
동부	2.3	2.2	5.7	2.7	38.4	24.3	5.4	31.9	100.0 (160)
읍·면부	1.2	1.1	5.6	3.0	27.3	37.6	0.0	35.0	100.0 (29)
성									
남자	3.1	3.0	5.7	2.5	40.4	25.9	4.8	29.0	100.0 (131)
여자	1.2	1.0	5.8	3.1	28.5	27.4	4.1	39.9	100.0 (58)
연령									
65~69세	4.0	3.7	5.8	2.5	44.8	24.7	2.9	27.6	100.0 (129)
70~74세	1.8	1.6	5.7	3.2	24.7	22.2	12.6	40.5	100.0 (38)
75~79세	0.9	0.8	5.5	3.5	17.4	31.4	0.0	51.2	100.0 (13)
80~84세	0.8	0.6	5.5	2.7	0.0	63.4	0.0	36.6	100.0 (8)
85~89세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
90세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6	2.5	5.6	2.5	38.1	29.3	3.3	29.2	100.0 (148)
배우자 없음	1.2	1.0	6.3	3.5	31.8	15.5	9.2	43.6	100.0 (41)
가구형태									
노인독거	1.1	1.0	6.4	3.5	30.8	12.9	11.2	45.0	100.0 (33)
노인부부	2.4	2.2	5.7	2.4	40.2	28.5	3.9	27.3	100.0 (125)
자녀동거	3.6	2.8	5.2	3.0	28.2	34.7	0.0	37.1	100.0 (29)
기타	1.3	1.3	7.0	4.8	41.3	0.0	0.0	58.7	100.0 (2)
교육수준									
무학	0.1	0.0	0.0	0.0	0.0	0.0	0.0	0.0	100.0 (0)
초등학교	0.3	0.1	6.1	5.0	12.7	19.4	0.0	68.0	100.0 (4)
중학교	1.2	1.0	4.9	2.3	30.2	26.7	6.8	36.4	100.0 (21)
고등학교	3.2	2.9	5.8	2.6	48.9	17.0	2.1	31.9	100.0 (91)
전문대학 이상	10.6	10.2	5.8	2.9	24.7	38.5	7.3	29.6	100.0 (72)
현취업상태									
취업중	3.2	2.9	5.9	2.7	43.0	23.7	1.6	31.6	100.0 (116)
미취업	1.3	1.2	5.4	2.8	26.8	30.5	9.3	33.4	100.0 (73)
연가구조득									
제1오분위	0.8	0.5	4.7	1.7	64.8	13.6	4.8	16.8	100.0 (11)
제2오분위	0.3	0.3	5.4	4.6	0.0	37.8	0.0	62.2	100.0 (6)
제3오분위	1.2	1.2	5.4	2.2	32.8	39.5	7.9	19.8	100.0 (23)
제4오분위	2.2	2.0	5.6	2.4	32.6	33.3	6.8	27.3	100.0 (40)
제5오분위	5.8	5.4	6.0	3.0	38.3	21.6	3.3	36.8	100.0 (10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0.7	0.5	5.2	2.5	36.8	32.1	2.7	28.3	100.0 (19)
50%이상~100%미만	1.2	1.1	5.3	1.8	33.4	40.3	7.6	18.6	100.0 (30)
100%이상~150%미만	2.9	2.6	5.1	2.4	42.3	26.0	5.3	26.3	100.0 (44)
150%이상	5.5	5.3	6.2	3.2	35.2	21.0	3.7	40.1	100.0 (96)
기능상태									
제한 있음	0.5	0.4	5.0	1.4	8.1	59.8	20.8	11.2	100.0 (7)
제한 없음	2.4	2.2	5.7	2.8	37.8	25.1	4.0	33.1	100.0 (182)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스마트 워치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189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3) 2023년 신규항목으로 2020년과 비교 어려움.

2.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

가. 주거지 내 인터넷 사용 가능 환경

전체 노인 중 주거지 내 인터넷(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노인은 46.2%로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주거지 내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 50.2%, 읍·면부 노인 35.1%로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 53.1%, 여자 노인 40.8%가 주거지 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였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주거지 내 인터넷 사용 가능 비율이 높았으며, 65~69세는 64.5%가 가능한 반면, 90세 이상은 17.0%로 연령군별 큰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 여부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53.5%, 무배우 가구의 35.3%가 주거지 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였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의 64.4%, 부부가구의 51.6%, 기타 가구의 53.7%, 독거가구의 31.1%가 주거지 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여, 독거가구가 정보화 기기 이용 환경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지 내 인터넷 이용 가능성이 높으며, 무학은 12.2%, 전문대학 이상은 79.4%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취업상태별 분포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취업 노인의 52.7%, 미취업 노인의 42.1%가 주거지 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지 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비율이 높았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49.7%는 주거지 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31.1%만이 가능하였다.

〈표 9-42〉 가구 내 인터넷 이용 가능 여부

(단위: %, 명)

특성	이용 가능	이용 불가	계 (명)
전체 ¹⁾	46.2	53.8	100.0 (10,078)
지역			
동부	50.2	49.8	100.0 (7,450)
읍·면부	35.1	64.9	100.0 (2,628)
성			
남자	53.1	46.9	100.0 (4,429)
여자	40.8	59.2	100.0 (5,649)
연령			
65~69세	64.5	35.5	100.0 (3,473)
70~74세	48.1	51.9	100.0 (2,377)
75~79세	38.4	61.6	100.0 (1,743)
80~84세	26.7	73.3	100.0 (1,407)
85~89세	23.0	77.0	100.0 (825)
90세 이상	17.0	83.0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3.5	46.5	100.0 (6,047)
배우자 없음	35.3	64.7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31.1	68.9	100.0 (3,306)
노인부부	51.6	48.4	100.0 (5,562)
자녀동거	64.4	35.6	100.0 (1,035)
기타	53.7	46.3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12.2	87.8	100.0 (1,240)
초등학교	30.3	69.7	100.0 (2,846)
중학교	47.2	52.8	100.0 (2,139)
고등학교	66.0	34.0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79.4	20.6	100.0 (707)
현취업상태			
취업중	52.7	47.3	100.0 (3,931)
미취업	42.1	57.9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3.4	76.6	100.0 (2,014)
제2오분위	28.6	71.4	100.0 (2,014)
제3오분위	45.5	54.5	100.0 (2,014)
제4오분위	61.3	38.7	100.0 (2,020)
제5오분위	72.3	27.7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7.6	72.4	100.0 (3,776)
50%이상~100%미만	45.6	54.4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62.4	37.6	100.0 (1,673)
150%이상	70.9	29.1	100.0 (1,828)
가능상태			
제한 있음	31.1	68.9	100.0 (1,873)
제한 없음	49.7	50.3	100.0 (8,20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나. 개인의 활용 역량

정보화 기기 활용에 대한 개인의 역량수준을 PC나 스마트폰, 태블릿PC, 키오스크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정보화 기기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메시지 받기는 전체 노인의 83.6%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메시지 보내기 74.7%, 사진·동영상 촬영 52.7%, 정보검색 및 조회 51.1%, 동영상 보기와 영상통화 각각 44.2%, 음악 듣기 26.7%, 금융거래 20.2%, 키오스크 활용 주문 및 접수 17.9%, 게임 15.0%, 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 13.4%, 전자상거래 12.0%, SNS 이용 8.6%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이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이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연령군이 낮을수록 모든 영역의 정보화 기기 내 기능 사용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 기기 활용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메시지 받기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전문대학 이상 보다 0.3%포인트 높았으며, 게임도 4.2%포인트 높았다.

〈표 9-43〉 스마트 기기 활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체 ¹⁾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메시지 받기	83.6	87.2	73.7	89.5	79.0	
메시지 보내기	74.7	79.2	62.2	82.5	68.6	
영상통화	44.2	46.2	38.4	49.5	40.1	
정보검색 및 조회	51.1	54.5	41.4	61.8	42.6	
사진·동영상 촬영	52.7	54.7	47.0	60.8	46.3	
음악듣기	26.7	27.8	23.6	32.2	22.4	
게임	15.0	16.2	11.7	18.6	12.2	
동영상 보기	44.2	47.2	35.7	52.5	37.6	
SNS 이용	8.6	9.0	7.4	11.6	6.3	
전자상거래	12.0	13.0	9.1	14.7	9.8	
금융거래	20.2	22.3	14.2	26.4	15.4	
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	13.4	14.8	9.4	18.1	9.7	
키오스크 활용 주문 및 접수	17.9	19.1	14.4	22.8	1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55)	(7,359)	(2,596)	(4,384)	(5,571)	
구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 이상
메시지 받기	97.3	90.8	83.3	66.1	46.3	39.7
메시지 보내기	95.2	82.1	70.3	49.4	30.9	28.0
영상통화	64.8	48.1	33.7	22.0	14.0	9.8
정보검색 및 조회	78.3	54.7	36.6	23.0	15.5	4.5
사진·동영상 촬영	79.0	57.4	40.7	23.1	14.0	7.5
음악듣기	42.6	28.1	17.5	11.2	7.5	2.6
게임	27.0	14.8	8.0	3.9	1.9	1.6
동영상 보기	65.7	49.1	34.0	20.5	10.6	4.4
SNS 이용	17.5	7.8	3.0	0.6	0.9	0.0
전자상거래	25.3	9.9	3.4	1.4	0.8	0.0
금융거래	39.8	18.4	7.5	3.3	2.7	1.4
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	27.8	10.5	5.3	1.8	0.5	0.3
키오스크 활용 주문 및 접수	35.0	15.3	8.3	2.3	3.9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465)	(2,362)	(1,729)	(1,379)	(781)	(239)
구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메시지 받기	43.3	75.6	91.9	97.5	97.2	
메시지 보내기	26.3	59.7	85.2	94.9	94.8	
영상통화	10.1	27.8	48.8	63.0	69.6	
정보검색 및 조회	6.8	28.8	55.4	76.6	88.3	
사진·동영상 촬영	9.7	32.2	57.7	77.5	81.1	
음악듣기	2.9	14.0	26.4	42.0	50.8	
게임	0.8	4.6	14.2	28.3	24.1	
동영상 보기	6.2	24.1	48.3	66.8	75.1	
SNS 이용	0.4	2.5	5.4	15.9	23.8	
전자상거래	0.2	1.7	7.6	23.4	35.9	
금융거래	0.7	4.3	15.1	38.0	52.9	
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	0.7	2.4	9.1	25.3	38.5	
키오스크 활용 주문 및 접수	0.3	3.6	11.6	34.8	4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84)	(2,810)	(2,127)	(3,132)	(701)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다. 정보화 사회 적응의 어려움 및 적응 지원 정책 욕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화 기기의 보편화에 따라 노인들 역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인의 정보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보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어려움 수준을 살펴보았다.

노인의 67.2%는 정보화 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어렵다 41.3%, 매우 어렵다 25.9%)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은 65.0%(어렵다 42.0%, 매우 어렵다 23.0%), 읍·면부 노인은 73.3%(어렵다 39.4%, 매우 어렵다 33.9%)로 읍·면부 노인의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의 60.8%(어렵다 43.0%, 매우 어렵다 17.8%), 여자 노인의 72.2%(어렵다 40.0%, 매우 어렵다 32.2%)가 어려움을 느끼며, 여자 노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90세 이상은 약간 다른 경향을 보였다. 또한, 매우 어렵다의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았으며, 어렵다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여, 연령군에 따라 어려움의 강도 차이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무배우 노인의 74.7%(어렵다 39.3%, 매우 어렵다 35.4%)가 어려움을 느끼며, 유배우 노인은 62.1%(어렵다 42.6%, 매우 어렵다 19.5%)로 무배우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독거가구의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74.4%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어렵다도 35.2%로 매우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나 무학은 91.6%(어렵다 29.9%, 매우 어렵다 61.7%)가 어려움을 느끼고, 매우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도 61.7%로 매우 높았다.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이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72.1%(어렵다 42.0%, 매우 어렵다 30.1%)로 취업 노인에 비해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중위소득 기준에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의 어려움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연가구소득 기준에서는 제1오분위가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기능상태 제한 수준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이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83.6%(어렵다 35.0%, 매우 어렵다 48.6%) 매우 높았으며, 매우 어렵다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표 9-44〉 정보화 사회 적응의 어려움

(단위: %, 명)

특성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계 (명)
전체 ¹⁾	0.6	7.1	25.1	41.3	25.9	100.0 (9,955)
지역						
동부	0.5	7.3	27.2	42.0	23.0	100.0 (7,359)
읍·면부	1.0	6.5	19.3	39.4	33.9	100.0 (2,596)
성						
남자	0.7	9.6	28.9	43.0	17.8	100.0 (4,384)
여자	0.5	5.1	22.2	40.0	32.2	100.0 (5,571)
연령						
65~69세	1.2	11.7	34.9	42.7	9.5	100.0 (3,465)
70~74세	0.5	8.0	26.6	43.1	21.9	100.0 (2,362)
75~79세	0.2	2.8	21.3	44.9	30.8	100.0 (1,729)
80~84세	0.1	2.7	15.1	36.3	45.8	100.0 (1,379)
85~89세	0.1	2.9	8.6	35.8	52.6	100.0 (781)
90세 이상	0.0	2.9	9.5	23.7	63.9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8	8.6	28.5	42.6	19.5	100.0 (5,987)
배우자 없음	0.3	4.9	20.1	39.3	35.4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0.2	5.4	20.0	39.2	35.2	100.0 (3,281)
노인부부	0.7	8.4	28.8	42.2	19.9	100.0 (5,509)
자녀동거	0.9	5.6	21.7	42.6	29.2	100.0 (993)
기타	0.5	7.4	24.8	46.2	21.2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0.0	1.1	7.3	29.9	61.7	100.0 (1,184)
초등학교	0.1	3.7	18.2	41.6	36.4	100.0 (2,810)
중학교	0.4	5.4	25.2	46.7	22.3	100.0 (2,127)
고등학교	0.9	11.2	35.0	43.0	9.8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2.7	17.9	38.9	35.0	5.5	100.0 (701)
현취업상태						
취업중	0.8	9.6	30.1	40.2	19.3	100.0 (3,926)
미취업	0.5	5.5	21.9	42.0	30.1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6	3.8	20.7	38.7	36.2	100.0 (1,989)
제2오분위	0.1	3.7	17.0	41.1	38.0	100.0 (1,983)
제3오분위	0.4	6.3	23.6	44.4	25.3	100.0 (1,981)
제4오분위	0.8	9.5	30.0	41.8	18.0	100.0 (2,007)
제5오분위	1.1	12.1	34.5	40.4	11.9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0.4	4.0	19.5	40.3	35.8	100.0 (3,722)
50%이상~100%미만	0.4	6.6	22.2	43.2	27.7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1.0	8.4	32.8	40.8	17.0	100.0 (1,657)
150%이상	1.0	13.2	34.2	40.9	10.7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0.1	2.6	13.8	35.0	48.6	100.0 (1,759)
제한 없음	0.7	8.1	27.6	42.6	21.0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정보화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디지털 시대에 잘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요소에 대한 조사 결과 노인 맞춤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29.5%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27.4%, 스마트 기기 이용료 지원 21.9%, 스마트 기기 보급 8.1%, 디지털 인프라 확대 6.7%, 공공 와이파이 확대 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동부 노인과 읍·면부 노인은 유사한 분포로 응답하여 지역별 큰 차이는 없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스마트 기기 보급의 경우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또한, 65~69세 연령군은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의 비율이 30.4%로 가장 높은 반면, 그 외 연령군은 노인 맞춤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독거가구와 자녀동거가구에서 노인 맞춤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부부가구와 기타 가구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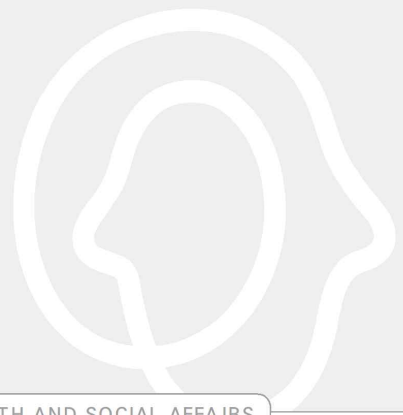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의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스마트 기기 보급과 노인 맞춤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비율이 높아,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였다.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집단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중하위층(제1오분위~제2오분위, 중위소득 100% 미만)의 경우 노인 맞춤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욕구가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에 비해 높은 반면, 중상위층(제3오분위~제5오분위 / 중위소득 100% 이상)의 경우 그와 반대 경향을 보인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스마트 기기 보급과 스마트 기기 이용료 지원의 비율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노인 맞춤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았으나,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집단은 노인 맞춤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의 비율이 유사하였다.

〈표 9-45〉 노년기 디지털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특성	스마트 기기 보급	스마트 기기 이용료 지원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노인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개발	디지털 인프라 확대	기타	계 (명)
전체 ¹⁾	8.1	21.9	6.0	27.4	29.5	6.7	0.4	100.0 (9,955)
지역								
동부	8.3	22.6	6.4	27.1	28.8	6.5	0.2	100.0 (7,359)
읍·면부	7.6	20.0	4.7	28.1	31.4	7.3	0.9	100.0 (2,596)
성								
남자	7.7	22.7	6.4	27.5	28.5	7.1	0.1	100.0 (4,384)
여자	8.5	21.3	5.6	27.3	30.3	6.4	0.6	100.0 (5,571)
연령								
65~69세	6.2	24.0	8.5	30.4	24.4	6.4	0.1	100.0 (3,465)
70~74세	8.1	22.2	5.6	28.0	29.5	6.5	0.2	100.0 (2,362)
75~79세	8.5	20.3	4.7	25.7	33.8	6.7	0.4	100.0 (1,729)
80~84세	9.1	21.7	3.3	23.0	34.7	7.6	0.6	100.0 (1,379)
85~89세	11.7	16.6	4.9	25.0	32.4	8.1	1.4	100.0 (781)
90세 이상	16.4	20.4	2.0	23.2	31.7	5.1	1.2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7	22.6	6.4	28.2	28.2	6.8	0.2	100.0 (5,987)
배우자 없음	8.8	21.0	5.4	26.2	31.4	6.6	0.6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8.8	21.9	5.3	25.3	31.9	6.2	0.7	100.0 (3,281)
노인부부	7.9	22.2	6.0	28.5	28.2	7.0	0.2	100.0 (5,509)
자녀동거	7.4	20.3	8.1	27.0	30.0	6.8	0.3	100.0 (993)
기타	6.3	23.9	6.3	34.9	22.4	6.1	0.0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11.3	20.9	3.3	21.6	33.8	7.3	1.9	100.0 (1,184)
초등학교	9.5	20.0	4.8	25.4	33.3	6.6	0.4	100.0 (2,810)
중학교	8.3	24.1	6.8	27.0	27.0	6.8	0.1	100.0 (2,127)
고등학교	6.6	22.3	7.0	30.3	27.9	5.8	0.0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3.7	23.5	8.3	33.3	21.2	10.1	0.0	100.0 (701)
현취업상태								
취업중	7.0	22.3	7.1	28.5	27.8	7.1	0.4	100.0 (3,926)
미취업	8.9	21.7	5.3	26.7	30.6	6.5	0.4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8	23.2	4.3	22.7	31.8	6.4	0.7	100.0 (1,989)
제2오분위	8.1	24.4	4.5	25.4	30.8	6.1	0.7	100.0 (1,983)
제3오분위	7.3	22.4	4.9	28.9	28.8	7.6	0.2	100.0 (1,981)
제4오분위	7.8	20.3	7.2	29.1	28.4	7.0	0.2	100.0 (2,007)
제5오분위	6.6	19.5	8.9	30.7	27.7	6.5	0.0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2	23.6	4.4	24.0	31.5	6.5	0.6	100.0 (3,722)
50%이상~100%미만	8.3	22.5	5.3	27.4	29.0	7.2	0.4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6.8	20.8	7.8	30.9	27.0	6.6	0.1	100.0 (1,657)
150%이상	6.7	18.7	8.6	31.0	28.3	6.7	0.0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10.4	21.8	4.5	22.0	33.5	6.8	1.0	100.0 (1,759)
제한 없음	7.6	22.0	6.3	28.5	28.6	6.7	0.2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제10장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제1절 주거 및 지역 환경

제2절 안전 실태

제3절 연령 규범 및 연령 차별

제4절 웰다잉(well-dying) 인식 및 죽음 관련 준비

제5절 삶의 만족도

제6절 노인정책에 대한 인식과 사회 신뢰수준

제10장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본 장에서는 노인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의 여러 요소를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노인들의 생활환경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노후 생활 실태 전반과 관련 인식을 조사한다. 특히 노인의 생활환경 전반과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알아보고, 또한 최근 쟁점이 되는 노인의 운전, 교통수단 활용 실태, 나아가 노인으로서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 학대 등 경험 등 생활실태를 자세하게 파악한다. 조사 결과를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노인의 높은 삶의 질을 위한 정책적 개입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표본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결과로 유효응답 사례 수가 적은 항목이나 세부 인구집단(90세 이상, 기타 가구, 전문대학 졸업 이상 등)의 분석 결과 등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1절 주거 및 지역환경

노년기는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일상의 활동 범위가 주거지를 중심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역환경은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노인이 거주하는 집과 지역사회의 물리적 여건, 생활을 위한 인프라 등 생활환경은 일상생활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적, 인지적 기능 제한으로 인해 외출, 여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 증가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환경과 원하는 거주 환경, 그리고 거주주택과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1. 주거 실태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종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노인이 44.8%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단독주택이 38.6%, 연립·다세대 주택이 16.1%를 차지한다. 단

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2008년에서 2020년까지 계속해서 감소하다가(2008년 60.5%, 2011년 55.7%, 2014년 51.7%, 2017년 48.8%, 2020년 35.3%), 이번 2023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주택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0.5%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거주 노인들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54.4%로 가장 높고, 읍·면 지역의 노인들은 반대로 단독주택에 거주(78.0%)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연립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동부가 20.2%인데 비해 읍·면부는 4.4%에 불과하여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 분류해 보면, 남녀 노인의 거주주택의 종류에는 큰 차이는 없고, 연령군별로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65~69세, 70~74세는 각각 34.7%, 36.2%로 30%대 수준이었고, 75세 이상은 모두 40%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고, 가구형태별로 봤을 때, 독거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42.5%인데 반해, 자녀동거가구는 49.4%로 비교적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거주 주택 종류 차이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 중에서는 65.9%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21.0%에 불과하지만,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의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각 59.6%, 47.9%로 높았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이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반면(취업: 46.0%, 미취업: 33.9%), 미취업 노인이 취업 노인에 비해 아파트 거주율이 높다(취업: 35.8%, 미취업: 50.5%).

가구소득에 연가구소득 분위에 따라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는데, 특히 중고소득 분위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사는 비율이 높았다. 연가구소득 제5분위에서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29.0%인데 반해 아파트 거주 비율은 52.4%이다. 기능상태의 경우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45.6%, 있을 경우는 41.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10-1〉 주택종류

(단위: %, 명)

특성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기타	계 (명)
전체 ¹⁾	38.6	44.8	16.1	0.5	100.0 (10,078)
지역					
동부	24.7	54.4	20.2	0.6	100.0 (7,450)
읍·면부	78.0	17.4	4.4	0.2	100.0 (2,628)
성					
남자	38.4	44.7	16.3	0.6	100.0 (4,429)
여자	38.8	44.8	16.0	0.4	100.0 (5,649)
연령					
65~69세	34.7	47.1	17.7	0.5	100.0 (3,473)
70~74세	36.2	47.1	16.0	0.7	100.0 (2,377)
75~79세	40.4	43.0	16.1	0.5	100.0 (1,743)
80~84세	45.3	39.5	14.8	0.4	100.0 (1,407)
85~89세	46.7	40.0	13.2	0.2	100.0 (825)
90세 이상	40.5	47.9	11.5	0.0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8.3	45.7	15.5	0.5	100.0 (6,047)
배우자 없음	39.2	43.4	16.9	0.5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39.5	42.5	17.4	0.5	100.0 (3,306)
노인부부	38.6	45.7	15.4	0.3	100.0 (5,562)
자녀동거	32.9	49.4	16.3	1.4	100.0 (1,035)
기타	56.5	32.1	11.0	0.4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59.6	28.3	11.7	0.3	100.0 (1,240)
초등학교	47.9	37.5	14.5	0.1	100.0 (2,846)
중학교	35.9	45.7	17.9	0.5	100.0 (2,139)
고등학교	27.8	52.4	19.0	0.8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21.0	65.9	12.1	1.0	100.0 (7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46.0	35.8	17.5	0.7	100.0 (3,931)
미취업	33.9	50.5	15.2	0.4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0.5	42.0	17.1	0.4	100.0 (2,014)
제2오분위	43.9	40.9	15.0	0.2	100.0 (2,014)
제3오분위	40.6	44.3	14.6	0.5	100.0 (2,014)
제4오분위	39.2	44.2	16.1	0.5	100.0 (2,020)
제5오분위	29.0	52.4	17.7	0.9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1.7	41.9	16.1	0.3	100.0 (3,776)
50%이상~100%미만	42.4	43.1	14.3	0.3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36.7	45.7	16.8	0.8	100.0 (1,673)
150%이상	28.2	52.5	18.3	0.9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43.2	41.1	15.5	0.3	100.0 (1,873)
제한 없음	37.6	45.6	16.3	0.6	100.0 (8,205)
2020년도	35.3	48.4	15.1	1.2	100.0 (10,097)

주: 1) 조사원 기입 문항으로 조사원이 응답자의 주택종류를 확인 후 기입한 결과를 분석함.

주거위치를 살펴보면,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비율이 0.8%로, 지상 1층 거주 비율은 43.6%, 지상 2층 이상 비율은 55.6%, 옥탑 거주자는 0.0%로 조사되었다.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비율이 감소하였다. 노인의 특성별 주거위치를 살펴보면,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비율은 지역별로 동부 지역(0.9%)이 읍·면부(0.5%)보다 높고, 여자(1.0%)가 남자(0.6%)보다 높으며, 무배우자(1.4%)가 유배우자(0.4%)보다 높았다. 한편, 독거가구가 지하 또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비율은 1.5%로, 부부가구(0.4%), 자녀동거가구(0.7%)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무학인 경우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비율이 1.8%로 중상위 학력집단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제한이 있는 노인이 지하 또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고,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하는 노인(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은 상위 소득 집단보다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비율이 높았다.

지상 1층에 거주하는 비율은 읍·면부가 78.8%로 동부 31.2%보다 높았고, 노인들만 거주하는 독거가구(46.0%)와 부부가구(43.0%)가 자녀동거가구(36.3%)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1층에 거주하는 비율이 49.0%로 제한 없는 노인(42.3%)보다 높았다.

평균 방 개수는 2.8개로 나타나 2020년 2.9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방 개수는 노인의 일반특성별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방 개수가 증가하였다.

거주지 내 승강기 설치 여부는 주택의 접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승강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4%, 승강기가 없는 비율은 41.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단층건물에 거주하는 비율은 14.8%로 나타났다. 승강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동부가 52.8%로 읍·면부 16.8%보다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위소득 대비 소득이 높을수록 승강기 설치 비율이 높았다. 단층건물에 거주하는 비율은 동부보다 읍·면부 거주자가 30.8%포인트 더 높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중위소득 대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았다.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경우(18.2%), 제한이 없는 경우(14.1%) 보다 단층건물에 거주하는 비율 4.1%포인트 더 높았다.

〈표 10-2〉 주거위치

(단위: %, 개, 명)

특성	주거위치				평균 방 개수	계 (명)
	지하 또는 반지하	지상 1층	지상 2층 이상	옥탑		
전체 ¹⁾	0.8	43.6	55.6	0.0	2.8	100.0 (10,078)
지역						
동부	0.9	31.2	67.9	0.0	2.8	100.0 (7,450)
읍·면부	0.5	78.8	20.7	0.0	2.9	100.0 (2,628)
성						
남자	0.6	43.2	56.1	0.1	2.9	100.0 (4,429)
여자	1.0	43.9	55.1	0.0	2.8	100.0 (5,649)
연령						
65~69세	0.7	40.0	59.3	0.1	2.9	100.0 (3,473)
70~74세	0.7	40.4	58.8	0.1	2.8	100.0 (2,377)
75~79세	1.0	44.8	54.2	0.0	2.8	100.0 (1,743)
80~84세	0.7	51.0	48.3	0.0	2.8	100.0 (1,407)
85~89세	1.4	52.0	46.7	0.0	2.8	100.0 (825)
90세 이상	0.1	46.0	53.9	0.0	2.7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4	42.4	57.2	0.0	2.9	100.0 (6,047)
배우자 없음	1.4	45.3	53.2	0.1	2.6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1.5	46.0	52.4	0.1	2.6	100.0 (3,306)
노인부부	0.4	43.0	56.6	0.0	2.9	100.0 (5,562)
자녀동거	0.7	36.3	63.0	0.0	3.0	100.0 (1,035)
기타	1.2	59.5	39.3	0.0	3.0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1.8	61.3	37.0	0.0	2.7	100.0 (1,240)
초등학교	0.6	53.0	46.3	0.0	2.7	100.0 (2,846)
중학교	0.9	40.3	58.8	0.0	2.8	100.0 (2,139)
고등학교	0.7	34.4	64.8	0.0	2.9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0.0	25.1	74.6	0.3	3.1	100.0 (7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0.6	51.7	47.6	0.1	2.9	100.0 (3,931)
미취업	0.9	38.4	60.7	0.0	2.8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4	46.3	52.3	0.0	2.6	100.0 (2,014)
제2오분위	1.1	48.9	50.0	0.0	2.7	100.0 (2,014)
제3오분위	0.3	45.3	54.4	0.1	2.8	100.0 (2,014)
제4오분위	0.6	43.6	55.7	0.1	2.9	100.0 (2,020)
제5오분위	0.6	33.8	65.5	0.0	3.0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	47.1	51.8	0.0	2.7	100.0 (3,776)
50%이상~100%미만	0.4	46.3	53.3	0.0	2.8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0.7	42.2	57.0	0.1	2.9	100.0 (1,673)
150%이상	0.8	33.5	65.6	0.1	3.0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1.2	49.0	49.7	0.1	2.7	100.0 (1,873)
제한 없음	0.7	42.3	56.9	0.0	2.8	100.0 (8,205)
2020년도	1.2	98.7		0.0	2.9	100.0 (10,097)

주: 1) 조사원 기입 문항으로 조사원이 응답자의 주택종류를 확인 후 기입한 결과를 분석함.

<표 10-3> 거주지 내 승강기 설치 여부

(단위: %, 명)

특성	승강기 있음	승강기 없음	해당없음(단층건물)	계 (명)
전체 ¹⁾	43.4	41.7	14.8	100.0 (10,078)
지역				
동부	52.8	40.4	6.8	100.0 (7,450)
읍·면부	16.8	45.5	37.6	100.0 (2,628)
성				
남자	43.7	41.8	14.5	100.0 (4,429)
여자	43.3	41.6	15.1	100.0 (5,649)
연령				
65~69세	46.3	41.2	12.5	100.0 (3,473)
70~74세	45.7	40.5	13.8	100.0 (2,377)
75~79세	42.1	42.3	15.6	100.0 (1,743)
80~84세	37.2	44.4	18.3	100.0 (1,407)
85~89세	37.7	42.4	19.9	100.0 (825)
90세 이상	45.1	39.1	15.8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4.5	40.5	15.1	100.0 (6,047)
배우자 없음	41.9	43.6	14.5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40.8	44.4	14.8	100.0 (3,306)
노인부부	44.5	40.1	15.3	100.0 (5,562)
자녀동거	47.9	40.5	11.6	100.0 (1,035)
기타	32.4	47.8	19.9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25.8	46.4	27.8	100.0 (1,240)
초등학교	35.7	44.2	20.1	100.0 (2,846)
중학교	43.4	43.6	12.9	100.0 (2,139)
고등학교	52.5	39.2	8.3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65.2	28.6	6.2	100.0 (7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34.4	45.3	20.3	100.0 (3,931)
미취업	49.2	39.4	11.4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0.2	45.0	14.8	100.0 (2,014)
제2오분위	39.2	42.7	18.1	100.0 (2,014)
제3오분위	41.7	42.3	16.0	100.0 (2,014)
제4오분위	43.7	42.1	14.2	100.0 (2,020)
제5오분위	52.3	36.5	11.2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0.3	43.3	16.4	100.0 (3,776)
50%이상~100%미만	40.7	43.7	15.6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45.2	40.8	14.1	100.0 (1,673)
150%이상	52.6	36.3	11.1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40.2	41.6	18.2	100.0 (1,873)
제한 없음	44.2	41.7	14.1	100.0 (8,205)

주: 1) 조사원 기입 문항으로 조사원이 승강기 설치 여부를 확인 후 기입한 결과를 분석함.

주거지의 생활편리성은 거주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 문항은 면접조사를 위해 가정에 방문한 조사원이 판단하여 기입하였다. 조사원은 방문한 주택의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 여부, ‘노인을 배려한 설비’ 유무를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노인 중 9.4%가 주거 환경이 불편한 구조에 거주하고 있고, 62.1%는 주거 환경이 불편하지는 않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없다.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있는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노인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 노인(8.4%)은 읍·면부(12.3%)보다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8.4%)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았고, 노인 배려 설비가 있는 비율이 30.6%로, 읍·면부(22.7%)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에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85~89세는 14.2%로 가장 높았고, 90세 이상에서도 13.8%로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노인 배려 설비가 있는 비율은 90세 이상에서 35.6%로 이하 연령군보다 높았다.

독거가구는 노인 배려 설비가 있는 비율이 24.8%로, 부부가구(29.7%)와 자녀동거가구(33.7%)에 비해 낮았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거주지에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비율이 증가한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은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39.2%이지만, 무학인 노인들의 경우 이러한 설비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24.6%에 그쳤다.

현재 취업 중인 노인의 경우,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26.9%로 나타나, 미취업 상태인 노인(29.6%)보다 약간 낮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제5오분위에서는 39.3%가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지만, 제1오분위에서는 이 비율이 23.8%에 불과하다.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27.6%이며,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에서는 이 비율이 32.8%로 더 높다.

<표 10-4> 주거지의 생활편리성(조사원 판단)

(단위: %, 명)

특성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배려설비 없음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음	기타	계 (명)
전체 ¹⁾	9.4	62.1	28.5	0.0	100.0 (10,078)
지역					
동부	8.4	61.0	30.6	0.0	100.0 (7,450)
읍·면부	12.3	65.0	22.7	0.0	100.0 (2,628)
성					
남자	8.5	62.7	28.7	0.0	100.0 (4,429)
여자	10.1	61.5	28.4	0.0	100.0 (5,649)
연령					
65~69세	7.6	63.5	28.9	0.0	100.0 (3,473)
70~74세	9.0	63.4	27.5	0.0	100.0 (2,377)
75~79세	9.6	61.9	28.5	0.0	100.0 (1,743)
80~84세	10.6	61.2	28.2	0.0	100.0 (1,407)
85~89세	14.2	57.3	28.5	0.0	100.0 (825)
90세 이상	13.8	50.5	35.6	0.0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2	61.9	29.8	0.0	100.0 (6,047)
배우자 없음	11.2	62.2	26.6	0.0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11.5	63.8	24.8	0.0	100.0 (3,306)
노인부부	8.0	62.3	29.7	0.0	100.0 (5,562)
자녀동거	10.7	55.7	33.7	0.0	100.0 (1,035)
기타	7.5	60.3	32.3	0.0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15.0	60.4	24.6	0.0	100.0 (1,240)
초등학교	11.9	64.1	23.9	0.0	100.0 (2,846)
중학교	8.4	63.5	28.0	0.0	100.0 (2,139)
고등학교	6.4	61.4	32.2	0.0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5.9	55.0	39.2	0.0	100.0 (7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9.1	64.0	26.9	0.0	100.0 (3,931)
미취업	9.6	60.8	29.6	0.0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2	64.0	23.8	0.0	100.0 (2,014)
제2오분위	12.9	62.7	24.3	0.0	100.0 (2,014)
제3오분위	9.0	65.4	25.5	0.0	100.0 (2,014)
제4오분위	6.5	63.8	29.7	0.0	100.0 (2,020)
제5오분위	6.4	54.3	39.3	0.0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2	62.8	25.0	0.0	100.0 (3,776)
50%이상~100%미만	9.3	65.0	25.6	0.0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6.5	63.5	30.0	0.0	100.0 (1,673)
150%이상	6.5	54.5	39.0	0.0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14.4	52.8	32.8	0.0	100.0 (1,873)
제한 없음	8.3	64.2	27.6	0.0	100.0 (8,205)
2020년도	8.9	71.3	19.8	—	100.0 (10,097)

주: 1) 조사원 응답 문항으로 조사원이 응답자의 주거환경을 확인 후 기입한 결과를 분석함.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를 보면, 자가는 80.3%, 전세는 9.0%, 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7.1%, 보증금 없는 월세는 0.5%, 무상으로 거주하는 비율은 3.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거주 노인의 자가 비중이 88.0%로 동부(77.6%)에 비해서 10.4%포인트 높으며, 동부는 11.2%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가 8.1%, 사글세가 0.5%로 나타났다. 무상으로 거주하는 비율은 읍·면부가 4.7%로 동부 2.6%에 비해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의 자가 비율이 82.6%, 여자는 78.4%로 남자가 자가의 비중이 높았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전세, 월세, 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대체로 연령군이 낮을수록 자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전세 거주 비율도 65~69세, 70~74세 연령군이 각각 11.3%, 10.2%로 80세 이상 연령군이 5% 내외인 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우자가 없거나 독거노인의 경우 자가 비율이 낮고, 전세, 월세, 무상 거주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독거노인은 69.3%가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12.6%가 전세, 11.52%는 보증금 있는 월세, 5.5%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 안정성이 특히 낮음을 볼 수 있다.

소득수준별 차이를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은 72.7%가 자가 거주인 반면, 150% 이상의 노인의 86.9%가 자가 거주로 나타나 주거형태에서 소득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 자가 거주 비율이 76.5%로 제한이 없는 노인(81.1%)보다 낮았다.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은 보증금 있는 월세나 사글세, 무상 거주 비율이 제한 없는 노인보다 높았다.

2020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자가 거주 노인의 비율은 0.5% 포인트 증가하였고, 전세는 0.8% 포인트 감소하였고 월세 거주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표 10-5> 거주형태

(단위: %, 명)

특성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무상	계 (명)
전체 ¹⁾	80.3	9.0	7.1	0.5	3.2	100.0 (10,078)
지역						
동부	77.6	11.2	8.1	0.5	2.6	100.0 (7,450)
읍·면부	88.0	2.7	4.3	0.4	4.7	100.0 (2,628)
성						
남자	82.6	8.3	6.9	0.4	1.9	100.0 (4,429)
여자	78.4	9.5	7.4	0.5	4.2	100.0 (5,649)
연령						
65~69세	80.2	11.3	7.1	0.3	1.2	100.0 (3,473)
70~74세	80.1	10.2	7.2	0.5	2.0	100.0 (2,377)
75~79세	80.5	7.8	8.6	0.4	2.7	100.0 (1,743)
80~84세	83.0	5.5	5.9	0.4	5.1	100.0 (1,407)
85~89세	77.2	4.5	7.4	1.0	9.8	100.0 (825)
90세 이상	76.7	6.7	4.2	0.7	11.6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6.3	7.2	4.8	0.2	1.6	100.0 (6,047)
배우자 없음	71.3	11.6	10.6	0.9	5.6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69.3	12.6	11.5	1.0	5.5	100.0 (3,306)
노인부부	86.0	7.2	5.0	0.2	1.6	100.0 (5,562)
자녀동거	84.4	6.8	4.8	0.4	3.7	100.0 (1,035)
기타	80.3	7.7	5.2	0.0	6.8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78.5	4.3	7.3	1.1	8.8	100.0 (1,240)
초등학교	80.4	6.7	8.5	0.4	4.0	100.0 (2,846)
중학교	77.1	12.3	8.2	0.5	2.0	100.0 (2,139)
고등학교	80.9	11.5	5.8	0.3	1.5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89.3	5.0	4.4	0.1	1.2	100.0 (7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84.4	8.8	4.8	0.3	1.8	100.0 (3,931)
미취업	77.7	9.1	8.6	0.6	4.1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7.5	12.8	11.8	1.2	6.7	100.0 (2,014)
제2오분위	76.0	8.0	10.6	0.8	4.5	100.0 (2,014)
제3오분위	83.7	7.2	6.4	0.3	2.5	100.0 (2,014)
제4오분위	85.4	8.4	4.9	0.0	1.3	100.0 (2,020)
제5오분위	88.8	8.3	2.0	0.0	0.8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2.7	10.3	10.5	0.9	5.6	100.0 (3,776)
50%이상~100%미만	83.2	6.8	7.0	0.4	2.5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85.1	8.7	4.8	0.0	1.3	100.0 (1,673)
150%이상	86.9	9.7	2.5	0.0	0.9	100.0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76.5	8.7	7.7	0.9	6.2	100.0 (1,873)
제한 없음	81.1	9.0	7.0	0.4	2.5	100.0 (8,205)
2020년도 ²⁾	79.8	9.8	7.1	0.5	2.8	10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전체적으로 현재 거주주택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응답은 6.4%,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4.3%,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7%였으며, ‘만족하지 않는 편’과 ‘전혀 만족하지 않음’은 각각 3.4%와 0.2%로 나타났다. 2020년 결과에서 매우만족 9.9%, 만족 65.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주거만족도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노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 성별, 연령군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주거만족도를 보였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거주주택에 만족하는 비율(매우 만족+만족하는 편)이 73.9%였으나,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만족도가 66.0%로 7.9%포인트 낮았다. 가구 형태에서는 독거가구(64.7%)가 부부가구(73.7%), 자녀동거가구(75.2%)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주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의 경우, ‘매우 만족’ 비율이 12.4%로 가장 높고, ‘만족’ 비율도 69.4%로 가장 높아, 총 81.8%의 만족도를 보였고, 반면 무학 노인은 65.8%의 만족도를 보여 16.0%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취업상태에서는 취업중인 노인의 만족도가 미취업 노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주택에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며,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8.2%)에서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위소득 50% 미만(4.7%)에서 가장 낮았다. 거주주택에 만족하는 비율(매우 만족+만족하는 편)은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가구는 64.2%로 조사되었으나,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은 75.1%로 10.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기능상태를 기준으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71.9%)의 만족도가 제한 있는 노인(65.0%)보다 6.9%포인트 높았다.

<표 10-6> 거주주택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지 않는 편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¹⁾	6.4	64.3	25.7	3.4	0.2	100.0 (9,955)
지역						
동부	6.5	64.6	25.6	3.1	0.2	100.0 (7,359)
읍·면부	6.1	63.5	26.1	4.0	0.3	100.0 (2,596)
성						
남자	7.1	64.6	25.1	2.9	0.2	100.0 (4,384)
여자	5.9	64.1	26.1	3.7	0.2	100.0 (5,571)
연령						
65~69세	6.9	64.2	25.7	2.9	0.3	100.0 (3,465)
70~74세	6.5	64.8	25.6	3.0	0.1	100.0 (2,362)
75~79세	5.9	62.4	28.1	3.6	0.1	100.0 (1,729)
80~84세	5.8	66.2	24.0	3.9	0.1	100.0 (1,379)
85~89세	7.8	65.4	21.8	4.6	0.4	100.0 (781)
90세 이상	2.5	60.5	31.0	4.4	1.6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7	67.2	23.7	2.3	0.1	100.0 (5,987)
배우자 없음	6.0	60.0	28.8	4.9	0.3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5.9	58.8	29.6	5.4	0.3	100.0 (3,281)
노인부부	6.6	67.1	24.1	2.2	0.1	100.0 (5,509)
자녀동거	7.9	67.3	20.9	3.4	0.5	100.0 (993)
기타	3.4	64.1	30.0	2.2	0.2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5.1	60.7	28.6	5.2	0.5	100.0 (1,184)
초등학교	6.1	63.8	26.0	3.9	0.2	100.0 (2,810)
중학교	5.4	64.0	27.3	3.2	0.1	100.0 (2,127)
고등학교	6.6	65.2	25.6	2.4	0.1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12.4	69.4	15.1	2.8	0.4	100.0 (7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6.7	64.7	25.4	3.0	0.2	100.0 (3,926)
미취업	6.3	64.0	25.9	3.6	0.2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6	55.5	33.5	5.4	0.1	100.0 (1,989)
제2오분위	4.1	62.0	29.0	4.5	0.4	100.0 (1,983)
제3오분위	6.4	67.9	22.6	3.0	0.1	100.0 (1,981)
제4오분위	8.0	68.2	21.6	2.0	0.3	100.0 (2,007)
제5오분위	8.0	67.9	21.9	2.0	0.1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7	59.5	31.0	4.8	0.1	100.0 (3,722)
50%이상~100%미만	7.1	66.5	23.2	2.7	0.5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7.2	68.7	21.2	2.7	0.3	100.0 (1,657)
150%이상	8.2	66.9	22.7	2.2	0.0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5.5	59.5	28.2	6.1	0.6	100.0 (1,759)
제한 없음	6.6	65.3	25.1	2.8	0.1	100.0 (8,196)
2020년도	9.9	65.7	20.7	3.5	0.2	100.0 (9,93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인들이 거주 주택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주택의 편리성, 안락성·쾌적성, 정숙성, 안전성, 경제성, 규모 적정성, 그리고 기타 등이 선택지로 포함되었다.

주택의 편리성에 대한 불만족이 전체 응답자 중 45.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주택 위치의 접근성 및 편의시설의 접근 용이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락성·쾌적성은 25.4%로 두 번째로 높은 불만족 요인이었다. 이는 주거환경의 품질, 즉 온도 조절, 환기, 조명, 소음 수준 등과 관련된 요소들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정숙성에 대한 불만족은 7.3%였으며, 이는 외부 소음이나 이웃과의 소음 문제 등에 기인할 수 있다. 안전성 불만족은 7.1%로, 주택 내외부의 안전 문제, 예를 들어 낙상 위험, 방범 문제 등이 원인일 수 있다. 경제성에 대한 불만족은 6.2%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대료, 유지비, 난방비 등 경제적 부담과 관련 있다.

규모 적정성 불만족은 8.5%로, 주택의 크기가 자신의 생활패턴이나 가구 구성원 수에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해당한다. 불만족 이유별로 지역, 성별, 연령 등 다양한 특성을 기반으로 한 차이도 관찰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는 주택의 편리성에 대한 불만족이 41.8%로, 읍·면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규모 적정성에 대한 불만이 9.1%로 나타나, 동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읍·면부는 편리성에 대한 불만족이 52.8%로 동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안전성에 대한 불만족도 8.5%로, 동부(6.4%)보다 높았다. 성별 차이에서는 남자는 정숙성(11.3%)과 안전성(8.6%)에 대한 불만족이 여자보다 높았고, 여자는 편리성(47.9%)과 안락성·쾌적성(26.2%)에 대한 불만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군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경제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의 경제성(8.3%)에 대한 불만족이 취업노인(2.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취업 상태에서 경제적 제약을 더 많이 느끼며,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별로는, 제1오분위에서는 편리성(53.5%)과 주택의 안정성·쾌적성(19.9%), 규모 적정성(8.6%)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낮은 노인들이 저렴한 주거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 주거지가 접근성이 낮고, 주거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안락성·쾌적성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5오분위는 안락성·쾌적성(31.5%)과 정숙성(16.0%)에 대한 불만족이 소득 중하위 노인보다 더 높았다. 고소득층은 삶의 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불만족을 느낄 수 있다.

한편,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주택의 편리성, 안전성, 규모 적정성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들이 거주하기에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 설비, 크기 등으로 거주주택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주택의 안락성과 쾌적성, 주택의 정숙성은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이 제한 있는 노인보다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안락성, 쾌적성, 정숙성 등의 요소가 일상생활 수행에 불편함이 없는 노인들의 주택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7> 거주주택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특성	주택의 편리성	주택의 안락성· 쾌적성	주택의 정숙성	주택의 안전성	주택의 경제성	주택의 규모 적정성	기타	계 (명)
전체 ¹⁾	45.2	25.4	7.3	7.1	6.2	8.5	0.3	100.0 (355)
지역								
동부	41.8	24.7	10.0	6.4	8.0	9.1	0.0	100.0 (244)
읍·면부	52.8	27.0	1.3	8.5	2.1	7.4	0.9	100.0 (110)
성								
남자	40.9	24.1	11.3	8.6	8.2	7.0	0.0	100.0 (135)
여자	47.9	26.2	4.9	6.2	4.9	9.5	0.4	100.0 (219)
연령								
65~69세	40.8	25.9	9.6	4.3	7.5	11.0	0.9	100.0 (110)
70~74세	47.8	31.7	3.8	2.4	10.5	3.8	0.0	100.0 (73)
75~79세	37.8	25.8	13.3	12.6	4.4	6.1	0.0	100.0 (63)
80~84세	47.1	24.1	6.3	12.4	5.1	4.9	0.0	100.0 (55)
85~89세	62.7	12.4	1.6	9.9	0.9	12.4	0.0	100.0 (39)
90세 이상	44.3	28.5	0.0	0.0	0.0	27.2	0.0	100.0 (1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0.5	26.7	12.2	8.1	4.6	7.9	0.0	100.0 (148)
배우자 없음	48.6	24.5	3.8	6.3	7.3	9.0	0.5	100.0 (207)
가구형태								
노인독거	50.9	22.9	3.0	6.2	7.3	9.2	0.5	100.0 (189)
노인부부	38.3	28.7	11.2	9.8	5.5	6.4	0.0	100.0 (123)
자녀동거	44.4	22.6	16.8	3.4	2.5	10.2	0.0	100.0 (38)
기타	0.0	65.1	0.0	0.0	8.7	26.2	0.0	100.0 (4)
교육수준								
무학	46.4	28.7	4.6	5.3	4.5	10.5	0.0	100.0 (66)
초등학교	44.8	27.9	2.9	10.3	7.4	6.6	0.0	100.0 (114)
중학교	49.3	18.6	9.9	5.0	5.5	10.5	1.3	100.0 (71)
고등학교	37.1	26.5	13.7	6.2	8.0	8.5	0.0	100.0 (80)
전문대학 이상	59.9	20.5	6.9	5.9	0.0	6.7	0.0	100.0 (22)
현 취업상태								
취업중	45.6	27.6	7.7	6.0	2.4	9.8	0.8	100.0 (126)
미취업	45.0	24.2	7.1	7.7	8.3	7.8	0.0	100.0 (2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5	19.9	6.7	5.2	5.3	8.6	0.9	100.0 (110)
제2오분위	36.5	29.0	6.8	9.6	9.8	8.3	0.0	100.0 (96)
제3오분위	52.1	25.6	0.7	9.0	7.6	4.9	0.0	100.0 (61)
제4오분위	43.0	25.2	10.5	1.8	1.4	18.1	0.0	100.0 (44)
제5오분위	36.2	31.5	16.0	8.9	3.4	4.0	0.0	100.0 (4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9.8	24.0	7.0	6.3	6.5	5.9	0.5	100.0 (180)
50%이상~100%미만	42.5	21.0	2.0	10.5	9.3	14.5	0.0	100.0 (87)
100%이상~150%미만	34.9	35.9	13.6	4.4	1.3	10.0	0.0	100.0 (48)
150%이상	42.9	28.8	12.7	6.4	3.7	5.5	0.0	100.0 (39)
기능상태								
제한 있음	48.2	20.4	2.0	9.4	6.3	13.8	0.0	100.0 (118)
제한 없음	43.8	27.9	9.9	6.0	6.1	5.9	0.4	100.0 (237)

주: 1) 본인응답자 9,955명 중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3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거주 지역환경 실태 및 만족도

노화가 진행되면서 생활 환경이 좁아지는 특성상, 노년기에 각종 구매 장소, 병원, 이용 시설, 공원 등이 근거리에 위치하는 것은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가족, 친지, 친구 등과의 교류, 각종 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노인 거주지에서 주요 기관이나 시설까지의 도보 이동시간 조사 결과를 동부와 읍·면부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일상용품 구매 장소의 경우, 노인의 거주지에서 10.6%가 5분 미만, 55.4%가 5~15분 거리에 위치하였다. 30분~1시간, 1시간 이상 걸리는 비율도 각각 6.3%, 5.8%로 나타났다. 일상용품 구매장소는 지역별 차이를 보였는데,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63.0%가 5~15분 거리에 이용 장소가 있다고 답했으나,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33.8% 만이 5~15분 거리에 일상용품 구매장소가 있다고 응답했다.

보건의료기관은 노인의 거주지에서 도보로 5분 미만 4.2%, 5~15분 36.4%, 15분에서 30분 39.0% 거리에 위치하여 약 80% 정도는 도보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동부와 읍·면부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동부에서는 보건의료기관이 걸어서 5~15분 거리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7%였지만 읍·면부는 18.2%에 불과했다. 읍·면부는 보건의료기관까지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24.5%에 달했으나, 동부에서 해당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행정복지센터의 노인 거주지와 거리는 도보 5분 미만 3.5%, 5~15분 28.5%, 15~30분 43.4%, 30분에서 1시간 16.2%, 1시간 이상의 거리에 있는 비율은 8.3%로 조사됐다. 읍·면부의 경우 접근성이 더욱 떨어져, 도보 1시간 이상 걸리는 비율이 25.9%로 높았다. 반면 동부에서 행정복지센터가 도보 1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 거주지와 도보 15~30분 거리에 위치한 비율(42.3%)이 가장 높았고,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또한 도보 15~30분 거리에 위치한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다. 이들 기관 또한 지역별 접근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노인 거주지와 도보 15~30분 거리에 위치한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은 22.0%포인트 차이,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은

20.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걸어서 1시간 이상에 위치한 비율의 동부와 읍·면부 차이는 노인(종합)복지관 24.1%포인트,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은 24.7%포인트였다.

버스 정류장·지하철역은 노인의 거주지에서 걸어서 5~15분 거리에 위치하는 비율이 57.8%로 조사되었고, 걸어서 15~30분 거리는 21.7%, 걸어서 5분 미만은 15.5%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이나 역의 경우 다른 기관이나 시설보다는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산책·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 도보 5분 이내에 있는 비율은 12.3%, 5~15분 48.2%로, 15~30분 30.7%로 조사되어 전체 노인의 90% 이상은 거주지에서 걸어서 30분 이내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걸어서 5분 미만에 공원이 위치한 비율은 동부 11.9%, 읍·면부 13.5%로 나타났다.

<표 10-8> 주요 기관·시설까지의 도보 이동시간: 지역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5분	걸어서 15분~30분	걸어서 30분~1시간	걸어서 1시간 이상	계 (명) ¹⁾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장소	10.6	55.4	22.0	6.3	5.8	100.0 (10,078)
동부	12.5	63.0	21.4	2.4	0.6	100.0 (7,450)
읍·면부	5.2	33.8	23.6	17.0	20.4	100.0 (2,628)
병·의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	4.2	36.4	39.0	13.1	7.3	100.0 (10,078)
동부	5.3	42.7	41.8	8.9	1.3	100.0 (7,450)
읍·면부	1.3	18.2	31.0	25.0	24.5	100.0 (2,628)
행정복지센터	3.5	28.5	43.4	16.2	8.3	100.0 (10,078)
동부	4.4	34.0	48.3	11.2	2.1	100.0 (7,450)
읍·면부	1.2	13.0	29.5	30.3	25.9	100.0 (2,628)
노인(종합)복지관	1.7	19.5	42.3	24.0	12.5	100.0 (10,078)
동부	2.1	23.2	48.0	20.4	6.2	100.0 (7,450)
읍·면부	0.5	8.9	26.0	34.3	30.3	100.0 (2,628)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1.8	18.0	41.9	25.0	13.4	100.0 (10,078)
동부	2.0	21.6	47.2	22.1	7.0	100.0 (7,450)
읍·면부	1.0	7.6	26.7	33.0	31.7	100.0 (2,628)
버스 정류장·지하철역	15.5	57.8	21.7	4.4	0.6	100.0 (10,078)
동부	16.0	58.6	21.2	4.0	0.3	100.0 (7,450)
읍·면부	14.0	55.8	23.2	5.5	1.5	100.0 (2,628)
산책, 운동할 수 있는 공원	12.3	48.2	30.7	7.0	1.9	100.0 (10,078)
동부	11.9	49.7	31.9	6.0	0.6	100.0 (7,450)
읍·면부	13.5	43.8	27.3	10.0	5.4	100.0 (2,628)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거주주택 내 안전설비·용품을 설치하거나 노인의 거주에 적합하게 개조하는 것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도움이 된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화장실이나 욕실에 안전 손잡이나 바를 설치한 비율은 18.2%이다. 29.7%의 노인 가구가 욕실 문손잡이를 더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단차(높이 차이)를 제거하여 이동의 편리성을 높인 가구는 22.6%이며, 낙상 방지를 위한 바닥재를 설치한 가구의 비율은 24.7%이다. 휠체어 이동이 용이하도록 출입문이나 복도를 개조한 비율은 13.8%이다. 화재나 가스 유출을 감지할 수 있는 화재/가스 감지기 설치율은 47.1%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이는 항목 중 하나이다. 비슷하게 46.5%의 가구에서 가스 누출이나 기타 위험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했으며, 9.8%의 가구만이 응급 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안전 기기를 갖추고 있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동부는 화재/가스 감지기와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율이 각각 49.4%, 48.0%로 비교적 높은 반면, 읍·면부 지역은 40.6%, 42.3%로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각종 안전설비나 용품을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안전손잡이나 안전바, 화재/가스 감지기 등은 설치 및 개조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설치 및 개조율에 큰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고, 가구형태에서 자녀동거가구가 독거 및 부부 가구에 비해 안전바와 안전손잡이 설치, 단차 제거, 미끄럼방지 등을 시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전설비 및 용품의 설치율이 높다. 특히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다른 그룹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설치, 개조율을 보인다. 취업 중인 노인보다는 미취업 노인 가구에서 안전설비 및 용품의 설치율이 약간 더 높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안전설비 및 용품의 설치율이 높다. 특히 제5오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설치율을 보인다.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 가구에서는 제한이 없는 가구에 비해 안전설비 및 용품의 설치율이 훨씬 높다. 특히 안전손잡이나 안전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한 비율은 두 집단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고, 열고 닫기 쉬운 문손잡이 설치, 단차 제거,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출입문과 복도 개조 등을 시행한 비율도 높았다.

<표 10-9> 거주주택 내 안전설비·용품 설치 및 개조 여부

(단위: %, 명)

특성	화장실이나 욕실 안전손잡이나 안전바	열고 닫기 쉬운 화장실 문 손잡이	문턱, 주택 내 계단 등 단차 제거	미끄럼방지 매트, 패드 또는 낙상방지 기능성 바닥재 설치	휠체어 통행 가능한 넓은 출입문과 복도	화재/가스 감지기	가스 안전 차단기	응급안전 기기	(명)
전체 ¹⁾	18.2	29.7	22.6	24.7	13.8	47.1	46.5	9.8	(10,078)
지역									
동부	17.3	30.3	24.6	25.8	14.2	49.4	48.0	9.7	(7,450)
읍·면부	20.7	28.0	16.8	21.6	12.5	40.6	42.3	10.0	(2,628)
성									
남자	16.7	30.3	23.0	23.5	14.4	47.3	45.2	8.6	(4,429)
여자	19.4	29.3	22.3	25.7	13.3	47.0	47.5	10.7	(5,649)
연령									
65~69세	12.8	29.7	22.9	22.4	14.8	46.6	41.0	7.3	(3,473)
70~74세	15.3	26.9	21.5	22.9	12.4	46.7	47.6	8.7	(2,377)
75~79세	21.4	30.9	22.9	26.5	13.4	47.7	50.9	11.4	(1,743)
80~84세	23.2	29.7	21.8	26.9	13.2	47.3	48.9	10.1	(1,407)
85~89세	29.6	33.6	22.5	31.5	13.6	48.4	51.5	16.3	(825)
90세 이상	32.7	36.3	30.2	26.3	19.6	49.5	51.3	19.5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7.6	30.9	24.1	24.7	14.5	47.4	46.4	9.1	(6,047)
배우자 없음	19.2	28.0	20.3	24.7	12.8	46.7	46.7	10.8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18.2	26.1	18.2	23.1	12.1	45.8	46.7	10.0	(3,306)
노인부부	17.1	30.2	23.6	24.0	14.1	47.4	46.4	8.7	(5,562)
자녀동거	22.3	37.7	30.5	32.3	17.5	49.0	45.4	13.4	(1,035)
기타	31.7	34.6	27.8	31.9	15.6	50.1	51.2	17.6	(174)
교육수준									
무학	25.5	28.2	16.9	27.4	12.7	42.7	44.7	11.9	(1,240)
초등학교	19.2	27.8	19.8	24.8	11.3	42.5	46.8	10.8	(2,846)
중학교	17.1	27.9	22.3	22.5	13.3	49.4	48.5	10.3	(2,139)
고등학교	15.4	30.4	25.4	23.6	15.1	49.1	45.4	8.1	(3,145)
전문대학 이상	17.2	42.3	32.1	31.7	21.3	57.4	47.4	7.5	(7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15.1	29.4	21.6	22.7	12.1	46.2	43.7	9.7	(3,931)
미취업	20.2	29.9	23.2	26.0	14.9	47.7	48.3	9.8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9.5	24.4	19.2	23.1	14.4	46.1	48.3	9.5	(2,014)
제2오분위	20.1	26.0	18.0	23.5	12.4	44.5	48.0	9.5	(2,014)
제3오분위	18.2	25.7	18.7	23.7	13.0	45.2	46.3	10.2	(2,014)
제4오분위	15.3	30.8	23.4	24.0	12.8	45.7	43.5	7.9	(2,020)
제5오분위	18.0	41.7	33.6	29.2	16.4	54.0	46.5	11.8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0.7	25.6	19.4	24.1	13.8	46.0	48.8	9.8	(3,776)
50%이상-100%미만	16.9	25.9	18.4	22.6	12.8	43.9	45.4	9.4	(2,801)
100%이상-150%미만	16.7	33.5	26.3	25.6	13.4	48.2	43.8	8.8	(1,673)
150%이상	16.5	40.5	32.1	28.5	15.8	53.4	45.7	11.3	(1,828)
기능상태									
제한 있음	27.6	36.0	28.5	38.3	20.8	50.5	50.6	11.8	(1,873)
제한 없음	16.1	28.3	21.2	21.6	12.2	46.3	45.6	9.3	(8,20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거주주택 내 안전설비·용품 설치 및 개조를 하지 않았으나 설치 및 개조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항목은 화재/가스 감지기(45.1%)이며, 가스안전차단기(44.1%), 미끄럼방지 매트, 패드 또는 낙상방지 기능성 바닥재 설치(41.9%), 화장실이나 욕실 안전손잡이나 안전바(38.2%) 순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부 지역에서는 동부 지역에 비해 모든 설비나 용품의 안전 설비나 용품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한편 여자 노인의 경우 남자 노인보다 안전설비나 용품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안전설비나 용품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가한다. 65~69세 구간에서는 화장실이나 욕실의 안전바 31.5%, 문손잡이는 25.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90세 이상은 각각 51.7%, 48.9%로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한편, 가구형태별로는 설치 및 개조 필요성에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응급 안전기기의 경우 독거가구와 부부가구가 필요성을 각각 40.1%, 39.0%로 응답하여 자녀동거가구와 기타 가구 34.7%, 32.7%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수준이 낮은 그룹(무학, 초등학교 졸업)에서 안전설비나 용품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들은 안전설비나 용품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특히, 제1오분위와 제2오분위에서는 미끄럼방지, 낙상방지를 위한 용품, 가스/화재 감지기, 화장실이나 욕실 안전손잡이나 안전바 등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위소득 50% 미만의 가구에서도 안전설비나 용품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필요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가구가 안전 개선을 위한 외부 지원이나 서비스를 더 필요로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신체적 제한이 있는 노인 가구에서는 제한이 없는 가구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안전설비나 용품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특히,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화재/가스 감지기(56.7%)와 가스 안전 차단기(58.0%), 응급안전 기기(49.5%)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표 10-10> 거주주택 내 안전설비·용품 설치 및 개조 필요성

(단위: %)

특성	화장실이나 욕실 안전손잡이나 안전바	열고 닫기 쉬운 화장실 또는 욕실 문 손잡이	문턱, 주택 내 계단 등 단차 제거	미끄럼방지 매트, 패드 또는 낙상방지 바닥재 설치	휠체어 통행 가능한 넓은 출입문과 복도	화재/가스 감지기	가스안전 차단기	응급안전 기기
전체 ¹⁾	38.2	31.7	35.8	41.9	27.7	45.1	44.1	38.8
지역								
동부	37.2	30.5	34.0	41.3	27.0	45.0	43.4	37.9
읍·면부	41.2	35.0	40.5	43.8	29.7	45.4	45.9	41.4
성								
남자	35.7	29.4	33.9	39.9	26.4	43.4	43.4	36.9
여자	40.3	33.4	37.3	43.6	28.8	46.4	44.6	40.4
연령								
65~69세	31.5	25.6	29.8	36.6	23.4	39.8	38.9	33.2
70~74세	40.6	33.2	37.1	43.5	29.1	49.8	47.1	42.0
75~79세	40.7	32.4	38.5	45.0	28.1	48.6	50.6	41.9
80~84세	44.3	35.4	38.6	45.4	31.6	49.1	48.5	42.7
85~89세	43.8	40.7	44.2	45.2	31.2	40.4	41.9	40.9
90세 이상	51.7	48.9	44.5	53.8	38.5	43.5	36.9	39.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7.6	30.6	35.7	41.8	27.6	46.2	44.9	38.9
배우자 없음	39.2	33.3	35.9	42.1	27.8	43.4	43.0	38.6
가구형태								
노인독거	39.5	33.5	36.2	42.8	27.7	42.4	43.5	40.1
노인부부	37.5	30.3	35.5	41.5	27.3	46.2	44.8	39.0
자녀동거	38.2	33.2	36.8	41.9	30.5	48.3	44.2	34.7
기타	35.4	29.5	32.5	40.4	26.5	44.5	31.7	32.7
교육수준								
무학	47.8	38.3	44.7	51.8	32.5	47.2	49.1	43.9
초등학교	39.0	31.4	37.4	40.7	29.3	47.1	45.9	41.1
중학교	40.7	31.4	36.0	42.6	28.5	48.4	45.9	41.8
고등학교	34.0	29.8	31.3	39.9	24.4	40.0	39.7	33.9
전문대학 이상	31.7	30.0	30.2	37.1	24.3	44.7	42.2	34.5
현 취업상태								
취업중	36.4	30.2	34.3	40.7	26.0	44.5	45.2	36.1
미취업	39.5	32.7	36.8	42.8	28.9	45.5	43.3	40.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3.7	36.3	38.8	45.4	32.1	44.1	41.0	42.7
제2오분위	43.5	36.3	41.1	45.6	32.9	48.5	47.5	45.8
제3오분위	36.4	30.5	37.9	42.9	25.4	46.7	48.0	38.8
제4오분위	34.8	27.7	29.0	37.7	24.5	42.1	43.1	34.3
제5오분위	33.0	26.2	30.9	37.9	23.6	43.8	40.9	32.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3.9	36.9	40.5	45.9	32.7	47.1	44.7	44.3
50%이상~100%미만	38.4	30.7	36.4	42.2	27.0	45.6	45.7	39.3
100%이상~150%미만	31.9	25.9	30.7	38.5	24.1	43.4	45.4	34.0
150%이상	32.5	26.1	28.3	36.3	21.8	41.1	39.1	31.1
기능상태								
제한 있음	51.2	45.2	48.0	58.7	37.1	56.7	58.0	49.5
제한 없음	35.7	28.9	33.3	38.9	25.8	42.7	41.2	36.5

주: 1) 전체응답자 10,078명 중 각 설비·용품별로 설치 및 개조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노인의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각종 편의시설, 교통, 안전과 같은 외적 인프라와 함께 이웃 교류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평균 점수는 3.4에서 3.6 사이로,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항목별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만족도(매우 만족+만족)를 보인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61.8%이었고, 상업시설 이용편의성 60.2%, 공원 및 녹지 이용편의성 59.7%, 이웃과의 교류기회 59.1% 순이었다. 이에 반해, 지역사회 환경에서 불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불만족+매우 불만족)은 의료시설 이용편의성(12.4%), 공공기관 이용편의성(12.0%) 순이다.

이렇게 지역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역사회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나게 된다. 노인의 지역사회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5점으로, 매우 만족 3.4%, 만족 48.2%로 조사되어 절반 이상(51.6%)은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44.4%이며, 불만족은 3.9%, 매우 불만족하는 비율은 0.1%로 조사되었다.

<표 10-11>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¹⁾ (명)	평균 ²⁾
상업시설 이용편의성	5.7	54.5	29.9	8.0	1.9	100.0 (9,955)	3.5
의료시설 이용편의성	7.3	44.7	35.6	10.3	2.1	100.0 (9,955)	3.4
공공기관 이용편의성	5.2	41.4	41.4	10.2	1.8	100.0 (9,955)	3.4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10.6	51.2	30.8	6.8	0.5	100.0 (9,955)	3.6
공원 및 녹지 이용편의성	11.8	47.9	32.5	7.4	0.4	100.0 (9,955)	3.6
주변 도로의 보행 안전	6.6	46.0	39.5	7.7	0.3	100.0 (9,955)	3.5
치안 및 범죄 등에 대한 방법 상태	5.6	47.8	40.5	6.0	0.2	100.0 (9,955)	3.5
이웃과의 교류기회	6.7	52.4	36.0	4.8	0.1	100.0 (9,955)	3.6
지역사회 환경 전반	3.4	48.2	44.4	3.9	0.1	100.0 (9,955)	3.5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아래에서는 응답 노인의 특성에 따른 상업시설, 의료시설, 공공기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를 차례로 살펴본다.

상업시설 이용편의성은 지역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동부 지역의 만족도(매우 만족+만족)가 68.1%로 읍·면부(37.8%)보다 높다. 이는 동부 지역의 높은 상업시설 접근성을 나타낸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족도에 큰 변화는 없으나, 85세 이상 노인은 이하 연령군보다 만족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령일수록 상업시설 접근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집단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73.3%)를 보인다. 한편, 취업 중 노인보다 미취업 노인이, 저소득보다는 중소득 이상 노인,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보다 없는 노인이 상업시설 이용 편의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의료시설 이용편의성 만족도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동부 지역 노인들이 읍·면부에 비해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동부 58.8%, 읍·면부 32.6%).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연령군별로는,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령군별 차이는 크지 않았고,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들만 거주하는 노인부부, 독거가구가 자녀동거가구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자녀동거가구가 의료시설 이용편의성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비율이 56.7%로, 독거가구 51.2%, 부부가구 51.8%에 비해 높았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가진 노인들이 의료시설 이용에 대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교육수준이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14.3%로 나타나 무학, 초등학교 졸업이 각각 4.0%, 5.6% 만족도를 보인 것보다 높았다.

공공기관 이용편의성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동부 지역 만족도(매우 만족+만족)는 51.8%인 반면, 읍·면부는 31.9%로 약 2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고,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공기관 이용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졌다. 예를 들면, 무학 응답자의 만족도는 38.9%로 나타났으나,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는 53.0%가 만족하고 있다. 한편,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이 만족도가 높았다.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만족도(매우 만족+만족)는 66.7%였으나, 읍·면부는 48.0%에 불과해 지역 차이를 보였다. 연령

대가 높아질수록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고령의 노인이 이동성 제한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더 낮은 만족도를 보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가구형태별 차이를 살펴보면, 독거가구(60.9%)보다 부부가구(62.3%)와 자녀동거가구(63.1%)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 가족 구성원의 도움이 대중교통 이용 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62.5%)이 제한이 있는 노인(58.7%)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10-12>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 상업시설 이용편의성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평균 ²⁾
전체 ¹⁾	5.7	54.5	29.9	8.0	1.9	100.0 (9,955)	3.5
지역							
동부	7.0	61.1	29.0	2.8	0.2	100.0 (7,359)	3.7
읍·면부	2.0	35.8	32.6	22.9	6.7	100.0 (2,596)	3.0
성							
남자	5.5	55.4	29.9	7.7	1.6	100.0 (4,384)	3.6
여자	5.8	53.8	30.0	8.3	2.1	100.0 (5,571)	3.5
연령							
65~69세	5.9	56.5	28.5	7.4	1.8	100.0 (3,465)	3.6
70~74세	5.8	54.9	30.3	7.8	1.2	100.0 (2,362)	3.6
75~79세	5.5	54.2	30.6	7.8	1.9	100.0 (1,729)	3.5
80~84세	5.4	54.3	28.3	9.4	2.6	100.0 (1,379)	3.5
85~89세	5.8	49.5	33.5	8.4	2.8	100.0 (781)	3.5
90세 이상	2.7	42.4	41.2	11.1	2.5	100.0 (239)	3.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7	55.3	29.5	8.0	1.6	100.0 (5,987)	3.6
배우자 없음	5.6	53.4	30.6	8.1	2.3	100.0 (3,968)	3.5
가구형태							
노인독거	5.9	52.5	31.1	8.0	2.6	100.0 (3,281)	3.5
노인부부	5.7	55.3	29.2	8.3	1.6	100.0 (5,509)	3.6
자녀동거	5.3	57.5	30.2	6.3	0.7	100.0 (993)	3.6
기타	3.1	50.7	31.8	11.2	3.2	100.0 (172)	3.4
교육수준							
무학	4.4	41.7	33.4	14.4	6.2	100.0 (1,184)	3.2
초등학교	4.9	53.9	29.8	9.1	2.3	100.0 (2,810)	3.5
중학교	5.5	54.9	30.2	8.3	1.0	100.0 (2,127)	3.6
고등학교	5.9	57.7	30.4	5.4	0.6	100.0 (3,132)	3.6
전문대학 이상	10.0	63.3	21.9	3.9	1.0	100.0 (701)	3.8
현 취업상태							
취업중	5.2	51.8	29.8	10.7	2.5	100.0 (3,926)	3.5
미취업	6.0	56.3	30.0	6.3	1.4	100.0 (6,029)	3.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2	52.1	32.3	8.7	2.7	100.0 (1,989)	3.5
제2오분위	3.9	51.4	32.0	9.9	2.8	100.0 (1,983)	3.4
제3오분위	5.7	56.1	27.6	8.4	2.2	100.0 (1,981)	3.5
제4오분위	8.3	56.5	27.3	7.1	0.8	100.0 (2,007)	3.6
제5오분위	6.2	56.5	30.5	5.9	0.9	100.0 (1,995)	3.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1	51.9	32.2	9.5	2.4	100.0 (3,722)	3.5
50%이상~100%미만	6.3	53.9	29.1	8.2	2.4	100.0 (2,759)	3.5
100%이상~150%미만	7.5	59.2	25.3	6.7	1.2	100.0 (1,657)	3.7
150%이상	6.2	56.5	30.9	5.9	0.6	100.0 (1,817)	3.6
기능상태							
제한 있음	4.7	48.2	35.7	9.1	2.2	100.0 (1,759)	3.4
제한 없음	5.9	55.9	28.7	7.8	1.8	100.0 (8,196)	3.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10-13>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 의료시설 이용편의성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평균 ²⁾
전체 ¹⁾	7.3	44.7	35.6	10.3	2.1	100.0 (9,955)	3.4
지역							
동부	8.8	50.0	35.1	5.8	0.3	100.0 (7,359)	3.6
읍·면부	2.9	29.7	37.1	23.2	7.1	100.0 (2,596)	3.0
성							
남자	6.9	44.4	36.3	10.5	1.9	100.0 (4,384)	3.4
여자	7.6	44.9	35.1	10.2	2.2	100.0 (5,571)	3.5
연령							
65~69세	7.5	45.8	35.4	9.7	1.6	100.0 (3,465)	3.5
70~74세	8.1	45.5	34.7	10.0	1.7	100.0 (2,362)	3.5
75~79세	6.8	44.3	36.3	10.1	2.5	100.0 (1,729)	3.4
80~84세	7.6	42.2	34.9	12.5	2.9	100.0 (1,379)	3.4
85~89세	6.0	42.8	38.4	9.8	3.1	100.0 (781)	3.4
90세 이상	2.0	44.6	39.2	12.6	1.6	100.0 (239)	3.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5	44.7	35.2	10.6	2.0	100.0 (5,987)	3.5
배우자 없음	6.9	44.7	36.3	9.9	2.1	100.0 (3,968)	3.4
가구형태							
노인독거	7.0	44.2	36.4	10.1	2.4	100.0 (3,281)	3.4
노인부부	7.5	44.3	35.2	10.9	2.0	100.0 (5,509)	3.4
자녀동거	7.6	49.1	35.3	6.9	1.1	100.0 (993)	3.6
기타	3.1	42.9	36.4	14.5	3.2	100.0 (172)	3.3
교육수준							
무학	4.0	35.7	37.6	16.8	5.9	100.0 (1,184)	3.2
초등학교	5.6	43.7	37.2	10.9	2.6	100.0 (2,810)	3.4
중학교	6.7	46.2	35.1	10.5	1.5	100.0 (2,127)	3.5
고등학교	8.9	46.3	36.0	8.2	0.6	100.0 (3,132)	3.5
전문대학 이상	14.3	52.1	26.0	6.1	1.6	100.0 (701)	3.7
현 취업상태							
취업중	6.7	40.7	36.9	12.5	3.2	100.0 (3,926)	3.4
미취업	7.7	47.3	34.8	8.9	1.3	100.0 (6,029)	3.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6	41.8	39.1	10.4	3.0	100.0 (1,989)	3.4
제2오분위	4.8	43.6	36.8	12.4	2.4	100.0 (1,983)	3.4
제3오분위	7.2	44.1	34.4	11.6	2.6	100.0 (1,981)	3.4
제4오분위	9.4	46.2	34.2	8.9	1.3	100.0 (2,007)	3.5
제5오분위	9.4	47.7	33.7	8.3	0.9	100.0 (1,995)	3.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5	42.1	38.2	11.5	2.6	100.0 (3,722)	3.4
50%이상~100%미만	6.8	45.2	34.4	11.0	2.7	100.0 (2,759)	3.4
100%이상~150%미만	9.9	47.6	32.9	8.3	1.3	100.0 (1,657)	3.6
150%이상	9.4	46.7	34.7	8.6	0.6	100.0 (1,817)	3.6
기능상태							
제한 있음	5.1	44.6	35.5	12.3	2.4	100.0 (1,759)	3.4
제한 없음	7.7	44.7	35.7	9.9	2.0	100.0 (8,196)	3.5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10-14>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 공공기관 이용편의성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평균 ²⁾
전체 ¹⁾	5.2	41.4	41.4	10.2	1.8	100.0 (9,955)	3.4
지역							
동부	6.0	45.8	42.2	5.7	0.3	100.0 (7,359)	3.5
읍·면부	2.8	29.1	39.3	22.9	5.9	100.0 (2,596)	3.0
성							
남자	5.1	41.8	41.2	10.5	1.4	100.0 (4,384)	3.4
여자	5.2	41.1	41.6	10.0	2.0	100.0 (5,571)	3.4
연령							
65~69세	5.1	40.9	41.6	11.1	1.3	100.0 (3,465)	3.4
70~74세	6.1	43.1	40.2	9.0	1.5	100.0 (2,362)	3.4
75~79세	5.1	41.5	41.9	9.3	2.1	100.0 (1,729)	3.4
80~84세	4.6	41.4	40.4	11.1	2.5	100.0 (1,379)	3.3
85~89세	4.7	39.9	43.1	9.7	2.7	100.0 (781)	3.3
90세 이상	1.4	37.9	47.5	12.4	0.8	100.0 (239)	3.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8	41.6	41.0	10.0	1.7	100.0 (5,987)	3.4
배우자 없음	4.2	41.2	42.1	10.6	1.9	100.0 (3,968)	3.4
가구형태							
노인독거	3.9	41.6	41.8	10.7	2.0	100.0 (3,281)	3.3
노인부부	5.7	41.4	41.2	10.1	1.7	100.0 (5,509)	3.4
자녀동거	6.8	42.6	41.8	8.0	0.9	100.0 (993)	3.5
기타	4.3	34.2	41.0	17.3	3.2	100.0 (172)	3.2
교육수준							
무학	2.2	36.7	39.6	15.9	5.5	100.0 (1,184)	3.1
초등학교	4.6	40.5	42.2	10.4	2.3	100.0 (2,810)	3.3
중학교	5.0	43.3	41.0	9.9	0.9	100.0 (2,127)	3.4
고등학교	6.3	42.0	42.8	8.3	0.7	100.0 (3,132)	3.4
전문대학 이상	7.4	45.6	36.7	9.7	0.5	100.0 (701)	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5.3	38.2	40.4	13.4	2.6	100.0 (3,926)	3.3
미취업	5.0	43.5	42.1	8.1	1.2	100.0 (6,029)	3.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6	41.2	43.5	9.7	1.9	100.0 (1,989)	3.3
제2오분위	4.3	39.4	42.1	11.8	2.5	100.0 (1,983)	3.3
제3오분위	4.9	41.7	39.9	11.1	2.5	100.0 (1,981)	3.4
제4오분위	6.0	43.3	40.6	9.2	0.9	100.0 (2,007)	3.4
제5오분위	7.0	41.7	41.1	9.4	0.9	100.0 (1,995)	3.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1	40.2	43.0	10.5	2.2	100.0 (3,722)	3.3
50%이상~100%미만	5.2	41.6	39.9	11.1	2.2	100.0 (2,759)	3.4
100%이상~150%미만	6.3	42.5	41.1	8.8	1.3	100.0 (1,657)	3.4
150%이상	6.1	42.7	40.8	9.7	0.6	100.0 (1,817)	3.4
기능상태							
제한 있음	3.2	38.9	44.5	11.7	1.7	100.0 (1,759)	3.3
제한 없음	5.6	42.0	40.8	9.9	1.8	100.0 (8,196)	3.4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10-15>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평균 ²⁾
전체 ¹⁾	10.6	51.2	30.8	6.8	0.5	100.0 (9,955)	3.6
지역							
동부	12.4	54.3	28.8	4.4	0.2	100.0 (7,359)	3.7
읍·면부	5.6	42.4	36.7	13.7	1.6	100.0 (2,596)	3.4
성							
남자	10.8	51.4	30.8	6.7	0.4	100.0 (4,384)	3.7
여자	10.5	51.1	30.9	6.9	0.7	100.0 (5,571)	3.6
연령							
65~69세	11.2	51.5	30.6	6.3	0.4	100.0 (3,465)	3.7
70~74세	10.6	52.2	30.4	6.4	0.4	100.0 (2,362)	3.7
75~79세	11.1	51.4	31.0	6.0	0.6	100.0 (1,729)	3.7
80~84세	11.2	49.7	29.7	8.5	0.9	100.0 (1,379)	3.6
85~89세	8.0	50.1	32.8	8.2	0.8	100.0 (781)	3.6
90세 이상	5.1	48.8	37.1	8.6	0.4	100.0 (239)	3.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0.9	51.4	30.6	6.6	0.5	100.0 (5,987)	3.7
배우자 없음	10.1	51.0	31.2	7.0	0.6	100.0 (3,968)	3.6
가구형태							
노인독거	10.8	50.1	31.3	7.1	0.7	100.0 (3,281)	3.6
노인부부	11.1	51.2	30.3	6.8	0.5	100.0 (5,509)	3.7
자녀동거	8.1	55.0	31.0	5.7	0.2	100.0 (993)	3.7
기타	5.0	52.2	37.1	5.7	0.0	100.0 (172)	3.6
교육수준							
무학	7.1	42.2	38.3	10.6	1.7	100.0 (1,184)	3.4
초등학교	9.4	52.4	30.2	7.4	0.6	100.0 (2,810)	3.6
중학교	10.2	52.5	30.0	7.1	0.3	100.0 (2,127)	3.7
고등학교	12.2	52.7	30.0	4.8	0.3	100.0 (3,132)	3.7
전문대학 이상	15.7	51.5	26.9	5.9	0.1	100.0 (701)	3.8
현 취업상태							
취업중	10.1	49.8	31.2	8.1	0.8	100.0 (3,926)	3.6
미취업	11.0	52.2	30.6	5.9	0.4	100.0 (6,029)	3.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0	50.0	33.4	7.8	0.7	100.0 (1,989)	3.6
제2오분위	9.4	50.0	32.3	7.6	0.7	100.0 (1,983)	3.6
제3오분위	10.9	52.0	28.7	7.6	0.8	100.0 (1,981)	3.6
제4오분위	13.7	52.8	28.5	4.9	0.1	100.0 (2,007)	3.8
제5오분위	11.1	51.3	31.2	6.1	0.3	100.0 (1,995)	3.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4	51.1	32.2	7.6	0.7	100.0 (3,722)	3.6
50%이상~100%미만	11.7	50.2	30.3	7.1	0.7	100.0 (2,759)	3.6
100%이상~150%미만	12.2	55.2	27.6	4.6	0.3	100.0 (1,657)	3.7
150%이상	12.2	49.4	31.7	6.6	0.2	100.0 (1,817)	3.7
기능상태							
제한 있음	7.2	51.5	33.2	7.7	0.5	100.0 (1,759)	3.6
제한 없음	11.3	51.2	30.3	6.6	0.6	100.0 (8,196)	3.7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아래에서는 응답노인의 특성에 따른 공원 및 녹지 이용편의성, 주변도로 보행 안전에 대한 만족도를 차례로 살펴본다.

공원 및 녹지 이용 편의성은 동부 지역의 노인이 읍·면부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매우 만족+만족)이 높았다(동부 61.0%, 읍·면부 55.9%). 성별, 연령군,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에 따른 큰 차이는 없고,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가 만족하는 비율이 65.7%로, 무학(55.1%), 초등학교 졸업(61.4%) 등 이하 학력자에 비해 높았다. 취업수준, 소득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은 공원 및 녹지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는 비율이 60.5%로, 제한이 있는 노인(56.2%)보다 높았다. 이는 기능제한이 없어서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노인들이 공원 및 녹지 접근과 이용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에 만족하는 비율(매우 만족+만족)은 동부 55.2%, 읍·면부 45.3%로 동부 지역 노인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연령군에 따라서는 80세 이상 연령군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감소하였다(80~84세 53.1%, 85~89세 51.2%, 90세 이상 48.4%).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고,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무학, 초등학교 졸업인 노인의 만족도는 각각 47.2%, 52.9%인데 반해, 전문대학 이상 학력 노인의 만족도는 58.2%였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행 안전도에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평균 점수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신체적 제한이 없는 노인은 제한이 있는 노인보다 보행 안전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이 일상적인 보행 시 더 많은 위험을 느끼거나 불편을 겪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표 10-16>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 공원 및 녹지 이용편의성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평균 ²⁾
전체 ¹⁾	11.8	47.9	32.5	7.4	0.4	100.0 (9,955)	3.6
지역							
동부	12.6	48.4	32.4	6.3	0.2	100.0 (7,359)	3.7
읍·면부	9.4	46.5	32.6	10.7	0.8	100.0 (2,596)	3.5
성							
남자	12.5	46.2	33.4	7.6	0.3	100.0 (4,384)	3.6
여자	11.3	49.3	31.8	7.3	0.4	100.0 (5,571)	3.6
연령							
65~69세	11.4	47.1	32.3	8.8	0.3	100.0 (3,465)	3.6
70~74세	12.0	49.2	31.6	6.8	0.4	100.0 (2,362)	3.7
75~79세	13.2	46.3	33.8	6.4	0.3	100.0 (1,729)	3.7
80~84세	13.3	47.7	31.2	7.2	0.6	100.0 (1,379)	3.7
85~89세	9.1	51.8	33.2	5.5	0.5	100.0 (781)	3.6
90세 이상	5.0	47.2	38.8	9.0	0.0	100.0 (239)	3.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2.1	47.3	32.5	7.8	0.4	100.0 (5,987)	3.6
배우자 없음	11.4	48.9	32.4	6.9	0.4	100.0 (3,968)	3.6
가구형태							
노인독거	11.8	48.8	31.8	7.2	0.5	100.0 (3,281)	3.6
노인부부	12.0	47.3	32.7	7.6	0.4	100.0 (5,509)	3.6
자녀동거	12.0	47.2	34.0	6.8	0.0	100.0 (993)	3.6
기타	5.5	55.9	29.0	9.7	0.0	100.0 (172)	3.6
교육수준							
무학	9.3	45.8	34.8	9.4	0.7	100.0 (1,184)	3.5
초등학교	11.0	50.4	31.0	7.1	0.5	100.0 (2,810)	3.6
중학교	11.9	47.1	34.2	6.5	0.4	100.0 (2,127)	3.6
고등학교	12.1	47.0	33.1	7.6	0.2	100.0 (3,132)	3.6
전문대학 이상	17.5	48.2	26.4	7.8	0.1	100.0 (701)	3.8
현 취업상태							
취업중	11.3	47.0	32.9	8.4	0.4	100.0 (3,926)	3.6
미취업	12.1	48.5	32.2	6.8	0.4	100.0 (6,029)	3.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0	48.8	33.7	7.8	0.6	100.0 (1,989)	3.6
제2오분위	12.3	48.1	31.4	7.9	0.4	100.0 (1,983)	3.6
제3오분위	13.0	48.1	31.8	6.9	0.3	100.0 (1,981)	3.7
제4오분위	13.0	46.9	34.0	5.9	0.3	100.0 (2,007)	3.7
제5오분위	11.7	47.7	31.5	8.6	0.3	100.0 (1,995)	3.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0.4	48.3	32.8	8.0	0.5	100.0 (3,722)	3.6
50%이상~100%미만	12.7	47.9	32.3	6.8	0.3	100.0 (2,759)	3.7
100%이상~150%미만	13.4	46.8	33.3	6.0	0.5	100.0 (1,657)	3.7
150%이상	11.8	48.1	31.3	8.5	0.3	100.0 (1,817)	3.6
기능상태							
제한 있음	9.6	46.6	36.1	7.4	0.3	100.0 (1,759)	3.6
제한 없음	12.3	48.2	31.7	7.4	0.4	100.0 (8,196)	3.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10-17>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 주변도로 보행 안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평균 ²⁾
전체 ¹⁾	6.6	46.0	39.5	7.7	0.3	100.0 (9,955)	3.5
지역							
동부	7.6	47.6	38.5	6.1	0.1	100.0 (7,359)	3.6
읍·면부	3.9	41.4	42.0	12.1	0.6	100.0 (2,596)	3.4
성							
남자	6.3	45.7	39.9	7.8	0.2	100.0 (4,384)	3.5
여자	6.9	46.2	39.1	7.6	0.3	100.0 (5,571)	3.5
연령							
65~69세	6.8	45.7	38.8	8.5	0.2	100.0 (3,465)	3.5
70~74세	7.5	45.5	39.9	6.9	0.2	100.0 (2,362)	3.5
75~79세	6.0	47.1	39.1	7.3	0.4	100.0 (1,729)	3.5
80~84세	5.9	47.2	39.7	6.8	0.5	100.0 (1,379)	3.5
85~89세	6.9	44.3	40.9	7.7	0.2	100.0 (781)	3.5
90세 이상	3.9	44.5	40.1	11.2	0.3	100.0 (239)	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0	45.2	39.8	7.7	0.3	100.0 (5,987)	3.5
배우자 없음	6.1	47.0	39.0	7.6	0.2	100.0 (3,968)	3.5
가구형태							
노인독거	6.7	46.9	38.8	7.5	0.2	100.0 (3,281)	3.5
노인부부	7.0	45.2	39.8	7.7	0.2	100.0 (5,509)	3.5
자녀동거	5.1	46.0	40.3	8.1	0.5	100.0 (993)	3.5
기타	2.0	54.1	35.9	8.0	0.0	100.0 (172)	3.5
교육수준							
무학	3.3	43.9	41.7	10.9	0.2	100.0 (1,184)	3.4
초등학교	6.1	46.8	39.6	7.1	0.5	100.0 (2,810)	3.5
중학교	5.1	47.2	40.8	6.8	0.1	100.0 (2,127)	3.5
고등학교	8.3	45.1	39.0	7.5	0.1	100.0 (3,132)	3.5
전문대학 이상	12.0	46.2	33.0	8.3	0.5	100.0 (701)	3.6
현 취업상태							
취업중	6.0	43.8	40.2	9.7	0.3	100.0 (3,926)	3.5
미취업	7.0	47.4	39.0	6.4	0.2	100.0 (6,029)	3.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5	46.8	40.8	7.5	0.4	100.0 (1,989)	3.5
제2오분위	5.1	47.0	40.3	7.3	0.3	100.0 (1,983)	3.5
제3오분위	7.0	46.6	39.3	6.8	0.3	100.0 (1,981)	3.5
제4오분위	8.1	47.8	36.8	7.0	0.2	100.0 (2,007)	3.6
제5오분위	8.5	41.6	40.1	9.8	0.1	100.0 (1,995)	3.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0	46.4	40.6	7.7	0.4	100.0 (3,722)	3.5
50%이상~100%미만	6.1	48.9	38.4	6.3	0.3	100.0 (2,759)	3.5
100%이상~150%미만	8.7	45.2	38.3	7.6	0.1	100.0 (1,657)	3.5
150%이상	8.9	41.4	39.9	9.7	0.1	100.0 (1,817)	3.5
기능상태							
제한 있음	3.3	44.9	41.4	10.1	0.3	100.0 (1,759)	3.4
제한 없음	7.3	46.2	39.0	7.2	0.2	100.0 (8,196)	3.5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아래에서는 응답 노인의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치안 및 범죄 등 방법상태, 이웃과의 교류기회, 지역사회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다.

치안 및 범죄 등 방법상태에 대한 만족도(매우 만족+만족)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54.8%)의 노인들은 읍·면부(49.4%)에 비해 치안 및 범죄 방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동부 지역의 치안 인프라와 서비스가 더 잘 갖추어져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별, 연령군,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방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노인들은 61.8%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방법상태에 ‘매우 만족’하는 노인이 증가하였으나, 소득수준별 평균점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신체적 제한이 없는 노인(54.6%)은 제한이 있는 노인(47.6%)에 비해 방법 상태에 대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이 자신의 안전을 더 큰 우려로 느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주변 환경의 치안 상태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웃과의 교류기회에 대한 만족도는 동부 지역 56.8%, 읍·면부 지역은 65.5%로 읍·면부 지역이 더 높다. 이는 읍·면부 지역에서 더 밀접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여자(60.5%)가 남자(57.3%)보다 이웃과의 교류기회에 대해 약간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연령군별로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고,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60.8%)에 비해 독거가구(57.5%)와 자녀동거가구(56.2%)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 취업 여부,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이 이웃과의 교류에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7.1%로, 제한이 있는 노인(4.8%)보다 높았으나, 평균 점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에서는 동부 지역(동부 53.7%)에 사는 노인들이 읍·면부(45.6%)에 사는 노인들보다 만족도가 더 높다. 이는 동부 지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건강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고, 연령군별로는 70세 이상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의 만족도가 53.1%로 가장 높고, 독거가구(49.9%), 자녀동거가구(48.6%)는 비교적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여,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노인들이 59.1%

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고, 소득별 차이에서는 저소득, 고소득 노인보다 중간 소득구간(중위소득 50% 이상~150% 미만) 노인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만족도가 53.0%로 제한이 있는 노인(45.4%)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10-18>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 치안 및 범죄 등 방법상태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평균 ²⁾
전체 ¹⁾	5.6	47.8	40.5	6.0	0.2	100.0 (9,955)	3.5
지역							
동부	5.8	49.0	39.9	5.2	0.1	100.0 (7,359)	3.6
읍·면부	4.9	44.5	42.2	8.0	0.5	100.0 (2,596)	3.5
성							
남자	4.9	48.4	40.7	5.7	0.2	100.0 (4,384)	3.5
여자	6.0	47.4	40.3	6.1	0.1	100.0 (5,571)	3.5
연령							
65~69세	5.4	47.7	41.0	5.7	0.2	100.0 (3,465)	3.5
70~74세	5.9	48.8	39.1	6.1	0.1	100.0 (2,362)	3.5
75~79세	5.0	48.2	40.8	5.8	0.2	100.0 (1,729)	3.5
80~84세	6.0	48.0	39.3	6.3	0.3	100.0 (1,379)	3.5
85~89세	6.3	44.6	42.3	6.6	0.2	100.0 (781)	3.5
90세 이상	4.0	45.8	45.0	5.0	0.3	100.0 (239)	3.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8	48.2	40.5	5.3	0.2	100.0 (5,987)	3.5
배우자 없음	5.2	47.2	40.5	6.9	0.2	100.0 (3,968)	3.5
가구형태							
노인독거	5.5	47.9	39.5	6.9	0.2	100.0 (3,281)	3.5
노인부부	5.8	48.4	40.4	5.2	0.2	100.0 (5,509)	3.5
자녀동거	4.8	44.8	44.0	6.4	0.0	100.0 (993)	3.5
기타	2.4	45.7	43.5	8.4	0.0	100.0 (172)	3.4
교육수준							
무학	4.1	46.8	41.0	7.8	0.3	100.0 (1,184)	3.5
초등학교	5.4	46.8	41.8	5.7	0.2	100.0 (2,810)	3.5
중학교	6.2	45.4	42.1	6.2	0.1	100.0 (2,127)	3.5
고등학교	5.7	48.9	39.5	5.7	0.2	100.0 (3,132)	3.5
전문대학 이상	5.9	55.9	34.3	3.9	0.1	100.0 (701)	3.6
현 취업상태							
취업중	5.5	46.7	41.3	6.2	0.2	100.0 (3,926)	3.5
미취업	5.6	48.5	40.0	5.8	0.1	100.0 (6,029)	3.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6	46.5	41.2	7.5	0.3	100.0 (1,989)	3.5
제2오분위	6.0	46.8	41.1	6.0	0.1	100.0 (1,983)	3.5
제3오분위	4.5	49.9	40.0	5.3	0.4	100.0 (1,981)	3.5
제4오분위	6.4	48.7	40.1	4.7	0.1	100.0 (2,007)	3.6
제5오분위	6.3	47.2	40.1	6.4	0.1	100.0 (1,995)	3.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2	46.8	41.2	6.6	0.2	100.0 (3,722)	3.5
50%이상~100%미만	5.3	48.7	40.5	5.2	0.3	100.0 (2,759)	3.5
100%이상~150%미만	5.9	48.5	40.1	5.4	0.1	100.0 (1,657)	3.5
150%이상	6.4	47.9	39.3	6.3	0.1	100.0 (1,817)	3.5
기능상태							
제한 있음	3.8	43.8	46.5	5.6	0.2	100.0 (1,759)	3.5
제한 없음	5.9	48.7	39.2	6.0	0.2	100.0 (8,196)	3.5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10-19>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 이웃과의 교류기회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평균 ²⁾
전체 ¹⁾	6.7	52.4	36.0	4.8	0.1	100.0 (9,955)	3.6
지역							
동부	5.8	51.0	37.8	5.2	0.1	100.0 (7,359)	3.6
읍·면부	9.1	56.4	30.6	3.7	0.2	100.0 (2,596)	3.7
성							
남자	6.0	51.3	37.1	5.5	0.1	100.0 (4,384)	3.6
여자	7.2	53.3	35.1	4.3	0.1	100.0 (5,571)	3.6
연령							
65~69세	5.8	50.9	38.1	5.1	0.1	100.0 (3,465)	3.6
70~74세	6.2	54.5	34.4	4.7	0.2	100.0 (2,362)	3.6
75~79세	6.8	53.9	34.2	4.9	0.2	100.0 (1,729)	3.6
80~84세	8.2	50.6	36.4	4.8	0.1	100.0 (1,379)	3.6
85~89세	8.9	54.9	32.5	3.5	0.1	100.0 (781)	3.7
90세 이상	6.2	46.1	43.0	4.8	0.0	100.0 (239)	3.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3	53.9	34.8	4.9	0.1	100.0 (5,987)	3.6
배우자 없음	7.2	50.2	37.8	4.7	0.1	100.0 (3,968)	3.6
가구형태							
노인독거	7.8	49.7	37.5	4.9	0.1	100.0 (3,281)	3.6
노인부부	6.5	54.3	34.5	4.7	0.2	100.0 (5,509)	3.6
자녀동거	4.3	51.9	38.6	5.2	0.0	100.0 (993)	3.6
기타	5.7	48.2	39.6	6.5	0.0	100.0 (172)	3.5
교육수준							
무학	7.0	53.0	34.5	5.1	0.4	100.0 (1,184)	3.6
초등학교	7.6	55.3	33.1	3.9	0.0	100.0 (2,810)	3.7
중학교	6.6	52.9	35.1	5.3	0.1	100.0 (2,127)	3.6
고등학교	5.3	50.6	38.8	5.2	0.1	100.0 (3,132)	3.6
전문대학 이상	8.9	46.5	39.9	4.6	0.1	100.0 (701)	3.6
현 취업상태							
취업중	7.4	52.1	35.8	4.6	0.1	100.0 (3,926)	3.6
미취업	6.2	52.7	36.1	4.9	0.2	100.0 (6,029)	3.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0	49.5	37.1	6.1	0.2	100.0 (1,989)	3.6
제2오분위	5.5	55.9	33.2	5.2	0.1	100.0 (1,983)	3.6
제3오분위	7.1	55.8	33.2	3.6	0.2	100.0 (1,981)	3.7
제4오분위	7.6	53.4	36.2	2.7	0.0	100.0 (2,007)	3.7
제5오분위	6.1	47.4	40.0	6.4	0.0	100.0 (1,995)	3.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4	52.8	34.9	5.7	0.2	100.0 (3,722)	3.6
50%이상~100%미만	7.3	55.6	33.5	3.5	0.1	100.0 (2,759)	3.7
100%이상~150%미만	6.6	52.2	37.9	3.3	0.1	100.0 (1,657)	3.6
150%이상	6.3	47.2	40.2	6.3	0.0	100.0 (1,817)	3.5
기능상태							
제한 있음	4.8	53.8	36.6	4.6	0.2	100.0 (1,759)	3.6
제한 없음	7.1	52.1	35.8	4.9	0.1	100.0 (8,196)	3.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10-20>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 지역사회 환경 전반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평균 ²⁾
전체 ¹⁾	3.4	48.2	44.4	3.9	0.1	100.0 (9,955)	3.5
지역							
동부	3.5	50.2	42.9	3.4	0.1	100.0 (7,359)	3.5
읍·면부	3.1	42.5	48.9	5.5	0.1	100.0 (2,596)	3.4
성							
남자	3.1	49.2	43.9	3.8	0.0	100.0 (4,384)	3.5
여자	3.6	47.4	44.8	4.0	0.1	100.0 (5,571)	3.5
연령							
65~69세	3.6	47.9	44.4	4.1	0.0	100.0 (3,465)	3.5
70~74세	3.2	50.8	41.9	4.0	0.0	100.0 (2,362)	3.5
75~79세	3.3	49.7	42.8	4.1	0.1	100.0 (1,729)	3.5
80~84세	3.2	47.9	45.1	3.7	0.1	100.0 (1,379)	3.5
85~89세	3.5	43.6	49.8	2.4	0.8	100.0 (781)	3.5
90세 이상	2.9	32.8	60.3	4.1	0.0	100.0 (239)	3.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3	49.6	43.4	3.6	0.1	100.0 (5,987)	3.5
배우자 없음	3.6	46.1	45.9	4.3	0.1	100.0 (3,968)	3.5
가구형태							
노인독거	3.7	46.2	45.4	4.5	0.1	100.0 (3,281)	3.5
노인부부	3.3	49.8	43.3	3.6	0.1	100.0 (5,509)	3.5
자녀동거	2.9	45.7	47.5	3.8	0.0	100.0 (993)	3.5
기타	2.3	49.5	44.0	4.1	0.0	100.0 (172)	3.5
교육수준							
무학	2.9	41.4	49.9	5.5	0.3	100.0 (1,184)	3.4
초등학교	3.1	46.8	46.3	3.7	0.1	100.0 (2,810)	3.5
중학교	3.4	49.7	42.8	4.1	0.0	100.0 (2,127)	3.5
고등학교	3.3	49.9	43.1	3.7	0.0	100.0 (3,132)	3.5
전문대학 이상	5.8	53.3	38.5	2.3	0.1	100.0 (701)	3.6
현 취업상태							
취업중	3.1	48.1	44.4	4.3	0.0	100.0 (3,926)	3.5
미취업	3.5	48.3	44.4	3.6	0.1	100.0 (6,029)	3.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5	43.2	48.3	4.9	0.1	100.0 (1,989)	3.5
제2오분위	2.5	47.8	45.5	4.1	0.0	100.0 (1,983)	3.5
제3오분위	3.4	50.4	41.9	4.2	0.1	100.0 (1,981)	3.5
제4오분위	4.4	51.5	41.2	2.7	0.1	100.0 (2,007)	3.6
제5오분위	3.1	48.0	45.2	3.7	0.0	100.0 (1,995)	3.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2	44.7	47.4	4.5	0.1	100.0 (3,722)	3.5
50%이상~100%미만	3.5	50.3	42.6	3.6	0.0	100.0 (2,759)	3.5
100%이상~150%미만	3.6	52.7	40.0	3.7	0.0	100.0 (1,657)	3.6
150%이상	3.2	48.1	45.1	3.4	0.2	100.0 (1,817)	3.5
기능상태							
제한 있음	2.1	43.3	49.9	4.4	0.3	100.0 (1,759)	3.4
제한 없음	3.7	49.3	43.3	3.8	0.0	100.0 (8,196)	3.5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3. 희망 거주 형태 및 재가 서비스 욕구

노년에 오랜 기간 정들고 익숙한 집(지역)에 최대한 오래 사는 것(Aging in place)이 대부분 노인들이 희망하는 거주형태로 알려졌다. 이러한 삶의 형태는 노인들이 원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데 유리하므로 정책적으로도 강조되고 있다.

노인들의 희망 거주 형태를 조사한 결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은 87.2%이다. 이는 2020년 83.8%로 조사되었던 것보다 더 증가한 수치로, 노인 대부분이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을 계속하고자 하는 강한 선호를 나타낸다. 8.1%는 거주환경이 개선된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자 하는 희망을 나타냈고, 4.7%의 노인이 식사나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전용주택으로의 이사를 희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부에서는 92.2%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해, 동부(85.4%)에 비해 더 높은 선호를 보였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90세 이상 노인 중 93.4%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다. 또한 배우자가 없거나 독거가구의 경우, 거주환경이 더 좋은 집이나 노인전용주택으로의 이사를 고려하는 비율이 소폭 높았으나, 대다수는 여전히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선호했다.

연가구소득이 높은 그룹에서는 거주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노인전용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 역시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예를 들면, 가장 높은 제5분위 노인은 지금보다 거주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비율이 10.4%였고, 제1오분위와 제2오분위는 각각 7.5%, 7.0%로 비교적 낮았다. 한편, 식사, 생활편의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전용주택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비율은 소득 제1오분위, 제2오분위가 각각 8.4%, 5.0%로 다소 높았고, 상위 소득층은 5%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은 현재 주택에 살기 원하는 비율이 87.9%로 제한이 있는 노인(83.8%)보다 높았고,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은 거주환경이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노인전용주택에 이사하고자 하는 의사가 기능 제한없는 노인보다 높았다.

<표 10-21> 건강 유지 시 희망 거주 형태

(단위: %, 명)

특성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	거주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식사, 생활편의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전문주택으로 이사	기타	계 (명)
전체 ¹⁾	87.2	8.1	4.7	0.0	100.0 (9,955)
지역					
동부	85.4	9.0	5.6	0.0	100.0 (7,359)
읍·면부	92.2	5.6	2.2	0.0	100.0 (2,596)
성					
남자	86.9	9.1	4.1	0.0	100.0 (4,384)
여자	87.5	7.4	5.1	0.0	100.0 (5,571)
연령					
65~69세	86.7	9.2	4.0	0.0	100.0 (3,465)
70~74세	86.6	8.9	4.5	0.0	100.0 (2,362)
75~79세	85.3	8.8	5.8	0.0	100.0 (1,729)
80~84세	89.5	6.2	4.4	0.0	100.0 (1,379)
85~89세	89.4	4.1	6.5	0.0	100.0 (781)
90세 이상	93.4	3.9	2.7	0.0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6.8	9.4	3.8	0.0	100.0 (5,987)
배우자 없음	87.7	6.3	6.0	0.0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86.6	7.1	6.3	0.0	100.0 (3,281)
노인부부	87.3	9.0	3.8	0.0	100.0 (5,509)
자녀동거	88.8	6.9	4.3	0.0	100.0 (993)
기타	86.8	8.8	4.4	0.0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91.9	4.8	3.3	0.0	100.0 (1,184)
초등학교	89.1	6.5	4.4	0.0	100.0 (2,810)
중학교	86.3	8.5	5.2	0.0	100.0 (2,127)
고등학교	84.5	10.3	5.3	0.0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86.5	9.4	4.1	0.0	100.0 (7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89.1	7.7	3.2	0.0	100.0 (3,926)
미취업	86.0	8.4	5.7	0.0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4.1	7.5	8.4	0.0	100.0 (1,989)
제2오분위	88.1	7.0	5.0	0.0	100.0 (1,983)
제3오분위	89.0	8.3	2.8	0.0	100.0 (1,981)
제4오분위	89.7	7.5	2.8	0.0	100.0 (2,007)
제5오분위	85.1	10.4	4.4	0.0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5.8	7.7	6.5	0.0	100.0 (3,722)
50%이상~100%미만	89.1	7.6	3.4	0.0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89.9	7.4	2.8	0.0	100.0 (1,657)
150%이상	84.7	10.7	4.6	0.0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83.8	9.8	6.4	0.0	100.0 (1,759)
제한 없음	87.9	7.8	4.3	0.0	100.0 (8,196)
2020년도	83.8	11.2	4.9	0.0	100.0 (9,93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건강상태는 독립적 생활 능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건강이 악화되어 독립적 생활이 어려울 때는 건강할 때와 희망거주 형태에 차이를 보인다. 건강이 악화되어 독립적 생활이 어려울 때를 가정하여 희망 거주 형태를 조사한 결과, 48.9%가 건강 악화 시에도 현재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친숙한 환경을 선호하며 자신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을 나타낸다. 한편, 건강 악화 시 27.7%는 노인요양시설, 16.5%는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노인전용주택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일정 수준의 케어나 지원이 이루어지는 전문 시설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과 동거 또는 가족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비율은 훨씬 낮았는데, 2.5%의 노인이 가족과의 동거를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4.3%는 가족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하기 원한다.

지역별로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기를 더 선호한다(읍·면부 52.5%, 동부 47.6%). 이는 동부에 비해 읍·면부 지역사회의 높은 연결감을 반영할 수 있다. 연령군별로는, 60대, 70대와 80대 이상의 집단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60대와 70대는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이 40%대(46.8%~48.2%)를 보였고, 80대 이상은 50%대(52.9%~53.9%)로 조사되어 연령군 간 차이를 보였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집에서 동거하거나 그 근처로 이사할 의향이 다소 높았고, 요양시설 입소 의사도 29.8%로 유배우자(26.3%)보다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겠다는 비율이 53.0%로 가장 높았고, 독거가구는 46.2%로 비교적 낮았다. 또한 독거가구는 요양시설 입소 의사가 30.2%로 부부가구(26.1%), 자녀동거가구(28.7%)보다 높았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악화 시 현재 집에 살겠다는 의사가 감소하고, 대신 노인 전용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소득수준 별로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 집단이 이하 소득집단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 집단은 현재 집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42.4%로 여러 소득집단 중 가장 낮았고, 자녀 또는 형제자매 집에서 동거하겠다는 응답 비율(1.9%)도 가장 낮았지만, 가족 근처로 이사하여 따로 살겠다는 비율(5.4%)은 가장 높았다. 노인전용주택으로 이사하겠다는 비율(26.6%) 또한 소득집단 중 가장 높고, 노인요양시설입소를 고려하는

비율(23.6%)은 가장 낮았다. 반면,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50~100% 미만에 속하는 노인은 노인전용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비율이 각각 15.2%, 12.1%로, 상위소득 집단보다 낮았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이 가족과 동거를 위해 이사하거나 근처로 이사를 고려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고, 노인전용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비율은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이 더 높았다.

<표 10-22> 건강 악화 시 희망 거주 형태

(단위: %, 명)

특성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집에서 동거	자녀 또는 형제자매 집 근처로 이사	노인전용주택 으로 이사	노인 요양시설 입소	기타	계 (명)
전체 ¹⁾	48.9	2.5	4.3	16.5	27.7	0.1	100.0 (9,955)
지역							
동부	47.6	2.4	5.1	18.2	26.7	0.0	100.0 (7,359)
읍·면부	52.5	3.0	2.1	11.6	30.6	0.3	100.0 (2,596)
성							
남자	50.4	2.0	4.5	17.0	26.0	0.1	100.0 (4,384)
여자	47.7	2.9	4.1	16.1	29.0	0.1	100.0 (5,571)
연령							
65~69세	47.1	2.1	4.9	19.9	26.0	0.1	100.0 (3,465)
70~74세	48.2	3.0	4.2	17.1	27.4	0.1	100.0 (2,362)
75~79세	46.8	2.3	4.0	16.7	30.1	0.1	100.0 (1,729)
80~84세	53.9	2.6	4.5	10.6	28.2	0.2	100.0 (1,379)
85~89세	53.2	3.2	2.6	11.1	30.0	0.0	100.0 (781)
90세 이상	52.9	3.4	3.9	10.8	27.5	1.4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9.4	2.1	4.6	17.5	26.3	0.1	100.0 (5,987)
배우자 없음	48.1	3.1	3.8	15.0	29.8	0.2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46.2	3.3	4.3	15.8	30.2	0.2	100.0 (3,281)
노인부부	49.6	2.0	4.7	17.5	26.1	0.1	100.0 (5,509)
자녀동거	53.0	2.3	1.9	14.1	28.7	0.0	100.0 (993)
기타	52.0	3.1	4.1	13.6	27.2	0.0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50.9	3.9	3.9	11.2	29.6	0.4	100.0 (1,184)
초등학교	53.4	2.9	3.0	11.2	29.4	0.1	100.0 (2,810)
중학교	47.9	2.0	4.0	15.2	30.9	0.0	100.0 (2,127)
고등학교	45.7	2.0	5.4	21.8	25.1	0.1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44.3	2.3	6.5	26.7	20.0	0.2	100.0 (7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48.0	2.2	3.6	17.2	28.8	0.1	100.0 (3,926)
미취업	49.4	2.7	4.7	16.0	27.0	0.1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9.1	3.1	2.8	17.6	27.2	0.2	100.0 (1,989)
제2오분위	47.2	2.3	5.0	12.8	32.6	0.1	100.0 (1,983)
제3오분위	51.2	2.9	5.0	11.4	29.5	0.0	100.0 (1,981)
제4오분위	52.0	2.3	3.9	16.4	25.3	0.1	100.0 (2,007)
제5오분위	44.8	2.0	4.8	24.4	24.0	0.1	100.0 (1,995)
증위소득 대비							
50%미만	49.0	2.7	4.0	15.2	29.1	0.1	100.0 (3,722)
50%이상~100%미만	51.6	2.9	4.2	12.1	29.2	0.1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51.1	2.1	4.0	15.8	26.8	0.2	100.0 (1,657)
150%이상	42.4	1.9	5.4	26.6	23.6	0.1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47.2	4.1	5.2	14.7	28.5	0.2	100.0 (1,759)
제한 없음	49.2	2.2	4.1	16.9	27.5	0.1	100.0 (8,196)
2020년도	56.5	7.2	4.9	—	31.3	0.0	100.0 (9,93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인이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는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고, 해당 지역에 보다 오래 거주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필요 재가서비스는 주거환경 개선, 일상생활 지원, 안전지원, 방문 의료·건강서비스,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 상담서비스로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 또 유료로 제공된다면 지불하여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는 55.6%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이 58.6%로,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54.5%)보다 재가서비스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군,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 등 기타 노인별 특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고, 소득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제2오분위에 속하는 노인들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6.4%, 57.7%로, 평균보다 높았고, 중상위 소득군은 비교적 낮았다. 한편,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이 59.7%로, 제한이 없는 노인(54.7%)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인 중 서비스 유료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43.9%는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이용 의향 또한 읍·면부가 46.9%로 동부(42.8%)에 비해 높았다. 연령군별로는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료 이용 의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유배우자(47.1%)는 무배우자(39.1%)보다 유료 이용 의향이 높았고, 부부가구(47.0%)는 독거가구(39.2%)와 자녀동거가구(43.1%)보다 유료 이용 의향이 높았다.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유료 이용 의향이 높았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1%로,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의 노인이 66.3%, 읍·면부의 노인이 65.4%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 노인이 67.2%, 남자 노인이 64.6%로 여자가 조금 더 높은 필요성을 느꼈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90세 이상에서는 필요 비율이 70.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무배우 노인(67.4%)이 유배우 노인(65.2%)보다 필요성이 높았고, 독거가구(68.4%)가 부부가구(64.7%), 자녀동거가구(65.0%)보다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취업중 노인(63.7%)보다는 미취업 노인(67.6%)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있는 노인이 73.3%로, 제한 없는 노인(64.5%)보다 필요성을 8.8%포인트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유료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56.7%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의 노인은 55.7%, 읍·면부의 노인은 59.7%로 읍·면부에서 유료 이용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59.3%, 여자 노인이 54.8%로 남자가 더 높은 의향을 보였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59.6%) 없는 노인(52.5%)보다 유료 이용 의향이 7.1%포인트 더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 독거가구가 52.5%로 유료 이용 의향이 부부가구(59.1%), 자녀동거가구(58.6%)보다 낮았다. 또한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유료 이용 의향이 높았고, 미취업 노인(53.2%)보다는 취업중인 노인(62.4%)이 높게 나타났다.

안전지원 서비스 필요 비율은 60.7%로 조사되었다. 안전지원 서비스는 지역, 성별, 연령군,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 학력, 소득별로 필요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인의 일반특성에 관련 없이 두루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58.5%) 노인보다 미취업 노인이 62.1%로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했는데, 이는 미취업 노인이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안전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7.7%로, 제한이 없는 노인의 59.2%보다 8.5%포인트 더 높았다. 이 또한 기능제한으로 자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노인들이 안전지원에 높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전지원 서비스의 유료 이용 의향은 전체 44.3%로,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성별로는 남자(46.0%)가 여자(43.1%)보다 유료 이용 의향이 더 높았다. 연령군별로는 비교적 젊은 연령군에 속하는 65~69세, 70~74세에 속하는 노인들이 각각 47.5%, 46.1%로 비교적 높은 의향을 보였다.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가 유료 이용 의향이 46.6%로 다른 가구형태보다 높았고, 취업중인 노인(49.0%)이 미취업 노인(41.5%)보다 7.5%포인트 높은 의향을 보였다. 한편,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유료 이용 의향이 높았고,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방문 의료·건강서비스 필요 비율은 61.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이 64.3%,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60.6%)보다 서비스 필요성을 더 높게 느꼈다. 여자 노인(62.1%)이 남자 노인(60.9%)보다 약간 더 높은 필요성을 보고했다. 연령군,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고,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무학

노인은 방문 의료·건강서비스 필요 비율이 63.1%로 조사되었으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60.4%,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57.6%로 비교적 낮았다. 소득수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기능상태에서는 제한이 있는 노인(68.8%)이 제한이 없는 노인(60.0%)보다 서비스 필요성을 더 크게 느꼈다.

방문 의료·건강서비스의 유료 이용 의향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인 중 55.4%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의향은 남자(56.7%)가 여자(54.5%)보다 유료 이용에 대한 의향이 약간 더 높았고, 연령군별로는 가장 낮은 연령군인 65~69세, 70~74세가 각각 58.1%, 57.6%로 가장 높았으나, 연령군에 따른 경향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58.0%)은 없는 노인(51.5%)보다 유료 이용 의향이 높았고,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가 각각 57.5%, 58.1%로 독거가구(51.8%)보다 높았다.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취업 중인 경우 유료 이용 의향 또한 증가하였다.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59.7%이다. 지역별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이 인식하는 필요 비율은 62.4%로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58.7%)보다 높았다. 여자 노인(60.3%)은 남자 노인(58.8%)보다 필요성을 다소 높게 인식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한편, 미취업 노인(60.8%)이 취업중 노인(57.8%)보다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고, 소득수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있는 노인이 인식하는 필요성은 67.8%로, 제한이 없는 노인(57.9%)보다 더 높았다.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노인들 중 유료 이용 의향이 있는 비율은 49.8%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부(51.6%)와 동부(49.2%) 거주 노인 사이에 소폭의 차이가 있으며, 읍·면부 거주 노인이 더 높은 의향을 보였다. 남자 노인(51.8%)이 여자 노인(48.4%)보다 유료 이용 의향이 더 높았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중인 경우 유료 이용 의향이 증가했다.

상담서비스는 42.9%의 노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의 노인이 43.1%, 읍·면부 지역의 노인이 42.3%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성별, 연령군별,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 교육수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취업 노인(44.2%)은 취업중 노인(40.8%)보다 서비스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있는 노인이 46.3%로 제한 없는 노인(42.2%)보다 필요성을 4.1%포인트 높게 인식하였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인 중 유료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 노인은 29.7%였다. 지역별, 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군별로는 가장 낮은 연령군에 속하는 65~69세, 70~74세 연령대 노인이 각각 31.0%, 31.6%의 유료 이용 의향을 보고하였고, 높은 연령대는 유료 이용 의향이 30%대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상담서비스 유료 이용 의향은 부부가구(30.4%)와 독거가구(29.5%)가 자녀동거가구(26.8%)에 비해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중인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10-23> 필요 재가서비스 및 유료 이용 의향: 주거환경 개선

(단위: %, 명)

특성	재가서비스 필요 비율 ¹⁾	유료 이용 의향 ²⁾		
		예	아니요	계 (명)
전체	55.6	43.9	56.1	100.0 (9,955)
지역				
동부	54.5	42.8	57.2	100.0 (7,359)
읍·면부	58.6	46.9	53.1	100.0 (2,596)
성				
남자	54.8	45.7	54.3	100.0 (4,384)
여자	56.2	42.6	57.4	100.0 (5,571)
연령				
65~69세	53.2	46.8	53.2	100.0 (3,465)
70~74세	55.9	46.0	54.0	100.0 (2,362)
75~79세	60.0	44.3	55.7	100.0 (1,729)
80~84세	57.3	38.6	61.4	100.0 (1,379)
85~89세	52.9	34.6	65.4	100.0 (781)
90세 이상	53.7	40.1	59.9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5.2	47.1	52.9	100.0 (5,987)
배우자 없음	56.1	39.1	60.9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56.8	39.2	60.8	100.0 (3,281)
노인부부	55.3	47.0	53.0	100.0 (5,509)
자녀동거	53.2	43.1	56.9	100.0 (993)
기타	54.4	40.1	59.9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53.6	34.3	65.7	100.0 (1,184)
초등학교	58.2	39.3	60.7	100.0 (2,810)
중학교	55.4	42.6	57.4	100.0 (2,127)
고등학교	54.8	49.1	50.9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52.7	60.7	39.3	100.0 (7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55.0	48.7	51.3	100.0 (3,926)
미취업	56.0	40.8	59.2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6.4	35.2	64.8	100.0 (1,989)
제2오분위	57.7	37.7	62.3	100.0 (1,983)
제3오분위	54.6	45.5	54.5	100.0 (1,981)
제4오분위	54.4	47.8	52.2	100.0 (2,007)
제5오분위	54.9	53.8	46.2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6.8	36.4	63.6	100.0 (3,722)
50%이상~100%미만	54.6	44.9	55.1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54.7	48.1	51.9	100.0 (1,657)
150%이상	55.3	54.3	45.7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59.7	43.3	56.7	100.0 (1,759)
제한 없음	54.7	44.0	56.0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9,955명 중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표 10-24> 필요 재가서비스 및 유료 이용 의향: 일상생활 지원

(단위: %, 명)

특성	재가서비스 필요 비율 ¹⁾	유료 이용 의향 ²⁾		
		예	아니요	계 (명)
전체	66.1	56.7	43.3	100.0 (9,955)
지역				
동부	66.3	55.7	44.3	100.0 (7,359)
읍·면부	65.4	59.7	40.3	100.0 (2,596)
성				
남자	64.6	59.3	40.7	100.0 (4,384)
여자	67.2	54.8	45.2	100.0 (5,571)
연령				
65~69세	62.9	60.9	39.1	100.0 (3,465)
70~74세	66.5	57.7	42.3	100.0 (2,362)
75~79세	68.4	53.2	46.8	100.0 (1,729)
80~84세	68.0	53.0	47.0	100.0 (1,379)
85~89세	68.4	50.2	49.8	100.0 (781)
90세 이상	70.9	59.5	40.5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5.2	59.6	40.4	100.0 (5,987)
배우자 없음	67.4	52.5	47.5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68.4	52.5	47.5	100.0 (3,281)
노인부부	64.7	59.1	40.9	100.0 (5,509)
자녀동거	65.0	58.6	41.4	100.0 (993)
기타	70.7	54.5	45.5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67.5	49.0	51.0	100.0 (1,184)
초등학교	67.3	51.2	48.8	100.0 (2,810)
중학교	64.4	56.7	43.3	100.0 (2,127)
고등학교	66.0	60.4	39.6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63.8	77.0	23.0	100.0 (7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63.7	62.4	37.6	100.0 (3,926)
미취업	67.6	53.2	46.8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5.8	47.3	52.7	100.0 (1,989)
제2오분위	67.3	51.6	48.4	100.0 (1,983)
제3오분위	65.6	59.5	40.5	100.0 (1,981)
제4오분위	65.6	59.4	40.6	100.0 (2,007)
제5오분위	66.0	65.8	34.2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6.4	49.2	50.8	100.0 (3,722)
50%이상~100%미만	66.8	60.0	40.0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64.4	59.5	40.5	100.0 (1,657)
150%이상	65.7	64.9	35.1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73.3	56.4	43.6	100.0 (1,759)
제한 없음	64.5	56.8	43.2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9,955명 중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표 10-25> 필요 재가서비스 및 유료 이용 의향: 안전 지원

(단위: %, 명)

특성	재가서비스 필요 비율 ¹⁾	유료 이용 의향 ²⁾		
		예	아니요	계 (명)
전체	60.7	44.3	55.7	100.0 (9,955)
지역				
동부	60.4	44.4	55.6	100.0 (7,359)
읍·면부	61.4	44.2	55.8	100.0 (2,596)
성				
남자	60.1	46.0	54.0	100.0 (4,384)
여자	61.1	43.1	56.9	100.0 (5,571)
연령				
65~69세	57.8	47.5	52.5	100.0 (3,465)
70~74세	61.8	46.1	53.9	100.0 (2,362)
75~79세	63.0	40.6	59.4	100.0 (1,729)
80~84세	62.7	42.1	57.9	100.0 (1,379)
85~89세	60.8	39.3	60.7	100.0 (781)
90세 이상	63.0	41.2	58.8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0.3	46.9	53.1	100.0 (5,987)
배우자 없음	61.2	40.6	59.4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62.0	41.8	58.2	100.0 (3,281)
노인부부	60.2	46.6	53.4	100.0 (5,509)
자녀동거	59.7	42.5	57.5	100.0 (993)
기타	55.6	32.7	67.3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60.8	35.1	64.9	100.0 (1,184)
초등학교	62.2	37.6	62.4	100.0 (2,810)
중학교	60.6	44.7	55.3	100.0 (2,127)
고등학교	59.4	49.0	51.0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60.3	66.8	33.2	100.0 (7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58.5	49.0	51.0	100.0 (3,926)
미취업	62.1	41.5	58.5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0.5	39.1	60.9	100.0 (1,989)
제2오분위	62.7	37.4	62.6	100.0 (1,983)
제3오분위	59.7	45.8	54.2	100.0 (1,981)
제4오분위	58.8	46.5	53.5	100.0 (2,007)
제5오분위	61.7	53.0	47.0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1.7	38.5	61.5	100.0 (3,722)
50%이상~100%미만	60.2	45.3	54.7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58.4	46.0	54.0	100.0 (1,657)
150%이상	61.4	53.6	46.4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67.7	44.6	55.4	100.0 (1,759)
제한 없음	59.2	44.3	55.7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9,955명 중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표 10-26> 필요 재가서비스 및 유료 이용 의향: 방문 의료·건강서비스

(단위: %, 명)

특성	재가서비스 필요 비율 ¹⁾	유료 이용 의향 ²⁾		
		예	아니요	계 (명)
전체	61.6	55.4	44.6	100.0 (9,955)
지역				
동부	60.6	55.4	44.6	100.0 (7,359)
읍·면부	64.3	55.4	44.6	100.0 (2,596)
성				
남자	60.9	56.7	43.3	100.0 (4,384)
여자	62.1	54.5	45.5	100.0 (5,571)
연령				
65~69세	59.4	58.1	41.9	100.0 (3,465)
70~74세	60.8	57.6	42.4	100.0 (2,362)
75~79세	62.8	53.0	47.0	100.0 (1,729)
80~84세	65.0	51.7	48.3	100.0 (1,379)
85~89세	64.6	50.2	49.8	100.0 (781)
90세 이상	62.6	55.6	44.4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1.6	58.0	42.0	100.0 (5,987)
배우자 없음	61.5	51.5	48.5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62.6	51.8	48.2	100.0 (3,281)
노인부부	61.5	57.5	42.5	100.0 (5,509)
자녀동거	59.1	58.1	41.9	100.0 (993)
기타	58.0	46.3	53.7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63.1	45.7	54.3	100.0 (1,184)
초등학교	63.8	50.3	49.7	100.0 (2,810)
중학교	60.9	56.1	43.9	100.0 (2,127)
고등학교	60.4	59.6	40.4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57.6	74.6	25.4	100.0 (7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58.8	59.2	40.8	100.0 (3,926)
미취업	63.4	53.1	46.9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1.2	49.9	50.1	100.0 (1,989)
제2오분위	63.7	50.3	49.7	100.0 (1,983)
제3오분위	62.0	58.6	41.4	100.0 (1,981)
제4오분위	60.9	57.8	42.2	100.0 (2,007)
제5오분위	60.1	60.8	39.2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2.8	50.3	49.7	100.0 (3,722)
50%이상~100%미만	61.8	57.6	42.4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59.8	57.7	42.3	100.0 (1,657)
150%이상	60.2	60.9	39.1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68.8	55.4	44.6	100.0 (1,759)
제한 없음	60.0	55.4	44.6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9,955명 중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표 10-27> 필요 재가서비스 및 유료 이용 의향: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

(단위: %, 명)

특성	재가서비스 필요 비율 ¹⁾	유료 이용 의향 ²⁾		
		예	아니요	계 (명)
전체	59.7	49.8	50.2	100.0 (9,955)
지역				
동부	58.7	49.2	50.8	100.0 (7,359)
읍·면부	62.4	51.6	48.4	100.0 (2,596)
성				
남자	58.8	51.8	48.2	100.0 (4,384)
여자	60.3	48.4	51.6	100.0 (5,571)
연령				
65~69세	57.4	53.0	47.0	100.0 (3,465)
70~74세	59.2	49.7	50.3	100.0 (2,362)
75~79세	61.5	48.1	51.9	100.0 (1,729)
80~84세	63.2	47.9	52.1	100.0 (1,379)
85~89세	59.6	43.7	56.3	100.0 (781)
90세 이상	63.1	52.0	48.0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9.2	51.5	48.5	100.0 (5,987)
배우자 없음	60.3	47.5	52.5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61.3	47.6	52.4	100.0 (3,281)
노인부부	59.0	51.1	48.9	100.0 (5,509)
자녀동거	59.2	51.7	48.3	100.0 (993)
기타	51.2	40.3	59.7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63.8	44.4	55.6	100.0 (1,184)
초등학교	60.3	43.6	56.4	100.0 (2,810)
중학교	59.3	51.7	48.3	100.0 (2,127)
고등학교	58.3	52.9	47.1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57.3	66.7	33.3	100.0 (7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57.8	55.1	44.9	100.0 (3,926)
미취업	60.8	46.6	53.4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9.9	47.6	52.4	100.0 (1,989)
제2오분위	61.3	44.5	55.5	100.0 (1,983)
제3오분위	58.3	48.9	51.1	100.0 (1,981)
제4오분위	59.3	50.4	49.6	100.0 (2,007)
제5오분위	59.5	57.9	42.1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0.7	45.5	54.5	100.0 (3,722)
50%이상~100%미만	59.3	50.0	50.0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58.2	51.6	48.4	100.0 (1,657)
150%이상	59.4	57.2	42.8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67.8	50.2	49.8	100.0 (1,759)
제한 없음	57.9	49.8	50.2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9,955명 중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표 10-28> 필요 재가서비스 및 유료 이용 의향: 상담 서비스

(단위: %, 명)

특성	재가서비스 필요 비율 ¹⁾	유료 이용 의향 ²⁾		
		예	아니요	계 (명)
전체	42.9	29.7	70.3	100.0 (9,955)
지역				
동부	43.1	29.6	70.4	100.0 (7,359)
읍·면부	42.3	30.0	70.0	100.0 (2,596)
성				
남자	42.3	29.8	70.2	100.0 (4,384)
여자	43.3	29.7	70.3	100.0 (5,571)
연령				
65~69세	41.8	31.0	69.0	100.0 (3,465)
70~74세	43.8	31.6	68.4	100.0 (2,362)
75~79세	44.1	28.2	71.8	100.0 (1,729)
80~84세	43.2	27.5	72.5	100.0 (1,379)
85~89세	43.2	25.8	74.2	100.0 (781)
90세 이상	37.8	28.4	71.6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3.1	30.4	69.6	100.0 (5,987)
배우자 없음	42.5	28.7	71.3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43.5	29.5	70.5	100.0 (3,281)
노인부부	42.8	30.4	69.6	100.0 (5,509)
자녀동거	42.3	26.8	73.2	100.0 (993)
기타	38.4	26.3	73.7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40.7	15.3	84.7	100.0 (1,184)
초등학교	44.2	26.8	73.2	100.0 (2,810)
중학교	40.8	30.1	69.9	100.0 (2,127)
고등학교	43.5	33.7	66.3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45.0	44.8	55.2	100.0 (7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40.8	32.2	67.8	100.0 (3,926)
미취업	44.2	28.2	71.8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3.9	30.8	69.2	100.0 (1,989)
제2오분위	42.2	26.7	73.3	100.0 (1,983)
제3오분위	40.4	28.3	71.7	100.0 (1,981)
제4오분위	42.6	30.5	69.5	100.0 (2,007)
제5오분위	45.4	31.9	68.1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3.6	28.3	71.7	100.0 (3,722)
50%이상~100%미만	40.4	29.7	70.3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42.7	28.8	71.2	100.0 (1,657)
150%이상	45.5	33.4	66.6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46.3	29.5	70.5	100.0 (1,759)
제한 없음	42.2	29.7	70.3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9,955명 중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4. 외출 및 교통수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외출하고 필요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고립과 단절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하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특히 기능 제한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초고령자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고령운전자의 운전 또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노인들의 이동권과 안전권 보장은 노인과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택시의 비율이 각각 48.1%, 13.1%, 6.9%로 68.1%는 대중교통으로 나타났다. 자가용은 28.2%이며,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모두 0.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71.6%이며 자가용이 24.9%인 것에 반해, 읍·면부의 경우는 대중교통은 58.0%에 불과했고, 자가용이 37.5%, 오토바이 이용률이 1.7%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이 동부에 비해 발달하지 못한 읍·면부의 경우 자가용, 오토바이와 같이 개인용 이동수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에 비해 여자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약 25.3%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42.2%로 여자(17.2%)보다 높았다.

연령군별로는 65세부터 85세 미만까지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자가용 이용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85세 이후에는 자가용 이용이 다시 증가하고 대중교통이 감소한다. 65~69세의 경우 자가용 이용이 44.2%, 70~74세는 27.0%, 75~79세는 16.4%, 80~84세는 11.8%이지만, 85세~89세는 16.5%, 90세 이상은 30.0%로 다시 높아진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버스나 지하철 이용보다는 택시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85~89세는 택시 이용률이 17.1%, 90세 이상은 21.9%로 이하 연령대보다 훨씬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무배우 노인이 유배우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으며, 가구형태에서는 독거가구의 경우 78.9%, 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62.9%, 64.4%가 대중교통을 외출의 주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이용 비율이 높으며,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57.3%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중일 경우 자가용 이용률이 높으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용 이용률이 높으며, 대중교통 이용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24.9%가 자가용을 이용하며, 16.7%가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는 29.0%가 자가용을 이용하며, 버스와 지하철 등을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 비율이 높았으며,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43.4%가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나, 버스나 전철 타고 내리기(15.4%),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17.4%), 교통수단 부족(9.1%) 등이 주요 불편 사항으로 꼽혔다. 외출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도 34.3%로 조사되었던 결과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주로 버스(전철) 타고 내리기,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분야의 어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교통수단 부족을 가장 큰 불편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읍·면부 지역의 노인들은 교통수단이 부족을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은 비율이 20.2%로, 동부(5.1%)에 비해 높았으며,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는 동부 거주 노인의 19.5%가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응답한 데 반해 읍·면부 거주 노인의 응답 비율은 11.6%로 비교적 낮았다.

연령군별로 살펴볼 때,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외출 시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이동하기 불편한 도로 상태에 대한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가장 젊은 연령군인 65~69세는 외출 시 불편함이 없는 비율이 55.4%로 조사되었으나, 85~90세는 23.4%, 90세 이상 노인은 17.6%로 나타나 연령은 외출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외출 시 불편함이 없는 비율이 48.2%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36.1%)보다 높았고, 독거가구는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불편함이 없는 비율이 비교적 낮고, 버스(전철) 타고 내리기, 교통수단 부족 등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기능 제한이 없을 경우 외출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들은 외출시 불편함이 없는 비율이 21.6%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48.0%)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교통수단 이용이나 보행 시에 불편함을 겪는 비율이 높았다.

<표 10-29>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특성	없음 (도보)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자전거	오토바이	기타	계 (명)
전체 ¹⁾	2.1	48.1	13.1	6.9	28.2	0.6	0.6	0.3	100.0 (10,029)
지역									
동부	2.5	47.5	17.6	6.5	24.9	0.6	0.3	0.1	100.0 (7,413)
읍·면부	1.2	49.8	0.4	7.8	37.5	0.6	1.7	1.0	100.0 (2,616)
성									
남자	1.3	35.8	12.2	5.9	42.2	0.9	1.1	0.5	100.0 (4,415)
여자	2.8	57.8	13.8	7.6	17.2	0.3	0.2	0.3	100.0 (5,614)
연령									
65~69세	0.7	39.6	11.5	2.7	44.2	0.3	0.6	0.3	100.0 (3,468)
70~74세	1.8	48.8	15.4	5.2	27.0	1.0	0.6	0.3	100.0 (2,372)
75~79세	1.8	57.0	16.0	7.2	16.4	0.5	0.7	0.4	100.0 (1,737)
80~84세	3.6	57.5	14.2	11.2	11.8	0.5	0.9	0.4	100.0 (1,398)
85~89세	5.7	51.0	8.0	17.1	16.5	0.9	0.4	0.3	100.0 (809)
90세 이상	7.4	34.6	5.3	21.9	30.0	0.0	0.5	0.2	100.0 (24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5	42.5	13.6	6.0	34.7	0.6	0.7	0.4	100.0 (6,029)
배우자 없음	3.1	56.5	12.4	8.1	18.4	0.6	0.5	0.3	100.0 (4,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3.2	58.4	12.3	8.2	16.3	0.7	0.5	0.3	100.0 (3,283)
노인부부	1.5	43.5	13.3	6.1	34.1	0.6	0.7	0.4	100.0 (5,545)
자녀동거	2.5	40.8	16.1	7.5	32.2	0.5	0.3	0.2	100.0 (1,029)
기타	0.5	43.9	6.3	3.6	43.7	0.4	0.9	0.6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3.6	57.8	6.8	14.0	15.5	0.9	0.9	0.5	100.0 (1,214)
초등학교	3.0	57.6	11.9	7.9	17.5	0.5	0.9	0.5	100.0 (2,835)
중학교	2.3	49.1	14.8	7.1	25.3	0.6	0.4	0.3	100.0 (2,132)
고등학교	1.0	41.1	15.0	3.4	38.2	0.5	0.5	0.3	100.0 (3,143)
전문대학 이상	0.4	21.2	15.5	5.1	57.3	0.5	0.0	0.0	100.0 (704)
현 취업상태									
취업중	0.6	42.8	9.9	3.6	40.8	0.7	1.1	0.5	100.0 (3,930)
미취업	3.1	51.5	15.2	9.0	20.1	0.5	0.3	0.2	100.0 (6,10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0	60.2	13.2	9.7	12.8	0.3	0.4	0.4	100.0 (2,000)
제2오분위	3.0	59.1	13.5	8.4	14.1	1.0	0.4	0.5	100.0 (1,997)
제3오분위	1.6	48.8	12.3	8.4	26.7	0.6	1.1	0.5	100.0 (2,005)
제4오분위	2.0	40.9	12.3	4.7	38.5	0.6	0.7	0.3	100.0 (2,014)
제5오분위	1.0	31.7	14.4	3.1	48.6	0.4	0.6	0.1	100.0 (2,01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0	58.3	13.7	9.1	14.6	0.5	0.4	0.4	100.0 (3,755)
50%이상~100%미만	1.9	48.7	11.3	8.2	27.8	0.7	0.9	0.5	100.0 (2,782)
100%이상~150%미만	1.6	41.8	12.9	4.2	37.6	0.7	0.8	0.4	100.0 (1,669)
150%이상	1.2	31.9	15.0	2.6	48.2	0.4	0.6	0.0	100.0 (1,824)
기능상태									
제한 있음	4.8	42.1	9.6	16.7	24.9	0.5	0.7	0.7	100.0 (1,826)
제한 없음	1.5	49.4	13.9	4.7	29.0	0.6	0.6	0.3	100.0 (8,203)
2020년도 ²⁾	0.8	52.5	11.8	6.6	25.6	1.1	1.4	0.2	10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 10,078명 중 외상 등으로 인해 외출을 아예 하지 않는 응답자를 제외한 10,0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0-30>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한 점

(단위: %, 명)

특성	없음	버스 (전철) 타고 내리기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 내리기	교통 수단 부족	이동하기 불편한 도로상태	노인을 배려하지 않은 교통편의 시설	인도가 없어 보행 시 위험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	기타	계(명)
전체 ¹⁾	43.4	15.4	17.4	9.1	3.7	4.9	1.9	4.1	0.1	100.0 (9,922)
지역										
동부	44.6	15.3	19.5	5.1	3.6	5.4	1.9	4.6	0.0	100.0 (7,335)
읍·면부	40.1	15.6	11.6	20.2	3.9	3.6	1.8	2.8	0.3	100.0 (2,587)
성										
남자	51.5	11.1	12.8	8.4	4.0	5.4	2.1	4.5	0.0	100.0 (4,377)
여자	37.0	18.7	21.0	9.6	3.4	4.5	1.7	3.9	0.2	100.0 (5,545)
연령										
65~69세	55.4	10.8	12.6	7.1	3.6	4.1	1.7	4.8	0.0	100.0 (3,462)
70~74세	47.7	13.7	15.4	8.7	3.5	5.0	1.8	4.0	0.1	100.0 (2,358)
75~79세	38.5	18.0	18.5	10.3	3.2	5.8	2.2	3.4	0.1	100.0 (1,724)
80~84세	27.8	21.2	22.8	12.6	4.5	4.9	2.1	4.0	0.1	100.0 (1,375)
85~89세	23.4	23.6	28.2	8.3	4.2	6.6	2.0	3.7	0.1	100.0 (769)
90세 이상	17.6	19.0	35.3	15.5	3.7	3.9	1.4	3.3	0.4	100.0 (23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8.2	12.8	14.6	8.5	4.3	5.0	2.2	4.3	0.1	100.0 (5,980)
배우자 없음	36.1	19.3	21.7	10.0	2.7	4.8	1.4	3.9	0.1	100.0 (3,942)
가구형태										
노인독거	36.8	19.4	20.9	10.0	2.7	4.8	1.4	3.8	0.1	100.0 (3,261)
노인부부	48.0	12.9	14.7	8.7	4.2	4.8	2.3	4.3	0.1	100.0 (5,502)
자녀동거	39.1	16.0	21.9	6.7	4.1	5.8	1.3	5.1	0.1	100.0 (989)
기타	45.4	13.7	13.0	16.1	2.5	4.7	1.8	2.3	0.3	100.0 (169)
교육수준										
무학	24.2	22.0	21.2	16.5	4.2	5.2	2.5	4.0	0.3	100.0 (1,167)
초등학교	37.1	18.7	20.8	10.7	3.6	4.3	1.8	2.9	0.1	100.0 (2,802)
중학교	43.0	14.5	17.5	8.8	3.7	5.2	1.8	5.4	0.0	100.0 (2,122)
고등학교	52.0	12.5	14.1	6.4	3.6	5.2	1.9	4.2	0.1	100.0 (3,130)
전문대학 이상	63.4	6.5	12.5	3.2	3.4	4.4	1.4	5.2	0.0	100.0 (7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51.6	11.9	12.0	10.3	3.5	3.9	1.9	4.8	0.1	100.0 (3,925)
미취업	38.1	17.6	21.0	8.3	3.8	5.6	1.9	3.7	0.1	100.0 (5,99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6.9	20.1	19.5	10.8	3.2	4.7	1.3	3.2	0.2	100.0 (1,978)
제2오분위	34.3	17.8	21.2	12.4	3.8	5.0	1.8	3.7	0.1	100.0 (1,971)
제3오분위	43.9	13.6	18.1	9.0	4.0	4.3	2.6	4.6	0.0	100.0 (1,977)
제4오분위	48.6	13.2	15.4	7.6	3.5	4.7	2.5	4.5	0.0	100.0 (2,003)
제5오분위	53.2	12.3	13.0	5.7	3.8	5.8	1.4	4.7	0.1	100.0 (1,99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5.3	18.5	20.8	11.5	3.8	4.9	1.6	3.5	0.1	100.0 (3,706)
50%이상~100%미만	44.8	13.7	17.3	9.6	3.5	4.3	2.4	4.4	0.1	100.0 (2,748)
100%이상~150%미만	48.6	13.9	14.8	6.2	4.2	5.0	2.3	4.8	0.1	100.0 (1,653)
150%이상	53.1	12.9	13.1	6.1	3.2	5.9	1.3	4.5	0.0	100.0 (1,815)
기능상태										
제한 있음	21.6	17.7	27.4	11.2	5.6	8.2	2.3	5.9	0.2	100.0 (1,729)
제한 없음	48.0	14.9	15.3	8.6	3.3	4.2	1.8	3.8	0.1	100.0 (8,193)
2020년도 ²⁾	34.3	19.3	24.9	5.6	3.9	5.4	1.5	4.9	0.1	100.0 (9,930)

주: 1) 본인응답자 9,955명 중 와상 등으로 인해 외출을 아예 하지 않는 응답자를 제외한 9,9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인의 운전 실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6.2%는 운전을 하고 있으며, 운전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 비율은 19.7%, 평생 한 적 없는 비율은 54.0%로 나타났다.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비율은 남자는 47.8%, 여자는 9.4%로 큰 성별 차이를 보이며,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운전 비율이 높아 65~69세는 48.4%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0~84세는 5.4%가 운전을 하며, 85세~89세는 2.0%만이 운전을 하고 있어, 노인의 운전 현황은 성별과 연령군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부부,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취업일 경우,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운전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능상태에서는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 30.3%가 운전을 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는 8.7%만이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을 그만둔 평균 연령은 66.8세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읍·면부가 67.5세이며 동부가 66.7세로 약간 차이를 보이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운전 중단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운전을 그만둔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현재 운전을 하는 노인 비율은 2017년 18.8%, 2020년 21.9%, 2023년 26.2%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운전을 그만둔 연령도 2020년에는 65.8세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66.8세로 높아졌다. 즉, 이제 평생 운전을 하지 않은 노인 비율이 감소하면서 노년기에 접어들더라도 기능상태가 크게 제한이 없는 경우 운전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운전을 하는 노인들이 운전 시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69.8%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2%는 어려움이 있으며 21.0%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특성별 어려움 정도를 살펴보면, 읍·면부에 비해 동부 거주 노인이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운전의 어려움이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65~69세의 경우 73.4%는 운전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취업중일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운전의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반면, 기능상태에 제한 있는 노인은 운전의 어려움이 있는 비율이 17.8%로 비교적 높아, 안전상의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31> 운전 여부 및 운전을 그만둔 나이

(단위: %, 세, 명)

특성	현재 하고 있음	전에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음	그만둔 나이 ²⁾	평생 한 적 없음	계 (명)
전체 ¹⁾	26.2	19.7	66.8	54.0	100.0 (10,078)
지역					
동부	25.4	22.6	66.7	51.9	100.0 (7,450)
읍·면부	28.6	11.6	67.5	59.8	100.0 (2,628)
성					
남자	47.8	34.6	67.8	17.6	100.0 (4,429)
여자	9.4	8.1	63.6	82.5	100.0 (5,649)
연령					
65~69세	48.4	12.3	61.2	39.3	100.0 (3,473)
70~74세	26.7	22.6	66.0	50.7	100.0 (2,377)
75~79세	13.7	27.3	68.5	59.0	100.0 (1,743)
80~84세	5.4	25.5	70.6	69.2	100.0 (1,407)
85~89세	2.0	17.0	69.7	81.0	100.0 (825)
90세 이상	0.0	20.6	71.0	79.4	100.0 (2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4.9	22.9	67.4	42.2	100.0 (6,047)
배우자 없음	13.3	15.0	65.5	71.7	100.0 (4,031)
가구형태					
노인독거	14.0	16.0	65.5	70.1	100.0 (3,306)
노인부부	34.2	22.8	67.5	43.0	100.0 (5,562)
자녀동거	20.3	16.0	66.7	63.7	100.0 (1,035)
기타	39.8	15.7	61.8	44.5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2.2	7.1	67.6	90.6	100.0 (1,240)
초등학교	11.1	16.3	68.5	72.6	100.0 (2,846)
중학교	23.9	25.2	66.2	50.9	100.0 (2,139)
고등학교	42.9	23.3	66.0	33.9	100.0 (3,145)
전문대학 이상	62.7	23.5	67.3	13.7	100.0 (707)
현 취업상태					
취업중	44.3	14.8	65.2	40.9	100.0 (3,931)
미취업	14.7	22.9	67.5	62.4	100.0 (6,1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0	15.9	66.7	75.2	100.0 (2,014)
제2오분위	10.4	20.2	68.0	69.5	100.0 (2,014)
제3오분위	24.3	23.3	67.4	52.3	100.0 (2,014)
제4오분위	37.5	21.2	66.4	41.3	100.0 (2,020)
제5오분위	50.0	18.2	65.3	31.8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0.5	19.5	67.7	70.0	100.0 (3,776)
50%이상~100%미만	24.9	20.4	67.3	54.7	100.0 (2,801)
100%이상~150%미만	37.1	20.0	65.9	42.9	100.0 (1,673)
150%이상	51.0	19.1	65.0	29.9	100.0 (1,828)
가능상태					
제한 있음	8.7	26.0	66.9	65.3	100.0 (1,873)
제한 없음	30.3	18.3	66.8	51.4	100.0 (8,205)
2020년도	21.9	17.8	65.8	60.4	10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운전을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1,99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표 10-32> 운전 시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0.3	8.9	21.0	51.9	17.9	100.0 (2,641)
지역						
동부	0.3	9.4	22.6	51.4	16.4	100.0 (1,890)
읍·면부	0.4	7.6	16.9	53.4	21.8	100.0 (751)
성						
남자	0.3	9.6	21.0	50.9	18.2	100.0 (2,112)
여자	0.5	6.1	20.9	55.9	16.6	100.0 (529)
연령						
65~69세	0.2	7.7	18.6	53.5	19.9	100.0 (1,678)
70~74세	0.1	9.9	23.5	50.6	15.9	100.0 (633)
75~79세	1.6	9.3	25.5	49.3	14.2	100.0 (239)
80~84세	0.0	18.1	33.8	43.7	4.4	100.0 (75)
85~89세	0.0	38.4	45.1	13.4	3.1	100.0 (16)
90세 이상	0.0	0.0	0.0	0.0	0.0	100.0 (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3	9.2	21.1	51.8	17.7	100.0 (2,104)
배우자 없음	0.5	7.6	20.7	52.5	18.7	100.0 (537)
가구형태						
노인독거	0.8	8.2	22.5	49.5	18.9	100.0 (462)
노인부부	0.2	9.6	21.5	51.8	16.9	100.0 (1,901)
자녀동거	0.0	5.2	16.5	56.7	21.6	100.0 (210)
기타	0.0	4.9	10.6	58.4	26.1	100.0 (68)
교육수준						
무학	0.0	9.5	18.1	65.9	6.5	100.0 (28)
초등학교	0.6	8.8	21.0	51.2	18.4	100.0 (315)
중학교	0.2	9.0	22.7	52.7	15.4	100.0 (509)
고등학교	0.2	8.6	20.6	53.1	17.5	100.0 (1,345)
전문대학 이상	0.7	9.5	20.5	47.0	22.3	100.0 (444)
현 취업상태						
취업중	0.1	7.7	18.9	54.8	18.5	100.0 (1,737)
미취업	0.7	11.1	24.9	46.4	16.8	100.0 (90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	7.3	29.9	44.4	17.4	100.0 (180)
제2오분위	0.4	10.5	23.9	50.8	14.4	100.0 (209)
제3오분위	0.4	9.4	23.9	49.1	17.1	100.0 (488)
제4오분위	0.0	8.0	18.4	53.8	19.8	100.0 (758)
제5오분위	0.4	9.2	19.3	53.4	17.7	100.0 (1,00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0.7	9.3	27.1	47.4	15.4	100.0 (396)
50%이상~100%미만	0.2	8.6	22.4	50.2	18.6	100.0 (694)
100%이상~150%미만	0.1	8.0	19.3	53.7	18.8	100.0 (620)
150%이상	0.4	9.4	18.4	54.0	17.8	100.0 (931)
기능상태						
제한 있음	1.8	16.0	18.6	51.6	12.0	100.0 (160)
제한 없음	0.2	8.4	21.1	52.0	18.3	100.0 (2,481)
2020년도	0.9	12.9	16.8	40.5	28.9	100.0 (2,207)

주: 1) 현재 운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64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운전 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을 대상으로 운전의 장애요소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1.5%는 시력 저하, 25.1%는 속도감 둔화, 21.0%는 판단력 저하, 18.8%는 반응속도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결과와 비교하면, 시력 저하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7.9%포인트 감소하였고, 대신 팔다리의 반응속도 저하 속도감 둔화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4.4% 포인트, 4.8% 포인트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자(34.7%)의 경우 읍·면부 거주자(21.0%)에 비해 시력 저하 비율이 13.7%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판단력 저하, 속도감 둔화로 인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 별로는 뚜렷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고,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는 이하 학력 집단보다 시력 저하, 속도감 둔화로 인해 운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노인은 시력 저하(32.7%), 속도감 둔화(26.3%)로 인한 어려움을 주로 겪는 데 반해,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판단력 저하(36.8%), 팔다리의 반응속도 저하(24.1%)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33> 운전 시 어려움 경험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력 저하	청력 저하	팔 다리의 반응속도 저하	판단력 저하	속도감 둔화	기타	계 (명)
전체 ¹⁾	31.5	3.3	18.8	21.0	25.1	0.3	100.0 (797)
지역							
동부	34.7	2.7	17.1	20.2	25.1	0.3	100.0 (610)
읍·면부	21.0	5.3	24.2	23.8	25.2	0.4	100.0 (187)
성							
남자	31.8	3.8	19.2	20.0	24.8	0.3	100.0 (651)
여자	29.8	1.2	16.6	25.5	26.5	0.4	100.0 (145)
연령							
65~69세	34.1	2.4	17.2	18.1	28.1	0.1	100.0 (445)
70~74세	28.5	2.8	20.3	24.0	23.6	0.8	100.0 (212)
75~79세	29.1	5.3	18.5	32.1	14.6	0.4	100.0 (87)
80~84세	31.2	12.9	24.1	7.5	24.3	0.0	100.0 (39)
85~89세	6.9	0.6	33.3	37.7	21.5	0.0	100.0 (13)
90세 이상	0.0	0.0	0.0	0.0	0.0	0.0	100.0 (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1.4	3.8	18.2	21.9	24.3	0.4	100.0 (642)
배우자 없음	31.9	1.1	20.9	17.6	28.5	0.0	100.0 (154)
가구형태							
노인독거	32.2	1.2	22.4	17.3	26.8	0.0	100.0 (146)
노인부부	32.1	3.8	17.7	21.7	24.3	0.4	100.0 (595)
자녀동거	22.9	4.9	14.7	24.1	33.3	0.0	100.0 (46)
기타	20.7	0.0	46.4	21.9	11.0	0.0	100.0 (11)
교육수준							
무학	10.4	4.8	47.0	16.5	21.3	0.0	100.0 (8)
초등학교	22.4	10.6	20.5	23.0	21.8	1.8	100.0 (96)
중학교	30.9	3.2	14.0	29.7	21.9	0.2	100.0 (162)
고등학교	33.8	1.6	18.1	19.3	27.1	0.1	100.0 (395)
전문대학 이상	33.1	3.2	23.5	14.4	25.8	0.0	100.0 (136)
현 취업상태							
취업중	31.0	3.5	19.2	20.6	25.4	0.3	100.0 (465)
미취업	32.1	3.0	18.1	21.6	24.8	0.4	100.0 (33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8.6	1.3	28.6	11.8	19.7	0.0	100.0 (69)
제2오분위	30.4	3.8	19.5	27.1	18.8	0.4	100.0 (73)
제3오분위	23.6	4.0	16.4	27.7	27.5	0.8	100.0 (165)
제4오분위	32.4	1.8	16.5	19.3	30.1	0.0	100.0 (200)
제5오분위	33.9	4.3	19.2	19.1	23.2	0.3	100.0 (29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6.3	2.5	24.3	18.3	18.4	0.2	100.0 (147)
50%이상~100%미만	23.7	3.5	15.3	28.0	28.8	0.6	100.0 (217)
100%이상~150%미만	36.3	2.9	16.3	18.1	26.4	0.0	100.0 (171)
150%이상	32.1	3.9	20.1	18.7	25.0	0.3	100.0 (262)
기능상태							
제한 있음	16.2	12.3	24.1	36.8	10.6	0.0	100.0 (58)
제한 없음	32.7	2.6	18.3	19.8	26.3	0.3	100.0 (739)
2020년도	39.4	3.6	14.4	22.3	20.3	—	100.0 (676)

주: 1) 현재 운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641명 중 운전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79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제2절 안전 실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의 안전사고는 노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은 젊은 세대 보다 스마트폰,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 또한 제한된 경우가 많아 각종 범죄피해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가정 내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학대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 여기서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안전사고와 범죄 피해, 학대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적 지원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율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건구매, 보이스 피싱,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과 같은 범죄 경험률은 사기성 물건 구매가 4.4%로 가장 높으며,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금전피해 2.1%, 재산범죄 0.5%, 폭력 및 강력범죄 0.3%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사기성 물건 구매 비율이 2.5%포인트 증가하였고,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금전피해 0.9%포인트, 보행자 교통사고 0.8%포인트 증가하였다.

노인의 피해율이 가장 높은 사기성 물건 구매 경험률은 남자에 비해 여자 피해 경험률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미취업 상태일 경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이스 피싱은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중인 경우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재산범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데,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범죄 경험률이 높다. 사기성 물건구매, 보이스 피싱, 재산범죄의 피해는 돈이 있는 경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폭력 및 강력범죄는 읍·면부보다는 동부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경험률이 높았다.

사고경험률을 살펴보면, 보행자교통사고는 1.5%, 운전자 교통사고 1.5%, 화재, 가스, 누수 등 안전사고 경험 비율은 0.5%이다.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률은 읍·면부 0.7%, 동부 1.8%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동부 거주 노인의 경험률이 높았다. 운전자 교통사고 경험률 또한 읍·면부 0.7%, 동부 1.8%로 동부 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여자(0.7%)

보다 남자(2.6%)가 경험하는 비율이 3배 이상 더 높았다. 한편, 연령대가 낮을수록, 유배우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운전자 교통사고를 내는 비율이 높았다. 미취업자(0.6%)보다는 취업자(2.9%),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0.9%)보다 없는 노인이(1.6%) 사고 빈도가 높았다. 취업자, 낮은 연령대,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들이 사고 빈도가 높은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외출이 더 빈번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화재, 가스 사고, 누수 등의 안전사고는 동부 지역(0.7%) 빈도가 읍·면부(0.2%)보다 높았고, 성별, 연령군 차이는 크지 않았다. 유배우자(0.7%)가 무배우자(0.4%)보다 경험률이 높았고, 가구형태별 차이는 크지 않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전사고 경험률이 높았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전체 노인의 1.1%가 경험하였다. 동부(0.7%)보다는 읍·면부(2.3%) 노인의 경험률이 높았고, 미취업 노인(0.9%)보다는 취업 노인(1.5%), 그리고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2.3%)은 없는 노인(0.8%)보다 경험률이 1.5%포인트 높았다.

<표 10-34> 범죄 및 사고 경험률

(단위: %)

특성	범죄피해				사고			재해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건구매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	보행자 교통사고	운전자 교통사고	안전사고 (화재, 가스, 누수 등)	자연재해
전체 ¹⁾	0.5	0.3	4.4	2.1	1.5	1.5	0.5	1.1
지역								
동부	0.6	0.4	5.3	2.8	1.8	1.8	0.7	0.7
읍·면부	0.2	0.1	1.9	0.2	0.7	0.7	0.2	2.3
성								
남자	0.5	0.2	3.6	2.3	1.6	2.6	0.5	1.1
여자	0.5	0.4	5.0	1.9	1.4	0.7	0.6	1.1
연령								
65~69세	1.0	0.4	4.2	2.4	2.0	2.7	0.6	1.1
70~74세	0.4	0.3	4.3	2.5	1.5	1.4	0.5	1.0
75~79세	0.1	0.1	4.5	1.9	1.1	0.9	0.6	0.8
80~84세	0.2	0.3	5.6	2.0	0.7	0.4	0.4	1.6
85~89세	0.4	0.3	3.6	0.6	1.5	0.1	0.6	1.2
90세 이상	0.0	0.0	4.0	1.4	1.4	0.0	0.0	1.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5	0.3	4.4	2.5	1.7	2.0	0.7	1.2
배우자 없음	0.5	0.3	4.5	1.6	1.2	0.7	0.4	1.0
가구형태								
노인독거	0.4	0.2	4.4	1.7	1.3	0.7	0.4	1.1
노인부부	0.5	0.3	4.2	2.2	1.5	1.8	0.6	1.1
자녀동거	1.0	0.2	5.7	2.7	1.9	2.0	0.4	0.8
기타	0.6	1.6	4.1	1.9	0.6	2.2	0.0	1.1
교육수준								
무학	0.2	0.2	1.7	0.6	0.7	0.5	0.3	1.2
초등학교	0.4	0.2	3.6	1.0	1.5	0.4	0.4	1.9
중학교	0.4	0.4	4.8	2.2	1.4	1.2	0.4	0.6
고등학교	0.8	0.5	5.8	3.4	1.6	2.3	0.7	0.7
전문대학 이상	0.7	0.2	5.2	3.0	2.6	5.1	1.0	1.2
현 취업상태								
취업중	0.8	0.4	3.9	2.9	1.7	2.9	0.7	1.5
미취업	0.3	0.2	4.7	1.6	1.4	0.6	0.5	0.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2	0.3	3.8	1.2	1.2	0.4	0.7	0.9
제2오분위	0.2	0.1	4.1	0.6	0.8	0.4	0.5	1.0
제3오분위	0.3	0.3	4.0	1.6	1.1	0.5	0.2	1.1
제4오분위	0.8	0.3	4.1	2.3	1.4	1.6	0.6	1.5
제5오분위	1.0	0.5	6.0	4.9	3.0	4.6	0.7	1.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0.2	0.2	4.0	0.8	1.1	0.4	0.6	1.0
50%이상~100%미만	0.5	0.4	4.3	1.6	0.9	0.5	0.4	1.2
100%이상~150%미만	0.6	0.2	3.7	2.3	1.6	2.1	0.3	1.0
150%이상	1.1	0.3	6.1	5.3	3.0	4.7	0.8	1.2
기능상태								
제한 있음	0.5	0.4	3.9	2.3	1.6	0.9	0.6	2.3
제한 없음	0.5	0.3	4.5	2.1	1.5	1.6	0.5	0.8
2020년도	0.4	0.3	1.9	1.2	0.7	—	0.5	—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노인학대

지난 1년간 1개 유형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노인은 전체의 5.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보다 동부 노인의 학대 경험률이 높았으며,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의 학대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85~89세 연령대 노인의 9.0%가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7.3%)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5.1%)보다 학대 경험률이 높았으며, 독거가구에 속한 노인이 다른 가구형태에 속한 노인에 비해 학대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수준과 취업상태에 따른 학대 경험률의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인 노인(7.8%)의 학대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와 관련해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10.1%)이 제한이 없는 노인(5.0%)에 비해 학대 경험률이 2배 정도 높았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러 학대 경험 중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학대 경험이 4.4%로 가장 높았고,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고통을 당한 비율은 0.4%, 성폭력 또는 성추행 0.5%,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 0.4%, 일상생활,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경험 시 도움을 받지 못한 경험 0.9%, 어렵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돌봄을 거부한 ‘자기방임’ 경험은 0.7%로 나타났다.

노인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고통을 당한 경험은 동부(0.4%)가 읍·면부(0.2%)보다 높았고,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0.6%)이 제한이 없는 노인(0.3%)보다 높았다.

성폭행 또는 성추행은 경험에서 동부가 0.7%, 읍·면부가 0.0%로 비교적 차이가 컸다. 연령군별로는 고연령군에 속하는 85~89세 노인 경험률이 2.3%, 90세 이상 1.2%로 나타나, 이하 연령군이 모두 1% 미만 경험률을 경험한 것보다 높았다. 자녀동거가구(1.1%)가 독거가구(0.6%), 부부가구(0.4%)보다 높았다. 또한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1.3%)이 제한이 없는 노인(0.4%)보다 성폭력 또는 성추행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학대도 동부는 4.6%, 읍·면부는 3.8%로 동부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4.1%)보다는 여자(4.6%)의 경험률이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3.8%)보다 없는 노인(5.2%)의 경험률이 높았다. 취업상태별로 보면, 취업중인 노인이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이 4.7%로 미취업 노인(4.1%)보다

높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험률이 대체로 높아졌다.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3.9%)보다 있는 노인(6.7%)이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이 2.8% 포인트 높았다.

타인으로 인한 금전피해 경험은 읍·면부(0.3%)보다는 동부(0.5%) 지역 노인이 높았고, 대체로 중·고소득 노인이 저소득 노인보다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예를 들면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노인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0.2%이지만, 중위소득 대비 100~150% 미만, 150% 이상 소득구간에 속하는 노인이 경험한 비율은 각각 0.8%, 0.6%로 비교적 높았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제한이 있는 노인이 경험하는 비율이 1.0%로, 제한이 없는 노인(0.3%)보다 0.7%포인트 높았다.

일상생활,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경험은 전체 노인의 0.9%로, 읍·면부(0.6%)보다는 동부지역 노인(0.9%)의 경험률이 높고, 여자의 경험률이 1.0%로 남자(0.6%)보다 높았다. 한편,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해당 경험을 한 비율이 1.3%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0.5%)에 비해 0.8%포인트 높았다. 또한 독거가구의 경험률이 1.4%로, 부부가구(0.6%), 자녀동거가구(0.4%)보다 높았다. 또한 미취업노인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한 비율이 1.1%로, 취업중 노인(0.5%)보다 높았다. 한편, 소득이 낮을수록 이러한 ‘방임’을 경험할 비율이 높았으며,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1.7%)은 제한이 없는 노인(0.7%)보다 경험 비율이 1.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어렵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돌봄을 거부하는 ‘자기방임’은 동부 지역 노인의 0.9%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읍·면부 거주 노인(0.2%)보다 0.7%포인트 높았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자기방임 경험이 1.2%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0.4%)보다 0.8%포인트 높았고,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1.5%)은 없는 노인(0.5%)보다 경험 비율이 1%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0-35> 학대 경험

(단위: %)

특성	학대 경험률 ¹⁾	학대 유형별 경험률 ²⁾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고통	성폭력 또는 성추행	타인의 말과 행동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	일상생활,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경험 시 도와주지 않음	어렵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돌봄을 거부함
전체	5.9	0.4	0.5	4.4	0.4	0.9	0.7
지역							
동부	6.4	0.4	0.7	4.6	0.5	0.9	0.9
읍·면부	4.8	0.2	0.0	3.8	0.3	0.6	0.2
성							
남자	5.6	0.4	0.6	4.1	0.4	0.6	0.6
여자	6.2	0.3	0.5	4.6	0.5	1.0	0.8
연령							
65~69세	6.1	0.4	0.4	4.5	0.6	0.9	0.6
70~74세	4.4	0.2	0.2	3.4	0.3	0.4	0.4
75~79세	5.6	0.3	0.1	4.1	0.4	0.9	0.8
80~84세	6.9	0.2	0.7	5.4	0.4	0.7	1.3
85~89세	9.0	0.9	2.3	5.6	0.6	2.3	0.9
90세 이상	5.1	0.0	1.2	3.9	0.0	1.2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1	0.4	0.5	3.8	0.4	0.5	0.4
배우자 없음	7.3	0.3	0.6	5.2	0.5	1.3	1.2
가구형태							
노인독거	7.5	0.4	0.6	5.4	0.4	1.4	1.2
노인부부	4.9	0.4	0.4	3.7	0.4	0.6	0.4
자녀동거	6.8	0.2	1.1	5.1	0.4	0.4	0.9
기타	5.1	1.0	0.0	2.6	1.6	0.6	1.0
교육수준							
무학	5.9	0.4	0.2	4.1	0.6	0.9	0.8
초등학교	6.6	0.4	0.6	4.6	0.4	1.2	1.0
중학교	4.2	0.4	0.0	3.3	0.4	0.7	0.4
고등학교	6.3	0.2	0.7	4.9	0.4	0.7	0.5
전문대학 이상	6.7	0.7	1.3	4.7	0.5	0.4	1.1
현 취업상태							
취업중	6.0	0.4	0.4	4.7	0.4	0.5	0.6
미취업	5.9	0.3	0.6	4.1	0.5	1.1	0.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8	0.5	0.4	2.9	0.4	1.2	0.7
제2오분위	5.5	0.2	0.5	3.9	0.2	1.0	0.6
제3오분위	6.0	0.3	0.4	4.8	0.4	0.8	0.7
제4오분위	6.3	0.4	0.5	4.5	0.6	0.7	0.7
제5오분위	7.0	0.5	0.8	5.6	0.6	0.6	0.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0	0.4	0.5	3.3	0.2	1.2	0.7
50%이상~100%미만	6.0	0.3	0.5	4.7	0.4	0.5	0.5
100%이상~150%미만	5.9	0.4	0.1	4.5	0.8	0.5	0.8
150%이상	7.8	0.5	0.9	6.1	0.6	1.0	1.1
기능상태							
제한 있음	10.1	0.6	1.3	6.7	1.0	1.7	1.5
제한 없음	5.0	0.3	0.4	3.9	0.3	0.7	0.5
2020년도	7.3	1.3	1.1	6.6	0.4	0.5	—

주: 1) 본인응답자 중에서 제시된 학대 유형 중 하나 이상 경험이 있는 노인의 비율임.

2) 본인응답자 중 각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비율임.

학대 유형별 행위자를 살펴보면, 친구 및 이웃이 다양한 학대 유형에서 주된 가해자로 나타났다. 먼저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주요 행위자는 친구 및 이웃 36.5%, 배우자 25.3%, 기타 친인척 21.1% 순으로 높았다. 성폭력 또는 성추행에서도 친구 및 이웃이 3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아들 32.7%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 이외에는 기타 친인척 8.6%, 며느리 8.0%,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5.8%, 배우자 4.6% 순으로 확인되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의한 학대도 다른 학대 유형과 마찬가지로 친구 및 이웃의 비율이 60.7%로 매우 높았다. 이어서는 며느리 10.2%, 기타 7.7%, 기타 친인척 7.2%, 아들 5.8%, 배우자 4.7% 순이었다. 금전적 피해의 가해자도 친구 및 이웃이 50.3%로 높았고, 기타 친인척이 25.2%, 배우자 11.8%, 딸 7.0%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도와주지 않은 행위자는 친구 및 이웃이 32.1%로 가장 높았고, 며느리 17.4%, 딸 13.1%, 배우자 11.1%, 아들 7.8%,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5.4% 순이다.

<표 10-36> 학대 유형별 행위자

(단위: %, 명)

특성	학대 유형별 행위자 ¹⁾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고통	성폭력 또는 성추행	타인의 말과 행동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	일상생활,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경험 시 도와주지 않음
배우자	25.3	4.6	4.7	11.8	11.1
아들	4.3	32.7	5.8	0.9	7.8
딸	6.0	0.0	0.7	7.0	13.1
며느리	0.0	8.0	10.2	0.0	17.4
사위	0.0	0.0	0.3	0.0	0.9
기타 친인척	21.1	8.6	7.2	25.2	10.1
친구 및 이웃	36.5	34.9	60.7	50.3	32.1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1.8	5.8	2.7	0.0	5.4
기타	5.0	5.4	7.7	4.7	2.1
계 ²⁾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7)	(51)	(435)	(44)	(85)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례수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학대 경험 시 대응 방법은 ‘그냥 참음’이 9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0%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2.4%가 112에 신고, 1.8%만이 학대 경험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고 응답했다. 1.6%의 응답자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대응했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은 읍·면부 거주자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112에 신고하는 비율이 각각 2.3%, 2.9%로 나타나, 읍·면부 0.0%, 0.5%에 비해 높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도 더 높았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여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비율이 2.8%로 남자 0.5%에 비해 높았고 112에 신고하는 비율은 남자가 2.8%로 여자 2.1%보다 높았다.

연령군에 따른 차이를 보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비교적 젊은 노인층인 65~69세, 70~74세 구간에서 각각 9.3%, 9.0%로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외부기관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가구형태별로 보았을 때, 부부가구는 학대 경험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비율이 2.4%로 독거가구의 1.7%보다 높았고, 112에 신고한 경험도 3.2%로 독거가구의 2.1%보다 높았다. 부부가구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외부 기관에 신고한 경험은 0.0%로 나타났고, ‘그냥 참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6.6%로 가구형태 중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으로 보면,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는 학대 경험 시 그냥 참는 비율이 87.1%로 평균 90.1%에 비해 낮았다. 취업상태별로 보았을 때, 미취업인 노인들이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비율은 취업중 노인보다 높았다. 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취업중인 노인이 9.6%로, 미취업 노인 5.3%보다 높았다.

소득별로는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비율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높은 소득수준을 보일수록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는 학대경험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4.9%에 불과했으나, 가장 높은 소득구간인 제5오분위는 10.7%로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제한 없는 노인이 외부 기관에 신고한 비율이 노인보호전문기관 2.0%, 112에 신고 2.5%로, 제한이 있는 노인들이 각각 1.5%, 2.0%로 나타난 것보다 높았다.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것에 비교적 소극적인 기능제한자는 대신 주변에 요청하는 비율이 9.3%로 나타나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 6.0%보다 높았다.

<표 10-37> 학대 경험 시 대응 방법(중복응답)

(단위: %, 명)

특성	노인보호전문 기관에 신고	112에 신고	주변에 도움 요청	그냥 참음	기타	(명)
전체 ¹⁾	1.8	2.4	7.0	90.1	1.6	(595)
지역						
동부	2.3	2.9	7.2	90.1	0.5	(471)
읍·면부	0.0	0.5	6.5	90.1	5.7	(124)
성						
남자	0.5	2.8	7.5	89.7	1.7	(245)
여자	2.8	2.1	6.7	90.5	1.5	(349)
연령						
65~69세	2.2	3.5	9.3	87.5	1.0	(213)
70~74세	0.0	0.0	9.0	90.9	3.6	(104)
75~79세	1.9	1.0	5.3	93.0	0.6	(99)
80~84세	1.9	3.5	3.4	92.0	2.1	(95)
85~89세	3.7	3.4	6.0	88.7	1.3	(71)
90세 이상	0.0	0.0	0.0	100.0	0.0	(1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	3.0	7.2	89.9	1.3	(304)
배우자 없음	1.5	1.8	6.8	90.4	1.9	(290)
가구형태						
노인독거	1.7	2.1	6.6	89.4	2.2	(246)
노인부부	2.4	3.2	7.7	89.0	1.5	(272)
자녀동거	0.0	0.0	6.7	96.6	0.0	(68)
기타	0.0	3.7	0.0	96.3	0.0	(9)
교육수준						
무학	0.0	1.6	11.7	90.7	1.3	(70)
초등학교	1.8	2.6	7.8	89.7	1.9	(186)
중학교	3.1	2.0	4.3	89.1	3.0	(92)
고등학교	1.8	3.2	5.0	91.6	0.6	(200)
전문대학 이상	2.4	0.0	10.8	87.1	2.2	(47)
현 취업상태						
취업중	1.2	0.7	9.6	90.1	1.6	(236)
미취업	2.2	3.5	5.3	90.2	1.6	(35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9	5.5	4.9	88.7	0.0	(96)
제2오분위	3.0	1.0	6.0	92.7	2.7	(112)
제3오분위	3.1	2.6	6.1	87.9	1.8	(120)
제4오분위	0.7	3.1	6.3	90.9	2.4	(127)
제5오분위	0.7	0.5	10.7	90.3	0.9	(14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0	3.4	4.9	91.9	0.5	(187)
50%이상~100%미만	3.1	2.3	6.7	87.3	3.3	(168)
100%이상~150%미만	0.0	3.1	6.5	91.5	1.9	(98)
150%이상	1.4	0.5	10.5	90.2	0.9	(141)
기능상태						
제한 있음	1.5	2.0	9.3	90.2	0.4	(180)
제한 없음	2.0	2.5	6.0	90.1	2.1	(414)

주: 1) 본인응답자 9,955명 중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59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사례수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제3절 연령 규범 및 연령 차별

1. 연령기준에 대한 인지와 차별경험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전반적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이란 기준에 대해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여러 법적, 제도적 기준이 두루 연계된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으나, 베이비부머의 노인 연령 편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이러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노인 연령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인식 변화를 확인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조사 결과, 노인들은 노년기 시작 연령을 평균 71.6세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70~74세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4.6%로 가장 높았고, 75~79세라는 응답은 21.4%였다. 69세 이하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0.9%로 조사되었다. 2020년에는 노년기 시작 연령에 대한 인식이 평균 70.5세로 조사되어 2023년에는 1.1세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노인 시작 연령이 75~79세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14.9%에서 2023년 21.4%로 6.5%포인트 증가하였고, 80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6.5%에서 13.0%로 6.5%포인트 증가한 반면, 69세 이하라는 비율은 25.9%에서 20.9%로 5%포인트 감소하였다.

노인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별,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연령군별로는 가장 낮은 연령군인 65~69세는 노인 시작 연령을 평균 71.3세로 인식하는 데 비해 가장 높은 연령군인 85~89세, 90세 이상은 각각 71.9세, 72.5세로 응답하여 인식 차이를 보였다. 65~69세 집단은 노인 연령이 69세 이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2.9%로 조사되어 전체 연령군 중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0.8%로 전체 연령군 중 가장 낮았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가 노인 시작 연령을 평균 72.2세로 인식하여 독거가구(71.5세), 부부가구(71.7세)보다 노인 연령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노인 시작 연령이 69세 이하라는 응답 비율이 16.4%로 다른 가구형태 구성원보다 낮았고, 반대로 75~79세, 80세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다른 가구형태 구성원보다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 시작 연령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에 속하는 노인은 노인 시작 연령을 평균 71.3세로 인식하는데 비해, 제5오분위에 속하는 노인은 평균 72.2세로 응답하여 0.9세 차이를 보였다.

<표 10-38>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

(단위: %, 명, 세)

특성	69세 이하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¹⁾	20.9	44.6	21.4	13.0	100.0 (9,955)	71.6
지역						
동부	20.6	44.2	22.2	13.0	100.0 (7,359)	71.7
읍·면부	21.8	45.9	19.2	13.1	100.0 (2,596)	71.5
성						
남자	20.1	44.6	22.5	12.8	100.0 (4,384)	71.7
여자	21.6	44.7	20.5	13.2	100.0 (5,571)	71.6
연령						
65~69세	22.9	44.0	22.3	10.8	100.0 (3,465)	71.3
70~74세	21.7	42.6	20.8	14.9	100.0 (2,362)	71.8
75~79세	18.5	48.3	19.8	13.4	100.0 (1,729)	71.8
80~84세	21.5	43.8	20.5	14.2	100.0 (1,379)	71.7
85~89세	15.3	48.9	23.2	12.7	100.0 (781)	71.9
90세 이상	17.7	37.1	25.9	19.3	100.0 (239)	72.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0.7	44.8	21.2	13.4	100.0 (5,987)	71.7
배우자 없음	21.4	44.4	21.6	12.6	100.0 (3,968)	71.5
가구형태						
노인독거	22.4	43.9	21.0	12.7	100.0 (3,281)	71.5
노인부부	20.9	44.8	21.2	13.1	100.0 (5,509)	71.7
자녀동거	16.4	45.2	24.2	14.2	100.0 (993)	72.2
기타	22.0	51.5	16.1	10.3	100.0 (172)	71.0
교육수준						
무학	28.1	44.5	15.9	11.5	100.0 (1,184)	70.9
초등학교	19.5	46.2	20.9	13.4	100.0 (2,810)	71.7
중학교	22.7	44.7	20.1	12.5	100.0 (2,127)	71.5
고등학교	19.2	43.3	23.6	13.9	100.0 (3,132)	71.9
전문대학 이상	16.7	44.2	26.7	12.4	100.0 (701)	72.0
현 취업상태						
취업중	20.5	44.3	21.2	14.0	100.0 (3,926)	71.7
미취업	21.2	44.8	21.5	12.4	100.0 (6,029)	71.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4.1	44.5	18.4	12.9	100.0 (1,989)	71.3
제2오분위	22.9	44.6	20.1	12.4	100.0 (1,983)	71.4
제3오분위	20.7	45.2	21.8	12.3	100.0 (1,981)	71.6
제4오분위	18.7	46.8	22.1	12.5	100.0 (2,007)	71.8
제5오분위	18.4	42.1	24.5	15.1	100.0 (1,995)	72.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3.5	43.9	19.3	13.3	100.0 (3,722)	71.4
50%이상~100%미만	20.2	46.9	21.0	11.9	100.0 (2,759)	71.5
100%이상~150%미만	19.0	45.5	23.4	12.1	100.0 (1,657)	71.8
150%이상	18.6	41.9	24.5	15.1	100.0 (1,817)	72.2
기능상태						
제한 있음	21.3	42.8	22.9	13.0	100.0 (1,759)	71.6
제한 없음	20.9	45.0	21.1	13.1	100.0 (8,196)	71.7
2020년도	25.9	52.7	14.9	6.5	100.0 (9,930)	70.5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생산성과 젊음, 성과를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는 건강기능이 저하되고 의존성이 높아지는 ‘노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노인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무시, 차별을 경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문항에서는 대중교통, 상업시설, 공공기관, 의료시설 이용과 직장 및 가정에서 차별(무시)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차별 경험이 가장 높은 것은 상업시설을 이용할 때로 14.0%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이용 12.6%, 가정 8.6%, 의료시설 이용 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직장(5.3%)과 공공기관 이용(4.5%)에서는 차별 경험이 비교적 적었다. 2020년도 조사 결과보다 차별 경험은 조사 대상 모든 영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별 경험은 대중교통 이용에서는 8.2%포인트, 상업시설 이용에서는 16.8%포인트, 공공기관 이용에서는 4.2%포인트, 의료시설 이용에서는 4.5%포인트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장 및 가정에서도 차별 경험이 각각 5.3%포인트, 2.7%포인트 감소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개선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시된 모든 상황에서 동부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읍·면·부보다 높았다. 특히 가정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동부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각각 4.4%포인트, 4.2%포인트 더 높게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자는 상업시설, 공공기관 이용, 의료시설 이용, 직장에서의 여자보다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고, 여자는 대중교통 이용과 가정에서 차별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중교통, 공공기관, 의료시설 이용과 가정에서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대중교통 이용 시 65~69세는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9.4%인데 85~89세는 15.7%, 90세 이상은 26.4%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직장에서의 차별 경험은 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65~69세, 70~74세에서 각각 9.9%, 4.1%로 75세 이후 연령에 비해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무배우일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3.5%포인트 높았고, 가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1.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가 대중교통 이용, 상업시설 이용, 의료시설 이용, 가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가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자녀동거가구가 15.5%로 독거가구 7.8%, 부부가구 7.9%보다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반적으로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는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낮았다. 반면, 직장에서의 차별은 중졸 이상 학력에서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현재

취업중인 노인이 직장에서의 차별을 당하는 비율이 1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미취업 노인은 가정에서 차별당하는 비율이 9.7%로 취업중 노인(6.9%)보다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상업시설, 공공기관, 의료시설 이용과 직장 및 가정에서 고소득 노인이 다른 이하 소득집단에 비해 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비율이 높았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대중교통, 상업시설, 공공기관, 의료시설 이용 및 가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기능제한 없는 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39> 연령차별 경험 여부 및 차별 경험 상황

(단위: %, 명)

특성	대중교통 이용	상업시설 이용	공공기관 이용	의료시설 이용	직장	가정
전체 ¹⁾	12.6	14.0	4.5	8.2	5.3	8.6
지역						
동부	13.7	14.9	4.8	8.7	5.9	9.7
읍·면부	9.5	11.6	3.8	6.8	3.7	5.3
성						
남자	11.1	14.2	4.9	8.8	7.3	8.1
여자	13.8	13.9	4.2	7.8	3.8	8.9
연령						
65~69세	9.4	14.1	4.9	8.3	9.9	7.8
70~74세	11.4	13.5	4.1	6.9	4.1	7.0
75~79세	15.5	14.6	5.4	8.1	3.7	8.0
80~84세	14.9	13.7	2.9	8.0	1.4	11.4
85~89세	15.7	15.0	4.3	9.8	0.8	10.5
90세 이상	26.4	13.5	6.4	16.4	2.0	16.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1.2	14.4	4.4	7.9	5.9	8.1
배우자 없음	14.7	13.5	4.6	8.7	4.5	9.3
가구형태						
노인독거	14.2	12.6	4.5	8.3	4.6	7.8
노인부부	10.9	14.1	4.4	7.8	6.0	7.9
자녀동거	17.6	17.9	5.1	10.6	4.1	15.5
기타	9.7	15.9	5.3	6.7	4.7	6.8
교육수준						
무학	12.7	11.1	3.2	8.0	1.7	10.7
초등학교	13.3	13.3	4.4	7.7	2.6	8.1
중학교	13.1	13.5	4.5	7.8	4.2	8.1
고등학교	12.4	16.0	5.3	9.5	9.7	8.9
전문대학 이상	9.3	14.7	3.6	6.4	6.5	7.3
현 취업상태						
취업중	11.0	14.5	4.6	7.9	11.7	6.9
미취업	13.6	13.7	4.5	8.4	1.2	9.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1.3	9.9	3.9	7.4	1.5	6.8
제2오분위	13.7	13.0	3.8	7.7	1.4	9.0
제3오분위	13.6	14.7	4.1	8.2	4.4	8.4
제4오분위	10.9	13.4	5.1	7.0	6.2	7.7
제5오분위	13.6	19.2	5.6	10.7	13.1	11.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3	12.4	3.8	7.8	1.5	8.4
50%이상~100%미만	13.3	13.3	4.1	7.5	4.0	8.2
100%이상~150%미만	11.2	14.4	5.4	7.6	7.2	8.1
150%이상	13.4	18.3	5.7	10.6	13.6	10.1
기능상태						
제한 있음	19.1	17.9	6.0	13.5	3.1	14.9
제한 없음	11.2	13.2	4.2	7.1	5.8	7.2
2020년도	20.8	30.8	8.7	12.7	10.6	11.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4절 웰다잉(well-dying) 인식 및 죽음 관련 준비

1.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과 희망하는 장사방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의학적 시술을 하는 연명치료는 환자와 가족의 상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과거 생명존중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은 삶의 질과 환자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변화하고 있지만, 연명치료 여부는 여전히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어려운 결정이다. 본 조사에서 노인들은 연명치료에 대해 매우 반대하는 의견이 46.1%, 반대하는 편이 38.0%로, 연명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매우 반대+반대하는 편)이 84.1%를 차지했다. 찬성하는 입장(매우 찬성+찬성)은 6.1%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8%였다. 이 결과는 2020년 85.6%가 부정적 입장이었던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 거주 노인(84.5%)이 연명치료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읍·면·부·거주 노인(83.1%)보다 다소 높았고, 성별로는 남자(85.3%)가 여자(83.3%)보다 반대하는 비율이 적은 차이지만 높았다. 연령군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90세 이상(88.6%) 노인의 부정적 응답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 유무 별로는, 유배우 노인(85.4%)이 무배우 노인(82.4%)보다 부정적 인식이 3.0%포인트 높았고,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85.2%)와 자녀동거가구(84.3%)가 독거가구(82.4%)보다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연명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노인이 반대하는 비율이 91.2%로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제5오분위(최상위 소득분위)에서 연명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86.7%로 가장 높았고, 제1오분위(최하위 소득분위)에서 80.2%로 가장 낮았다.

<표 10-40>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잘 모르겠다	계 (명)
전체 ¹⁾	1.4	4.7	38.0	46.1	9.8	100.0 (9,955)
지역						
동부	1.5	5.1	38.4	46.1	8.9	100.0 (7,359)
읍·면부	1.3	3.5	36.9	46.2	12.2	100.0 (2,596)
성						
남자	1.4	4.5	40.4	44.9	8.8	100.0 (4,384)
여자	1.5	4.8	36.2	47.1	10.5	100.0 (5,571)
연령						
65~69세	1.4	5.3	40.0	45.3	7.9	100.0 (3,465)
70~74세	1.5	4.7	38.5	45.7	9.7	100.0 (2,362)
75~79세	1.8	4.6	35.8	47.9	9.9	100.0 (1,729)
80~84세	0.7	3.7	37.0	47.0	11.6	100.0 (1,379)
85~89세	2.0	3.5	33.6	45.1	15.7	100.0 (781)
90세 이상	0.9	4.2	41.6	47.0	6.3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4	4.7	39.1	46.3	8.6	100.0 (5,987)
배우자 없음	1.5	4.7	36.5	45.9	11.5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1.4	4.4	36.4	46.0	11.7	100.0 (3,281)
노인부부	1.5	4.7	39.1	46.1	8.7	100.0 (5,509)
자녀동거	1.2	4.8	37.9	46.4	9.7	100.0 (993)
기타	0.4	8.7	35.2	49.7	6.0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1.5	3.0	35.2	46.2	14.1	100.0 (1,184)
초등학교	1.3	3.8	38.9	44.7	11.4	100.0 (2,810)
중학교	2.3	6.7	37.8	44.5	8.8	100.0 (2,127)
고등학교	1.0	5.0	38.6	46.8	8.6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1.0	3.5	37.8	53.4	4.3	100.0 (7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1.5	4.6	38.9	45.6	9.4	100.0 (3,926)
미취업	1.4	4.7	37.5	46.5	10.0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	6.0	38.3	41.9	12.5	100.0 (1,989)
제2오분위	1.8	3.6	35.2	49.3	10.0	100.0 (1,983)
제3오분위	1.2	4.5	38.3	47.1	9.0	100.0 (1,981)
제4오분위	1.4	5.0	38.9	45.0	9.7	100.0 (2,007)
제5오분위	1.4	4.3	39.4	47.3	7.7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5	5.1	37.2	44.5	11.7	100.0 (3,722)
50%이상~100%미만	1.1	4.6	37.9	47.4	9.0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1.3	4.5	38.6	47.5	8.1	100.0 (1,657)
150%이상	1.8	4.1	39.4	46.2	8.5	100.0 (1,817)
가능상태						
제한 있음	1.0	3.2	39.1	44.8	11.8	100.0 (1,759)
제한 없음	1.5	5.0	37.8	46.4	9.3	100.0 (8,196)
2020년도	0.1	2.4	39.6	46.0	(11.8) ²⁾	100.0 (9,93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2020년도 보기 문항은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였으며, 해당 값은 '그저 그렇다' 응답 비율을 기입함.

좋은 죽음 준비에 대한 노인의 의식이 많이 높아진 만큼 본인이 희망하는 장사방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이전보다 일반화되었다. 조사결과, 한국 노인이 가장 선호하는 장사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으로 38.0%를 차지했고, ‘화장 후 자연장’은 23.1%, ‘화장 후 산분장’은 13.1%, ‘매장’은 6.1%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한편,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비율도 19.6%로 비교적 높았다. 2020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화장 후 납골당을 선호하는 비율이 4.7%포인트 증가하였고, 자연장을 선호하는 비율도 2.5%포인트 증가한 반면, 매장을 선호하는 비율은 2020년 11.6%에서 5.5%포인트 감소하여 인식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비율은 20.6%에서 19.6%로 1.0%포인트 감소하였다.

‘화장 후 납골당’을 선호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을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에서 읍·면부 지역 노인들 중 ‘화장 후 납골당’방식을 원하는 비율이 43.2%로, 동부(36.2%)보다 7.0%포인트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화장 후 납골당’을 여자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령군별로는 두루 높은 선호를 보이는 가운데, 90세 이상 집단에서 43.3%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38.7%)와 부부가구(38.1%)가 자녀동거가구(35.9%)에 비해 납골당 선호가 높았다. 소득별로는,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50~100% 미만 구간에 속하는 노인이 각각 39.9%, 39.5% 선호도를 보여 중상위 소득보다 높았다.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있는 노인(39.9%)이 제한이 없는 노인(37.6%)보다 납골당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장 후 자연장’은 동부 지역(23.8%) 선호도가 읍·면부(21.1%)보다 높았고, 남자(21.6%)보다는 여자(24.2%)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 연령군별,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무학 노인 중에 자연장을 선호하는 비율은 18.2%였으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의 선호도는 각각 25.5%, 25.0%로 더 높았다.

‘화장 후 산분장’은 동부 지역(13.6%)에서 읍·면부 지역(11.7%)보다 선호도가 높았고, 남자(12.4%)보다는 여자(13.6%), 유배우 노인(12.0%)보다는 무배우 노인(14.8%)의 선호도가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14.8%)와 자녀동거가구(13.8%)가 부부가구(12.0%)보다 산분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고, 소득별로는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제2오분위에 속하는 노인이 각각 14.8%, 13.9% 선호도를 보여, 중상위 소

독 노인보다 높았다.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14.7%)은 없는 노인(12.7%)보다 산분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2.0%포인트 더 높았다.

전통적인 형태의 매장방식은 지역별로는 읍·면부 거주 노인 중 선호하는 비율이 8.8%로 조사되어 동부 지역(5.2%)보다 3.6%포인트 더 높았다. 남자(6.9%)는 여자(5.5%)보다 매장에 대해 다소 높은 선호를 보였고,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8.5%)가 부부가구(6.1%), 독거가구(5.5%)보다 매장 선호도가 높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매장에 대한 선호는 높게 나타났다. 무학 노인의 매장 선호 비율은 10.8%로 비교적 높은 반면,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의 선호도는 각각 4.3%, 4.4%로 비교적 낮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가장 소득이 낮은 집단인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노인의 매장 선호도가 7.1%로 중상위 소득 노인(100~150% 미만 4.4%, 150% 이상 4.9%)보다 높았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8.6%)의 매장 선호도가 제한이 없는 노인(5.6%)보다 3.0%포인트 더 높았다.

자신의 사후 장사방식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보지 않은 비율’은 동부 지역(21.2%) 노인이 읍·면부 지역(15.0%)보다 6.2%포인트 더 높았다.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아직 생각해 보지 않은 비율이 높았고, 유배우자(20.2%)가 무배우자(18.6%)에 비해 생각해 보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부부가구(20.0%)가 독거가구(18.5%), 자녀동거가구(18.8%)에 비해 아직 생각해 보지 않은 비율이 높았고, 취업중 노인(21.2%)이 미취업 노인(18.5%)보다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중고소득에 속하는 중위소득 대비 100%~150% 미만, 150% 이상에 속하는 노인이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3.4%, 21.2%로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노인(17.6%)보다 높았다. 한편,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20.4%)은 제한이 있는 노인(15.5%)보다 구체적인 장례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표 10-41> 희망하는 본인의 장사 방식

(단위: %, 명)

특성	화장 후 납골당	화장 후 자연장	화장 후 산분장	매장	기타	생각해 보지 않음	계 (명)
전체 ¹⁾	38.0	23.1	13.1	6.1	0.2	19.6	100.0 (9,955)
지역							
동부	36.2	23.8	13.6	5.2	0.1	21.2	100.0 (7,359)
읍·면부	43.2	21.1	11.7	8.8	0.3	15.0	100.0 (2,596)
성							
남자	39.0	21.6	12.4	6.9	0.2	19.9	100.0 (4,384)
여자	37.2	24.2	13.6	5.5	0.1	19.3	100.0 (5,571)
연령							
65~69세	35.9	24.5	13.4	3.9	0.1	22.3	100.0 (3,465)
70~74세	38.3	22.5	13.9	5.3	0.1	19.9	100.0 (2,362)
75~79세	38.2	21.9	14.3	6.3	0.2	19.1	100.0 (1,729)
80~84세	40.7	21.7	11.7	9.8	0.4	15.8	100.0 (1,379)
85~89세	39.5	23.8	11.2	11.1	0.1	14.3	100.0 (781)
90세 이상	43.3	23.0	6.8	8.0	0.0	18.8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7.7	23.5	12.0	6.5	0.2	20.2	100.0 (5,987)
배우자 없음	38.5	22.5	14.8	5.5	0.1	18.6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38.7	22.4	14.8	5.5	0.1	18.5	100.0 (3,281)
노인부부	38.1	23.5	12.0	6.1	0.2	20.0	100.0 (5,509)
자녀동거	35.9	22.7	13.8	8.5	0.3	18.8	100.0 (993)
기타	31.4	25.5	11.5	3.9	0.0	27.7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40.0	18.2	13.5	10.8	0.3	17.3	100.0 (1,184)
초등학교	40.1	21.7	12.2	6.8	0.1	19.1	100.0 (2,810)
중학교	38.3	23.5	14.2	5.7	0.2	18.0	100.0 (2,127)
고등학교	34.5	25.5	13.9	4.3	0.1	21.7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40.7	25.0	9.3	4.4	0.1	20.5	100.0 (7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38.2	23.0	12.1	5.3	0.2	21.2	100.0 (3,926)
미취업	37.9	23.1	13.7	6.6	0.1	18.5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7.9	22.1	14.8	6.8	0.0	18.5	100.0 (1,989)
제2오분위	41.7	20.5	13.9	7.1	0.3	16.6	100.0 (1,983)
제3오분위	38.7	23.0	12.7	6.2	0.2	19.1	100.0 (1,981)
제4오분위	35.7	24.6	11.2	5.3	0.2	22.9	100.0 (2,007)
제5오분위	36.1	25.2	12.9	5.2	0.1	20.5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9.9	21.3	13.9	7.1	0.2	17.6	100.0 (3,722)
50%이상~100%미만	39.5	22.5	12.4	6.6	0.2	18.8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34.0	25.1	12.9	4.4	0.2	23.4	100.0 (1,657)
150%이상	35.5	25.7	12.7	4.9	0.1	21.2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39.9	21.2	14.7	8.6	0.0	15.5	100.0 (1,759)
제한 없음	37.6	23.5	12.7	5.6	0.2	20.4	100.0 (8,196)
2020년도	33.3	20.6	13.9	11.6	0.0	20.6	100.0 (9,93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죽음 준비 실태

생애 마지막을 스스로 정리하고 임종을 맞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당수 노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사에서 다양한 준비 항목으로는 죽음 준비교육 수강, 가족과 상속 처리 및 장례 의향 논의, 장례 상담 및 상조회 가입, 유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장기기증 서약, 장지 선택, 수의 또는 영정사진 준비가 포함되었다.

임종 준비 항목 중 가장 많이 준비된 항목은 ‘수의 또는 영정사진 준비’(29.3%)이며, ‘장지 선택’(20.8%), ‘장례 상담 및 상조회 가입’(17.1%)이었다. 이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11.1%), ‘가족과 상속 처리 및 장례 의향 논의’(10.5%) 순으로 뒤를 이었고, 죽음 준비교육 수강(4.2%), 장기기증서약(4.5%), 유서 작성(4.6%)은 상대적으로 준비율이 낮았다. 이러한 준비 항목의 특성을 살펴보면, 장례, 즉 ‘장사의식’ 준비에 해당하는 수의 또는 영정사진 준비, 장지 선택, 장례상담 및 상조회 가입은 준비율이 높은 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죽음준비 교육 수강, 장기기증 서약, 유서작성 등 좋은 죽음을 위해 스스로 주변을 정리하는 행위는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결과와 비교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율이 2020년 4.7%에서 11.1%로 6.4%포인트 증가하였고, 죽음준비교육 수강 비율도 1.5%포인트, 장기기증서약은 1.1%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거주인 경우 수의, 장지에 대한 준비율이 동부지역에 비해 높으며, 동부 지역은 상조회 가입, 유서작성, 죽음준비교육수강, 장기기증 서약의 비율이 읍·면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수의 또는 영정사진’ 준비를 하는 비율이 높았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 상조회 가입, 유서작성, 장지, 장기기증 서약을 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의, 장지, 상속 처리 및 장례의향 논의, 죽음준비교육수강 등을 준비한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독거가구는 죽음준비교육, 상속처리 및 장례의향 논의, 장기 등 기증 서약 등 스스로 주변을 정리하는 행위를 한 비율이 다른 가구형태보다 높았다. 한편, 자녀동거가구는 상조회 가입, 장지, 수의 및 영정사진 등 준비 비율이 다른 가구형태보다 높아, 특히 장사의식으로서의 장례와 관련된 준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에서는 상조회 가입, 유서 작성, 장기기증 등 서약을 한 노인 비율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아졌다. 특히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노인들은 죽음준비 교육 수강, 상속

처리 및 장례의향 논의, 상조회 가입, 유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기 등 기증서약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비율은 20.8%로 무학 학력 노인 7.6%보다 13.2%포인트 높았다. 장기기증 서약을 한 비율도 9.7%로 무학 노인(1.8%)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장지, 수의 또는 영정사진을 준비한 비율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등 저학력 노인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준비 경향은 소득수준 차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의 고소득 집단은 이하 소득집단보다 좋은 죽음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장사의식을 준비하는 장지, 수의 또는 영정사진 준비 비율은 저소득 노인 집단에서 더 높게 조사되었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모든 항목에 대해 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준비율이 높았다. 특히 ‘장지 선택’과 ‘수의 또는 영정사진 준비’에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과 준비율에서 각각 9.5%포인트, 19.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표 10-42> 죽음에 대한 준비

(단위: %, 명)

특성	죽음 준비교육 수강	가족과 상속처리· 장례의향 논의	장례 상담 및 상조회 가입	유서 작성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장기 등 기증 서약	장지	수의 또는 영정사진	(명)
전체	4.2	10.5	17.1	4.6	11.1	4.5	20.8	29.3	(9,955)
지역									
동부	4.7	10.4	18.0	5.3	11.2	4.8	18.6	27.8	(7,359)
읍·면부	2.7	10.9	14.3	2.6	10.8	3.4	27.2	33.5	(2,596)
성									
남자	3.9	10.6	17.9	5.0	10.9	4.9	21.3	26.9	(4,384)
여자	4.4	10.5	16.4	4.3	11.2	4.2	20.5	31.1	(5,571)
연령									
65~69세	3.0	7.3	18.3	4.1	9.4	5.0	15.1	15.7	(3,465)
70~74세	4.4	10.2	17.8	4.3	13.2	5.1	18.8	25.2	(2,362)
75~79세	3.9	11.0	15.1	5.0	11.2	4.5	22.6	33.8	(1,729)
80~84세	5.3	13.9	15.0	4.6	11.2	3.0	28.9	44.9	(1,379)
85~89세	6.2	15.2	14.7	5.2	11.1	2.7	29.4	53.6	(781)
90세 이상	8.9	21.9	26.8	9.6	11.8	5.5	35.9	63.9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7	9.8	17.9	4.5	11.3	4.3	21.1	26.8	(5,987)
배우자 없음	5.0	11.5	15.8	4.7	10.7	4.7	20.5	33.1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5.1	11.9	16.1	4.8	11.1	5.1	20.2	32.5	(3,281)
노인부부	3.8	9.8	17.8	4.5	11.7	4.3	21.0	27.0	(5,509)
자녀동거	3.7	10.6	18.3	4.1	8.3	3.7	23.3	32.7	(993)
기타	0.7	6.7	4.7	5.3	6.1	3.0	12.0	20.8	(172)
교육수준									
무학	2.5	10.8	9.5	2.6	7.6	1.8	28.5	51.0	(1,184)
초등학교	4.6	11.1	13.1	4.4	11.7	3.6	22.6	34.3	(2,810)
중학교	2.9	10.2	17.2	3.7	9.2	3.4	18.4	25.9	(2,127)
고등학교	4.6	9.5	21.6	5.8	10.9	5.9	18.4	20.7	(3,132)
전문대학 이상	7.5	12.9	25.2	6.0	20.8	9.7	19.5	21.2	(7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3.4	8.9	17.2	4.1	11.0	4.2	19.4	23.7	(3,926)
미취업	4.7	11.6	17.0	4.9	11.1	4.6	21.8	32.9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4	9.2	12.1	5.8	10.2	6.4	21.4	34.8	(1,989)
제2오분위	3.0	10.4	13.1	3.1	11.2	3.0	23.5	35.4	(1,983)
제3오분위	4.7	10.6	15.5	3.4	10.4	3.6	20.0	26.9	(1,981)
제4오분위	4.3	10.2	18.8	4.0	10.4	4.0	20.6	25.1	(2,007)
제5오분위	4.6	12.1	25.7	6.7	13.2	5.3	18.7	24.3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1	10.4	12.9	4.5	10.7	4.7	23.1	35.8	(3,722)
50%이상~100%미만	3.6	10.0	15.3	3.1	10.1	3.4	19.9	27.1	(2,759)
100%이상~150%미만	4.3	9.4	19.0	4.0	11.2	4.4	19.8	24.3	(1,657)
150%이상	5.3	12.6	26.5	7.5	13.3	5.8	18.6	23.9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7.0	18.9	21.4	8.9	12.3	6.5	28.7	45.3	(1,759)
제한 없음	3.6	8.7	16.2	3.7	10.8	4.0	19.2	25.8	(8,196)
2020년도	2.7	12.4	17.0	4.2	4.7	3.4	24.8	37.8	(9,93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자신의 재산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의 일부로, 본인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재산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4%가 자녀에게 균등 배분, 부양을 더 많이 한 자녀에게 전부 또는 더 많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8.8%,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전부 또는 더 많이 주기를 원하는 경우는 8.4%, 장남에게 전부 또는 더 많이 주기를 원하는 경우는 6.5%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보다 자신(배우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비율은 24.2%였고, 전체 또는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비율은 0.6%로 낮았다. 2020년 결과와 비교하면,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2020년 6.8%포인트 증가하였고, 장남에게 전부/더 많이 주겠다는 응답 또한 6.8%포인트 감소한 것이 눈에 띄는 결과이다. 이는 이전보다 유산 기부보다 자신들의 노후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 비율이 늘어났으며, 자녀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등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비율은 1.1%에서 0.6%로 감소하였다.

노인의 특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본인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읍·면부(19.7%)에 비해 동부(25.8%),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녀동거가구(18.6%)에 비해 독거가구(28.6%), 부부가구(22.4%)일 때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고등학교 졸업(28.2%), 전문대학 이상 졸업(26.1%) 노인은 저학력에 속하는 무학(21.9%), 초등학교 졸업(20.7%) 노인보다 본인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특히 동부(49.7%)에 비해 읍·면부 지역(56.4%)에서 높았고, 유배우(56.2%) 노인이 무배우(44.2%)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한 부부가구(56.1%)가 자녀동거가구(50.2%), 독거가구(44.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경우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부양을 더 많이 한 자녀에게 전부/더 많이 주겠다는 비율은 동부 거주 노인(9.5%)이 읍·면부 거주 노인(6.7%)보다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졌으며, 무배우 노인(11.4%)이 유배우 노인(7.1%)보다 높았다. 자녀동거가구(13.9%)는 독거가구(9.8%), 부부가구(7.1%)보다 부양을 더 많이 한 자녀에게 더 많이 줄 계획을 세운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미취업 노인(10.2%),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13.3%)

일수록 부양을 더 많이 한 자녀에게 재산을 전부/더 많이 줄 계획을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비율은 읍·면부(6.5%)보다는 동부(9.0%)에서 높았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응답 비율은 감소하였다.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없는 노인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비율이 1.9%포인트 더 높았다.

반면, 장남 중심의 재산분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동부에 비해 읍·면부, 남자에 비해 여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장남에게 더 많이 또는 장남에게만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또는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가구형태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각각 0.8%, 0.7%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의사를 보였고, 자녀동거가구는 0.1%로 더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 환원 의사가 증가하였고, 취업중인 노인,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이 다소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0-43> 바람직한 재산처리방식

(단위: %, 명)

특성	자녀 균등 배분	장남에게 전부/더 많이	부양을 더 많이 한 자녀에게 전부/더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전부/더 많이	전체 또는 일부 사회에 환원	자신 (배우자) 을 위해 사용	기타	계 (명)
전체 ¹⁾	51.4	6.5	8.8	8.4	0.6	24.2	0.1	100.0 (9,955)
지역								
동부	49.7	5.3	9.5	9.0	0.6	25.8	0.0	100.0 (7,359)
읍·면부	56.4	9.8	6.7	6.5	0.8	19.7	0.1	100.0 (2,596)
성								
남자	52.8	5.2	7.9	7.9	0.7	25.6	0.0	100.0 (4,384)
여자	50.3	7.5	9.5	8.8	0.6	23.1	0.1	100.0 (5,571)
연령								
65~69세	50.2	4.7	6.9	8.4	1.1	28.7	0.0	100.0 (3,465)
70~74세	53.6	6.0	8.0	8.2	0.5	23.6	0.1	100.0 (2,362)
75~79세	52.0	5.7	10.4	8.1	0.5	23.3	0.0	100.0 (1,729)
80~84세	51.6	9.5	11.1	8.5	0.2	18.9	0.1	100.0 (1,379)
85~89세	51.3	10.5	10.5	9.3	0.4	18.1	0.0	100.0 (781)
90세 이상	42.4	14.2	14.0	8.1	0.0	20.9	0.4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6.2	5.2	7.1	8.4	0.6	22.6	0.0	100.0 (5,987)
배우자 없음	44.2	8.5	11.4	8.4	0.7	26.6	0.1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44.0	8.1	9.8	8.5	0.8	28.6	0.1	100.0 (3,281)
노인부부	56.1	5.1	7.1	8.6	0.7	22.4	0.0	100.0 (5,509)
자녀동거	50.2	9.2	13.9	7.8	0.1	18.6	0.2	100.0 (993)
기타	47.9	5.8	13.4	4.3	0.0	28.6	0.0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46.7	10.4	11.4	9.0	0.3	21.9	0.3	100.0 (1,184)
초등학교	51.8	9.1	9.6	8.6	0.3	20.7	0.0	100.0 (2,810)
중학교	53.5	5.1	8.7	8.5	0.6	23.5	0.1	100.0 (2,127)
고등학교	50.7	4.4	7.3	8.4	1.0	28.2	0.0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54.4	3.6	8.2	6.3	1.4	26.1	0.0	100.0 (7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52.9	6.5	6.6	8.4	0.9	24.5	0.1	100.0 (3,926)
미취업	50.4	6.5	10.2	8.4	0.5	24.0	0.0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7.2	8.1	8.3	8.8	0.7	26.8	0.2	100.0 (1,989)
제2오분위	49.1	6.6	9.2	8.9	0.7	25.5	0.0	100.0 (1,983)
제3오분위	53.5	6.1	9.5	8.2	0.3	22.4	0.0	100.0 (1,981)
제4오분위	52.0	6.2	9.1	8.3	1.1	23.2	0.0	100.0 (2,007)
제5오분위	55.3	5.5	7.9	7.8	0.4	23.1	0.0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9.5	7.1	8.6	8.7	0.6	25.4	0.1	100.0 (3,722)
50%이상~100%미만	51.9	6.7	9.4	8.5	0.6	22.8	0.0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52.4	6.2	10.1	7.7	1.0	22.6	0.0	100.0 (1,657)
150%이상	53.7	5.4	7.1	8.2	0.4	25.2	0.0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45.0	8.8	13.3	10.0	0.3	22.5	0.2	100.0 (1,759)
제한 없음	52.8	6.0	7.8	8.1	0.7	24.5	0.0	100.0 (8,196)
2020년도	53.5	13.3	7.0	7.7	1.1	17.4	0.1	100.0 (9,93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3.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생애말기 좋은 죽음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논의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노인이 생각하는 생애말기 좋은 죽음에 대해서 1) 임종 전후에 스스로 정리, 2)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 3) 임종 시 가족, 지인과 함께 하는 것, 4)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5)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의 다섯 가지 요소별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임종 전후에 스스로 정리하는 것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33.7%, 중요하다는 응답은 52.1%로 나타났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는 임종에 대해서는 50.0%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5.4%로 나타났다. 임종 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28.8%가 매우 중요, 48.0%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41.9%, 중요하다는 응답이 42.8%로 나타났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12.2%가 매우 중요, 41.7%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영역에 비해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

생애 말기 좋은 죽음의 요소별 중요도의 순서는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이 85.8%,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는 죽음이 85.4%로 나타나며,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 84.7%로, 세 영역에 대한 중요성 인지 정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조사되었고, 임종 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함께하는 것(76.8%)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반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53.9%)은 중요성을 비교적 낮게 인식하였다.

<표 10-44>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계 ¹⁾ (명)	평균 ²⁾
임종 전후의 상황을 스스로 정리한 이후 임종을 맞이하는 것	33.7	52.1	11.5	2.4	0.3	100.0 (9,955)	4.2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	50.0	35.4	12.2	2.2	0.3	100.0 (9,955)	4.3
임종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함께 하는 것	28.8	48.0	18.4	4.4	0.3	100.0 (9,955)	4.0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41.9	42.8	12.9	2.2	0.2	100.0 (9,955)	4.2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	12.2	41.7	32.4	10.9	2.8	100.0 (9,955)	3.5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중요 = 5점, 중요 = 4점, 보통 = 3점, 중요하지 않음 = 2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생애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인지정도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임종 전 정리는 노인 특성별로 두루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연령군별로는, 젊은 노인 연령에 속하는 65~69세(85.2%), 70~74세(85.2%)보다는 높은 연령대인 85~89세(88.6%), 90세 이상(87.2%)이 더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86.5%)와 독거가구(86.0%)의 중요성 인지도가 자녀동거가구(80.8%)보다 높았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는 혼자 또는 배우자와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임종 전 정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가 준비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88.5%로 무학(85.5%), 초등학교 졸업(85.0%) 노인보다 높았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는 죽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 또한 노인 특성 별로 큰 차이 없이 두루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이 임종 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집단별 차이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노인 특성은 기능상태로,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이 고통 없는 죽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89.1%로 제한 없는 노인의 84.6%보다 4.5%포인트 더 높았다.

가족·친지와 함께하는 죽음은 동부 거주 노인의 중요성 인식이 77.4%로, 읍·면부(75.3%)보다 2.1%포인트 높았고, 성별, 연령군별, 배우자 유무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가 가족 및 친지와 함께하는 죽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78.0%로, 독거가구(75.7%), 자녀동거가구(74.1%)보다 높았다.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77.1%)은 있는 노인(75.6%)보다 가족 친지와 함께하는 죽음을 다소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또한 대부분의 노인이 두루 중요하게 인식하는 영역이다. 남자(83.5%)보다 여자(85.6%)가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무학 학력의 노인이 인식하는 중요성은 84.0%였고, 전문대학 이상 학력 노인은 86.5%로 다소 더 높게 조사되었다.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노인특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 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6.0%로, 읍·면부 거주 노인(47.8%)보다 8.2%포인트 더 높았다. 남자(52.5%)보다는 여자(55.0%)가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했고, 자녀동거가구(47.9%)보다 독거가구(53.6%), 부부가구(55.3%)가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했다. 미취업 노인(55.3%)이 취업중 노인(51.8%)보다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소득별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연가구소득 제5오분위 노인의 응답 비율이 49.0%(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에 속하는 노인은 48.1%)로 가장 낮게 조사되어, 중하위 소득 집단에 비해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표 10-45>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 임종 전 정리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계 (명)	평균 ²⁾
전체 ¹⁾	33.7	52.1	11.5	2.4	0.3	100.0 (9,955)	4.2
지역							
동부	35.2	50.7	11.1	2.7	0.4	100.0 (7,359)	4.2
읍·면부	29.4	56.1	12.7	1.6	0.2	100.0 (2,596)	4.1
성							
남자	33.0	52.0	12.1	2.5	0.3	100.0 (4,384)	4.1
여자	34.1	52.2	11.1	2.3	0.3	100.0 (5,571)	4.2
연령							
65~69세	32.6	52.6	11.9	2.4	0.5	100.0 (3,465)	4.1
70~74세	35.4	49.8	12.1	2.4	0.3	100.0 (2,362)	4.2
75~79세	35.0	52.1	10.0	2.8	0.1	100.0 (1,729)	4.2
80~84세	31.7	52.8	12.6	2.4	0.5	100.0 (1,379)	4.1
85~89세	32.7	55.9	9.8	1.5	0.1	100.0 (781)	4.2
90세 이상	36.0	51.2	11.3	1.5	0.0	100.0 (239)	4.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4.0	51.7	11.7	2.3	0.3	100.0 (5,987)	4.2
배우자 없음	33.2	52.7	11.2	2.6	0.4	100.0 (3,968)	4.2
가구형태							
노인독거	33.1	52.9	10.8	2.7	0.4	100.0 (3,281)	4.2
노인부부	34.3	52.2	11.2	2.0	0.2	100.0 (5,509)	4.2
자녀동거	32.6	48.2	15.5	3.3	0.4	100.0 (993)	4.1
기타	28.3	55.7	13.9	1.5	0.7	100.0 (172)	4.1
교육수준							
무학	30.7	54.8	11.8	2.6	0.2	100.0 (1,184)	4.1
초등학교	30.6	54.4	12.5	2.3	0.3	100.0 (2,810)	4.1
중학교	35.6	50.7	10.8	2.6	0.3	100.0 (2,127)	4.2
고등학교	35.2	50.4	11.7	2.3	0.4	100.0 (3,132)	4.2
전문대학 이상	38.2	50.3	9.1	2.3	0.1	100.0 (701)	4.2
현 취업상태							
취업중	32.1	52.6	12.4	2.7	0.3	100.0 (3,926)	4.1
미취업	34.7	51.8	11.0	2.2	0.4	100.0 (6,029)	4.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1.7	52.4	11.5	3.7	0.6	100.0 (1,989)	4.1
제2오분위	36.3	50.2	11.2	2.1	0.1	100.0 (1,983)	4.2
제3오분위	36.5	51.7	9.8	1.6	0.3	100.0 (1,981)	4.2
제4오분위	31.4	55.7	10.7	1.8	0.4	100.0 (2,007)	4.2
제5오분위	32.4	50.5	14.5	2.5	0.2	100.0 (1,995)	4.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4.0	51.3	11.3	3.1	0.4	100.0 (3,722)	4.2
50%이상~100%미만	36.0	51.6	10.8	1.4	0.3	100.0 (2,759)	4.2
100%이상~150%미만	30.6	56.2	10.1	2.6	0.5	100.0 (1,657)	4.1
150%이상	32.3	50.8	14.5	2.3	0.1	100.0 (1,817)	4.1
기능상태							
제한 있음	33.7	53.4	10.6	1.7	0.5	100.0 (1,759)	4.2
제한 없음	33.6	51.8	11.7	2.5	0.3	100.0 (8,196)	4.2
2020년도	38.8	50.2	9.8	1.1	0.1	100.0 (9,930)	4.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중요 = 5점, 중요 = 4점, 보통 = 3점, 중요하지 않음 = 2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10-46>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없이 임종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계 (명)	평균 ²⁾
전체 ¹⁾	50.0	35.4	12.2	2.2	0.3	100.0 (9,955)	4.3
지역							
동부	49.9	35.4	11.9	2.5	0.3	100.0 (7,359)	4.3
읍·면부	50.2	35.5	12.7	1.4	0.2	100.0 (2,596)	4.3
성							
남자	49.3	35.0	12.8	2.5	0.3	100.0 (4,384)	4.3
여자	50.4	35.7	11.6	2.0	0.2	100.0 (5,571)	4.3
연령							
65~69세	49.6	35.3	12.7	2.1	0.3	100.0 (3,465)	4.3
70~74세	49.1	35.9	12.6	2.2	0.2	100.0 (2,362)	4.3
75~79세	51.4	34.0	12.6	1.9	0.1	100.0 (1,729)	4.3
80~84세	50.1	35.8	10.9	2.9	0.3	100.0 (1,379)	4.3
85~89세	51.2	36.4	10.1	2.1	0.2	100.0 (781)	4.4
90세 이상	48.3	37.6	11.5	2.6	0.0	100.0 (239)	4.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9.2	36.0	12.5	2.1	0.2	100.0 (5,987)	4.3
배우자 없음	51.1	34.6	11.6	2.4	0.3	100.0 (3,968)	4.3
가구형태							
노인독거	51.5	34.0	11.7	2.3	0.4	100.0 (3,281)	4.3
노인부부	49.8	35.7	12.4	1.9	0.2	100.0 (5,509)	4.3
자녀동거	45.7	38.3	12.8	3.1	0.1	100.0 (993)	4.3
기타	50.1	38.5	8.3	2.7	0.4	100.0 (172)	4.4
교육수준							
무학	51.3	36.5	9.1	3.0	0.2	100.0 (1,184)	4.4
초등학교	49.4	35.3	12.6	2.4	0.3	100.0 (2,810)	4.3
중학교	49.0	36.4	11.7	2.5	0.3	100.0 (2,127)	4.3
고등학교	49.7	35.2	13.2	1.6	0.3	100.0 (3,132)	4.3
전문대학 이상	54.1	32.1	11.9	1.8	0.1	100.0 (701)	4.4
현 취업상태							
취업중	49.2	36.1	12.5	1.9	0.3	100.0 (3,926)	4.3
미취업	50.5	35.0	11.9	2.4	0.2	100.0 (6,029)	4.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6.1	34.4	15.7	3.4	0.4	100.0 (1,989)	4.2
제2오분위	54.2	34.9	8.8	2.0	0.1	100.0 (1,983)	4.4
제3오분위	53.3	34.4	10.2	1.8	0.2	100.0 (1,981)	4.4
제4오분위	49.3	36.2	12.8	1.4	0.3	100.0 (2,007)	4.3
제5오분위	46.9	37.3	13.2	2.5	0.2	100.0 (1,995)	4.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9.6	34.3	13.0	2.8	0.3	100.0 (3,722)	4.3
50%이상~100%미만	52.9	35.7	9.6	1.7	0.1	100.0 (2,759)	4.4
100%이상~150%미만	49.8	35.6	12.3	1.7	0.5	100.0 (1,657)	4.3
150%이상	46.4	37.2	14.2	2.1	0.1	100.0 (1,817)	4.3
가능상태							
제한 있음	49.2	39.9	8.6	2.0	0.3	100.0 (1,759)	4.4
제한 없음	50.1	34.5	12.9	2.2	0.3	100.0 (8,196)	4.3
2020년도	56.4	34.1	8.3	1.0	0.1	100.0 (9,930)	4.5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중요 = 5점, 중요 = 4점, 보통 = 3점, 중요하지 않음 = 2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10-47>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 가족·친지와 함께하는 임종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계 (명)	평균 ²⁾
전체 ¹⁾	28.8	48.0	18.4	4.4	0.3	100.0 (9,955)	4.0
지역							
동부	30.2	47.2	17.9	4.4	0.3	100.0 (7,359)	4.0
읍·면부	24.9	50.4	20.0	4.4	0.2	100.0 (2,596)	4.0
성							
남자	27.7	48.9	18.8	4.3	0.3	100.0 (4,384)	4.0
여자	29.7	47.4	18.1	4.4	0.4	100.0 (5,571)	4.0
연령							
65~69세	27.2	48.9	19.3	4.2	0.3	100.0 (3,465)	4.0
70~74세	29.9	47.4	18.5	3.8	0.3	100.0 (2,362)	4.0
75~79세	30.7	47.0	17.3	4.9	0.1	100.0 (1,729)	4.0
80~84세	27.7	48.3	18.8	4.6	0.6	100.0 (1,379)	4.0
85~89세	27.6	50.7	16.9	4.7	0.1	100.0 (781)	4.0
90세 이상	37.5	38.8	17.9	5.8	0.0	100.0 (239)	4.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8.8	48.6	18.2	4.1	0.3	100.0 (5,987)	4.0
배우자 없음	28.8	47.2	18.8	4.9	0.4	100.0 (3,968)	4.0
가구형태							
노인독거	28.7	47.0	19.0	5.0	0.4	100.0 (3,281)	4.0
노인부부	29.3	48.7	17.9	3.9	0.3	100.0 (5,509)	4.0
자녀동거	27.3	46.8	20.8	4.9	0.2	100.0 (993)	4.0
기타	26.1	53.2	13.6	6.4	0.7	100.0 (172)	4.0
교육수준							
무학	25.3	50.3	19.0	5.0	0.5	100.0 (1,184)	4.0
초등학교	26.9	47.8	19.5	5.4	0.5	100.0 (2,810)	4.0
중학교	31.6	48.0	16.4	3.7	0.3	100.0 (2,127)	4.1
고등학교	29.5	47.4	18.9	4.0	0.2	100.0 (3,132)	4.0
전문대학 이상	31.1	48.6	17.2	2.9	0.1	100.0 (701)	4.1
현 취업상태							
취업중	26.8	50.2	18.6	4.0	0.4	100.0 (3,926)	4.0
미취업	30.1	46.7	18.3	4.6	0.3	100.0 (6,029)	4.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0.0	45.1	18.3	6.1	0.6	100.0 (1,989)	4.0
제2오분위	28.3	48.4	19.0	4.0	0.2	100.0 (1,983)	4.0
제3오분위	29.5	48.2	17.6	4.4	0.3	100.0 (1,981)	4.0
제4오분위	29.5	48.6	17.9	3.8	0.2	100.0 (2,007)	4.0
제5오분위	26.8	49.9	19.4	3.6	0.3	100.0 (1,995)	4.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9.2	46.3	18.7	5.4	0.4	100.0 (3,722)	4.0
50%이상~100%미만	30.2	48.8	17.0	3.6	0.3	100.0 (2,759)	4.1
100%이상~150%미만	28.6	48.2	18.8	4.1	0.3	100.0 (1,657)	4.0
150%이상	26.0	50.4	19.8	3.7	0.2	100.0 (1,817)	4.0
기능상태							
제한 있음	29.3	46.3	18.7	5.1	0.5	100.0 (1,759)	4.0
제한 없음	28.7	48.4	18.4	4.2	0.3	100.0 (8,196)	4.0
2020년도	39.4	47.5	11.0	1.9	0.2	100.0 (9,930)	4.2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중요 = 5점, 중요 = 4점, 보통 = 3점, 중요하지 않음 = 2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10-48>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 가족·친지에게 부담 주지 않는 임종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계 (명)	평균 ²⁾
전체 ¹⁾	41.9	42.8	12.9	2.2	0.2	100.0 (9,955)	4.2
지역							
동부	42.4	41.9	13.0	2.5	0.2	100.0 (7,359)	4.2
읍·면부	40.6	45.2	12.8	1.3	0.1	100.0 (2,596)	4.2
성							
남자	43.1	40.4	14.1	2.1	0.2	100.0 (4,384)	4.2
여자	41.0	44.6	12.0	2.2	0.2	100.0 (5,571)	4.2
연령							
65~69세	42.1	41.3	14.3	2.1	0.2	100.0 (3,465)	4.2
70~74세	42.1	43.6	12.1	2.0	0.2	100.0 (2,362)	4.3
75~79세	42.6	43.4	11.2	2.6	0.2	100.0 (1,729)	4.3
80~84세	42.1	41.7	13.6	2.2	0.3	100.0 (1,379)	4.2
85~89세	39.4	46.5	12.0	2.1	0.0	100.0 (781)	4.2
90세 이상	41.0	44.3	12.7	2.0	0.0	100.0 (239)	4.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2.3	43.0	12.7	1.9	0.1	100.0 (5,987)	4.3
배우자 없음	41.4	42.3	13.3	2.6	0.3	100.0 (3,968)	4.2
가구형태							
노인독거	41.7	41.6	13.7	2.7	0.3	100.0 (3,281)	4.2
노인부부	42.6	43.2	12.4	1.7	0.2	100.0 (5,509)	4.3
자녀동거	39.2	44.0	13.4	3.2	0.2	100.0 (993)	4.2
기타	42.4	43.2	12.8	1.2	0.4	100.0 (172)	4.3
교육수준							
무학	41.3	42.7	13.3	2.4	0.1	100.0 (1,184)	4.2
초등학교	39.9	43.3	14.4	2.3	0.2	100.0 (2,810)	4.2
중학교	40.6	44.3	12.1	2.7	0.2	100.0 (2,127)	4.2
고등학교	44.2	41.6	12.3	1.7	0.2	100.0 (3,132)	4.3
전문대학 이상	45.3	41.2	12.0	1.3	0.1	100.0 (701)	4.3
현 취업상태							
취업중	42.6	41.9	13.4	2.0	0.1	100.0 (3,926)	4.2
미취업	41.5	43.3	12.7	2.3	0.2	100.0 (6,029)	4.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7.4	43.9	14.6	3.7	0.4	100.0 (1,989)	4.1
제2오분위	43.3	41.9	13.2	1.6	0.0	100.0 (1,983)	4.3
제3오분위	44.8	42.1	10.6	2.4	0.1	100.0 (1,981)	4.3
제4오분위	41.9	44.1	12.1	1.6	0.3	100.0 (2,007)	4.3
제5오분위	42.3	41.7	14.2	1.6	0.1	100.0 (1,995)	4.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0.4	43.1	13.4	2.9	0.2	100.0 (3,722)	4.2
50%이상~100%미만	43.3	43.7	11.1	1.8	0.1	100.0 (2,759)	4.3
100%이상~150%미만	43.4	41.5	12.9	1.8	0.4	100.0 (1,657)	4.3
150%이상	41.8	41.7	14.9	1.4	0.2	100.0 (1,817)	4.2
기능상태							
제한 있음	39.4	45.9	12.4	2.1	0.3	100.0 (1,759)	4.2
제한 없음	42.5	42.1	13.1	2.2	0.2	100.0 (8,196)	4.2
2020년도	45.3	45.3	8.8	0.5	0.0	100.0 (9,930)	4.4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중요 = 5점, 중요 = 4점, 보통 = 3점, 중요하지 않음 = 2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10-49>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 집에서 맞이하는 임종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계 (명)	평균 ²⁾
전체 ¹⁾	12.2	41.7	32.4	10.9	2.8	100.0 (9,955)	3.5
지역							
동부	13.1	42.9	31.1	10.3	2.6	100.0 (7,359)	3.5
읍·면부	9.6	38.2	36.0	12.9	3.4	100.0 (2,596)	3.4
성							
남자	11.9	40.6	33.5	11.6	2.4	100.0 (4,384)	3.5
여자	12.4	42.6	31.5	10.4	3.1	100.0 (5,571)	3.5
연령							
65~69세	11.7	40.3	32.3	12.5	3.2	100.0 (3,465)	3.4
70~74세	13.3	43.8	30.3	10.3	2.4	100.0 (2,362)	3.6
75~79세	13.4	40.4	33.1	10.4	2.7	100.0 (1,729)	3.5
80~84세	10.1	42.3	35.3	9.8	2.5	100.0 (1,379)	3.5
85~89세	11.6	44.0	33.0	8.1	3.2	100.0 (781)	3.5
90세 이상	14.5	39.2	30.1	13.7	2.5	100.0 (239)	3.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2.6	41.9	31.7	11.1	2.7	100.0 (5,987)	3.5
배우자 없음	11.6	41.4	33.3	10.7	3.0	100.0 (3,968)	3.5
가구형태							
노인독거	12.1	41.5	33.4	10.4	2.6	100.0 (3,281)	3.5
노인부부	12.9	42.4	31.5	10.9	2.3	100.0 (5,509)	3.5
자녀동거	9.4	38.5	33.6	12.9	5.6	100.0 (993)	3.3
기타	7.9	39.4	34.2	13.6	4.8	100.0 (172)	3.3
교육수준							
무학	11.0	37.1	38.0	12.4	1.5	100.0 (1,184)	3.4
초등학교	10.7	42.4	33.6	10.3	3.0	100.0 (2,810)	3.5
중학교	14.8	43.2	29.1	10.4	2.5	100.0 (2,127)	3.6
고등학교	12.4	41.9	31.6	11.0	3.1	100.0 (3,132)	3.5
전문대학 이상	11.4	40.9	30.9	12.7	4.1	100.0 (701)	3.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0.5	41.3	33.1	11.8	3.4	100.0 (3,926)	3.4
미취업	13.3	42.0	31.9	10.4	2.4	100.0 (6,029)	3.5
연가소득							
제1오분위	10.4	44.0	34.3	10.0	1.3	100.0 (1,989)	3.5
제2오분위	12.3	41.2	34.2	9.9	2.3	100.0 (1,983)	3.5
제3오분위	14.8	41.6	30.3	10.6	2.8	100.0 (1,981)	3.6
제4오분위	13.0	43.1	30.8	10.6	2.5	100.0 (2,007)	3.5
제5오분위	10.5	38.5	32.3	13.7	5.0	100.0 (1,995)	3.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0	42.3	33.9	10.2	1.7	100.0 (3,722)	3.5
50%이상~100%미만	13.6	42.7	31.5	9.9	2.4	100.0 (2,759)	3.6
100%이상~150%미만	12.1	43.4	29.1	11.7	3.7	100.0 (1,657)	3.5
150%이상	10.6	37.5	33.6	13.3	4.9	100.0 (1,817)	3.4
기능상태							
제한 있음	11.4	41.8	33.0	11.6	2.3	100.0 (1,759)	3.5
제한 없음	12.4	41.7	32.2	10.8	2.9	100.0 (8,196)	3.5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중요 = 5점, 중요 = 4점, 보통 = 3점, 중요하지 않음 = 2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제5절 삶의 만족도

노인의 40.3%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8.7%는 삶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영역별 만족하는 비율(매우 만족+만족)을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43.1%, 경제상태는 31.4%, 배우자 관계는 66.9%, 자녀와의 관계는 69.4%, 사회·여가·문화 활동은 32.1%, 사회적 관계는 45.3%가 만족하고 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이며, 경제상태에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실제로 삶의 영역 중 불만족하는 비율(불만족+매우 불만족)은 경제상태가 19.8%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이 건강, 사회·여가·문화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녀, 배우자,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10-50> 영역별 삶의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¹⁾ (명)	평균 ²⁾
자신의 건강상태	2.2	40.9	37.7	16.7	2.5	100.0 (9,955)	3.2
자신의 경제상태	3.2	28.2	48.8	17.9	1.9	100.0 (9,955)	3.1
배우자와의 관계	8.0	58.9	28.9	4.0	0.2	100.0 (5,987)	3.7
자녀와의 관계	11.3	58.1	25.8	4.3	0.5	100.0 (9,338)	3.8
사회·여가·문화 활동	3.2	28.9	48.8	17.6	1.5	100.0 (9,955)	3.1
사회적 관계	3.1	42.2	45.1	9.0	0.5	100.0 (9,955)	3.4
삶 전반	1.4	38.9	51.0	8.4	0.3	100.0 (9,955)	3.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노인의 일반특성별 건강상태에 만족(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비율은 읍·면부 지역에 비해 동부가 높으며, 여자에 비해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강에 만족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80대 이상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5~69세는 56.0%가 건강상태에 만족하지만, 70~74세는 45.1%, 75~79세에서는 35.9%로 감소, 80~84세는 27.3%로 감소하지만, 이상 연령군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유배우일 경우 무배우에 비해 건강에 만족하는 비율이 약 10.9%포인트 높게 나타나며, 가구형태에서도 부부가구(47.3%)의 만족도가 높고, 독거가구(36.6%), 자녀동거가구(40.6%)의 경우 만족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중인 경우 건강상태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건강상태 만족도는 기능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21.7%만이 건강상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제상태 만족도는 여자에 비해 남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유배우, 노인부부의 경우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에서 65~69세의 경우 39.3%는 경제상태에 만족하는 반면, 80세 이후에서는 만족하는 비율이 25%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상태 만족도는 높아져서 무학의 경우 14.0%만이 만족하는 것에 반해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57.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상태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은 만족도가 19.5%에 불과하나, 150% 이상은 48.2%로 조사되어 28.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 66.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으며,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으며, 취업 노인(71.1%)이 미취업 노인(63.8%)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68.1%) 제한이 있을 노인(60.2%)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69.4%로 삶의 다양한 영역 중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특성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으며, 유배우일 때 무배우에 비해 6.7%포인트의 만족도 비율이 높으며,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부부 가구가 72.0%가 만족하는 것에 반해 독거가구는 64.7%, 자녀동거가구는 69.1%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관계 만족도가 높으며, 기능제한이 없을 경우(70.7%) 있는 경우(63.0%)보다 만족도의 비율이 7.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사회·여가·문화활동에는 32.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읍·면부에 비해 동부, 여자에 비해 남자,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일 때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34.4%)와 자녀동거가구(32.9%)의 만족도가 독거가구(28.3%)보다 높았다.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데 무학의 경우 17.3%가 만족하는 것에 반해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54.4%가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37.1%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한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는데,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은 23.6% 만족하는 데 비해 중위소득 150% 이상은 42.9%가 만족하여 19.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또한 취업중(35.6%) 노인이 미취업 노인(29.8%)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만족도가 17.9%에 불과하여 제한 없는 노인(35.2%)과 17.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45.3%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부 거주 노인의 만족도가 53.7%로 동부 거주 노인(42.4%)보다 11.3%포인트 더 높았다.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47.7%)의 만족도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41.9%)보다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47.6%)가 독거가구(42.8%), 자녀동거가구(41.6%)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취업중 노인(52.0%)이 미취업 노인(40.9%)보다 11.1%포인트 높았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도 제한이 없는 노인의 만족도가 48.6%로 제한없는 노인(29.9%)보다 18.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전반적인 삶에 만족하는 비율은 40.3%로 조사되었다. 이는 2020년 49.6%에서 9.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 감소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된다. 평균점수는 3.5점에서 3.3점으로 0.2점 감소하였다. 노인의 일반 특성별 만족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여자(36.8%)에 비해 남자가 만족(44.7%)하는 비율이 7.9%포인트 높게 나타나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5~69세의 경우 48.3%가 만족하는 반면, 90세 이상에서는 20.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45.2%의 만족도를 보여, 배우자가 없는 노인(32.8%)보다 12.4%포인트 높았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부부 가구(45.2%)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자녀동거가구(37.5%), 독거가구(33.0%)는 비교적 낮았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무학의 경우 22.9%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63.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지며,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만족하는 비율은 43.9%로, 제한이 없는 노인(23.4%)보다 20.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표 10-51> 건강상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평균 ²⁾
전체 ¹⁾	2.2	40.9	37.7	16.7	2.5	100.0 (9,955)	3.2
지역							
동부	2.4	42.2	37.9	15.3	2.1	100.0 (7,359)	3.3
읍·면부	1.6	37.2	37.2	20.4	3.6	100.0 (2,596)	3.1
성							
남자	2.9	46.4	35.7	13.1	2.0	100.0 (4,384)	3.4
여자	1.6	36.7	39.3	19.5	2.9	100.0 (5,571)	3.1
연령							
65~69세	3.8	52.2	34.1	8.8	1.0	100.0 (3,465)	3.5
70~74세	2.0	43.1	38.3	14.8	1.9	100.0 (2,362)	3.3
75~79세	1.1	34.8	42.0	20.0	2.1	100.0 (1,729)	3.1
80~84세	0.6	26.7	42.9	25.3	4.5	100.0 (1,379)	2.9
85~89세	1.1	26.9	33.9	31.7	6.4	100.0 (781)	2.8
90세 이상	0.0	28.4	37.3	26.0	8.3	100.0 (239)	2.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6	44.9	37.5	13.1	2.0	100.0 (5,987)	3.3
배우자 없음	1.6	35.0	38.0	22.1	3.3	100.0 (3,968)	3.1
가구형태							
노인독거	1.6	35.0	38.2	21.8	3.5	100.0 (3,281)	3.1
노인부부	2.4	44.9	37.4	13.3	1.9	100.0 (5,509)	3.3
자녀동거	2.7	37.9	37.9	19.4	2.1	100.0 (993)	3.2
기타	3.2	45.3	36.4	11.1	4.0	100.0 (172)	3.3
교육수준							
무학	0.5	20.7	37.0	34.2	7.6	100.0 (1,184)	2.7
초등학교	1.0	32.8	43.5	19.9	2.8	100.0 (2,810)	3.1
중학교	1.4	42.0	37.5	17.4	1.8	100.0 (2,127)	3.2
고등학교	3.5	52.3	34.4	8.6	1.1	100.0 (3,132)	3.5
전문대학 이상	6.1	53.9	30.9	8.0	1.2	100.0 (701)	3.6
현 취업상태							
취업중	3.0	50.4	36.2	9.7	0.7	100.0 (3,926)	3.5
미취업	1.6	34.8	38.7	21.2	3.7	100.0 (6,029)	3.1
연가구소속							
제1오분위	2.1	28.9	39.3	25.1	4.6	100.0 (1,989)	3.0
제2오분위	0.8	31.1	41.6	22.7	3.7	100.0 (1,983)	3.0
제3오분위	1.9	42.6	36.7	16.7	2.1	100.0 (1,981)	3.3
제4오분위	3.2	49.0	34.8	11.8	1.2	100.0 (2,007)	3.4
제5오분위	2.9	52.9	36.2	7.1	0.9	100.0 (1,995)	3.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4	30.3	40.8	23.6	4.0	100.0 (3,722)	3.0
50%이상~100%미만	2.2	42.1	36.1	16.9	2.6	100.0 (2,759)	3.2
100%이상~150%미만	3.0	49.7	34.8	11.5	1.0	100.0 (1,657)	3.4
150%이상	2.9	53.0	36.5	6.8	0.8	100.0 (1,817)	3.5
기능상태							
제한 있음	0.9	20.8	34.0	35.0	9.3	100.0 (1,759)	2.7
제한 없음	2.4	45.3	38.5	12.7	1.0	100.0 (8,196)	3.4
2020년도 ³⁾	4.5	46.0	31.2	15.7	2.6	100.0 (9,930)	3.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3)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그저 그렇다 = 3점, 만족하지 않음 = 2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10-52> 경제상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평균 ²⁾
전체 ¹⁾	3.2	28.2	48.8	17.9	1.9	100.0 (9,955)	3.1
지역							
동부	3.8	28.5	47.2	18.4	2.0	100.0 (7,359)	3.1
읍·면부	1.5	27.4	53.1	16.5	1.3	100.0 (2,596)	3.1
성							
남자	3.6	31.9	47.6	15.3	1.6	100.0 (4,384)	3.2
여자	2.9	25.3	49.7	20.0	2.1	100.0 (5,571)	3.1
연령							
65~69세	4.5	34.8	46.9	12.6	1.2	100.0 (3,465)	3.3
70~74세	2.4	28.2	51.5	16.7	1.1	100.0 (2,362)	3.1
75~79세	3.2	25.7	47.7	20.8	2.5	100.0 (1,729)	3.1
80~84세	2.3	21.3	50.3	23.3	2.9	100.0 (1,379)	3.0
85~89세	1.7	19.5	49.1	26.4	3.3	100.0 (781)	2.9
90세 이상	3.4	18.6	46.7	28.6	2.7	100.0 (239)	2.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7	31.8	49.5	14.0	1.0	100.0 (5,987)	3.2
배우자 없음	2.5	22.7	47.7	23.9	3.2	100.0 (3,968)	3.0
가구형태							
노인독거	2.5	22.8	47.5	23.9	3.3	100.0 (3,281)	3.0
노인부부	3.9	31.3	49.8	14.0	1.0	100.0 (5,509)	3.2
자녀동거	2.4	28.0	48.0	20.0	1.5	100.0 (993)	3.1
기타	2.0	30.9	45.9	18.0	3.4	100.0 (172)	3.1
교육수준							
무학	0.9	13.1	50.8	30.4	4.8	100.0 (1,184)	2.7
초등학교	2.3	22.7	51.4	21.6	2.0	100.0 (2,810)	3.0
중학교	2.7	27.4	48.2	19.9	1.7	100.0 (2,127)	3.1
고등학교	4.8	34.1	49.1	11.1	1.0	100.0 (3,132)	3.3
전문대학 이상	5.9	51.7	35.3	6.5	0.6	100.0 (701)	3.6
현 취업상태							
취업중	3.8	33.5	49.7	12.2	0.8	100.0 (3,926)	3.3
미취업	2.9	24.7	48.2	21.7	2.5	100.0 (6,029)	3.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0	18.7	47.5	28.5	3.3	100.0 (1,989)	2.9
제2오분위	1.7	16.0	52.6	26.2	3.6	100.0 (1,983)	2.9
제3오분위	2.7	27.6	51.4	16.9	1.4	100.0 (1,981)	3.1
제4오분위	5.0	34.6	48.0	11.6	0.8	100.0 (2,007)	3.3
제5오분위	4.8	43.8	44.5	6.7	0.2	100.0 (1,995)	3.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7	17.8	50.6	26.6	3.2	100.0 (3,722)	2.9
50%이상~100%미만	3.0	27.3	49.8	18.1	1.8	100.0 (2,759)	3.1
100%이상~150%미만	5.4	36.4	46.6	11.0	0.6	100.0 (1,657)	3.4
150%이상	4.8	43.4	45.3	6.2	0.3	100.0 (1,817)	3.5
기능상태							
제한 있음	2.0	17.7	45.9	30.6	3.9	100.0 (1,759)	2.8
제한 없음	3.5	30.5	49.4	15.2	1.4	100.0 (8,196)	3.2
2020년도 ³⁾	6.9	30.5	42.1	17.9	2.6	100.0 (9,930)	3.2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3)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그저 그렇다 = 3점, 만족하지 않음 = 2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10-53>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평균 ²⁾
전체 ¹⁾	8.0	58.9	28.9	4.0	0.2	100.0 (5,987)	3.7
지역							
동부	8.8	57.2	29.3	4.4	0.2	100.0 (4,468)	3.7
읍·면부	5.9	63.8	27.5	2.8	0.1	100.0 (1,519)	3.7
성							
남자	8.7	62.2	26.0	3.0	0.2	100.0 (3,405)	3.8
여자	7.3	54.6	32.7	5.2	0.3	100.0 (2,582)	3.6
연령							
65~69세	8.3	61.4	26.8	3.5	0.0	100.0 (2,415)	3.7
70~74세	8.7	58.9	27.8	4.3	0.2	100.0 (1,594)	3.7
75~79세	7.4	56.3	32.8	3.3	0.2	100.0 (1,009)	3.7
80~84세	6.5	58.7	30.6	3.4	0.8	100.0 (693)	3.7
85~89세	8.2	48.6	33.8	9.3	0.0	100.0 (233)	3.6
90세 이상	8.1	39.9	38.4	13.6	0.0	100.0 (43)	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0	58.9	28.9	4.0	0.2	100.0 (5,987)	3.7
배우자 없음	0.0	0.0	0.0	0.0	0.0	100.0 (0)	0.0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100.0	0.0	0.0	0.0	100.0 (2)	4.0
노인부부	7.9	58.9	28.9	4.1	0.2	100.0 (5,509)	3.7
자녀동거	10.0	58.3	29.2	2.6	0.0	100.0 (403)	3.8
기타	8.2	58.7	27.6	5.4	0.0	100.0 (73)	3.7
교육수준							
무학	4.9	49.8	37.8	7.4	0.1	100.0 (361)	3.5
초등학교	4.5	55.3	34.9	4.7	0.5	100.0 (1,440)	3.6
중학교	7.6	58.9	29.2	4.2	0.1	100.0 (1,387)	3.7
고등학교	9.3	60.9	26.1	3.5	0.1	100.0 (2,267)	3.8
전문대학 이상	15.7	65.8	17.3	1.3	0.0	100.0 (533)	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8.4	62.7	25.6	3.1	0.1	100.0 (2,593)	3.8
미취업	7.8	56.0	31.3	4.6	0.2	100.0 (3,394)	3.7
연가구소속							
제1오분위	6.4	50.3	36.1	6.2	1.0	100.0 (648)	3.5
제2오분위	5.6	51.7	35.7	6.8	0.3	100.0 (1,098)	3.6
제3오분위	6.8	61.3	28.5	3.3	0.1	100.0 (1,320)	3.7
제4오분위	8.3	63.6	25.4	2.7	0.0	100.0 (1,399)	3.8
제5오분위	11.4	61.5	24.4	2.8	0.0	100.0 (1,522)	3.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0	52.2	35.1	6.2	0.5	100.0 (1,986)	3.6
50%이상~100%미만	7.8	61.6	27.2	3.3	0.1	100.0 (1,743)	3.7
100%이상~150%미만	8.2	63.2	26.1	2.5	0.0	100.0 (1,066)	3.8
150%이상	11.8	62.3	23.3	2.6	0.0	100.0 (1,192)	3.8
기능상태							
제한 있음	6.0	54.2	33.9	5.3	0.6	100.0 (831)	3.6
제한 없음	8.4	59.7	28.1	3.8	0.1	100.0 (5,156)	3.7
2020년도 ³⁾	14.0	56.9	25.9	3.0	0.2	100.0 (6,702)	3.8

주: 1) 본인응답자 9,955명 내 배우자가 있는 5,987명에 대해 분석함.

2)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3)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그저 그렇다 = 3점, 만족하지 않음 = 2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10-54>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평균 ²⁾
전체 ¹⁾	11.3	58.1	25.8	4.3	0.5	100.0 (9,338)	3.8
지역							
동부	11.5	56.6	26.5	4.9	0.5	100.0 (6,863)	3.7
읍·면부	10.4	62.1	24.0	2.9	0.5	100.0 (2,476)	3.8
성							
남자	10.7	58.2	26.5	4.1	0.4	100.0 (4,098)	3.7
여자	11.7	58.0	25.2	4.5	0.6	100.0 (5,240)	3.8
연령							
65~69세	13.0	58.1	25.4	3.1	0.5	100.0 (3,206)	3.8
70~74세	12.1	59.0	24.5	4.0	0.4	100.0 (2,221)	3.8
75~79세	9.8	58.2	26.3	5.1	0.6	100.0 (1,635)	3.7
80~84세	10.3	56.7	26.9	5.6	0.5	100.0 (1,315)	3.7
85~89세	7.7	57.3	28.8	5.2	1.0	100.0 (741)	3.7
90세 이상	6.1	58.7	24.9	10.0	0.3	100.0 (220)	3.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2.1	59.8	24.4	3.4	0.3	100.0 (5,759)	3.8
배우자 없음	9.8	55.4	28.1	5.9	0.8	100.0 (3,580)	3.7
가구형태							
노인독거	10.6	54.1	28.8	5.8	0.7	100.0 (2,936)	3.7
노인부부	12.1	59.9	24.2	3.4	0.4	100.0 (5,284)	3.8
자녀동거	9.0	60.1	25.2	5.1	0.6	100.0 (976)	3.7
기타	7.2	59.7	25.8	5.5	1.8	100.0 (142)	3.6
교육수준							
무학	7.5	56.1	28.2	7.1	1.1	100.0 (1,123)	3.6
초등학교	8.7	58.5	26.9	5.3	0.5	100.0 (2,637)	3.7
중학교	11.0	56.6	27.2	4.5	0.6	100.0 (1,995)	3.7
고등학교	13.1	59.5	24.1	3.1	0.3	100.0 (2,925)	3.8
전문대학 이상	20.4	57.8	20.7	1.0	0.1	100.0 (659)	4.0
현 취업상태							
취업중	12.7	59.7	24.4	3.0	0.2	100.0 (3,726)	3.8
미취업	10.3	57.0	26.8	5.2	0.7	100.0 (5,612)	3.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6	51.9	32.1	7.5	0.9	100.0 (1,794)	3.6
제2오분위	8.7	57.5	28.4	4.7	0.7	100.0 (1,835)	3.7
제3오분위	10.8	60.2	24.7	3.9	0.4	100.0 (1,901)	3.8
제4오분위	13.6	59.6	23.3	2.9	0.6	100.0 (1,903)	3.8
제5오분위	15.3	60.8	21.0	2.9	0.1	100.0 (1,906)	3.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8	55.0	30.3	6.2	0.8	100.0 (3,425)	3.6
50%이상~100%미만	11.9	59.1	24.7	3.8	0.5	100.0 (2,630)	3.8
100%이상~150%미만	13.3	61.1	23.1	2.0	0.5	100.0 (1,578)	3.8
150%이상	15.4	60.0	21.0	3.6	0.0	100.0 (1,705)	3.9
기능상태							
제한 있음	7.2	55.8	28.2	8.0	0.8	100.0 (1,661)	3.6
제한 없음	12.1	58.6	25.3	3.6	0.4	100.0 (7,678)	3.8
2020년도 ³⁾	14.3	59.0	22.6	3.6	0.5	100.0 (9,617)	3.8

주: 1) 본인응답자 9,955명 내 생존자녀가 있는 9,338명에 대해 분석함.

2)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3)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그저 그렇다=3점, 만족하지 않음=2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10-55> 사회·여가·문화 활동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평균 ²⁾
전체 ¹⁾	3.2	28.9	48.8	17.6	1.5	100.0 (9,955)	3.1
지역							
동부	3.6	29.7	48.6	16.7	1.4	100.0 (7,359)	3.2
읍·면부	2.0	26.7	49.3	20.1	1.8	100.0 (2,596)	3.1
성							
남자	3.2	30.4	49.8	15.3	1.3	100.0 (4,384)	3.2
여자	3.2	27.7	48.0	19.4	1.7	100.0 (5,571)	3.1
연령							
65~69세	4.3	33.4	48.4	13.1	0.7	100.0 (3,465)	3.3
70~74세	2.9	31.5	48.6	16.1	0.9	100.0 (2,362)	3.2
75~79세	2.8	25.6	51.6	18.3	1.8	100.0 (1,729)	3.1
80~84세	1.9	23.7	48.3	24.2	2.0	100.0 (1,379)	3.0
85~89세	2.3	20.7	47.7	26.1	3.2	100.0 (781)	2.9
90세 이상	2.5	19.5	42.5	26.9	8.5	100.0 (239)	2.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2	31.6	50.4	13.8	1.0	100.0 (5,987)	3.2
배우자 없음	3.1	24.9	46.3	23.4	2.3	100.0 (3,968)	3.0
가구형태							
노인독거	3.4	24.9	46.8	22.9	2.1	100.0 (3,281)	3.0
노인부부	3.1	31.3	50.7	14.0	0.9	100.0 (5,509)	3.2
자녀동거	2.9	30.0	45.4	19.0	2.7	100.0 (993)	3.1
기타	1.6	24.6	47.4	23.9	2.5	100.0 (172)	3.0
교육수준							
무학	0.8	16.5	49.7	28.3	4.7	100.0 (1,184)	2.8
초등학교	2.2	26.6	48.1	21.5	1.7	100.0 (2,810)	3.1
중학교	2.5	26.8	52.5	17.1	1.0	100.0 (2,127)	3.1
고등학교	4.2	33.4	49.2	12.7	0.6	100.0 (3,132)	3.3
전문대학 이상	8.3	46.1	37.3	7.7	0.6	100.0 (701)	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3.3	32.3	49.4	14.4	0.5	100.0 (3,926)	3.2
미취업	3.1	26.7	48.4	19.7	2.1	100.0 (6,029)	3.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7	21.7	49.6	24.4	2.6	100.0 (1,989)	3.0
제2오분위	2.1	22.2	52.1	21.3	2.3	100.0 (1,983)	3.0
제3오분위	3.0	28.9	50.6	16.5	1.0	100.0 (1,981)	3.2
제4오분위	4.0	34.4	46.1	14.3	1.1	100.0 (2,007)	3.3
제5오분위	5.0	37.2	45.6	11.6	0.5	100.0 (1,995)	3.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8	21.8	52.3	21.9	2.2	100.0 (3,722)	3.0
50%이상~100%미만	3.0	28.8	48.3	18.3	1.6	100.0 (2,759)	3.1
100%이상~150%미만	4.6	35.2	46.0	13.3	0.9	100.0 (1,657)	3.3
150%이상	4.9	38.0	45.1	11.7	0.3	100.0 (1,817)	3.4
기능상태							
제한 있음	2.2	15.7	50.1	27.3	4.8	100.0 (1,759)	2.8
제한 없음	3.4	31.8	48.5	15.5	0.8	100.0 (8,196)	3.2
2020년도 ³⁾	7.6	35.0	42.0	13.7	1.7	100.0 (9,930)	3.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3)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그저 그렇다 = 3점, 만족하지 않음 = 2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10-56> 사회적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평균 ²⁾
전체 ¹⁾	3.1	42.2	45.1	9.0	0.5	100.0 (9,955)	3.4
지역							
동부	3.2	39.2	46.8	10.2	0.6	100.0 (7,359)	3.3
읍·면부	3.0	50.7	40.2	5.6	0.4	100.0 (2,596)	3.5
성							
남자	2.5	43.2	45.3	8.6	0.4	100.0 (4,384)	3.4
여자	3.7	41.4	44.9	9.4	0.6	100.0 (5,571)	3.4
연령							
65~69세	3.2	46.5	43.6	6.3	0.3	100.0 (3,465)	3.5
70~74세	3.6	42.2	46.4	7.6	0.2	100.0 (2,362)	3.4
75~79세	2.9	40.9	45.7	9.8	0.6	100.0 (1,729)	3.4
80~84세	2.3	40.5	45.3	11.0	0.8	100.0 (1,379)	3.3
85~89세	3.6	33.1	45.3	16.7	1.3	100.0 (781)	3.2
90세 이상	2.4	28.7	45.8	21.1	1.9	100.0 (239)	3.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0	44.7	45.1	6.9	0.4	100.0 (5,987)	3.4
배우자 없음	3.4	38.5	45.0	12.3	0.8	100.0 (3,968)	3.3
가구형태							
노인독거	3.6	39.2	44.3	12.2	0.7	100.0 (3,281)	3.3
노인부부	2.8	44.8	45.1	6.9	0.4	100.0 (5,509)	3.4
자녀동거	3.6	38.0	47.3	10.3	0.7	100.0 (993)	3.3
기타	1.4	41.3	44.9	10.9	1.4	100.0 (172)	3.3
교육수준							
무학	2.2	35.1	48.4	12.8	1.6	100.0 (1,184)	3.2
초등학교	3.1	42.2	43.7	10.5	0.5	100.0 (2,810)	3.4
중학교	3.1	40.4	47.3	8.7	0.6	100.0 (2,127)	3.4
고등학교	3.4	44.1	45.0	7.3	0.2	100.0 (3,132)	3.4
전문대학 이상	4.4	51.4	38.5	5.7	0.1	100.0 (701)	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3.6	48.4	42.6	5.1	0.2	100.0 (3,926)	3.5
미취업	2.8	38.1	46.7	11.6	0.8	100.0 (6,029)	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2	33.4	49.3	14.3	0.7	100.0 (1,989)	3.2
제2오분위	2.1	39.2	46.4	11.4	0.8	100.0 (1,983)	3.3
제3오분위	3.3	46.6	42.8	6.8	0.5	100.0 (1,981)	3.5
제4오분위	3.9	45.7	42.9	7.0	0.5	100.0 (2,007)	3.5
제5오분위	4.1	46.0	44.0	5.7	0.2	100.0 (1,995)	3.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0	35.6	49.4	12.2	0.8	100.0 (3,722)	3.3
50%이상~100%미만	3.2	45.2	42.7	8.4	0.5	100.0 (2,759)	3.4
100%이상~150%미만	4.8	46.9	41.1	6.7	0.5	100.0 (1,657)	3.5
150%이상	3.8	46.9	43.4	5.7	0.2	100.0 (1,817)	3.5
가능상태							
제한 있음	1.8	28.1	51.2	17.8	1.1	100.0 (1,759)	3.1
제한 없음	3.4	45.2	43.8	7.2	0.4	100.0 (8,196)	3.4
2020년도 ³⁾	8.6	50.3	34.6	5.9	0.6	100.0 (9,930)	3.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3)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그저 그렇다 = 3점, 만족하지 않음 = 2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10-57>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평균 ²⁾
전체 ¹⁾	1.4	38.9	51.0	8.4	0.3	100.0 (9,955)	3.3
지역							
동부	1.5	38.9	50.4	8.9	0.3	100.0 (7,359)	3.3
읍·면부	1.1	38.8	52.9	7.0	0.3	100.0 (2,596)	3.3
성							
남자	1.5	43.2	48.0	7.0	0.3	100.0 (4,384)	3.4
여자	1.3	35.5	53.4	9.5	0.3	100.0 (5,571)	3.3
연령							
65~69세	1.7	46.6	46.2	5.3	0.1	100.0 (3,465)	3.4
70~74세	1.3	41.6	50.1	6.8	0.2	100.0 (2,362)	3.4
75~79세	1.3	34.5	54.6	9.4	0.3	100.0 (1,729)	3.3
80~84세	0.8	29.0	57.2	12.3	0.6	100.0 (1,379)	3.2
85~89세	1.8	28.9	53.9	15.1	0.4	100.0 (781)	3.2
90세 이상	0.3	20.3	59.6	18.1	1.7	100.0 (239)	3.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	43.6	48.6	5.8	0.3	100.0 (5,987)	3.4
배우자 없음	1.1	31.7	54.7	12.3	0.3	100.0 (3,968)	3.2
가구형태							
노인독거	1.2	31.8	54.6	11.9	0.4	100.0 (3,281)	3.2
노인부부	1.5	43.7	48.6	5.9	0.3	100.0 (5,509)	3.4
자녀동거	1.5	36.0	52.2	10.2	0.1	100.0 (993)	3.3
기타	0.5	35.6	52.1	11.6	0.2	100.0 (172)	3.2
교육수준							
무학	0.9	22.0	58.8	17.5	0.8	100.0 (1,184)	3.0
초등학교	1.2	33.4	55.3	9.8	0.2	100.0 (2,810)	3.3
중학교	1.0	37.7	53.4	7.8	0.1	100.0 (2,127)	3.3
고등학교	1.5	46.2	46.7	5.3	0.3	100.0 (3,132)	3.4
전문대학 이상	3.9	59.8	32.8	3.3	0.2	100.0 (701)	3.6
현 취업상태							
취업중	1.5	45.8	48.5	4.2	0.1	100.0 (3,926)	3.4
미취업	1.3	34.4	52.7	11.2	0.4	100.0 (6,029)	3.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6	24.6	59.9	14.2	0.7	100.0 (1,989)	3.1
제2오분위	0.5	30.1	57.4	11.5	0.5	100.0 (1,983)	3.2
제3오분위	0.9	42.3	49.8	6.9	0.2	100.0 (1,981)	3.4
제4오분위	2.4	47.9	43.6	6.0	0.1	100.0 (2,007)	3.5
제5오분위	2.6	49.3	44.6	3.4	0.1	100.0 (1,995)	3.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0.5	27.6	59.1	12.1	0.6	100.0 (3,722)	3.2
50%이상~100%미만	1.4	41.3	48.6	8.4	0.2	100.0 (2,759)	3.4
100%이상~150%미만	2.3	47.8	45.0	4.9	0.0	100.0 (1,657)	3.5
150%이상	2.4	50.0	43.7	3.9	0.1	100.0 (1,817)	3.5
기능상태							
제한 있음	1.3	22.1	56.5	19.1	1.0	100.0 (1,759)	3.0
제한 없음	1.4	42.5	49.9	6.1	0.1	100.0 (8,196)	3.4
2020년도 ³⁾	3.9	45.7	42.6	7.4	0.5	100.0 (9,930)	3.5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3) 매우 만족 = 5점, 만족 = 4점, 그저 그렇다 = 3점, 만족하지 않음 = 2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제6절 노인정책에 대한 인식과 사회 신뢰수준

1. 노인정책에 대한 인지도

정부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정부의 노인정책이 정책 대상자인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제시된 노인정책으로는 노인 돌봄 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위급상황 시 빠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다. 치매대응정책으로는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생애말기 지원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스스로 일상생활이나 재산관리를 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 노후 소득확보를 위한 정부보증상품으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위의 제도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44.6%)이며, 이어서 치매 조기검진 사업(38.9%), 노인맞춤돌봄서비스(35.5%), 주택연금(33.3%), 치매안심센터(31.1%)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사업들은 돌봄, 장기요양 관련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가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치매안심센터의 비교적 높은 인지도는 최근 노년기 인지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

한편,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23.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2.4%,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16.0%, 노인보호전문기관 14.6%로 조사되었다. 이들 사업은 특히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는데, 해당 제도의 경험이 없거나 주위에서 적용받은 사례가 적어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가진 사업은 성년후견제도(10.3%)와 농지연금(12.9%)이다. 성년후견제도는 노인의 법적 보호와 자산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혀 모른다’는 53.7%에 이를 정도로 인지도가 낮은 것은 아직까지 성년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에 비해 최근 도입되었

으며 또한 주택에 비해 농지를 소유한 노인 비율이 높지 않음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대상 제도들이 모두 ‘잘 알고 있다’는 응답보다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눈여겨볼 결과로,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10-58> 노인 관련 보건 및 복지서비스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잘 알고 있다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	모른다	계 ¹⁾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5.5	48.9	15.6	100.0 (9,955)
노인장기요양보험	44.6	45.0	10.4	100.0 (9,955)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2.4	48.7	28.9	100.0 (9,955)
치매조기검진사업	38.9	41.8	19.4	100.0 (9,95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23.4	47.2	29.4	100.0 (9,955)
치매안심센터	31.1	46.6	22.3	100.0 (9,955)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16.0	43.4	40.5	100.0 (9,955)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 및 대응기관)	14.6	47.7	37.7	100.0 (9,955)
성년후견제도	10.3	36.0	53.7	100.0 (9,955)
주택연금	33.3	44.4	22.3	100.0 (9,955)
농지연금	12.9	47.5	39.6	100.0 (9,955)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인의 일반특성별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를 살펴보았다.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은 읍·면부 지역에 비해 대체로 노인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지역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제도는 주택연금제도로 동부지역 노인(37.5%)의 인지도가 읍·면부(21.3%)보다 16.2%포인트 더 높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안심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또한 10%포인트 수준의 큰 인지도 차이를 보였다. 농지연금만이 해당 제도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읍·면부 지역 노인(17.4%)이 동부 지역 노인(11.3%)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성별로는 대부분 정책 영역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재산관리와 관련이 높은 주택연금(7.9%포인트 차이), 농지연금(5.6%포인트 차이), 성년후견제도(3.0%포인트 차이)는 남자 노인의 인지도가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나, 관심 영역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령군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노인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인 돌봄 영역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최근에 사회적 관심이 커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성년후견제도 등은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인지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90세 이상의 고연령자도 비교적 인지도가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유배우가 무배우에 비해 제시된 노인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택연금(7.0%포인트 차이), 농지연금(3.7%포인트 차이), 성년후견제도(2.4%포인트 차이)에서 인지도 차이를 보였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자녀동거가구가 독거가구, 부부가구에 비해 대부분 정책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은 자녀세대와의 동거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정책 인지도의 차이는 노인의 다른 특성에 비해서 크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별 인지도 차이가 큰 제도에는 주택연금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 성년후견제도와 각종 치매지원제도 등이 있다. 특히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47.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무학의 경우 11.6%로 35.5%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정보 접근과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연가구소득 기준 제1오분위, 제2오분위,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은 중상위 소득집단에 비해 정책 인지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인지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 주택연금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 성년후견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큰 인지도 차이를 보여, 소득수준이 정보 접근성과 관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이 제한 있는 노인보다 노인정책에 대해 더 높은 인지도를 보여, 기능제한 여부 또한 정보 접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59> 노인 관련 보건의 복지서비스 인지도

(단위: %, 명)

특성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안심 센터	호스 피스 ·완화 의료 사업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성년 후견 제도	주택 연금	농지 연금	계 (명)
전체 ¹⁾	35.5	44.6	22.4	38.9	23.4	31.1	16.0	14.6	10.3	33.3	12.9	100.0 (9,955)
지역												
동부	36.8	47.3	24.2	41.1	25.4	33.6	18.5	17.0	12.1	37.5	11.3	100.0 (7,359)
읍·면부	31.9	37.1	17.5	32.4	17.7	23.9	9.0	7.9	5.2	21.3	17.4	100.0 (2,596)
성												
남자	35.8	45.2	22.5	39.4	23.8	31.7	17.0	15.2	12.0	37.7	16.0	100.0 (4,384)
여자	35.2	44.2	22.4	38.4	23.0	30.6	15.3	14.2	9.0	29.8	10.4	100.0 (5,571)
연령												
65~69세	36.4	46.5	23.6	41.8	25.1	32.5	19.1	17.1	11.3	37.4	14.6	100.0 (3,465)
70~74세	34.6	43.5	22.2	39.8	23.4	29.2	14.7	13.4	10.2	34.6	12.9	100.0 (2,362)
75~79세	36.3	46.8	22.6	38.2	22.5	31.6	15.7	14.7	10.8	30.5	12.4	100.0 (1,729)
80~84세	35.8	42.1	20.5	34.5	20.6	30.5	14.3	12.8	8.5	32.3	11.9	100.0 (1,379)
85~89세	32.6	41.0	19.8	34.9	22.9	30.7	11.7	10.6	9.5	23.0	9.0	100.0 (781)
90세 이상	32.2	39.1	25.8	30.6	22.1	30.6	10.9	14.0	7.3	20.6	9.0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5.9	45.2	21.9	39.8	24.1	32.3	16.1	15.2	11.3	36.1	14.4	100.0 (5,987)
배우자 없음	35.0	43.7	23.2	37.5	22.3	29.2	16.0	13.7	8.9	29.1	10.7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34.5	43.0	23.3	37.1	21.7	28.4	16.8	14.0	8.8	28.6	10.7	100.0 (3,281)
노인부부	35.4	44.8	21.8	39.6	23.6	31.7	15.9	14.8	11.0	35.8	14.4	100.0 (5,509)
자녀동거	37.4	48.5	22.1	40.2	26.7	36.1	14.2	15.1	11.8	35.0	10.8	100.0 (993)
기타	45.5	48.0	27.8	39.7	28.6	35.7	16.7	17.9	9.0	31.9	16.3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27.1	32.2	16.2	25.0	14.9	21.5	5.2	7.4	3.1	11.6	6.6	100.0 (1,184)
초등학교	34.8	41.1	20.3	36.1	22.1	29.9	12.0	12.2	8.6	27.6	13.1	100.0 (2,810)
중학교	38.6	48.3	27.0	40.9	24.5	31.0	15.4	14.8	9.0	36.5	13.6	100.0 (2,127)
고등학교	37.1	48.5	22.9	42.9	25.3	33.2	21.1	17.6	13.3	41.3	14.4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35.7	51.2	25.3	49.5	30.7	42.8	29.3	22.6	20.1	47.1	13.9	100.0 (7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36.8	45.0	22.5	38.3	23.4	30.2	15.3	15.6	10.3	32.8	15.2	100.0 (3,926)
미취업	34.7	44.4	22.4	39.2	23.4	31.7	16.5	13.9	10.3	33.6	11.4	100.0 (6,029)
연가구조득												
제1오분위	31.7	37.1	20.3	32.5	20.5	28.0	15.0	15.9	8.7	27.9	12.0	100.0 (1,989)
제2오분위	34.5	43.3	22.1	34.8	20.3	28.8	10.8	8.8	5.7	26.1	10.8	100.0 (1,983)
제3오분위	37.1	45.9	22.1	39.7	23.0	30.5	14.7	13.3	8.0	32.2	13.0	100.0 (1,981)
제4오분위	38.8	50.0	23.7	43.2	24.9	33.0	18.9	17.1	12.3	38.5	14.7	100.0 (2,007)
제5오분위	35.3	46.9	23.9	44.1	28.1	35.2	20.6	18.0	16.8	41.5	13.9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3.7	40.4	20.9	33.8	20.9	28.9	13.4	12.8	7.7	28.0	11.4	100.0 (3,722)
50%이상~100%미만	36.1	46.4	22.7	39.5	22.8	29.9	14.1	13.4	7.6	31.6	13.8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39.2	49.0	23.2	43.0	24.9	35.2	18.2	17.2	13.2	38.8	13.5	100.0 (1,657)
150%이상	35.1	46.7	24.4	44.5	27.9	33.8	22.4	17.8	17.3	41.7	14.0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34.2	45.3	22.6	36.9	20.5	26.6	14.1	16.0	8.6	27.2	9.7	100.0 (1,759)
제한 없음	35.8	44.5	22.4	39.3	24.0	32.1	16.4	14.3	10.7	34.6	13.6	100.0 (8,196)
2020년도	38.6	—	—	44.1	29.7	26.0	—	21.9	10.0	29.4	13.2	100.0 (9,93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노인정책 확대의 우선순위와 투표 참여

노인정책 중 향후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1순위로 43.6%가 빈곤완화 지원, 22.1%가 노인 보건의료 서비스, 16.6%가 노인 돌봄(요양) 서비스, 7.6% 치매 관련 서비스를 선택했다. 이어서 노인 고용/일자리 지원은 4.7%, 노후 사회·여가 문화 활동 지원 2.3%, 노인 특화된 다양한 주거 지원 2.1%, 거주주택 보수 및 개조 서비스 0.9%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2순위까지를 고려한 확대되어야 할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노인의 의견을 살펴보면, 노인빈곤완화가 57.1%, 노인보건의료서비스 47.8%, 노인돌봄(요양) 서비스 39.9%, 치매관련서비스 22.3%, 노인 고용/일자리지원 15.0%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 완화 지원’의 우선순위가 높게 조사된 것은 노인 빈곤율이 높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인이 많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보건의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일상생활을 돕고, 기능제한을 경험하더라도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요양)서비스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치매 관련 서비스와 노인고용/일자리 지원에 대한 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치매 노인 증가에 대한 사회적 높은 관심사와 노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욕구를 나타낸다. 이외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사회·여가문화활동 지원, 노인 특화된 다양한 주거 지원, 거주주택 보수 및 개조 서비스는 우선순위는 낮지만 욕구가 확인되었다.

<표 10-60> 향후 확대되어야 할 노인복지정책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노인 빈곤 완화 지원	43.6	13.5	57.1
노인 보건의료 서비스	22.1	25.8	47.8
노인 돌봄(요양) 서비스	16.6	23.3	39.9
치매 관련 서비스	7.6	14.7	22.3
노인 고용/일자리 지원	4.7	10.3	15.0
노후 사회·여가문화 활동 지원	2.3	5.5	7.8
노인 특화된 다양한 주거 지원	2.1	4.2	6.3
거주주택 보수 및 개조 서비스	0.9	2.7	3.6
기타	0.0	0.0	0.0
(명)	(9,955)	(9,933)	(9,955)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정책에서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일반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빈곤, 보건의료, 돌봄(요양)정책 순으로 확대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42.9%)보다 읍·면부 지역(45.6%)에서 빈곤 완화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돌봄(요양)서비스는 동부 지역(17.1%)에서 읍·면부(14.9%)보다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돌봄(요양)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고용/일자리지원과 사회·여가문화 활동 지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 완화지원이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아졌고,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치매관련 지원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소득별로는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제2오분위에 속하는 노인은 빈곤 완화지원 필요성을 각각 43.4%, 48.4%로 상위소득 노인보다 높게 인식하였다.

노인정책에서 향후 확대되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을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면 보다 다양한 정책에 대한 욕구가 나타난다. 1순위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인식된 소득, 건강, 돌봄 이외의 정책 영역을 포함하여 노인의 일반특성별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 차이에서는 읍·면부 지역 노인이 동부 지역 노인보다 빈곤 완화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노인특화주거지원, 거주주택 보수 및 개조를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노인 고용, 사회 여가문화 활동 지원, 노인특화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65~69세 노인 집단에서는 정책확대의 우선순위로 노인 고용/일자리지원 17.6%, 사회·여가문화 활동 지원 9.6%, 노인특화주거지원 7.1%로 응답하여 고연령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연령의 경우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고려하더라도 소득, 건강, 돌봄에 집중되고 그 이외의 정책에 대한 확대 필요성 욕구는 비교적 적었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치매, 고용, 여가문화, 사회참여 정책의 확대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보건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높게 인식하였다. 현재 취업중인 노인은 미취업자에 비해 노인고용 정책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9%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고용정책, 사회·여가문화 활동 지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기능제한 여부에 따라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은 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돌봄(요양)서비스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5.5%포인트 높게 인식하였고,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은 노인고용, 여가문화지원, 노인 특화주거지원에 대한 정책 확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표 10-61> 향후 확대되어야 할 노인복지정책(1순위)

(단위: %, 명)

특성	빈곤 완화 지원	보건 의료 서비스	돌봄 (요양) 서비스	치매 관련 서비스	고용/ 일자리 지원	사회· 여가문화 활동 지원	노인특화 주거지원	거주주택 보수 및 개조	기타	계 (명)
전체 ¹⁾	43.6	22.1	16.6	7.6	4.7	2.3	2.1	0.9	0.0	100.0 (9,955)
지역										
동부	42.9	22.2	17.1	8.1	4.9	2.3	1.8	0.6	0.0	100.0 (7,359)
읍·면부	45.6	21.8	14.9	6.3	4.1	2.3	3.2	1.6	0.0	100.0 (2,596)
성										
남자	43.3	22.4	16.6	7.5	5.0	2.3	2.2	0.8	0.0	100.0 (4,384)
여자	43.9	21.9	16.5	7.8	4.4	2.4	2.1	1.0	0.0	100.0 (5,571)
연령										
65~69세	42.2	22.7	16.1	7.5	5.9	2.5	2.4	0.8	0.0	100.0 (3,465)
70~74세	43.7	21.5	15.9	9.0	4.0	2.5	2.4	1.1	0.0	100.0 (2,362)
75~79세	44.6	22.5	15.9	6.8	5.4	2.2	1.8	0.8	0.0	100.0 (1,729)
80~84세	44.8	22.0	17.5	7.1	3.6	2.2	1.4	1.4	0.0	100.0 (1,379)
85~89세	47.2	19.2	19.4	7.1	2.9	2.0	1.8	0.3	0.0	100.0 (781)
90세 이상	38.9	25.5	20.1	7.4	2.2	1.6	3.5	0.6	0.0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2.7	22.2	16.6	7.6	5.0	2.7	2.3	0.9	0.0	100.0 (5,987)
배우자 없음	45.1	21.9	16.6	7.8	4.2	1.7	1.8	0.9	0.0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45.2	22.0	15.8	7.9	4.4	1.8	1.9	1.0	0.0	100.0 (3,281)
노인부부	43.0	22.0	16.7	7.4	4.9	2.7	2.4	1.0	0.0	100.0 (5,509)
자녀동거	42.2	22.8	18.2	8.2	4.1	2.2	1.9	0.4	0.0	100.0 (993)
기타	42.4	23.5	17.8	5.7	7.9	0.9	1.6	0.2	0.0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46.9	20.7	18.4	6.8	3.5	0.9	1.9	0.9	0.0	100.0 (1,184)
초등학교	44.7	22.5	16.6	6.7	4.6	2.2	1.5	1.1	0.0	100.0 (2,810)
중학교	44.0	23.8	15.4	7.3	4.1	2.7	1.8	0.9	0.0	100.0 (2,127)
고등학교	42.4	21.3	16.0	8.4	5.7	2.6	2.9	0.8	0.0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38.1	21.1	19.4	10.5	4.5	2.8	3.0	0.7	0.0	100.0 (7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43.2	21.9	15.9	7.5	5.9	2.3	2.3	1.0	0.0	100.0 (3,926)
미취업	43.9	22.2	17.0	7.7	3.9	2.3	2.0	0.9	0.0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3.4	22.7	14.9	8.7	4.8	2.4	1.8	1.3	0.0	100.0 (1,989)
제2오분위	48.4	19.3	16.8	7.0	3.7	2.1	1.8	1.0	0.0	100.0 (1,983)
제3오분위	43.9	21.1	16.9	7.6	5.3	1.8	2.5	0.9	0.0	100.0 (1,981)
제4오분위	40.9	24.2	17.5	7.9	4.7	2.6	1.6	0.5	0.0	100.0 (2,007)
제5오분위	41.6	23.0	16.8	7.1	5.1	2.7	3.0	0.9	0.0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5.2	21.1	16.0	7.8	4.5	2.1	2.2	1.0	0.0	100.0 (3,722)
50%이상~100%미만	44.6	21.4	17.1	7.6	4.2	2.4	1.7	0.9	0.0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40.1	25.0	16.1	8.0	6.0	2.6	1.5	0.7	0.0	100.0 (1,657)
150%이상	42.1	22.4	17.2	7.0	4.8	2.4	3.3	0.8	0.0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46.6	19.5	18.7	6.7	3.9	2.1	1.5	0.9	0.0	100.0 (1,759)
제한 없음	43.0	22.6	16.1	7.8	4.9	2.4	2.3	0.9	0.0	100.0 (8,196)
2020년도	36.3	26.3	14.0	8.6	6.7	4.2	1.6	0.8	1.5 ²⁾	100.0 (9,93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노인자원봉사 및 사회활동지원(1.2%), 노인 특화된 용품 확대(0.3%)를 포함

<표 10-62> 향후 확대되어야 할 노인복지정책(1+2순위)

(단위: %)

특성	빈곤 완화 지원	보건 의료 서비스	돌봄 (요양) 서비스	치매 관련 서비스	고용/ 일자리 지원	사회· 여가문화 활동 지원	노인특화 주거지원	거주주택 보수 및 개조	기타
전체 ¹⁾	57.1	47.8	39.9	22.3	15.0	7.8	6.3	3.6	0.0
지역									
동부	56.1	46.7	41.0	23.8	15.8	8.1	5.5	2.8	0.0
읍·면부	59.9	51.0	36.7	18.3	12.7	7.1	8.5	5.7	0.0
성									
남자	57.4	47.5	39.9	21.6	15.6	7.6	6.9	3.1	0.0
여자	56.9	48.0	39.8	22.9	14.4	8.0	5.8	3.9	0.0
연령									
65~69세	54.7	46.5	38.2	22.5	17.6	9.6	7.1	3.4	0.0
70~74세	57.0	45.6	40.3	24.2	14.1	8.3	6.7	3.7	0.0
75~79세	58.7	48.3	38.6	22.9	15.4	7.1	5.6	3.2	0.0
80~84세	59.2	50.1	42.0	19.8	13.0	5.7	6.3	3.7	0.0
85~89세	61.6	51.3	44.4	20.1	10.0	4.1	4.1	4.2	0.2
90세 이상	56.2	58.9	41.8	19.8	8.7	6.9	3.8	4.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6.2	46.8	39.6	22.9	15.2	8.6	7.0	3.6	0.0
배우자 없음	58.6	49.3	40.3	21.4	14.7	6.7	5.3	3.5	0.0
가구형태									
노인독거	58.7	49.7	39.5	21.4	14.5	6.8	5.5	3.7	0.0
노인부부	56.3	46.7	39.6	22.8	15.0	8.5	7.1	3.6	0.0
자녀동거	57.0	46.7	41.8	22.7	15.5	7.7	5.2	3.1	0.0
기타	52.1	51.9	42.9	22.2	18.5	6.3	2.8	3.3	0.0
교육수준									
무학	61.8	52.2	43.1	19.0	10.0	3.5	5.1	5.2	0.1
초등학교	59.0	51.0	40.8	19.6	13.7	6.6	5.4	3.8	0.0
중학교	58.0	48.9	37.1	23.7	15.1	8.7	4.8	3.6	0.0
고등학교	54.2	43.8	39.2	24.3	17.6	9.4	8.3	2.8	0.0
전문대학 이상	52.2	41.8	42.3	26.1	15.9	10.4	7.6	3.4	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56.8	46.3	37.5	21.8	17.9	8.2	6.9	4.2	0.0
미취업	57.4	48.8	41.4	22.7	13.0	7.6	5.9	3.1	0.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7.8	49.1	38.3	21.9	13.5	7.9	6.6	4.6	0.1
제2오분위	62.2	50.5	38.9	19.7	13.0	6.8	5.2	3.6	0.0
제3오분위	57.7	48.8	39.9	22.4	15.3	5.7	6.4	3.7	0.0
제4오분위	55.1	47.6	41.1	23.0	15.9	8.2	6.4	2.4	0.0
제5오분위	52.9	43.0	41.1	24.7	17.1	10.4	7.0	3.4	0.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9.3	49.2	39.3	21.0	13.4	7.2	6.4	4.1	0.0
50%이상~100%미만	58.6	49.5	40.2	21.8	14.1	6.8	5.4	3.4	0.0
100%이상~150%미만	53.7	48.0	38.7	24.6	16.6	8.4	6.6	2.9	0.0
150%이상	53.5	42.0	41.7	23.8	18.0	10.1	7.4	3.2	0.0
기능상태									
제한 있음	59.0	46.6	44.4	21.6	12.3	6.2	5.8	4.0	0.1
제한 없음	56.7	48.0	38.9	22.5	15.5	8.2	6.4	3.5	0.0
2020년도	49.0	45.9	32.0	22.5	21.3	14.4	5.2	3.5	0.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전체 조사 대상 노인 중 90.2%가 지난 3년간 투표 참여 경험이 있으며, 9.8%는 투표 참여 경험이 없다. 지역별 참여율을 보면, 동부 지역의 노인 중 89.3%, 읍·면부 지역의 노인 중 92.6%가 투표에 참여하여 읍·면부 거주 노인의 참여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91.9%)가 여자(88.8%)보다 참여율이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투표 참여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60대와 70대는 투표율이 90%가 넘는 데 비해(65~69세 92.7%, 70~74세 92.1%, 75~79세 90.2%) 8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80~84세 87.5%, 85~89세 82.5%로 낮아졌고, 90세 이상은 74.2%로 더 낮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91.9%)이 무배우 노인(87.5%)보다 높았고,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의 참여율이 92.2%로 독거가구(87.7%), 자녀동거가구(86.9%)보다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투표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학인 노인은 86.2%, 초등학교 졸업은 88.0%, 중학교 졸업은 90.7%의 투표율을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은 92.1%,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은 95.2%가 투표 참여 경험이 있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 노인의 참여율이 93.5%로, 미취업 노인(88.0%)보다 높았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가장 낮은 소득 분위에 속하는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가 87.7%의 투표율을 보여 중상위 소득집단보다 낮았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92.1%가 투표에 참여하여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81.4%)보다 10.7%포인트 높았다. 노인의 기능상태에 따른 투표율 차이가 비교적 높은 것은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들이 투표장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능제한이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요소임을 시사한다.

<표 10-63> 최근 3년간 투표 참여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요	계 (명)
전체 ¹⁾	90.2	9.8	100.0 (9,955)
지역			
동부	89.3	10.7	100.0 (7,359)
읍·면부	92.6	7.4	100.0 (2,596)
성			
남자	91.9	8.1	100.0 (4,384)
여자	88.8	11.2	100.0 (5,571)
연령			
65~69세	92.7	7.3	100.0 (3,465)
70~74세	92.1	7.9	100.0 (2,362)
75~79세	90.2	9.8	100.0 (1,729)
80~84세	87.5	12.5	100.0 (1,379)
85~89세	82.5	17.5	100.0 (781)
90세 이상	74.2	25.8	100.0 (2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1.9	8.1	100.0 (5,987)
배우자 없음	87.5	12.5	100.0 (3,968)
가구형태			
노인독거	87.7	12.3	100.0 (3,281)
노인부부	92.2	7.8	100.0 (5,509)
자녀동거	86.9	13.1	100.0 (993)
기타	91.0	9.0	100.0 (172)
교육수준			
무학	86.2	13.8	100.0 (1,184)
초등학교	88.0	12.0	100.0 (2,810)
중학교	90.7	9.3	100.0 (2,127)
고등학교	92.1	7.9	100.0 (3,132)
전문대학 이상	95.2	4.8	100.0 (7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93.5	6.5	100.0 (3,926)
미취업	88.0	12.0	100.0 (6,0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7.7	12.3	100.0 (1,989)
제2오분위	90.0	10.0	100.0 (1,983)
제3오분위	92.2	7.8	100.0 (1,981)
제4오분위	90.0	10.0	100.0 (2,007)
제5오분위	90.9	9.1	100.0 (1,99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8.8	11.2	100.0 (3,722)
50%이상~100%미만	91.8	8.2	100.0 (2,759)
100%이상~150%미만	90.6	9.4	100.0 (1,657)
150%이상	90.0	10.0	100.0 (1,817)
기능상태			
제한 있음	81.4	18.6	100.0 (1,759)
제한 없음	92.1	7.9	100.0 (8,19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3. 사회 신뢰수준

사회 신뢰수준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로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의 여러 영역에 얼마나 신뢰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므로, 해당 사회의 건강성과 안정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 결과, 한국 노인은 가족에 대해 가장 높은 신뢰도(평균 3.7점)를 보인다.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2%에 달하며, ‘어느 정도 신뢰’하는 경우도 28.4%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 간에 높은 신뢰 관계는 사회적 지지 체계에서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웃에 대한 신뢰도(평균 3.0점)는 ‘어느 정도 신뢰’하는 비율이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인 신뢰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매우 신뢰’하는 비율은 14.1%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는 가족에 비해 이웃과의 관계가 다소 느슨하기 때문일 수 있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2.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별로 신뢰하지 않음’이 49.2%, ‘전혀 신뢰하지 않음’이 8.4%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는 언론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신뢰도 또한 평균 2.4점으로, ‘어느 정도 신뢰’하는 비율이 45.1%로 가장 높으나, ‘별로 신뢰하지 않음’ 비율도 44.9%로 비슷하다. 이는 기업에 대한 인식이 분분함을 나타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혼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 신뢰’하는 응답이 44.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별로 신뢰하지 않음’과 ‘전혀 신뢰하지 않음’을 합친 비율이 52.9%로, 절반 이상이 정부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10-64> 사회 영역별 신뢰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계 ¹⁾ (명)	평균 ²⁾
가족	70.2	28.4	1.1	0.3	100.0 (9,955)	3.7
이웃	14.1	72.8	12.9	0.2	100.0 (9,955)	3.0
언론	2.5	40.0	49.2	8.4	100.0 (9,955)	2.4
기업	2.3	45.1	44.9	7.6	100.0 (9,955)	2.4
정부	3.2	44.0	39.6	13.3	100.0 (9,955)	2.4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신뢰 = 4점, 어느 정도 신뢰 = 3점, 별로 신뢰하지 않음 = 2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가족에 대한 신뢰를 노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특성 집단별로 신뢰하는 비율(매우 신뢰+어느 정도 신뢰)이 97.0% 이상, 평균 점수 3.6점 이상으로 두루 높게 나타났다. 노인별 특성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차이를 비교해 보면, 지역별로는 가족을 매우 신뢰하는 비율이 동부 지역이 읍·면부보다 높았고, 가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별로 신뢰하지 않음+전혀 신뢰하지 않음) 비율은 동부 거주 노인이 1.6%로 읍·면부(0.8%)보다 높았다. 무배우 노인이 가족을 매우 신뢰하는 비율은 73.7%로 유배우 노인(64.9%)보다 높았고, 가족을 신뢰하지 않는 비율은 무배우 노인이 2.5%로, 유배우 노인(0.7%)보다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는 가족을 매우 신뢰하는 비율이 64.5%로 다른 가구형태보다 다소 낮았다. 독거가구는 가족을 신뢰하지 않는 비율도 2.8%로 부부가구(0.6%), 자녀동거가구(1.1%)보다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가족을 매우 신뢰하는 비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졌고, 신뢰하지 않는 비율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에 속하는 노인이 소득 중상위 집단보다 가족을 매우 신뢰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고, 가족을 신뢰하지 않는 비율은 높았다.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있는 노인은 제한 없는 노인보다 가족을 매우 신뢰하는 비율이 낮고, 신뢰하지 않는 비율은 높았다.

이웃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웃에 대해 신뢰하는 비율(매우 신뢰+어느 정도 신뢰)이 읍·면부 지역은 92.8%로, 동부 지역 84.8%보다 8.0%포인트 높았다. 동부 지역은 이웃을 신뢰하지 않는 비율(별로 신뢰하지 않음+전혀 신뢰하지 않음)도 15.2%로, 읍·면부(7.1%)보다 높았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이웃을 신뢰하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군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웃을 ‘매우’ 신뢰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가 이웃을 신뢰하는 비율이 82.3%로 독거가구(86.2%), 부부가구(88.1%)에 비해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웃을 신뢰하는 비율이 높았고, 소득별로는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연가구소득 제5오분위,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에서 이웃을 신뢰하는 비율이 중저소득 집단보다 낮았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제한이 없는 노인(87.5%)이 제한 있는 노인(84.0%)보다 이웃 신뢰도가 높았다.

언론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 평가(별로 신뢰하지 않음+전혀 신뢰하지 않음)가 평균 57.6%로 더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에서는 언론을 신뢰하

는 비율이 41.8%로, 읍·면부(44.2%)보다 낮았고,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비율은 58.1%로 읍·면부(55.9%)보다 높았다. 남자(40.4%)보다는 여자(44.1%)가 신뢰하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뢰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낮아졌다. 65~69세는, 70~74세는 각각 39.8%, 39.9%가 기업을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90세 이상에서는 58.0%의 신뢰도를 보였다. 배우자 유무와 가구형태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신뢰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했다.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은 언론을 신뢰하는 비율이 41.7%로 제한이 있는 노인(45.8%)보다 낮았다.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2.4점으로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매우 신뢰+어느 정도 신뢰)이 47.4%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동부 거주 노인의 신뢰도가 48.2%로 읍·면부 거주 노인(45.2%)보다 더 높았고, 남자(45.2%)보다 여자(49.1%)가 신뢰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군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49.9%)가 독거가구(45.9%), 부부가구(47.8%)보다 신뢰도가 높았다. 취업중 노인(45.9%)은 미취업 노인(48.4%)보다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2.4점으로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47.2%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 노인이 신뢰하는 비율이 47.7%로 읍·면부 거주 노인(45.5%)보다 높았고, 남자(44.8%)보다 여자(49.0%)가 정부에 대해 더 높은 신뢰를 보였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졌다. 60대와 70대의 신뢰도는 40%대로 나타났지만, 80~84세는 50.0%, 85~89세는 54.2%로 조사되었고, 90대 이상은 63.9로, 연령군별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의 신뢰도는 49.1%, 독거가구는 48.1%로 부부가구(46.2%)보다 다소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50.4%), 초등학교 졸업(49.2%)의 저학력 노인이 중, 고학력 노인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미취업 노인(49.2%)이 취업중 노인(44.2%)보다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별로는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50%~100% 미만에 속하는 노인이 각각 48.9%, 48.8%의 신뢰도를 보인 반면, 중위소득 대비 100%~150% 이상, 150% 미만 노인의 신뢰도는 각각 43.5%, 44.3%로 비교적 낮게 조사되어 소득 수준별 차이를 보였다.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49.6%)은 없는 노인(46.6%)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3.0%포인트 높았다.

<표 10-65> 사회 영역별 신뢰수준: 가족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계 (명)	평균 ²⁾
전체 ¹⁾	70.2	28.4	1.1	0.3	100.0 (9,955)	3.7
지역						
동부	70.6	27.8	1.2	0.4	100.0 (7,359)	3.7
읍·면부	68.9	30.3	0.7	0.1	100.0 (2,596)	3.7
성						
남자	70.0	28.6	1.0	0.4	100.0 (4,384)	3.7
여자	70.3	28.3	1.1	0.3	100.0 (5,571)	3.7
연령						
65~69세	70.0	28.2	1.2	0.6	100.0 (3,465)	3.7
70~74세	69.8	29.0	1.0	0.2	100.0 (2,362)	3.7
75~79세	70.3	28.3	1.1	0.3	100.0 (1,729)	3.7
80~84세	72.5	26.8	0.7	0.0	100.0 (1,379)	3.7
85~89세	68.8	29.6	1.4	0.1	100.0 (781)	3.7
90세 이상	67.1	31.9	1.0	0.0	100.0 (239)	3.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3.7	25.6	0.3	0.4	100.0 (5,987)	3.7
배우자 없음	64.9	32.6	2.2	0.3	100.0 (3,968)	3.6
가구형태						
노인독거	64.5	32.7	2.6	0.2	100.0 (3,281)	3.6
노인부부	74.0	25.4	0.3	0.3	100.0 (5,509)	3.7
자녀동거	69.6	29.3	0.5	0.6	100.0 (993)	3.7
기타	60.5	37.7	1.1	0.8	100.0 (172)	3.6
교육수준						
무학	66.7	31.2	1.9	0.2	100.0 (1,184)	3.6
초등학교	68.5	29.9	1.2	0.4	100.0 (2,810)	3.7
중학교	68.3	29.9	1.2	0.5	100.0 (2,127)	3.7
고등학교	72.7	26.3	0.7	0.2	100.0 (3,132)	3.7
전문대학 이상	77.2	22.5	0.3	0.0	100.0 (701)	3.8
현 취업상태						
취업중	70.6	28.4	0.7	0.4	100.0 (3,926)	3.7
미취업	69.9	28.4	1.3	0.3	100.0 (6,029)	3.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4.4	33.3	1.9	0.4	100.0 (1,989)	3.6
제2오분위	69.0	29.3	1.3	0.4	100.0 (1,983)	3.7
제3오분위	72.4	26.8	0.6	0.1	100.0 (1,981)	3.7
제4오분위	73.0	25.8	0.9	0.4	100.0 (2,007)	3.7
제5오분위	72.1	26.9	0.6	0.4	100.0 (1,995)	3.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7.6	30.7	1.4	0.4	100.0 (3,722)	3.7
50%이상~100%미만	72.0	26.8	1.0	0.3	100.0 (2,759)	3.7
100%이상~150%미만	72.8	26.2	0.7	0.3	100.0 (1,657)	3.7
150%이상	70.4	28.3	1.0	0.3	100.0 (1,817)	3.7
기능상태						
제한 있음	63.7	34.3	1.7	0.2	100.0 (1,759)	3.6
제한 없음	71.6	27.1	0.9	0.3	100.0 (8,196)	3.7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신뢰 = 4점, 어느 정도 신뢰 = 3점, 별로 신뢰하지 않음 = 2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10-66> 사회 영역별 신뢰수준: 이웃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계 (명)	평균 ²⁾
전체 ¹⁾	14.1	72.8	12.9	0.2	100.0 (9,955)	3.0
지역						
동부	12.9	71.9	15.0	0.2	100.0 (7,359)	3.0
읍·면부	17.5	75.3	6.9	0.2	100.0 (2,596)	3.1
성						
남자	14.2	70.6	15.0	0.2	100.0 (4,384)	3.0
여자	14.0	74.5	11.2	0.2	100.0 (5,571)	3.0
연령						
65~69세	14.3	71.3	14.2	0.2	100.0 (3,465)	3.0
70~74세	14.2	73.2	12.2	0.4	100.0 (2,362)	3.0
75~79세	14.8	73.1	12.0	0.1	100.0 (1,729)	3.0
80~84세	14.0	73.9	11.8	0.3	100.0 (1,379)	3.0
85~89세	12.8	74.7	12.4	0.2	100.0 (781)	3.0
90세 이상	9.8	75.5	14.7	0.0	100.0 (239)	3.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3.9	73.6	12.3	0.2	100.0 (5,987)	3.0
배우자 없음	14.4	71.6	13.8	0.2	100.0 (3,968)	3.0
가구형태						
노인독거	15.1	71.1	13.5	0.3	100.0 (3,281)	3.0
노인부부	13.8	74.3	11.7	0.2	100.0 (5,509)	3.0
자녀동거	13.1	69.2	17.5	0.2	100.0 (993)	3.0
기타	10.6	76.0	13.4	0.0	100.0 (172)	3.0
교육수준						
무학	13.7	75.4	10.8	0.2	100.0 (1,184)	3.0
초등학교	14.5	73.1	12.2	0.2	100.0 (2,810)	3.0
중학교	15.2	72.2	12.2	0.4	100.0 (2,127)	3.0
고등학교	12.4	73.3	14.1	0.2	100.0 (3,132)	3.0
전문대학 이상	17.1	66.5	16.1	0.3	100.0 (701)	3.0
현 취업상태						
취업중	14.9	73.4	11.4	0.2	100.0 (3,926)	3.0
미취업	13.5	72.4	13.8	0.2	100.0 (6,029)	3.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3	72.7	11.8	0.2	100.0 (1,989)	3.0
제2오분위	15.1	71.6	12.9	0.4	100.0 (1,983)	3.0
제3오분위	14.1	72.9	12.7	0.2	100.0 (1,981)	3.0
제4오분위	13.2	74.9	11.8	0.1	100.0 (2,007)	3.0
제5오분위	12.6	71.9	15.3	0.2	100.0 (1,995)	3.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4.6	72.8	12.2	0.3	100.0 (3,722)	3.0
50%이상~100%미만	14.5	73.2	12.2	0.2	100.0 (2,759)	3.0
100%이상~150%미만	13.3	74.2	12.3	0.2	100.0 (1,657)	3.0
150%이상	13.1	70.9	15.8	0.2	100.0 (1,817)	3.0
기능상태						
제한 있음	10.4	73.6	15.7	0.4	100.0 (1,759)	2.9
제한 없음	14.9	72.6	12.3	0.2	100.0 (8,196)	3.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신뢰 = 4점, 어느 정도 신뢰 = 3점, 별로 신뢰하지 않음 = 2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10-67> 사회 영역별 신뢰수준: 언론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계 (명)	평균 ²⁾
전체 ¹⁾	2.5	40.0	49.2	8.4	100.0 (9,955)	2.4
지역						
동부	2.7	39.1	50.0	8.1	100.0 (7,359)	2.4
읍·면부	1.8	42.4	46.8	9.1	100.0 (2,596)	2.4
성						
남자	2.3	38.1	51.2	8.4	100.0 (4,384)	2.3
여자	2.6	41.5	47.6	8.3	100.0 (5,571)	2.4
연령						
65~69세	1.6	38.2	51.0	9.3	100.0 (3,465)	2.3
70~74세	3.5	36.4	51.4	8.8	100.0 (2,362)	2.3
75~79세	3.1	43.2	45.8	8.0	100.0 (1,729)	2.4
80~84세	2.2	41.4	48.7	7.6	100.0 (1,379)	2.4
85~89세	2.8	44.4	45.8	7.0	100.0 (781)	2.4
90세 이상	2.5	55.5	39.5	2.5	100.0 (239)	2.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5	39.5	49.7	8.2	100.0 (5,987)	2.4
배우자 없음	2.4	40.7	48.3	8.6	100.0 (3,968)	2.4
가구형태						
노인독거	2.6	40.2	47.9	9.3	100.0 (3,281)	2.4
노인부부	2.4	40.1	49.2	8.3	100.0 (5,509)	2.4
자녀동거	2.5	39.1	53.0	5.4	100.0 (993)	2.4
기타	1.7	38.1	52.4	7.8	100.0 (172)	2.3
교육수준						
무학	1.7	46.4	44.8	7.0	100.0 (1,184)	2.4
초등학교	2.9	43.0	46.8	7.3	100.0 (2,810)	2.4
중학교	2.8	39.9	48.9	8.5	100.0 (2,127)	2.4
고등학교	2.1	36.1	52.3	9.6	100.0 (3,132)	2.3
전문대학 이상	2.8	34.9	53.1	9.2	100.0 (701)	2.3
현 취업상태						
취업중	2.1	40.0	49.4	8.5	100.0 (3,926)	2.4
미취업	2.7	40.0	49.0	8.3	100.0 (6,029)	2.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4	43.7	44.8	8.1	100.0 (1,989)	2.4
제2오분위	1.8	43.1	45.7	9.4	100.0 (1,983)	2.4
제3오분위	2.2	41.3	47.8	8.6	100.0 (1,981)	2.4
제4오분위	2.7	36.0	53.3	8.0	100.0 (2,007)	2.3
제5오분위	2.4	35.8	54.3	7.6	100.0 (1,995)	2.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6	43.0	45.9	8.5	100.0 (3,722)	2.4
50%이상~100%미만	2.4	41.2	47.8	8.6	100.0 (2,759)	2.4
100%이상~150%미만	2.3	35.2	54.2	8.3	100.0 (1,657)	2.3
150%이상	2.6	36.2	53.5	7.7	100.0 (1,817)	2.3
기능상태						
제한 있음	2.8	43.0	47.9	6.3	100.0 (1,759)	2.4
제한 없음	2.4	39.3	49.5	8.8	100.0 (8,196)	2.4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신뢰 = 4점, 어느 정도 신뢰 = 3점, 별로 신뢰하지 않음 = 2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10-68> 사회 영역별 신뢰수준: 기업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계 (명)	평균 ²⁾
전체 ¹⁾	2.3	45.1	44.9	7.6	100.0 (9,955)	2.4
지역						
동부	2.5	45.7	44.7	7.1	100.0 (7,359)	2.4
읍·면부	1.8	43.4	45.7	9.1	100.0 (2,596)	2.4
성						
남자	2.4	42.8	47.3	7.5	100.0 (4,384)	2.4
여자	2.2	46.9	43.1	7.7	100.0 (5,571)	2.4
연령						
65~69세	2.3	42.2	47.1	8.4	100.0 (3,465)	2.4
70~74세	2.5	45.6	44.1	7.8	100.0 (2,362)	2.4
75~79세	2.8	48.2	41.9	7.1	100.0 (1,729)	2.5
80~84세	2.2	44.2	47.1	6.5	100.0 (1,379)	2.4
85~89세	1.0	47.5	43.2	8.2	100.0 (781)	2.4
90세 이상	1.4	57.0	38.1	3.5	100.0 (239)	2.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4	45.3	44.9	7.4	100.0 (5,987)	2.4
배우자 없음	2.2	44.9	45.0	8.0	100.0 (3,968)	2.4
가구형태						
노인독거	2.1	43.8	45.4	8.7	100.0 (3,281)	2.4
노인부부	2.4	45.4	44.6	7.6	100.0 (5,509)	2.4
자녀동거	1.9	48.0	46.0	4.1	100.0 (993)	2.5
기타	2.5	44.7	43.7	9.1	100.0 (172)	2.4
교육수준						
무학	1.0	48.2	42.2	8.6	100.0 (1,184)	2.4
초등학교	2.4	45.3	45.1	7.3	100.0 (2,810)	2.4
중학교	3.3	44.3	44.8	7.7	100.0 (2,127)	2.4
고등학교	1.9	44.1	45.8	8.2	100.0 (3,132)	2.4
전문대학 이상	3.0	46.3	45.4	5.3	100.0 (701)	2.5
현 취업상태						
취업중	2.3	43.6	46.4	7.7	100.0 (3,926)	2.4
미취업	2.3	46.1	44.0	7.6	100.0 (6,029)	2.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6	47.6	41.3	8.4	100.0 (1,989)	2.4
제2오분위	1.9	46.2	43.5	8.3	100.0 (1,983)	2.4
제3오분위	2.3	46.4	43.3	8.0	100.0 (1,981)	2.4
제4오분위	2.9	42.5	47.3	7.3	100.0 (2,007)	2.4
제5오분위	1.7	42.9	49.2	6.3	100.0 (1,995)	2.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5	46.3	42.8	8.4	100.0 (3,722)	2.4
50%이상~100%미만	2.2	45.9	44.3	7.7	100.0 (2,759)	2.4
100%이상~150%미만	2.2	43.1	46.9	7.8	100.0 (1,657)	2.4
150%이상	2.1	43.4	48.6	5.9	100.0 (1,817)	2.4
기능상태						
제한 있음	1.9	47.3	43.7	7.1	100.0 (1,759)	2.4
제한 없음	2.4	44.6	45.2	7.8	100.0 (8,196)	2.4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신뢰 = 4점, 어느 정도 신뢰 = 3점, 별로 신뢰하지 않음 = 2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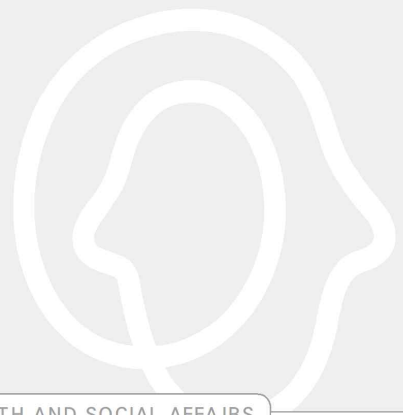
<표 10-69> 사회 영역별 신뢰수준: 정부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계 (명)	평균 ²⁾
전체 ¹⁾	3.2	44.0	39.6	13.3	100.0 (9,955)	2.4
지역						
동부	3.2	44.5	39.9	12.4	100.0 (7,359)	2.4
읍·면부	3.1	42.4	38.7	15.9	100.0 (2,596)	2.3
성						
남자	3.2	41.6	42.0	13.2	100.0 (4,384)	2.3
여자	3.2	45.8	37.7	13.3	100.0 (5,571)	2.4
연령						
65~69세	2.4	40.8	42.2	14.6	100.0 (3,465)	2.3
70~74세	3.0	42.9	40.7	13.4	100.0 (2,362)	2.4
75~79세	3.7	45.4	38.1	12.8	100.0 (1,729)	2.4
80~84세	3.4	46.6	38.7	11.3	100.0 (1,379)	2.4
85~89세	3.3	50.9	32.4	13.4	100.0 (781)	2.4
90세 이상	10.8	53.1	30.1	6.0	100.0 (239)	2.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8	43.3	41.0	12.9	100.0 (5,987)	2.4
배우자 없음	3.7	45.0	37.4	13.8	100.0 (3,968)	2.4
가구형태						
노인독거	3.6	44.5	37.1	14.8	100.0 (3,281)	2.4
노인부부	2.8	43.4	40.9	13.0	100.0 (5,509)	2.4
자녀동거	4.0	45.1	41.0	9.9	100.0 (993)	2.4
기타	3.3	45.7	37.3	13.7	100.0 (172)	2.4
교육수준						
무학	5.1	45.3	35.2	14.4	100.0 (1,184)	2.4
초등학교	2.9	46.3	38.5	12.3	100.0 (2,810)	2.4
중학교	3.1	42.4	41.9	12.6	100.0 (2,127)	2.4
고등학교	2.7	42.8	39.8	14.8	100.0 (3,132)	2.3
전문대학 이상	3.5	42.5	43.3	10.7	100.0 (701)	2.4
현 취업상태						
취업중	2.7	41.4	41.2	14.7	100.0 (3,926)	2.3
미취업	3.5	45.7	38.5	12.3	100.0 (6,029)	2.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6	47.4	36.5	12.5	100.0 (1,989)	2.4
제2오분위	3.0	44.6	38.2	14.1	100.0 (1,983)	2.4
제3오분위	3.7	46.1	37.4	12.8	100.0 (1,981)	2.4
제4오분위	2.9	40.4	43.8	12.9	100.0 (2,007)	2.3
제5오분위	2.6	41.4	42.0	14.0	100.0 (1,995)	2.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6	45.3	37.6	13.5	100.0 (3,722)	2.4
50%이상~100%미만	3.3	45.5	39.3	11.8	100.0 (2,759)	2.4
100%이상~150%미만	2.6	40.9	41.8	14.7	100.0 (1,657)	2.3
150%이상	2.6	41.7	42.0	13.7	100.0 (1,817)	2.3
기능상태						
제한 있음	4.3	45.3	39.6	10.8	100.0 (1,759)	2.4
제한 없음	2.9	43.7	39.6	13.8	100.0 (8,196)	2.4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매우 신뢰 = 4점, 어느 정도 신뢰 = 3점, 별로 신뢰하지 않음 = 2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 = 1점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제11장

결론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2절 건강과 기능상태

제3절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제4절 경제상태

제5절 경제 및 사회활동

제6절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제 11 장 결론

2023년 노인실태조사는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1958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베이비붐 세대(1953년~1963년 출생자) 중 1955~1958년 출생자(만 65~68세)가 2023년 노인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초고령 인구 비율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23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처음으로 연령 구간 상한을 85세 이상에서 9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의 연령 구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구형태의 변화, 거주지역의 변화, 건강상태나 경제활동 등의 변화들이 어떠한 방향과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이번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2008년 이후 노인실태조사 결과들과 비교하여 노년기를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서의 가치관, 행태, 욕구, 인식 등에 있어 어떠한 변화와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2008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주기로 실시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남자 노인 비율은 증가하고 여자 노인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남자 노인 비율은 40.2%에서 2023년 43.9%로 성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령분포를 보면, 65~69세 인구 비율의 증가와 80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70대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65~69세 인구 비율은 '11년 29.8%에서 '23년 34.5%로 증가하였으며, 8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1년 17.3%에서 '23년 24.7%로 증가하였다. 연도별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08년 72.9세에서 '14년 73.9세, '23년 74.1세로 증가하였다.

[그림 11-1] 연령대 변화(2008~2023년)

(단위: %, 세)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비율이 감소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은 '08년 10.5%에서 '23년 31.2%로 증가하고, 중학교 졸업자 비율도 '08년 11.8%에서 '23년 21.2%로 높아졌다. 이러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노인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학(12.3%)과 초등학교 졸업(28.2%)인 노인 비율이 적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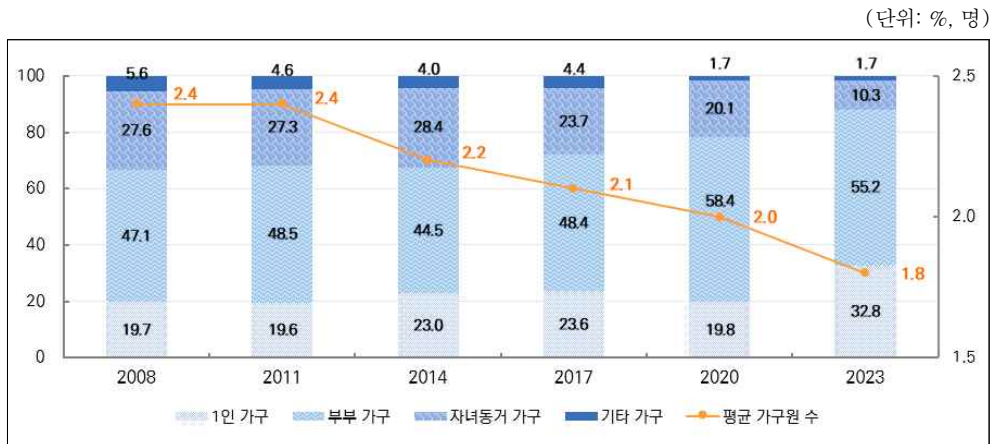
[그림 11-2] 교육수준 변화(2008~2023년)

(단위: %)



가구형태와 관련해서는 독거가구의 급증('20년 19.8% → '23년 32.8%)과 자녀동거 가구 비율('20년 20.1% → '23년 10.3%)의 급감이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의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약 90%가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거주하였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독거가구 및 자녀동거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부부가구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기존 노인실태조사 결과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2020년과 2023년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구간(5세 단위)에서 독거가구 비율은 약 10% 증가하고, 자녀동거가구 비율은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3] 가구형태 변화(2008~2023년)



제2절 건강과 기능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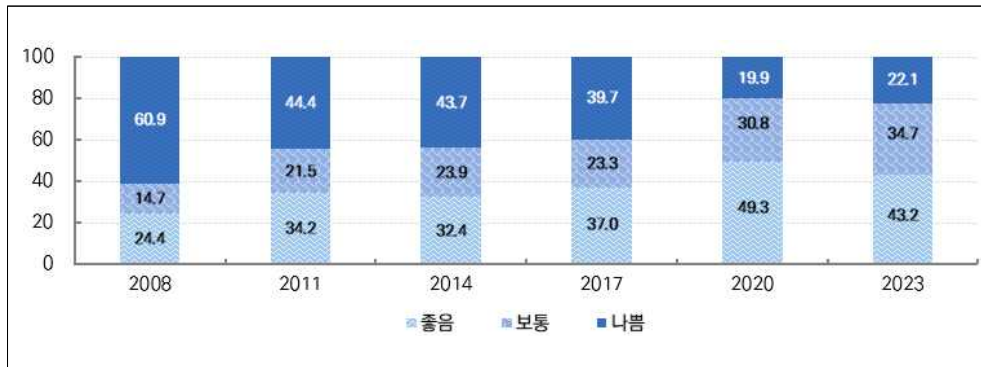
1. 건강상태

노인의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우울증상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023년 조사 결과, 평소 자신의 건강을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2.7%, 건강한 편이다 40.5%, 보통이다 34.7%,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9.5%, 전혀 건강하지 않다 2.6%였다.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24.4%에서 2023년 43.2%로 나타났다(2020년 49.3% 제

외), 이에 반해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2008년 60.9%에서 2023년 22.1%로 감소하였다.

[그림 11-4]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2008~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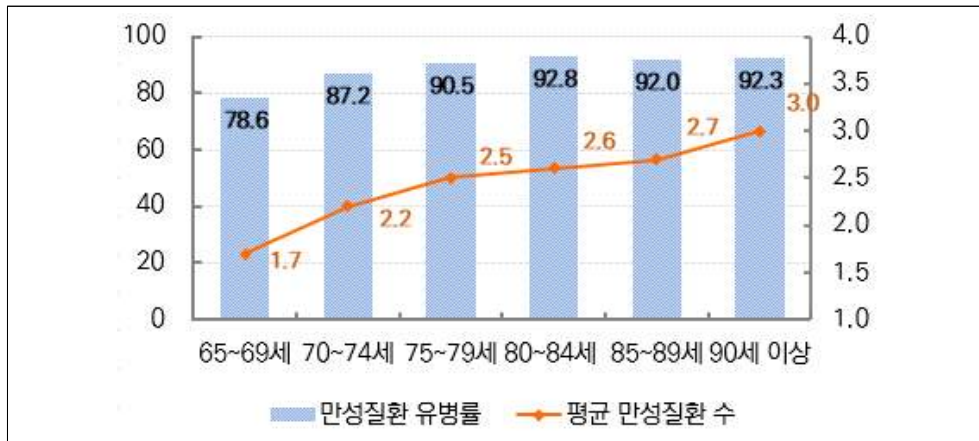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전체 노인의 86.1%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질환 1개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22.1%, 2개 28.0%, 3개 이상인 노인은 35.9%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하였으며, 65~69세 노인의 평균 만성질환 개수는 1.7개인 반면 90세 이상 노인의 경우 평균 3.0개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1개 이상인 노인의 비율은 2011년, 2014년, 2017년 조사에서 약 89%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0년과 2023년 조사에서는 80% 중반대('20년 84.0%, '23년 86.1%)로 감소하였다.

노인의 보건의료 이용 현황을 보면, 2023년 조사 결과 지난 1개월간 보건의료 기관 이용률은 68.8%였으며, 의사 처방약 복용률은 16.2%로 우리나라 노인은 평균 2.0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요양병원 입원율은 0.2%(평균 1.2회, 평균 입원 일수 36.0일)였으며, 지난 1년간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입원율은 5.2%(평균 1.3회, 평균 입원 일수 17.3일)로 조사되었다.

진료가 필요했지만 병의원 진료를 받지 못한 비율은 1.8%,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한 비율은 3.4%로 나타났으며, 병의원 미진료 이유는 경제적 이유 32.3%, 거동불편(동행할 가족 없음) 26.4% 등인 반면, 치과 미진료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62.4%로 월등히 높았다.

[그림 11-5] 연령대별 만성질환 유병률 및 평균 만성질환 개수(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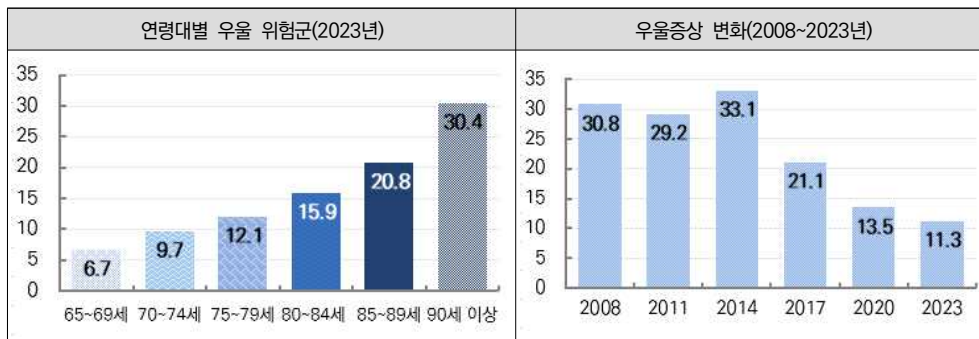
(단위: %, 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11.3%가 우울증상을 보였으며, 남자 노인보다는 여자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이 높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우울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상이 있는 노인은 2008년 30.8%에서 2014년 33.1%까지 증가한 이후 2020년 13.5%, 2023년 11.5%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6] 우울증상

(단위: %)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노인은 1.0%였으며, 남자 노인보다는 여자 노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65~69세 0.7% → 85~89세 1.4%, 90세 이상 3.9%), 동

부 거주 노인보다는 읍·면부 거주 노인에서 자살생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로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이 47.8%, 외로움 23.3%, 경제적 어려움 9.3%, 배우자·가족·지인의 사망 6.2%,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 5.9%, 돌봄 부담 4.5% 등이었다.

2. 건강행태

노인의 건강행태는 흡연, 음주, 운동, 영양 상태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2023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 응답 노인의 9.4%가 현재 흡연자이며, 과거에는 흡연을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28.1%, 평생 흡연한 적이 없다는 62.5%로 조사되었다. 음주율의 경우, 지난 1년간 음주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이며, 과음주 비율은 7.8%로 2020년 6.3%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흡연율은 '08년 조사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율은 '20년과 '23년 조사에서 3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운동 실천율은 2017년 이후 감소 추세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1-7] 음주율 및 운동 실천율 변화(2008~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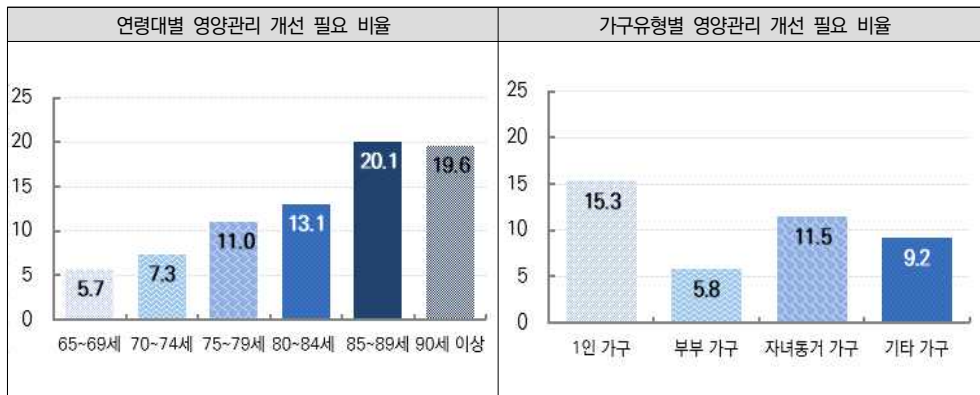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65.0%는 영양관리 상태가 양호한 수준이고, 영양관리 주의가 필요한 비율은 25.4%, 나머지 9.6%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영양관리 개선이 요구되는 집단은 남자 노인보다는 여

자 노인, 연령대가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집단, 노인 독거가구와 자녀동거가구,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1-8] 영양관리 상태(2023년)

(단위: %)



노인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2008년 72.9%에서 2014년 83.9%까지 증가하였으나, 2020년 이후 77.7%로 감소하였으며, 치매 검진율은 2020년 42.7%에서 2023년 35.9%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69세의 치매 검진율이 25.1%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11-9] 건강검진 및 치매 검진율 변화(2008~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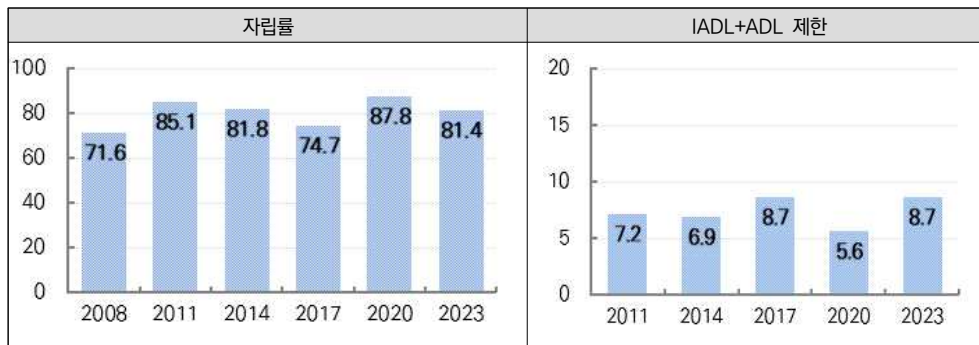


3. 기능상태 및 돌봄 현황

노인의 신체적 기능상태는 ADL 7개 항목과 IADL 10개 항목을 토대로 파악하였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81.4%는 기능상태의 제한이 없는 완전자립 상태이며, IADL만 제한이 있는 노인은 9.8%, ADL 제한까지 있는 노인은 8.7%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일상생활 수행의 자립도는 낮아지며, 특히 85세 이상의 경우, 완전자립률은 급격히 낮아졌다.

[그림 11-10] 일상생활수행능력 변화(2008~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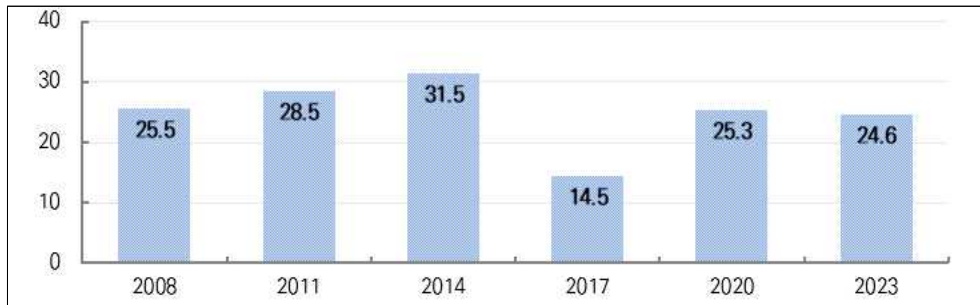
(단위: %)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 2판(K-MMSE~2) 표준형 사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인지기능을 측정하였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인지저하자는 전체 노인의 24.6%로 2020년 25.3%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90세 이상 노인의 32.4%가 인지저하자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80~84세 29.5%, 85~89세 25.1%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가구형태의 경우 독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인지저하율이 27.7%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동거가구 24.4%, 부부가구 23.2%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1-11] 인지기능 저하 비율 변화(2008~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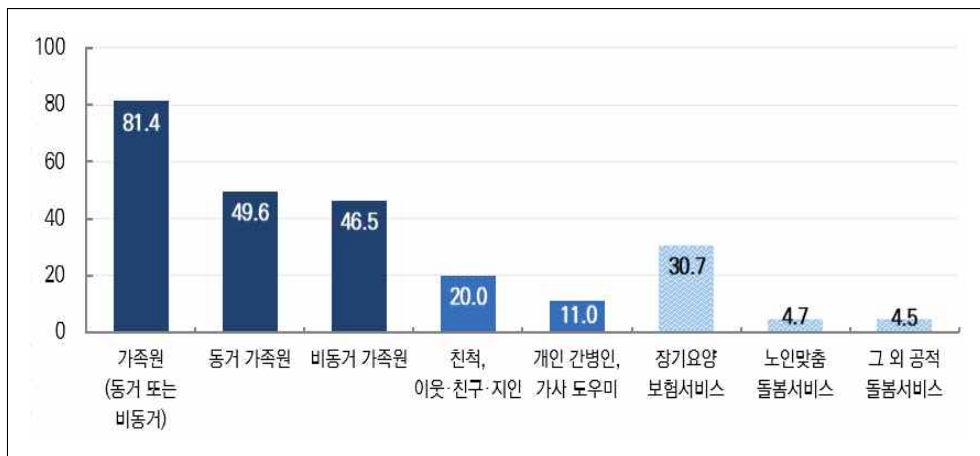


주: 연도별 인지기능 측정 도구의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는 유의가 필요함(2008년 및 2011년 MMSE-KC, 2014년, 2017년, 2020년 MMSE-DS, 2023년 K-MMSE-2).

신체기능 저하자(IADL 또는 ADL 항목 중에서 1개 이상의 부분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 중 47.2%가 돌봄을 받고 있으며, 이 중 81.4%는 동거 및 비동거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 친척·이웃·친구·지인 20.0%, 개인간병인·가사도우미 1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7%, 그 외 공적 돌봄서비스 4.5%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거가족에 의한 돌봄은 감소하고, 비동거가족과 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같은 공적 돌봄서비스에 의한 돌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1-12] 돌봄 제공자(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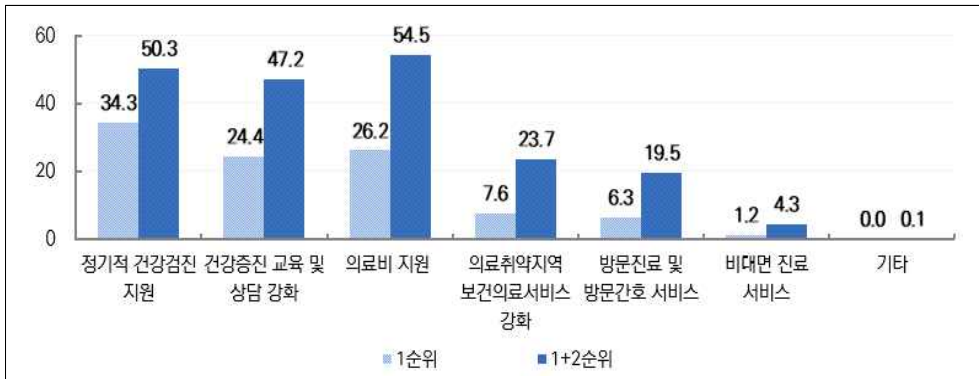
현재 받고 있는 돌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응답으로 충분(매우 충분+충분) 49.4%, 보통은 32.2%, 부족하다(부족+매우 부족)는 18.3%로 나타났으며, 부족하다고 응답한 노인의 특성은 읍·면부 거주, 여자 노인, 80세 이상, 1인 가구,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 등이었다.

4. 정책적 욕구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1순위의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34.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순위와 2순위의 결과를 합할 경우, 의료비 지원(54.5%)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의료비 지원 54.5%,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건강검진 주기, 건강검진 항목 등 강화)이 50.3%,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47.2%,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23.7%,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19.5%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1-13]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항(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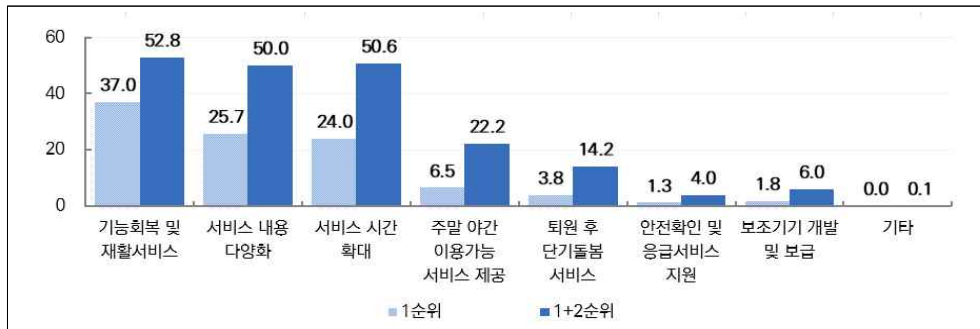


노년기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노인들의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기능재활 및 재활서비스,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서비스 이용시간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에 대한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퇴원 후 단기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기능회복훈련이나 재활서비스에 대한 요구

가 가장 컸으며,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와 ‘서비스 이용 시간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14] 노인돌봄서비스 개선사항(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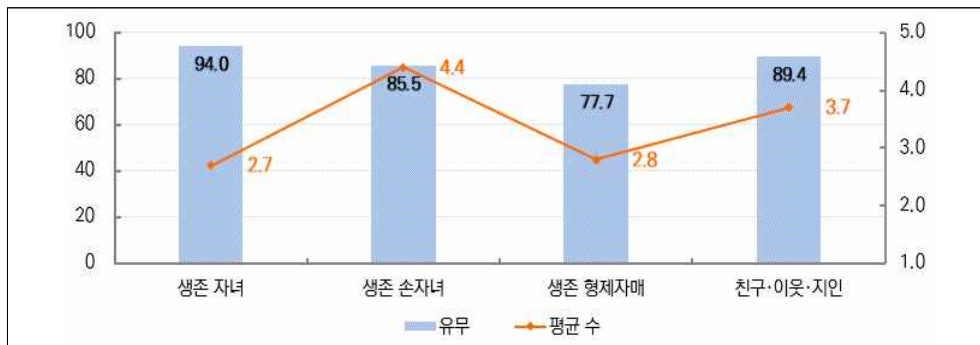
제3절 가족 및 사회적 관계

1. 관계 규모 및 교류 실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94.0%가 평균 2.7명의 자녀가 있으며, 노인의 85.5%는 평균 4.4명의 손자녀가 있으며, 노인의 77.7%는 형제자매(평균 2.8명)가 있으며, 친구·이웃·지인이 있는 비율은 89.4%(평균 3.7명)로 나타났다.

[그림 11-15] 혈연 및 비혈연 관계 유무 및 규모(2023년)

(단위: %, 명)



노인의 자녀 수 및 손자녀 수는 시계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생존 자녀가 있는 비율은 '08년 98.2%에서 '23년 94.0%로 감소했으며, 생존 자녀 수는 '08년 4.0명에서 '23년 2.7명으로 감소하고, 2020년 조사 이후 비혈연 관계인 친구, 이웃, 지인 등과의 비혈연 관계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생존자녀가 없는 노인은 6.0%이며, 생존자녀가 있어도 연락 가능한 자녀가 없는 노인은 3.2%로 노인의 약 9%는 생존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16] 생존 자녀 유무 및 규모 변화(2008~2023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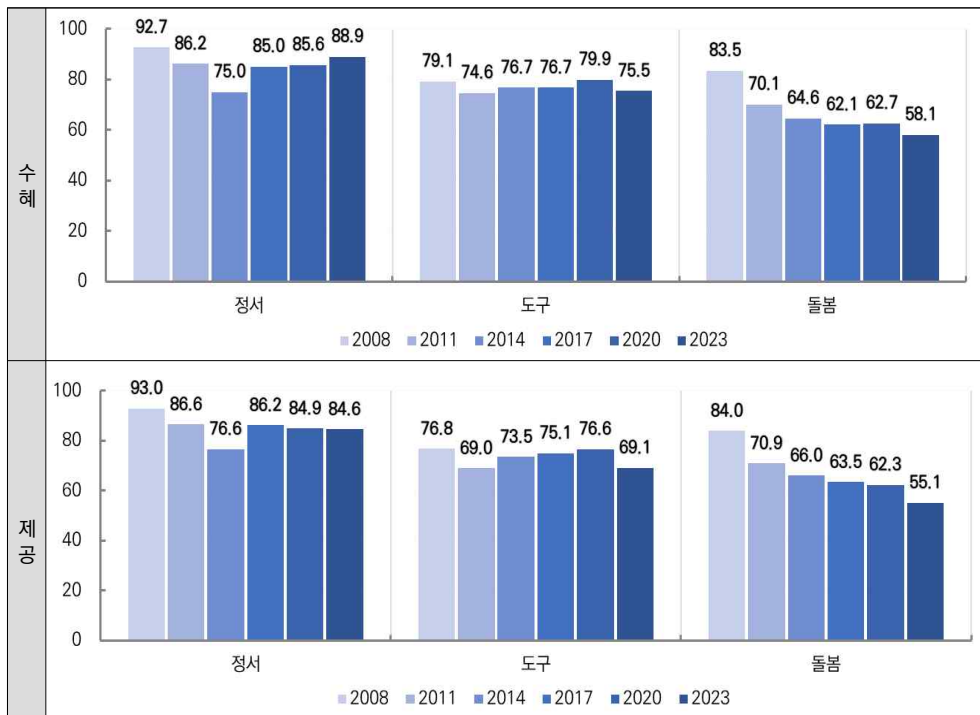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사회적지지 또는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및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질문하였다.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율은 92.0%(평균 2.5명),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율은 85.2%(평균 2.1명),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율은 63.0%(평균 1.8명)로 분석되었다. 이와 반대로 어떠한 상황에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노인은 6.6%로 나타났다. 나머지 93.4%의 사회적지지 규모는 평균 5.6명이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비율(65~69세 4.6% → 85세 이상 13.0%)은 증가하였다.

2. 노인의 부양 교환

배우자가 있는 노인(60.0%)의 88.9%는 정서적 지원을 배우자로부터 받고, 84.6%는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약 10%는 정서적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 식사 준비 등 도구적 지원의 경우, 수혜율은 75.5%, 제공률은 69.1%였으며, 간병이나 돌봄과 같은 신체적 지원의 수혜율은 58.1%, 제공률은 55.1%로 배우자 간 수혜-제공 비율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지원과 신체적 지원은 배우자 간 수혜-제공 간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며, 남자 노인은 배우자로부터 수혜를 받는 비율이 여자 노인에 비해 높았다.

[그림 11-17] 배우자와의 부양 교환 변화(2008~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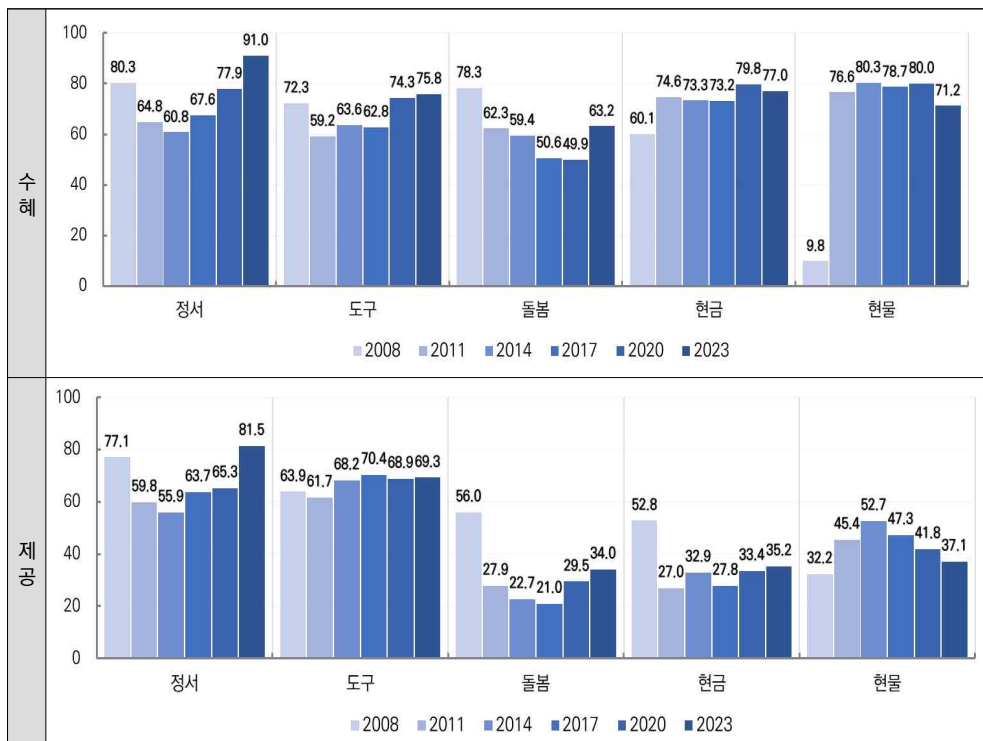


동거 자녀가 있는 노인(10.2%)의 91.0%는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81.5%는 동거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 식사준비, 청소 등 도구적 지원 교환은 수혜율 75.8%, 제공률 69.3%이며, 돌봄이나 병원동행 등의 신체적 지원 교환은 수혜율 63.2%, 제공률 34.0%로 신체적 지원의 경우 수혜율이 높았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현금과 현물 모두 노인이 동거 자녀에게 받는 비율(현금 77.0%, 현물 71.2%)이 주는 비율(현금 35.2%, 현물 37.1%)보다 2배가량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1-18] 동거 자녀와의 부양 교환 변화(2008~2023년)

(단위: %)



주: 1) 2008~2020년에는 현금 지원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2023년에는 통합하여 조사함.
2) 2008~2020년의 현금 지원 비율은 '비정기적 현금 지원', 2023년은 '정기 및 비정기적 현금 지원'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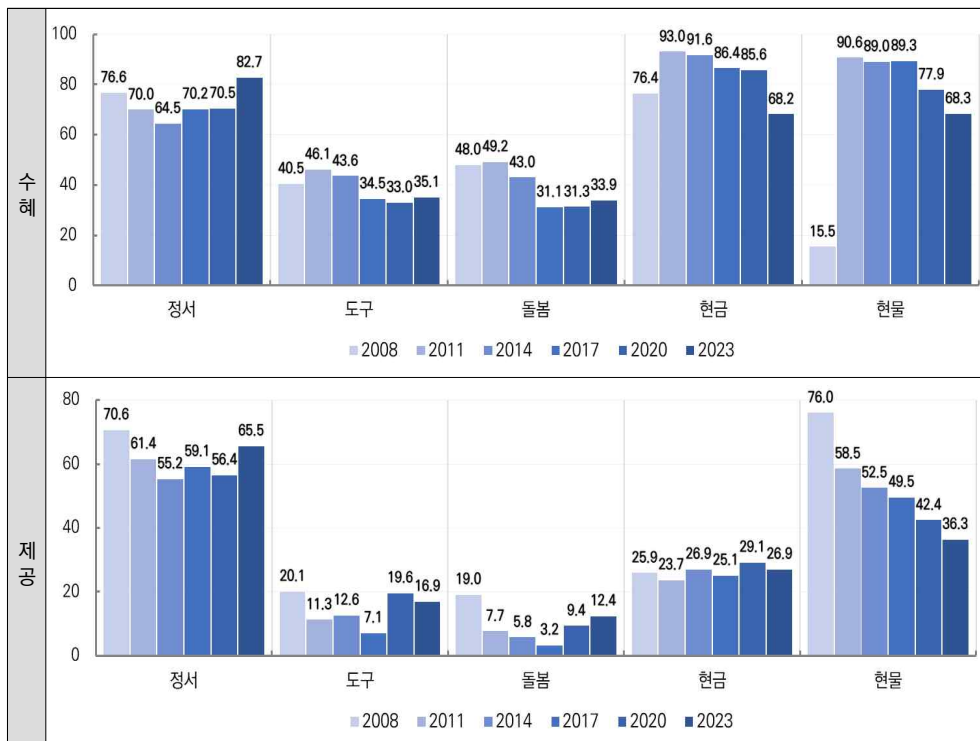
비동거 자녀가 있는 노인(91.9%)의 82.7%는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65.5%는 비동거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 식사준비, 청소 등 도구적 지원 교환은 수혜율 35.1%, 제공률 16.9%이며, 돌봄이나

병원 동행 등의 신체적 지원 교환은 수혜율 33.9%, 제공률 12.4%로 신체적 지원의 경우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현금과 현물 모두 노인이 동거 자녀에게 받는 비율(현금 68.2%, 현물 68.3%)이 주는 비율(현금 26.9%, 현물 36.3%)보다 2배가량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노인과 비동거 자녀 간의 부양 교환 현황을 보면, 노인이 비동거 자녀로부터 정서적, 도구적, 돌봄적,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으며, 정서적 지원 이외의 도구적, 돌봄, 경제적 지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노인이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정서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현금 지원은 25% 내외를 유지하는 반면 현물 지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19]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 교환 변화(2008~2023년)

(단위: %)



주: 1) 2008~2020년에는 현금 지원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2023년에는 통합하여 조사함.
 2) 2008~2020년의 현금 지원 비율은 '비정기적 현금 지원', 2023년은 '정기 및 비정기적 현금 지원' 비율임.

제4절 경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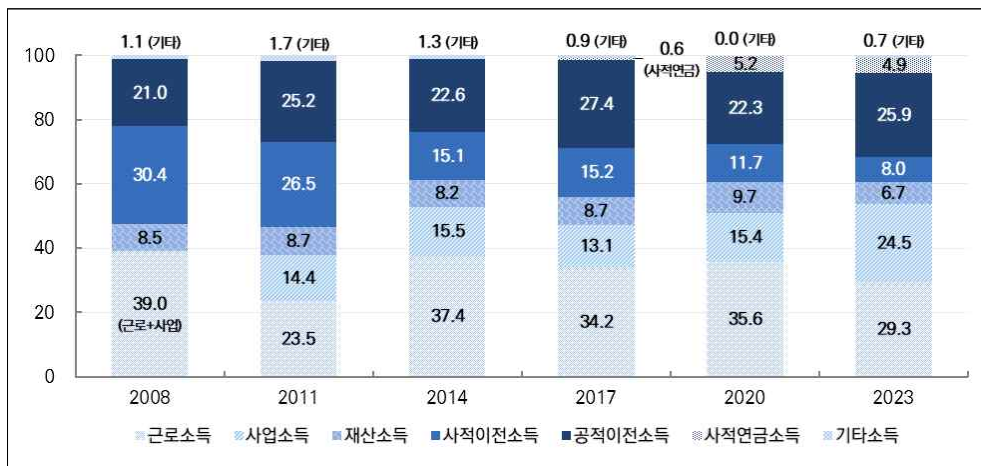
1. 가구소득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가구의 연 총소득(2022년 기준 응답)은 3,468.6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총소득 중 근로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29.3%, 1,015.9만 원),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25.9%, 897.1만 원), 사업소득(24.5%, 849.8만 원), 사적이전소득(8.0%, 231.2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소득의 소득원별 보유 유무를 보면, 공적이전소득 91.7%, 사적이전소득 81.2%, 근로소득 39.7%, 사업소득 30.2%, 재산소득 16.7%, 사적연금소득 13.4%, 그리고 기타소득 8.5%였다. 2008년부터의 노인가구의 총소득 변화를 보면, 2008년 1,688만 원에서 2011년 2,161만 원, 2014년 2,305만 원, 2017년 2,590만 원, 2020년 3,027만 원, 2024년 3,469만 원으로 2008년 조사 이후 노인이 속한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1-20] 가구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구성 비율(2008~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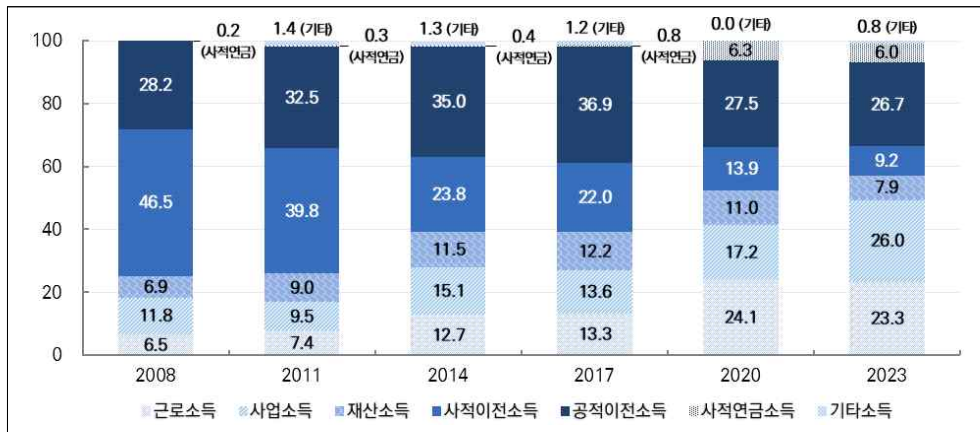


2. 개인소득

2022년 기준으로 노인의 연간 개인 총소득은 2,163.7만 원으로 공적이전소득 578.3만 원, 사업소득 562.8만 원, 근로소득 504.3만 원, 사적이전소득 199.8만 원, 재산소득 170.9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천별 보유율이 가장 높은 소득원은 공적이전소득으로 87.2%이며, 다음으로 사적이전소득 78.8% 근로소득 28.2%, 사업소득 23.1%, 재산소득 13.8% 등이었다, 연간 개인 총소득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득원은 공적이전소득(26.7%)이며, 다음으로 사업소득(26.0%), 근로소득(23.3%), 사적이전소득(9.2%) 등으로 2008년 이후 경제활동을 통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사적이전소득이 개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21] 개인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구성 비율(2008~2023년)

(단위: %)



3. 가구소비

2022년 기준으로 가구 소비 지출액은 월평균 162.3만 원으로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과 남자 노인, 유배우 노인, 취업 노인에게서 소비지출액이 더 많았으며, 가구소득별로 중위소득 150% 이상 노인의 경우는 가구 소비 지출액이 221.7만 원인 반면, 중위소득 50% 미만의 경우는 119.0만 원으로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노인가구가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으로는 식비가 4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주거 관련비 25.7%, 보건의료비 8.3%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부터 식비 부담 비율이 높아지고 보건의료비에 대한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제5절 경제 및 사회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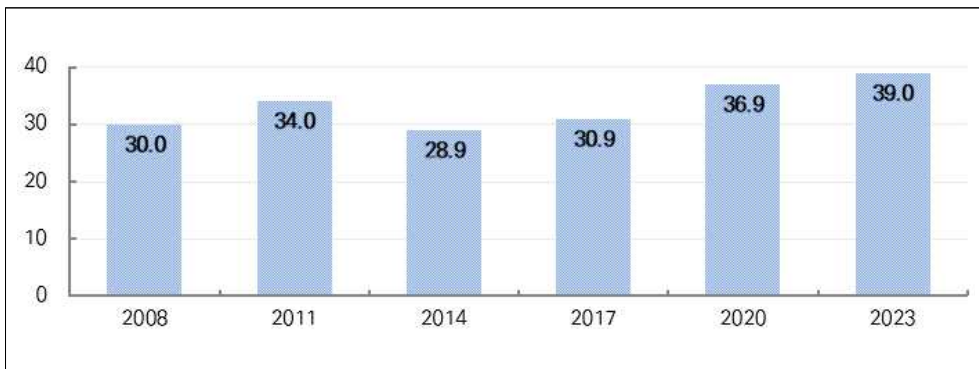
1. 경제활동 참여 현황

65세 이상 노인의 39.0%는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7.1%는 과거 일을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13.9%는 평생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5~69세 연령군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9.4%, 70~74세 38.9%, 75~79세 29.0%, 80~84세 21.9%, 85~89세 14.1%, 그리고 90세 이상 5.9%였다. 2008년 조사 이후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면, 2008년 30.0%에서 2014년 28.9%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 39.0%까지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이 일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77.9%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용돈 마련 6.9%, 건강유지 6.2%, 능력(경력) 발휘 3.6%, 시간보내기 3.1%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1-22] 경제활동 참여율(2008~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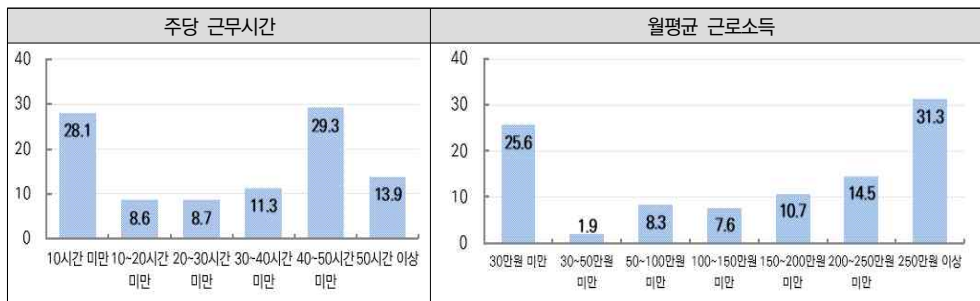


노인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2023년 기준으로 단순노무 종사자 33.0%, 농림 어업숙련종사자가 20.3%, 서비스종사자 14.4%, 판매종사자 12.5%, 기능원 및 관련 직종 7.0%, 관리자 5.6% 등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서비스 종사자와 기능원 비율이 증가하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종사상 지위는 2023년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3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임시근로자 22.2%, 상용근로자 17.2%, 일용근로자 7.9%, 무급가족종사자 8.3% 등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무시간은 40~50시간 미만 근무한다는 노인이 29.3%로 가장 많으며, 주 10시간 미만 28.1%, 50시간 이상 13.9%, 30~40시간 미만 11.3%, 20~30시간 미만 8.7%, 10~20시간 미만 8.6% 등이었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250만 원 이상이 3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만 원 미만 25.6%, 200~250만 원 미만 14.5%, 50~100만 원 미만 8.3%, 100~150만 원 미만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23] 근로조건(2023년)

(단위: %)



2. 경제활동 참여 욕구

앞으로 일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의 41.9%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58.1%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64.2%였으며, 건강 유지 13.4%, 용돈 필요 9.2% 등으로 응답하였다.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에게 희망 근로조건을 질문한 결과, 주당 희망하는 근로일수는 주 5일이 61.0%로 가장 높았고, 주 3일이 20.8%, 주 4일 7.5%, 주 6일

7.4% 등의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 3일 이하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40~50시간 미만인 28.5%로 가장 높으며, 10시간 미만 23.6%, 30~40시간 미만인 19.1%, 20~30시간 미만 13.1%, 10~20시간 미만 12.1%, 50시간 이상 3.7%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당 20시간 미만 근무를 선호하였다.

향후 희망하는 월평균 근로소득은 평균 188.2만 원으로 50만 원 미만인 12.0%, 50~100만 원 미만 14.6%, 100~150만 원 미만 12.9%, 150~200만 원 미만 10.5%, 그리고 200~250만 원 미만 17.3%, 250만 원 이상 32.7%를 차지하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50만 원 미만을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150만 원 이상 비율이 증가하였다.

3. 사회활동 참여 현황

노인의 81.3%는 여가활동(TV·유튜브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제외)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가활동 참여율은 감소하며, 휴식 활동(산책, 음악감상 등) 중심의 여가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24.2%,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21.3%, 시간이 없어서 18.3%, 건강이 좋지 않아서 14.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학습활동 참여율은 13.3%이며, 참여 노인은 월평균 5.3회, 7.4시간을 교육 및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고 있는 교육 내용은 스포츠 교육 37.4%, 건강 및 노화이해 교육 30.5%, 문화예술 교육 26.8%, 정보화 교육 11.7%, 노인복지정책 교육 8.5%, 경제교육 7.0% 등의 순이었다. 노인이 이용하는 교육기관을 보면, 시·군·구·읍·면·동(29.8%), 노인복지관(28.1%), 경로당(21.0%), 평생교육센터(14.2%), 민간 문화교육기관(9.8%), 종교기관(5.0%) 등이며, 26.7%는 온라인 강의 등의 매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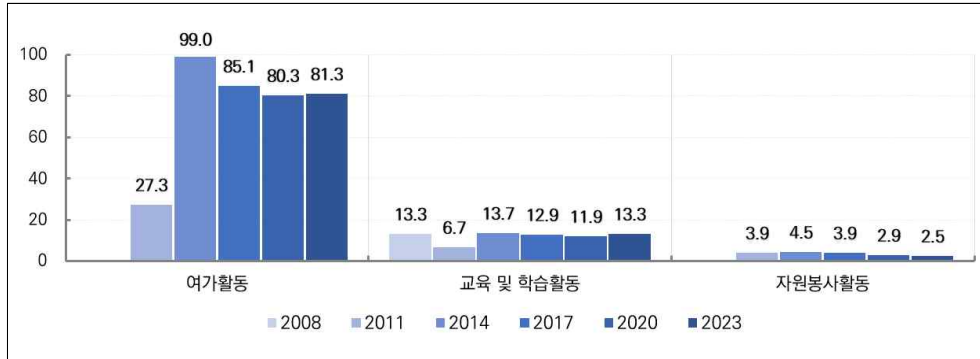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5%로 월평균 2.2회, 4.6시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원봉사활동의 숙련도 수준을 살펴보면, 단순노력봉사의 비율이 88.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취미(교육) 등으로 습득한 지식/기술 활용(전문자원봉사) 8.1%, 직업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 활용(전문자원봉사) 3.0% 순이었다.

2008년 이후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율은 8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 및 학습

활동 참여율은 10% 초반, 자원봉사 참여율은 4%대에서 2%대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1-24] 여가활동, 교육 및 학습활동,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변화(2008~2023년)

(단위: %)



앞으로 희망하는 사회활동을 보면, 친목활동의 비율이 46.2%로 가장 높으며, 여행 및 관광활동 44.6%, 취미활동 38.6%, 종교활동 28.6%, 자원봉사활동 12.6%, 동호회 활동 12.3%, 교육 및 학습활동 10.6%, 정치사회활동 4.7%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25] 희망하는 사회활동(2014~2023년)

(단위: %)



4. 정보화 실태

노인의 스마트 기기 보유 및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경우 보유율은 76.6%, 사용율은 68.1%였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유율과 사용률 모두 감소

하였다 (65~69세 사용률 90.6% → 90세 이상 19.6%). 컴퓨터의 경우 보유율은 20.6%, 사용율은 13.1%이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유율과 사용률 모두 감소하는(65~69세 사용률 23.3% → 90세 이상 1.8%) 경향을 보였다. 스마트 워치의 경우, 보유율은 2.1%, 사용율은 1.9%로 낮은 수준이었다.

스마트 기기 활용도를 보면, 메시지 받기(83.6%), 메시지 보내기(74.7%), 사진·동영상 촬영(52.7%), 정보검색 및 조회(51.1%), 동영상 보기(44.2%), 영상 통화(44.2%), 음악 듣기(26.7%), 금융거래(20.2%), 키오스크 활용 주문 및 접수(17.9%), 게임(15.0%), 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13.4%), 전자상거래(12.0%), SNS 이용(8.6%) 등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의 스마트 기기 활용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메시지를 받고 보내는 기능 이외의 스마트 기기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노인의 67.2%는 정보화 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65~69세 52.2% → 90세 이상 87.6%).

제6절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1. 주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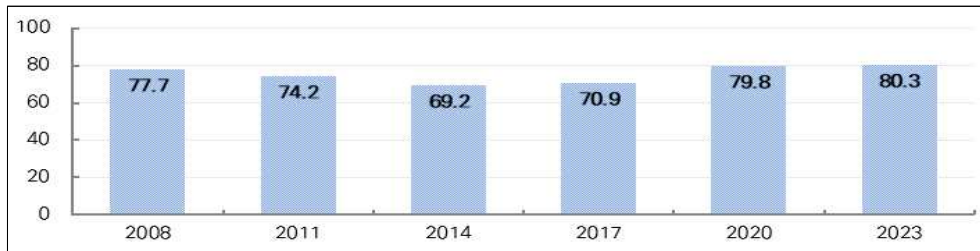
노인의 44.8%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38.6%, 연립·다세대 주택 16.1%, 기타 0.5%로 읍·면부 거주 노인은 단독주택(78.0%), 동부 거주 노인은 아파트(54.4%) 거주 비율이 높았다. 주거점유 형태를 보면, 자가 80.3%, 전세 9.0%, 보증금이 있는 월세 7.1%, 보증금 없는 월세 0.5%, 무상 3.2%로 2014년 자가 점유율이 69.2%로 낮아진 이후 2017년 70.9%, 2020년 79.8%, 2023년 80.3%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거환경이 불편한 구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은 9.4%, 주거환경이 불편하지는 않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없는 비율은 62.1%,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있는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노인 비율은 28.5%로 나타났으며, 읍·면부 거주 노인, 연령대가 높을수

록, 배우자가 없는 노인, 독거가구 등에서 불편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26] 자가 점유율(2008~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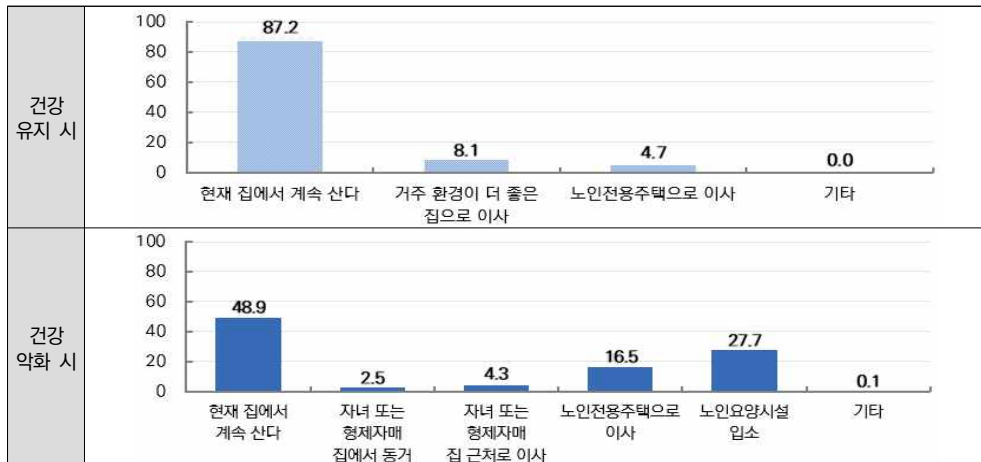


건강을 유지하면서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은 87.2%이었으며,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92.2%가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사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에 반해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8.1%, 식사나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전용주택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노인 비율은 4.7%였다.

건강 악화 시에도 현재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은 48.9%였으며, 읍·면부 거주 노인의 52.5%,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65~69세 47.1% → 90세 이상 52.9%)도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겠다는 응답이 27.7%,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노인전용주택으로 이사 16.5%, 자녀 또는 형제자매 집 근처로 이사 4.3%, 자녀 또는 형제자매 집에서 동거 2.5%로 나타났다.

[그림 11-27] 희망 거주 형태(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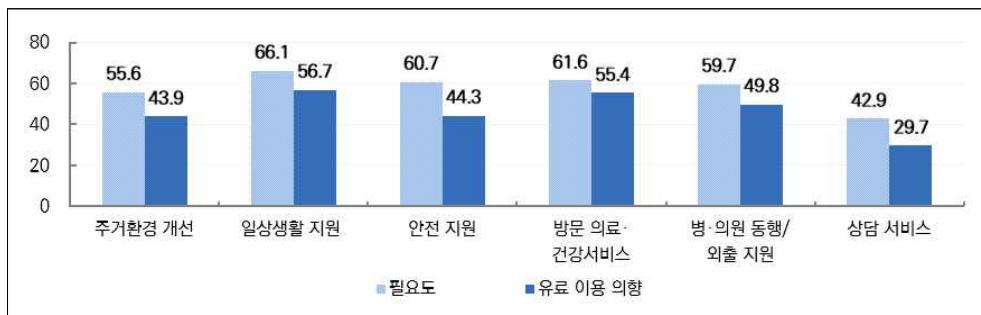
(단위: %)



건강이 악화되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지역사회에 오래 거주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서비스로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사, 간병, 목욕 등) 66.1%, 방문의료 및 건강서비스 61.6%, 안전 지원(안부 확인, 응급상황에 대응 등) 60.7%, 병의원 동행 및 외출 지원 59.7%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28] 서비스 필요도 및 유료 이용 의향(2023년)

(단위: %)



2. 이동 및 교통

평소 노인이 주로 교통수단은 버스 48.1%, 자가용 28.2%, 지하철 13.1%, 택시 6.9% 등이었으며, 지하철의 이용률은 동부 거주 노인 17.6%, 읍·면부 거주 노인 0.4%

였으며, 자가용은 동부 거주 노인 24.9%, 읍·면부 거주 노인 37.5%로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외출 시 불편한 점으로는 버스나 전철 타고 내리기(15.4%),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17.4%), 교통수단 부족(9.1%) 등이었으며, 43.4%는 특별히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응답 노인의 26.2%는 운전을 하고 있으며, 운전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 비율은 19.7%, 평생 한 적 없는 비율은 54.0%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운전 비율이 높아 65~69세의 48.4%, 80~84세의 5.4%, 85세~89세는 2.0%만이 운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운전을 하고 있는 노인 비율은 2008년 10.1%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16.1%, 2020년 21.9%, 2023년 26.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운전을 그만둔 노인의 경우 운전을 그만둔 평균 연령은 2008년 57.3세, 2014년 59.7세, 2020년 65.8세, 2023년 66.8세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3. 학대 및 연령차별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1개 유형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노인은 전체의 5.9%로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 85~89세 노인(9.0%),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10.1%)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대 시 대응 방법의 경우, 그냥 참음 90.1%, 주변에 도움 요청 7.0%, 112에 신고 2.4%,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1.8%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노인학대 경험 비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2008년 10.2%, 2011년 12.7%, 2014년 9.9%, 2017년 9.8%, 2020년 7.3%, 2023년 5.9%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학대 유형별 경험률을 보면,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학대 4.4%,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학대 0.4%, 성폭력 또는 성추행 0.5%,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 0.4%, 일상생활,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경험 시 도움을 받지 못함(방임) 0.9%, 어렵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돌봄을 거부(자기방임) 0.7%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교통사고는 1.5%, 운전자 교통사고 1.5%, 화재, 가스, 누수 등 사고 비율 0.5%, 사기성 물건 구매가 4.4%로 가장 높으며,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금전피해 2.1%, 재산범죄 0.5%, 폭력 및 강력범죄 0.3%, 그리고 자연재해를 경험한 노인은 1.1%로 나타났다.

4. 웰다잉(well-dying) 인식과 실천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임종 전후의 상황을 스스로 정리한 이후 임종을 맞이하거나(85.8%)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85.4%),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84.7%)을 좋은 죽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임종 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 함께 하는 것(76.8%),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53.9%)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죽음 준비 실태를 보면, ‘수의 또는 영정사진 준비’가 29.3%이며, ‘장지 선택’ 20.8%, ‘장례 상담 및 상조회 가입’ 17.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1.1%, ‘가족과 상속처리 및 장례 의향 논의’ 10.5%, ‘죽음 준비교육 수강’ 4.2%, ‘장기기증서약’ 4.5%, ‘유서 작성’ 4.6%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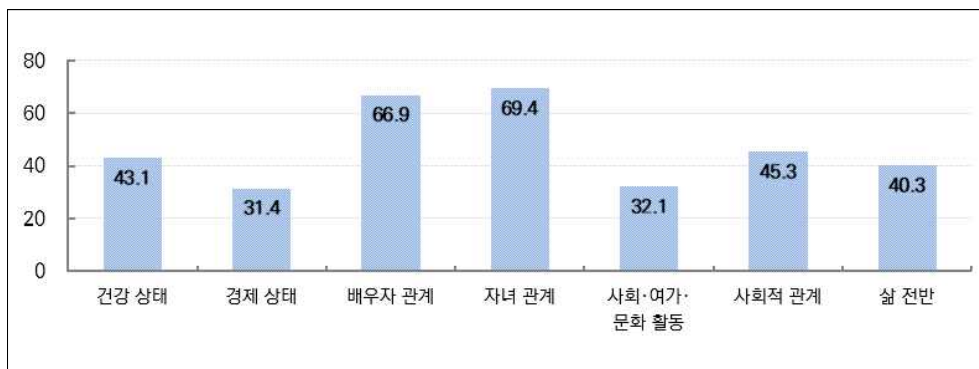
희망하는 장사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 38.0%, ‘화장 후 자연장’ 23.1%, ‘화장 후 산분장’ 13.1%, ‘매장’ 6.1%, ‘아직 생각해 보지 않음’ 19.6%로 조사되었다.

5. 삶의 만족

2020년에 비해 삶의 영역별 및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낮아져 노인의 40.3%만이 삶의 전반에 걸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8.7%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배우자와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경제상태 만족도와 사회·여가·문화 활동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1-29] 삶의 만족도(만족+매우 만족, 2023년)

(단위: %)



6. 정책 인지도 및 욕구

현재 추진 중인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노인의 인지도(잘 알고 있다)를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44.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5.5%,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2.4%, 노인보호전문기관 14.6%였으며, 치매 관련 정책에서는 치매조기검진사업 38.9%, 치매안심센터 31.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23.4%, 성년후견제도 10.3%로 나타났다. 그 외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사업 16.3%, 주택연금 33.3%, 농지연금 12.9%였다.

노인복지정책 중 향후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정책(1+2순위)으로는 노인빈곤완화가 57.1%, 노인보건의료서비스 47.8%, 노인돌봄(요양) 서비스 39.9%, 치매관련서비스 22.3%, 노인 고용·일자리지원 15.0%로 나타났다. 동부 거주 노인은 돌봄(요양) 서비스, 치매 관련 서비스, 고용/일자리 확대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읍·면부 거주 노인은 빈곤 완화, 보건의료서비스, 노인특화주거지원, 주택 개보수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빈곤완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높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고용 및 일자리 지원, 사회여가문화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11-30] 노인정책에 대한 인지도(2023년)

(단위: %)

